

훈민정음통사

방중현 저 | 이상규 주해 국어학 연구 초창기의 문을 연 개척자적 계몽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말의 역사를 개괄하고, 민족의 고전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의 원문과 해석을 담았다. 한글 창제의 근본 원리를 해설, 국어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저술로 평가받는다. 현대의 고전이라 불릴만한 이 책의 행간에서 방중현 선생의 고결하고 단아한 학문적 숨결을 만날 수 있다.



훈민정음특사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훈민정음통사》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주)헤럴드는 출판인쇄를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래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상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해제

《훈민정음통사》와 한글 공동체

60년대 후반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웬만한 학생들은 세종이 지으신 《훈민정음》 어제 서문 정도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당시 생소했던 고어 글자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지극히 백성을 사랑하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위업에 매료되었던 일이 어제 같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생조차도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의 서문을 외우는 학생은 거의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대한민국의 나라 글자인 한글의 창제 서문이나 중세 고어 글자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느슨해졌는지를 말하고 있다. 겨레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내고 또 그 속에서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는 한글이 그만큼 푸대접을 받고 있는 작금의 인문학의 현실을 읽을 수 있다.

《훈민정음》 연구의 개척자 가운데 한 분이신 방중현 선생의 《훈민정음통사》(일성당서점, 1946년)와 《해석 원본 훈민정음》(진단학출판협회, 1946년) 두 책은 크기에 비해 알찬 내용으로 가득하다. 《훈민정음통사》는 한글 변천의 역사를 고찰한 내용이고 《해석 원본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본과 언해본을 해석한 내용이다. 십 수 년 전에 《훈민정음통사》와 《해석 원본 훈민정음》를 구입한 후 읽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꼼꼼하게 읽어 보았다. 이 책은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의 해독 방향과 관련한 연구, 특히 한자음의 연구나 현대 언어학적 재해석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훈민정음》에 대해 쉽게 또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방중현 선생과 북으로 간 홍기문 선생, 조선어학회 33인 가운데 한 분이신 김윤경 선생 등의 《훈민정음》 연구의 초창기 개척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안병희 교수의 《훈민정음 연구》(2007)를 비롯한 이처럼 풍성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날과 달리 참고 자료가 빈곤했던 40년대에 이처럼 많은 전적을 독파하고 《훈민정음》 연구의 초석을 깬 방중

현 선생의 고결하고 단아한 학자의 숨결을 이 책 행간에서 만날 수 있다.

그동안 이룩한 많은 《훈민정음》 연구의 기반은 바로 이 《훈민정음통사》와 《해석 원본 훈민정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탁월한 우리 민족의 현대 고전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훈민정음》 연구의 초창기 여건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사료 중심의 연구였다는 면에서 그 이후 많은 학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저술이었다. 허웅 교수와 이기문 교수의 국어사 연구와 강신항 교수와 유창균 교수로 이어지는 한자음과 성운학적 연구를 진흥시킨 촉매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안병희 교수의 중세 문헌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비롯하여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조망한 젊은 연구자들을 자극한 가치있는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이전 시기의 한자를 빌려서 쓰던 시대에 대한 연구로 서재극 교수와 김완진 교수의 향가 연구와 남풍현 교수의 이두와 구결 연구의 문을 열어 주었다.

이와 같은 《훈민정음》 연구의 고전 가운데 하나인 《훈민정음통사》와 《해석 원본 훈민정음》을 합본하여 가로 판형으로 바꾸는 한편 문체를 포함한 주석 작업을 하여 오늘날 교양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바꾸었다. 따라서 원저의 장별 편차도 약간의 이동이 있으며, 학술용어나 맞춤법과 표기 내용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달라지거나 통일한 부분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주로 주해자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해설과 참고 자료를 덧붙여 증보판 《훈민정음통사》를 새롭게 꾸며보았다. 결국 이 《훈민정음통사》는 한글의 발달과정을 설명한 《훈민정음통사》와 훈민정음을 해례본을 현대어로 해석한 두 권의 책을 함께 묶은 것이다.

《훈민정음통사》에는 원저자의 서문이 없어서 조선어학회에서 별본으로 발표한 〈훈민정음 해제〉를 대신 머리말로 올리고 원저에는 미주나 각주가 전혀 없지만 오

늘날 일반 독자들이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상세한 주석을 달았다. 그동안 새로운 자료가 많이 발굴되었으며, 《훈민정음》 연구 성과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그러한 연구 성과 가운데 꼭 필요한 내용이나 관련 자료는 미주 해설에 첨가하였다. 본문에 실린 각종 한문 인용문은 독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대부분 현대어로 옮겨 싣고 한문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주해 과정에서 원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였으나 원고를 오독하거나 잘못된 해석이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 작업은 2013년 한 학기 동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훈민정음 특강’ 강의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훈민정음》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방중현 선생이 쓴 《훈민정음통사》를 교재로 선택하여 박사과정 강혜미, 김예니, 배준영, 비신연, 서은영, 이수진 군과 석사 과정을 수료한 왕민, 김인규, 왕예 군의 원문 입력과 교정 작업에 도움을 받았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표음문자인 동시에 음소문자로서, 또 그 체계가 가장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자질 문자로서 인류의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손꼽고 있다. 한글을 통해 문자가 없는 인류의 지적인 구술 자료를 보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현재 한글 공동체는 남과 북을 합쳐 약 7천 5백만과 재외 동포 7백만,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2백만을 포함하여 점차 늘어나는 해외 한글의 학습자를 합치면 전 세계 약 10위권에 속한다. 앞으로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한글공동체 구성원이라면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이 책을 한 번쯤 꼭 읽어보아야 할 책으로 추천한다.

때마침 2013년은 한글날이 국경 공휴일로 지정된 해이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미 고전이 된 이 책을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일반 교양도서로 만들기 위해 기획한 일이다. 마침 사단법인 올재에서 흔쾌하게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주기로 하여 여간 고맙지 않다. 올재는 ‘지혜 나눔’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인문 고전 보급 및 기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글 전용화 정책 이후 위축될 수도 있는 전통적인 우리 한문 고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는 사단법인 올재 홍정욱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이번 한글날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재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고료 인 쇄 전액을 재단에 귀속시켜 이 책의 보급을 통해 온 국민이 한글을 이해하고 사랑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한글공동체 모두에게 이 책이 애독 고전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말과 글이 더욱 발전하여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한다.

567돌 한글날 국경 공휴일 지정을 기리며

2013년 10월 8일

이상규 씀

머리글*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께서 즉위 28(1446)년 병인 9월에 비로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상에 반포하셨으니, 금년이 바로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이 한 책으로서 세상에 전래하기는 그 수가 지극히 적은 데다가 더군다나 그 초간본임이 확실하다고 일반이 공인할 만한 그런 책이 나타난 일은 일찍 없었던 것이다. 누구나 다 가져야 할 것이니, 가지되 소중히 지녀야 할 것이요, 누구나 다 읽어야 할 것이니, 읽되 정밀히 깨달아야 할 것이지만 원체가 희귀함에야 어찌 하리요?

여기서 단 하나뿐인 이 전형필 씨 소장 of 진본(현재 간송미술관 소장본)을 진본 그대로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고자 이 영인본을 내게 됨이니, 특히 이 일이 《훈민정음》 반포 500주년(1946. 10. 9.)을 기념하게 됨에 있어서야 더욱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간단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연대와 반포된 시일을 찾아보면 그 사이에 3년이란 시일이 전후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의 기사로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조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고,/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무릇 문자(한자)나 본국의 이어(俚語, 변두리말)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 방종현 선생이 쓴 《훈민정음통사》(일성당서점, 1946)에는 본래 머리글이 없다. 선생의 소박하고 겸허한 성품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에 이 책을 재구성하면서 500주년 한글날 기념식 날 조선어학회에서 영인한(보진재 간행, 19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의 해제로 쓴 글을 머리글로 올린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이 기사에서 ‘훈민정음’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이 해에 생겼으니 그 때에 제정된 글자 수는 28자임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세종대왕께서 친제하신 한글 28자가 세종 25(1443)년 12월까지에는 완료되었음을 분명히 알려 주는 확실한 기록이다. 적어도 세종 25(1443)년 12월까지에는 창제가 완료되었음이 확실하다.

이 기록을 증명해 주는 몇 가지 역사적 증거를 들면 먼저 정인지의 서문에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시고/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고(자모는 발음기관을 형상하고 글자(모아쓰기, 음절문자)는 고전을 모방하였고),/소리에 인하여 음은 칠조에 합하여 삼극의 뜻과 이기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라고 한 것은 세종대왕께서 한글 28자를 창제하신 사실이 분명함을 말한 것이요, 다음으로는 이 훈민정음의 제작을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찬성하고 희망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반대한 유력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사실이 문헌상에 남아 있다. 그 중에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의 장문의 상소 같은 것이 그 분명한 예이다. 이 상소 문두에 이런 기록이 있다.

“신 등이 엮드려 보옵건대, 언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 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니,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어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엮드려 바라옵건대 성재하시기를 바랍니다.(臣等伏觀 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復出千古。然以臣等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懇, 謹疏于後, 伏惟聖裁)”

이것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듬해인 세종 26(1444)년 2월 20일에 있는 일로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었으니 《훈민정음》의 제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로서 추상해도 완성도 못한 것을 가지고 신하로서 그렇게 완강한 반대로 상소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역시 이 제작은 세종 25(1443)년에 확실히 완성되었던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줄 안다. 다음으로 세종 26(1444)년 2월에는 이 정음을 가지고 《운회》를 번역하도록 시킨 사실이 있으니 《세종실록》 세종 26(1444)년 2월 병신 조에 보면 아래와 같다.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이선로, 이개, 돈녕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에 나아가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과 진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모두가 성품이 예단하므로 상을 거듭 내려 주고 공역(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命集賢殿校理崔恒, 副校理朴彭年, 副修撰申叔舟, 李善老, 李瑄, 敦寧府注簿姜希顔等, 詣議事廳, 以諺文譯 韻會, 東宮與晉陽大君瑄, 安平大君瑔監掌其事。皆稟審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

이와 같이 《운회》까지 번역하게 한 것으로 보아서 《훈민정음》의 제작은 세종 25(1443)년 계해 겨울까지 완료되었음은 의심이 없는 바이다. 《운회》를 번역한 사

실은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문 중에도 들어 있다.

한 가지 더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용비어천가》와 같은 귀중한 책이 세종 27(1447)년에 이미 한문본이 완성되었음을 보아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세종 27년 을축 여름 4월에 쓴 정인지의 근서(勤書)에 의하여도 이렇하다.

“삼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말을 모아서 125장의 시를 지었으니, 먼저 옛날 제왕(중국)의 자취를 쓰고 다음에 우리나라 왕실 조상의 일을 서술했습니다. (謹採民俗稱頌之言, 撰歌詩一百二十五章, 先敘古昔帝王之述, 次述我朝祖宗之事)”

또 안지(1377~1464) 등의 진전(進箋)에도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찬술한 노래는 모두 125장이니 삼가 베끼고 제책하여 전과 함께 올립니다. (所撰歌詩總一百二十五章, 謹繕寫裝潢, 隨箋以聞)”

이상의 모든 기록에 의하여 훈민정음의 창작은 세종 25(1443)년 계해임이 확실한 것임을 거듭 말하여 둔다. 그리고 이 반포에 관하여는 《세종실록》 세종 28(1446)년 병인 9월 조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가로되(是月 訓民正音成 御製曰)”

이와 같이 세종 28(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이라는 한 책으로서 간행되어서 일반에게 반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간행이 완성된 날짜에 대하여는 《세종

실록》에도 분명하지 않고 그 외 다른 곳에도 어느 날이라고 지적하여 기록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반포 기념일에 관해 지나간 병인(1926)년 즉 훈민정음 반포 8주갑(480주년)에 처음으로 이 기념의 날(가갸날)을 가지게 될 때에 부득이 9월 그믐인 29일로 정하였다가 그 후 태양력으로 이 날을 환산하여 10월 29일로 2년 간을 지내 왔고 다시 역서 관계로 10월 28일로 작성되어 여러 해 지내 왔는데 지난 간 1940년에 이 원본인 해례본이 발견되어 그 정인지 서문 연대기 중에 있던 모든 기록보다도 좀 더 자세히 9월 상한(上澣)이라고 기록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어느 날인지 딱 막연하던 것이 상한이란 두 글자의 명기에 의하여 좀 더 좁혀져서 9월 10일로 정하고 나니 이만큼 줄어진 날짜를 10월 28일에서 뽑으매 양력으로 10월 9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올해(1946년)에도 《훈민정음》 반포 500주년 기념일(한글날)을 이 10월 9일로 지내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세종대왕께서 세종 25(1443)년에 창제를 완료하고 세종 28(1446)년에 간행물로서 반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25년보다 28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세종 28(1446)년 병인년 9월의 기사와 또 그 후에 성호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에 역시 병인이라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언자는 세종대왕께서 병인년에 창제하셨는데 무릇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없고(我東諺字, 創於世宗朝丙寅, 凡有音者莫不有字)”

또 여암 신경준(1712~1781) 같은 이도 세종 28(1446)년 병인에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어제하셨다고 《훈민정음운해》에 기록이 있으니 이것들이 모두 그 후 마치 세종 28(1446)년 병인에 한글을 창제한 결과로 일반이 생각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

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글의 창제는 세종 25(1443)년이 분명한 것이고 그 간행 반포된(해례본 책이 완성된) 것이 그 후 3년 만인 세종 28(1446)년 9월에 된 것임을 상술한 여러 사실에 비추어 능히 구별할 수가 있다.

끝으로 세종대왕께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 《훈민정음》을 그와 같이 많은 고심을 쌓으면서 창제하였는지 하는 그 동기를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그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서보다도 어제 서문에 밝게 써어 있으니 아래와 같다.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막하게 여기어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따름이다.(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易習, 便於日用耳.)”

이것을 보아 그 이유를 요약하면 첫째로 우리나라 어음이 중국과 다르다는 점이니 즉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어음이 있는 만큼 중국 한자만으로는 이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어음에 맞는 나라 글자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는 한자와 같이 특수한 또 어려운 문자가 아니고 백성 전체가 누구나 다 쉽게 배우고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는, 우리 어음에 맞는 이런 보편성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 함이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의 교도에 고뇌하신 것은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으니 일일이 거론할 것조차 없다. 즉 특수한 어음을 가진 한 독립 국가임에는 그 국가에 맞는 문

자를 두어야 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 백성을 위한 나라 글자가 필요한 점에서 세종대왕께서 이 문자를 창제하셨다고 보겠다.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그 제작의 원리를 잠깐 찾아보면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서 초성 17자는 아, 설, 순, 치, 후의 오음에 기본을 두고 이 발음 기관을 모상하여 단획으로부터 강도를 따라서 점차 가획하는 조직이라고 보겠다. 즉 후음은 목구멍을 상형하여 ‘ㅇ’으로 제자하고 이 ‘ㅇ’에다 한 획을 더하여 ‘ㅎ’이 되고 다시 한 획을 가하여 ‘ㅎ’이 되어 가는 순서를 보였으며, 설음으로 보아도 혀가 윗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상형하여 ‘ㄴ’으로 제자하고 여기서 ‘ㄷ’, ‘ㅌ’으로 점차 한 획씩 가한 것이 된다.

또 중성을 보면 하늘(天), 땅(地), 사람(人) 삼극에 근거를 두었으니, 하늘은 둥그므로 최초 자인 ‘ㅇ’을 원으로 상형하고 땅은 평평하므로 두 번째 글자인 ‘ㅡ’는 평평한 꼴을 상형하고 세 번째 글자인 ‘ㅣ’는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형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천원(天圓), 지평(地平), 인립(人立)을 상형하여 기본의 세 글자를 창작하고 다음에는 이 세 글자가 서로 합하여 다시 하늘과 땅과 만나서 ‘ㄷ’이 나고 사람과 하늘이 만나서 ‘ㅌ’이 나며, 땅과 하늘이 만나서 ‘ㅊ’, 하늘과 사람이 만나서 ‘ㅋ’이 되니 이것이 두 획으로 된 것이요, 또 이 순서 그대로 ‘ㅌ, ㅊ, ㅊ, ㅋ’의 세 획의 글자를 만드니 이것이 3(ㅇ, ㅡ, ㅣ), 4(ㄷ, ㅌ, ㅊ, ㅋ), 4(ㅌ, ㅊ, ㅊ, ㅋ) 글자를 합하여 중성 11자가 가획의 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초성은 발음기관을 모상하여 거기에 가획(加劃, 획을 더하여)하여 제자된 것이요, 중성 글자는 하늘(天), 땅(地), 사람(人) 삼재를 기본으로 하여 합성되어서 제자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자의 원리에 의하여서 글자 순서도 자연 생겼다. 그 후 이것은 《훈몽자회》의 범례와 같은 변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니 물론 이 변전은 그 실용의 현상

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한 가지 이 문자의 제작이 이두 토의 모양으로 변천해 가는 한자의 약체를 가지고 쓸 것이거늘 새로운 자모를 짓는 길로 나간 것이 여간 고맙고 귀한 일이 아니다.

이상에서 한글의 창제 및 반포의 연대와 그 제작의 경로를 간략히 또 순서 없이 나열하였다. 이제 훈민정음이 세종 25(1443)년 12월에 창제된 이후 오늘날까지 500년간의 변천된 상황을 그 사실대로 기록해 보면 간단히 추려서 아래와 같다.

세종대왕께서는 최만리 등과 같은 완강한 반대자의 상소도 불구하고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등의 보좌를 얻어서 한편으로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석보》를 간행하는 등 이 글자의 보급에 전심하였다. 이 《훈민정음》을 창작하는 데 직접 관여한 문종과 세조는 그 부왕의 성업에 고침이 없이 지내 왔다고 할 수 있으니 세조와 같은 분은 간경도감에서 많은 불경을 언해하여 오늘에 귀중한 자료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성종 때까지는 그래도 이 글자를 창제하는 데 참관된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어서 《훈민정음》 제작 당시의 기운이 아직 남았었으나 그 다음 연산군 때에 이르러서는 훈민정음은 그 사용의 금지를 당하고 말았다. 여기서 그러지 않아도 신흥하는 한문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던 차에 이러한 일까지 당하고 난 우리의 글은 그만 그 자취를 점차 사회의 외면에 나타내지 못하고 겨우 언해로나 또는 내방(內房)의 사용으로나 되는 천대를 받게 된 것이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시어 불과 80년만에 이와 같은 수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훈민정음은 이제 국력으로 강제로 금지를 당하고 보니 한문만을 숭상하는 그 시세 밑에서 다만 허용된 오직 한 길인 언해의 길이 이 명맥을 연장시켜 올 뿐이었다. 한문을 장려하는 때, 즉 한자를 공부하는 데 편의를 주는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겠다. 바꾸어 말하면 이 훈민정음이 그 자체적 발전이라든가 이것을 가지

고서 표현된 문화적 향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꿈조차 꾸어 보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다가 종종 조의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최세진(1468~1542)이라고 하는 역학자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필요한 중국어를 학습하게 하고자 역어류와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하여 운서류 간행에 착수하여 여기에서 우리의 훈민정음을 당시 통용의 실상을 종합하여 그 저서에 인용되는 범위를 정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훈몽자회》의 범례에 나타나 있다.

이 《훈몽자회》의 언문, 세속에서 소위 반절 27자라고 한 것은 최세진이 당시의 실용을 주로 하여 새로 규약화 하였고 표해화 한 것이니 이 《훈몽자회》의 요약이 결국 그 후 약 370년 간이나 이 범위에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지켜져 사용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임진왜란(1592~1598)을 경계로 하여 그 후부터는 좀 더 그 차이가 글자 수나 글자체 상에서 확실히 커진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어학의 자료로도 변천이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훈몽자회》에서는 27자라고 하여 별써 ‘ㅎ’ 한 글자를 잃어버렸고 그 후 임진왜란 후로 넘어서면서는 어느 사이인지 ‘△’이 보이지 않고 방점이며, 받침으로 ‘ㄹㅎ’ 같은 것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또 ‘ㅇ’도 그 본질을 찾을 길이 없어졌다. 물론 글자체 상에서도 창제의 원리에 의지된 것이 점차 희미해져 갈 뿐이다. 이러하여 오다가 한글 사용의 금지도 시일이 흐름과 함께 해이해지고 한문의 유가들 사이에도 점차 모든 것은 실용에 치중하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농후하여 감에 따라서 우리의 문자에 대한 학문적 비판이 실용으로 오는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훈민정음이 발포(發布, 방중현 선생은 ‘발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반포’라는 용

어로 바꾸었음)된 이후 이것을 문제 삼아서 온전한 저술을 도모한 이는 영조 때의 신경준(1712~1781)이란 이가 있어서 《훈민정음운해》(1750년)를 지은 것이 그 처음이고 그 후 순조 24(1824)년에 유희(1773 ~1837)라는 이가 《언문지》를 저작한 것이 있으니 위의 두 권 책이 있을 뿐이다. 《훈민정음》 이것만을 온전히 논고한 것이 이 2종의 책임을 보아서 그 간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 편에 있던 《훈민정음》이 고종 31(1894)년 갑오경장의 신기운을 맞음과 동시에 창제 이래에 처음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이름부터도 언문이니 반절이니 하는 부속된 이름에서 분리되어 국문이니 국자니 하는 독자의 명칭을 얻게 되었고 그 사용하는 세력도 한문과 섞어 쓰라는 즉 한글을 한자와 동등의 지위를 준 것이 된 셈이다. 그리하여 문자 상으로 또는 문법, 더러는 음운을 우리 자신이 논하는 이가 많이 생겼다.

그러나 뜻밖의 암흑(일제 식민)이 정치사상에 밀려들어 다시금 이 문자의 사용은 구속과 제한을 극도로 받게 되었다. 갖은 압력(조선어 말살 정책)이 가해지는 반면에 우리의 문자는 또 한 길을 뚫어서 그 앞길을 열고 나갔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는 진리로서 영원히 그 값을 빛내는 것임을 느끼는 바이다.

이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지난 500년 동안이 이러하였다.

제1기로 세종 25(1443)년에 훈민정음은 창작이 되었으나 그 후 80년이 다 못 되어 연산군에게 사용의 금지를 당하고 만 형편이다.

제2기의 전반으로 중종 조의 최세진이란 이가 실용을 종합하여 《훈몽자회》(1527년)의 범례로 언문, 곧 세속에서 소위 반절 27자라고 제목하며 나타냈으니 그래도 임진왜란 전까지는 자료상으로도 과한 변천은 없었다. 그 후반으로 들어서면서는

글자체 상으로나 자료로서나 확연히 달라지면서 고종 때까지 내려왔다.

제3기로 갑오경장이 국문이란 명칭을 우리 문자 위에 가져오면서 일반적으로 이 글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우리 손으로 문법 같은 책이 나오고 국한문의 혼용이 이에 시작되었다.

제4기로 비로소 우리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에 관하여 그 변천을 찾아서 사적으로도 고찰을 시작하고 이 연구를 위한 자료도 널리 구하고 또 알려졌으며, 더욱이 이 문자의 철자법에 관한 현저한 정리도 도모하였다. 이 시기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에 대하여 갖은 암흑의 고압이 가해 갈 뿐이었다. 그러나 500년 간 묻혔던 훈민정음의 원리도 이 어려운 때에 그 틈을 뚫고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시세의 힘은 인력이 미치지 못할 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세상은 정도에서 움직이고 학문은 진리에서 탐구될 뿐인가 한다.

우리 문자의 앞길은 오직 이에 양양하고 빛날 것뿐이다.

이상에서 훈민정음의 제작, 반포 및 그 내용 경개와 반포 이후의 변천 상황에 관하여 약술하였거니와 이제 끝으로 간단한 해제를 덧붙여 기술하기로 한다.

《훈민정음》이라고 이름 붙은 책이 세상에 전래되기는 현재 3~4종에 지나지 않는다. 희방사 판본인 《세종어제훈민정음》(언해본)과 박승빈 씨 소장인 단행본과 전형필 씨 소장의 고본(《훈민정음》 해례본)이 그것이다. 이 밖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한문본 예의로 《세종실록》의 기록(태백산사고본, 정족산사고본)이 있고 일본 궁내성 필사본이 이미 사진판으로 만들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으로 의거할 것은 결국 희방사 본과 박승빈 씨 본의 2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에 이 보급을 도모하여 한글사에서 지나간 1927년에 그 사진본을 내었고 또 조선어학연구회(계명구락부)에서 1932년에 박승빈 씨

소장본을 사진으로 찍어 발행하였으며(이궁중, 《훈민정음》, 동광당, 1932. 8. 20), 그 후 이것을 좀 더 널리 실용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조선어학회에서 1937년에 석판 인쇄(보진재)로 많이 간행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의 보급 공은 실로 큰 것이 있다고 할 것이다.

희방사(池北方寺)본은 경북 영주 풍기 그 절에 아직까지 귀하게도 그 당시의 목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니(한국 전란 중에 소실되었음) 이것은 《월인석보》(목판 중 1판을 못 찾았다)의 권두에 붙어 있는 15장의 훈민정음 본문의 해석인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세종어제훈민정음’이라고 긴 제목이 붙어 있고 “隆慶二年 戊辰 十月 日 慶尙道 豊基 小伯山 池北方寺 開板”이라는 연대를 분명히 부기하여 간행되어 있다. 연대가 분명한 언해본(주해본, 주석본)으로서 최고의 것이라 할 것이다. 또 박승빈 씨 본은 지난간 1933년에 조선어학회 영향을 던진 조선어학 도서 전람회에 출품이 되었으므로 일반이 그 실물에 직접 대해 볼 일이 있거니와 그 후는 이 거취에 관하여는 알 길이 없고(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다만 그 사진본에 의하여서 그 본체를 엿볼 수가 있다. 희방사 본에 비하면 이름이 ‘세종어제’를 떼어 버린 ‘훈민정음’이란 것뿐으로 된 점이 다르고 지질도 오래되었고 내용 자체도 《월인석보》와 같은 양식이므로 생각컨대 이 두 책은 한 숨씨로 된 동종 본이라고 보고자 한다. 그 고증을 박승빈 씨가 그 사진본에 부기한 바 있다.

여기서 나는 이상에 언급한 이들의 책을 모두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부른다. 또 달리 전형필 씨 소장 of 고본(현 간송미술관 소장)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불러서 구별하는 바이다. 그러고 보면 현재 우리가 보는 《훈민정음》에는 ‘언해본’과 ‘해례본’의 2종(‘실록본’ 포함 3종)이 있는 셈이다. 이제 이 영인본은 언해본이 아니고 단 하나뿐인 해례본의 영인이니 이 해례본의 진실한 보급임에 이 가치는

높다고 평할 수 있다.

이제 이 영인 해례본과 언해본(‘주해본’을 언해본으로 통일함)을 비교해 보면 《훈민정음》의 본문을 한글이 아닌 한자를 빌어서 해석한 것과 또 그렇지 않고 그 본문을 한글을 가지고 해석한 그 점에서 두 종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겠다. 정인지의 서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했거니와 언해본에는 아무런 해례도 붙지 않았으니 생각컨대 한문자를 가지고 그 해례를 상가(詳加, 상세하게 덧붙임)한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원본에 가까운 것이라 할 것인가 한다. 이 영인본의 대본이 세종 28(1446)년 병인에 간행된 초판본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임진란 이전의 고본이며, 초판본의 원형을 갖춘 것이라고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고 믿는다. 다만 만일 《훈민정음》의 초판본이라면 아마도 세종 16(1434)년에 주조된 갑인 활자로 간행되었을 터인데 이 대본이 활자본이 아닌 목판본인 점에서 나는 늘 한 가지 의심을 품고 있는 것뿐이다. 하여간 이 영인본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진 《훈민정음》 해례본 원형의 최고본이요, 또 가장 믿을 만한 진본임에는 틀림없다.

또 언해본과 다른 점은 그 제작의 원래에 맞는 글자체를 사용한 것이라든가 치두, 정치에 관한 조문이 해례본에는 빠져서 없는 것이라든가 실로 이 해례본에 있는 해례는 500년 간에 문제되어 오던 여러 가지 미상한 사실을 밝혀 준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참으로 귀한 해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언해본과 해례본을 가지고 어느 것이 《훈민정음》의 원본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나는 생각컨대 문제를 잘못 잡은 줄로 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훈민정음》 언해본의 원본이 어느 것인가? 또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이 어느 것인가? 이렇게 고쳐 붙여야 될 줄로 안다. 초판본은 으레 창작의 원리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서 한문을 가지고 해례본과 같이 훈민정음 본문을 언해한 것이요, 또 이들의 모범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근본이 다른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끝으로 전형필 씨가 이 소중한 책을 잘도 보관하여 주신 것과 또 이 사진본의 대본으로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신 고마움에 감사하는 바이다.

훈민정음 반포 500주년 한글날 기념

1946년 10월 9일

방종현 씀

| | |
|------------------------|-----|
| 《훈민정음통사》와 한글 공동체 | 5 |
| 머리글 | 9 |
| 1. 훈민정음통사 | 25 |
| 제1편 훈민정음 이전 | 26 |
| 제1장 향가 | 29 |
| 제2장 이두와 토(구결) | 32 |
| 제3장 《계림유사》 | 36 |
| 제4장 고어와 향약명 | 41 |
| 제2편 훈민정음의 저작 | 47 |
| 제1장 명칭 | 48 |
| 제2장 창작 및 반포의 연대 | 65 |
| 제3장 예의 본문 | 71 |
| 제4장 반대 상소문 | 84 |
| 제5장 기원설 | 100 |
| 제3편 훈민정음 이후 | 113 |
| 제1장 제1기 훈민정음시대 | 114 |
| 제1절 시대 통설 | 114 |
| 제2절 《용비어천가》 | 122 |
| 제3절 《동국정운》 | 126 |
| 제4절 《사성통고》 | 132 |
| 제5절 《월인석보》 | 139 |
| 제6절 언해와 간경도감 | 143 |
| 제7절 《악학궤범》 | 146 |
| 제2장 제2기 언문시대 | 152 |
| 제1절 전반기 통설 | 152 |
| 제2절 최세진과 그 저작 | 156 |
| 제3절 《송강가사》 | 173 |
| 제4절 후반기 통설 | 177 |
| 제5절 운서 | 180 |
| 제6절 무예제보 | 187 |
| 제7절 《언문지》 | 196 |

| | |
|-----------------------------|-----|
| 제8절 부록..... | 201 |
| 제3장 국문시대와 한글시대 | 203 |
| 제1절 시대통설..... | 203 |
| 제2절 사전..... | 207 |
| 제3절 문법지..... | 211 |
| 2. 해석원본 훈민정음..... | 215 |
| 제1편 훈민정음 예의 | 217 |
| 제2편 훈민정음 해례본..... | 226 |
| 제1장 제자해..... | 227 |
| 제2장 초성해..... | 260 |
| 제3장 중성해 | 261 |
| 제4장 종성해 | 265 |
| 제5장 합자해..... | 269 |
| 제6장 용자례..... | 276 |
| 제7장 정인지 서문..... | 281 |
| 제3편 훈민정음 언해본..... | 287 |
| 미주..... | 305 |
| 미주1. 차자표기 발달..... | 306 |
| 미주2. 고려시대 어휘자료..... | 325 |
| 미주3. 훈민정음 창제..... | 349 |
| 미주4. 고활자의 개관..... | 441 |
| 미주5. 《용비어천가》의 특수 한글 표기..... | 443 |
| 미주6. 사역원 학습서..... | 447 |
| 미주7. 간경도감 불경언해서..... | 449 |
| 미주8. 《동국정운》..... | 454 |
| 미주9. 《홍무정운역훈》..... | 465 |
| 미주10. 《사성통고》..... | 471 |
| 미주11. 《용재총화》..... | 477 |
| 미주12. 숙종 시대 이후의 성운학..... | 478 |
| 참고문헌..... | 522 |



훈민정음통사



훈민정음 이전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문자를 사용하여 왔는가? 물론 우리의 고대 문자에 관한 기록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가령 《평양속지》 권3에도 이런 것이 있다.

“성내 법수교 주변에 고비석이 하나 있는데 자형이 언자도 아니고 범자도 전서자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능히 깨치지 못하니”¹

이와 같이 알아볼 수 없는 자형으로 쓴 비문이 있으니 이 문자는 그럼 어떠한 것일까? 그러나 아직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정확한 고대 문자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 없다.²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에 보아서 이렇게 즉 한문자와 또는 그 약체를 가지고 표현해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네의 가슴에 사무쳐 오는 정과 회포를 발현한 향가라든가 중국 사람이 우리말을 기록해 놓은 《계림유사》라든가 조선 사람이 적어 놓은 의약의 물명을 기록한 것이라든가 이것들이 모두 그 내용을 보면 다 한문자를 빌어서 그것을 발표한 것이다.

또 신라 때에 설총이 방언으로 구경을 해독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여기서 이 방언을 이른바 이두로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 이 이두가 한 개인이 독창한 것이건 아니건 하는 문제는 달리 미루기로 하고 이 이두란 것이 역시 한자에 의거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또 ‘토(吐)’³라고 하는 것을 경서 같은 데 달아서 읽었으니, 예를 들면 한문자 그대

1 “城內法首橋邊有碑 字形非諺非梵非篆 人莫能曉”, 《평양속지(平壤續志)》 권3.

2 김윤경(1946) 교수는 우리 고문자 기원에 대해 ‘삼황내문, 신지비사문, 왕문문, 각목문’ 등의 기원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고대문자 기원설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가림다문자설은 안호상(1983) 선생이 <제2회 한국사 학술회의 자료집>에서 제기하였다. 그는 단군시대에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근거를 《한단고기》의 <단군세기>에 “삼랑을 보루이 정음 38자를 만드니 이를 가림토라고 한다”는 기록을 제시하였으나 그 기록의 사실성에 대한 의문과 문자 발달사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이 아니다. 권덕규(1927), <정음 이전의 조선글>, 《한글》 동인지 창간호, 조선어문잡지 참고.

3 토 가운데 이문으로 발전된 것, 곧 서사토는 이두의 범주에 들고 구송어의 토는 구결의 범주에 속한

로 ‘爲古’라고 하여 ‘하고’의 뜻을 표한 것이 그 후 점차 간략하게 되어 ‘爲’자의 상부와 ‘古’자의 하부만을 따서 ‘ㄴ ㅁ’라고 쓰도록 변천되어 간 그런 형편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초에 편찬된 《대명률직해》에서 이 이두가 이미 한문자로 이용되었음을 보게 되었고 그밖에 비명이나 종명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이며, 다음으로 ‘토’라고 하는 것이 한문을 읽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하여 경서 같은 데 달려 읽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여기서 이른바 이두나 토라는 것이 결국 한문자 또는 그 약체로서 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생각하건데 이와 같이 한문자를 떠나지 않고 늘 그것에 관련시켜서 계속해 왔으니 만일 좀 더 이것이 발전해갔다고 하면 아마 일본과 같이 소위 ‘평가명(平假名, 히라가나)’이란 것과 비슷한 어떤 것에 이르지나 않았을까 한다. 즉 자음과 모음을 떼어서 쓰는 오늘날의 자모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문자와 그 약체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말을 표시하기에는 너무나 그 성질에 맞지 않으므로 새 길을 잡아서 훈민정음이란 28자의 자모를 창제하였기 때문에 한자로서 우리말을 표시하려는 그 사용 상의 변천은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을 요약하여 우리 문자의 형편은 실로 훈민정음 이전에는 한문자를 빌어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대의 이것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한문자에 의거하는 것이 한 방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문자의 사용을 각 방면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나아갈 우리말의 고대 연구만 해도 이 문제에 가로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적어도 훈민정음 이전 우리말의 연구는 한문자의 연구에 의거하여서 해명될 수 있는 것이 큰 것임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 문화의 전반에서도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된다.

다. 한문의 대문을 읽기 위해 토를 단 음독구결(音讀口訣, 순독, 구송구결)과 《구역인왕경》(상)과 같이 새김으로 읽는 석독구결(釋讀口訣)이 있다. 이때 구결 곧 토는 한자 정자체와 약자체 형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 각필구결(角筆口訣) 자료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제장 향가

이제 향가(鄕歌)를 말하는 순서로서 이 말의 뜻부터 먼저 생각해보기로 하면 향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시골 노래라는 뜻일 것이다. ‘鄕’자는 ‘京’자에 대한 시골이란 뜻이니 이것은 즉 중국에 대한 조선이란 뜻으로 쓰인 것임을 우리는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한문자는 그대로 ‘문자(文字)’라고만 쓰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 문자인 훈민정음은 ‘언문(諺文)’이라고 하여 ‘諺’자를 쓰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말을 이름 지어 방언이니 언어(諺語)니 하는 것들도 다 이런 류이다. 고려 말에 쓴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뜻의 향(鄕)자가 여러 곳에 보이고 또 조선 초기에서 보면 의약서 같은 데서도 중국서 나는 약은 당재(唐材)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약은 향약(鄕藥)이라고 하여 《향약구급방》이니 《향약집성방》이니 하는 서책의 이름까지도 있으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한방 물명을 우리말로 바꾸어 표기하고자 할 때에도 이것을 ‘향명(鄕名)’이라고 하여 역시 ‘鄕’자를 써서 우리말이란 뜻을 표시해 두었다. 그러므로 만일 이들에 의거하여 해석한다면 향가라는 것은 그때에는 그저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온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즈음에 실제로 이 향가라고 알려져 있는 뜻은 그런 광의의 것이 아니고 신라 내지 고려 초기에 부르던 노래 즉 고대에 부르던 우리나라의 노래를 총칭하여 향가라고 하는 것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향가는 《삼국유사》에 14수가 있고 《균여전》에 11수가 있어서 합하여 25수가 남았으니⁴ 이와 같이 신라 내지 고려 초기에 부르던 노래로서 한자를 빌어서 표기된 현존된 이 25수를 가리켜 향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의 해석인 것이다.

4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14수는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헌화가(獻花歌), 안민가(安民歌), 찬기파랑가(贊耆婆郎歌), 처용가(處容歌), 서동요(慕童謠),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 풍요(風謠), 원왕생가(願往生歌), 두솔가(兜率歌), 제망매가(祭亡妹歌), 혜성가(慧星歌), 원가(怨歌), 우적가(遇賊歌)’가 있으며 《균여전》에 실린 보현십원가 11수는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 칭찬여래가(稱讚如來歌), 광수공양가(廣修供養歌), 참회업장가(懺悔業障歌), 수희공덕가(隨喜功德歌), 청전법륜가(請轉法輪歌), 청불왕세가(請佛往世歌), 상수불학가(常隨佛學歌), 형순중생가(恒順衆生歌), 보개회향가(普皆迴向歌), 총결무진가(總結無盡歌)’가 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 25수의 향가라는 것이 어떤 체제의 것인가? 이제 그 25수 중의 한 두 수를 예로 들어서 그 전체를 미루어 참고로 하면 아래와 같다.

處容歌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 何如爲理古

이것이 그 원문이니 《악학궤범》 권5에 기록된 〈처용가〉 중에 이 해석의 일부뿐이라고 볼만한 것이 들어 있다.

중엽, 東京 불근 두래 새도록 노니다가
부엽, 드러 내 자리를 보니 가르리 네히로새라
소엽, 아으, 돌흔 내해러니와 돌흔 뉘해어니오

이제 이것을 참고하고 또 여러 고어의 지식을 인증하여 이 원문의 전부를 직해하면 이러한 것이 되리라고 본다.

東京 불근 둘에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보곤 가르리 네히러라
돌흔 내해엇고 돌흔 뉘기해언고
본디 내해이다마른 앓어늘 엇디 흐릿고.

또 짧은 것을 하나 더 들면 이러하다.

薯童謠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卵乙抱遺去如

이것은 고주해가 없으므로 따로 참고할 것이 없고 다만 《삼국유사》 권2에 기록된 것으로 이 동요가 생겨서 전 서울에 퍼지고 백제 무왕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를 결국 취해 얻은 그 원문의 사실을 토대로 하여 직해하면 이런 것이리라고 본다.

善化公主니몬 늬 그스기 열여두고

薯童房을 바미 늬 안고 가다

여기서 ‘卵乙’이 해석이 좀 곤란한 것이니 혹은 ‘於乙’로 보아 ‘늬’이라고 읽을 것이 아닌가도 한다. 그것은 ‘卵’이 ‘宛’로 되어 ‘於’에 근사하므로 이렇게 보고자 하나 원문을 함부로 오자라고 하여 고쳐 읽는 것 같은 일은 누구나 삼가야 할 줄로 안다.

여기서 일일이 이들 한자에서 우리말로 옮겨 읽는 그 이유를 일일이 인증하여 상세하게 논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이 향가 같은 것을 풀어 읽는 데에는 고대에 사용된 한자에 관한 세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곧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말로써 그 당시까지 거슬러 소급할만한 우리말의 고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울러 준비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할 것이다.

이 향가의 완전한 해독은 우리 문학사상, 우리 어학사상 중대한 일이라 하루 바빠 되어야 할 일이지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자의 연구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말의 역사적 고찰도 그렇게 단시일에 해결될 것이 못 되므로 여기에서 이 향가의 완전한 해독은 역시 다른 준비 자료와 아울러 얼마 동안의 성의 있는 연구의 시일이 걸려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참고서로는 《삼국유사》, 《균여전》, 《악학궤범》, 오쿠라 심페이가 지은 《향가 및 이 두 연구(鄉歌及吏讀の研究)》(1929년), 김태준 편 의 《조선가요집성》(1934년), 양주동의 《조선고가연구》(1942년) 등이 있다. 그 외 단편들이 몇 개 있다.⁵

5 향가 연구의 주요한 성과로는 서재극(1975),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형설출판사. 김완진(1980), 《향가해독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양희철(2008), 《향찰연구 12제》, 보고사. 박재민(2013), 《신라 향가 변증》, 태학사. 등이 있다.

제2장 이두와 토(구결)

이두(吏讀)는 그 명칭이 ‘이도(吏道)’, ‘이두(吏頭)’, ‘이토(吏吐)’ 등의 여러 가지로 그 비슷한 음의 한자를 가지고 표기해 있으나 이것을 읽어오기는 다 ‘이두’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이두가 꼭 어느 때에 누구의 창작이라고 단정을 내리기는 이것이 그 자체가 한 개인의 독창에만 의한 것 같지 않은 여러 점에서 신라 때 설총의 창정이라고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기록으로는 조선 태조 4(1404)년에 된 《대명률직해》의 발문(金祗)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본조의 삼한 시대에 설총이 방언 문자를 제작하여 이도(吏道)라 하고 토속에서 저절로 생겼으나 열심히 배워 빠르게 바뀌어 집집마다 사람들을 가르쳐 깨우치니 장차 책으로 베풀어 이도(吏道)로 읽으니 소통함이 능히 가능하니 운운”⁶⁾

이와 같이 거금 오백여년 전에 벌써 전한 것으로 설총이 창작한 방언을 즉 ‘이도(吏道)’라고 하여 ‘道’자를 쓴 것임을 보게 된다. 여기에 따라 이도(吏道)의 제작자가 설총이 되는 것이요, 그 명칭은 이도(吏道)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을 믿는다고 하면 ‘이두’는 설총 이전에 이미 싹틀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추측되는 것이다. 다만 이 시작은 그렇게 오래지마는 그 발전이 그리 성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훈민정음》의 창작으로 인하여 결국 정체된 형편에 이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명칭의 글자가 ‘도(道), 두(讀), 두(頭) 토(吐)’ 등으로 사용된 것은 물론 그 자음의 비슷함에 따랐다고 하겠으나 기록상으로는 ‘도(道)’자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일 오래고 다음으로 ‘두(讀)’자가 사용되어 가장 많이 쓰였으니 훈민정음 창제의 다음 해인 세종 26(1444)년에 최만리 등의 이 반대 상소문 중에서 이 ‘讀’자를 사용하여 그 유래가 오래과 그 근거가 한문자에 관계한 것임을 말하였으며, 세종

6 “本朝三韓時，薛聰所製方言文字，謂之吏道。土俗生知習熟，本能遽革，焉得家到戶諭每人而教之哉。宜將是書，讀之以吏道，導之以良能云云.”，《대명률직해》 발문.

28(1446)년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에서 역시 이 ‘讀’자를 사용하여 그 효용이 원할지 못하고 혹삼(或澹, 혹 겹끄럽고)하고 혹질(或窒, 혹 막히고)하다고 한 것이 있어서 반대 상소문과는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숙권이 지은 《패관잡기》⁷⁾와 이의봉(1733~1801) 편 의 《고금석림》⁸⁾과 이규원(1833~1901)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 다 ‘讀’자로 쓰여 있다. 최근에 이르러 《유서필지》⁹⁾에는 〈이두훈편〉이라고 하여 ‘頭’자를 써서 1자류에서 7자류까지로 나누어 기록하고 또 ‘이토(吏吐)’라고 하여 ‘吐’자도 그 책에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두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가를 보면 《대명률직해》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다.

社稷乙危亡爲只爲作謀爲行臥乎事

사직을 위망히기삼 작모히얏누은일

凡諸物乙買賣爲平矣 買者賣者和同不冬 市裏凡事乙擅權爲 專取其利爲旡 反賣人等亦 牙人同情爲 奸謀以賣物乙良 價賤物乙 貴物是如爲旡 買物乙良 價貴物乙 賤物是如爲在乙良 杖八十齊

무릇 재물을 매매히오되 살 사람은 팔 사람과 서로 같지 안들(아니하여) 시장 안에서(市裏) 무릇 물건을 천권(擅權, 권리를 마음대로)히며 전매하여 그 이히며(이익을 취하며), 반대로 팔 사람들이 아인(牙人, 중개인)과 함께 뜻을 같이 히어, 간모(奸謀, 간사한 모의)로써 매물올란 가천물(價

7 《패관잡기》: 조선 중기에 어숙권이 지은 수필집 《광사》에 6권 완본이 들어 있고, 《대동야승》에 4권까지, 《시화총림》에 시화 부분만 발췌 수록되었다. 《광사》의 원본은 소실되었고 《대동야승》 수록의 4권본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권두에 주원장(朱元璋)의 홍무 원(1368)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 왕조의 건국과 함께 명나라에 내왕한 사절들과 요동, 일본, 대마도, 유구(琉球) 등지에 관련된 유사(遺事), 풍속과 시인, 묵객들의 언행과 재인, 기예, 축첩, 동요 등을 기술한 패관문학의 대표작이다. 《대동야승》에 수록된 4권과 《시화총림》 권2에 초록된 시화 부분이 남아 있다.

8 《고금석림》: 이의봉이 정조 13(1789)년에 우리말과 중국어를 비롯하여 흉노, 토번, 돌궐, 거란, 여진, 청, 일본, 안남, 섬라(暹羅: 삼, 타이) 등의 여러 언어의 어휘를 모아 해설한 어휘집으로 40권 20책 필사본이다. 특히 권29~34는 《삼학역어(三學譯語)》로 18세기에 간행된 《몽어유해》, 《동문유해》, 《왜어유해》 등을 참고하여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의 어휘를 모은 것이다. 권39~40은 원, 명나라 때 이학서(史學書)로는 서원사(徐元瑞)가 지은 《이학지남》과 최세진이 지은 《이문집람》을 인용하여 이문의 특수 어휘를 해설한 것이다. 부록은 〈나려이두〉와 〈훈민정음〉이라 하여 이두와 언론 자모를 실었다.

9 《유서필지》: 《유서필지》의 이본으로는 경판본으로 무교본(1844년), 완판본으로는 임서완판본(1872년), 임진완서본(1892년), 완서계본(1906년), 서계서포본(1911년) 등을 포함하여 간행된 미상본이 다수 있다. 전경목 외(2006)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참조.

賤物, 가격이 낮은 물건)을 귀물(貴物, 귀한 물건)이라 하며 매물을란 가귀물(價貴物)을 천문(賤物, 낮은 물건)이라 하건을란 장 80이저.

여기에서 “乙(을, 爲只爲(히기여), 爲行臥乎事(히거와온일), 爲乎矣(히오디), 是如爲在乙良(이라히견을랑)” 등과 같은 줄 친 부분들이 바로 이 이두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 이두라는 것은 한문에서 소위 토와도 비슷한 것이므로 이토(吏吐)라는 명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두는 토와도 또 좀 다른 점이 있다.¹⁰ 토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 그 시작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 유래는 펍 오랴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두가 만일 신라 때 것이라고 하고 또 한문이 그보다도 오랴 것이라고 하면 이 토라는 것도 역시 한문과 우리말과로 더불어 그 변천에 있어서 서로의 관련이 깊을 것임은 사실이겠다.

이 토에 관한 기록으로는 《세종실록》 권40에 이러하다.

“임금이 변계량에게 말하기를, 옛날 태종께서 권근에게 명하여 오경에 토(吐)를 달라고 하니, 권

10 한자를 빌어 통문(通文)으로써 우리말을 쓴 것은 ‘이두’와 ‘항가’가 있다. 이두는 초기에는 고유어인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을 적는 방식에서 변체문으로써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도록 쓰기 위해 이두 토를 단 서기식(誓記式) 표기와 한문 대문에 이두 토를 단 형식이 있다. 특히 한문 대문에 토를 다는 방식은 이문(吏文)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전면적인 우리말 표기 방식은 항가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어휘나 토씨 등을 모두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표기한 방식이다. 구결은 통어(通語)로서의 한문을 읽고 뜻을 풀어내기 위해 구결토를 첨가하는 방식이다. 이 ‘구결토’는 한문의 원문은 그대로 두고 구두(句讀) 자리에 한자를 정체자나 약체자를 이용하여 읽는 음독구결과, 한문의 대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재배치하여 입도록 한 석독구결의 방식이 있다. 최근 남풍현(2003) 교수에 의해 점토구결 자료의 발굴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두와 구결의 발달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발전되어 왔다. 한문이 정착된 이후 이두는 특수한 이문(吏文)으로 발전되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두는 글말에서 구결은 입말 곧 구송을 위한 표기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두가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내의 관용문서를 작성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문을 담당하는 관리를 선발하여 역관을 교육시키기 위해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두로 작성된 고문서, 금석문, 죽간, 문서뿐만 아니라 《대명물지해》를 비롯한 조선조의 관부 문서에 이두가 다량 남아 있다. 통문의 수단으로 그리고 통어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이두는 구결이라는 통어 수단과 차츰 분리되어 발달된 것이다. 이두 연구에 대해서는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남풍현(2003), 《고대한국어연구》, 물레, 이승재(1992), 《고려시대 이두》, 태학사, 자료집으로는 노명호 외(2000), 《한국중세고문서연구》(상)(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등이 있다.

근이 사양하였으나 부득이 《시경》, 《서경》, 《역경》의 토를 달아 책을 지었으나 오직 《예기》와 《사서》에는 토가 없다.”¹¹

이라고 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아마 토에 관한 기록으로는 최초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보면 그 ‘ㅌ’의 주로

“무릇 독서할 때에 언어(諺語)로 읽은 구두 마디를 시속에서 토(吐)라고 한다.”¹²

라고 하여 한문을 우리말로 읽을 때 구두에 다는 것을 토라고 하였다.

이제 이 토와 이두와의 차이는 어떠한가 보면 대개 이두와 토와는 이것을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면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니, 그 기사되는 형식에서는 이 기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점차 시대와 더불어 변천하여 피차의 차이를 오늘 날과 같이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두는 한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표기하는 것이지만 토는 이와는 달라서 한문자 그대로 쓰는 것 외에 한문자의 약체와 또는 국문과 또 국한문을 섞어서 쓰는 네 가지의 표기 방식으로 갈라 볼 수가 있다. 다시 토와 이두를 그 목적에 따라 구별해 보면 이두라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말 전체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 데서 출발된 부호 즉 우리 문자로서의 효용을 나타내 보려고 한 것이지만 토는 다만 한문 구두에 마치 경서 같은 데 현토하는 유가 그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두에 비하여 이 토는 사용 범위가 좁아진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¹³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형식을 보면 이러하다.

“東方厓初無君長爲加尼有神人伊降于太白山壇木下於乙國人伊立以爲君爲尼與堯奴竝立爲也國號乙

11 “上語卞季良曰，昔太宗命權近著五經吐，近讓之不得，遂著詩書易吐，惟禮記四書無之。”，《세종실록》 권 40.

12 “凡讀書以諺語節句讀者，俗謂之吐。”，《세종실록》 권 40.

13 구절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남풍현(1999), 《구결연구》, 태학사, 남풍현(2009), 《고대국어연구》, 물레, 백두현(2005), 《석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참고.

朝鮮是羅爲尼是爲檀君是羅”

이것을 약체로 쓰면 이러하다.

“東方に初無君長有、加ニ神人、降于太白山壇木下、今ニ國人、立以爲君、ニ與堯竝ニ立、一國號
ニ朝鮮、今ニ是爲檀君、今”

“東方에 初 無君長히더니 有神人이 降于太白山壇木下여늘 國人이 立以爲君히니 與堯도 竝立히야
國號를 朝鮮이라히니 是爲檀君이라.”

“동방에 처음 군장이 없었는데 신인이 있어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임금을
시위하니 여효(與堯, 요임금의 수레)도 함께 받들어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이가 단군이라.”

이상에서 이두와 토를 보면 토는 아무래도 이두보다 후에 생긴 형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인 듯하다.[미주]

제3장 《계림유사》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 약 3백년 이전에 그 당시의 한자를 빌어서 그때의 우리말
을 표기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 《계림유사》에 나타
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도 먼저 신라 때 내지 고려 초에 걸쳐 불려진 향가
란 것이 있어서 이것 역시 한자로 우리말을 베껴 놓은 것임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
와 같거니와 그래도 그 향가는 신라 사람이 자기네 말을 한자로 빌어서 쓴 것인데
이 《계림유사》에 들어있는 우리말은 그와는 달라서 고려 사람이 아닌 송나라 사람
이 한자를 가지고 우리 고려말을 표기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이 또 특이한 점이라
고 보겠다.

이 《계림유사》는 《설부》나 《고금도서집성》 속에 한 편으로 들어 있는 것이니 순치

판(1647년), 민국판(1927년) 등의 종류가 있으므로 그 내용에서 서로 꼭 같이 일치되지 않는 한자도 있다. 그 권두에는 풍속, 지리 또는 제도에 관한 간단한 기록을 실었으니 그 중에 ‘六合爲一刀以升爲刀’라고 하여서 ‘升’을 우리말로 ‘刀(*되)’로 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있는 것은 이 책 내용 원문에 ‘升曰刀音佳’라고 한 것이 있는 것과 서로 일치되는 것이다. 또 “계해년 본 조에서 주전(鑄錢)으로 교역하던 것을 본파서 해동통보, 삼한통보를 기재하여(癸末年 倣本朝鑄錢交易 以海東重寶 三韓通寶爲記)”라 하여 주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고려의 속종 때로 보고자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훈민정음으로부터 3백년 이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근거는 여기에 있고 따라서 이 저자인 손목(孫穆)이란 사람도 그 시절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역시 여기에 근거한 바이다.

다음으로 내용을 보면 방언이라고 하여 놓고서 아래와 같은 어휘를 적었다. 합하여 360여항에 나누어 기입되었으니 그 형상은 이리하다.¹⁴

天曰漢榛 [*하늘]

月曰契 黑隘切 [*달]

風曰李纒 [*바람]

雨曰霏微 [*비]

凡下皆曰耻 [*미상]

雹曰霍 [*미상]

霜露皆曰率 [*서리]

虹曰陸橋 [*미상]

神曰神通 [*신통]

仙人曰遷 [*선신]

二曰途孛 [*둘]

四曰迺 [*네]

六曰逸戌 [*여섯]

日曰短 [*히]

雲曰屈林 [*구름]

雪曰嫩 [*눈]

雪下曰嫩耻 [*눈 디다/*눈 티다]

雷曰天動 [*천둥]

電曰閃 [*미상]

霧曰蒙 [*미상]

鬼曰幾心 [*귀신]

佛曰孛 [*불]

一曰河屯 [*흔]

三曰洒 厮乃切 [*세]

五曰打成 [*다섯]

七曰一急 [*일곱]

14 방중현(1955)의 《계림유사》 연구는 《동방학지》, 제2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에 실려 있다. 그 어휘 해독 자료는 미주로 첨부한다.

八日逸答[*여늬]

十日噎[*열]

三十日實漢[*설흔]

五十日舜[*신]

七十日一短[*닐흔]

九十日鴉順[*아흔]

千日千[*천]

旦日阿慘[*아츰]

暮日占榛 或言古沒[*저믈]

昨日日訖載[*어제]

火日孛[*불]

石日突[*돌]

井日烏沒[*우믈]

木日南記[*남기]

胡桃日渴來[*ㄹ래]

鵲日渴則寄[*가지]

犬日家稀[*가히]

龍日稱[*미르]

工匠日把指[*마지]

女兒日寶姐 亦日古召育曹兒[*쫄]

舅日漢了秘[*한아비]

面醜日棕翅沒朝黝[*늑치 몬도흔]

白米日漢菩薩[*흰쌀]

魚肉皆日姑記[*고기]

老日刀斤[*도근]

深日及欣[*깊흔]

大日黑根[*흑근]

九日鴉好[*아홉]

二十日戌沒[*스믈]

四十日麻兩[*마순]

六十日逸舜[*여순]

八十日逸頓[*여든]

百日醞[*온]

萬日萬[*만]

午日稔宰[*나죄]

前日記載[*그제]

今日日烏榛[*오늘]

山日每[*되]

水日沒[*믈]

花日骨[*꽃]

竹日帶[*대]

林檎日悶子計[*넝금]

鴉日打馬鬼[*가마괴]

猫日鬼尼[*괴]

魚日水脫 剔恙切[*수달]

男兒日了姐 亦日同婆記[*아씨]

父呼其子曰了加[*아가]

面美日棕翅朝黝[*늑치 도흔]

洗手日遜時蛇[*손시서]

粟日田菩薩[*조쌀]

飲酒日酥芋麻蛇[*수불 마서]

少日亞退[*아뢰]

淺日眼低[*나죽]

小日胡根[*효근]

여기서 전부를 일일이 해설하고 고증하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중에서 약간만을

들어서 다시 살펴보면 ‘天日 漢棕’에 있어서도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하늘’인 것이니 중국 사람이 ‘漢’이나 ‘棕’자를 사용한 예를 이 《계림유사》에서 보고 또 중국의 한자음을 사적으로 찾아서 한자음과 우리말과를 양자 각각으로 또는 합하여 역사적 변천을 고구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日 姬’와 ‘月 契 黑隘切’과를 볼 때에 이 두 항에서 우리말을 베낀 한자의 부분이 서로 바뀌 놓지 않았는가 한다. 다시 말하면 ‘日 契 黑隘切’이고 ‘月 姬’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책이 하나도 한 곳도 오자가 없다면 이런 추측을 허락할 수 없지만 여러 번 옮겨 간행하는 동안에 남의 나라의 서투른 말이라 오고도 몇 곳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자 하는 바이다. 또 그렇게 보아야 그 뜻이 통할 수 있는 까닭이다. 끝으로 또 하나 더 그 유래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白米 日 漢菩薩’에 있어서 ‘白’자는 ‘漢’에 즉 ‘한’에 해당한 것이고 ‘米’자는 ‘菩薩’에 즉 해당한 것이니 ‘米’의 뜻으로 훈민정음 제정 당시의 우리글로 베낀 것은 ‘쌀’이었다. 그러면 고려 초기에는 즉 8백 년 전에는 ‘한보살’이고 지금부터 오백년 전 훈민정음 제정시대는 ‘쌀’이오 그 후는 오늘에 있어서는 ‘쌀’과 ‘살’로 되는 셈이니 이것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ㅂ’음이 변천으로 인하여 탈락되어 ‘쌀’이 된 듯하나 그 실은 현 용어로도 ‘ㅂ’음이 아직까지 그 속에 내재하여 때로는 나타남을 알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좁쌀, 낱쌀, 찹쌀’ 등에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ㅂ’이란 것은 그 실은 결국 팔백년 전의 ‘菩薩’과 오백년 전의 ‘쌀’의 잔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라고 보면 팔백 년간에 우리말의 변천이란 것은 역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것처럼 크게 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는 이 《계림유사》에서 우리말의 역사 변천을 고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또 하나 한자음의 변천을 따지는 데 조선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으로서 그 역사적 자료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나는 이 점, 즉 《계림유사》라는 몇 장 안 되는 책, 불과 360여 항밖에 안 되는 이 기록이 우리 어학사상에 던져주는 그 의미는 큰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점에서 특히 이 《계림유사》를 여기에 간략하나마 논하는 바이다.

이 《계림유사》 외에 《고려사》에서도 같은데 ‘미후도(彌猴桃)¹⁵를 ‘달애(烺艾)’라고 하여 ‘다래’임을 밝히고 ‘貓’를 ‘高伊’라고 하여 ‘고이(고양이)’ 즉 ‘괭이’에 그 어형이 같음을 알려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또 그 외 문헌의 인명, 관명, 지명이며, 제도명의 위에서 우리의 고어를 편편이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로 찾아서 연구해야 될 형편에도 있다. 또 한 가지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조선 방언〉이란 제목 밑에 이런 것이 있다.

“채옹 방언에 조선의 열수 사이를 대부분 열(冽)이라고 칭하는데 곧 낙랑 지금의 대동강을 말한다. 그 말은 우리나라의 옛 방음인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중략〉 동월(董越)은 조선부라는 시에서 부(父)를 아비(阿必)라 하고 모(母)를 애미(額嬰)¹⁷라 하였다.”¹⁸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어가 다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와 같은 역사 책에서와 또는 《계림유사》와 같은 책에 베껴놓은 그런 고어가 있는 외에 역시 다른 데서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¹⁹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이 《계림유사》²⁰와 같이 이 책만큼 우리말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것이

15 현동 정동유(1744~1808)의 《주영편》(상)에 종묘의 천신 제물난 9월조에 ‘미후도(彌猴桃)’라는 이름이 보인다.

16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지명, 인명, 관직명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유창균(1991), 《삼국시대 한자음》, 민음사, 도수희(2010), 《한국 지명 신연구》, 제엔씨, 김영황(2013), 《고구려의 언어 유산》, 역락.

17 ‘嬰’는 ‘彌’ 밑에 ‘女’자가 붙은 것으로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이고 음은 ‘미’이다.

18 “蔡邕方言，多稱朝鮮冽水之間，冽，卽樂浪，今大同江也。其言乃我國方音之舊今不復存(중략)董越 朝鮮賦，父謂之阿必，母謂額嬰。”，《성호사설》〈조선방언〉.

19 장동익(2000), 《송대여사자료집성》, 서울대학교출판부, 79쪽, 고려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곧 도곡(陶穀, 903~970)의 《청이록(淸異錄)》에는 958년 고려 사신으로 파견된 후주의 사신단의 정사였던 한은경(韓彦卿)이 지은 고려견문기인 《박학기(博學記)》에서 내용을 인용한 기사 가운데 천문, 기후, 우유 제품과 도량형에 관련된 고려어가 전한다고 한다. “霧(迷空步障), 霜(威屑), 露(敎水), 雹(水子), 虹(氣母), 星(屑金), 天河(秋明大老), 酥(大刀圭), 酪(水刀圭), 乳腐(草創刀圭), 量(半昌王), 升(夕十)” 등이 있는데 《계림유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외국 문서나 사서 속에 들어 있는 우리 말 관련 사료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 《계림유사》에 대한 연구는 방중현(1955), 〈계림유사연구〉, 《동방학지》 제2집, 연세대학교동방학연구소, 강신항(1991)의 《계림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원식(1973), 〈계림유사 연구〉, 《조선학보》 제67집, 안병호(1985), 《계림유사와 고려 시기 조선어》,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참

달리 없다.

제4장 고어와 향악명

이제 의약 명칭에 나타난 우리말을 보면 ‘향명(鄉名)’이니 ‘속운(俗云)’이니 하여 한자로다가 그 당시 말을 표기해 놓았다.

한자로 표기하는 것을 이두라고 하니 신라 때부터 있어 온 것임은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향가’라고 하여 역시 한자로다가 우리말을 나타낸 것이 있다.

그러면 이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어떠한 규정과 형식 밑에 사용되었으며, 또 그것이 후세에까지 어떠한 변천을 하면서 오늘에 전해 오게 된 것인가? 이것을 세밀히 연구하는 것은 한 중요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의약명에 관한 물명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사용된 옛 표기에 관하여 그 중요한 문헌 중에서 몇 개를 들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말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

1. 《향약구급방》

향약이라고 함은 우리나라의 약을 말함이니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급한 병자를 구해낼 수 있는 처방문을 적은 것이다.²¹

이 책은 본래 고려 때 대장경을 찍던 그 도감에서 1236~1251년 사이에 간행한 것인 만큼 세월이 오래 흘러 그 판이 썩어서 이미 찍었던 구본조차도 찾아 얻어 보기 힘들게 되자, 최자하(崔自河)가 경북 의흥군(현 군위군)에서 상중하 3권 1책으로 중간하였으니 태종 17(1417)년에 윤상(尹祥, 1373~1455)이 그 발을 쓴 것에 의하여 간행 연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실록》에 의하면 나주목사 황자후(黃子厚, 1363~1440)의 계청으로 《향약구급방》을 충청도에 보내서 간행을 명한 것이 세종 9(1427)년 9월의 일인데 그 후, 병술 6월에 이것을 팔도에 각 2권씩 반사케 한 기록도 있으나²² 이 책은 아직 국내에서는 보지 못하였다.

이 책에 적힌 방문은 매우 신효가 있어서 그 서문에도 이런 말이 있으니 이 방문에서 쓰는 약은 다 조선 사람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요, 어디서나 곧 구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니 그 약을 화합하여 만드는 법이라든가 또 그것을 복용하는 절차까지도 다 일찍 우리는 경험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궁향(窮鄉, 궁한 시골)이나 벽군(僻君, 벽촌)에 사는 사람도 갑자기 병세가 긴급한 때를 당할 지라도 양의(良醫, 좋은 의원)에게 곧 보이기 어려운 일이니 이때 참으로 이 방문을 알기만 한다면 의원에게 곧 못 보일 처지일지라도 그 사람을 가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쉽고 거두는 공은 몇 배나 되는 것이니 실로 이로움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상, 중, 하 3권과 그 부록이 붙었으니 40장 전면 3행에 《향약구급방》 중 권이라고 있고 34장 전면 제5행에 하권이라고 하여 40장에 끝났으니 50장과 2장

21 13세기 대장도감에서 인출한 《향약구급방》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태종 17(1417)년의 중간본(일본 궁내성 서능부 소장)만 전하는데 180여종의 식물, 동물, 광물 이름과 설명이 실려 있는 자료로 13세기 국어 연구를 위한 귀중한 문헌이다.

22 “前判羅州牧使黃子厚啓, 鄉藥救急方印出分於, 外方以廣救生六路, 隊命送于忠淸道刊行。”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9월.

으로서 매 행의 글자수는 같지 않고 매 면의 행수는 11행으로 된 목판본이다. 내가 본 것은 지난 1938년에 일본 동경에 가서 그 궁내성 소장본을 보니 지질도 좋지 않고 판각도 흐려서 분명치 못한 데가 여러 곳 있었다.

여기서 나는 이 책의 의약에 관한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약명 등을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한 그 ‘향명(鄕名)’이란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藍 鄕名靑苔 俗云 靑乙召只非也 [*청태/*프를조기비]

蛭 所也只 [*소야기]

蜈蚣 之乃 俗云 之乃 [*지늬]

茺蔚子 目非阿叱 俗 目非也次 [*눈비앗]

熨斗 多里甫伊 [*다리보리]

桔梗 道羅叱 俗云 刀々次 [*도랏]

鷄冠 鄕名 鷄矣碧叱 俗云 鷄矣碧叱 [*들기벳]

黃芩 所邑朽斤草 俗 精朽草 [*숨서근풀]

百合根 犬伊那里根 俗云 犬那里花 [*가히나리불휘]

馬齒莧 金非睦音 俗云 金非音 [*쇠비름]

苦蔘 板麻 [*널삼]

蒼耳 升古々伊 俗云 刀古休伊 [*도고마리]

이와 같이 향명이니 속운(俗云)이니 하여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이것이 우리말의 고어를 찾는 데는 그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말에 한자음을 가지고 표기할 때에도 그 당시에 그 음에 가장 맞는 또 그 중에 가까운 음의 글자를 가지고 썼을 것이니 이들의 한자를 그리면 어떻게 사용하였나 하는 것을 고구함은 우리 고어의 지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된다. 또 이들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쓴 고문을 해석하는 요령이 될 것이다. 즉 훈민정음 창제 이전 우리 고어를 찾고자 하는 한 방편으로는 이들 한자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나타내고자 사용한 한자는 어떠한 형편으로 되었는가? 위에서 든 예 중에 ‘창이(蒼耳)’를 ‘升古々伊’라고 하여 ‘俗云 刀古休伊’로 썼으니 여기서 ‘升’을 ‘刀’로 ‘々’를

‘休’로 사용한 것 등은 현용어 ‘도고마리’와 대조하여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은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이 고려 때에 되었으니 그 한자 사용이 오랜 것으로서 그 후에 나오는 예를 들면 《향약채취월령》이라든가 《향약집성방》이라든가 《춘가구급방》 등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된 물명에서는 그 한자 사용상 어떤 연락(聯絡, 연계된 맥락)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의 한자 사용을 연구하여 올라가면 고려 초 내지 신라 때까지도 이것에 의하여 우리말의 음을 분명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훈민정음 창제 이후와 달라서 그 이전에 고어로 이 한자의 사용에서 그것을 해득될 것이 클 것이라고 알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방면의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다.²³

2. 《향약채취월령》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얼마 전에 한문자를 빌어서 우리말을 쓴 것은 지명, 인명, 관명 등에서 그 편린을 여기저기서 찾아보겠으나 그 중에도 의약에 관계된 책에서 더욱 많이 얻어 볼 수가 있으니 이 《향약채취월령》 같은 것은 그 현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약채취월령》은 세종 3(1431)년의 년기를 가진 윤희(尹淮, 1380~1436)의 발문에 의하면 그 편찬의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오직 우리 주상전하께서 정사에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유념하시어,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자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국의(國醫)가 따라가서 예부를 통하여 황제에게 아뢰고 태의원(大醫院)에 가서 질경(질의)하게 하였는데, 황제도 약재를 특별히 보내어 약의 진위를 변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에 직접 직제학 신 유효통(俞孝通)과 전의감정 신 노중례(盧重禮), 부정자 신 박윤덕(朴允德)에게 명하여 토산 약재를 두루 고찰하게 하였습니다. 무릇 수백여 종으로서, 먼저 향명을 쓰고, 다음에 약미(藥味)와 성분, 그리고 봄·가을의 채취 시기와 햇볕과 그늘에 말리는 데에 대한 좋고 나쁜 점을 본초 제서(諸書)에 의거하여 빠짐없이 간추려내어 《향약채취월령》한

23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로는 이은규(1993), 〈향약구급방의 국어학적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조.

편을 지어서, 정밀한 교정을 거쳐 인쇄하여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만민이 모두 약의 성질을
알아서 질병의 고통을 면하고 모두 천수를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신 것이니...²⁴

다음으로 이 책에 기록된 149종의 동물, 식물, 광물의 향명을 그리면 어떻게 표시
했는가 대략 그 예를 추려보면 이런 것들이다.²⁵

菱薤 鄉名豆應仇羅 本朝 古用防己是也 [*둥굴레]

雲母 鄉名石鱗 [*돌비늘]

黃耆 鄉名甘板麻 [*든너삼]

茜根 鄉名古邑豆訟 [*곱도송]

沙蔘 鄉名加德 [*더덕]

芍藥 鄉名大朴花 [*함박꽃]

百合 鄉名大伊日 [*개나리]

薺芎 鄉名季奴只 [*게로기]

桔梗 鄉名都乙羅叱 [*도랏]

白芨 鄉名竹栗膠 [*대왕풀]

苦蔘 鄉名板麻 [*너삼]

藜蘆 鄉名朴草朱書朴鳥伊 [*박새]

射干 鄉名虎矣扇 [*범부채]

木賊 鄉名束草 [*속새]

菟絲 鄉名鳥麻 [*새마]

威靈仙 鄉名車衣菜 [*수릿채]

自然銅 鄉名生銅 [*산골]

芡實 鄉名末栗 [*말밥]

斑猫 鄉名加乙畏 [*가리]

24 “我主上殿下，萬機之暇，特留宸念，每有奉使上國者，必使國醫隨之，因禮部以奏，就大醫院而質正焉，天子亦特賜藥材，使得有以辨驗真妄，殿下於是命集賢殿直提學臣俞孝通及典醫監正臣盧重禮，副正臣朴允德，編考土產藥材。凡數百餘種，首注鄉名，次以味若性春秋採取之早晚，陰陽乾曝之善惡，悉據本草諸書，搜剔無遺修成鄉藥採取月令一篇，精加校正，印出頒行。欲使萬民，靡不周知得免疾痛而，至于壽域。”，《향약채취월령》 윤희의 발문.

25 방중현(1972), <향약명 연구>, 《일세 국어학논집》, 민중서관.

水蛭 鄉名巨末伊 [*거머리]

牡蠣 鄉名大屈乙曹介 [*한굴조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일일이 설명할 것은 없으니 간단히 몇 개 찾아보면 이리하다.

첫째로 한문자의 조선음 그대로 읽을 것이 있으니 예를 들면 ‘천근(茜根)’을 ‘곰도송’이라고 하는 것이며, ‘수질(水蛭)’을 ‘거머리’라고 표음한 것이 그것이다.

둘째로 한문자의 조선음과 그 새김과를 섞어서 쓴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리하다.

沙蔘 鄉名加德 [*더덕]

芍藥 鄉名大朴花 [*함박꽃]

百合 鄉名犬伊日 [*개나리]

셋째로 한문자를 순전히 새김으로만 읽을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런 것들이다.

苦蔘 鄉名板麻 [*너삼]

射干 鄉名虎矣扇 [*범부채]

自然銅 鄉名生銅 [*산골]

그 밖에 해독하는 데 주의할 것은 ‘초(草)’를 ‘새’로 읽은 것은 예를 들면 ‘여로(藜蘆)’를 ‘朴草’ 즉 ‘朴鳥伊’라고 하는 것은 다 ‘박새’를 베낀 것이오, ‘鳥’를 ‘새’로 읽은 것은 ‘鳥麻’ 즉 ‘새삼’과 합하여 다 혼독에 속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한문자의 사용례가 어떤 식에 의하는가가 꼭 주의할 점인가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문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는 모양을 엿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는가를 고구하는 한 재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문자로 물명을 표시하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된 것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미주2]

A solid orange circle with the text '제 2 편' inside it.

제 2 편

훈민정음의 저작

제장 명칭

우리의 문자가 처음 창제된 후 오늘날까지 이미 5백년이 넘었으니 그 부르는 명칭도 시대와 더불어 변천해 왔다. 이제 오늘날까지에 불려진 것을 보면 ‘훈민정음’, ‘언문’, ‘정음’, ‘반절’, ‘국문’, ‘한글’ 등의 여러 가지로서, 우리 문자의 호칭을 삼았음을 알겠으니 이후 각각 그 시대에 따라 논하기로 한다. 여기서 먼저 훈민정음에 관한 것만을 살펴볼까 한다.

1. 훈민정음

이 명칭은 세종대왕께서 우리 문자를 창제하면서 붙인 최초의 이름이니 그것은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세종실록》 권102)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¹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한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 1 이 실록의 기록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내용을 기록한 최초의 자료이다. 매우 간략하지만 한글 창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① “임금께서 친히 제작하였다(上親制)”에서 한글의 창제자가 세종임을, ② “언문 28자(諺文二十八字)”에서 한글 명칭이 ‘언문’이고 글자가 28자임을, ③ “그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였으며(其字倣古篆)”에서 초, 중, 종을 합자하여 모아쓰기를 한 음절글자가 고전자(古篆字)를 모방했음을(바로 뒤에 자(字)가 초, 중, 종성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에 근거하여) 낱글자 28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C+V+C로 구성된 한 음절글자꼴이 옛 전자를 모방하였다는 의미), ④ “그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였으며 그 글자를 분해하면 초, 중,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음절 단위의 글자로 합한 이후 글자(字)의 모양은 고전(古篆, 옛 한자 글꼴)을 모방한 방패형(네모형)임을, ⑤ “무릇 조선의 말 뿐만 아니라 중국 한자와 주변 나라와 심지어 조선 내의 이어(변두리말)도 다 글로 쓸 수 있다(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는 표음문자임을, ⑥ “글꼴은 비록 간략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고(字雖簡要, 轉換無窮)”라고 하여 28자는 제한적 음소문자일뿐만 아니라 합자를 통해 동아시아의 여러 문자를 표기할 수 있는 표음문자 곧 음성문자임을, ⑦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한다(是謂訓民正音)”라고 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제한적 음소문자인 ‘언문’ 28자는 세종이 직접 창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언문’과 ‘훈민정음’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지었으며, 또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를 뒷구절의 ‘分爲’의 전제가 ‘其字’이기 때문에 자소인 ‘ㄱ, ㄴ, ㄷ’ 같은 낱글자가 고전자에 기원했다는 확실은 전면 제고될 필요가 있다. 곧 초, 중, 종을 모아쓴 글꼴이 방패형인 고전자와 같다는 의미이다. 모아쓰기를 한 거란자나 여진소자와 같이 한 자형으로 구성된 글자꼴이 곧 방패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다.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²

이와 같이 세종대왕께서 친제한 ‘언문’ 28자를 곧 ‘훈민정음’이라고 한 것이니 이것이 이 명칭의 최초의 기록이다.

그리고 세종 28(1446)년 9월 상한에 쓴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에서 보면

“계해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고 간략히 예의를 들어 보이면서 이름 지어 훈민정음이라고 하시니”³

라고 하여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문자 이름을 ‘훈민정음’ 또는 약하여 ‘정음’이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 세종 28(1446)년 병인 9월⁴에 ‘훈민정음’의 전문이 발표되었으니⁵ 그 기록에 “이 달에 훈민정음을 지으시니(是月, 訓民正音成)”⁶라고 하여 역시 이 명칭이 나타난다.

또 선조 1(1568)년 10월 경상도 풍기의 소백산에 희방사개판(慶尙道豐基地小伯山池叱方寺開板)인 《월인석보》 권1의 권두에 붙어있는 언해본에 보면 아래와 같다.

- 2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 3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1446)년 9월 29일 기사. 정인지 서문.
- 4 “是月 訓民正音成……”으로 시작하는 기록은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1446)년 9월 29일 기사에 실려 있다.
- 5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고 간략히 예의를 들어 보이면서”라는 내용은 《실록본》에 실린 한글 창제의 핵심 내용인 예의의 내용을 제시했음을 의미한다.
- 6 “是月, 訓民正音成”에서 ‘成(이루다, 짓다)’의 해석을 두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곧 한글의 완성 시기로 삼고 그 날을 반포 기념일로 정한 조선어학회에 대한 1차 반론은 바로 방중현 교수(1446)가 이 ‘成’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된 시기이지 문자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 이후 이 숭녕 교수(1976:12)는 “요세 말로 하면 원고가 타고되었던 것이지 아직 책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한글날 반포 운운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글날 기념일을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訓훈은 ㄱㄴ칠씨오 ㅁ은 ㅍㅍ姓성이오 ㅍㅍ은 소리니 訓훈民民正正ㅍㅍ은 ㅍㅍ姓성 가르치시
논 正正훈 소리라.”

또 신숙주가 지은 《홍무정운역훈》서(《보한재집》 권15)에서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
다.

“우리 세종 장헌대왕께서는 운학에 유의(뜻을 두고)하시고 그 저운(底蘊, 바닥과 속 깊이)을 궁극
히 연구하시어 훈민정음 약간 글자를 창제하시니 사방 만물의 소리를 전하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우리 동방의 선비들이 비로소 사성 칠음이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데가 없으니 특히 자운(字韻, 한
자의 운)만이 아닌 줄을 알거니와”⁷

그리고 이 글의 중간에 다시

“훈민정음으로 반절을 대신하여, 그 속음과 두 가지로 쓰는 음(속음과 정음)으로 꼭 알아야 할 것
은 본 글자 아래 나누어 주를 넣었다. 만약 통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주석을 더하고
그 예를 보였으며, 또 세종이 정하신 바의 《사성통고》를 따로 첫머리에 붙이고 다시 범례를 만들
어서 지남(기준)을 삼았다.”⁸

이 제작에 직접 참여한 만큼 그 저작으로는 ‘언문’이라고 하지 않고 늘 ‘훈민정음’이
라고 불렀다.

그 후 영조 26(1750)년에 여암 신경준(1712~1781)이 지은 《훈민정음운해》라는 책
자가 있으니, 이 책이 그 이름으로부터도 ‘언문’이라 하지 않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2백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 서문에 이런 기
록도 들어 있다.

7 “命儒臣，一以中原雅音，定爲洪武正韻，實是天下萬國所宗，我世宗莊憲大王留意韻學，窮研底蘊，創制
訓民正音若干字。四方萬物之聲，無不可傳，吾東方邦之士，始知四聲七音，自無不具，非特字韻而已也。”，
《홍무정운역훈》 서.

8 “用訓民正音，以代反切其俗音及兩用之音，又不可以不知則分注本字之下。若又有難通者則略加注釋，以
示其例，且以世宗所定四聲通攷別附之頭面，復著凡例爲之指南。”，《홍무정운역훈》 서.

“정통 병인년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니 그 법은 반절을 취하고 그 모양은 교이변역(交易變易, 바꾸거나 변하기 쉬움)하고 번역하여 한 배를 더하는 방법을 응용하셔서 그 글자의 점획은 매우 간략하나 청탁(淸濁)·벽흡(闕翕)과 초, 중, 종성이 찬연히 갖추고 나타나서”⁹

그리고 이제 홍양호(1724~1802)가 《이계집》 권10에 《경세정운도설》 서를 쓴 것이 있으니 그 중에 이러하다.

“우리 세종대왕은 하늘에서 내린 밝고 지혜로움으로 만물의 뜻을 열어 천하의 사무를 성취하시고 이에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시니 별자리의 배열 수에 응하여 글자 형을 삼고 규벽(奎壁, 문장을 맡은 별)의 원곡(圓曲, 둥글고 휘는)을 상형하고 소전(小篆)의 예서(隸書)의 체를 모방하여 매우 간단하고 쉬우며 어린이나 부인도 가히 서로 알 수 있어 뜻을 펼칠 수 있으니 천하의 글을 죽히다 알 수 있으며 사방의 음을 서로 통할 수 있으니...”¹⁰

다시 부록으로 <훈민정음초성상형도>라고 하여 17자 초성의 상형된 근본을 설명하였다.

그 후 《증보문헌비고》 권245에 보면 이러하다.

“훈민정음 일편은 위의 여러 나라가 문자를 제정하여 그것으로서 그 나라의 방언을 기록하나 우리나라만 없으니 자모 28자를 제정하여 이름하기를 언문이라 하였다.”¹¹

또 정동유(1744~1808)의 《주영편》(1805년)을 보면 《훈민정음》에 관한 기록이 여러 곳 있다.

9 “正統丙寅，我世宗大王，製訓民正音，其例，取反切之義，其象，用交易變易加一倍之法，其文，點畫甚簡，而淸濁闕翕初中終音聲，燦然具著。”，영조 26(1750)년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서.

10 “我世宗莊憲大王睿智天縱，開物成務，於是，創制訓民正音二十八字，以應列宿之數，而字形則，觀奎壁圓曲之象，點畫則，倣小篆分隸之體，明白簡易，使童子婦人可以與知，引而伸之，足以盡天下之文，通四方之音。”，『이계집』 권10 〈경세정운도설〉 서.

11 “訓民正音一篇，上以爲諸國各製文字，以記其國之方言，獨我國無之，遂制字母二十八字，名曰諺文。”，『증보문헌비고』 권245. 자모(字母)는 곧 초성 17자와 중성 11자의 낱글자를 뜻하며, 그것을 언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문과 훈민정음(정음)과의 명칭의 의미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은 곧 천하의 큰 문헌으로 어찌 바로 조선의 한 지역의 언어 전사(傳寫)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리오.”¹²

“훈민정음을 속칭 언문이라하고 많은 부녀자나 하천인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데 변화하여 와오(訛誤, 잘못)가 많으나 비록 세칭 지식이 넓고 우아한 선비라도 정음의 자모의 뜻을 분명히 다 알고 있다.”¹³

또 신경준(1712~1781)의 저작인 《여지도》¹⁴를 논하다가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을 지적한 데도 있다.

“일찍 그 저정서(邸井書)¹⁵를 편찬한 바를 보면 훈민정음 자형을 논함에 순음으로 ‘비(非)모’를 ‘ㅂ’으로 이런 모든 곳에 글에 의거하지 않은 것이 없다.”¹⁶

그 후 순조 24(1824)년에 유희(1773~1837)가 지은 《언문지》 중에는

“훈민정음 15 초성자¹⁷는 우리 세종께서 사신(詞臣)들에게 명하여 몽고 자형을 모방하여 지었는데 명나라 학사 황찬에게 질문하여 제작하였으니...”¹⁸

12 “訓民正音, 卽天下之大文獻, 豈直爲朝鮮一區言語傳寫之資而已哉”, 《주영편》(하).

13 “訓民正音俗稱諺文, 多爲婦人及下賤所用, 以致轉轉訛誤, 雖世稱博雅之士, 鮮有知正音字母之儀者”, 《주영편》(하).

14 《여지도(輿地考)》: 신경준이 정리한 역사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결집시킨 책으로 역대국제, 군현 연혁, 산천, 도리, 관방, 간도 경계, 궁실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의 필사본 1책(대구에 개인 소장)의 제검에 《邸井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초기 원서명은 《저정서(邸井書)》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 책의 이름을 내제명 《운해(韻解)》를 참고하여 《훈민정음운해》 혹은 《운해훈민정음》이라고 가칭해 오고 있다. 강신항(1977), 《훈민정음운해》, 형설출판사, 참조.

16 “嘗見其所撰邸井書, 論訓民正音字形, 而以唇音非母爲ㅂ, 此等處, 皆全無依據之辭也.”, 《여지도(輿地考)》

17 훈민정음 15 초성자는: 훈민정음 초성 17자 가운데 ‘ㅎ’과 ‘ㄷ’이 소실된 이후 나머지 15자를 뜻한다.

18 “訓民正音十五初聲, 我世宗朝命詞臣, 依蒙古字樣, 質問明學士黃瓚, 以製.”, 순조 24(1824)년, 유희의

이상과 같이 그 명칭은 백여 년 전까지 쓰다가 다시 지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창제 때에 명명이니만큼 역시 가장 오랜 시일을 통해 가질 것이지만 이미 각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숙주(1417~1475)가 사용하던 때, 즉 성종 때까지는 그래도 창제 당시의 여세로서 사용된 듯하나 그 이후로는 다만 한 책 이름으로 인용된 듯한 감이 없지 않다.

2. 언문

이 ‘언문(諺文)’이란 명칭은 처음에는 한문자에 대한 말로서 한문자가 아닌 우리 문자를 통칭해 말한 것 같이 보인다. 그리다가 점차 ‘훈민정음’이 그만 ‘언문’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언문이란 말이 맨 처음으로 기록된 것으로 세종 25(1443)년 실록 기사에서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창제하시니”라고 한 것이 그것일 것이다. 그 후 세종대왕과 또 이 제작에 직접 관계한 몇몇 신하를 제외한 외에는 거의 전부가 오직 ‘언문’이라고 썼을 뿐이다.

훈민정음 창제된 이듬해인 세종 26(1444)년 갑자에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장문으로 반대상소를 하였으니 그 중에서 보면 빈번히 ‘언문’이라고 하였다.¹⁹⁾

“신들이 언문을 제작하시는 것을 엿드려 뵈옵건대 대단히 신묘하여 사리를 밝히고 지혜를 나타냄이 저 멀리 아득한 옛것으로부터 나온 것임을”²⁰⁾

《언문지》.

19 훈민정음 관련 최초의 기록인 세종 25(1443)년 《세종실록》 권 102에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이를 훈민정음이라 한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是爲訓民正音)”라는 기록에 ‘언문’과 ‘훈민정음’이 함께 나온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훈민정음’ 혹은 ‘정음’이라는 명칭은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고 ‘언문’이라는 명칭은 26회 정도 나온다. 세종 26년 갑자(1444)년 2월 《세종실록》의 최만리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의 하교문에 “곧 지금의 이 언문도(則今之諺文)”라는 대목에서도 세종이 직접 ‘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문’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이름, 곧 초성과 중성의 낱글자의 명칭이라면 ‘훈민정음(정음)’은 한자음 표기를 비롯한 외래어 표기를 위한 바른 음(正音), 바른 소리(正聲)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었다가 그 후 뒤섞여 사용한 것이다.

20 “臣等伏觀諺文制作，至爲神妙，創物運智，變出千古。”，《세종실록》 세종 26년 갑자(1444)년 2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반대 상소문.

“오로지 중화 제도를 따라 왔는데 이제 중국과 문물제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문을 창제하시면 이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럴 때 혹시 대답으로 말씀하시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곧 자형(C+V+C로 구성된 음절글자)은 비록 옛날의 고전 글자와 비슷합니다만 소리로써 글자를 합하는 것(合字, C+V+C 결합 방식)은 모두 옛 것에 어긋나는 일이며 실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²¹

“만일 언문이 통용되면 이배(吏輩, 서리)가 될 사람이 오로지 언문 글자만 배우고 학문(한문으로 된 서적)을 돌보지 않을 것이니……진실로 이배가 된 자들이 언문으로서만 모든 일을 하고 또 벼슬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뒷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됨을 보고”²²

이밖에 여러 곳에 썼으나 한 곳도 ‘훈민정음’이라고 쓴 데는 없다.
(이리하여 한문만 숭상하는 학자는 꼭 ‘언문’이라고 하여 왔으니) 그들이 훈민정음을 ‘언어(諺語)’라고 한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성해에서까지도 뚜렷이 사용되어 있는 형편이다.

“ㅅ은 언어(諺語)에 옷은 衣와 같은데 ㅅ은 언어(諺語)에서 실이 絲와 같은 유이다.”²³

이와 같이 되므로 우리 문자를 ‘언문’이라고 하고 우리 글로 해석하는 것을 ‘언해’라고 하여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각종 불경의 언해가 많이 판각되었다.

강희맹(1424~1483)이 찬한 신숙주의 《보한재집》에서 그 행장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다.

“임금께서 우리나라 음운이 화어와 비록 다르나 그 아, 설, 순, 치, 후, 청, 탁, 고하(성조의 높고

21 “一遵華制，今當同文同軌之時，創作諺文，有駭觀聽。僕曰諺文皆本古字，非新字也，則字形雖，倣古之篆文，用音合字，盡反於古，實無所據。”，《세종실록》 세종 28(1444)년 2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반대 상소문.

22 “若行諺文，則爲吏者專習諺字，不顧學問……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則後進如此也。”，세종 28(1444)년 2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반대 상소문.

23 “ㅅ如諺語爲衣，ㅅ如諺語爲絲之類.”，《훈민정음》 중성해.

낮음)가 한어와 마찬가지로 두루 갖추고 있으며, 여러 나라가 모두 제 나라의 어음을 나타낼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언어를 기록하고 있으니 홀로 우리나라만이 글자가 없다고 하시면 언문자모 28자를 만들어서 궁중에 기관을 설치하여...²⁴

그 후 연산 조에 들어가면 훈민정음은 그만 제일차의 고난을 받는 때이니 이 명칭은 물론 ‘언문’이라고만 불렀다.

그 후 중종 때에 최세진(1468~1542)은 《훈몽자회》에 〈언문자모〉라는 제목 밑에 27자를 논하였고 또 이보다도 전에 성현(1439~1504)의 《용재총화》에도 ‘언문’이라고 하여 이 말은 실은 훈민정음 제정 이후 오늘날까지 사용된 말이라고 할 만하다. 순조 때에 유희(1773~1837)가 《언문지》라는 책까지 저작한 것이 있으니 이 명칭으로 보아도 추측된다. 그 밖에 이수광(1563~1628) 같은 이는 《지봉유설》에 ‘언서(諺書)’라고 한 것도 볼 수 있고 이익(1681~1763) 같은 이는 《성호사설》에 ‘언자(諺字)’라고 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리하여 ‘훈민정음’은 ‘언문’이란 명칭으로 한문에 대립시켜 써 왔고 또 불려왔다. 그러므로 후대로 내려오면서는 ‘훈민정음’이란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되고 만일 간혹 있다면 하나의 서적 명칭인 듯이 사용되었으므로 일반으로는 모두 ‘언문’으로 통용되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후로는 이것은 없어지고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니 ‘정음’이란 말이 한자로는 대응되지 않을까.

3. 정음

‘훈민정음’을 약칭하여 ‘정음’이라고만 칭하는 것은 위에서 인용한 정인지의 ‘훈민

24 “上以本國音韻與華語雖殊，其牙舌唇齒喉南蜀高下，未嘗不與中國同，列國曾有國音之文，以記國語，我國獨無之，御製諺文字母二十八字，設局於禁中.”，강희맹이 찬한 신숙주의 《보한제집》 행장.

25 병와 이형상(1653~1733)의 《악학궤고》에서도 “세종대왕이 언문청을 설치하고 (중략) 정 하동 인지와 신 고령 숙주와 성 승지 삼문 등에게 언문을 지어 이르되 초종성 8자(世宗大王設諺文廳 (중략) 命鄭河東麟趾，申高寧叔舟，成承旨三問等，製諺文曰，初終聲八字.)”라는 기록을 보면 ‘언문’이라는 용어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용되었다. 이형상이 지은 《자학제강》〈운학시종〉에서도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지으신 훈민정음은 바로 언문을 말한다.(我世宗大王御製 訓民正音，卽所謂諺文也)”라고 하여 숙종 무렵에는 ‘언문’이라는 이름으로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음 서'에서 “창제 정음 28자”²⁶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에는 여
기저기에 사용되었으니 “이제 정음을 만드는 것도 애초부터 지혜로써 마련하고 힘
씀으로써 찾은 것이 아니라(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이라든가 “정음 28자는
각기 상형으로서 제작하였으니”²⁷라고 한 것이라든가 다 그것이며, 《용비어천가》
제3장의 주에도 “한자로 서로 통하기 어려운 자는 즉 정음으로 썼다”²⁸라고 한 것
이라든가 《월인석보》 서에 “정음으로서 읽고 해석이 가능하다”²⁹라고 한 것이라든
가 다 이것의 예이니 이것들을 보면 ‘훈민정음’이란 긴 명칭보다도 근본 뜻은 이 두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언문’이란 말이 한문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것과도 같이 ‘방음(方音, 중화의 변방
음)’이란 말에 대응하여 ‘정음’이라고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정
음’이란 말을 쓴 예를 보면 원나라 음운학자인 우집(虞集, 1272~1348)이란 이가
쓴 《증원음운》 서에

“대저 아악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성음학이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아 오방의 언어가 또 거듭
유별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오, 초나라는 가벼워 들뜨고 연익(燕翼)은 중, 탁을 잃었으며, 진농(秦
隴)에서는 거성이 입성이 되었고, 양익(梁益, 양주와 익주)에서는 평성과 거성이 비슷하며, 화북
지방과 하동 지방에서는 더욱 다른 운을 취했으며, 오나라 사람들은 ‘요(饒)’를 ‘요(堯)’로 말하고
‘무(武)’를 ‘모(姥)’로 읽으며 ‘설(設)’을 ‘술어절(述魚)’로 반절하고 ‘진(珍)’을 ‘정심(丁心)’의 유로 읽
어³⁰ 정음이 이미 틀리지 않은 곳이 없다.”³¹

26 “創制正音二十八字”, 《훈민정음》 해례, 정인서 서.

27 “正音二十八字, 各象形而制之.”, 《훈민정음》 해례, 정인서 서.

28 “漢字難通之字, 卽以正音之字書之.”, 《용비어천가》, 3장 주.

29 “以正音就加讀解”, 《월인석보》 서.

30 입성 ‘-m > -n’으로 변동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31 “大抵雅樂之不作, 聲音之學不傳久矣, 五方言語, 又復不類, 吳楚傷於輕浮, 燕冀失於重濁, 秦隴去聲爲
人, 梁益平聲似去, 河北河東, 取韻尤遠, 吳人呼饒爲堯讀爲武姥, 設如述魚切珍爲丁心之類, 正音豈不
誤哉.”, 우집(虞集)의 《증원음운》 서.

이것은 원나라 주덕청(周德清)의 저작인 《중원음운》³²에 당시 유명한 학자 우집이 그 서에 쓴 말이니 이것을 그 후에 편찬하는 《홍무정운》에도 인용하여 그 범례에 꼭 이와 같은 뜻으로 쓴 것이 있다.

“하늘과 땅은 사람을 낳고 성음이 생겨났으니 오방의 수습(殊習, 다르게 배워)으로 사람마다 달라 그것을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오, 초나라는 가벼워 들뜨고 연조(燕趙, 연나라와 조나라)는 중, 탁을 잃었으며, 진릉(秦隴)에서는 거성이 입성이 되었고, 양익(梁益, 양주와 익주)에서는 평성과 거성이 비슷하며, 강동(江東, 양쯔강 동쪽)과 하북은 더욱 다른 운을 취하니, 누가 정성(正聲)을 알며, 오방의 사람들이 모두 능히 서로 통하는 자가 있으리오. 정음을 세우기 위해 심약(沈約)은 오음으로 구구히 설명하여 천하의 섞갈린 음을 통일하고자 하였으니 이에 아울러 정음을 밝힌다.”³³

여기에 ‘정음’이란 말은 역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통되는 바른 음을 가리키는 것이니 즉 표준음이란 뜻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도 《월인석보》 서에서 ‘정음’을 해석해서 말한 것과 같이 누구나 다 공통으로 알 수 있고 알아야 될 공통음 즉 표준이 되는 점을 역설한 바가 아닐까 한다. 이보다도 후에 《사성통고》를 참고하여 된 번역 범례에는

“1. 정속음. 무릇 글자는 정음이 있고 속음자도 또한 있어서 《사성통고》에는 먼저 정음을 위에 올리고 속음을 아래에 두어 지으니 이제 한인의 발음을 듣고 한 글자로서 혹 속음을 혹 정음을 따르니”³⁴

32 《중원음운(中原音韻)》: 원나라의 주덕청이 저작한 것으로, 1324년 완성. 양쯔강 이북의 중세 구어체의 체계를 나타낸 음운서.

33 “天地生人, 卽有聲音, 五方殊習, 人人下同. 鮮有能一之者, 如吳楚傷於輕浮, 燕趙失於重濁, 秦隴去聲爲入, 梁益平聲似去, 江東河北, 取韻尤遠, 欲知何者爲正聲, 五方之人, 皆能通解者, 斯爲正音也, 沈約以區區吳音, 欲一天下之音難矣, 今並正之.”, 《홍무정운》 범례.

34 “一, 正俗音. 凡字有正音, 而又有俗音者, 故通攷先著正音於上, 次著俗音於下, 今見漢人之呼, 以一字而或從俗音或從正音.”, 《사성통고》 범례.

이와 같이 ‘속음’에 대하여 ‘정음’이라고 쓴 것이니 이런 뜻에서 보면 ‘훈민정음’은 다만 우리 문자로서 창제되었다는 점에서만 그 공이 지대할 뿐이 아니고 우리의 어음은 물론이고 한자음에 있어서도 한 정리를 단행한 중요한 시기를 짓게 한 점이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건대 《화동정음통석》³⁵에서의 이 정음이란 명칭도 그 뜻은 위에서 이미 말한 그런데 있는 듯 하고 그 서에 보면 정음이란 말을 이렇게 쓴 것이 있다.

“삼대(하, 은, 주)의 정음(正音)을 또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근세의 음 가운데 잘못 변해 온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이를 바로 잡고 의심스러운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은 옳으니 대개 화음은 마땅히 고음(古音)을 가지고 바로 잡으나 우리 한자음은 마땅히 중화음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³⁶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이 한자에 관한 정음과 우리글에 대한 정음과는 갈라 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거기서 ‘훈민정음’을 약칭 ‘정음’이라고 하는 것도 미루어서 알 수가 있으니 근일에 이르러 더욱 그 약칭을 흔히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겠다.

만일 세종대왕께서 이 문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마 훈민이란 ‘두 글자’는 생각하지 않았을 듯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문자는 무슨 다른 명칭으로 불렸으리라고 믿어진다. 이제 이 ‘훈민’이란 두 글자를 덜고 쓴 ‘정음’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이 그 창제 당시부터 있어온 것이라고 하겠거니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사용하는

35 《화동정음통석(華東正音通釋)》: 조선 영조 23(1747)년에 박성원이 지은 한자의 운서. 각종 자전에서 글자를 모아 《사성통해》의 자음에 따라 한자음을 글자 아래에 표시하였다. 《정음통석(正音通釋)》이라고도 하는 이 책은 박성원이 이언용(李彦庸)의 도움을 얻어 지은 운서로서, 본래 이름은 《화동정음통석운고》이다. 정조 11(1787)년에 정조의 <어제정음통석서>라는 서문을 붙여 비각에서 다시 간행한 이 책은 1787년에 인출되었으며, 25.4×16.3cm 크기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는 규장각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시대 초에 걸쳐 활동한 연안 이조승(李祖承)의 도장도 함께 찍혀 있는데 이것은 장서인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중국 음(華音)과 한국 음(東音)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며, 속지 첫 쪽에 사성표가 붙어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속음화 된 450자 이상의 한자음도 주석을 달아 표시하고 있어, 우리 한자음을 변별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36 “三代正音, 既不可攷也. 近世轉益訛謬者, 可正則正之, 疑則存焉可也. 蓋華者當以古爲正, 我音當以華爲宗.”, 《화동정음통석》 서.

데도 조금도 무리가 없고 우리 문자를 불러 정음자라고 해도 펍 좋을 듯이 생각된다.

4. 반절

‘반절(反切)³⁷’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중국에서 한자의 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두 글자를 써서 한 글자의 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東 德紅切: [t-+-ung]

孔 苦動切: [k-+-ung]

들과 같이 ‘東(동)’자의 음을 표하는 데 ‘德紅’ 두 글자를 써서 ‘德’ 즉 첫 자의 초성(성모)과 ‘紅’ 즉 둘째 자의 초성 이외의 음(운모)은 취하여 이것을 합하면 ‘東’이 되나니 ‘孔’자도 마찬가지로 바 이와 같은 방식을 곧 반절이라고 하는 것이다.³⁸

이 반절법이 시작되기는 위나라의 손염(孫炎)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하지만은 근일의 학자들은 그 보다도 이전에 있어 온 것이라고 말한 것이 거의 그 정론이다.

37 중국 한자음은 성모(음절 첫 자음, initial, I), 개음(개모, 운두, medial, M), 주모음(주요모음, 운복, principal vowel, V), 운미(음절말음의 부모음, 또는 자음, ending, E)과 성조(tone, T)로 구성된다. 여기서 성모를 제외한 MVE/T를 운모(final)라고 한다. 곧 ‘IMVE/T’의 구성으로 한자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성모와 운모의 2분적 구성으로 한자음을 표시하는 방식을 반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東’자의 음을 ‘德紅切’로 표시하는데 성모인 ‘德’의 [t-]와 ‘紅’의 운모 [-uŋ]을 합치면 비로소 ‘東’의 전체 음인 [tuŋ]이 표기되는 것이다. 이때 표기의 대상인 ‘東’은 반절귀자(反切歸字)라 부른다.

38 한자음을 나타내기 위해 반절 상자 곧 성모와 반절하자 운모로 한자음을 나타낸다. 반절을 이용하여 한자음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한 글자의 음을 상, 하로 나누어 2개의 음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반절(反切)이라고 한다. 반절법에서 반절 상자를 성모(聲母)라고 부르고 반절 하자를 운모(韻母)라고 부른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후한 때 불교와 함께 전래된 인도의 글자인 범어(梵語)의 표음법을 응용한 것으로, 위나라의 손염(孫炎)이 이러한 방식을 체계화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반절의 수용이나 연구가 어느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어느 정도였던가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동국정운》 서문에서가 아닌가 한다. 《훈몽자회》 범례에는 〈언문자모속소위반절〉이라는 것이 있고, 《오주문장전산고》에도 이와 같이 부른 예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 중, 종 삼성을 합하여 한 글자를 이루게 되었던 사실과 결부하여 초성, 중성을 합쳐 만든 11자 14행의 작자표(作字表)를 흔히 반절표라 불렀던 것이다.

이규경(1788~1863)은 또 이것을 서역 범학(梵學)에서 온 것이라고도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하였다.

“송나라의 범진(范鎮)이 지은 책인 《동재기사》를 상고하면 옛날에는 글자에 반절이 없었으므로 혼석하는 사람들이 다만 무슨 자와 같이 읽으라고 했을 뿐이며, 위나라 때에 이르러 손염이 비로소 반절을 지었다 하나 기실은 서역의 범학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속유들은 그 기원을 알지 못하나 반절의 학문은 손숙연(孫叔然)으로부터 창제되었으며, 숙연은 범자의 음을 반절하여 이루었다.”³⁹

또 고염무(1613~1682)도 《안씨가훈》(북제 안지추(531~591)) 기록을 끌어서 이렇게 말했으니 《오주연문장전산고》⁴⁰에는 이 밖에도 여러 설을 인용한 것이 있다.

“손숙연이 《이아음의(爾雅音義)》를 창제하였는데 한나라 말기의 사람들이 스스로 반어(反語, 반절)를 알게 되었고, 위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크게 유행되었으나, 고귀향공(高貴鄉公, 높은 신 지방의 선비들)은 반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괴이쩍게 여겼던 것이다. 이로부터 뒤로 내려올수록 음운은 수없이 쏟아져 나와, 각각 사투리(土風)를 띠어 서로 갈마드는 것이 우습지도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반절이 생기게 된 연유이다.”⁴¹

이와 같이 대개 세상에서는 창힐(倉頡, 중국 고대의 황제 때의 좌사(左史)로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본떠서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다)이 처음 문자를 제작하고 손

39 “按東齋記事，古者字未有反切，故訓釋者，但曰讀如某字而已，至魏孫炎，始作反切，其實出於西域，梵學也，此俗儒例言而未溯其源者也，反切之學，雖昉自孫叔然，而叔然取梵家音切以成。”，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경사편〉“반절과 번뉴에 대한 변증설”.

40 《오주연문장전산고》: 이덕무(1741~1793)의 손자인 19세기의 학자 이규경(1788~1863)이 쓴 백과사전 형식의 책으로 60권 60책, 필사본이다. 규장각에는 현재 2종의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권1의 〈십이중천변증설〉에서 권60의 〈황정편정변증설〉에 이르기까지 역사, 경학, 천문, 지리, 불교, 도교, 서학, 풍수, 예제, 재이(災異), 문학, 음악, 병법, 풍습, 서화, 광물, 초목, 어충, 의학, 농업, 화폐 등에 관한 내용을 망라하였다. 총 1,417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모든 항목을 변증설로 처리해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41 “孫叔然，創爾雅音義，是漢末人，獨知反語，至於魏世，此事大行，高貴鄉公，不解反語，以爲怪異，自茲厥后，音韻蠡出，各有土風，遞相非笑，此反切之所自起也。”，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경사편〉‘훈고(訓詁)’.

숙연(孫叔然)이 반절을 만들고 심약(沈約)이 운(韻)을 찬정한 것(《사성운보(四聲韻譜)》)으로 모두 한 개인의 제정에 돌리는 바이나 생각컨대 후세에 여러 설이 한 서적을 지은 데 원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의 반절에 관한 것은 그만에 중지하고 이것이 조선에서 한문자에 쓴 것 이외에 훈민정음을 가지고 반절이라고 한 데 대해서 이하 약론하고자 한다.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 범례 끝에 언문이라고 하는 외에 또 반절이라고도 부르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반절’이라는 말을 우리 문자의 한 명칭으로 삼아서 부르던 것이니, 이것을 중국의 그것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하여 ‘언문 반절’이라고 합칭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⁴² 이규경은 중국의 반절을 논한 끝에 이런 것을 부가하였다. “우리 동방에서는 세종대왕께서 변절(變切)이라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여”⁴³라고 하여 ‘훈민정음’을 ‘변절(變切)’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잔주에 다시

“세속에 언문으로 언문 반절을 하여 ‘반’을 ‘배반(背反)’의 반절로 읽고 아래의 반절의 반응을 ‘변’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일러 반절이 바른 것이다.”⁴⁴

42 병와 이형상의 《자학제강》〈언문반절설〉에 “세종 조에 언문창을 설치하시고 정인지와 신숙주, 성삼문 등에 명하시어 언문을 지었으니, 초, 중, 성 8자와 초성 8자와 중성 11자이었으며 그 글자에는 법자에 의하여 만들었다. 본국 및 제국의 언어들의 문자로 기록하지 못할 것을 막힘없이 모두 기록할 수 있고 《홍무정운》의 모든 글자도 모두 이 언문을 가지고 썼다. 드디어 오음으로 나누어 구별하였으니 이르되 아, 설, 순, 치, 후이다. 아음은 경중의 다름이 있고, 설음은 정반의 구별이 있으며, 글자도 전청과 차청이 있고 전탁과 불청불탁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본래 반절로부터 창작한 것이므로 이름하여 반절이라고 하나 (그러나)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 그것은 방음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여 ‘언문반절’이라 명명하고 있다.

43 “我東則以，世宗御製訓民正音爲變切.”，《훈몽자회》 범례.

44 “俗以諺爲諺文反切，讀反爲背反之反，下知反切之反音變也。呼之以變切爲正也.”，이규경의 《오주연문장판》〈경사편〉 ‘반절과 변뉴에 대한 변증설’ 잔주에 “반절이란 흔히 우리 소리로 된 한자 두 자의 음을 반씩만 따서 한 소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은 그렇게 하면 우리의 한자 소리는 되지만 중국의 원 소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반절이란 중국의 음운법으로, 어떤 글자의 소리를 알려면 알고 있는 다른 두 글자의 운음, 즉 앞 글자의 음과 아랫 글자의 운(韻)을 합치어 다른 한 소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위(魏)나라의 손염(孫炎)이 처음 지었다 하나 사실은 후한(後漢) 때 불경 번역을 착수하면서부터 생성된 것이라 한다. 남북조 이전까지는 반(反)이라고만 불렀으나 당나라의 손면(孫愍)의 《당운(唐韻)》 이후로부터 반자가 모반(謀反)한다는 반자라 하여 절(切)로 고치게 되어 반절이

우리는 이 전후의 문헌의 기록에 의하여 ‘훈민정음’을 ‘반절’ 또는 ‘언문반절’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불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한다.

‘반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글자를 합용하여 한 자음을 표시하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 문자를 반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만 하지 못할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훈민정음 그 28자를 반절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명칭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것은 다만 한자 낱말을 반절이라고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훈몽자회》의 이른바 반절 27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개개 즉 그 자모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초성과 중성을 합하여 한 음을 내는 것, 즉 ‘ㄱ’과 ‘ㄴ’가 합하여 ‘가’ 곧 ‘家’자의 음을 내는 것 이것을 일러서 ‘반절’이라고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두 글자가 합하여 한 글자의 음을 나타내게 되니 중국의 소위 반절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문자는 언제나 초성 한 글자와 중성 한 글자가 합해서만 한 자음(한 음절, a syllable)을 이루는 것은 아니니 초성에도 병서(합용병서)와 쌍서연서(각자병서)가 있고 중성(겹받침)이 또 있으며, 그것에도 반드시 한 자의 받침이 있는 것만은 아니니 이런 성질이 전혀 중국의 ‘반절’이란 명칭만 가지고는 전부를 대표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한다. 아마 우리 문자를 반절이라고 한 것은 가, 나, 다, 라…… 등의 11자 14행으로 된 반절 도표를 보고 특별한 구별이 없이 불려진 듯하다.⁴⁵ 또 한 가지 이것에 의하여 중국의 반절을 풀기에 편의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니 반절을 우리 문자로 써 놓고 그 초성과 그 초성 이외의

라는 이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두 자 중 위의 글자를 절자, 음자, 부자(父字)라 하고 아래 글자를 운자(韻字) 혹은 모자(母字)라 하며, 두 글자가 서로 갈리어 나는 소리를 귀납음(歸納音)이라 한다. 번뉴(翻紐)는 반절의 버리, 즉 요점을 말하는 것으로, 뉴(紐)는 음운학상의 음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강(江)’에 대하여 말하자면 ‘ㄱ’은 음이고 뉴이며, ‘ㄴ’은 운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5 최세진의 《훈몽자회》〈초중성합용〉에 의한 음절 187개의 반절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강백(姜栢, 1690~1777)의 언문서 《객관최한집》(1719년)에 언문 반절표가 자료로서는 처음 보이나 더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많다. 또 장응두(張應斗, 1670~1729)가 일본 사신으로 가서 일본인에게 적어 준 《화한창화집》(1719년)과 《재물보》(1798년), 《일용작법》(1869년) 등에도 언문반절도가 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 이후 개화기까지 언문 반절도가 한글 학습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송철의(2008), 〈반절표의 변천과 전통시대 한글교육〉, 《세계속의 한글》, 박이정, 이상규(2011), 《한글 고문서연구》, 경진. 참조.

자음을 분리해서 논하기가 용이하다. 이 점에서 훈민정음의 제작은 중국의 반절을 해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문에서 온 이 반절이란 말이 우리 훈민정음의 한 명칭으로까지 불리게 된 것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용된 기간은 한문자의 성행과 우리 문자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음으로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명칭만은 어디로 보나 우리 문자의 칭호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니 금후 자연히 소멸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한다. 지금 그러한 정세의 도중에 있을 것이다.

5. 국문과 한글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자의 명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말이다.⁴⁶ 그러나 여기서 특히 거론코자 하는 바는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전 시대를 통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기 이후에 얼마 동안만 불려졌다는 것이 그것이요, 또 그때만은 이 국문이란말로 훈민정음 즉 우리의 문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있으므로 여기에 덧붙여 살피고자 하는 바이다.

지나간 1898년에는 이봉운이 《국문정리》라는 책을 지은 것이 있거니와 그 후에 1905년에는 지석영(1855~1935)의 《신정국문》⁴⁷ 실시 건에 관하여 상소가 있었으니 그 가운데 기록에 의하면 “신정국문오음상형변”이라고 하여 그 초성을 하나하나 들어서 논한 것 등이 있다. 이들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국문이란 말이 우리 문

46 ‘국문’이라는 명칭은 고종 31(1894)년 11월 21일 공문서 관련 칙령 1호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칙령 1호 제14조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이라고 하여 동 칙령 86호(고종 32(1895)년에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써 본을 삼고 漢譯을 附히며 或 國漢文을 混用함”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후 처음으로 한글을 나라 글자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후 학부에서는 혼란스러운 한글 표기법을 제정하기 위해 일제 침탈 1년 전인 1909년 12월 28일 《국문연구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국문연구의정안》(1909년)에서도 ‘국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문’이라는 국가 문자로 ‘국어’는 나라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지위가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47 《신정국문(新訂國文)》: 대한 제국 광무 9(1905)년에 지석영이 지은 국문 연구론. 한글의 전용, 병서의 폐지, 자체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자만을 지칭한 것임을 알겠으니 다만 우리나라의 글이라는 뜻만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언문’이니 ‘반절’이니 하는 말을 쓰는 대신에 이 ‘국문’이란 말을 쓰게 된 것이다.

이 명칭을 즉 국어니 국문이니 국자니 하는 것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하고 또 그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것에 맞는 명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한글’이란 말은 아마 문자만을 가리켜서 지은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한글’이란 말의 시작은 꼭 어느 때인지 불분명하나 이것은 ‘국문’이란 명칭이 사용되는 그 시절의 꼬트머리쯤 생겨난 것이라고 추측한다.⁴⁸

이 ‘한글’이란 말의 뜻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으나 모두 추측에 불과하니 아마 ‘한’은 ‘大’의 뜻과 ‘韓’의 뜻을 겸하고 있는 듯한데 결국 ‘大’의 뜻을 표한 듯싶다. 그것은 주시경(1876~1914) 선생이 지은 것이라고 전하는데 근본이 우리말의 ‘大’의 뜻인 ‘한’을 썼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글’이란 말이 완연하게 또 성행하게 된 것은 아마 일본이 조선에 또는 조선의 문자를 없애려고 한 정치적 탄압에 영향을 받은 바도 있을 것이지만 ‘조선어학회’가 《한글》이란 잡지를 보급시키고 또 〈한글마춤법 통일안〉(1933년)을 발표하면서 그 자리를 분명히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일에 이 ‘한글’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간혹 혼용되어 그 글을 이름인지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각 어휘의 뜻을 분명히 제작하고 또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의 하나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인다.

48 주시경(周時經) 선생을 중심으로 1908년 ‘국어연구학회’가 만들어졌으나,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바로 ‘배달말글문음’으로 이름을 고친 후, 1913년 4월에는 다시 그 이름을 ‘한글모’로 고쳤다. 이 때부터 ‘한글’이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 듯하며,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27년 한글사에서 펴낸 《한글》(7인의 동인지)이라는 잡지에서부터이다. ‘한글’의 ‘한’은 ‘하나’ 또는 ‘큰’의 뜻이니, 훌륭한 우리말을 적는 글자라는 뜻으로 권위를 세워 준 이름이다. 이는 세종이 ‘정음’이라 부른 정신과 통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글자 이름으로만 사용되다보니 우리말 곧 ‘국어’와 달리 불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우리 글을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말에 대해서는 ‘한말’을 한 짝으로 쓸만하다.

제2장 창작 및 반포의 연대

‘어제 훈민정음’이 처음으로 창작(‘창제’라는 말로 이하 통일함, 제정, 제작, 찬정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된 연대와 또 이것이 일반에게 반포(《훈민정음》해례본의 완성)된 연대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이니 먼저 이것을 전후 두 갈래로 갈라서 먼저 창제된 연대를 규정하고 다음으로 반포된 연대를 분명히 하여 이 해답을 짓고자 하는 바이다. 이 문제는 근본 기록에 명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일을 작성하는 시초에 있어서 또는 이 중세의 유명한 학자의 설명에 있어서 이것의 창제된 연월과 반포된 연월을 구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포된 연월을 잘못으로 창제된 연월로 오인하고 있었던 관계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도 간혹 이것에 대한 태도가 애매하므로 여기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천견을 다시(이미 여러 번 발표함) 되풀이 하게 되는 바이다. 극히 간단히 간추려 기술하고자 한다.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된 연대와 그 반포된 시일을 찾아보면 그 사이에 3년이란 시일이 전후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의 기사로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조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글자(한 음절로 구성된)는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한자와 우리나라 언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⁴⁹

이 기사에서 ‘훈민정음’이란 명칭이 분명 처음으로 이때에 생겼으니 그 때에 제정된 글자 수(초성, 중성의 날글자)가 28자임을 알 수 있다. 이리 하여 세종대왕께서 친제하신 언문 곧 훈민정음 28자가 세종 25(1443)년 12월까지에는 완료되었음을 분명히 알려 주는 확실한 기록이다. 적어도 세종 25(1443)년 12월 까지는 창제가

49 “是月，上親製諺文二十八字，其字倣古篆，分爲初中終聲，合之然後乃成字，凡于文字及本國俚語，皆可得而書，字雖簡要，轉換無窮，是爲訓民正音。”，《세종실록》 세종 25년 계해(1443, 정통 8) 12월 30일.

완료되었음이 확실하다.

이 기록을 증명해 주는 몇 가지 역사적 증거를 들면 먼저 정인지의 서문에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날글자는) 발음의 형상을 본뜨고 글자(초+중+종으로 구성된 음절글자)는 고전을 모방하여, 소리에 인하여 음은 철조에 합하여 삼국의 뜻과 이기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28자로써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⁵⁰

이라 함은 세종대왕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신 사실이 분명함을 말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 훈민정음의 제작을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찬성하고 희망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에 반대한 유력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정황이 문헌 상에 남아있다. 그 중에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의 장문의 상소 같은 것은 그 분명한 예이다. 이 상소 글머리에 이런 기록이 있다.

“신 등이 엮드려 보옵건대, 언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온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으나,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사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엮드려 성재(聖裁)하시옵기를 바랍니다.”⁵¹

이것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듬해인 세종 26(1444)년 2월 20일에 있는 일로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었으니 훈민정음의 창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사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로서 추상해도 완성도 못한 것을 가지고 신하로서 그렇게 완강한 반대로 상소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역시 이 창제는 세종 25년에 확실히 완성되었던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줄 안다.

50 “癸亥冬, 我殿下創製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做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세종실록》 세종 28(1446)년 9월 29일.

51 “臣等, 伏觀諺文製作, 至爲神妙, 創物運知, 竄出千古, 然以臣等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懇, 謹疏于後, 伏惟聖裁”, 《세종실록》 세종 26(1444)년 2월 20일.

다음으로 세종 26년 2월에는 이 정음을 가지고 《운회》를 번역시킨 사실이 있으니⁵² 《세종실록》 세종 26(1444)년 2월 병신 조에 보면 아래와 같다.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이선로, 이개, 돈녕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에 나아가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과 진양 대군 이유, 안평 대군 이용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모두가 성품이 예단하므로 상을 거듭 내려 주고 공역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⁵³

이와 같이 《고금운회거요》⁵⁴까지 번역하게 하신 것으로 보아서 훈민정음의 제작이 제해 겨울까지에 완료되었음은 의심 없는 바이다. 《운회》를 번역한 사실은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문 중에도 들어 있다.

52 여기서 《운회》란 어떤 운서를 말하는 것인가? 박병채(1983:12) 교수는 실록에서 세종이 번역하도록 명한 운서가 《고금운회거요》가 아닌 《홍무정운》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것이 《고금운회거요》였다면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박병채(1983), 《홍무정운역훈의 신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의 운도 7성과 악물 오성과의 대응(순음-궁, 후음-우)이 《고금운회거요》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당시 세종이 번역하도록 명한 《운회》는 《고금운회거요》임이 분명하다. 그 후 명나라 홍정 운서인 《홍무정운》의 번역으로 한자음 통일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훈민정음 해례와 달리 그 이후 문헌에서 운도 7성과 악물 오성과의 대응뿐만 아니라 한자음이 특히 치음과 입성운미 ‘ㄷ’의 표기가 달라지게 된다.

53 “命集賢殿校理崔恒, 副校理朴彭年, 副修撰申叔舟, 李善老, 李埏, 敦寧府主簿姜希顔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瑑, 安平大君瑑, 監掌其事, 皆稟睿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 《세종실록》 세종 26(1444)년, 2월 16일.

54 《고금운회거요》: 1297년 옹충(熊忠)이 원나라 초기의 황공소(黃公紹)가 지은 《고금운회》를 간략화한 운서로 전 30권이다. 이 책은 송대 이후의 중국음운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임자신간예부운약》(유연(劉淵), 1252년)의 107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지로는 당시의 음운 체계를 고려하여 배열하고 있는데 중국 북방음을 반영한 《몽고자운》과 매우 흡사하다. 이것이 이른바 자모운인데 각 운 안에서 한자 배열도 한도소(韓道昭)의 《오음집운》(1211)과 같은 36자모순으로 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이어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고금운회거요》의 번역을 명하였는데, 이 사업은 완성되지 못했다. 그 대신 세종 29(1447)년에 《동국정운》을 편찬하였다. 곧 《동국정운》은 중원음운을 반영한 원나라 북방음을 반영한 《고금운회거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종 때의 최세진은 《고금운회거요》에 수록된 한자의 배열을 옥편식 자서로 개편하여 《운회옥편》(1536) 2권을 지었으며, 선조 때의 이식(李植)은 《고금운회거요》를 30권 12책으로 복각하였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 억지로 덧붙여)하여 공장(판각 장인) 수십 인을 모아 각본하여서 급하게 널리 광포(廣布, 널리 나누어 줌)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에 어떠하겠습니까?”⁵⁵

한 가지 더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용비어천가》와 같은 귀중한 책이 세종 29(1447)년에 한문본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보아서는 가히 알 수가 있다.⁵⁶ 세종 28(1446)년 여름 4월에 쓴 정인지의 근서에도 이렇하다.

“삼가 백성들의 칭송하는 소리를 모아서 125장의 시를 지었으니, 먼저 옛날 중국 제왕의 자취를 쓰고 그 다음에 왕실 조상의 일을 서술했습니다.”⁵⁷

또 안지(1377~1464) 등이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리는 데도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찬술한 노래는 125장이니 삼가 황급히 베끼고 제책(필사본을 제본한 것)하여 전과 함께 올리니”⁵⁸

55 “今不博採群議，驟令吏輩十餘人，講習，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附會無稽之諺文，聚工匠數十人刻之，劇欲廣布其於天下，後世公議如何。”，《세종실록》 세종 26(1444)년 2월 20일.

56 세종 27(1445)년은 《용비어천가》의 한문본이 완성된 시기이다. 세종 28년(1446)년 11월 8일, 《세종실록》 권114권에 “태조실록을 내전에 들여오기를 명하고, 드디어 언문청을 설치하여 사적을 상고해서 용비시(龍飛詩)를 침입하게 하니,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실록은 사관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언문청은 알아서 드러나게 되고 외인의 출입이 무상하니, 신 등은 매우 옳지 못하였다고 여깁니다 (命太祖實錄入於內，遂置諺文廳，考事迹，添入龍飛詩。春秋館啓 實錄，非史官，不得見。且諺文廳淺露，外人出入無常，臣等深以謂不可。上卽命還入內)”라는 내용을 보면 용비시가 언해된 것은 세종 28년 이후임을 확인할 수 있다.

57 “謹採民俗稱頌之言，撰歌時一百二十五章，先叙古昔帝王之迹，次述我朝祖宗之事。”，《용비어천가》 서문.

58 “訂撰歌詩總一百二十五章，謹繕寫裝演隨，箋以聞。”，《용비어천가》 전문.

이상의 모든 기록에 의하여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 25(1443)년 계해임이 확실한 것임을 거듭 말하여 둔다. 그리고 이 반포에 관하여는 《세종실록》 28년 병인 9월 조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이달에 훈민정음을 지었는데 어제 월”에서 이와 같이 세종 28(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이 한 책으로서 간행되어서 일반에게 반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그러나 이 간행이 완성된 일자에 대하여는 《세종실록》에도 분명하지 않고 그 외 다른 곳에도 어느 날이라고 지적하여 기록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반포 기념일에 관해서도 지나간 1926년 즉 훈민정음 반포 팔 주갑⁶⁰에 처음으로 이 기념의 날(가날)을 가지게 될 때에 부득이 이 9월 그믐인 29일로 정하였다가 그 후 양력으로 이 날을 환산하여 10월 29일로 2년간을 지내 왔고 다시 역서 관계로 10월 28일이 작성되어 여러 해 지내 왔는데⁶¹ 지나간 1940년에 이 원본인 해례본이 발견되어 그 정인지 서문 연대기 중에 전에 있던 모든 기록보다도 좀 더 자세히 9월 상한(上澣)⁶²이라고 기록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어느 날일지 펍 막연하던 것이 상한이란 두 자의 기록에 의하여 좀 더 좁혀져서 9월 10일로 정하고 나니 이만큼 줄어진 날짜를 양력으로 10월 28일에서 뽑으매 10월 9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1947년 훈민정음 반포 500주년 기념일을 이 10월 9일로 지내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세종대왕께서 세종 25(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를 완료하고 세종 28(1446)년에 간행물로서 반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한글이 창제된 날을 세종 25년보다 세종 28년으로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세종실록》의 세종 28(1446)년 병인년 9월의 기사와 또 그 후에 《성호사설》에 역시 병인년이라고 하였으며

59 이승녕(1967) 교수는 세종 28(1446)년 9월 상한을 《훈민정음》 해례본 책이 완성된 시기로 본 방중현 교수의 견해와는 달리 정인지가 해례본 서문을 쓴 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를 쓴 날짜와 책판을 만들어 인간한 날짜는 선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대동소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0 팔 주갑(八 週甲): ‘주갑’은 ‘환갑’과 같은 의미로,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따라서 ‘팔 주갑’은 육십갑자가 여덟 번 되돌아 왔으므로 1446년에 480년(60×8)을 더하여 1926년 병인년을 뜻한다.

61 이명칠(1932), 〈한글날의 양력 환산〉, 《한글》(동인지) 제1권 5호, 참조.

62 상한(上澣)은 상순,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동안.

“우리나라 언자(諺字)는 세종대왕이 병인년에 창제 하시여 무릇 모든 소리를 문자로 옮기지 못하
는 것이 없으니”⁶³

또 여암 신경준도 영조 26(1750)년에 그가 지은 《훈민정음운해》 서문에

“정통 병인년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지으셨으니”⁶⁴

이라고 기록한 것이 있으니 이들의 기사가 모두 그 후 마치 세종 28(1446)년 병인
에 훈민정음을 창제나 한 것 같이 일반이 생각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원인을 지은 근거지는 《세종실록》의 기사 중 병인(1446)
년 9월에 “訓民正音成…”이라는 이 ‘成’자에 달렸다고 보겠다. 이 ‘成’자에 의하여
그 후 여러 학자가 병인(1446)년 9월에 창제라고 ‘成’자의 뜻을 해석한 데서부터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오인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잘못의 근원인
‘成’자는 이 《세종실록》의 기록의 표준으로 보아서 이것은 한 간행물이 출판됨을
말한 것이니 이것을 다만 한 서적의 완성으로만 보는 데서 그런 잘못이 생긴 것이
다. ‘成’자를 사용한 이 실록의 다른 여러 예에서 그것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하겠
으니 이 점만 확실히 하면 중세의 여러 학자나 근일의 여러 가지 오해는 자연히 소멸
될 것이리라고 믿는다.

이상의 여러 사실에 비추어서 훈민정음은 분명히 세종 25(1443)년에 창제가 완료
되었고 그 후 3년 째 되는 세종 28(1446)년 병인 9월에 이것이 한 간행물로서 일
반에게 반포된 것임을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미주3]

63 “我東諺字，創於世宗朝丙寅，凡有音者，莫不有字。”，《세종실록》 세종 28년 병인년 9월의 기사.

64 “正統丙寅，我世宗大王，製訓民正音。”，영조 26(1750)년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서문.

제3장 예의 본문

조선 문화의 백반이 이때에 싹이 트고 또 융성하던 세종 28(1446)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에 반포가 되었다. 집현전에 운집한 다방면의 학자들은 마음 놓고 그 장치를 기를 수가 있었고 또 지극한 후대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다.

유교, 도교, 불교도 학문상에서 자유가 있었고 의약, 병사, 농잠에 모두 전력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삼강과 예의를 중히 하고 악가며 울러를 바르게 하여 이들의 문헌을 새로 주조한 활자로 간행까지 하며,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우리말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하고 한자의 음을 정리하여 운서를 역해하게 하니 실로 이때는 우리 말과 한자음을 정리 통일한 제1기적인 중요한 시대임이 틀림없다.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정회(情懷)를, 우리의 문자로다 발표함이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문학에 있어서도 한문자이거나 다른 외국 문자를 빌어서 발표한 것을 참다운 완전한 우리 문학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자기 나라 어음에 자유자재하게 들어맞는 그런 문자를 만일 가지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그것보다 더 큰 그런 불행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최신의 학리에 들어맞고 간단하고도 무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자를 가진 기쁨이야 어떻다 더 말할 수 있으리요.

1. 훈민정음 예의⁶⁵

[어제 서문]

國之語音。⁶⁶異⁶⁷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子。爲⁶⁸此憫然。新制二十八字。⁶⁸欲使人人易⁶⁹習⁶⁹。便於日用耳⁷⁰

65 예의(例義): 이 예의라는 용어는 정인지의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간략하게 예(例, 보기)와 뜻(義)을 들어 보인다(略揭例義以示之)”에서 가져온 용어이다. 흔히 《실록본》에 있는 세종 어제 서문과 한글 28자 자모표와 그 음가를 비롯한 병서, 연서, 부서, 중성, 성음, 사성에 대한 규정을 요약한 글을 예의라고 한다. ‘예의(例義)’의 의미를 정광(2009:243) 교수는 “ㄱ, 牙音, 君字初發聲”과 같이 그 자형의 보기를 ‘예(例)’라고 하고 그 음가를 나타내는 ‘+ㅁ(君)’의 한자음을 음가 곧 ‘의(義)’로 규정하고 있다. 해례본을 만들기 전에 세종께서 친히 창제한 한글 28자의 낱글자의 글꼴과 음가를 비롯한 글자 운용의 방식을 집약한 이 예의를 손으로 써서 계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의’는 2종의 《실록본》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본문으로 실린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66 ‘國之語音’은 “나라의 말소리(國言, 語音, 國語)”의 뜻이다. 정광(2005:21) 교수는 이 대목을 “(한자음의) 국어 발음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마치 한글을 중국 한자음 표기를 위해 만든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승녕(1957:52) 교수에서 “한글은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를 위한 연습장 구실을 했다”는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다. 만일 한자음 표기를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8자에서 한자음 표기를 위해 만든 전탁자 6자를 제외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중국과 조선의 말이 서로 달라서 조선 사람은 중국의 한자나 한문만으로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67 《해례본》의 ‘異乎中國’과 달리 《실록본》에는 ‘異乎中國’이라는 표기가 나타남으로서 그 이후의 《열성어본》, 《배자운부운략본》, 《경세훈민정음도설》, 《오주연문상전산고》 등에 실린 예의에는 ‘류’자로 나타나 일련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박승빈 본 《훈민정음》 언해본에도 《배자운부운략본》에 따라 ‘류’자로 기입한 것이다.

68 세종이 ‘새로 창제한 언문 28자(新制二十八字)’는 다른 문자를 모방한 글자가 아니라 독창적으로 조성 17자, 중성 11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제한적 음소문자임을 명백히 밝혀 두고 있으나 당시 한자음이나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곧 몽고, 여진, 만주 등의 외래어 표기를 위해서 병서나 합용의 방식으로 다양한 문자를 조합하여 쓸 수 있는 표음문자로서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제한적 음소문자인 동시에 표음문자이며 문자의 체계적 측면에서는 자질문자(Feature letters)로 규정할 수 있다. 당시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자 이름은 ‘언문’으로 한어를 비롯한 외래어 표기와 한국 한자음 표기를 위한 문자 이름으로는 ‘훈민정음(정음)’이라는 용어로 불렀으나 이를 포괄하여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69 欲使人人易⁶⁹習⁶⁹: 예의가 실린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에는 모두 “欲使人人易習”으로 되어 있어 해례본 서문에 실린 내용과 차이를 보여준다. 해례본의 ‘欲使人人易習’과 비교하여 《실록본》의 ‘欲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⁷¹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使人易習을 단순한 오류로만 단정하기 어렵다. 후대에 나타나는 이본에서 ‘欲使人易習’이 그대로 전승되어 온 것을 보면 해례본과 《실록본》은 두 갈래의 이본으로 후대에 전승된 결과였다. 이후 예의 이본에까지 이어져 온 것을 본다면 해례본보다 《실록본》이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欲使人易習’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것을 문장상의 오류라고 판단한다면 후대의 이본(《배자예부운략》)에까지 전승되어 온 것을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다. 정인지 서문에 세종이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시고(略揭例義以示之)”에서 세종이 제시한 수고본에는 ‘人’ 한 글자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후 해례본에서 변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인석보》의 세조의 어제 서문에 “就譯以正音^{하야} 俾人人習曉^{케 하야}(正音으로 翻譯^{하야} 사람마다 수비 알에 ^{하야})”와 같은 표현이다.

70 ‘耳’는 《훈민정음》 해례본(간송 미술관 소장본)에서는 앞의 2장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를 보사하는 과정에서 ‘矣’로 잘 못 써넣은 결과이다.

71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이를 영어판으로 번역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Sek Yem Kim-Cho(2001), 《The Korean Alphabet of 1446》(Asea Culture Press)에서 “The speech sounds(語音) of our country’s language are different form those of rhe Middle Kingdom(Chaina) and are not communicable with the [sound of] Chinese characters,”로 국립국어원(2008)에서 간행한 영어판 《Hunmin jeongum》에서는 “Since the phonological system of Korean is different from that of Chinese, the Chinese characters that describe both Chinese and Korean cannot be used in communication,”으로 되어 있다. 조선의 말과 중국어가 다르고 중국어를 기록하는 한자로 말이 다른 조선어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의미임에도 음운체계가 다르다고 번역함으로써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 특히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성리학적 용어와 언어학적 용어도 번역 상 많은 문제가 있어 앞으로 보다 정확한 해석문을 표준화하여 고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한글 표준 번역판에 따라 외국어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초성 글꼴과 음기]⁷²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⁷³

ㄱ[k]은 아음이나 君(군-평성)⁷⁴자 첫소리와 같으며

並書. 如虬⁷⁵字初發聲

나란히 쓰면(ㄱ[k]) 虬(꿀-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72 초성의 조음 위치(point of articulation)와 조음 방법(manner of articulation), 예의에서 자음의 배열 방식은 ‘아-설-순-치-후’로 되어 있으나 이를 해설한 해례본 초성 제자해에서는 ‘후-아-설-치-순’으로 곧 목구멍에서 입까지 배열 순서로 되어 있어 세종의 창제 당시 예의의 내용이 해례본에서 변 개된 것이다.

초성 17자는 당시 우리말의 음소를 나타내는 15자와 제한적 음소(제한적 변이음)를 표기하는 ‘ㅇ’, ‘ㄷ’ 2자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음소문자가 아니라 제한적 음소문자(constrains phonemic letters)다. 초성 17자에 전탁글자 6자(ㄲ, ㄴ, ㄷ, ㄹ, ㅂ, ㅅ)를 기본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한자 음 표기를 위한 것보다 고유어 표기를 우선한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은 음소문자인 동시에 음성문자적 성격을 함께 가진 음절 구성문자임을 알 수가 있다.

| | | | |
|-----|-------|---------------------------|---------------------|
| 牙音 | 어금닛소리 | 연구개음(velar sound) | 혀뿌리와 연구개 사이 조음 |
| 舌音 | 혓소리 | 치조음(alveolar sound) | 혀끝과 이 사이에 조음 |
| 脣音 | 입술소리 | 양순음(bilabial sound) | 아래 윗입술에 의한 조음 |
| 齒音 | 잇소리 | 설첨음(apical sound) | 혀끝과 잇몸 사이 조음 |
| 喉音 | 목구멍소리 | 후음(guttural sound) | 후두 성문에서 조음 |
| 半舌音 | 반혓소리 | 설측음(lateral sound) | 혀 양 옆으로 호기를 흘려내는 조음 |
| 半齒音 | 반잇소리 | 설첨유음(apical liquid sound) | 혀끝과 잇몸사이 조음 |

73 초발성(初發聲): 글꼴 ㄱ은 君(ㄱ+ㅅ+ㄴ)의 음절 구성에서 처음 나는 소리(initial sound) 곧 ‘ㄱ’소리를 말한다.

74 창제 당시 예의에서 결정한 표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여기서는 그 후의 《동국정운》식 음으로 나타난 언해본의 발음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75 ‘虬’자는 《실록본》 가운데 《태백산본》이나 〈정족산본〉에서 “如虬字初發聲”이라는 대목이 해례본에서는 “如虬字初發聲”으로 되어 있다. 《실록본》에 ‘두(虬)’자가 해례본에서는 ‘구(虬)’자로 되어 있다. 이 또한 박종국(1984)에서는 오류로 처리하고 있으나 고속동이(古俗同異)의 문제이다. 이형상의 〈자학〉의 〈고속동이〉의 항에 “虬는 蚪로 쓰며”라고 하여 동음이체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록본에서 ‘虬’자는 편방점획에 따라 ‘虫’변의 상단에 빗기 한 획을 추가하였다. 다만 예의편에서 ‘두(虬)’자가 해례본에서 정족산인 ‘구(虬)’로 변개된 것이다. “如虬字初發聲”로 되어 있는 예의 계열의 전거로는 《열성어제》, 《배자예부운략》, 《경세훈민정음도설》, 《해동역사》에서 실록본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 운학자들에게 해례본보다 《실록본》 예의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ㅋ[k^h]은 아음이니 快(쾌-거성)자 첫소리와 같다

ㅇ. 牙音. 如業字初發聲

ㅇ[ŋ]은 아음이니 業(업-입성)자 첫소리와 같다

ㄷ. 舌音. 如斗字初發聲

ㄷ[t]은 설음이니 斗(둘-상성) 첫소리와 같으며

並書. 如覃字初發聲

나란히 쓰면 ㄸ[tʰ] 覃(탐-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ㅌ. 舌音. 如吞字初發聲

ㅌ[tʰ]은 설음이니 吞(툰-평성) 첫소리와 같다

ㄴ. 舌音. 如那字初發聲

ㄴ[n]은 설음이니 那(낭-평성) 첫소리와 같다

ㅍ. 唇音.⁷⁶如𪔐字初發聲

ㅍ[p]은 순음이니 𪔐(뵈-입성) 첫소리와 같으며

76 순음(唇音): “唇音-唇音”, “唇輕音-唇輕音” 등의 차이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결코 글자의 오자로 인한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후대에 나타나는 각종 예의편 이본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순음(唇音)의 ‘순(脣)’자가 ‘진(唇)’로 나타나는 것은 《열성어제본》이나 《배자예부운략본》의 예의편 뿐만 아니라 《경세훈민정음도설본》과 《해동역사본》에서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예의편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정우영(2000:31) 교수도 ‘唇:脣’을 현대적 관점에서 단순한 오류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속자와 정자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 그 근거로 《능엄경언해》 권8:14에서 “唇(食偷切, 口也)”라고 반절을 근거로 하여 ‘쑤’이며, 그 뜻은 ‘口脣’으로 ‘입술’이라는 예를 들고 있다. 실제로 성운학자 명곡 최석정이나 자학 연구에 한 경지를 이룩한 병와 이형상의 글에서도 ‘순(脣)’자와 ‘진(唇)’자는 많이 혼용하고 있다. 병와 이형상의 《악학편고》〈성기원류〉에도 오음과 오음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에 “宮本喉, 商本齒, 角本牙, 徵本舌, 羽本唇, 韻家, 唇爲宮, 齒爲商”이라고 하여 ‘唇’을 ‘脣’ 대신에 속자로 사용하고 있다.

並書。如步字初發聲

나란히 쓰면(ㅃ[pʰ] 步(뽕-거성)자 첫소리와 같다

ㅍ。唇音。如漂字初發聲

ㅍ[pʰ]은 순음이니 漂(푼-평성) 첫소리와 같다

ㅁ。唇音。如彌字初發聲

ㅁ[m]은 순음이니 彌(밍-평성) 첫소리와 같다

ㅈ。齒音。如卽字初發聲

ㅈ[ts]은 치음이니 卽(즉-입성) 첫소리와 같으며

並書。如慈字初發聲

나란히 쓰면(ㅉ[tsʰ] 慈(쫘-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ㅊ。齒音。如侵字初發聲

ㅊ[tsʰ]은 치음이니 侵(침-평성) 첫소리와 같다

ㅅ。齒音。如戌字初發聲

ㅅ[s]은 치음이니 戌(슌-입성) 첫소리와 같으며

並書。如邪字初發聲

나란히 쓰면(ㅆ[sʰ] 邪(쌍-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ㅎ。喉音。如挹字初發聲

ㅎ[ʰ]은 후음이니 挹(흡-입성) 첫소리와 같다

ㅎ。喉音。如虛字初發聲

ㅎ[h]은 후음이니 虛(형-평성) 첫소리와 같으며

並書。如洪字初發聲

나란히 쓰면(ᄃᆞᆫ[h⁷]) 洪(홍-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ㅇ。喉音。如欲字初發聲

ㅇ[h]은 후음이니 欲(욕-입성) 첫소리와 같다

ㄹ。半舌音。如間字初發聲

ㄹ[r]은 반설음이니 間(령-평성) 첫소리와 같다

ㄷ。半齒音。如穰字初發聲

ㄷ[z]은 반치음이니 穰(상-평성) 첫소리와 같다

[중성 글꼴과 음가]⁷⁷

·。如吞字中聲

·[ɔ]는吞(툰-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如卽字中聲

—[w]는卽(즉-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l。如侵字中聲

l[i]는侵(침-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77 중성은 기본자 하늘(天, ·), 땅(地, —), 사람(人, l) 3자를 성수론에 근거하여 초출자 ‘ㄴ, ㄷ, ㄹ, ㅁ’ 4자와 재출자 ‘ㅂ, ㅅ, ㅈ, ㅊ’ 4자를 포함하여 11자만 제시한 것도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음소문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모음 11자를 가지고 합자를 하면 매우 다양한 표음 문자(음성문자)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세종은 예의를 창제할 때 미리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창제 당시 훈민정음은 음소문자의 관점에서 28자로 제한했으나 한자음이나 몽고어, 여진어 등 외국어 표기를 위한 수단으로서 표음문자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운용 규정으로 돌려놓았다.

ㄱ。如洪字中聲

ㄱ[o]는 洪(홍-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ㄷ。如覃字中聲

ㄷ[a]는 覃(탐-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如君字中聲

ㄴ[u]는 君(군-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ㄹ。如業字中聲

ㄹ[ə]는 業(업-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如欲字中聲

ㄴ[jo]는 欲(욕-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ㄷ。如穰字中聲

ㄷ[ja]는 穰(양-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如戌字中聲

ㄴ[ju]는 戌(슌-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ㄷ。如驚字中聲

ㄷ[jə]는 驚(별-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중성 규정]⁷⁸

78 예의에서 중성 규정은 대단히 미흡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리 나는 대로 음소론적으로 표기할 것인지 어간을 밝혀 적는 형태음소론적으로 표기할 것인지 전혀 밝혀 놓지 않았으나 해례본을 만드는

終聲復^ㄴ用初聲。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⁷⁹

[연서]

○連書⁸⁰ 脣音之下。則爲脣輕音。

과정에서 8중성용법으로 보완을 하였다. 특히 입성자 -p, -t, -k가 중국 북방 한자음에서는 모두 소실되었는데 그 가운데 -t의 표기는 해례본과 달리 언해본에서는 《동국정운》식 표기(以影補來)로 바뀌어서 ‘-ㄷ’-ㄷ ㅎ’으로 변개가 되었다. 이처럼 훈민정음 예의의 창제 이후 해례본이 완성이 아니라 언해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변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9 홍기문(1946:15) 선생도 중성 규정의 불완전함에 대해 “성(聲)으로는 초, 중, 중성의 셋이지만은 중성은 초성을 도로 쓰는 까닭에 문자로는 초, 중의 둘 뿐이다. 이미 문자장에서 초, 중성의 두 글자를 보았으니 중성은 자연히 용법의 한 항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성 전부를 중성에 쓸 것이란 말인지, 초성의 어느 일부분만을 중성에 쓸 것이란 말인지 심히 명확하지 못하다. 단지 규정이 매우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굳이 그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 그 점이다. 비단 중성법뿐만이 아니요, 다른 용법의 설명에서도 다수 이러한 태도로 쓰여 있다. 먼저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80 연서(連書): 훈민정음의 초성자는 결국 한자 자모에서 설음(설두-설상), 순음(순중-순경), 치음(치두-정치) 3음에 있는 두 부류를 합병시킨 것이 특징이다. 다만 순음의 두 부류만은 반영하였다. 순음에 ㅅ을 연서한 것이 순경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순음이라는 것은 물론 순경음도 포함된다. 그런데 순경음은 왜 다른 음이나 마찬가지로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순음에 ㅅ을 연서하여 만들었을까? 정음으로서 외래어 표기를 위한 표음문자이면서 우리말의 이음 표기를 위한 양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이제 그 당시 문헌의 용례를 살펴보면 우리말에는 ‘쉬불씨라’나 ‘글바쓰면’과 같이 오직 ‘ㅁ’은 초성으로 쓰여 있고 한자음에는 ‘斗’자의 음 ‘투’이나 ‘漂’자의 음 ‘푹’과 같이 오직 ‘ㅁ’의 중성으로 쓰이고 있을 뿐이다. 《홍무정운역훈》 서문에는 “7음은 36자모로 되나 설상 4모와 순경음의 차성인 1모(敷)는 세상에서 쓰이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또 앞선 분이 이미 바꾼 것이니 억지로 36자모를 존속시켜 옛것에 사로 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훨씬 후일에 이르러 한자의 한음으로 인하여 ‘ㅁ’의 한 음이 더 사용됨에 불구하고도 의연 차청의 1모(敷)만은 결락된 셈이다. 그러니까 순경음은 말하자면 실용상 불필요한 자모이다. 그렇다고 실용되는 그 음까지를 배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무용의 글자를 나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침내 순음에 ‘ㅅ’을 연서한다는 극히 합리적인 변법을 취하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한다.

글자 수로는 네 음이 마련되었으나 실제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무용의 글자로 남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한 가지 점에서만도 《훈민정음》을 제작한 세종의 비상한 고심이 짐작된다. 해례본에서는 설경음 ‘ㄹ’도 예시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순음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⁸¹이 된다

[병서]

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

초성을 함께 쓸 때에는 나란히 쓴다. 종성도 같다.⁸²⁾

[부서]

· 一 丄 丅 丂 丆 附書於初聲之下。

· 一 十 丁 卅 卅^는 초성 아래에 붙여 쓰고

一 卜 一 卜 一 卜 一 卜 一 附書於右。

ㄴ ㄷ ㄹ ㅁ ㅂ⁸³는 초성 오른쪽에 붙여 쓴다⁸⁴

[성음]

- 81 순경음(脣輕音): 순음은 입술에서 무겁게 나는 소리인 순중음 ‘ㅂ, ㅃ, ㅄ’과 가볍게 나는 소리인 ‘ㅍ, ㅆ, ㅈ, ㅊ’으로 구분되는데 순중음은 정지음(stop)이지만 순경음은 마찰음(fricative)이다. 실제로 순경음은 한자를 표음부호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동국정운》에서는 ‘ㅍ’자가 《홍무정음역훈》에서는 ‘ㅂ, ㅆ, ㅈ’자가 사용되었다. 다만 우리말 표기에서 사용된 ‘ㅍ’는 변이음 표기였음은 기본 28자에 제외시켰던 점으로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훈민정음의 문자 제정의 기본 원리로 제한적 음소적 표기와 음성적 표기의 이중성을 알 수 있다.
- 82 병서(竝書): 두 개 이상의 낱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이어 쓰는 방식이다. 글꼴이 같은 글자를 나란히 이어 쓴 글자를 각자병서(ㄷ, ㄸ, ㅅㅅ, ㅆㅆ, ㅈㅈ, ㅊㅊ)라 하고, ‘ㄱ, ㄴ, ㄹ’ 글자와 다른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쓴 글자를 함용병서(ㄱㅅ, ㄴㅆ, ㄹㅈ)라고 한다.
- 83 ‘ㅣ ㅏ ㅑ ㅓ ㅕ’의 배열 순서가 《배자예부운략》에서는 ‘ㅣ, ㅏ, ㅑ, ㅓ, ㅕ’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 후대의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84 부서(附書): 연서와 병서의 낱글자의 결합 방식이라면 부서는 낱글자의 결합 방식을 포함한 모음을 중심으로 한 음절 구성 방식을 규정한 내용이다. 음절핵(syllable core)인 중성을 기준으로 하여 ‘위(上)-아래(下)’, ‘앞(左)-뒤(右)’로 붙여 쓰는 음절합성 규정이다. ‘ㄷ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는 ‘누운형(張口之字, 《사성통해》)’으로 ‘하늘(天, ㆁ)땅(地, ㆁ)’의 오방과 성수 배치에 따라 만든 글자이고 ‘ㅣ ㅏ ㅑ ㅓ ㅕ’는 ‘세운형(縮口之字, 《사성통해》)’으로 ‘사람(人, ㅣ)-하늘(天, ㆁ)’의 오방과 성수 배치에 따라 만든 글자이다. 모음 역시 음소 문자인 11자 이외에 음성표기를 위한 ‘혼합형’으로 ‘ㅜ, ㅠ, ㅡ, ㅑ, ㅓ, ㅕ, ㅗ, ㅛ’ 등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예의에서 부서는 V+V의 구성 방식만 의미하지만 해례의 합자해에서는 C+V 구성방식으로 확대된다. 넓은 의미에서 부서는 합자법 규정의 일부이다. 최병수(2005), 《조선어 글자공학》, 사회과학원출판사, 11쪽에서 모음 글자의 유형을 ‘세운형’, ‘누운형’,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凡字必合而成音⁸⁵。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쳐야 소리를 이룬다

[사성]

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⁸⁶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 두 점을 더하면 상성, 점이 없으면 평성이며
입성은 점 더하기는 같으나 촉급하다⁸⁷

85 성음(成音): 이 항은 언뜻 보아 자못 명료한 것 같으나 다시 생각하면 대단히 명료하지 않다. 왜 그러
냐 하면 “반드시 합해야 소리를 이룬다(必合而成音)”의 합자가 종성까지를 포함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 중대한 차이가 생긴다. 물론 초, 중성 부서를 합으로 말한 것 같이 초, 중, 종성의 부서도 합쳐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맨 위에 얹힌 ‘必’의 한 글자가 문제이다. 즉 종성의 존재도 초성이나 중성과 같
이 필수나 아니냐 그 차이를 지적하는 말이다. 아무리 간단하고 정밀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중대한 차이를 애매하게 할 수는 없다. 종성법, 병서법 등의 문구나 마찬가지로 이 역시 일부러 명료
하게 하는 것을 피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이 규정은 해례의 정인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물
여덟자로 전환이 무궁하고 간략하면서도 긴요하며, 정교하면서도 두루 통하므로(以二十八字而轉換無
窮, 簡而要, 精而通)”라 하여 표음문자로서 장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말 표기에 최소한 필요한 글자
28자 이외에 합자 방식으로 매우 다양한 소리(바람소리, 학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를
적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 표현이다.

언서, 병서, 부서, 성음 규정의 내용을 통합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 | | | | |
|-------|-------|----|-----------|------------|
| 자음 결합 | 날글자합자 | 언서 | 음소, 음성 결합 | 위(上)–아래(下) |
| | | 병서 | | 앞(左)–뒤(右) |
| 모음 결합 | 모음 결합 | 부서 | 음소, 음절 결합 | 세운형 |
| | 음절 결합 | 성음 | | 누운형 혼합형 |

86 入聲加點同而促急: 《열성어제》 예의편은 《실록본》과 거의 동일하지만 ‘唇音’과 ‘唇輕音’에서 고속통용
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入聲加點同而促焉”에서 ‘促急’이 ‘促急’으로 된 점이 해례본과 다르다. 따라
서 《열성어제》의 예의편은 《실록본》 계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87 사성(四聲): 신기(神機)의 《사성오음구통반세도(四聲五音九弄反細圖)》 서문에는 《대광익회옥편》 “보
에 평성은 에이안(哀而安, 애잔하며 안정됨), 상성은 여이거(厲而舉, 갈며 들림), 거성은 청이원(淸而
遠, 맑으며 멀), 입성은 직이촉(直而促, 곧으며 촉급함)(謹曰平聲者, 哀而安, 上聲者厲而舉, 去聲者淸
而遠, 入聲者直而促)”이라고 하였는데 《원화보(元和譜)》의 사성론을 다소 수정한 뒤에 다시 사시(四
時)와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정초의 《칠음약(七音略)》 서문에는 “사성은 날줄이 되고 칠음은 씨줄이
된다. 강좌의 선비들은 평, 상, 거, 입이 사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궁, 상, 각, 치, 우, 반치, 반상이
가로로 칠음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로로 날줄이 되고 가로로 씨줄이 되니 날줄과 씨줄이 서로
엇갈리지 않는 때문에 운을 세우는 근원을 잃지 않게 된다.(四聲爲經, 七音爲緯, 江左之儒, 知縱有平

여기서 세종대왕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 훈민정음을 그와 같이 많은 고심을 쌓으면서 창제하셨나 하는 그 동기도 이 제자서(어제 서문)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로 우리나라 어음이 중국과 다르다는 점이니 즉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어음이 있는 만큼 중국 한자만으로는 이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어음에 맞는 국자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로 한문과 같이 특수한 또 난해한 문자가 아니고 백성 전체가 누구나 다 쉽게 배우고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는 우리 어음에 맞는 이런 보편성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 함이다. 세종대왕께서 그 백성 교도에 고심하심은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으니 일일이 거론할 것조차 없다. 즉 특별한 어음을 가진 한 독립 국가임에는 그 국가에 맞는 문자를 두어야 하겠다는 것과 누구나 다 일용할 수 있는 전 국민을 위한 국가가 필요한 점에서 세종대왕께서는 이 문자를 창제하시었다고 보겠다.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서 제자의 원리를 잠깐 찾아보면 초성과 중성으로 나누어서 초성 17자는 아, 설, 순, 치, 후의 오음에 기본을 두고 이 발음 기관에 모상하여 단 획으로부터 강도를 따라서 점차 가획하는 조직이라고 보겠다. 즉 후음은 목구멍(喉)을 상형하여 ‘ㅇ’으로 제자하고 이 ‘ㅇ’에다 한 획을 가하여 ‘ㅎ’가 되고 다시 한 획을 가하여 ‘ㅎ’가 되어 가는 순서를 보였으며, 설음으로 보아도 혀(舌)가 윗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상형하여 ‘ㄴ’으로 제자하고 여기서 ‘ㄷ, ㅌ’으로 점차 한 획씩 더한 것이 된다.

또 중성을 보면 천, 지, 인 삼제에 근거를 두었으니 하늘(天)이 둥글(圓)으로 최초자인 ‘ㅇ’을 둥근 점으로 상형하고 땅은 평평함으로 제2자인 ‘ㅡ’는 평형을 본뜨고

上去入爲四聲，而不知衡有宮商角徵羽半徵半商爲七音，縱成經，衡成緯，經緯不交，所以失立韻之源”이라 하였다.

| 사성 | | 가점 | 용례 | 소리 | |
|------|----|----|--------------|-----|-------------------|
| | | | | 해례본 | 언해본 |
| 평상거성 | 평성 | 무점 | 벼(稻), 콩(豆) | 安而和 | 못 늦가쁜 소리 |
| | 상성 | 2점 | ·돌(石), ·범(虎) | 和而擧 | 쳐서미 늦갑고 내중이 노픈 소리 |
| | 거성 | 1점 | ·갈(刀), ·키(箕) | 擧而壯 | 못 노픈 소리 |
| 입성 | 평성 | 무점 | 독(獾), 녀(脅) | 促而塞 | 쉴리 굶듯느 소리 |
| | 상성 | 2점 | ·난(穀), ·깁(紺) | | |

제3자인 ‘亼’는 사람의 서 있음을 본뜬 것이다. 이와 같이 천원(天圓), 지평(地平), 인립(人立)을 상형하여 기본 세 글자를 창제하고⁸⁸ 다음에는 이 세 글자가 상합하여 다시 하늘과 땅과 만나서 ‘土’가 나고 사람과 하늘이 만나서 ‘亼’가 나며 땅과 하늘이 만나서 ‘亼’를 하늘과 사람이 만나서 ‘亼’가 되니 이것이 이 획으로 된 것이요, 또 이 순서 그대로 ‘亼, 亼, 亼, 亼’의 삼 획의 글자를 만드니 이것이 3(·, 一, 一), 4(亼, 亼, 亼, 亼), 4(亼, 亼, 亼, 亼) 자가 합하여 중성 11자가 가획의 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초성은 발음기관을 모상하여 거기에 가획하여 제자된 것이요, 중성자는 천, 지, 인 세 기본을 근거하여 합성하여 제자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자의 원리에 의하여서 글자의 순서도 자연 생겼다. 그 후에 것은 《훈몽자회》의 범례와 같은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니 물론 이 변천은 그 실용의 현상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한 가지 이 문자의 제작이 이두 토 모양으로 변천하기는 한자의 약초를 가지고 쓸 것이지 새로운 자모를 짓는 길로 나간 것이 여간 고맙고 귀한 일이 아니다.

전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하여야 될 것이니 그 글자 수(자모)에 관한 것이며, 그 글자마다의 각론, 또 종성과 초성과 중성에 관한 것도 세론하여야 할 것이다. 또 순경음은 어떤 것이며, 병서와 연서와 부서란 어떤 것인가 또 방점과 사성과의 관계도 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것은 모두 훈민정음의 연구에 미루고 여기서는 다만 그 전문을 들어 놓는 데 그치고 그 밖에는 일절 생략한다.

88 《회남자(淮南子)》에도 천도(天道, 하늘의 도리)를 원(圓)이라고 하고 지도(地道, 땅의 도리)를 방(方)이라고 하여 본래부터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의 유래는 실로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형을 둥근에서 땅의 형을 네모로 말함에 대하여 사람(人) 형을 말한 곳은 없다. 사람은 그 본래 독자의 형을 갖춘 터로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아니했던 것인지 모른다. 단지 설문에서 인(人)자에 대하여 ‘상비경지형(象臂脛之形)’이라고 하였고 《운회》에서 설문을 인용하면서 ‘상인립형(象人立形)’이라고 하였다. 사람의 형을 서 있음(立)에서 취한 것은 곧 《운회》의 설문 해석으로부터 유래된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반대 상소문

이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세상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니 세종대왕께서 집현전을 설치하시고 양육한 당시 학자들이 전부 일치하여 이 제작을 찬성하기만 하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극력 반대한 문신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들의 반대한 내용을 들춰 보면 그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훈민정음에 관한 내용과 또 그 당시 문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나아가서는 그때의 국가 형편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⁸⁹⁾

그러므로 이들 반대 중에 가장 현저한 최만리 등의 상소문을 원문 그대로 들어서 그 내용을 이모저모로 해석해 볼까하는 바이다. 세종 26(1444)년 갑자 2월 20일의 《세종실록》 권103의 기록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89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서 ‘반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글’의 창제를 반대했는지 혹은 세종이 추진한 한자음 교정 정책을 반대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글 창제 반대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 하면 최만리가 반대 상소문을 올린 날자가 세종 26(1444)년 2월 19일쯤 승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20일에 세종이 친국을 한 내용이 실록에 실려 있다. 한글 창제는 그 전해인 세종 25(1443)년 12월에 완료되었으니 반대 상소문을 올린 시기와 맞지 않는다. 이승녕(1976:166~184) 교수는 한글 반대 상소문이 아니라 2월 16일 《운해》 번역 사업에 반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광(2005:42) 교수는 “부제학 최만리를 중심으로 부제학 신석조 등 7인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여 반대의 핵심을 훈민정음 창제에 두고 있으나 이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지난 일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본 상소문에 “언문을 빌어서 일시의 용(쓰임)이라도 돕는다는 것은 오히려 가 할 듯하거니와”라는 내용에서 최만리도 전적으로 언문 창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듯도 하다. 다만 《운서》 번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종 25(1444)년 2월 16일에 의사청에서 왕세자와 하신들이 모인 것을 알고 있었던 최세진은 한글 창제 자체가 중국의 사대모화에 어긋난다는 대의명분으로 한글 사용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

[상소문]

臣等⁹⁰ 伏觀諺文⁹¹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⁹², 竄出千古。然以臣等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
懇⁹³, 謹疏于後, 伏惟聖裁。

신 등이 보옵건대 언문은 그 제작됨이 지극히 신묘하여 실로 기물(物)을 창조하
고 지(智, 지혜)를 운용하심이 멀리 천고에 뛰어나십니다(竄出千古). 그러하오나
신 등이 구구한 관견(管見, 좁은 소견)으로써는 오히려 의아한 듯 하온 것이 있사
옵기로 삼가 감히 상소하오니 밝은 성재(聖裁, 임금님의 재가)가 계시옵소서.

一.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儻曰⁹⁴ 諺文皆
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⁹⁵, 用音合字⁹⁶, 盡反於古, 實無所據。若流中國, 或有非議之

90 신등(臣等):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작랑 조근 등이다. 이들이 올린 반대 상소문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주요한 자
료이다.

91 언문(諺文): 훈민정음이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 '언문'이라는 명칭을 "특히 훈민정음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문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다"(유창균, 1993:125)라고 하여 세종 당시 '언문'
이라는 명칭이 마치 자기 비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러한 가정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특히 반대 상소문에 대한 하교문에서 세종이 스스로 '언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불필요한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언문'은 우리의 글말을 표기하는 28자의 제한적
음소문자를 지칭하고 '정음(훈민정음)'은 우리말을 물론 한자음 표기를 위시하여 몽고, 여진, 일본 등
의 말을 표음하는 정음(正音) 곧 표음문자(음성문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92 창물운지(創物運智): 기물을 만들어냄. 기물을 만든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어 밝힌다"는 뜻.
한글 창제의 창의성을 말한다.

93 위간(危懇): 대단한 정성.

94 당왈(儻曰): 혹, 만일.

95 즉자형수방고지전문(則字形雖倣古之篆文): 곧 자형이 비록 옛날의 고전(古篆) 글에 의방(依倣, 모방)
하였을지 모르오나, 여기서 '자형(字形)'은 초성, 중성, 종성의 날개 글자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
절 구성으로 이루어진 글자꼴(C+V+C)을 뜻한다. 곧 고전(古篆)체와 같은 방괘형(네모꼴)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거란자나 여진 글자의 구성 또한 고전(古篆)체와 같은 방괘형(네모꼴)이었다.

96 용음합자(用音合字): 음에 따라 합하여 글자를 이룸. 초, 중, 종성을 합하여 글자를 이루는 음절문자

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一. 우리 조정에서는 조종 이래로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 오로지 중화의 제도를 준수하여 이제 거의 동문동궤(同文同軌, 중국과 문물제도와 글쓰기가 같아지려고 하는)의 때를 당해 왔거늘 새로 언문을 지으심은 보는 이와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바가 있다이다. 언문이 만일 다 옛날 한문자(고전자)에 근본되어 있고 새로 지은 글자가 아니라 하osi면 그 자형은 비록 옛날의 고전(古篆, 중국 고대 전자체, 곧 방괘형)에 의방(依倣, 모방)하였을지 모르오나 그러나 음에 따라서 글자를 합하여 씀은 다 옛일(옛것에)과는 모두 반대되는 일이오, 실로 근거되는 데가 없으니, 만일 이것이 중국에 까지 발포(流, 흘러 들어가면)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혹은 이것을 그르게 의논할 이가 있으리니 이 어찌 사대모화(事大慕華)에 부끄러움이 있지 아니하리요.

一.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 西夏, 女真, 日本, 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⁹⁷. 傳曰 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歷代中國皆以我國有箕子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 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⁹⁸,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螳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累哉

一. 예로부터 구주(九州)⁹⁹의 안에서 풍토는 서로 다른 곳이 있으나 그러나 방언(중화음에 대한 방언)으로 인하여 그 문자를 달리 지은 것은 있지 아니하니 다만 몽고, 서하(西夏), 여진, 일본, 서번(西蕃, 티베트) 같은 데서 각각 그 문자를 두었을

를 말한다.

97 무족도자(無足道者): 이것을 말할만한 것도 못 된다. ‘道’는 ‘이르다(謂)’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98 이적(夷狄): 중화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동이(東夷), 북쪽으로 북적(北狄), 서쪽으로 서융(西戎), 남쪽으로 남만(南蠻)을 가리킨다. 주나라 이후 중국의 주변 국가나 종족을 폄하하여 오랑캐로 바라본 중화 중심주의적 용어이다.

99 구주(九州): 중국 고대에 전국을 나눈 9개의 주. 요순시대와 하나라 때에는 기(冀), 연(兗), 청(靑), 서(徐), 형(荊), 양(揚), 예(豫), 양(梁), 웅(雍)이며, 은나라 때에는 기, 예, 웅, 양, 형, 연, 서, 유(幽), 영(營)이고, 주나라 때에는 양, 형, 예, 청, 연, 웅, 유, 기, 병(并)이다. 여기서는 천하를 의미한다.

뿐이니¹⁰⁰ 이런 일은 다 이적(夷狄, 오랑캐)의 하는 일이오, 족히 이것을 말할 만한 것도 못 되나이다. 전(傳)에 이르기를 하(夏, 중화)¹⁰¹를 가지고 이(夷, 오랑캐)를 변하게 한다함은 들었으나 아직까지 이(夷, 오랑캐)에 (중화가) 변하게 한다는 말은

100 여진(女眞)은 오늘의 만주지방에 아구다(阿骨打)가 요와 복송을 멸하고 1115년에 금나라를 세웠으나 120년만인 1234년에 원나라에 멸망하였다. 여진문자는 이 금나라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양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사》에 의하면 여진족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국세(國勢)가 날로 팽창함에 따라 거란(契丹)문자를 사용하다가 금나라 태조가 완안 희이(完顏希伊)에게 여진문자를 전정할 것을 명하여 희이(希伊)가 한자의 해서(楷書)를 모방하고 또 거란자(契丹字)에 의거하여 여진어에 적합하도록 여진자(女眞字)를 만들어 천보(天輔) 3(1119)년에 태조가 이것을 광포(廣布)했는데 이것을 여진대자라고 한다. 그 뒤 희종(熙宗)이 천권 원(1138)년에 자신이 만든 여진자를 반포하고 황통 5(114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여진소자(女眞小字)라고 한다. 한자처럼 한 자씩 띄어 쓰며 위에서 아래로 종서(縱書)하여 행(行)은 우(右)에서 좌(左)로 옮겨간다.

몽고(蒙古)는 원래 달단(韃靼, Tatar)이라고 했는데 당나라 시대부터 원나라 초기까지 동몽고 지방에 살고 있던 몽고계 부족을 가리키거나, 시베리아 중부 일대에 걸쳐 살고 있는 터어키계 유목민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몽고 문자는 원나라 세조가 라마교의 고승 파스파(Pagspha)를 초빙하여 서장문자(西藏文字)를 기초로 해서 1269년에 파스파(八思巴) 문자를 제정하였다. 보통 몽고 문자라고 불리는 것은 위굴(Uighur) 문자에서 발달된 것으로서 근래까지 내몽고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고창(高昌)은 현 중국 신강성 토로변현(吐魯番縣)인 투올판(Turfan, 敦煌) 분지에 10세기경부터 14세기까지 존재했 위굴(回鶻, Uighur)인 국가를 말한다. 고창 위굴(回鶻), 서주(西州) 위굴, 화주(和州) 위굴이라고도 하며, 그들이 사용하던 문자를 Uighur 문자라고 한다.

회회(回回)는 아라비아(Arabia)를 말하는데 아라비아어는 셈어족(語族)의 남(南)셈어에 속하는 언어이다. 아라비아는 북부 아라비아어와 남부 아라비아어로 나뉘어져 있다. 그들이 사용하던 아라비아 문자는 나바테아(Nabataea) 문자의 초서체(草書體)로부터 발달되었다고 하며,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쓴다.

서번(西蕃)은 서번(西蕃)이라고도 하며, 티벳(西藏, Tibet)을 말한다. 티벳문자는 인도의 문자를 본받아 7세기경에 창제되었다.

백이(百夷)는 버마(Burma)의 한 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 전고훈(錢古訓)이 찬(撰)한 《백이전(百夷傳)》이 있다고 한다.

면전(緬甸)은 버마(Burma)를 말한다. 그런데 버마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수식중에 달하고 복잡하여 아직 공식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버마어의 문자와는 11세기의 파강조시대 불교의 수입과 함께 타토온(Tha-ton)에 있는 타라잉(Talaing)인들로부터 인도계의 변체(變體)인 타라잉어의 알파벳을 배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상규, <“명왕신덕사이합빈”의 대역 여진어 분석>, 《언어과학연구》 63집, 2012.

101 하(夏, 중화): 치수(治水)에 공로가 있는 우(禹)가 순제(舜帝)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세운 중국 최초의 나라. 기원전 15세기 무렵 은(殷)나라에 망하였다. 여기서는 중화를 의미한다.

듣지 못하였나이다. 역대 중국이 다 우리나라를 기자(箕子)의 유풍이 있다고 하여 문물과 예악(禮樂)이 중화에 비의(比擬, 견주어 비교함)되었거늘 이제 달리 언문이란 것을 지어서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夷狄)에게 화동고자 함은 이것은 마치 소위 소합(蘇合, 소합향나무)의 향을 버리고 당랑(螳螂, 쇠뿔구리)의 환(丸)을 취함과 같다하겠으니 이 어찌 문명의 큰 누(累)라고 하지 않사오리까.

一.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隸之徒, 必欲習之。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若我國, 元不知文字, 如結繩之世, 則姑借諺文, 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正議者必曰 與其行諺文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期會等事, 無有防礙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何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 二十七字諺文¹⁰²,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牆面, 昧於事理之是非, 徒工於諺文, 將何用哉 我國家損累右文之化, 恐漸至掃地矣。前此吏讀, 雖不外於文字, 有識者尙且鄙之, 思欲以吏文易之, 而況諺文與文字, 暫不干涉, 專用委巷俚語者乎 借使諺文自前朝有之, 以今日文明之治, 變魯至道之意¹⁰³, 尙肯因循而襲之乎 必有更張之議者, 此灼然可知之理也。厭舊喜新, 古今通患, 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治無益, 反覆籌之, 未見其可也。

一. 신라 때에 설총(薛聰)이 지은 이두(吏讀)라는 것은 비록 비리(鄙俚, 비루하고 촌스러우나)한 것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다 중국에서 통행(通行, 서로 통할 수 있음)되는 한문 글자를 빌어서 써 어조(語助)로 베풀게 함이

102 二十七字諺文: 한글 창제는 28자였다는 실록의 기록과 차이를 보인다. 창제 당시에 ‘ㅎ’를 제외한 27자로 창제하였다가 해례본을 만드는 기간동안 한 글자가 더 들어간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동립 (1974), <훈민정음 창제 경위에 대하여, -언문자모 27자는 최초의 원안이다>, 《동국대국어국문학과 논문집》). 예의에서 해례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번개도 있었겠지만 해례에서 역으로 세종의 창제 원안인 예의가 번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103 변로지도지의(變魯至道之意): ‘어로혼진(魚魯混眞)’과 같은 말로 ‘어(魚)’자와 ‘로(魯)’자의 혼동해서 서로 뒤섞여 쓰는 것을 말한다. 《포박자(抱朴子)》에 “세속에서 이르기를 글씨를 세 번 베끼는 가운데 ‘魚’가 ‘魯’가 되고 ‘處’가 ‘虎’가 되었다(諺曰, 書三寫, 魚成魯, 虛成虎)”라고 한 말이 있다.

라. 이것이 한문자로 더불어 그렇게 서로 멀게 다른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나 복레(僕隸, 하인배)의 무리에 이르러도 반드시 이것을 익히니 먼저 몇 권 책을 읽어서 대강 글자를 알고 그런 후에야 이두를 쓰니 이두를 쓰는 사람은 모름지기 한문자를 의빙(依憑, 의지하다)하여서 능히 그 뜻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한문자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이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는 일조가 됨이라. 만일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한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승(結繩, 매듭 문자)의 세대와 같다고 하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써 일시의 용(用, 쓰임)이라도 돕는다는 것은 오히려 가할 듯하거나와 이제 정의(塤은 의견)를 잡은 자는 반드시 언문을 행용시켜서 고식(姑息, 임시 방편)을 삼음은 차라리 지완(遲緩, 지루하고 느다)하여도 중국에서 통행되는 문자를 익혀 써 장구(長久, 장기적인)의 계(計劃)를 삼음만 같지 못하다 하겠으나, 하물며 이두(吏文(이문)의 의미)가 벌써 행용된 지 수천 년에 부서기회(簿書期會, 일년의 회계를 장부에 기입하여 기일 내에 조정에 보고하던 일)들과 같은 일에 방해됨이 없음에야 무슨 일로 구행무폐(舊行無弊, 예부터 행해오던 패해가 없음)의 문자를 고치어 무익비언(無益鄙諺, 속되고 이익이 없는)의 글자를 새로 지으리요. 만일 언문을 행용한다고 하면 이(吏, 서리)된 자 전혀 언문만을 익히고 학문 문자(한문과 한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이에 이원(吏員)은 나뉘져 두 갈래가 될 것이라. 진실로 이(吏) 되는 자 언문만으로서 환달(宦達, 관리로 등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후진이 다 이러할 것을 보리니 생각컨댄 27자의 언문으로 족히 써 세상에 입신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어찌 고심 노사하여 성리의 학을 궁구할 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수십 년 후에는 한문자를 알 자가 반드시 적어지리니 비록 언문으로도 이사(吏事, 관청의 일)에 시(施, 베풀다)할 수 있다고 하나 그러나 성현의 문자(성리의 학문)를 전연 알지 못하면 불학장면(不學牆面, 배우지 않아 담에 얼굴을 댄)이 사리(事理, 일의 이치)의 시비(是非,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니 한갓 언문만 공(工, 공을 드림)함으로써 장차 무엇에 쓰임이 있으리요?

우리 국가의 적루(積累, 덕을 쌓고 어진 정치)를 베풀은 우문(右文, 문을 숭상하지 않는)의 화가 두렵건댄 소지(掃地, 흔적 없이 사라짐)에 지(至, 이른다)할까 하나

이다. 더욱이 이두라는 것이 비록 문자에 불외(不外, 벗어남)한다 할 수 있어도 오히려 유식한 이들은 이것은 이비(俚鄙, 속되고 천함)한 것이라고 이문(吏文)으로서 이것을 바꾸어 쓰고자 하거늘 하물며 언문은 한문자와는 조금도 간섭(干涉, 관계됨)한데 없고 전혀 위항(委巷, 시장 거리)의 이어(俚語, 속된 말)를 씬에 있어서 리요. 언문이 전조부터 있어 왔다고 하여도 오늘날 문명의 치(治, 다스림)로서 변로지도(變魯至道, 노나라를 변화시켜 도(道)에 이르게 한다)의 의(意, 뜻)로서 오히려 인순(因循, 낡은 인습을 버리지 않고 지킴)하여 이것을 답습할 것이 되리요? 이에 대하여 반드시 경장(更張, 바로 잡음)의 뜻이 있을 것은 작연(灼然, 뚜렷하고 확실하)히 알 수 있는 분명한 이치라. 대개 사람이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함은 고금의 통환(通患, 통탄할 폐단)이라. 이제 언문은 신기(新奇)한 일예(一藝, 하나의 재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학문하는 데는 다만 손(損, 손해)이 있고 치도(治道, 다스리는 도리)에는 아무 익(益, 이익)이 없나이다.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그 옳은 줄을 알지 못하여 하나이다.

一. 若曰如刑殺獄辭，以吏讀文字書之，則不知文理之愚民，一字之差，容或致冤。今以諺文直書其言，讀使聽之，則雖至愚之人，悉皆易曉而無抱屈者，然自古中國言與文同，獄訟之間，冤枉甚多。借以我國言之，獄囚之解吏讀者，親讀招辭，知其無而不勝捶楚¹⁰⁴，多有枉服者¹⁰⁵，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若然則雖用諺文，何異於此 是知刑獄之平不平，在於獄吏之如何，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欲以諺文而平獄辭，臣等未見其可也。

一. 형살옥사(刑殺獄辭, 형을 집행하고 죄인을 다스림)같은 것을 이두와 한문자로서 쓴다고 하면 문리(文理, 글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우민(愚民, 어리석은 백성)인 만큼 한 글자의 차이로 인하여 혹은 원(冤, 원익)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또 이제 언문으로서 그 말을 바로 그대로 써 놓아서 이것을 들려주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모두 다 쉽게 이것을 깨달아서 원한이 되는 그릇 굴복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나, 그러나 예로부터 중국은 글

104 추초(捶楚): 매를 치다.

105 왕복자(枉服者): 허리를 굽혀서 복종함.

과 말이 늘 같으나 옥송의 사이에 원왕(冤枉, 억울한 마음을 품음)이 심히 많은지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수(獄囚, 옥에 갇힌 사람)로서 이두를 아는 자 있어서 스스로 초사(招辭, 공술한 글)를 읽어 그 무(誣, 무고)됨을 알기는 하지마는 달고 치는 매에(梏楚)에 이기지 못하여 그릇 이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자 많으니 이것이 초사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冤, 억울함)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지라. 만일 이렇다고 하면 비록 언문을 쓴다고 한들 무엇이 이에서 다름이 있으리요? 여기서 형옥이 공평되고 공평되지 못하는 옥리(獄吏)의 여하에 있는 것이고 글과 말이 같고 같지 않은 데 있지 아니함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문을 가지고 옥사를 공평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가(可, 타당한)한 줄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一. 凡立事功, 不貴近速. 國家比來措置, 皆務速成¹⁰⁶, 恐非爲治之體. 儻曰諺文不得已而爲之¹⁰⁷, 此變易風俗之大者, 當謀及宰相, 下至百僚國人, 皆曰可, 猶先甲先庚,¹⁰⁸ 更加三思, 質諸帝王而不悖, 考諸中國而無愧, 百世以俟聖人而不惑, 然後乃可行也. 今不博採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又輕政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 且今清州椒水之幸¹⁰⁹, 特慮年歉, 扈從諸事, 務從簡約, 比之前日, 十減八九, 至於啓達公務, 亦委政府. 若

106 개무속성(皆務速成): 모든 일을 너무 속성으로 추진한다는 말. 곧 훈민정음 창제 이후 《운서》의 번역과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 일련의 한글 보급을 위한 세종의 국정 조치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107 당월언문불득이이위지(儻曰諺文不得已而爲之): “만일 언문을 부득이하여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지었다고 하면”이라는 뜻. 이 대목에서 훈민정음이 이미 창제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문을 올린 이유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각종 운서를 새로 짓는 일이 한자음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대적 관점에서 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문이라는 새로운 문자의 사용의 부당성을 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8 선갑선경(先甲先庚): 《주역》에 “先甲三日, 後甲三日”이라는 대목을 활용하여 사용한 말. 곧 새로 만든 법령은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포하기 3일 전에 은근히 타이르고, 반포 이후 3일 이후에 시행한다는 뜻.

109 且今清州椒水之幸: 세종의 청주 초수 행행은 두 차례 있었다. 세종 26(1447) 2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와 동년 7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갔는데 한재가 있었던 것은 두 번째 곧 세종 26(1447) 7월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주 초수 행행 이전인 세종 26(1447) 2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최만리는 반대 상소문을 올리고 20일 날 세종께서 친국(親鞠)을 했다는 실록 기록의 내용을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夫諺文，非國家緩急不得已及期之事，何獨於行在而汲汲爲之，以煩聖躬調燮之時乎 臣等尤未見其可也。

一. 무엇 일의 공을 세움에는 근속(近速, 짧은 시일)함만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 국가의 근자의 조치(措置)가 모두 속성을 힘쓰를 두렵건댄 이것이 치(治, 다스림)의 체(體, 근본)가 아닐까 저어(두려워) 하나이다. 만일 언문을 부득이하여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지었다고 하면 이것이 풍속을 변이함이 큰 것인 만큼 마땅히 그 도모가 재상에게 미치고 아래에는 백료(百僚)에까지 지(至, 이를)할 것이며, 국인(國人, 나라 백성)이 다 옳다고 하여도 오히려 선갑선경(先甲先庚, 먼저 정녕스럽게 하며 사전에 변경을 도모함)에 다시 삼사(三思, 심사숙고)를 거듭 가하여 이것을 제왕(帝王, 중국 황제)에 질(質, 질문)하여서 어그러짐이 없고 이것을 중국에다 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며, 다시 백세의 성인을 기다려 감함(憾, 의심스러움)이 없다고 한 후에라야 가히 행할 것이거늘 이제 널리 군의(群議, 여론)를 채택함이 없고 급하게 이배(吏輩) 십여 인으로 하여금 훈습(訓習, 배우게 함)케 하며, 또 경솔히 고인의 기성(已成, 이미 이룬)한 운서(韻書, 《고금운회거요》)를 고치어 무계(無稽, 황당한)한 언문에 부회(附會, 덧붙여)하여¹¹⁰ 공장(工匠, 판각 장인) 수십 인을 시켜 새기게 하여 곧 천하에 광포(廣布, 널리 배포함)코저¹¹¹ 하니 후세의 공의(公議, 공론, 여론)가 과연 어떠하리요.

않는다. 그러나 집현전 부제학의 위치에 있었던 최만리는 이미 며칠 뒤 임금의 행행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청주에 초수로 행행하실 때에(且今淸州椒水之幸)”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110 부회(附會):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이치에 맞게 하는 것.

111 광포(廣布): ‘광포’는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 시기를 ‘반포(頒布)’했다는 종래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 국내외 사료 기록에 반포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예의의 완성 이후 이 기록의 증언처럼 《고금운회거요》의 번역과 《용비어천가》 등의 언역 작업에 착수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의의 완성이 곧 창제의 시점인 동시에 광포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포(頒布)’라는 용어는 법제 시행에 준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영조 12(1736)년 병진 중추(판월)에 《여수서언해》의 영조 서문에 “참조하다 그 이 글을 판간하야도 오히려 판간치 못흐 前전과 又호며 그 이 글을 넓히매도 오히려 넓지 아니 前전과 又호면 이 엇지 나의 眷顧眷顧하야 廣광布포하느 쓰지리요 그 각각각각 힘써 조금도忽홀치 말을 써어다”라고 하여 ‘광포(廣布)’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곧 관찬한 책의 서문에 임금이 밝힌 내용이다.

장차 청주에 초수(椒水, 초정약수터)로 행행(幸行, 거동함)하실 때도 특히 연겸(年兼, 흥년이 듦)함을 염려하시어 호종제사무(扈從諸事務, 호종 의식과 사무)를 간략하게 하여 전일보다 십에 팔구를 감하였으며, 계달공무(啓達公務, 상감께 아뢰는 공무)도 또한 정부(대신)에 위임하였으니 저 언문같은 것은 국가 완급(시급하게 처리할)에 부득이 그 기(期, 기일)에 맞추어야할 만한 일도 아니거늘 이제 행재(行在)에서까지도 이것을 지으시기에 급급하시어서 성공(聖躬, 임금의 옥체)을 조섭(調燮, 보살피고 다스림)하시는 때를 번거롭게 하리요? 신 등은 도무지 그 옳은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一. 先儒云 凡百玩好, 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最近, 然一向好着, 亦自喪志. 今東宮雖德性成就, 猶當潛心聖學, 益求其未至也. 諺文縱曰有益, 特文士六藝¹¹²之一耳, 況萬萬無一利於治道, 而乃研精費思, 竟日移時, 實有損於時敏之學也. 臣等俱以文墨末技, 待罪侍從, 心有所懷, 不敢含默, 謹罄肺腑, 仰瀆聖聰.

一. 선유(先儒, 앞선 선비)가 일러오기를 범백(凡百, 갖가지의 모든 것)의 완호(玩好, 사랑하여 곁에 두고 즐기며 좋아하는 것)가 다 그 지(志, 뜻)를 탈(奪, 빼앗는)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서찰(書札)에 이르러는 유자(儒者)의 일에 가장 가까우나, 그러나 전심으로 완호하면 또한 지(志, 뜻)를 상(喪, 잃음)하나니 이제 동궁(東宮)이 비록 덕성이 성취(成就, 함양됨)하였지마는 오히려 성학(聖學, 성리학)에 잠심(潛心, 어떤 일에 마음을 두어 깊이 생각함)하여 더욱 그 이르지 못한 것을 구하여야 할 것이라. 언문이 비록 익(益, 이익)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다만 이것은 문사육예(文士六藝) 가운데의 그 하나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하물며 만만가지로 하여도 치도(治道, 다스리는 도리)에는 한 가지의 이(利, 이치)도 없으며 연정비사(研精費思, 자세히 연구하고 생각을 허비함)하여 경일이시(竟日移時, 날을 마치고 때를 옮김)하면 실은 시민(時敏, 시급한)의 학(學)에 손실(損失)만이 있을 것입니다.

112 문사육예(文士六藝): 중국 주나라 시대에 '예(禮, 예론), 악(樂, 악론), 사(辭, 사부), 어(御, 수련), 서(書, 글쓰기), 수(數, 성수론)'의 여섯 가지 국학의 교육 내용.

신 등은 다 문묵말기(文墨未技, 보잘 것 없는 글재주)로써 시종(侍從, 임금을 모시는 시종신하)에 대죄(待罪, 죄가 큼)하여 마음에 소회(所懷,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회포)가 있사오매 감히 함묵하여버리지 못하고 삼가 폐부(肺腑)를 경(罄, 다하여)하여 성충(聖聰, 임금의 슬기로움)을 앙독(仰讀, 어지럽힘)하나이다.

[상소에 대한 조치]

上覽疏 謂萬理等曰 汝等云 ‘用音合字, 盡反於古.’ 薛聰吏讀, 亦非異音乎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¹¹³ 亦不爲便民乎 汝等以薛聰爲是, 而非其君上之事, 何哉 且汝知韻書乎 四聲七音, 字母有幾乎 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 且疏云 新奇一藝. 予老來難以消日, 以書籍爲友耳, 豈厭舊好新而爲之, 且非田獵放鷹之例也, 汝等之言, 頗有過越. 且疏予年老, 國家庶務, 世子專掌, 雖細事固當參決, 況諺文乎 若使世子常在東宮, 則宦官任事乎 汝等以侍從之臣, 灼知予意¹¹⁴, 而有是言可乎”

상께서 이 상소를 다 보시옵고 만리 등에게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르는 바 용음합자 진반어고(用音合字, 盡反於古, 음을 써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것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며 언문은 그 지은 법이 예와 반대된다고 하였으니 만일 그렇다고 하면 설총이 지은 이두인들 또한 이음(異音, 음이 다름)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또 이두도 그 제작된 본의가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데 있지 않느냐? 만일 민민을 편안케 하고자 하려는 데 그 근본되는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 언문도 또한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경하게 너희들이 설총만을 옳다고 하고 그리고 너의 군상(君

113 즉금지언문(則今之諺文): “지금의 이 언문.” 곧 한글을 창제한 세종께서도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언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한글의 명칭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논거이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언문’이라는 명칭이 모두 최만리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 세종의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한 논의도 있다. 이 내용은 한글 창제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분명히 밝힌 대목이면서 그 명칭을 세종도 ‘언문’이라고 했다는 결정적인 근거 자료이다.

114 여등이시종지신(汝等以侍從之臣), 작지여의(灼知予意): 너희들의 시종하는 신하로서 뻔히 나의 의사를 알면서, 한글 창제를 마치 비밀 프로젝트라고 추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대목을 통하여 최만리 등 집현전의 주요 학사들도 이미 세종이 직접 한글 창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上)의 한 일은 그르다고 하는 것은 이 어인 일이냐?

또 너희가 운서를 정말로 아느냐? 그러면 사성 칠음 자모(四聲七音字母)가 모두 얼마나 있느냐? 이제 내(予)가 만일 이 운서를 교정하지 않으면 누가 장차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할 것이냐? 또 너희들의 상소 가운데 말하기를 신기한 일예(一藝, 하나의 재주)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어떠한 말이나? 내(予)가 노래(老來, 늙그막)에 소일거리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늘 서적으로써 벗을 삼아오는 바 어찌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한다는 말이나. 또 이것은 전렵방웅(田獵放鷹, 사냥하고 매를 잡는 일)의 그것 즉 사냥하고 매를 놓아 꿩을 잡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한 말이 자못 너무 지나침이 있지 않을까? 또 내(予)가 연노(年老)하여 국가의 서무(庶敎)는 세자가 이것을 전장(專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보던 일이나 물건(物件, 넘겨서 맡김)하여 비록 세사(細事, 사소한 일)한 것이라도 진실로 이것을 참결(參決, 참여하여 결정함)하여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이 언문에 있어서겠느냐?

만일 세자로 하여금 늘 동궁에만 있게 하면 환관에게 임사(任事, 맡아서 일을 처리함)할 터이나? 너희들의 시종(侍從, 임금을 직접 모시는 신하)의 신으로서 뻔히 나(予)의 의사를 알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함은 그것이 옳다고 할 것이냐?

萬理等對曰：“薛聰吏讀，雖曰異音，然依音依釋，語助文字，元不相離。今此諺文，合諸字而竝書，變其音釋而非字形也。且新奇一藝云者，特因文勢而爲此辭耳，非有意而然也。東宮於公事則雖細事不可不參決，若於不急之事，何竟日致慮乎

만리 등이 여기서 이에 대답하여 가로대 설총이 지은 이두는 비록 이음(異音)이라고고는 하나 그러나 음(音)에 의하고 또 석(釋, 새김)에 의하여 어조(語助, 어조사)와 문자(한자)가 근본부터 서로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지마는 지금 이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쓰고(併書, 모아쓰기) 그 음석(音釋)을 변하게 하니 이것은 자형(字形, 한자의 글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신기한 일예(一藝)라고 하온 것은 특히 문세(文勢)를 인하여 이 말을 하였을 뿐이고 뜻에 두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

궁이 공사(公事,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비록 세소(細小, 사소)한 일일지라도 참결(參決, 직접 관장하여 결정함)하지 않을 수 없지마는 그리 급하지 않은 일에 있어 서야 어찌 해가 맞도록(다하도록) 그렇게 치려(致慮, 걱정하여 이룸)하실 것이 있 습니까.

上曰 前此金汝啓曰 '制作諺文, 未爲不可. 今反以爲不可. 又鄭昌孫曰 頒布《三綱行實》¹¹⁵之後, 未見 有忠臣孝子烈女輩出. 人之行不行, 只在人之資質如何耳, 何必以諺文譯之¹¹⁶, 而後人皆效之 此等之言, 豈儒者識理之言乎 甚無用之俗儒也.

상이 이르되 전일에 김문(金汶, ?~1448)의 계(啓)에는 말하기를 언문을 제작함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더니 이제 이르러서는 도리어 불가하다고 하였고¹¹⁷ 또 정창손(鄭昌孫, 1402~1487)이 말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頒布)한 후에 아직 충신 효자 열녀가 배출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사람이 행하며 행하지 않음은 다만 그 사람의 자질의 여하에 달린 것이니 어찌 반드시 언문으로써 이것을 번역하여 낸 후에야 사람이 다 이것을 본받는 것이 되리요 하였으니 이런 따위의 말이 어찌 유자(儒者)로서 그래도 이치를 알고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으 리요. 참 심히 무용한 속유(俗儒, 속된 선비)들이로다.

115 《삼강행실(三綱行實)》: 세종이 계순에게 명하여 세종 14(1432)년 6월에 완성한 것으로 그림과 한문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세종 16(1434)년에도 다시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을 언해한 것은 성종 대로 추정되는데 그림 도판과 한문 원문은 반곽 내에 넣고 그 상단 서미 여백에 한글 언해를 실어 3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116 하필이언문역지(何必以諺文譯之): 어찌 반드시 언문으로써 이것을 번역한. '이언문역지(以諺文譯之)'에서 '언문'으로서 '한문'을 번역한다는 의미이다. 한문으로 된 《삼강행실》을 한글로 번역하였다는 뜻. 여기서도 세종이 직접 한글을 '언문(諺文)'으로 지칭하고 있다. 《세종실록》 세종25(1443)년 12월에 '언문'이라는 이름이 '훈민정음', '정음'보다 먼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17 금반이위불가(今反以爲不可): 김문(金汶)이 언문 제작에 대한 불가피성을 주장하다가 최만리와 함께 이제 와서 반대 상소를 올린데 대한 고심한 심정을 노출하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이미 이전부터 한글 창제에 대한 공론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글 창제를 왕실 중심으로 기밀하게 추진하였다는 논의들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前此，上敎昌孫曰 予若以諺文譯¹¹⁸《三綱行實》，頒諸民間，則愚夫愚婦，皆得易曉，忠臣孝子烈女，必輩出耳。昌孫乃以此啓達，故今有是敎。

상이 이보다도 전에 창손에게 교(敎)하여 이르되 내(予)가 만일 언문으로써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이것을 민간에 반포하면 우부우부(愚夫愚婦, 한문으로 소통할 수 없는 남자나 여자 곧 백성을 지칭함)라도 다 쉽게 깨달아 충신, 효자, 열녀가 반드시 배출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창손이 이에 이 뜻으로써 계달(啓達)한 일이 있는 고로 이제 다시 이런 교(敎)가 있게 된 것이다.

上又敎曰：予召汝等，初非罪之也，但問疏內一二語耳。汝等不顧事理，變辭以對，汝等之罪，難以脫矣。遂下副提學崔萬理，直提學辛碩祖，直殿金汶，應敎鄭昌孫，副校理河緯地，副修撰宋處儉，著作郎趙瑾于義禁府。翌日，命釋之，唯罷昌孫職。仍傳旨義禁府，金汶前後變辭啓達事由，其鞠問以聞

상이 또 하교(敎)하여 이르되 내(予)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 처음부터 죄를 주려고 함이 아니라 다만 그 상소 가운데서 한두 마디 말을 물어보고자 함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리(事理)를 돌보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의 그 죄는 벗어나기 어렵다.

드디어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제겸, 저작랑 조근은 의금부에 내려 가두었다가 이튿날에 석방하도록 하명이 계셨다. 오직 창손만은 직을 파하고 또 김문의 전후변사계달사유(前後變辭啓達事由, 전후로 말을 바꾸어 계달한 사유)를 국문(鞠問)¹¹⁹하도록 의금부에 전지(傳

118 予若以諺文譯：“내가 만일 언문으로서 번역한.” 세종이 정창손에게 친국을 한 뒤 하교문 가운데 세종 스스로가 ‘언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과 임금의 하교문에서 26회에 걸쳐 ‘언문’, ‘비언’, ‘언자’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언문’은 세종이 3회, 최만리가 19회, 김문이 2회 사용하고 있으며, ‘비언’과 ‘언자’는 최만리가 각각 1회씩 사용하고 있다. ‘언문’이라는 용어가 사용상의 목적에 따라 ‘훈민정음(정음)’과 달리 불리진 이름이다. 곧 우리말 표기에 사용될 경우 ‘언문’으로 우리 한자음과 한음 및 외래어 표기에 사용될 경우 ‘훈민정음(정음)’으로 부른 것이 명확하다.

119 국문(鞠問)：‘국(鞠)’ 또는 ‘국지(鞠之)’라 하기도 하고, ‘고신(拷訊)’, ‘고문(拷問)’, ‘형문(刑問)’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平問)과 구별되는 심리방법이다. 다만, 국문은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그 범죄로 반역죄나 강상죄(綱常罪)와 같은 중죄에 한하였으며, 죄인도 왕명에

습)가 있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최만리 등이 상소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보았으니 언문 즉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하여 그 당시의 세황이 어떠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첫째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을 발포(發布)하시기에 과연 큰 힘이 드셨고 참으로 대단한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이 계셨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문신들이 반대들도 상당히 강한 바가 있었거니와 세종대왕께서 그 깊은 학문에 대한 자신감과 우리 훈민정음의 반포¹²⁰⁾에 대한 굳은 신념은 누구나 동요케는 못할 것이니 과연 한탄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더욱이 노후이라 독서와 연구로 인하여 안질이 더욱 심하시어 청주에 초수(초정약수터)의 행궁이 계셨거늘 다른 일은 다 폐하고라도 이 훈민정음을 지으시는 일만은 언제나 항상 계속하셨음은 이 상소문을 빌어 보아도 알겠거니와 참으로 이에 대한 성려(聖慮)는 지극하셨다고 할 수 있다.¹²¹⁾ 또 요동이란 먼 곳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열 세 차

의하여 수금(囚禁)된다.

120 방종현(1946) 선생도 이 책에서 '반포(頒布)'라는 명칭과 '발포(發布)'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121 이승녕(1976:85) 교수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훈민정음을 제정할 때의 세종의 건강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특히 기억력의 쇠퇴와 안질로 정사 자체도 세자에게 맡길 정도이어서, 세종은 훈민정음 제정에선 집현전 학사에게 오직 원칙을 제시하고 방향만을 설정했을 따름이고 문제점을 상의했을 정도요, 세목의 연구에는 관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중략> 국어학사의 연구에서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갖지 못하고, 함부로 조작설을 근거도 없이 내세운다는 것은 학문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심한 예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으시다가 과로의 결과로 안질을 얻으셨다라는 설은 허위와 조작의 산물임을 이상의 사실 규명으로 단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한글이 결국 세종의 친제가 아니라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임금 건강에 관한 기록은 실록에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세세한 기록을 다 모은 것을 실증주의적 근거로 삼은 주장이 오히려 전체적 맥락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급기야 강규산·황경수(2006:75)의 《훈민정음연구》에서는 “세종의 건강은 전술한 것처럼 안질, 소갈증, 부종, 임질, 요배전통, 수전, 언어곤란, 각통 등으로 세종 29년부터 세자 섭정 문제가 세종 자신의 주장으로 되풀이된다. 또 온천 요양차 자주 도성을 떠나는 날이 많았다. 안질 같은 병은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

레나 그 사신을 왕반(往返)시키신 일¹²² 같은 일은 그 어려운 것이 다만 교통 관계의 편의가 지금과 같지 못하다는 데 있는 그 일 뿐만이 아니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이 글을 바로 잡으시려고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열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훈민정음을 지으시는 일이 큰일이라고 하신 것은 이 상소문 가운데에도 있거니와 “세자가 비록 사소한 일까지 일지라도 마땅히 참결(직접 참여하여 결정함)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언문에 있어서냐”고 하시는 이 힘 있고 뜻 깊은 일언이아말로 실로 당시의 속유에게는 깨달음조차도 못 주었는지 모르나 오늘에 우리아말로 과연 감격의 극함이 몸에 짝 짝 흘러내림을 누구나 깨달을 것이라 한다. 또 한 가지 “네가 운서를 알고 있느냐(汝知韻書乎)”라 하셔서, 즉 너희들이 운서가 어떤 것인지나 잘 아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학문상으로도 당시 부제학 최만리 등쯤은 누를 만한 자신 있는 실력을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래의 운서라 할지라도 만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교정하여야 할 것이니 이 잘못을 내가 오히려 안 고치고 그대로 두면 누가 장차 교정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하여 세종대왕께서 운서의 연구에 있어서도 당시 유명한 집현전의 대학자들이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할 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사실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제작하심에 당하여 운서를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있게 증좌(證左)해주는 신뢰가 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었다. 왕의 대행을 스스로 주장하던 세종이 연구생활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확대 재생산이 된다.

122 “살펴보건대, 언문은 바로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이다. 세종 28(1446)년 병인에 임금이 외국에는 모두 그 나라의 국음의 글이 있어서 그것으로 그 나라의 말을 기록하는데 우리나라만은 유독 없다고 하면서, 드디어 전주(篆籀)를 모방하여 28자모를 만들고 이를 부연하여 여러 글자를 만든 다음, 대궐 안에 국(局)을 설치하고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찬정(撰定)하게 하였다. 그때 명나라의 학사 황찬(黃瓚)이 죄를 짓고 요동에 유배 와 있었는데,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그곳으로 가서 물어보게 하였다. 그러나 글자를 만든 모한 원리는 실로 우리 성상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무릇 언서(諺書)가 나오면서부터는 모든 나라들의 어음(語音)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또 삼경과 사서를 모두 언문으로 해석하여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지켰다. 그러니 성인께서 처음으로 글자를 창제한 공이 크다고 하겠다. 28자의 훈과 음을 아래에 적어서 참고하는 데 대비하게 하였다.”(《해동역사》〈언문 역사에 대한 소설〉). 이처럼 신숙주와 성삼문 등을 요동에 여러 차례 보냈던 것은 훈민정음 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의 편찬을 위해 현지 한자음의 확인을 하러 보낸 것이다.

번 무슨 일이나 자신이 확실히 선후에야 비로소 만난(萬難, 온갖 어려움)을 배제하고 매진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다.

제5장 기원설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에 있어서 이것을 아무 것도 근거하거나 모방함이 없이 세종대왕께서 전연 그 창견(創見)이었을까? 모든 것이 창제하고 발명하는 일이 심히 어려운 일이므로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매우 적은 만큼 이 훈민정음의 창제도 어디고 그 기원을 둔 것이라고들 추측하는 이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창제된 이후 오늘날까지 오백 년 동안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추측은 다시 또 추측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그 원전이 전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전하는 원전의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데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우리의 문자에 있어서 특히 그 역사를 찾아보려 할 때에 있어서 이 문자의 기원을 한 번 고구(考究)함은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고구가 반드시 여기에 관한 좋은 결론을 가져오는 것만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1. 범자설

세종대왕 말년에 출생한 용재 성현(1439~1504)은 그 저서인 《용재총화》에 “그 글 자체는 범자에 의지하였다(其字體衣梵字爲之)”라고 말하였고 그 후 선조 조로부터 인조 조에 걸친 지봉 이수광(1507~1561)은 그 저서인 《지봉유설》에 “우리나라 언서의 자양은 범자를 모방하였다(我國諺書字樣 全倣梵字)”라고 하여 역시 범자에 의거하여 모방하여 제작되었음을 말하였다.¹²³ 다음으로 건륭 19년 갑진(1784)년에

123 병와 이형상(1653~1733)의 《자학제강》〈언문반질설〉에서도 “세종 조에 〈언문청〉을 설치하시고 정인지와 신숙주, 성삼문 등에 명하시어 언문을 지었으니, 초·중·성 8자와 초성 8자와 중성 11자이었으며 그 자에는 범자(梵字)에 의하여 만들었다”라고 하여 범자 기원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병와와 지봉과는 일족이면서 매우 밀접한 학문적 연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봉의 학설을 대폭 수용한 결과이다. 병와 이형상이 숙종 42(1716)년에 쓴 필사본인 《갱영록》 9권 가운데 권2인 《자학제강(字學提綱)》의 〈

개간된 《진언집》¹²⁴에는 “해동묘문(海東妙門) 용암증숙대교(鎔巖增肅對校)”라고 된 데서 이러한 것이 있다.

“범자 8중성법은 언문 8중성법과 대략 같으니 迦자의 소범자는 ㄹ이고 언문에 ㄱ음과 같고 那자 소범자의 ㄱ이며 언자 ㄴ자와 같고 多자는 범자 ㄱ이고 언자의 ㄴ음과 같고, 이어의 초성의 羅자는 소범자의 ㄹ과 같으며 언자의 ㄹ과 같다. 摩자는 범자 ㄹ자이고 언자 ㅁ과 같으며 波자는 범자 ㄴ이며 언자 ㅂ과 같으며 沙는 범자 ㄴ이고 언자로 ㅅ이며 이어에 초성 ㅍ자는 범자 ㅍ이며, 언자 ㅇ과 같다.”¹²⁵

그 후 황윤석(1729~1791)¹²⁶같은 이도 자모 또는 우리말이 범어와 관련 있는 것임

천축문자설(天竺文字說)에는 〈범자 오음 가령(梵字五音假令)〉 항에서 범자를 “아음, 치음, 설음, 후음, 순음, 초음(화회성), 조음”으로 구분하여 범자의 성모분류를 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자는 오른 쪽으로 쓰 범천(梵天) 혹은 범서(梵書) 문자와 왼쪽으로 쓰는 인도 천축 문자인 가로자(伽盧字) 곧 카로슈티자가 그 기원을 같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몽고자운》의 발문에 “몽고는 처음 위궤 문자를 빌려서 썼는데 국사(라마승 파스파)가 새 문자를 만들어 국자라고 불렀다. 문자 모양은 범서(梵書 산스크리트 문자)와 같으며 범천의 ‘카로슈티’ 문자의 변체이다. 《자학》에는 ‘범자 오음 가령(梵字五音假令)’ 항에서 범자를 “아음, 치음, 설음, 후음, 순음, 초음(화회성), 조음”으로 구분하여 자모를 소개하고 있다.

| 아음 | 치음 | 설음 | 후음 | 순음 | 초음 | 조음 |
|--------|--------|--------|--------|--------|-------|-------|
| ㄹ 迦 平清 | ㄹ 左 平清 | ㄴ 吒 平清 | ㄱ 多 平清 | ㄴ 波 平清 | ㄹ 野 上 | ㄹ 里 上 |
| ㄴ 佉 平濁 | ㄴ 差 平濁 | ㄴ 佗 平濁 | ㄴ 他 平濁 | ㄴ 頗 平濁 | ㄴ 囉 去 | ㄴ 哩 去 |
| ㄴ 議 上 | ㄴ 惹 上 | ㄴ 拏 上 | ㄴ 那 上 | ㄴ 摩 上 | ㄴ 擺 平 | ㄴ 梨 上 |
| ㄴ 伽 去 | ㄴ 社 去 | ㄴ 茶 去 | ㄴ 駄 去 | ㄴ 婆 去 | ㄴ 嚙 上 | ㄴ 螺 去 |
| ㄴ 仰 入 | ㄴ 攘 入 | ㄴ 晨 入 | ㄴ 娜 入 | ㄴ 莽 入 | ㄴ 舍 去 | |

병과 이형상의 기술한 내용은 한글 글꼴은 모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운도의 횡도의 분류기준이 처음 범어에서 유래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24 《진언집》은 불경 가운데 진언을 뽑아 한글, 한자, 브라흐미 문자의 순으로 적어 엮은 책. 목차 뒤에 언본(諺本)이란 이름으로 《훈몽자회》의 범례를 보였고, 실담장(悉曇章)이라 하여 브라흐미 문자의 발음을 한글로 나타낸 것은 특기할 만하다. 조선 선조 2(1569)년에 백암(白巖)을 비롯한 승려가 펴낸 것을 비롯하여 여러 본이 있다.

125 “梵字八終聲法, 與諺文八終聲法大同, 如迦字小梵字 ㄹ, 同諺 ㄱ 役音, 那字小梵字 ㄱ, 同諺 ㄴ 隱音, 多字梵, 同諺 ㄴ 音, 佉語初聲, 羅字小梵字 ㄴ, 同諺 ㄴ 乙音, 摩字梵 ㄹ, 同諺 ㅁ 音音, 波字梵 ㄴ, 同 ㅂ 邑音, 沙字梵 ㄴ, 同諺 ㅅ 音, 佉語初聲仰字梵 ㄴ, 同諺 ㅇ 凝音.”, 《지봉유설》.

126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은 조선 후기의 운학자이다. 영조 35(1759)년에 진사시에 합격, 그의 문집 《이재유고(頤齋遺稿)》에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 〈자모변(字母辨)〉은 국어 연구의 중

을 말하여 이상과 같이 그때의 박학가들이 거의 범자에 의방(依倂, 모방)되었다는 것을 한결같이 주장한 것이라고 보겠다.

또 에카르트(P. Andreas Eckardt)는 <조선문자의 기원>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9개 조의 기원설이 있음을 말했는데 그 중 첫째로 이 범자에 의방되었다는 설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 그것은 ‘ㄱ ㄴ ㄷ ㅁ ㅂ ㅅ ㅈ ㅊ ㅋ’ 등의 여러 글자가 범자와 유사하다는 설이 있는 것이니 생각하건데 이와 같이 그 자음에서는 그 중에 같다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모음 중에서는 전혀 찾을 길이 없다. 범자의 글자 수와 훈민정음의 자수와도 일치되지 않고 또 이때는 불교가 배척당하던 그런 때이니만큼 조선 문자의 제작과 범자와는 아무런 기원도 같이 한 것이 없으리라고 믿는다고 이 에카르트는 그 설을 부정했다.¹²⁷

2. 몽고자설

숙종 시대의 성호 이익(1681~1763)은 그 저서 《성호사설》 권4에서 훈민정음은 몽고자에 관련 있게 제작된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가 그렇게 단정한 이유를 몇 개 거론하여서 그이의 박학으로 선인의 범자 기원설을 모르는 듯 몽고자 기원설을 주장하였다. 대개 첫째로 조선 문자가 전연 중국자와 완전히 다른데 성삼문(1418~1456) 등이 열 세 차례나 왕반(往返)하여 황찬(黃瓚)에게 질의한 것이 무엇 일까 하는 것이요, 둘째로 훈민정음 제작될 때와 원나라가 망할 때와의 기간이 불과 79년이니 그 동안에 원나라와의 관계된 일이 전혀 민멸(泯滅)해지지는 않았을 터이니 이 영향일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 성호는 용재나 지봉의 설을 못 보았을 리 없건마는 그것을 전혀 붓끝에 두지 않은 것이 한 번 생각할 점이다.

은 자료가 된다. <자모변>은 초, 중, 종 3성에 대한 논술로 《이재유고》 권26의 1~5장까지 실려 있으며, 여러 나라의 문자를 비교, 설명했다. <화음방언자의해>는 《이재유고》 권25 <잡저> 중의 한 항목으로, 약 150항목의 우리말의 어원을 중국어·범어(梵語)와 비교하여 고찰했다. 저서로 《이재유고(頤齋遺稿)》, 《이재속고(頤齋續稿)》, 《이수신편(理戴新編)》, 《자지록(忞知錄)》 등이 있다.

127 Ledyard(1998:402) 교수는 훈민정음의 초성자가 파스파 글자를 모방하였고 자형도 유사하다고 하였으며, 주나쓰루(照那斯圖)(2008:39~44) 교수도 훈민정음 초성자의 기본자가 파스파 글자를 변형시킨 것으로 보았다. 정광(2009), <몽고자운 연구>, 박문사. 참조, 성현의 <용재총화>,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형상의 <자학제강>, 황윤석의 <운학본원> 등이 범자 기원설설에 동조하고 있다.

순조 때에 유희(1773~1837)의 저서인 《언문지》에는

“훈민정음 15초성은 우리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명하여 몽고 글자의 모양을 따서 짓도록 하였고 명나라 황찬에게 질문하여 제작하였다.”¹²⁸

라고 하여 몽고 자양(字樣, 글자의 모양)에 의방하여 훈민정음을 제작한 것을 말하고 또

“언문은 비록 몽고 글자에 의해 창제되어 우리 동방에서 완성한 것이지만 실로 세간에서 말하기를 지극히 정묘한 것이다.”¹²⁹

라고 하여 언문이 몽고에서 창제되어서 우리 조선에서 완성하였다고 하니 그 뜻한 바가 불분명하나 역시 우리 글자와 몽고자와의 사이에 그 창제에 있어서 관련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보겠다.¹³⁰

3. 상형설

명곡 최석정(1646~1715)의 《경세정음도설》에 대하여 이계 홍양호(1724~1802)는 그 의견을 정정 보충한 것이니 그것은 이러하다.

“그런데 가만히 정운도설을 살펴보니 자세하게 분석하여 비록 그 변화를 지극히 다루긴 했지만 다만 모양을 관찰하여 글자를 만든 뜻에는 이르지 못했으니 아마도 너무 정중하여 감히 딱 잘라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한다.”¹³¹

128 “訓民正音, 十五初聲, 我世宗朝命詞臣, 依蒙古字樣, 質問明學士黃瓚, 以製,” 유희의 《언문지》

129 “諺文雖萌於蒙古, 成於我東, 實世間至妙之物,” 유희의 《언문지》

130 유희의 《언문지》,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 권7 〈잡서문〉, 유창균(1970:70) 교수도 몽고자 기원설에 동조하고 있다.

131 “然竊按其正韻圖說, 支分縷析, 雖極其變, 而獨未及於觀象制字之意, 無乃鄭重而未敢質言歟,” 《이계집》 권10, 《경세정음도설》 서.

또 이제 홍양호는 그 의견을 그 아래 계속하였으니 그 일단을 엿볼 수가 있다.

“신은 어긋나고 거짓됨을 헤아릴 수 없어 삼가 초성 17자를 취하여 아, 설, 순, 치, 후 오음을 취하여 방형(方形, 모남)과 원형(圓形, 둥근)의 굵고 곧은 획으로서 개합(開合, 열고 닫음)에 전반(全半, 전체 가운데 반)의 형을 배열하여 육서의 상형의 예에 응하게 했다”¹³²

그리고 부기하여 이렇게 써있다.

부 훈민정음 초성상형도

附訓民正音初聲象形圖

ㄱ 君初聲牙音象牙形

ㄱ은 군자 초성, 아음으로 어금니 모양을 상형

ㅋ 快初聲牙音重聲

ㅋ은 쾌자 초성, 아음으로 거듭된 소리

ㅇ 業初聲喉音象喉扇形

ㅇ은 업자 초성, 후음과 아음 사이에 목구멍과 현홍수(목젖) 상형

ㄴ 那初聲舌音象舌形

ㄴ은 나자 초성, 설음으로 혀의 모양을 상형

ㄷ 斗初聲舌音象掉舌形

ㄷ은 두자 초성, 설음으로 혀가 흔들리는 모양을 상형

ㅌ 吞初聲舌音重聲

ㅌ은 탄자 초성, 설음으로 무거운 소리

ㅍ 𪎐初聲唇音象半開口形

ㅍ은 별자 초성, 순음으로 입을 반쯤 연 모양 상형

ㅂ 漂初聲唇音象開口形

ㅂ는 표자 초성, 순음으로 입을 연 모양 상형

ㅁ 彌初聲唇音象口形

132 “臣不揆僭妄，謹就初聲十七字，取牙舌唇齒喉五音，而因方圓曲直之畫，配開合全半之形，以應六書象形之例”，《이계집》 권10 《경세정운도설》 서.

ㅁ은 미자 초성, 순음으로 입 모양 상형
 ㅂ 初聲齒音象齒形
 ㅅ은 술자 초성, 치음으로 이 모양 상형
 ㅈ 卽初聲齒舌間音象齒齧形
 ㅊ은 즉자 초성, 이와 혀 사이 음으로 이와 잇몸 모양 상형
 ㅋ 侵初聲喉舌間音
 ㆁ은 침자 초성, 후설 사이의 음
 ㅇ 欲初聲淺喉音象喉形
 ㆁ은 욱자 초성, 얇은 목구멍 소리로 목구멍 모양 상형
 ㆁ 挹初聲喉齒間音象喉齶形
 ㆁ은 ㆁ자 초성, 목구멍과 이 사이 음으로 목구멍과 잇몸 모양 상형
 ㆁ 虛初聲深喉音
 ㆁ은 허자 초성, 깊은 목구멍 소리
 ㄹ 間初聲半舌音象卷舌形
 ㄹ은 려자 초성, 반설음으로 혀가 말린 모양 상형
 ㄷ 穰初聲半齒音象半啓齒形
 ㄷ은 양자 초성, 반치음으로 반쯤 열린 잇소리 상형

이라고 하여 17자 초성이 발음기관에 상형했음을 주장했으니 이와 같은 설을 가진 이로는 고종 6(1869)년에 강위(姜瑋, 1820~1884)의 저서인 《의정국문자모분해》¹³³에 역시 그 설을 볼 수가 있다.

133 《의정국문자모분해》는 1860년대 강위(姜瑋, 1820~1884)가 지은 책으로 《동문자모분해》 혹은 《국문자모분해》라고도 한다. 이능화의 《국문연구안》에 실려 있는 《의정국문자모분해》(1864)과는 표기법의 차이가 보인다. 자모 명칭을 초성은 “그, 느, 드, 르…”로 종성은 “기옥, 니은, 디글…”으로 되어 있으며 《신정국문》(1905년)에 많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고전설

고전설은 이미 훈민정음 창제의 최초에 있던 것으로 그 정인지(1396~1478) 서에 “象形而字倣古篆”¹³⁴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니 이 고전(古篆)이란 말을 설명한 바 없으므로 후에 많은 제설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후에 정조 때에 이덕무(1741~1793)는 이것을 《양엽기》에 이렇게 말하였다.

“훈민정음에 초, 종성이 통용되는 8자는 다 고전(古篆)의 형상이다. ㄱ는 고문의 급(及)자에서 나온 것인데, 물건들이 서로 어울림을 형상한 것이다. ㄴ는 익(匿)자에서 나온 것인데, 은(隱)과 같이 읽는다. ㄷ는 물건을 담는 그릇 모양인데, 방(方)자와 같이 읽는다. ㄹ는 전서의 기(己)자이다. ㅁ는 옛날의 위(圍)자이다. ㅂ는 전서의 구(口)자이다. ㅅ는 전서의 인(人)자이다. ㅇ는 옛날의 원(圓)자이다. 또 ㅡ는 위아래로 통하는 것이니, 고(古)와 본(本)의 변절인데 세속에서는 이것을 반절이라 한다.”¹³⁵

이와 같이 그 창제에 직접 관계한 정인지가 고전에 의방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 후 이 이덕무만이 고전설을 말했을 뿐이니 물론 고전이라 하는 것은 그 해석에 따라서는 이 전후의 고전설이 피차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고전설에 대하여 얼마 후가 아닌 성현(1439~1504)이 범자설을 주장한 것도 가히 후인들이의 심을 품게 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보다도 그 당시 사람인 최만리 같은 한문학자가

134 象形而字倣古篆: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이 대목에 대해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이 내용과 비슷한 기록으로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조의 《세종실록》의 기록으로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는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其字’의 개념이 초, 중, 종성으로 분리하기 이전의 곧 C+V+C로 구성된 음절글자를 말한다. 따라서 초, 중, 종성을 합한 글자의 모양은 방패형으로 옛 전자(古篆)의 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모는 발음기관과 발음 모양을 상형한 것이고 자모를 모이쓴 음절글자는 고전을 모방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문 28자의 낱글자가 옛 전자(古篆)를 모방했다는 견해는 타당성이 없다. 한글과 마찬가지로 거란 대소자나 여진 소자의 모아쓰기 방식은 한글의 음절글자의 모양과 마찬가지로 옛 전자(古篆)와 같은 방패형 문자이다.

135 “訓民正音初終聲通用八字, 皆古篆之形也, ㄱ古文及字, 象物相及也, ㄴ匿也, 讀若隱, ㄷ受物器, 讀若方, ㄹ篆己字, ㅁ古圍字, ㅂ篆口字, ㅅ篆人字, ㅇ古圓字, 又 ㅡ上下通也古本切翻切, 俗以爲諺文反切.” 《청장관전서》, 권54, 〈양엽기〉.

그 반대 상소문 중에

“모두 옛글자에 바탕을 둔 것이고,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글자의 꼴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본떴을지라도 소리를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은 완전히 옛것에 반대되니 (그 말은) 실로 근거가 없습니다.”¹³⁶

라고 한 데서 고전에 비하여 다 반대된다는 이런 설이 있는 것이 후인을 한층 의아하게 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위에서 기술한 반대문 중에서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첫째로 고전에 모방했다는 서의 기록은 그 참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강경히 반대하는 한문학자들의 생각을 모호케 하려는 수단적 표시가 아닌가 라고도 생각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28자만은 고전에 의거했다는 것을 시인하나 그 합자하는 형식이 전혀 고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¹³⁷ 이러한 것은 결국 이 서문의 고전설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이덕무의 고전설과도 그 실은 멀 것 같음을 우리는 의심을 아니 품을 수 없다.¹³⁸

136 “諺文皆本古字，非新字也，則字形雖倣古之篆文，然用音合字，盡反於古，實無所據。”，세종실록 103권, 세종 26(1444)년 2월 20일,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

137 이덕무(《청장관전서》 권54 <훈민정음조>), 이상백(1957:3~4), 김윤경(1932:202), Gale, J.S.(1912), Kiaproth, M.(1832) 등의 고전설에 동조하고 있다.

138 오늘날 이 고전설을 김완진(1966:384~385) 교수가 다시 제기하였다. 정인지 서문에 나타나는 ‘象形而字倣古篆’과 대응을 이루는 세종 25년 《세종실록》에는 “上親制諺文二十八字，其字倣古篆，分爲初中終聲，合之然後乃成字”로 되어 있다. 이 둘을 대조해 보면 상형한 ‘字’는 자모(낱글자)를 말하고 ‘字倣古篆’의 ‘字’는 한 음절(초+중+종 합자)로 된 글자를 뜻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28자 자모는 상형이요, 한 음절로 합자한 글자의 꼴은 중국 고대 한자의 방패형을 본뜬 “字母象形而字倣古篆”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而’는 연결사로 ‘그리고’라는 전후 대등절을 잇는 어조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은 창제 이전에 있어서 우리말을 표기한 곧 한자음의 음과 훈을 빌려 적은 이른바 차차표기 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 아래 한글 자모의 기원을 고전체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한글 자모를 ㄴ(隱), 口(音), ㅂ(邑), ㅇ(應), ㅅ(品), ㄷ(處), ㆍ(字), ㅡ(應), ㅣ(伊), ㅌ(牙), ㅍ(耶), ㅍ(於), ㅍ(與), ㅍ(五), ㅍ(要), ㅍ(由, 俞) 등으로 추론하고 있다.

홍윤표(2005:54~56) 교수는 ‘상형’은 기본 글자를, ‘자방고전’은 기본 글자 외의 글자를 만드는 원리로 보고 있으나 ‘象形而字倣古篆’의 전후 문맥을 파악해보면 자모의 기원은 분명히 상형이요, 한 음절의 글꼴은 고전체의 방패형이다. 이 기본적인 단락 해석의 오류로 인해 한글 자모 기원설이 전혀 불필

5. 오행설

오행설에 관하여는 상기 네 가지 설과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오행설이란 위에서 기술한 제설에 비하여서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막연하다고 아닐 수 없다.¹³⁹

그러나 이 오행이란 것이 훈민정음 제작에 영향을 준 사상임에는 틀림없으니 그것은 《훈민정음》 제자해에 이런 것이 있다.

“천지의 도는 한 음양오행일 따름이니 건과 복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동과 정이 뒤가 음양이 되나니라. 무릇 천지간에 있는 생류로서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오. 그러므로 사람의 성음(聲音)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이거늘 사람이 살피지 못 할뿐이니라. 이제 정음을 만드는 것도 애초부터 지혜로써 마련하고 힘씀으로써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성음에 인하여 그 이치를 다할 따름이니라.”¹⁴⁰

| | | | | |
|-------|-------|---------|-------|-------|
| 동(東) | 남(南) | 중(中) | 서(西) | 북(北) |
| 봄(春) | 여름(夏) | 늦여름(季夏) | 가을(秋) | 겨울(冬) |
| 풍(風) | 서(暑) | 습(濕) | 조(燥) | 한(寒) |
| 나무(木) | 불(火) | 흙(土) | 쇠(金) | 물(水) |
| 산(酸) | 고(苦) | 감(甘) | 신(辛) | 함(鹹) |
| 노(怒) | 희(喜) | 사(思) | 우(憂) | 공(恐) |
| 청(靑) | 적(赤) | 황(黃) | 백(白) | 흑(黑) |
| 각(角) | 치(徵) | 궁(宮) | 상(商) | 우(羽) |
| 아(牙) | 설(舌) | 후(喉) | 치(齒) | 순(唇) |

이와 같이 음양오행의 이치에서 훈민정음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였으니 오행설을 논하는 이가 생긴 것도 결코 부허(浮虛)한 공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요한 논의로 발전되어 도리어 한글 창제의 독창성을 희석시킨 결과가 아닐까? 한글 자모 창제의 독창성을 어떻게 하든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태생된 것으로 돌리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글 자모의 기원이 중국 고전에 있었다면 해례본 제자해에서 상형설과 가획의 원리나 그 예외에 대해 그렇게 정밀하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139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7음해>에서 이 설에 동조하고 있다.

140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捨陰陽而何之。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耳。今正音之作。初非知營而力索。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훈민정음》 제자해.

ㄱ) 음악과의 관계

훈민정음은 음악에 그 기원이 있다는 설이니 이것은 갈라서 그 이론에 기원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악보의 기호에 모방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와 아울러 후장의 《악학궤범》을 말할 때에 합해 논할 것으로 미루어 둔다.¹⁴¹

ㄴ) 28수와 관계

훈민정음이 자수가 28자인데 관련시켜 그 수를 말한 것이오, 그 자체의 기원을 말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이제 홍양호와 같은 이가

“이에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시니 별자리의 배열 수에 응하여 글자 형을 삼고 규벽(奎壁, 문장을 맡은 별)의 원곡(圓曲)을 상형하고 소전의 예서의 체를 모방하여 매우 간단하여”¹⁴²

라고 성진(星辰, 별자리)에 그 자형까지 논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모두 28이란 수에 관하여 세종 28년에 훈민정음 28자를 반포하였다는 이런 데서 생긴 말이라고 볼 것이다.¹⁴³

141 병와 이형상의 《악학편고》(1707~1725년) 권1, 〈성기원류〉 항에 “하늘에는 음양(陰陽)이 있고 땅에는 강유(剛柔)가 있으니 음양은 기(氣)이다. 기로서 (성음을) 생성하니 벽흠(闕翕, 열리고 닫힘)이 있다. 강유는 질(質)이니 질로서 성음을 이루는 고로 창화가 있다. 성은 하늘의 변율(變律)을 좇고, 음은 땅의 변화를 좇아서 변화한다. 율려(呂律)는 성이 교체됨으로서 평, 상, 거, 입이 생겨나며, 열고닫는 개발수폐(開發收閉)로 음과 함께 하니 이 네 가지 성은 십악이 창제한 것이다.(天有陰陽, 地有剛柔, 陰陽氣也。氣以生成, 故有闕翕, 剛柔質也。質以聲音, 故有唱和, 聲隨天而變律, 音隨地而變, 呂律交聲而, 平上去入生焉。呂互音而開發收閉焉。此四聲槩, 自沈約而勑焉。)”라고 하여 성운학을 율려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명곡 최석정과 교분을 나누었던 병와는 숙종 당시 다시 불이 붙은 성운학을 예약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자학》, 《악학편고》 등의 저술을 남겼다. 정동유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정옥, 《백성은 물, 임금은 배》, 178~183쪽, 글누림, 2013, 참조.)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 참조.

142 “於是制訓民正音二十八字, 以應列宿之數, 而字形則觀奎壁圓曲之象, 點畫則倣小篆分隸之體.”, 《이계집》 권10 《경세정운도설서》. 홍양호의 《경세정운도설》 서, 반재원(2013),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천문도와의 상관성》,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43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천문도와 관련 지워 기술한 명곡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도설》의 〈경세정운서설〉에 “어제 언문 28자도 곧 별자리의 형상이다(御製諺文二十八字卽 列宿之像也)”라고 하여 논의하였다.

ㄷ) 팔괘와의 관계

이것은 에카르트도 인용했거니와 건곤으로 ≡ ≡ 등과 같은 선 혹은 선 아닌 것으로 표시하는 뜻이 조선의 문자와 관련시켜 볼 수도 있는 것이나 그 이론이 영향한 바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이 직접 기원의 실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ㄹ) 종합된 것과의 관계

이것은 역시 에카르트가 인용한 것이니 이러한 것이다.¹⁴⁴

이와 같이 오방(五方), 사시(四時), 오미(五味), 오장(五臟), 오색(五色), 오음(五音) 등 휩쓸어 음양오행에 서로 맞출 수 있는 이런 동양적 사상이 이 훈민정음 제작에 영향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해석함에는 이 지식이 필요한 것이니 이 오행설을 주장한 이로는 《훈민정음운해》를 저작한 신경준 같은 이도 있고 최석정 같은 이도 있으며, 근자에는 이익습(1892년)¹⁴⁵이란 이가 〈알파베트〉라는 제목으로 코리안 리포트에 발표한 것도 있다.

6. 그 외 제설

이 밖에 에카르트의 인용에 의하면 한자와의 관계에서 자형의 외모로만 상이된 것 예를 들면 ‘ㄹ’과 한자의 ‘ㄱ’이며 ‘ㅅ’과 한자의 ‘人’과 같은 비교에서 매우 그 이유

144 《동국정운》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오행 순서(牙舌脣齒喉)와 달리 ‘脣’과 ‘喉’의 운도 위치가 바뀌어 있다. 해례본의 오음계의 배치와 한자음의 표준음 이해를 위해 만든 《홍무정음역훈》의 오음계는 차이가 있다. 곧 《고금운회거요》 계열의 운도를 기준으로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입술소리(脣)-궁(宮)’, ‘목구멍소리(喉)-우(羽)’의 오음계 배치로 되었지만 《홍무정음》 계열의 중국의 운서에는 ‘입술소리(脣)-우(羽)’, ‘목구멍소리(喉)-궁(宮)’로 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의 오음계 배치가 《홍무정음역훈》, 《사성통해》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었다. 곧 음양오행의 동아시아의 사상 체계로 만든 훈민정음의 제자의 원리를 밝힌 제자해에서 제시한 ‘脣-宮’의 배합과 ‘喉-羽’의 배합이 문제가 있음 지적하였다. 곧 “元和韻譜及神珠, 喉音爲宮土”라고 하여 ‘喉-宮’의 배합이 옳으며, 이어서 “韻譜及沈約神珠, 皆以脣爲羽音”이라고 하여 ‘脣-羽’의 배합이 옳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이상규(2012),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 《한글》 298집, 한글학회, 참조.)

145 Yi Ik Seup(1892), 〈The Alphabet(Panchul)〉, 《Korean Repository》 Vol. 1, October, 1892.

가 박약한 근거 상에 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논한 이도 있다.¹⁴⁶

또 소아시아의 문자와의 관계에서 그 지원을 설명하고자 한 이도 있으나 이것은 에카르트 역시 반대한 것이니 조선에 그 당시에는 물론 중국과 몽고 등의 관계로 보아 소아시아의 문자를 몰랐다고는 못하겠으나 이것이 그 문자의 제작에 근거가 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종대왕께서 만일 이런 문자에 모방을 구했으면 무엇이 그런 오랜 시일을 걸리게 했으며, 일부러 그 신하를 여러 번 질문 차 보냈으랴. 또 조선 문자와 유럽의 글과는 크게 다름이 있으니 우선 조선 글은 위에서 아래로다가 내리쓰는데 대하여 유럽 문자는 좌에서 우로다가 건너 쓰는 것도 서로 다르다 것이다. 이 설을 에카르트는 찬성하지 않았다.

또 불교 특히 서장파(西藏波)의 ‘Rad’라는 것이 이것이 구성 분자로 여기서 ‘ㄱ’이 발달했으니 조선 문자는 이 ‘ㄱ’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과 같은 자가 고안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도 찬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에카르트는 9조를 들어서 그 중 8개 조는 부인하고 맨 마지막의 이것만은 매우 만족한 듯이 말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선의 창살문에서 세종대왕께서는 그 문자를 안출해 내었다는 것이다. 창살문에는 선도 있고 각도 있어서 ‘ㄱ, ㄴ’같은 자는 물론 ‘ㅁ, ㅂ’ 같은 자도 다 그 속에 들어 있으며 얼른 보아서는 ‘ㅇ’ 즉 원형이 없는 듯하나 이것도 그 문고리에서 곧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훈민정음의 기원에 관한 유래를 간단히 뽑아 설명하였으나 기실 훈민정음 그 자체가 해석한 제자의 원리 즉 그 기원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

146 강신항(2003),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참조. 송나라 정초(鄭樵, 1104~1162)의 《고금도서집성》〈자학전〉 권6에 실린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 내용을 토대로 하여 ‘기일성문도’의 ‘ㄱ’을 운용하여 독체를 만드는 것이 훈민정음 문자의 창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에 대해서 ‘기일성문도’는 훈민정음 창제에 적절한 도형(타이포그라피)을 제공한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훈민정음의 제작 방법은 ‘기일성문도’의 문자 생성 방법과 달리 기본 문자를 만들고 거기에 획이나 점을 체계적으로 더하여 더 많은 문자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상으로써 이것의 소개 삼아 약설하여 그치고 그것은 달리 절을 바꾸어 논하려 한다.¹⁴⁷

147 이외에 다양한 기원설이 제기되었다. 이덕무는 《양엽기》에서 훈민정음의 고전기원을 말한 뒤 다시 “세속에 전하기를 ‘장헌대왕(莊憲大王 장헌은 세종대왕의 시호)이 일찍이 변소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배열해 보다가 문득 깨닫고 성삼문(成三門) 등에게 명하여 창제(創製)하였다”라고 속전의 측주설을 부기하였는데 그의 손자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권29)에서 “언문은 곧 우리 세종께서 하루 아침에 성의로서 나타내었는데 화장실에서 종횡으로 획을 그어 만들었다. 신숙주에게 요동에 가도록 명하여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이 요동에 유배로 와 있었는데 신숙주가 무려 13차례 왕래하면서 질문하여 그 자모와 초, 중, 종성과 사성을 정하였는데 만물의 만상의 음을 쓸 수 있으며, 다 반절로 합하여 글자를 만드니 6,346자나 되어 천하에 기여한 문자이다(諺文即我世宗朝出自聖意, 以廁籌縱橫作字, 乃命申叔舟入遼東. 按, 皇明韓林黃瓚適遼東, 申相叔舟十三度往來質問, 定其字母及初中終與四聲, 以翻萬物難狀之音, 蓋以反切合而成字, 凡六千三百四十六, 寔天下之奇文也.)”라고 하여 측주설(廁籌說)을 주장하였다. 병와 이형상의 《자학제강》(1716년)에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언문청을 설치하시고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명하시어 전서(篆書)와 주문(籀文)을 모방하여 28자를 만들어서 여러 글자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혹은 소리에 어울리게 하거나 뜻을 합해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는 범자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및 여러 나라의 어음들은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 모두 통하고 틀림이 없게 되었다.(昔我, 世宗大王設諺文廳, 命鄭麟趾申叔舟成三問等, 倣篆籀二十八字, 演爲諸字, 式諧聲或會意而爲之, 其字依梵字造作, 本國及諸國語音中, 文字所不記者, 悉通無言化)”라고 하여 글자의 끝은 석고자(石鼓字, 섬서성 보계현에서 발견된 동진(東晉) 시대의 비석으로 272자의 기록이 남아 있음)를 모방하였으며, 이들의 기원을 범자에서 기원한 것이라 하였다. 근세에 이르러 내외에 훈민정음의 기원이 많이 논의됨에 따라서 외래설로는 혹 서장자설, 범자설, 심지어 라틴자, 시리아자, 헤브루어자 등의 영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시대로는 신라설, 백제설, 심지어 단군시대의 신지비사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또 그 이외로는 덧문창살설, 팔괘설, 음악부호설 등이 있으나 실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훈민정음 이후

제1장 제1기 훈민정음시대

제1절 시대 통설

이 시대는 세종 25(1443)년 계해년으로부터 연산군 11(1505)년 을축년까지 약 60여 년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때부터 시작하여 연산군이 그 사용을 금지하던 때 즉 창제된 후 제1차의 고난을 당한 때까지를 제1기라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의 7대를 통한 기간이니 실은 조선 문화의 창설기요, 또 육성기라고도 할 만하다. 비록 7대라고는 하나 여기서 보는 문화 방면으로 논하면 세종, 세조, 성종의 3대의 사업이라고 줄여 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특징도 이 3대에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연산군의 존재는 정치의 다른 면으로는 또 말할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세종과 세조와 성종과의 3대 간의 문화 사업을 보면 이 시대를 전체로 통한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되겠다.

먼저 이 시대의 유교와 불교를 개관하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유교는 국력으로 장려하는 만큼 점차 성하여 나가고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처지 즉 역경에 처한 불교의 쇠퇴에 의하여 전혀 유교라는 단독의 세력에 빠지는 시기를 짓는 때였다고 볼만하다. 유교에 대해서는 더 말하려고 않거니와 불교로 보면 그래도 세종대왕께서는 물론이고 세조까지도 정치 방면을 떠난 개인의 신앙으로는 아직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여러 점에서 알 수가 있지마는 이 시대 이후에 대왕으로서 불교에 독신자는 찾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아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불교의 여세에 의하여 훈민정음은 언해라는 형식에서 그 고향을 오늘날에 귀중하게도 전해주고 있으며, 이 유교의 신흥에 의하여 훈민정음은 그 주해라는 방편에서 그 명맥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되니 세조의 간경도감 판의 불경언해와 최세진의 《훈몽자회》와 같은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훈민정음을 돌아보건대 그 독자적 발전을 가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유교와 불교에 의하여 그 본형을 보존해온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요약하여 여기서 유교를 살펴

보면 신흥하는 세력이 점차 깊이 박혀서 이 시대의 말기까지 가게 되면 전혀 각 방면을 통하여 이것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여기서 불교를 찾아보면 당시의 정치상으로는 무력해졌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신앙으로서 잠재한 세력은 표면만 보고 불인묵과(否認黙過)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쇠미(衰微)의 길을 시대와 같이 밟고 있었다고 아니할 수는 없다.

또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활자의 주조이다.¹ 세종대왕께서는 창의원 밖에 조지서(造紙署)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게 하여 출판에 큰 요소가 되었다고 보겠다. 《용재총화》 권10에

“세종이 조지서를 설치하여 표전지와 자문지를 제작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또 서적 찍는 여러 색지를 만드니 그 품종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 고정지, 유엽지, 유목지, 의이지, 마골지, 순왜지가 그 정묘함이 지극하여 찍어낸 서적도 역시 좋았다. 지금은 다만 고정지와 유목지뿐이요, 자문지, 표전지도 또한 옛날같이 정묘하지 못하다.”²

라고 하여 고정지(蒿精紙)와 같은 종류는 이 시대를 통하여 있는 만큼 세조 때 불경언해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에 오히려 볼 수 있으며, 또 성종 때에는 중국의 조지법을 참고한 사실도 있고 이때에 김안국(1478~1543)은 태지(苔紙)를 조정에 진현한 사실도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이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인쇄술에 있어서도 목판과 동시에 활자판이 용이하게 출판되도록 활자를 새로 주조하는 기술이 향상되어 갔다. 우리 활자사로 보면 고려 때에 벌써 활자로 발간된 책이 있는 것도 알지마는 조선조에 들어서는 확실히 성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태종 3(1403)년에는 주본자(奏本字)가 그 처음이다. 그리하여 세종 때만 해도 그 2(1420)년에 경자자(慶子字), 그 16(1434)년에

1 국립중앙박물관(2006), 《한글금속활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 총서 IV,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범우, 2012.

2 “世宗設造紙署，監造表箋咨文紙，又造印書諸色紙，其品不一，有蒿精紙柳葉紙柳木紙薏苡紙麻骨紙純倭紙，皆極其精，所印書籍亦好，今則只有蒿精柳木兩紙而已，咨文表箋之紙，亦不類昔之精也。”《용재총화》 권10.

갑인자(甲寅字), 그 후에 임신자(壬申字)가 있었고 세조 때에는 원(1455)년에 을해자(乙亥字), 그 11(1465)년에 을유자(乙酉字)가 있었으며, 성종 15(1485)년에 갑신자(甲申字), 그 후에 계축자(癸丑字) 등이 있으니 이 시대는 또한 활자가 78번이나 개선되는 활자 사상 중요한 시기였고 조선 5백년을 통해 보아도 가장 활자의 전성의 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다.[미주4] 여기서 우리는 조선 인쇄 사상 나아가서는 조선 문화 사상에서 살펴보자 이 시대는 과연 중요한 문화의 기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 정세와 아울러 이 기간을 특히 훈민정음사에서 그 제1기라고 구분하게 된 것은 대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음으로써 그렇게 정한 것이다. 첫째로 이 60년간은 훈민정음에 있어서 그 자체적 개혁은 그래도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글자수로만 보아도 28자로 창제된 것이 적어도 이 기간만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보겠으니 그 당시에 실제의 발음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로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수를 증감하는 그러한 현저한 실례가 나타나 있는 것이 없다. 이때의 한자음이나 우리 어음을 표기하는 형편에 있어서도 그 기간 중에서는 특유한 그것을 고치거나 없애거나 하는 새 사실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오늘에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바이다. 즉, 특유의 표기법을 그대로 고집해서 한 시기를 이룬 것이니 이것은 물론 훈민정음이 언해본에서 나타난 그것이다.

둘째로 이 훈민정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하던 기관이 그래도 이 시기까지는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점이 그것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이것을 보급하는 등 제반으로 이에 관계된 사무를 전장한 기관으로 ‘정음청’이라고 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단종실록》 임신(1452)년 11월《노산군일기》 권4)에 이르러 일단 혁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음청은 언문청과 동일한 것일 것이니 그것은 《세종실록》에 세종 28(1446)년 병인 겨울의 기록으로 이런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태조실록을 내전에 들여오기를 명하고, 드디어 언문청을 설치하여 사적을 상고해서 용비시(龍飛詩)를 첨입하게 하니,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실록은 사관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언문

청은 알아서 드러나게 되고 외인의 출입이 무상하니, 신 등은 매우 옳지 못하였다고 여깁니다.”³

이와 같이 관청을 두어서 훈민정음의 직접 관계있는 일과 또는 직접은 아니라고 해도 이와 얼마큼 관계있는 것을 그 사업으로 하는 처소가 있었음을 알겠으니 그것은 후에 《지봉유설》 권18:231에 이수광의 기록으로 보아서 알 수도 있다.

“우리나라 언서는 세종조 국을 설치하면서 출판이 시작되었다.(我國謄書 始於世宗朝 設局撰出)”

이라고 한 것 외에 《증보문헌비고》 권245에도

“언문이라 이름하고 궁궐에 국을 설치하였다(名曰謄文 開局禁中)”

라고 한 이 국(局)이란 것이 바로 정음청, 즉 언문청임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게 된다. 여기서 같은 일을 하는 한 관청의 명칭을 둘로 쓰고 또 실록의 기록에도 두 가지가 완전히 병용되었으니 이것은 혹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도 보겠으나 그러나 언문청이라고 함은 그 명칭에서 역시 그 말은 일이 연상되는 것이니 이 명칭이 가부를 떠나서라도 세종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면 정음청이라고 하는 것이 언문청과는 다른 일을 주장하는 관청일 수밖에 없지만 이 정음청에 대하여 특별히 참고할 만한 서적이 없고 다만 이것이 주자소 대용으로 주자를 보관하는 일도 한 것이 있고 또 소학을 간행하는 등 인출의 사업을 한 것도 알 수 있다. 대개 이 두 가지 명칭을 동일한 관청으로 보는 이유는 언문이란 말과 정음이란 말의 뜻에 있어서 동일시하는 데서 나온 견해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건대 세종대왕 당시는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관청에 명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음의 편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용된 정음이란 말이 훈민정음의 뜻으로 생략된 것임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물론 여기저기에 쓰였

3 “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謄文廳, 考事迹, 添入龍飛詩. 春秋館啓 實錄, 非史官, 不得見, 且謄文廳淺露, 外人出入無常, 臣等深以謂不可. 上卽命遷入內”, 《세종실록》 권114권, 세종 28(1446)년 11월 8일.

으니 더 말할 것이 없거니와 그밖에 《용비어천가》에도

“무릇 이 책에 지명은 한자로 통하기 어려운 경우 정음으로 글자를 써서 인명, 직명도 또한 모두 이와 같이 모방하였다.”⁴

라고 하여 함경도 방면의 옛날 여진어같은 것을 기록할 때에 한자로 글쓰기가 어려운 것은 정음으로 다 표시한 것이 사실이니 이때의 정음이란 것은 훈민정음의 약칭인 것이고 또 《월인석보》 서에서

“正정음음은 正정훈소리니 우리 나랏 마를 正정히 쓰는 그릴씨 일후를 正정음음이라 訥々나라 또 정음으로서 譯해를 추가하였다(又以正音就加譯解)”

이와 같이 훈민정음이라는 뜻을 밝히었으니 세종대왕 당시에는 정음이라고 하면 훈민정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정음 즉, 언문청, 정음청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이것은 원래 동일 관청의 명칭으로서 세종대왕 당시는 정음청으로 불려지고 그 후는 점차 언문청으로 불려지게 된 관계에서 후인의 기록과 전후 혼동되어 둘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지 추측한다. 여하간 이 관청은 유명무실의 것이었는지 크게 뚜렷한 기록은 없고 정음청은 《단종실록》 단종 원(1452)년 11월에 혁파되었으며, 언문청은 《중종실록》 중종 1(1506)년 9월에 혁파된 것만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이 두 명칭의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 이미 한번 없어진 것을 그 후 다시 재차 없앤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만일 《용재총화》의 기록을 믿는다면 세종대왕께서 언문청을 시설하였으니 그 28(1446)년 이후 연산군 말년까지 60년 간을 지나서 중종대왕 즉위 초에 없어진 것이 된다. 이것이 또한 사실이면 언문청이란 것이 어떻게 연산군 시대의 10여 년을 고요히 넘기었는가 또한 의심이 아닐 수 없다.

4 “凡書地名 漢字之難通者 又以正音之字書之 人名職名亦皆倣此”, 《용비어천가》.

이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훈민정음을 맡아서 주장하는 관청이 역시 이 시대의 60년간을 다소 의심은 있을지언정 그대로 존치되었던 것만은 기록에 명시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기관으로서 훈민정음 제작에 관계가 깊은 것은 또한 집현전이니 이것은 《세종실록》 권7 경자 3월 16일에 “갑신에 새로 집현전을 설치하고(甲申新置集賢殿)”이라고 하여 세종 2(1420)년에 신설되었음을 알겠으니 이와 같은 뜻의 기록으로는 《필원잡기》 권1에

“세종은 문치에 힘쓰이 만고에 뛰어나서 경자년에 처음으로 집현전을 설치하여 문사 열 사람을 뽑아서 채웠으며, 뒤에 30명으로 증원하였다가, 또 20명으로 고쳐서 열 사람은 경연의 일을 맡고, 열 사람은 서연을 겸직하였다. 오로지 문만을 맡아서, 고금의 일을 토론하고 아침저녁으로 연구하니, 문장하는 선비가 성대히 배출되어 인재를 많이 얻게 되었다. 집현전 남쪽에 큰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기사년과 경오년 사이에 흰 까치가 와서 집을 지었는데 새끼가 모두 흰 색이었다. 수년 사이에 요직에 있는 이는 모두 집현전에서 나왔다. 영상 정인지, 좌상 이사철, 영상 정창손, 영종추원사 이제전, 안지, 판서 김조, 참판 김돈, 판중추부사 김균, 김말, 영상 신숙주, 좌상 권람, 참찬 박중손, 영상 최항, 판서 김담, 판중추부사 이석형, 의정 윤자운, 판중추부사 어효침, 참판 노숙동, 판서 양성지, 성임, 이극갑, 부윤 이명겸, 판서 김예몽, 영종추부사 노사신, 서평군 한계희, 찬성 홍응, 참찬 이승소, 참판 이파, 판서 이병, 부윤 조근, 강희안, 판서 강희맹, 부윤 최선복, 참판 박집 등이며, 불초하지만 나 또한 그 사이에 참여하였다. 또 박중림, 박팽년, 하위지, 성삼문, 이개, 유성원 등과 같은 이는 한때 현달하였는데, 계유년과 갑술년에 버드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으므로 어떤 이가 유성원에게 농담하기를, 화가 반드시 유(柳)로부터 시작할 것이라 하였는데, 유성원이 실패하였으니 그 말이 과연 들어맞았고 집현전도 얼마 후 없어지고 말았다.”⁵⁾

- 5 “世宗勵精文治, 高出萬古, 歲庚子始置集賢殿, 選文士十人充之, 後增三十員, 又改二十員, 十人帶經筵, 十人帶書筵, 專任文翰, 討論今古, 朝夕論思, 文章之士, 彬彬輩出, 得人甚盛, 集賢殿南有大柳, 歲己巳庚午間, 有白鵲來巢, 子皆白, 數年間布列顯要皆出於集賢, 如鄭領相麟趾, 李左相思哲, 鄭領相昌孫, 李領院季甸, 安領院止, 金判書絅, 金參判墩, 金判樞鉤, 金判樞末, 申領相叔舟, 權左相擊, 朴參贊仲孫, 崔領相恒, 金判書淡, 李判樞石亨, 尹議政子雲, 魚判樞孝瞻, 盧參判叔全, 梁判書誠之成判書任, 李判書克堪, 李府尹鳴謙, 金判書禮蒙, 盧領府思慎, 韓西平繼禧, 洪贊成應, 李參贊承召, 李參判坡, 李判書芮, 趙府尹瑾, 姜府尹希顏, 姜判書希孟, 崔府尹善復, 朴參判捷, 雖以居正之無狀, 亦獲列其間, 又以朴仲林朴彭年河緯地成三問李豈柳誠源, 一時顯達, 歲癸酉甲戌柳盡枯, 或戲誠源曰, 禍必自柳始, 誠源敗, 言果驗, 集賢殿尋罷”, 《필원잡기》 권1.

이와 같이 세종 2(1427)년 경자에 역시 설치한 것을 말하고 또 당시 집현전에 입참된 명사를 열거하여 기록하였으니 이들의 후세에 활약을 보면 이 집현전의 얼마나 큰 문화 연출의 근거지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필원잡기》 권1에 다시 계속하여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문학하는 선비를 모아서 수십 년 동안을 양성하여 인재가 많이 나왔으나, 오히려 아침에는 관청에 나가고 저녁에는 숙직하여 공부에 전념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나이가 젊고 재주와 덕행이 있는 몇 사람을 뽑아서 휴가를 주어 산에 들어가 글을 읽게 하고, 관청에서 그 비용을 공급하여 경사와 백가, 천문과 지리, 의약과 복서 등을 마음껏 연구하여 학문이 깊고 넓어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함으로써 장차 크게 쓰일 기초가 되게 하였다. 앞에는 문희공 신석조, 승지 권채, 직전 남수문이 있었고, 뒤에는 문충공 신숙주가 있었으며, 그 밖의 사람도 모두 명사들이었다. 문종 조에는 남양군 홍응과 한산군 이파가 있었고, 보잘것없는 나도 여기에 선 발되었으니, 참으로 일세의 거룩한 일이었다.”⁶⁾

라고 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다시 이 집현전이 그 후 어떻게 되어갔는가를 살펴보면 《용제총화》 권2에

“세종께서 집현전을 설치하고 문사로서 이름 있는 사람 20명을 뽑아 경연관을 겸하게 하고는 모든 문헌의 일을 모두 여기에다 맡겼다. 일찍 집무하여 늦게야 파하였고, 일관이 때를 알려야만 비로소 퇴근하였다. 아침저녁의 식사 때에는 내관을 대객으로 삼았으니, 신하를 두텁게 대우하는 뜻이 지극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어 권면하여 재주가 크고 훌륭한 선비들이 많이 나왔다. 정하동, 정봉원, 최형성, 이연성, 신고령, 서달성, 강진산, 양 이양성, 양 성하산, 김복창, 임서하, 노선성, 이광성, 홍익성, 이연안, 양남원과 성삼문, 박평년, 이개, 유성원, 하위지 같은 이는 모두 걸출한 사람들였고, 그 나머지 문원에서 유명한 이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병자년의 난에 세조께서 집현전을 파하시고는 문신 수십 명을 뽑아 겸예문이라 하여 나날이 만나 생각한 바를 의논하더니 성묘께서 즉위하시자 집현전에 의거하여 다시 홍예관을 설치하였고, 또 본관으로

6 “世宗設集賢殿，聚文學之士，培養數十年，人材輩出，向應朝衙夕直，不專意講讀，選年少有才行者數人，許暇遊山讀書，官供諸具，肆意於經史百子天文地理醫藥卜筮，淹貫該博，無所不通，將爲大用之地，前有辛文僖頤祖權承旨採南直殿秀文，後有申文忠公叔舟，餘皆名士也，文宗朝，洪南陽應李韓山坡，雖以居正之無似，亦獲是選，着一時盛事。”，《필원잡기》 권1.

서 경연관을 겸하게 하여 대우하기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태양 궁중에서 빛은 술을 내렸고, 또 승정원을 불러 모아 승지로 하여금 술을 함께 마시게 하였으며, 용산 강가에 집을 지어놓고 관관에게 번을 나누어 독서하게 하였다. 또 상사, 중추, 중앙의 가절에는 교외에서 놀게 하였고, 후히 술과 연악을 내렸으니, 그 총애와 영광이 지극하였다. 그러나 문명이 있는 것으로 말하면 이는 세종 조의 번성하던 때와는 같지 않았다.”⁷⁾

이와 같이 세종대왕의 설치한 것이 세조 때에 혁파되고 그 후 성종 때에는 집현전에 의방하여 홍문관을 복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조실록》 권4 세조 2(1456)년 6월에

“갑진(1484)년에 집현전을 혁파하도록 명하여 경연을 중단하고 그 소장 서책을 예문관에 옮겨 관장하도록 하였다. (甲辰, 命罷集賢殿, 停經筵, 其所藏書冊, 並付藝文館掌之)”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주력하여 양성된 성삼문(1418~1456), 박팽년(1417~1456) 등 집현전의 유명 학사들이 세조의 즉위를 반대하여 병자의 변⁸⁾이 있는 때문에 세조는 곧 이것을 없애버린 것이나 그 후 성종 때까지도 역시 이 제도를 본받아 내려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집현전이 그 제도상으로도 성종 때까지 영향하였지만 이 것의 훈민정음과의 관계도 언문청과 병행하여 이 시대를 통하여 중요한 기관임을 잃지 않는다.

셋째로는 이 시대까지는 그래도 훈민정음의 창제에 관여된 학자가 아직까지 생존

7 “世宗設集賢殿, 揀文士有名者二十人, 兼帶經筵, 凡諸文翰之事, 悉委任之, 早仕晚罷, 日官奏時, 然後乃得出, 朝夕餽時, 以內官爲對客, 其隆待之意至矣, 由是爭相勸勉, 雄才鉅士多出, 如鄭河東鄭逢原崔寧城李延城申高靈徐達城姜晉山兩李陽城兩成夏山金福昌任西河盧宣城李廣城洪益城李延安梁南原及成三閭朴彭年李瑄柳誠厥河緯地, 皆傑然者也, 其餘有名於文苑者, 不可勝數, 丙子之亂, 世祖命罷集賢殿, 揀文臣數十人稱兼藝文, 日日引見論思, 及成廟卽位, 依集賢殿, 復設弘文館, 又以本官兼經筵, 待之尤厚, 每賜宣醢, 又招聚承政院, 令承旨對飲, 多賜奴婢, 以備役使, 又令自隸皆帶銀牌, 又作堂于龍山江上, 館官分番讀書, 又於上巳中秋重陽佳節, 命遊郊外, 優賜酒樂, 其寵榮至矣, 而有文名者, 不似世宗朝之盛也.”, 《용재총화》 권2.

8 병자년은 상왕복위(단종복위) 역모사건이 발발한 해이다.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병자 6월 초에 성균과 사예(司藝) 김질(金質)과 그의 장인 정찬손(鄭昌孫)의 결계 고변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된 사람이 있다고 할만한 점이다. 그것은 중국에 왕복하여 운을 바르게 하고 일본에 다녀와서 유구의 언어까지 논하며⁹ 훈민정음 제작에 직접 관계한 신숙주가 성종 6(1475)년까지 생존하였던 것을 위시하여 정인지가 성종 9(1478)년, 양성지(1415~1482)가 성종 13(1482)년, 강희맹(1424~1483)이 성종 14(1483)년, 성임(1421~1484)이 성종 15(1484)년, 정창손(1402~1487)이 성종 18(1487)년, 서거정(1420~1488)이 성종 23(1492)년, 노사신(1427~1498)이 연산군 4(1498)년으로서 세종 문화에 관여한 이들로 특히 집현전에 입참했던 명사로서 연산 조까지 생존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대개 이상의 여러 이유로 미루어 이 60년 간 세종 25(1443)년으로부터 연산군 11(1505)년까지는 훈민정음의 제1기로 구분하게 된 것이다. 적어도 이 시대 간에는 그래도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거나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운영된 기관으로 보거나 훈민정음 자체의 발전으로 보거나 문헌상으로 보거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된 인물로 보거나 이 기간은 역시 한 별다른 시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좀 더 달리 조선 문화사상으로 보아서도 이 시대는 역시 이와 같은 한 구분을 지어지는 것이 그 순서일 듯하다.

제2절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께서 권지(1414~1472), 정인지(1396~1478), 안지(1377~1464) 등에게 명하여 제작하게 한 것이니 10권에 나누어 125장으로 되어 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제작을 위시하여 실로 조선 문화의 각 방면에 특기할 만한 사실의 공적을 많이 남기었으니 그중에 이 《용비어천가》는 우리말로 된 최초의 ‘노래(歌)’인 점에서 귀함과 같이 모두 세종대왕의 업적으로서 오늘날 가곡의 연구에 실로 중요한 사료이다. 세종대왕이 이 《용비어천가》를 왜 짓게 했을까 하는 데 대하여서는 정인지의 그 서에 의하여 이러하다.

9 신숙주가 세종 25(1443)년 일본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을 다녀 온 이후에 쓴 《해동제국기》에 실린 유구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먼저 옛날 제왕의 자취를 쓰고 다음에 우리나라 왕실 조상의 일을 서술했습니다. 태조, 태종께서 즉위한 이후의 어질고 착한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임금이 되기 이전의 덕행과 일을 모아 여러 성인들이 나라의 터전을 닦음이 오래 되었다는 그 근본을 캐어 추구해보고 또 그 진실한 덕을 가리켜 펴 보이고 반복하여 읊어서 왕업의 어려움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인하여 그 노래를 풀어서 해설한 시를 지으니”¹⁰

이와 같이 왕업이 일어나는데 간난함(어려움)을 노래로 지은 것임은 그 내용을 읽음으로써 더욱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받는 감상은 이 외에 또 이런 몇 가지가 있으니 첫째로 노래를 어찌하여 거의 전부가 중국의 사실과 병입시켜서 기사하게 하였는가? 즉 은왕, 성탕이라든가 주나라 무왕이라든가를 그 창업 관계에서 중요시한 것은 그 이유가 다만 왕업의 간난을 말함에 있지만은 않은 듯하다. 다음으로 목조(穆祖)가 전주로부터 경흥(慶興) 방면까지 이사하게 되고 결국 원나라의 관리가 된 사실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역사상의 사실임에 틀림없는 것일까? 즉, 다른 여러 기록은 다 그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 할 것이나 고려와의 관계는 기록상에 나타난 것 외에 좀 더 다른 진실된 사실이 있거나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거론할 것이 없고 다만 오늘날 우리로서 더욱이 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본 《용비어천가》에 관하여서만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이제 그 내용을 엿보기 위하여 그 노래를 몇 장 들어 보면 이러하다.

불휘 기픈 남근 보르매 아니 뵈썻 꽃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마르래 아니 그출썻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제2장)

10 “先敘古昔帝王之迹，次述我朝祖宗之事。而太祖太宗即位以後，深仁善政，則莫罄名言。只撮贊氏時德行事業，推本列聖肇基之遠，指陳實德，反複詠歎，以著王業之艱難，仍釋共歌，以作解詩。”，《용비어천가》서문.

이것이 그 제2장이니 나무와 꽃 같은 데 비유하여 조선이 국가로서 영원히 번성할
것을 노래한 이 책의 서문이라고 할만하다.

狄人^스 서리에 가샤 狄人^이 골외어늘 岐山 올믄삼도 하늘 뜨디시니
野人^스 서리에 가샤 野人^이 골외어늘 德源 올믄삼도 하늘 뜨디시니

적인들 사이에 가서 적인이 침범하므로 기산으로 옮으심도 하늘의 뜻이니
야인의 사이에 가서 야인이 침범하므로 덕원으로 옮으심도 하늘의 뜻이니(제4장)

이것이 그 제4장이니 주나라 사실을 그 처음에 쓰고 여기에 대립시켜 조선의 그것
을 적어서 두 나라의 건국되는 기원 사실이 피차 같은 것이 있음을 말하였다고 보
겠다.

물 우횃 대버물 혼 소늑로 티시며 싸호는 한쇼를 두 소내 자브시며
드리에 빠딜 므를 넌즈시 치췌시니 聖人神力을 어느 다 슬브리

말 위에 큰 범을 한 손으로 치시며 싸우는 큰 소를 두 손에 잡으시며
다리에 떨어지는 말을 넌지시 당기시니 성인의 신력을 어디에다 맡으드릴 수 있으리(제87장)

이것은 그 제87장이니 태조께서 성인의 신력이 있음을 노래한 것으로서 중국 사실
과 대립시키지 않고 조선 것만으로 된 것이다. 이밖에 제1장과 같이 전혀 대립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마치 그 형식은 《월인천강지곡》¹¹⁾과도 같은 것이

- 11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월인천강지곡》은 세종 31(1447)년에 왕명에 따라 수양대군이 소현왕
후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석보상절》을 지어 올리자 세종이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여 직접 지은 책이
다. 《월인천강지곡》은 부처가 나서 교화한 자취를 칭송한 노래라는 뜻으로, 상, 중, 하 3권에 500여
수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으며, 《용비어천가》와 아울러 한글로 표기된 한국 최고의 가사이다. 이 책의
표기법에 관하여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을 들어보면, 당시의 맞춤법은 모두 표음의 원칙, 즉 소리나는
대로 적는 원칙에 따랐다. 곧, '사미, 바(食), 머그니(食), 마가(防)처럼 연철 표기로 되었는데, 이 책에
서는 '일이시나, 눈에, 말이시나, 일흠은, 답아, 안아, 안시니이다. 낫과, 콧우흰, 콧비, 맞나며, 깊거
다'처럼 분철된 표기가 많이 나타난다. 다른 문헌이 한자를 앞세우고 그 밑에 한글로 음을 다는 표기

다.

이제 이 《용비어천가》를 그 가치에서 살피건댄 다만 우리 어학 상으로서 이것이 훈민정음 반포보다도 1년 앞서 완성되었다는¹² 그 고이적인 점만으로도 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료로서 귀한 점은 실로 다방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歌’로 되있는 만큼 후세에 이 방면 연구가로서 그것이 한문으로 되어서도 오히려 귀하거든 하물며, 이것이 우리말로 된 최초의 ‘노래’인 점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없는 바이다.

또 역사거나 사화 전설을 논하려는 이도 이 책을 읽으면 그 자료를 풍부히 하는 직접 간접적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 지명을 특히 함경도 방면의 것을 찾으려는 이 책 같이 소상한 것이 없을 것이며, 여진 관계의 여러 가지를 보는 데에도 중요한 책이라고 할 것이다.[미주5] 이밖에 그 당시의 제도에 관한 것이며, 또 예를 들면 구희(毬戲, 제기차기 놀이)같은 설명이라든가 천문이며 음악에 관한 이 한문의 주해같은 것은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과 한문의 힘을 자세히 기르는 참으로 좋은 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세종 문화를 낳은 집현전의 제 문신들의 지식이 총집이라고 할만한 데서 이와 같이 귀한 것이 될 것이다.¹³

법을 채택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책은 “월월인인천천강江之곡曲”처럼 한글을 먼저 쓰고 그 아래 소자로 한자음을 기록한 문헌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도 ㅅ 운미에 표시하던 ‘ㅇ’을 붙이지 않았다. 이는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및 《훈민정음언해》 등과 함께 정음 창제 당시의 국어 연구 자료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월인천강지곡》 원간본은 상권만이 전하다가 1961년 진기홍(陳琪洪)에 의하여 발견되어 3권으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1962년에 통문관과 신구문화사에서 각각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또한 1995년 12월 발견된 《월인석보》 권25에 새로운 《월인천강지곡》의 시 7수가 수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2 《용비어천가》의 한글 가사의 완성 시기는 《세종실록》 권114에 기록에 따르면 한시가 완성된 이후에 “용비시에 가사를 삽입하여(添入龍飛詩)” 언해하도록 명하여 세종 29(1447)년 2월에 완성되었다.

13 방중현, 《일쇄국어학논집》, 민중서관, 1963. 〈용비어천가 강의〉 참조..

제3절 《동국정운》

이 책은 세종대왕께서 신숙주(1417 ~1475), 최항(?~1257), 성삼문(1418~1456), 박팽년(1417~1456), 강희안(1417~1464), 이현로(?~1453), 조섭안, 김운 등에게 명하시어

“세속의 습관을 두루 채집하고 전해 오는 문적을 널리 상고하여, 널리 쓰이는 음(音)에 기본을 두고 옛 음운의 반절법에 맞추어서 자모의 칠음과 청탁과 사성을 근원까지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이 하여 옳은 길로 바로잡게 하셨사온데”¹⁴

이와 같이 시의 고금과 쓰임의 광협을 통하여 정밀하게 고구하여 그 완전을 기하였다고 생각된 것이 이 책이니

“신들은 재주와 학식이 얇고 짧으며 학문이 고루하여 상감의 분부를 옳게 이루지 못하고 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괴롭혔습니다. 이에 옛 사람의 운목을 정하고 자모를 정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합칠 것은 합치고 나눌 것은 나누어 하나를 합하고 하나를 나누거나 하나의 성모를 세우고 하나의 운모를 정함에 있어서 모두 상감의 제가를 얻었으며 또 각각 상고한 근거가 있다. 이에 사성으로 조정하고 91운과 23자모로 기준을 삼은 다음에 어제 훈민정음을 가지고 그 음을 정하였으며, 또 ‘질(質)운’과 ‘물(勿)운’ 같은 운미는 ‘영(影)모(ㄸ)’로 ‘래(來)모(ㄹ)’를 보충하여 속습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잡았으니 옛 습관의 잘못됨이 여기에 이르러 모두 고쳤다. 책이 이루어지자 《동국정운》이라는 이름을 내리셨다.”¹⁵

이와 같이 이들 박학 문신들이 일음일성에 다 각각 분리 고구한 데가 있게 정정되어 완성하였으며 세종대왕께서 이 책을 이름 지어 《동국정운》이라고 하였다.

14 “旁采俗習，博考傳籍，本諸廣用之書，協之古韻之切，字母七音清濁四聲不究其源，委以復乎正。”，《동국정운》 서문.

15 “臣等才識淺短，學問孤陋，奉承未達，每煩指顧。乃因古人編韻定母，可並者並之，可分者分之，一並一分，一聲一韻，皆稟宸斷，而亦各有考據，於是調以四聲，定位九十一韻二十三母，以禦制訓民正音定其韻，又於質勿諸韻，以影補來，因俗歸正，舊習譌謬，至是而悉革矣。書成，賜名曰東國正韻。”，《동국정운》 서문.

이상에서 이 책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하여 저작이 되고 무슨 명칭으로 이것을 부르게 된 것임을 말하였다. 그것은 세종 29(1447)년 9월의 실록에서 신숙주의 봉교서(奉敎序)에 의하여 알게 되었으니 “이달에 《동국정운》이 완성되니 모두 6권인데, 간행하도록 명하였다”¹⁶라고 하고 이 밑에 신숙주의 서문이 계속되었으니 이 서문은 《동국정운》을 이해하는 데는 즉 조선에서 한자음의 통일안을 살피는 데 실로 둘도 없는 귀중한 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아직까지 완질이 이 세상에 출현되지 않고¹⁷ 다만 낙질만 1종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는 이 서문의 귀함은 무엇이라 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책은 우리 훈민정음이 반포된 바로 이듬해에 간행된 것으로서 6권 1질로 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책의 내용 전반을 다 논할 수는 없으므로 몇 가지만 들어보기로 하면 먼저 이 《동국정운》이 단행한 중대한 일은 한자음의 조선적 통일이 그것이다.¹⁸

“이로 말미암아 글자의 획이 잘못되어 ‘어(魚)’와 ‘노(魯)’에 참것이 혼란되고, 성음(聲音)이 문란하여 경과 위가 함께 흐르는지라 가로로는 사성의 세로줄을 잃고 세로로는 칠음의 가로줄에 뒤얽혀서, 날과 씨가 찢이지 못하고 가볍고 무거움이 차례가 뒤바뀌어, 성운(聲韻)의 변한 것이 극도에 이르렀는데, 세속에 선비로 스승된 사람이 이따금 혹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사사로이 자작으로 고쳐서 자체들을 가르치기도 하나, 마음대로 고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 그대로 구습을 따르는 이가 많으니, 만일 크게 바로잡지 아니하면 오래 될수록 더욱 심하여져서 장차 구

16 “是月 東國正韻成 凡六卷 命刊行”, 《세종실록》, 세종 29(1447)년 9월 29일.

17 《동국정운》은 조선 세종 때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왕명으로 편찬하여 1448년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운서로 6권 6책 활자본이다. 신숙주가 쓴 서문만이 전해 오다가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첫째 권과 여섯째 권의 두 책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국보 제71호(간송문고본, 권1, 6)로 지정되었으며,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 1972년 완질이 발견되어 국보 제142호(건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완질) 지정되었다.

18 이승녕 교수(1976:52)는 “훈민정음은 《동국정운》의 이해를 위한 연습장의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자음의 개신을 둘러싸고 문제점이 많으며, 세종의 언어 정책의 진의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가 의심될 것이다”라고 하여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은 “훈민정음의 창제가 《동국정운》보다 선행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정정일, 2002:65), “《동국정운》은 훈민정음 창제의 이론적 바탕을 만든 것이다.”(이동림, 1968), “훈민정음은 《동국정운》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습장적 구실을 했다.”(남성우, 1979), 강규선·황경수(2006:74)에 “《동국정운》을 만드는 것도 한자음 개신책으로 한글을 만든 것으로 예단할 수 있다”라는 논의로 번져갔다.

해낼 수 없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성운이 극도로 혼란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수정을 단행케 되었으니 이것은 이미 세종대왕께서 지나간 26(1444)년 갑자에 최만리 등이 훈민정음의 제작을 반대 상소하였을 때에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을 알며 자모가 몇인지 아느냐? 만일 내가 운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바로 잡겠느냐?”²⁰

이라고 세종께서 꾸짖어 물리친 그 용단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때에 이와 같이 단행된 것이라고 보겠다.²¹

19 “由是字畫訛而魚魯混眞，聲音亂而涇渭同流，橫失四聲之經，縱亂七音之緯，經緯不交，輕重易序，而聲韻之變極矣。世之爲儒師者，往往或知其失，私自改之，以教子弟，然重於擅改，因循舊習者多矣。若不大正之，則愈久愈甚，將有不可救之弊矣.”，《세종실록》，세종 29(1447)년 9월 29일. 이 내용을 고려해 보면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본격적으로 운서 통일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서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논의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20 “且汝等知韻書乎，四聲七音字母有幾乎，若非予正其韻書，伊誰正之…”，세종 26(1444)년 2월 20일.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

21 운서를 편찬할 목적으로 한자음의 성이나 운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시초는 양나라 심약이 《사성보》를 지어 처음으로 사성에 따라 한자의 분류 체계를 세운 것이다. 이 당시에는 한자음을 찾기 위한 운서가 아니라 시문을 짓는 데 필요한 압운을 찾기 위한 실용적인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편운학이라고 할 수 있다. 육조시대에 들어서서 인도로부터 들어온 범어학의 영향을 받고 성운학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성운학적 운서는 이등의 《성류》로 꼽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대개 사성에 따른 분류와 범어학에서 유래된 오음의 분류 방식으로 추정된다. 《절운》이 나타나기 이전 여정의 《집운》，하후해의 《운략》，양후지의 《운략》，주사언의 《음운》，이계철의 《음운》，두대향의 《운략》 등의 운서들이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지역마다 음이 달랐기 때문에 수나라 인수 원(601)년에 여러 출신 지역이 다른 운학자들 8명을 모아 표준음을 만든 운서가 《절운》이었다. 다만 《절운》의 당대 사본 《절운잔본》 5종과 오대시대 간본인 《절운잔권》 약간이 남아 있을 뿐 원간본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절운》을 당나라 시대 손면이 천보 10(751)년에 《당운》으로 개찬하였으나 이 역시 산일되고 없다. 그러나 이 《당운》이 송대에 계승되어 《광운》으로 개찬되었다. 송나라 상부 원(1008)년에 진평년, 구옹 등의 칙명으로 《광운송중수광운》을 인간하였다. 이 《광운》은 판종도 7~8종에 달하는데 그 구성은 5권으로 사성별로 206운으로 분류한 운서로 본자가 29,194자, 해주에 191,692로 된 방대한 운서이다.

여기서 《동국정운》은 23모와 91운으로 된 것을 알 수 있으니 그 23모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 | 아음 | 설음 | 순음 | 치음 | 후음 | 반설음 | 반치음 |
|----|------|------|------|------|------|-----|-----|
| 전칭 | 君(ㄱ) | 斗(ㄷ) | 驚(ㅂ) | 卽(ㅅ) | 挹(ㅈ) | | |
| 차칭 | 快(ㅋ) | 呑(ㅌ) | 漂(ㄴ) | 侵(ㄷ) | 虛(ㅎ) | | |
| 전탁 | 蚪(ㄴ) | 覃(ㄷ) | 步(ㅅ) | 慈(ㅈ) | 洪(ㅎ) | | |

《집운》에서 《광운》으로 이어진 운서로는 송나라 경우 4(1037)년에 편찬한 《예부운략》과 보원 2(1039)년에 편찬한 《집운》이 있는데 이는 모두 《광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절운》이 편찬될 당시 《운략》이라는 운서도 있었고 경덕 4(1007)년에 왕응린과 구옹 등이 편찬한 《옥해》가 있었다. 경덕 5(1008)년에 《절운》을 《대송중수광운》으로 개찬하였다. 송나라 경우 4(1037)년에 정도와 이숙 등이 《광운》을 중수하여 《집운》을 편찬하여 보원 2년에 인간하였다. 송나라 경우 4(1037)년에 편찬한 《예부운략》은 중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중수 개판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운서라고 할 수 있다. 송나라 순우 12(1252)년에 유연이 지은 《임자신간 예부운략》은 206운을 107운으로 뜯고쳐 운서를 간략화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 《임자신간 예부운략》은 황공소에 의해 《고금운회》 편찬으로 이어졌다. 금나라 시대에 음시부가 찬정한 《운부군옥》도 106운으로 되어 있다. 《광운》은 대체로 절운 시대의 반절이나 표음을 그대로 계승했지만 《집운》에서는 그 당대의 북경 관화의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중국 중고시대의 남방음이 반영된 《절운》계통의 운서는 북방음과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북방음을 증시하는 원대 몽고음계 운서인 파스파 문자로 편찬된 《몽고운략》, 지원 6(1269)년에서 대덕 원(1297)년 사이에 주종문(주백안)이 편찬한 《몽고자운》, 이흥도가 편찬한 《몽고운편》, 두백청이 찬한 《하화동음》 등으로 전환되었다. 《몽고운략》은 현전하지 않으나 《몽고자운》은 돈황굴에서 발견되어 현재 대영박물관에 소장(정광, 《몽고자운연구》, 박문사, 2009에서 상세하게 소개함)되어 있다. 특히 《몽고운략》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신숙주의 《사성통고》와 최세진의 《사성통해》에도 인용되었다. 특히 《사성통고》의 속음 가운데 당시 중국 북방음인 몽음이 다량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 한인들에 의해 편찬된 운서로 《중원아음》, 《중원원운》, 《주우언악부음운류편》이 있는데 《절운》계와 달리 일부 북방계 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원나라 시대에는 한음계 운서로는 《중원아음》 계열의 《중원원운》 운서와 몽음 북방계 운서로는 《몽고운략》과 《몽고자운》 등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계열의 운서를 절충한 《예부운략》을 저본으로 한 남송의 황공소가 지원 29(1292)년 이전에 편찬한 《고금운회》는 남방계 운서와 북방계 운서를 절충한 것인데 황공소의 제자인 옹충이 대덕 원(1297)년에 《고금운회》를 증보하여 《고금운회거요》를 편찬하였다. 이 《고금운회거요》는 훈민정음 제작에 영향을 끼쳤던 운서였다.

명나라에 들어서면서 한림학사 송영 등의 칙령을 받아 홍무 7(1374)년 《홍무정운》을 편찬하였다. 한인 중심의 북고적 편운 형식의 《절운》 계열의 운서로 남방음과 북방음의 통일을 위한 명나라 한자음의 표준화를 위한 운서였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음의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홍무정운》을 정음으로 번역한 것이 《홍무정운역훈》이다. 중국의 각종 운서가 시대에 따라 편찬 체계를 달리하였는데 수많은 한자의 음을 일일이 나타내려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등운도이다.

| 불청불탁 | 業(ㅇ) | 那(ㄴ) | 彌(ㅇ) | | 欲(ㅇ) | 間(ㄹ) | 穰(ㄷ) |
|------|------|------|------|------|------|------|------|
| 전청 | | | | 戌(ㅅ) | | | |
| 차청 | | | | 邪(ㅅ) | | | |

| | | | | |
|----|------|-------|-------|-------|
| 1 | 궁 摠平 | :궁 肯上 | ·궁 瓦去 | ·극 亟入 |
| 2 | 굉 觥平 | :굉 礦上 | ·굉 橫去 | ·꺽 號入 |
| 3 | 굉 肱平 | ○ | ○ | ·꺽 國入 |
| 4 | 궁 公平 | :궁 拱上 | ·궁 貢去 | ·꺽 穀入 |
| 5 | 강 江平 | :강 講上 | ·강 絳去 | ·각 覺入 |
| 6 | 궁 弓平 | :뽕 重上 | ·궁 諤去 | ·꺽 菊入 |
| 7 | 경 京平 | :경 景上 | ·경 敬去 | ·꺽 隔入 |
| 8 | 근 根平 | :근 懇上 | ·근 艮去 | ·꺽 訖入 |
| 9 | 곤 昆平 | :곤 袞上 | ·곤 論去 | ·꺽 骨入 |
| 10 | 간 干平 | :간 肝上 | ·간 肝去 | ·꺽 葛入 |
| 11 | 군 君平 | :군 攢上 | ·군 攢去 | ·꺽 屈入 |
| 12 | 견 韃平 | :견 蹇上 | ·견 建去 | ·꺽 許入 |
| 13 | 증 簪平 | :증 痒上 | ·증 譖去 | ·꺽 戡入 |
| 14 | 감 甘平 | :감 感上 | ·감 紺去 | ·꺽 闇入 |
| 15 | 검 筭平 | :검 檢上 | ·검 劍去 | ·꺽 劫入 |
| 16 | 꺽 高平 | :꺽 果上 | ·꺽 誥去 | |
| 17 | 꺽 鳩平 | :꺽 九上 | ·꺽 救去 | |
| 18 | 증 紫平 | :증 紫上 | ·증 恣去 | |
| 19 | 굉 傀平 | :굉 隗上 | ·굉 僧去 | |
| 20 | 꺽 侍平 | :꺽 解上 | ·꺽 蓋去 | |
| 21 | 꺽 媯平 | :꺽 軌上 | ·꺽 媯去 | |
| 22 | 꺽 雞平 | :꺽 啓上 | ·꺽 闕去 | |
| 23 | 꺽 孤平 | :꺽 古上 | ·꺽 顧去 | |
| 24 | 꺽 歌平 | :꺽 訶上 | ·꺽 箇去 | |
| 25 | 꺽 拘平 | :꺽 矩上 | ·꺽 屢去 | |
| 26 | 꺽 居平 | :꺽 舉上 | ·꺽 據去 | |

《동국정운》 91운 26운류

이처럼 서문에 이른바와 같이 91운과 23자모를 정하고 거기에 각각 훈민정음으로 먼저 그 운을 표한 것이 이 91운의 처음에 보인 예와 같이 되었으나 여기서는 전부에 훈민정음의 원자와 그 방점과를 쓰는 것은 표시해 두었다. 또 서문에 이른바 “조이사성(調以四聲, 도표에서 횡으로 평, 상, 거, 입으로 배열함)”이라고 함은 이 91운의 처음에 있는 바와 같이 평, 상, 거, 입의 사성의 순으로 배열해 놓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동국정운》의 내용의 서차(序次, 차례)를 보면 윗 도표와 같

은 것이 된다.²²

맨 처음에 23자모의 순에 의하여 ‘君’을 허두에 쓰고 여기에 달린 91운의 글자를 평, 상, 거, 입의 사성의 순으로 모조리 적고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快’ 23자모의 제2자를 들어서 역시 앞의 것과 같이 순서로 나열하니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이다.

궁 樞平, : 쿡 肯上, : 궁 瓦去, : 극 亟入

여기서 너무 자세한 데 흐르므로 그만에 끝이거니와 이 책은 원본을 보기 어려운 만큼 간혹 이에 언급한 이가 있어도 많이 미상하다고 결론짓는 데 지나지 않으나 그 실은 이 책이 훈민정음과 또는 우리 한자음과의 비교 연구에는 불가결할 귀중한 자료이므로 좀더 세밀한 고증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²³

또 ‘ㄹ’ 받침의 자운에 있어서도 이 책에서는

“이영보래는 속음에서 바른 음으로 되돌아 간 것임(以影補來, 因俗歸正)”

이라고 하여 우리가 천순판까지의 언해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ㄹ’ 종성 글자에는 ‘ㄹ’의 우측에 ‘ㅎ’를 부서함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즉 이 《동국정운》이 정한 규정임을 알 수가 있다.²⁴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 언해본 자음의 표준이 이 《동국정운》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동국정운》은 91운목을 다시 26개의 운류로 분류하였는데 1~7운류는 ‘-ㄱ’류, 8~12운류는 ‘-ㄴ’류, 13~15운류는 ‘-ㄴ’류로 양운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각각 ‘-k’, ‘-l(t)’, ‘-p’ 입성운이 포함되어 있다. 16~26운류는 음성운으로 16~17운은 효(效)섭과 유(流)섭 운미 ‘-w’에 ‘ㅁ’을 종성에 표기하였으며 18~26운은 ‘-ㅇ’운미로 ‘ㅇ’을 종성에 표기하였다.

23 유창균(1979), 《동국정운》, 형설출판사. 참조.

24 해례본에서 한자음 종성 ‘ㄷ’은 습속에 따라 ‘ㄹ’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且半舌之已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如入聲之驚字, 終聲當用ㄷ, 而俗習讀爲ㄹ, 蓋ㄷ變而爲輕也. 若用ㄹ爲驚之終, 則其聲舒緩, 不爲入也.)라 한 것이다. 따라서 ‘驚’의 한자음은 ‘별’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국정운》에서는 진(鎭)섭, 산(山)섭의 입성은 종성자리에 ‘ㄹ’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驚’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별’로 바뀌었다. 《석보상절》, 《훈민정음》 언해본은 동국정운식 표기를 따랐다. 《홍무정운역훈》에서는 ‘별’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그 음이 실제음과 어느 정도로 부합되었던 것인지는 깊은 연구를 한 후가 아니면 단언키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보아 성종 때에 광주 목사 권인(權引)이 개정을 요청한 일이 있던 것으로 비추어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동국정운》의 세론은 달리 기코자 하며 이만에 그친다.[미주8]

제4절 《사성통고》

이 책의 명칭을 분명히 말해준 데는 역시 《사성통해》의 서문이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하도록 명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호양난열(浩穰難閱)하여 보는 이가 이것을 병되이 여기므로 이에 다시 신숙주에게 명하여 여러 글자를 사성으로 고루고 언음을 달게 하여 편찬한 것이 바로 이 《사성통고》이다.

“우리말을 통역하는 데 있어 성운학의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어 우리 글자를 만드시고 바로 뒤에 《홍무정운》을 번역하라고 하셨는데 급기야 번역하고 보니 너무 방대하여 열람하는 데 매우 불편하여 다시 고령 부운군 신숙주에게 명하여 여러 글자를 한 데 모아 성질에 따라 취합하여 책을 지었다. 그 체계는 한글을 맨 앞에 세우고 이것을 사성의 차례에 맞추고 창탁의 이치에 맞게 조화시키고 거기에 자모를 붙여 지은 책인데 《사성통고》라 이름 하도록 명하였다.”²⁵

그런데 이 명칭이 《사성통고》로 되었음은 이 내용의 제자를 배열하는 순서가 사성의 순에 따라 선후를 선정한 것이므로 사성이라 붙게 된 것이다. 이 사성이란 말은 그 유래가 꽤 오랜 것으로 흔히 양나라 심약(沈約, 441~513)²⁶으로부터 있는 것

25 “始究學譯，常先聲韻，創制訓民正音。命譯洪武正韻，又慮其浩穰難閱，而覽者病焉，乃命高靈府院君申叔舟，類釋諸字，會爲一書。冠以諺音，序以四聲，譜之以清濁，系之以字母，賜名曰四聲通考。”，《사성통고》 서.

26 심약(沈約, 441~513)은 자는 휴문, 시호는 은(隱)이며 중국 저장성 우강(武康)에서 태어났다. 그의 음운설은 영명체(永明體)의 성립과 깊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근체시 성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성보》, 《진서》, 《송서》, 《제기》, 《송세문장지》 등 저술이 많았으나 《송서》만 전해지고 있다. 100권이나 되는 문집도 현재는 《한위육조 일백삼가집》에 실린 《심은후집》(2권) 《한위육조명가집》에 수록된 《심

같이 이야기되어오나 그 실은 이보다도 전인 위진 시대에 벌써 있어온 것이라고들 한다. 그것은 《수서경적지(隋書經籍志)》에 보면 “진(晉)나라 때 장량(張諒)이 《사성운략》 28권을 찬하였다(晉有張諒, 選《四聲韻略》, 二十八卷)”라고 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사성의 기원이 벌써 진나라 사람에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고, 또 심약과 동 시대에 혹은 좀 전에 사성에 관한 서적이 있으니 주옹(周顒)의 《사성절운》²⁷, 하후영(夏侯詠)의 《사성운략》, 유선경(劉善經)의 《사성지귀(四聲指歸)》 등이 역시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성이란 것이 양나라 이전에 벌써 있어왔으나 다만 심약이 이와 같이 이것을 문사에 응용하여 후세에 명확히 전한 이는 없다고 하겠으니 이리므로 이 사성은 심약의 저작인 《사성보》에 흔히 그 기원을 두는 것이다. 이리하여 명 태조가 《홍무정운》을 편찬을 명하는 데에도 이것이 영향하는 것이나 그 서에는 “양나라의 심약으로부터 사성의 문란함을 바로잡아 처음으로 평, 상, 거, 입으로 나누어 이를 유보로 나누었는데 대저 남방 오음이 다수이다”²⁸ 라고 하여 심약이 지은 《사성보》는 오음이 많은 것이 결점인 듯이 말은 하면서도 그 범례에는

“오로지 사성을 바로 잡아(唯以四聲爲正)”

라고 하여 평성을 다시 이분하여 상하로 정하는 데 옛 운서를 쫓지 않고 다만 사성으로만 《홍무정운》의 서차로 한다면이니 이것은 역시 사성으로 이것을 조직함을 이리므로 이 《홍무정운》을 본운으로 하여 편찬한 《사성통고》도 역시 이 순서인 사성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고 그 명칭도 여기서 사성이라고 붙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문집(9권)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27 《사성절운》: 주옹(周顒)이 쓴 운서. 주옹은 남조 제(齊)나라 여남 안성 사람으로 송나라 해릉국시랑(海陵國侍郎)으로 관직을 시작하여 촉(蜀)으로 들어가 부주부(府主簿)가 되었다. 후에 제나라에 들어 중서랑(中書郎)으로 옮기고, 국자박사 겸 저작이 되었다. 그가 쓴 책으로는 《삼종론(三宗論)》과 《사성절운》이 있다.

28 “自梁之沈約, 拘以四聲入病, 始分爲平上去入, 號曰類譜, 大抵多吳音也.” 《홍무정운》 서문.

이와 같이 이 조직이 사성의 차례에 의하여 편찬되었으므로 《사성통해》 서에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성으로 차례를 세워(序以四聲)”라고 한 것이오, 이에 따라서 그 명칭도 《사성통고》라고 한 것이다. 책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기록상으로부터 보면 같은 이름의 책을 두 다른 사람이 지은 것 같이 되었으니 그 처음 하나는 《홍무정운역훈》에서

“또 세종께서 정하신 《사성통고》를 따로 첫머리에 붙이고 다시 범례를 실어서 기준을 삼도록 하였다.”²⁹

라고 한 것이니 이 기록만으로 본다면 《사성통고》는 세종대왕께서 저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에서 명칭을 말할 때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최세진은 그 저서인 《사성통해》의 서에 “고령 부원군 신숙주에게 명하시어(命高靈府院君申叔舟)”라고 하였으니 이 기록만으로 본다면 신숙주 단독으로 편찬한 책인데 세종대왕께서 명찬으로 된 것인만큼 사명(賜名, 이름을 내려)하여 《사성통고》라고 한 것 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 저작자를 누구로 보는 것이 옳을까? 또 세종대왕께서 저작한 《사성통고》와 신숙주의 《사성통고》가 각각 다른 것으로 두 종류가 있었던가? 문제를 풀기 위하여 먼저 후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즉, 세종대왕과 신숙주의 저작으로 동명의 서적이 이중으로서 그 시대에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하면 그것은 생각컨대 불가능한 일이오, 단연 없었을 것이라고 믿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정동유(1744~1808)는 그 저작인 《주영편》 권2에 《사성통고》를 세종이 원작이 있고 또 신숙주가 지은 것도 있어서 모두 2본이 있는 것처럼 논정하였다.

“최세진은 중종 대 사람이다. 최가 《사성통고》에 대하여 그 글자의 뜻을 풀이하여 《사성통해》라고 하고 스스로 서문을 써서 말하기를 세종대왕께서 고령 부원군 신숙주에게 명하여 한 책을 짓게 하고 책 이름을 《사성통고》하고 하였다고 하였다. 세종 때에 신공이 어찌 고령이라는 호가 있

29 “且以世宗所定四聲通攷, 別附之頭面 復著凡例, 爲之指南.”, 《홍무정운역훈》 서문.

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미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대체로 세종이 훈민정음을 지은 뒤에 정음의 자모로 여러 글자를 유취하여 사성의 차례로 배열하고 이름을 《사성통고》라고 하였다. 이것은 운서에 불과한 것이다. 이 책은 본래부터 세종이 제출한 것으로서 그 글은 곧 정음으로 쓴 것이다.³⁰⁾

이와 같이 2종 본이 있는 것으로 정동유는 믿고 계속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형편에 이를 수는 없고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세종대왕의 원저를 신숙주로 하여금 증보하도록 명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운서라고 하여 세종대왕께서 친제 못할 경력이 아님은 여러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는지라, 이것을 여러 운서의 편찬 형편에 미루어 보면 이 《사성통고》는 세종대왕이거나 신숙주거나 그 어느 한 사람의 단독 저작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이 생각된다. 이 책의 서문을 권두에 붙여 출판된 《홍무정운역훈》부터도 신숙주 외에 성삼문 등 여러 사람이 합의에서 나온 것이며, 이 《사성통고》도 역시 같은 방법에서 찬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나는 위에서 기술한 두 기록에 나타난 이 책의 저작자를 다 옳게 보아 좋은 줄로 안다. 즉 ‘세종 소정’으로 볼 수도 있고 신숙주 등의 편찬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가 한다. 만일 한 사람의 명의로 돌리고자 할진댄 차라리 세종대왕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 순서일 듯이 생각되나니 신숙주 자신이 쓴 이 서문에 자기 단독 편찬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일은 아무래도 못할 일일 줄로 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성통고》의 저작자는 신숙주, 성삼문 등 여러 운학자에게 세종이 명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을 일이다. 더군다나 《홍무정운역훈》이 단종 을해(1455)년에야 그 서를 쓰게 되므로 이것은 세종 때 된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사성통고》 범례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찾아보면 겨우 《훈민정음》과 《홍

30 “崔卽中廟時人也。崔就四聲通攷，解其字義，爲四聲通解，而其爲自序言，世宗大王命高靈府院君申叔舟爲一書，賜名四聲通攷。夫世宗時，申公安得有高靈之號乎，不覺其繆矣。蓋世宗御製訓民正音後，以正音之字母，類集諸字，序以四聲，名之曰四聲通攷，此不過韻書也。此固世宗所製，而其文即正音之文也。若崔世珍所見四聲通攷，卽申高靈所述而非正音之文也。” 정동유의 《주영편》 하.

무정운》과 《운회》와 《몽고운략》³¹의 4종이 있을 뿐이나 이하 간단히 대조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은 《훈민정음》 원본(해례본)의 예의에도 설명되지 않은 것이 이 통고에서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처음에 특히 치두음과 정치음과의 두 계열의 음을 새로 제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 치두, 정치의 두 음에 관한 것은 다 해당 조항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려니와 이 사실이 명백해지므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있으니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또는 《세종실록》의 《훈민정음》(예의)에는 이 치두, 정치에 관한 조목이 모두 들어 있지 않은데, 선조 1(1568)년판인 《월인석보》의 권두에 붙어있는 〈세종어제훈민정음〉과 그밖에 두어 종류로 전해지는 《훈민정음》 언해본에는 확실히 이 사실의 조문이 들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의문의 제목이었던 것이다. 즉,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할만한 데는 없는 사실이 그 언해본에는 들어있으니 이것이 무슨 이유가 그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성통고》의 범례에

“1. 무릇 처음이란 치두는 혀를 들어 이에 닿음으로서 그 소리가 얇고 정치는 혀를 말아서 잇몸에 닿음으로써 그 소리가 깊으니 우리의 잇소리 ㅅ, ㅈ, ㅊ는 치두와 정치의 중간에 있다. 훈민정음에는 치두와 정치의 구별이 없으므로 이제 치두에는 ㅅ, ㅈ, ㅊ를 만들고 정치에는 ㅅ, ㅈ, ㅊ를 만들어 구별한다.”³²

라고 하여 훈민정음에는 근본 이 사실이 없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이 기록으로 인하여 《훈민정음》 언해본이 《훈민정음》 해례본보다는 물론이요, 이 통고보다도 후에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언해본을 가지고서 《훈민정음》의 원본이라고 한 것 같은 일은 실로 우스운 일이 되고 적어도 이 언해본은 세종 30(1450), 경오년 이내에 되었다고 단언키는 매우 어렵게 되어버린다. 따라서 《훈

31 유창균(1974), 《몽고운략과 사성통고 연구》, 형설출판사.

32 “一, 凡齒音, 齒頭則舉舌點齒, 故其聲淺, 整齒則卷舌點腭, 故其聲深, 我國齒聲ㅅㅈㅊ在齒頭整齒之間. 於訓民正音, 無齒頭整齒之別, 今以齒頭爲ㅅㅈㅊ, 以整齒爲ㅅㅈㅊ, 以別之.”, 《사성통고》범례.

민정음》해례본에 이 조목이 빠진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지요 조금도 의심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음의 치두와 청치와의 두 음을 우리 음으로 옮겨 쓸 때에 필요하여 그 기호를 새로 제정한 것이니 우리 음만을 논할 때에는 이것이 소용없으므로 훈민정음에는 없었으나 《사성통고》와 같이 운서의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책에는 이것에 들어맞는 새로운 문자가 없을 수 없는 터이다. 그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 더 통고 범례 중에 훈민정음을 인용한 것은 이렇하다.

"대저 우리의 음은 가볍고 얇은데 중국의 음은 무겁고 깊다. 이제 훈민정음은 우리 음에서 나온 지라 만약 한음에 쓰려면 반드시 변통이 있어야 애체(礙滯)됨이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중성에서 ㅏ, ㅑ, ㅓ, ㅕ 장구(張口)의 글자는 초성을 내던 입이 번치 아니하고 ㄱ, ㅋ, ㆁ, ㆅ 축구(縮口)의 글자는 초성을 내던 혀가 번치 아니하는 것이라. 중성의 ㅏ가 되는 자는 ㅏ, ㆍ의 중간과 같이 읽고 ㅑ가 되는 자는 ㅑ, ㆍ의 중간과 같이 읽고 ㅓ는 ㅓ, ㅡ의 중간, ㅕ는 ㅕ, ㅡ의 중간, ㄱ는 ㄱ, ㆍ의 중간, ㅋ는 ㅋ, ㆍ의 중간, ㆁ는 ㆁ, ㅡ의 중간, ㆅ는 ㆅ, ㅡ의 중간, ㅗ는 ㅗ, ㅡ의 중간, ㅛ는 ㅛ, ㅡ의 중간, ㅜ는 ㅜ, ㅡ의 중간, ㅠ는 ㅠ, ㅡ의 중간, ㅡ는 ㅡ, ㅡ의 중간, ㅡ는 ㅡ, ㆍ의 중간, ㅣ는 ㅣ, ㅡ의 중간이라야 거의 중국음에 맞다. 지금 중성이 변한 것은 운마다 같은 중성 첫 자 아래 논석한다."³³

라고 하여 한음으로 발음하는 데는 훈민정음의 기록이 있는 문자만으로 부족한 것이 위에서 기술한 치음뿐이 아니고 중성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음과 다르니 이것이 다만 부분적이 아니고 양국 음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전반을 새 기호로써 나타낼 수는 없으니 한음을 발음할 때는 대개 우리 국음보다 좀 ‘무거우며 깊은(重而深)’ 음을 발음하는 것이 그 한음에 맞는다는 것이다. 즉, 전기 범례는 간단히 훈민정음의 치음자를 조금만 변형

33 “一、大抵本國之音輕而淺，中國之音重而深，今訓民正音出於本國之音，若用於漢音，則必變而通之，乃得無礙，如中聲トトトト張口之字，則初聲所發之口不變，ㄷㄱㄴ縮口之字，則初聲所發之舌不變，故中聲爲ト之字，則讀如ト・之間，爲ト之字則讀如ト・之間，ト則ト・之間，ト則ト・之間，ㄷ則ㄷ・之間，ㄱ則ㄱ・之間，ㄴ則ㄴ・之間，ㄷ則ㄷ・之間，ㄱ則ㄱ・之間，ㄴ則ㄴ・之間，ㄷ則ㄷ・之間，ㄱ則ㄱ・之間，ㄴ則ㄴ・之間，然後庶合中國之音矣。今中聲變者，逐韻中聲首字之下，論釋之。”(《서설통고》 법례)

하여 좌별(좌장)을 혹 우별(우장)을 길게 표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새로 제자하고 이 범례의 문제는 간단히 할 수 없으므로 발음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기록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성통고》 범례에 훈민정음을 인용한 것에서 우리는 첫째로 《사성통고》는 훈민정음보다 후에 제작되었다는 것이요, 둘째로 《사성통고》는 한자음을 주로 하여 한음을 논하는 데서 우리 음과 대조한 것이요, 훈민정음은 우리 어음을 주로 제작된 것임을 밝혀주는 것이 되고, 셋째로 《훈민정음》 언해본에 치두음과 정치음에 관한 조목이 들어 있는 것은 이것이 《사성통고》의 발표가 있는 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통고에서 우리 음 또는 한음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고구하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이 두 음을 비교해가며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종후의 한자음의 영향이 여기에서 클 것이다.

이상에서 다만 이 《사성통고》의 명칭과 그 저작자와 또 훈민정음의 인용 관계를 간단히 말하는 데 그쳤으나 이 《사성통해》에 붙은 이 《사성통고》의 범례는 모두 10개 조목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던져준 문제는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그것을 일일이 논거하지는 않거니와 또 순경성(唇經聲) 한자음의 종성으로의 ‘ㅇ’ 또는 ‘ㅇ’와 ‘ㅎ’와의 구별, 방점 등을 말한 것이 있으니 그 모두가 다 중요한 자료이다.

아직까지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문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사성통고》와 《홍무정운역훈》이 있다. 《홍무정운역훈》³⁴만 나오면 그 권두에 붙은 《사성통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나 아직까지 이 두 가지의 출현된 것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 《사성통고》는 중요한 우리의 문헌이므로 달리 그 정체를 분명히 찾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만으로 그친다.³⁵[미주10]

34 정연찬(1983), 《홍무정운역훈의 연구》, 일조각. 박병채(1971), 《홍무정운역훈의 신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35 강신항(1973), 《사성통해연구》, 신아사.

제5절 《월인석보》

훈민정음 반포 후에 맨 처음으로 정음을 가지고 번역된 불경이 이것이니 세종 어제의 《월인천강지곡》과 세종 찬술의 《석보상절》³⁶⁾과를 합친 것이 이 《월인석보》³⁷⁾

36 《석보상절(釋譜詳節)》: 조선 세종 때 수양대군이 왕명으로 석가의 일대기를 찬술한 불경언해서로 세종 28(1446)년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가 소천하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왕명으로 수양대군에게 석가의 전기를 엮게 하였다. 《석가보》, 《법화경》, 《지장경》, 《아미타경》, 《약사경》 등에서 뽑아 모은 글을 한글로 옮긴 책이다. 세종 29(1447)년에 완성한 것을 세종 31(1449)년에 간행하였다. 이 책은 조선 전기의 국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불경 언해서(諺解書)와는 달리 문장이 매우 유려한 산문체로 당시 국문학을 대표하는 유일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책에는 한문 원문이 없고 훈민정음으로 된 산문체는 언해문과 달리 구어체로 되어 있다. ‘꽃바리, 변조리딘, 씨짓, 모퉁’ 등 희귀한 어휘도 많이 나타난다. 현재 전하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권6, 9, 13, 19의 초간본 4책(보물 523),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권23, 24의 초간본 2책, 호암미술관 소장의 명종 15(1560)년 복각본 권11, 1979년 천병식 교수가 발견한 명종 15(1561)년 복각된 중간본 권3 등이 있다. 권6, 9, 13, 19는 1955~1957년에 한글학회에서 《한글》 통권 111~121호의 부록으로 15회에 걸쳐 영인하여 실었고, 권11도 1959년에 《어문학자료총간》 제1집으로 영인, 간행하였다. 《석보상절》은 호암미술관(보물 제523호),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모산 심재완 교수, 아주대학교 천병식 교수 소장본이 전해 온다.

37 《월인석보(月印釋譜)》: 세조 5(1459)년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편하여 총 25권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는데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삼아 먼저 제시하고 동일한 내용의 《석보상절》을 주석처럼 뒤에 덧붙였으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상당한 개고를 거쳤기 때문에 당시 표기법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세조 3(1457)년에 왕세자였던 도원군(桃源君)이 죽자 임금은 이를 애통히 여겨 부왕과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2년 동안에 걸쳐 중보, 수정하여 간행하였다. 세조의 명으로 당시 편찬에 종사한 사람은 신미(信眉), 수미(守眉), 설준(雪駿), 홍준(弘濬), 효운(曉雲), 지해(智海), 해초(海超), 사지(斯智), 학열(學悅), 학조(學祖) 등의 고승과 유학자인 김수온(金守溫) 등 11명이다. 《월인석보》 편찬은 세종 말엽에서 세조 초엽까지 양대에 걸친 약 13년 동안에 이룩된 사업으로, 석가 일대기의 결정판일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제일 먼저 나온 불경언해서이다. 《월인석보》에는 ‘구세디르(震吼, 4:11)’, ‘넙조빅(廣狹, 15:78)’ 등 희귀 어휘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월인석보(月印釋譜)》 제1권 모두에 〈세종어제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 있어 〈훈민정음〉 언해본의 이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본이 완전히 전하지 않아 당초 몇 권으로 되어 있었는지 명확하지 못하나, 30권 이내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전하는 것은 원간본 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3, 24권과 중간본 및 복각본 권1, 2, 4, 7, 8, 21, 22, 23권인이 있다. 김동소(2002:31)에 따르면 《월인석보》에 나타나는 내용의 검토를 통해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관계는 도표와 같다.

| 권수 | 간행 | 장수 | 바탕 책 | 석보상절 | 월인천강지곡 | 비고 |
|----|----|-----|----------|------|--------|----|
| 권1 | 초간 | 52장 | 석가보 권1 등 | | 1-11 | |
| 권2 | 초간 | 79장 | 석가보 권1 등 | | 12-29 | |

인 것이다.

《석보상절》은 세조가 수양대군으로 있을 시절에 세종대왕께서 소헌왕후의 추천을 인하여 석보를 언해할 것을 명하므로 수양대군은 여러 불경을 채택하여서 이 책을 만들고 그것을 정음으로 언해하니 그때 세종 19(1447)년 7월 25일에 수양대군이 서를 지었다.

《월인천강지곡》은 수양대군이 지은 《석보상절》을 세종대왕이 보시고 그 찬송을 지

| | | | | | | |
|-----|----|------|------------------------------------|--------|-------------------------------|----------------|
| | | | 석가보 권1, 釋迦氏譜 | 권3 | 30-66 | |
| 권4 | 복각 | 66장 | 석가보 권3 등 (석가보 권1·2·3) | 권6 | 67-93 (145-175) | 67장부터 낙장 |
| 권7 | 초간 | 80장 | 석가보 권2 등 佛說觀佛三昧海經 권7 불설 아미타경 | | 177-181 182-199 200-211 | |
| 권8 | 초간 | 104장 | 佛說觀無量壽經 安樂國太子經 등 | | 212-219 220-250 | |
| 권9 | 초간 | 66장 | 樂師瑞璃光如來本願功德經 | 권9 | 251-260 | 기260 외 낙장 |
| 권10 | 초간 | 122장 | 석가보 권2 등 | | 261-271 | 123장부터 낙장 |
| 권11 | 초간 | 130장 | 법화경 권1, 地藏本願經 | 권13 | 272-275 | |
| 권12 | 초간 | 51장 | 법화경 권2 | | 276-278 | |
| 권13 | 초간 | 74장 | 법화경 권1·2·3 | | 279-282 | 기279·280 낙장 |
| 권14 | 초간 | 81장 | 법화경 권2 | | 283-293 | 82장부터 낙장 |
| 권15 | 초간 | 87장 | 법화경 권4 | | 294-302 | |
| 권17 | 초간 | 93장 | 법화경 권6·7 | 권19 | 310-317 | |
| 권18 | 초간 | 87장 | 법화경 권7 | 권19·20 | 318-324 | |
| 권19 | 초간 | 125장 | 법화경 권7 | 권21 | 325-340 | 50-56장 낙장 |
| 권20 | 초간 | 177장 | 釋氏稽古略 등 | | 341-411 | 107-110장 등 낙장 |
| 권21 | 초간 | 222장 | 석가보 권7·8 | 권11 | 412-429 | |
| 권22 | 초간 | 109장 | 大方便佛報恩經 | | 445-494 | |
| 권23 | 초간 | 106장 | 석가보 권2·4 등 | 권23·24 | 497-524 | 1-63장 낙장 |
| 권25 | 초간 | 144장 | 석가보 권3·5 | 권24 | 577-583 | 1·2, 85장 이하 낙장 |

중간본으로는 광해군 4(1612)년, 효종 10(1659)년, 영조 41(1765)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재 전하는 것은 원간본과 중간본을 합하여 1, 2, 7, 8, 9, 10, 13, 14, 17, 18, 21, 22권 등 모두 12권인데, 이 중에서 권7(최남선 소장본), 권8(대동출판사 소장본), 권9, 10(동국대학교 소장본), 권17, 18(강원도 수타사 소장본)이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에서 《국고총간》 제5, 6, 7로 1956년에 영인 간행되었고, 그 밖에 국어학회편 《고전선총》에 권1이 영인되어 있다. 권1, 2는 경상북도 영주의 회암사에 소장되었으나 소실되었고, 권13, 14, 23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권21은 초간본 외에 경상북도 안동의 경흥사판과 충청남도 논산의 쌍계사판 등 2종이 있고, 권23은 낙질하여 63장 이후만 전한다. 완질이 24권으로 알려졌으나, 1995년 12월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에서 제25권이 발견되었다.

은 것이니 《월인석보》 서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다.

“옛 병인년에 소헌왕후가 영양을 일찍 버리심에(돌아가심) 서러워 슬퍼함에 있어 할 바를 알지 못했더니 세종이 나더러 말씀하시기를 추천이 경을 옮겨 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옮김이 마땅하다고 하심에 내가 인자한 분부를 받들어 더욱 생각함을 넓혀 승우와 도선 두 율사가 계보를 만든 것이 있어 얻어 보고 자세함과 줄임이 같지 아니하여 두 책을 합하여 《석보상절》을 이루고 정음으로 번역하여 사람마다 쉽게 익히도록 올리니 상께서 돌보아 주시고 곧 기리는 노래를 지으니 이름을 《월인천강지곡》이라 하시니”³⁸

라고 한 것을 보아 《월인천강지곡》은 세종대왕의 어제임이 틀림없다.

다음으로 《월인석보》는 세조가 단종을 노산대군으로 폐위하고 자신이 왕위에 즉위하였을 때에 “상이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해 그리고 죽은 아이의 왕생을 위해(上爲父母仙駕 兼爲亡兒 速乘慧云)”이라고 그 서에 썼던 만큼 위로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위하고 또 겸하여 그 맏아들이 일찍 요사한 추천을 위하여 이 책을 편찬한 것이 그 서를 쓴 태인 세조 4(1459)년 7월 7일이다. 이 책을 《월인석보》라고 칭함은 《월인천강지곡》의 머리글자 2자와 《석보상절》의 머리글자 2자를 각각 따서 합한 데 연유한 듯하다. 그것은 내용에서도 이 두 책을 합한 것이므로 그 명칭도 그렇게 합작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줄로 안다.

이 책의 완질된 총 권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판명된 것으로 미루어서 25권 정도인 듯하나 그 자세한 것은 미상하며 현존된 것도 합하여 1, 2, 6, 7, 8, 9, 10, 13, 14, 19, 21, 23 등으로 낙질로 전하여 그나마 전부 차지는 못하는 형편이니 우리는 이 세조 4(1459)년의 고판이 그대로 전부 나타나 주기를 바라서 마지 않는 바이다. 이제 《월인천강지곡》의 (기1)을 옮겨보면 이리하다.

“외巍외巍·석釋가迦·嚩佛 무無·량量무無변邊·공功·득德·을·겁劫·겁劫에 어·느·다·술·벗·리”

38 “昔在丙寅，昭憲王后，奄棄榮養，痛言在疚，罔知攸措，世宗謂予，薦拔無如轉經，汝宜撰釋譯譜，予受慈命，益命覃思，得見祐直二律師，各有編譜，而詳略不同，爰合兩書，撰成釋譯譜詳節，就譯以正音，俾人人易曉，乃進，賜覽，輯製讀誦，命日月印千江之曲”，《월인석보》 서.

“높고 큰 석가모니 부처의 그지 없고 가이 없는 공덕을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어찌 능히 다 말할 수 있으리오.”

그 주(註)로 잘게 써서

“巍巍巍巍는 높고 클·씩·라 邊변은 : ㄴ시·라”

이것을 다시 《석보상절》에 해설한 것 같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첫째로, 현존된 《석보상절》의 판본에는 훈민정음의 소위 탄(吞)자 중성인 ‘·’가 탄환같이 원형의 점으로 사용된 것이니 이것은 훈민정음을 제정하는 그 제자 원리에 들어맞는 표기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좋은 그 표본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세조 때의 간경도감³⁹판의 불경 언해가 거의 그러하거나와 연대로 보아서 최초인 이 책은 훈민정음을 그 근본 원리대로 찾아 쓰기에 치밀히 한 듯한 점이 한 두 가지 보이니 예를 들면 순경음의 ‘ㅂ’를 우리말에 사용한 것 같은 일은 다른 책에서는 《용비어천가》 외에 볼 수 없는 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우리말의 고형을 엿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셋째로, 이 책의 제1권의 권두에 훈민정음의 언해를 모든 언해의 표본으로 삼아 붙였으니 이것이 또한 훈민정음 언해의 고형으로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석보》와 합하여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치된 이론으로 쓴 3대 귀중 문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이 점을 논함은 선조 1(1568)년에 개간한 회방사 판본에 의함인 만큼 한 추측에 불과하나 이 3대서의 원간본이 증거를 치밀히 한 채로 출현되면 실로 이보다 더 귀한 문헌이 없을 것이다.

넷째로, 고어의 수가 많은 것과 아울러서 한자를 따로 우리말로 해석한 것이 있으

39 조선 세조 때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던 기관으로, 세조 7(1461)년 왕명으로 설치되어 성종 2(1471)년까지 존속하였다.

니 예를 들면 이러하다.

“夫·봉·는·사·오·이·오·妻·챙·는·가·사·라”

여기서 우리는 많은 고어에 대한 지식을 제일 오랜 것으로 분명히 할 수가 있으니 이 점에서 이 책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귀한 것이다.

다섯째로, 이 책이 우리의 문학사 상에 빼지 못할 위치를 가질 것이니 《용비어천가》와 합하여 가(歌)와 곡(曲)의 (체제가 이 두 책이 같다) 우리말로 된 그 최초의 재료인 점이 귀하다.

여섯째로, 한자음을 우리 정음으로 현음(縣音, 음을 단)한 데 있어서 그 글자수도 많거니와 그 실용인 최초의 부류에 속한 점에서 실로 귀중한 자료이다. 그 당시 즉 세종 25(1443)년 그 안팎으로 올려서 추상한다면 그때의 한자음이 아마 생각컨대 통일성이 없고 아직 아무 정음의 기준이 서지 않은 채로 있었을 것이라라고 추측된다. 여기서 비로소 세종대왕께서는 《동국정운》을 제작토록 명찬하셨으니 이 《동국정운》은 실로 한자의 우리말 음의 최초의 통일안일 것이다. 따라서 이 《월인석보》는 정음 보급에 그 제1차적인 공을 차지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절 언해와 간경도감

먼저 언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언(諺)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대하여 조선의 의미를 의미하여 쓴 것임은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이어니와 그러므로 중국의 문자 즉 한문에 관하여는 이것을 그대로 문자이니 더러는 진서라고 까지 하는 데 대하여서 조선의 문자는 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글자로 한문에 토를 달면 이것은 언토(諺吐)라고 하고 우리 글자로 한문을 해석하면 이것을 언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즉 한문을 해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의 글자를 우리 글자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여 다 거기에 언해라는 명칭이 붙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만주어나 몽고어를 우리 글자로 해석하여 그 모양이 언해 형식과 같게 된 것이 있지마는

이런 것에는 ‘언해’란 말이 붙지 않았다. 하나도 붙은 것이 없다. 그러면 언해라는 것은 다만 중국어 문(文)을 우리 글자로 해석할 때에 한해서만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중국 대 조선이란 국제 관계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겠다.

다음으로 그러면 해석이라는 것이 생기는는 어느 때쯤부터 생기었을까? 이것은 이 ‘諺’자의 해석되는 의미에 따라서 전후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언(諺)’을 다만 중국어에 대한 조선어라고 하면 한자를 우리말로 풀이(解)한 것 즉 그것이 되니 만일 이렇게 보면 기록상으로 보아 신라 때 설총이 “방언으로 구경의 독음을 달아 후생들을 가르쳤다(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라고 한 것이 있으니 이 방언이 바로 우리말이요, 그 구경이 즉 한문이니 이 형식의 차이는 지금 불확실하거니와 이것이 곧 언해의 시작을 지은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언해의 기원이라고 보는 것은 한문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즉 신라 때부터 있었으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의 여하가 어떠했는가가 문제될 것이다.

다음 하나는 문자 대 문자 즉 한자에 대한 훈민정음 문자로 대립시켜보는 것이니 이것은 즉 한문을 훈민정음으로도 해석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면 훈민정음이 조선 세종 25년에 창제되었으니 이 경우의 언해라는 것은 우리 문자인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이라 지금으로부터 500년을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언해’라고 기록된 것도 보지 못하겠고 지금에 부르는 것도 없는 바이니 그것은 일부러 문제 삼을 것이 없다. 다만 이 후자가 언해라고 쓰기도 하였고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기도 하는 바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언해라는 말의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한 것인가 한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제 관계로 보거나 또 문자의 대립 상으로 보거나 언해의 기원은 세종 25(1443)년 이후에 시작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언해를 왜 하였는가? 그 이유로는 한문을 조선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알기 쉬운 방법을 쓴 것이라고도 할 것이지만은 또 훈민정음을 널리 보급하는 한 방편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여기

서 또 언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론 불경언해, 경서언해 등 그 수가 많다고 할 수 있으니 이런 이유 이런 종류들을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그 유래며 그 성쇠를 일일이 기술할 자리도 아니므로 여기에 줄이고 다음으로 불경언해와 간경도감과의 관계를 좀 더 찾아볼까 한다.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여 세조께서 불경을 간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간경도감에 대해서는 《세조실록》 권 25~21에

“처음으로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도제조, 제조, 정사, 부사, 판관을 두었다.”⁴⁰

이라고 하여 세조 6(1461)년에 처음 설치된 것이니 여기에도 계양군 증, 윤사로(1423~1463), 황수신(1407~1467), 이극기(?~1489), 성임(1421~1484), 한계희(1423~1482), 노사진(1427~1498), 강희맹(1424~1483), 김수온(1410~1481) 등 그 외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다. 세조께서는 자신이 불교를 깊이 신봉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겠거니와 그밖에 단종을 즉 숙부로서 그 조카를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것, 또 이 순탄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성삼문 등의 이 모든 일이 아무리 호용하고 활달한 성격이라도 그 심중에 착잡한 감정이 누른다고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많은 불경을 언해하고 출판함으로써 그 자신의 심적 내고를 좀 위안해 볼까 한 데서 이런 것의 기인이 있거나 없을 까도 생각된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경의 언해로는 《능엄경》 10권, 《법화경》 7권, 《금강경》 2권, 《선종영가집》 2권, 《아미타경》 1권, 《원각경》 10권 등 언해 사상 중요한 시기를 지었다고 하겠으니 간경도감 판의 불경언해는 실로 귀중한 문헌들이다.[미주7] 언해로서 훈민정음을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것보다도 불경언해가 그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교가 점차 융성하는 시기이지만 이것은 유자들의 일부가 훈민정음의 제작을 반대하고 또 언문이라고 하여 홀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유교의 경전이 언해보다도 먼저 나타난 것

40 “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 提調, 正使, 副使, 判官”, 《세조실록》 권 25~21.

이다. 이 간경도감 판의 불경언해는 훈민정음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 그대로 생존했던 때이니만큼 또 세조 같은 이의 감독이 있는 만큼 그 체재에 있어서 정연한 형식을 갖추었고 그 양에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불경이 이루어진 만큼 완전히 언해의 간경도감 시대를 지어서 귀중한 재료를 오늘에까지 전해 준 것이다. 생각컨대 세조의 불경언해 사업은 다만 어학상 문제뿐만이 아니고 실로 조선 문화 사상에 던진 공이 결코 적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세조의 업적 중에 한 큰 활동이었다 보겠다.

제7절 《악학궤범》

악학의 유래를 《악학궤범》⁴¹ 서에 의하여 찾아보면 세종대왕께서는 종전에 맞지 않던 율려(律呂)를 정하게 하였으니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세종대왕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음률에 정통하였다. 과거의 조속한 습관을 씻으려 하였더니, 큰 기장이 해주에서 산출되고 채석(彩石)이 남양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하늘이 화평한 기운을 우리나라에 퍼서 큰 일을 하실 임금에게 내려주시어 새로운 제작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장(黍)를 가지고 음률의 계정(階程)을 측정하고 돌로 경을 만들고, 또 악강(樂腔)을 만들고 악에 인하여 악보를 만들어서 음정의 장단을 살피었다. 당시에 음악을 관장한 사람으로는 박연(朴堧)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박연이 알고 있는 지식은 겉껍질뿐이니 어찌 임금께서 생각하는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었겠는가. 찬조하였음에 지나지 않았을 따름이었다.”⁴²

이와 같이 을사(1425)년에 해주에 알맹이가 큰 기장을 생산하고, 병오(1426)년에 남양에 채석을 생산하여 율(律)을 정하고 성(聲)을 짓게 되니 이때에 난계 박연(朴堧, 1378~1458)이 악가에 정밀하여 소위 용마와 장수가 일시에 그때를 같이 함이

41 《악학궤범》은 성종 24(1493)년 왕명에 따라 제작된 악전(樂典)으로, 가사가 한글로 실려 있으며 궁중 음악은 물론 당악, 향악에 관한 이론 및 제도, 법식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42 “世宗大王, 以天縱之聖, 精於音律 欲洗從前之陋習, 適巨黍生於海州, 彩石產於南陽, 是天數和氣於東方, 授大有爲之, 君以新制作也. 於是取黍定律, 取石作磬, 又作樂腔, 因腔作譜, 以審節奏之, 疾舒, 當時掌樂者, 只朴堧一人堧壤之所得土苴耳, 豈有裨於聖算之萬一, 不過贊助而已”, 《속동문선》 제16권, 《악학궤범》 서.

라 할 수 있다.⁴³ 더욱이 세종대왕과 같이 음률에 정통한 이가 이 박난계(朴蘭溪, 1378~1458)에게 명하여 조선의 정악의 근본을 세우고자 한 것이니 진실로 이 악학도 그 시작이 이때에 흥기한 것이다.

그 후 세조께서도 가곡을 많이 제작하여서 선조의 유지를 따라 이어 왔으나 이것을 찬조하는 악율을 전공하는 신하가 없는 것이 가탄(可嘆)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전대의 선지를 이어서 이 악학을 발흥하게 하였으니

“마침내 무령군 유자광과 신 현에게 명하시고, 주부 신말평, 전악인 신 박근, 신 김복근 등에게 명을 내리어 다시 교정을 더하여 먼저 음률을 만든 원리를 말하고 다음에 음률을 사용하는 법을 말하였으니, 대개 악기와 부속품의 형제와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과 춤추는 것과 그 대열과 전진하며 후퇴하는 절차가 구비하여 기록되지 않음이 없다. 책이 완성되어 《악학궤범》이라고 이름지었다.”⁴⁴

43 황종관: 조화된 음악을 얻으려면, 악기가 바른 성음(聲音)을 낼 수 있어야 하고, 악기가 바른 성음을 낼 수 있도록 조율되려면, 율관이 필수적이다. 세종대왕이 아악정비에 뜻을 두고 악기제작을 명하자, 박연(朴堧, 1378~1458)은 먼저 해주의 거서(黍:기장)로 고설(古說)에 의거하여 황종율관을 제작했으나, 그 소리가 중국의 종(鐘), 경(磬)보다 약간 높으므로, 세종 9(1427)년 4월경 기장 모양을 따라 밀랍을 녹여 조금 큰 난알을 만들어 황종율관을 만들었다. 1난알을 1분으로 삼고 10난알을 1촌으로 하여, 9촌을 황종 길이로 삼고, 원경(圓經)은 3분(分) 4리(釐) 6호(毫)의 법을 취하여, 해죽(海竹)을 잘라 만들고, 밀랍으로 만든 기장 난알 1천 2백 개를 관(管) 속에 넣으니 진실로 남고 모자람이 없었으며, 중국의 종, 경 및 당피리의 황종 소리와 서로 합치되었으므로, 이 관을 삼분손익하여 12율관을 만들었다. 세종 9(1427)년 5월에 박연이 바친 편경은 바로 이 율관으로 조율하여 만든 것이다. 세종은 중국에서 보내준 편경과 새로 만든 편경을 율관에 맞추어 보게 하고는, “중국의 편경이 과연 잘 조화되지 않고, 새로 만든 편경이 맞는 것 같다. 경석(磬石)을 얻은 것이 이미 하나의 행운인데, 지금 소리를 들으니 또한 매우 맑고 아름다우며, 뜻밖에 율관을 만들어 음을 비교해보기까지 하니, 매우 기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연의 산물인 기장(黍)을 쓰지 않고, 밀랍으로 기장 형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황종율관의 양을 잴다는 점이 만족스럽지 않았으므로, 세종 12(1430)년에 박연은 또다시 자연산의 기장을 써서 율관을 제작했다. 기장을 재배하여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기장 1200난알이 들어가는 관을 만들어, 그 중 중국의 황종과 합치되는 것을 택하는 방법을 썼다. 황종율관으로부터 도량형을 만든다는 것은 황종관을 만사의 근본으로 삼은 것이니, 황종율은 단순한 음고(音高)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한편 대로 만든 율관은 추위와 더위에 쉽게 감응하여 벌나고 긴조하면 소리가 높고, 흐리고 추우면 소리가 낮아지므로, 세종 12(1430)년 경에 기후의 영향을 덜 타는 구리로 율관을 만들어 음을 맞추기도 했다.

44 “爰命武靈君臣, 柳子光暨臣倪, 與主簿臣申未平, 典樂臣朴棍, 臣金福根等, 更加釀校, 先言作律之原,

더욱더 이론과 실재를 합하여 정돈하고 그 기록을 구비하게 하니 이 책을 《악학궤범》이라고 함이다. 여기에서 악학의 문헌이 생기고 그 명칭이 시작되었다. 또 이 책의 편찬자로서 50명의 성명을 상술된 바와 같이 열거하여 기록하였으니 그중에 성현(1439~1504)은 세종께서 박연과 이 근원을 짓기에 분주하던 그 시절에 출생하여 성종 때에 《악학궤범》을 완편하니 그는 《용재총화》를 지은 박학이요, 이 책의 서는 성종 24(1493)년 8월에 쓴 것이다.[미주11]

이제 이 《악학궤범》의 내용을 잠깐 살펴건대 그 권1에 율려, 성음에 관한 이론을 먼저 논하였고 권2에는 아악과 속악의 〈진설도설〉을 제3에는 〈고려사악지〉의 당악과 〈속악정재〉를 권4와 권5에는 시용의 향악과 당악 정재를 일일이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음인 권6, 7, 8에는 아악, 당악, 속악의 악기를 도설하고 권9에 관복 등을 도설하였다. 즉 먼저 악학의 이론을 고증하고 다음으로 그 설비와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명칭하여 이 책을 9권 3책에 분편케 하였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악학의 유래와 그 성립을 엿볼 수가 있고 간접으로 다른 학문과 관련성을 찾을 수도 있다. 다시 일례를 들어 보면 그 관복을 그림과 글로서 설명한 것에 의하여 우리는 초립, 두건, 복두 등이 어떻게 제작되는 것이고 무엇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후세에 무가(舞歌)에 흔히 나오는 물명의 해석에도 크게 필요한 한 사건의 뉘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악학이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과 그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데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이 음악 방면이 훈민정음을 제작하는 데 관계있다고 하는 것 즉 훈민정음 제작의 기원을 이 음악에다 두고 논하는 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것을 찾아보면 대개 이런 것들이 그 문제에 들 것인가 한다.

첫째로 《훈민정음》 정인지 서에

次言用律之方。及夫樂器。儀物形體制作之事。舞蹈綴北進退之節。無不備載。書成。名曰樂學軌範。”, 《속
동문선》 제16권, 《악학궤범》 서.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가는 올라가 고르게 되며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⁴⁵

라고 한 중에 청탁이니 올려니 하는 말이 있어서 모두 그와 관련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 《악학궤범》에서 보면 “악성의 대중음이 가볍고 높이 청하고 무거운 것은 탁하니(樂聲之於衆音 輕高爲清 重大爲濁)”라고 하여 성(聲)의 청탁을 논하였고 또 올려에 관한 것이 그 음양이 되어 있다.

둘째로 오음 혹은 오성이라고 함이 피차에 관련됨이니 이 ‘궁, 상, 각, 치, 우’를 그 〈오성도설〉에 자세히 설명한 바 있거니와 《훈민정음》에서도

“대저 사람의 소리가 있음도 오행에 근본이 되는 까닭에 사시에 어울려 어그러지지 않고 오음에 맞추어 틀리지 않는다.”⁴⁶

라고 하여 아, 설, 순, 치, 후를 춘, 하, 추, 동의 사시에 또 궁, 상, 각, 치, 우의 오음에도 맞추어 놓았다. 즉 《훈민정음》과 《악학궤범》의 이론과는 그 오행 오음 사시 방위 등에서 일치됨을 본다.

셋째로, 28이란 수(數)이니 〈오음올려이십팔도설〉이란 제목 밑에 자세한 도해가 있고

“속악의 조는 칠궁, 칠상, 칠각, 칠우를 합하여 28조가 있으나 치조는 없으니”⁴⁷

이라고 한 것과 훈민정음의 글자수 28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⁴⁸

45 “字韻則清濁之能辨,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 서문.

46 “夫人之有聲本於五行, 故合諸四時而不悖, 叶之五音而不戾.”,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47 “俗樂之調, 有七宮七商七角七羽合二十八調而無徵調也.”, 《악학궤범》 〈오음올려이십팔도설〉.

48 《훈민정음》의 글자 수: 훈민정음 해례본의 글자 숫자는 아래와 같다. 예의편은 총 405자인데 어제 서문이 53자이며, 예의는 총 348자이다. 초성 자형 음가를 밝힌 내용은 203자, 중성 자형 음가는 66

넷째로 사성과 오음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니 《악학궤범》에는

“오성의 구별이 있으니 궁은 상평성이고, 상은 하평성, 각은 입성, 치는 상성, 우는 거성이다”⁴⁹

라고 하였고 훈민정음에서도 평, 상, 거, 입의 사성을 가지고 음의 완급의 차이를 표시한 것이 피차에 서로 관련된다는 것이다.⁵⁰

다섯째로 음악의 기호로 사용하는 부호가 훈민정음의 글자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
이니 가령 P. Andreas Eckardt(1928)은 <조선문자의 기원>⁵¹이란 강연에서 아홉
개 조의 기원설이 있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음악에 관계된 것으로 음악 부
호로 ‘△, ㄴ, ㅗ, ㄱ, ㅕ, ㄷ, ㅅ, ㅌ, ㄹ, ㄴ, ㅈ, ㅋ’ 등의 20개가 조선에 있는데
이것은 조선 문자의 ‘△, ㄴ, ㅗ, ㄱ, ㅕ, ㅅ, ㅈ, ㅋ’ 등과 일치된다고 하는 설이 있
으나 자기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있다.

자, 종성 규정은 6자, 기타 운용에 대한 내용은 73자이다. 한편 해례편은 본문 곧 어체 서문과 예의편이 438자이며 해례 부분의 제자해는 2320자, 초성해는 169자, 중성해는 283자, 종성해는 487자, 합자해는 673자, 용자해는 431자, 정인지 서문은 558자이다. 세종의 서문의 한자수가 53자이고 언해문은 108자인데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하여 언해나 한자 사용에 인위적인 조절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김광해, “훈민정음의 우연들”, 《대학신문》(서울대학교) 1982년 11월 19일자, 및 “훈민정음과 108” 《주시경학보》(탑출판사), 제4호(1989), pp.158~163)의 논설이 있다.

49 “五聲之別，宮爲上平聲，商爲下平聲，角爲入聲，徵爲上聲，羽爲去聲”，《악학궤범》

50 속중대 예악 경비론을 주창하며 《의학편고(樂學便考)》를 쓴 병와 이형상은 그 책에서 종률(鍾律)의 오음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곧 “허가 중앙에 있으면 궁(宮)이 되니 소가 음에서 우는 것 같고, 입을 크게 벌리면 상(商)이 되니 양이 무리를 떠나는 것 같고 혀를 움츠리면 각(角)이 되니 꿩이 나무에 오르는 것 같고 혀가 치아를 받치면 치가 되니 부시(負豕)가 깨어 놀래는 것 같다. 입을 오므리면 우(羽)가 되니 새가 나무에서 우는 것 같다. 대저 음이라는 것은 궁(宮)이 중(中)에 있고 각(角)에서 촉금(觸)하고 잇소리(齒)에서 지(祉)하고 상(商)에서 장(章)하고 우(羽)에서 우(宇)한다. 그러므로 4음은 궁(宮)의 기(紀)가 된다. 이것을 오행에다 조화를 시켜보면 각은 나무(木)가 되고, 상(商)은 쇠(金)이 되고, 궁(宮)은 흙(土)이 되고, 치는 불(火)이 되고, 우(羽)는 물(水)이 된다. 오상으로는 인(仁)이 되고, 의(義)가 되고, 예(禮)가 되고, 지(智)가 되고, 신(信)이 된다. 오사로는 모(貌)가 되고, 언(言)이 되고, 사(思)가 되고, 시(視)가 되고, 청(聽)이 된다. 유(類)로 말하면 궁(宮)은 군(君)이 되고, 상(商)은 신(臣)이 되고, 각(角)은 민(民)이 되고, 치는 사(事)가 되고, 우(羽)는 물(物)이 된다.”. 병와 이형상의 《악학편고》〈자음원류〉.

51 P. Andreas Eckardt(1928), Der Ursprung der Koreanischen Schrift,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XXII, Teil.

이상에서 이 음악이 훈민정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보다도 그 피차를 구성하는 사상이 서로 공통되는 것이라고 보겠으니 훈민정음 해례본 맨 첫머리에 “천지의 도는 한 음양오행일 따름이니(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라고 함과 같이 이 오행의 이치에서 오음, 사시, 오방, 오장, 오성, 오미 등 모두 소위 음양의 이론에 벗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훈민정음이 제작된 후의 관계에서 보면 첫째로 이들 음양오행의 공통된 사상은 그 피차의 근본을 푸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이 《악학궤범》에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정음사〉, 〈처용가〉, 〈용비어천가〉 등 고가사가 있으니 이 점에서 그 연구 상 중요한 재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음악에 관계된 부분이 이 책의 주된 논지이지마는 나는 그것보다도 주로 이 책이 훈민정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찾아보기에 치중하는 만큼 이 책이 주력한 원의를 소홀히 한 바 있으나 그것은 나의 전문 분야 외의 일이므로 다른 그 방면 대가에게 밀고 끝으로 이 책이 몇 번이나 출판된 것이 있는가 한 것을 약술하는 것으로 마치기로 한다. 《증보문헌비고》⁵²와 《누판고》와는 모두 9권 3책으로서 성종 25(1494)년에 성현 등에 명찬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초판은 지금 우리가 얻어 보기 어렵고 멀리 일본에는 임진란 이후의 판본이 있음을 본다. 그 후 광해군 2(1610)년에 이정구(1564~1635)의 근발(謹跋)을 붙이고 장악원에 명하여 증간되었음을 《월사집》 권39에서도 역시 그 발을 볼 수가 있으니 현재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대개 이 임진 이후 즉 광해조 판본인 것이다. 또 이후에 효종 6(1655)년 3월에 교서관에서 인출케 하며, 사고에 분장토록 하였다는 기록이 《효종실록》 권14에 적혀 있으니 계이 이후원(1598~1660)이 말하되

52 상고 때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를 총망라하여 분류 정리한 책으로 250권 50책. 《문헌비고》라고도 한다.

土-宮-中
木-角-觸
火-齒-祉
金-商-章
水-羽-宇

“장악원에 있는 《악학궤범》 세 권은 성종 때 성현이 지은 것입니다. 모정(廟庭, 종묘제전과 궁정)의 음악은 다 이 제도를 쓰는데, 이것은 여염집에 있는 서적이 아니므로 임진란 뒤에 장악원이 개간하였고 판본이 본원에 있으니, 교서관을 시켜 여러 권을 박아 내게 하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소서.”⁵³

라고 하여 이 사고본이 지금 내가 참고하는 이 경성대학(서울대학교) 도서관본이 바로 그것이다. 이 도서관 본에는 효종 3(1652)년 12년 3월 11일에 강화도사고에 장치되었던 것이 그 표지 이면에 기입되어 있다.

이상에서 《악학궤범》의 책명과 간행에 관한 것이며, 이 목판본의 내용에서 여러 점을 말하고 더욱이 훈민정음 제작과의 관계와 또 훈민정음 이후의 그것을 찾아보는 것으로써 나아가서는 일반적으로 악학 즉 음악과 훈민정음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라고 하겠으니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음과 7음에 관한 박성원(1697~1757)의 설과 《증보동국문헌비고》에서 이 훈민정음을 논한 것 등 모두 합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나 여기는 이만으로 줄이는 바이다.

제2장 제2기 연문시대

제1절 전반기 통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그 반대 많은 가운데에 능히 창제하고 또 각 방면으로 보급하셨다. 그 후에 세조, 성종 2조의 연해 사업에 의하여 계속되어 오다가 연산군 때에는 크게 수난을 당하였다고 볼 것이다.⁵⁴

53 “癸巳李厚源曰, 掌樂院所藏樂學軌範三卷, 乃成廟朝成倪所撰也. 廟庭之樂, 皆用此制, 而此非間, 家所有之書, 壬辰亂後掌樂院開刊, 而板本在本院, 請令校書館印出累件, 分藏史庫.” 《효종실록》, 효종 6(1655)년 3월 8일.

54 소위 연산군의 연문 탄압에 대한 김윤경(1954:299~253), 최현배(1946:83~46), 홍기문(1947:162~164), 이희승(1955:38~39) 교수를 비롯하여 방종현 교수도 연산군이 한글을 탄압한 군주로 다루어 왔으나 이승녕(1956:245~247) 교수와 강신항(2008:420) 교수는 이에 반론을 제기했듯이 연문 탄압은 연문 익명사건의 범인 색출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음을 강신항(2008:359~419) 교수는 밀도 있는

언문 시대는 어느 때이나 하면 종종 22(1527)년부터 고종 30(1873)년까지 약 360년간으로 보았다. 이것을 다시 양분하여 전후 2기로 나누고자 하니 전기는 종종 22(1527)년으로부터 선조 30(1592)년까지를 전기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시 양분한 것은 어인 일인가 하면 단지 연대가 너무 긴 데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훈민정음의 그 자체에 있어서 예로 들면 마치 《훈몽자회》에서 ‘ㅎ’이 없어진 것과 같이 임진으로부터 이후는 ‘△’자가 문헌상에 사용된 일이 없다고 할 만하다. 또 종종 초에는 정음청이 없어지는 등 그 세력이라고 할 만한 힘이 점차 줄어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또 역사상으로 보아서도 임진란이란 중요한 한 시기를 짓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사상으로 보아서도 이 난을 한 구획선으로 그어서 전후로 나눌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우리 어학 상 자료 방면으로 보더라도 이 난을 두고 전후하여서 그 구득하기 어렵게 된 점도 큰 것이지만 그에 따라서 자료로서의 내용 가치로 따지어도 실로 판이한 것이라고 시인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들의 여러 사실을 주로 하여 이 60여 년 간을 제2시기의 전후로 보고자 한다. 연대 상으로 보면 훈민정음 창제에서 임진란까지 약 150년간이 되니 전기 시대는 80년이 조금 남짓하고 이 시기가 60년이 조금 넘는 형편이 된다.

제2시기의 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일은 그 보다도 여기서 새로 다른 시기를 짓는다고 보는 중요한 점은 《훈몽자회》라는 문헌의 존재이다. 훈민정음으로서 창제된 것이 《훈몽자회》로서의 실용화에 이용한 것이다. 아래에 간단히 이 두 책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명칭 상으로 보아서 ‘훈민정음’이란 이름을 《훈몽자회》에서는 한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언문 제목 밑에 이것을 논하였다. 또 속 소위 반절 27자라고 하여서 반절이라 하는 한문에서 이르는 명칭을 우리 문자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첫 기록을 남겼다. 요약하면 ‘훈민정음’이란 명칭이 《훈몽자회》에서는 ‘언문’ 또는 ‘반절’이란 말로 되어 버린 것이다.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종래 정설화 되었던 연산군의 언문 탄압에 대한 수정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광해군 2(1611)년 3월 《내훈》을 인간하여 널리 배포하라는 전교가 있던 것을 근거로 하면 강신항 교수의 수정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둘째로는 그 글자 수의 차이이다. 훈민정음은 그 어제 서에서도 분명히 28자라고 밝혀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훈몽자회》에서는 27자라고 하여 아무런 이유를 말한 것도 없이 ‘ㅎ’자를 제거해 버린 것이다.

셋째로는 초성과 중성에 관한 호칭의 차이이니 예를 들면 훈민정음에서는

ㄱ 아음 군자 첫소리와 같다(ㄱ牙音如君字初發聲)

· 탄자 중성과 같다(如吞字中聲)

이와 같은 형식이었던 것을 《훈몽자회》에서는 그와 달리

[초중성통용팔자]

ㄱ其役(기역) ㄴ尼隱(니은) ㄷ池末(디근) ㄹ梨乙(리을) ㅁ眉音(미음) ㅂ非邑(비읍) ㅅ時衣(시옷) ㅇ異凝(이응)

[초성독용팔자]

ㅋ箕(키) ㅌ治(티) ㅍ皮(피) ㅊ之(지) ㅊ齒(치) ㅌ而(시) ㅇ伊(이) ㅎ屎(히)

[중성]

ㅏ阿(아) ㅑ也(야) ㅓ於(어) ㅕ余(여) ㅗ吾(오) ㅛ要(요) ㅜ牛(우) ㅠ由(응) ㅡ應(응) 중성에서 사용하지 않는다(終聲不用) | 伊(이) 중성에서만 쓰인다(中聲只用) · 思(스) 초성에서 쓰이지 않는다(初聲不用)

이와 같이 부르도록 표시되었다.⁵⁵

넷째로는 중성 즉 ‘받침’으로 쓰는 글자에 있어서의 차이이니 ‘훈민정음’에는 ‘중성 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고 단순한 규정인 것을 《훈몽자회》에서는 이것을 달

55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한글 자모의 명칭을 보면 초성은 기역(其役: ㄱ), 니은(尼隱: ㄴ), 디근(池末: ㄷ), 리을(梨乙: ㄹ), 미음(眉音: ㅁ), 비읍(非邑: ㅂ), 시옷(時衣: ㅅ), 이응(異凝: ㅇ)이라 하고, 중성은 아(阿: ㅏ), 야(也: ㅑ), 어(於: ㅓ), 여(余: ㅕ), 오(吾: ㅗ), 요(要: ㅛ), 우(牛: ㅜ), 유(由: ㅠ), 으(應: ㅡ), 이(伊: ㅣ), · (思)라고 하였다.

리 ‘조종성통용팔자’, ‘조성독용팔자’라고 하여 종성으로 사용될 글자를 제한했다. 물론 그 원인은 훈민정음에 있는 것이고 그보다 실제 발음에 의거한 것이지만 그 점의 상세한 설명은 여기에 들추지 않는다.

다섯째로는 초성과 중성의 순서를 바꾸어 배열한 것이니 훈민정음에서는 초성을 아, 설, 순, 치, 후로 나누어 각 음에 3자씩 배치하고 끝으로 반설, 반치음을 두어서 전부 17자가 되니 만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아래와 같이 조직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음(牙音) ㄱ ㅋ ㅇ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순음(唇音) ㅁ ㅂ ㅃ

치음(齒音) ㄷ ㅌ ㄴ △

후음(喉音) ○ ㄛ ㅎ

즉 이와 같이 발음기관에서 그 기본형을 얻고 그것에 가획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다음 종성 11자는 ‘ㄱ, ㆁ,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로 되어 있어 획수로 보면 단 획에서 두 획으로 다시 세 획으로, 즉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많은 데로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모상한 그 제자의 원리를 따라서 본 순서에 의한 것이 분명한데 이와는 달리 《훈몽자회》에서는 ‘초성초성통용자’로 처음으로 하고 ‘초성독용’의 8자를 다음으로 하여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ㆁ, ㅈ, ㅊ, ㅊ, ㅌ, ㅎ”

이러한 순서로 뒤흔들어 버리고 증성에서도 제작의 원칙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대로

“ $\vdash, \models, \dashv, \Vdash, \perp, \Vdash, \top, \Pi, \neg, \mid, \cdot$ ”

로 되어 전혀 훈민정음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배열되다시피 되었다. 물론 《훈몽자회》의 이러한 배열은 역시 실용에 그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대략 이상과 같은 차이에 의하여 간략하나마 이것으로서 새 시기의 선을 긋는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자 하는 바이다. 이 시대에 있어서 《훈몽자회》의 저자인 최세진은 일부에서 그 죄를 논하는 이도 있으나 그러나 나는 이 이의 공로가 있음을 도리어 크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의 저작만으로도 보더라도 《사성통해》(1517년), 《이문집람》(1539년), 《노결대》와 《박통사언해》, 《노박집람》(1517년), 《훈몽자회》(1527) 등 실로 어학상 귀중한 자료들이다. 또 이 중종 때에는 이밖에 모제 김안국(1478~1543) 같은 이의 농서, 잡서 또는 《정속언해》(1518년)⁵⁶ 등이 있으며, 다른 언해들의 복각들도 있다.

제2절 최세진과 그 저작

최세진(1468~1542)은 다만 한어와 이문에만 정통했을 뿐이 아니고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어학의 공로자로서 그 이의 족적은 심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최세진 저작의 다른 여러 가지 책만을 보아도 가히 알 수 있거니와 그 저작의 어느 하나도 우리 어학의 자료로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없는 터이다.

그러나 가석하다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저서는 많이 전하면서도 그 경력이며 좀더 자세하게 그 이의 출생 연대를 알 만한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56 《정속언해(正俗諺解)》: 중종 13(1518)년에 경상도관찰사 김안국이 풍습을 바로 잡기 위하여 중국의 《정속편》을 목판본 1권 1책으로 언해하여 엮은 교화서이다. <정속편>은 원나라 일암왕(逸庵王)의 저술로서 14세기 중엽 중국 송강부에서 왕지화(王至和)가 서문을 붙여 간행하였다. 이 책은 효부모, 우형제 등 18조목에 걸쳐 설명되어 있는데 이 책을 김안국이 《여씨향약》과 함께 경상도에서 원문에 차자로 구결을 달고 번역, 간행한 것이다. 1518년 본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으로는 고 이원주 교수 소장본이 있다. 17~18세기경에 나온 복간본 내지 중간본이나 일사문고본에는 1행 16자본과 21자본이 있다. 16자본은 1792년 평안도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규장각본은 21자본인데, 17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유탉일소장본도 21자본이다. 일사본의 16자본은 51장인데 다른 본들은 28~33장으로 되어 있다. 표기, 음운상으로 보아 16자본만이 18세기 판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책은 근대국어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지만 지방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1984년 홍문각에서 이원주본과 규장각본, 일사문고본을 합쳐 영인한 바 있다.

여기서 나는 그의 저서와 및 그에 관련되는 모든 기록에 있는 바를 참고하여 그가 활약하던 시대를 먼저 추정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우리는 《중종실록》에서 사신이 말한 바에 의지하여 최세진은 본대 한미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출세는 보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출생 연대와 그의 생활 형편을 알아내어서 우리말의 시대적 경향을 알고자 하는 바이니 그의 출생 연대까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학문 공적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천한 것이었음을 애석히 여기는 바이다.

처음으로 우리는 《국조방목》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기록을 얻을 수가 있다.

“계해 8월 세자 별시방에 봉하였다. 홍치 16년 연산군 7월 일등 권복, 이등이, 김안국……최세진, 자 공서, 부 정발 동지 정어이문 병오원 괴산인⁵⁷

여기서 우리는 최세진이라는 이는 연산군 9년이고 연산군 9(1503)년 되는 계해년 8월에 봉세자별시를 보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에 김안국과 동방(同榜)으로 별시에 응하였던 것이 드러나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참고한 이 《국조방목》은 원래가 사본인데다가 그 체재며 글씨조차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그의 생부는 정발(正潑)임이 틀림없는지 또는 그 이의 본관이 괴산인 것이 확실한지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보기에 너무 흐렸다. 자세히 보면 괴산이 아니고 직산(稷山)같이도 보인다. 또 정발이란 두 자도 띄어 쓴 것인지 붙여 쓴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발’ 한 글자만으로도 된 외자 이름인지 두 자가 다 이름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 이름자가 외자냐 두 자이냐에 있어서는 한 가지 다른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최발(崔潑)⁵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운도》⁵⁹를 저작한 것에 신숙주가 그 미(尾)를 쓴 사실이 있으니 ‘계역

57 “癸亥八月，封世子別試榜，弘治十六年，燕山君九年，一等進，權福，二等二，進，金安國……崔世珍，字公瑞，父正潑，同知，精於吏文，丙午參，槐山人。”，《국조방목》

58 최발에 대해서는 사역원의 중국어 통역을 맡은 역관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알려진 전부이다.

59 《약운도(約韻圖)》: 역관 최발(崔潑)이 역은 책인데 그 저자 최발에 대해서는 사역원의 중국어 통역을 맡은 역관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알려진 전부이다. 그리고 《약운도》는 전하지 않으므로 더 상세히

생최발약운도미(題譯生崔潑約韻圖尾)’라고 《보한재집》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연대 상으로나 이 역생이라는 점으로나 또는 《약운도》라고 하여 운에 관한 것을 쓴 이런 여러 점에서 최세진과 관련이 깊은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이 관련이 깊은 점에서 미루어 ‘발(潑)’이란 외자 이름이 맞다고 하면 이 방목에 쓰여 있는 이름 가운데 들어 있는 ‘정(正)’자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명으로 사역원정이라는 그 ‘정(正)’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으나 이외에 다른 정확한 예증을 보지 못하므로 이 이상 더 명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모제 김안국(1478~1543)과 동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문집인 《모제집》을 참고로 할 수 있다. 김안국은 자는 국경(國卿)이요, 모제가 그 호이니 의성 사람이다. 성종 무술(1478)년에 출생하여 연산군 신유년에 진사가 되고 그 계해엔 문과요, 정묘에 중시하였으며, 후에 대제학을 지냈고 중종 계묘(1543)년에 몰하였으나 이것으로 이 모제가 출생한 성종 무술이라는 해를 보면 성종 9(1478)년이요, 또 그이의 몰년이 중종 38(1543)년이 된다. 여기서 이 모제의 약력에 의하여 우리는 최세진의 생존 시기란 것도 대개 추정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제집》 권3에 최세진에 관한 기록으로는 그 만시 한 수가 있으니 이러하다.⁶⁰

崔同知世珍挽

逆旅浮生七十翁 親知凋盡寄孤躬

登名四紀幾更變 餘榜三人又失公

爲命自今誰共討 輯書裨後世推功

嗟吾後死終無益 淚洒東風慟不窮

《모제집(慕齊集)》 권3

언급하기 어려우나 그것이 학계에 이름만이라도 등장하게 된 경위는 신숙주의 문집인 《보한재집》 권 16에 “역관인 최발이 엮은 《약운도》라는 책 맨 끝에 써 붙인다(題譯生崔潑約韻圖尾)”라는 글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60 정광(2005),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109쪽, 원시 오류 수정과 번역시를 참조하였다.

최 동지부사 세진을 호곡하며

잠시 뜬 구름처럼 머물렀다 가는 인생 70용이여 가까운 이 모두 사라지고 이 몸만 외로이 남았구려

등과에 이름 올린 지 어은 40년 그동안 세상 몇 번이나 변했는가 동방한 이 세 남았더니 이제 또 공을 잃었으니

임금의 명(교린문서를 작성할) 받을 때 이제 누구랑 함께 토론 하리오 책을 지어 후세에 도움 준 공이 있었으나

슬프도다 나는 그대 뒤에 죽으니 아무 도움 되지 않으니 눈물 동풍에 흩날리며 소리내어 울기를 그칠 수 없도다

《모계집》 권3

이 시를 보아서 김안국과 동방인 관계로 신분은 비록 다를망정 사람으로서는 피차 잘 아는 터이고 연령으로도 서로 전후하는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해만 해도 김안국은 역시 66세의 고령으로 최세진보다 1년 후에 세상을 마친 것이 된다. 그것은 최세진의 몰년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동지중추부사 최세진이 졸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최세진은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썼으며 더욱이 한어에 정통하였다. 이미 등제하여서는 모든 사대에 관한 이문을 모두 그가 맡아보았고, 추천받아 발탁되어 벼슬이 2품에 이르렀다. 저서인 《언해효경》, 《훈몽자회》, 《이문집람》이 세상에 널리 퍼졌다.”⁶¹

라는 기록과 모제의 사실과를 대조하여 나는 최세진 출생 연대를 성종 4(1473)년을 중심잡고 그 전후 몇 해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⁶² 그러면 이상을 종합하여서 최세진은 성종 4(1473)년으로부터 중종

61 “世珍系出寒微，自少力學，精於漢語。既登第，凡事大吏文，皆自主之。得蒙薦擢，官至二品。有著 諺解孝經，訓蒙字會，吏文輯覽，行于世。”，《중종실록》 97권, 중종 37(1542)년 2월 10일.

62 최세진의 생몰 연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전에 최세진의 묘지 명문이 과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굴되어 정확한 생몰 연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안병희(1999) 교수는 최세진과 그의 아내의 묘지명 2매의 명문과 지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兼五衛將 崔公世珍之墓/東爲貞夫人 永川李氏之墓 婦人嘉靖卒 辛丑九月葬

37(1542)년 사이에 활약하던 인물이라고 보는 바이다. 즉 성종과 연산군과 중종과의 삼대에 걸쳐 거의 그 전부인 70년 간을 그 이의 생존 활약하던 시대라고 보게 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최세진의 관리로서의 생활을 보면 이리하다. 성종 조에 있어서는 화어(華語)에 정통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질정관⁶³이 되었고 연산군 7(1501)년에는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봉세자별시 응하여 김안국과 동방인이 되었다. 이 이의 관리로서 승진한 계제를 살펴보면 대개 두 가지 일로 즉 한어와 이문에 정통하다는 점과 서어(書語, 외교문서 작성)의 저술 또는 그 진헌(進獻, 임금에게 글을 올림)에 의하여서 그 영예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전교하기를, 최세진의 흥패를 되돌려 주라 하였다. 세진은 계해년 권복의 방에 합격하였는데, 왕이 이세좌(李世佐)가 아뢰므로써 합격한 것을 파기하였다가, 이때 와서 중국 사신이 왔을 때에 어전에서 말을 전하는 수고가 있었으므로 되돌려 준 것이다.”⁶⁴

라고 하였으니 이이는 이세좌(李世佐, 1445~1504)의 천을 입었던 만큼 이세좌의 사건(갑자사화)으로 인하여 그도 파방이 되었다가 어전에서 전어(傳語, 통역)한 공로에 의하여 빼앗겼던 흥패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이세좌의 천을 입었다는 사실은 이렇다.

“사역원 제조 윤필상, 이세좌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중국 섬기기를 성의 있게 하는데, 한어를 아는 자는 이창신(李昌臣) 한 사람뿐입니다. 이 소임이 가벼운 것이 아니니, 배워 익히게 하지 않

(婦人年四十七終)

○ 年至七十年 嘉靖壬寅以疾終 同年四月二十日葬于果川縣/午坐子向之原 婦人先公一年七月二十九日終

따라서 최세진은 세조 14(1468)년에 태어나 75세 되던 중종 37(1542)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63 질정관: 조선 시대 때의 임시 벼슬로 글의 음운(音韻)이나 기타 제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 오는 일을 맡았다.

64 “傳曰還給崔世珍紅牌, 世珍中癸亥權福榜, 王以李世佐建白所取罷之, 至是 以天來, 使時御前傳語有勞, 還給. 《연산군일기》, 연산군 12(1506)년 3월 13일.

을 수 없습니다. 지금 두 사신이 사관에 와서 두어 달 머무니, 배울 만한 사람으로 최세진, 송평, 송창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배워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모두 정통할 것입니다.”⁶⁵

또 중종 32(1537)년에는 《운회옥편》⁶⁶과 《소학편몽》⁶⁵의 두 책을 편찬 간행하고서 첨지가 되었다.⁶⁷

“호군 최세진이 자료를 모아 《운회옥편》을 만들고, 또 《소학》 내편을 유별로 뽑아 《소학편몽》이라고 이름지어 올렸다. 상이 가상히 여겨 장려하고, 첨지에 제수할 것을 명하였다.”⁶⁸

또 《유현주의》와 《황극경세서설》⁶⁹의 2종을 현상하고서 중종 34(1519)년에는 가계

65 “司譯院提調尹弼商, 李世佐啓: “我國事大以誠, 而識漢語者, 只李昌臣一人. 此任非輕, 不可不肄習. 今兩使到館留數月, 擇可學者, 如崔世珍, 宋平, 宋昌使之傳習, 則必皆精通, 從之.” 《왕조실록》 49권, 연산 9(1503)년 5월 8일.

66 《운회옥편(韻會玉篇)》: 문헌 시대 조선 성격 옥편 편저자 최세진으로 제작시기 1536(중종 31)년 권수/책수 2권 목차정의 내용 정의 1536(중종 31)년 최세진이 편찬한 옥편, 내용 상하 2권. 원나라의 옹충(熊忠)이 찬수한 《고금운회거요》에 부수되는 옥편이며, 《사성통해 四聲通解》의 보조편으로 엮여진 것이다. 부수의 종류나 분류법은 중국의 자서(字書)들과는 다른 독특한 것이다. 판본으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본, 규장각본, 일본 궁내성 즈쇼료본(圖書寮本), 도요문고본(東洋文庫本) 등이 있다.

67 《소학편몽(小學便蒙)》: 중종 32(1537)년에 간행한 중국어 교과서로 최세진이 《운회옥편》과 같이 중종에게 진상하고 간행을 청한 것으로서 왕의 적극적인 찬성을 얻어 간행된 책인데 현재 전하지 않는다.

68 “護軍崔世珍, 集子類, 作韻會玉篇, 又類抄, 小學內篇, 各以小學便蒙, 下教嘉獎授僉知堂.” 《국조보감》 제20권 중종 32(1537)년.

69 《황극경세서》: 역학의 원리를 성음학과 결합시킨 이는 송나라 소옹인데 그는 《황극경세서》에서 천지 사이에 생성되는 만물을 수리와 역의 패와 효로 생성과 소멸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체와 용의 개념을 설정하여 성음의 생성원리를 설명하고 수리로서 만물의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한편 성성 10성과 정음 12음으로 된 《성음창화도》를 만들었다. 《황극경세서성음차오하도》에 성은 청(淸), 탁(濁)으로 구분하고 운은 흡(翕), 벽(闕)으로 구분하였다.

흡(翕), 벽(闕)은 곧 개구(開口)와 합구(合口)의 개념으로 개모 [w]의 유무에 따라 1등, 2등, 3등, 4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강절은 이를 일월성신으로 구분하였다. 훈민정음 제자해의 창제 원리에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 | | | |
|-----|----|-----|----|-----|
| | 開口 | | 合口 | |
| 1등운 | | 開口呼 | w | 合口呼 |
| 2등운 | r | | rw | |

(加階, 승진)의 특명을 받게 된 일이 있다(僉知崔世珍, 進儒賢奏議, 皇極經世書說, 特命加階).

이밖에 관리로서의 기록은 《사성통해》(1517년), 《훈몽자회》(1527년), 《운회옥편》(1537년), 《이문집람》(1539년) 등의 그 서문의 연대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한 간단한 방법이 되겠다. 그러나 그 원문을 다시 들어 놓는 것은 생략하고 이상으로서 관리생활에 대한 논의를 그치며, 이하에서는 그가 받은 사회적 대우와 아울러 합기해 볼까 한다.

최세진이 한어와 이문에 정통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술하였거니와 사신의 기록의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 한어에 있어서는 그의 저서인 《사성통해》이며, 《훈몽자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인용하노라 하였고 또 《박통사》며 《노걸대》의 양자에 있어서도 전혀 그 어해(語解)에 힘 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종께서도 최세진이 한문에 능통하다고 하여서 특히 질정관이라는 관위를 제명한 일이 있으니

“최동지 최세진은 화어에 능하여 성조조에 강관으로 선발되어 사슴독관을 지낸지 임 수년이 지났는데 친히 강학을 할 때 크게 칭찬하였다. 특별히 질정관을 보하니 연관들이 이르기를 잡직으로서 질정관에 보하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다고 하니 성조가 이르기를 진실로 그 사람을 얻었거늘 어찌 구례에 얽매이겠는가? 내가 스스로 고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 최공은 후에 증문과에 부경사로 누차로 부임하여 화어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성종조의 크게 장려하여 맺은 결실이다. 아, 애석한 인재로서 별결으로 근면하였으니 한때 성종조의, 곧 일세의 재능을 어찌 최세공의 화어에 이를 데 있겠는가”⁷⁰

이와 같이 간관은 최세진이 잡직으로서 질정관에까지 보선됨이 전례 없는 일이라

| | | | | |
|-----|---|-----|----|-----|
| 3등운 | j | 齊齒呼 | jw | 撮口呼 |
| | | | | |

70 “崔同知世珍, 少通華語, 成廟朝選補講, 肆習讀官, 既數年, 親講取業, 大加獎嘆, 特差質正官. 言官啓曰, 以雜職而補質正之官, 古無此例, 成廟曰, 苟得其人, 則何例之拘, 自予作古可也. 崔公後中文料, 累赴京師, 華語大進, 實成廟之所獎也. 噫愛惜人才, 勸以別格, 苟如成廟之爲, 則一世之才豈崔, 但公之華語而已哉.”

고 하여 그 불가함을 계달하였지마는 성종께서는 이러한 일의 전례가 있고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못되고 오직 그 사람이 진실로 그 일에 적당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이 남은 문제일 뿐이니 이제 비로소 참말로 그 바른 사람을 얻었다고 하면 어찌 여기에 대한 전례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이 상관할 바이리요. 정히 전례가 없다고 하여 크게 문제라고 하면 이런 예는 그럼 이제 나로부터 새로 예를 지어도 좋지 않으냐고 시원히 눌러 버린 일이 있다. 이와 꼭 같은 기사가 《연려실기술》 별집 권14에도 있으니 그 당시에는 최세진이 한 역관으로 점차 관리가 승급되어 감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중종 37(1542)년에 최세진이 졸이라고 하면서 그 자신도 역시 최세진의 출생을 한미한 가문에서라고 하였지만 이밖에도 상술된 바와 같이 한어에 정통하다고 해서 질정관이 되는 것을 불가라고 할 뿐이 아니고 증종조 초에만 해도 최세진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어 가지고 한어의 교수로 있는 것도 합당치 않게 말한 것도 있으니 《증종실록》 권7에

“대간이 앞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최세진이 상중에 첩을 얻었다는 일에 대하여, 그 추안을 고찰한 즉 그 이웃들이 모두 장전(喪前)의 일로써 형을 받은 것이라고 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추궁하여 심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진도 또한 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그 문벌이 장사를 업으로 하였고, 그 신분이 또한 낮으며, 일찍이 부경(赴京, 서울로 관직에 부임함)할 때 남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다가 법관에게 탄핵을 당한 바도 있었으니, 사표로서 적합치 않음에 의심할 바 없습니다다고 하니, 전교하기를, 완천정 등의 일은 윤택할 수 없다. 최세진의 일이 과연 아뢴 바와 같다면 사표(師表), 사유(師儒)로서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를 체직하도록 하라.”⁷¹

라고 하여 한어를 잘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중국에 가게 된 것을 가지고 그 당시의 일부 사람들은 최세진이 본래 문벌이 한미한 데서 태어난 데다가 중국에 가는 것도 결국은 거기서 물건을 팔고사고 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다니는 것이라고

71 臺諫啓前事又啓, 崔世珍喪中娶妾事, 考諸推案, 則切隣皆以喪前事, 受刑劓供, 然終不窮推, 故世珍亦不得發明。大抵門地, 以興販爲業, 身且卑賤, 嘗赴京時, 多賫人財物, 爲法官所劾, 其不合師表無疑也。傳曰 完川正等事, 不允, 崔世珍事, 果如所言, 則不合師儒, 其遞之。《증종실록》, 중종 4(1509)년 1월 4 일.

까지 뒤집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밖에 그 말년에만 해도

“부호군 최세진이 《대유대주의》 2권과 《황극경세서설》 12권을 올리고 아뢰기를, “《대유대주의》는 모두 고문이지만 새로 뽑아 모은 것으로써 임금이 보시기에 알맞은 것이고, 《황극경세서설》 역시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어서 감히 올리니, 간행하여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이어 정월에 전교하였다. “최세진이 앞서도 치도에 관계된 책을 언해한 《효경》, 《소학》, 《훈몽자회》, 《사성통해》와 같은 책을 여러 번 올렸는데, 이번에 또 올렸다. 그는 비록 한관(閑官)이지만 마음씀이 매우 부지런하니, 이런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사대의 자문도 반드시 그와 상의하여 만드니 최세진은 승문원 제조이다. 그 공로가 어찌 작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당상이 된 지 오래되었으니 특별히 품계를 올려 주고 또 술도 내려 주라.”⁷²

라는 기록도 있거니와 당시 사람들로서 늘 못 마땅하게 생각하여서 승문원 제조라는 벼슬이 본래 서적을 드리는 것이 그 직분이거늘 이제 이로 인하여 특히 승진까지 특명하시는 등의 일은 최세진에게 너무 지나치는 대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인의 환영도 못 받으면서 칠십 평생을 많은 저서와 그 공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한 가계에서 출생한 탓으로 끝까지 불운한 일생으로 마친 것으로 생각된다.⁷³

다음으로 이 최세진의 저서에 관하여 될 수 있는대로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운회옥편》, 《소학편몽》 등의 논저가 많다.

1. 《노걸대언해》

여기서 《번역노걸대》(중종연간), 《노걸대언해》(1670년)와 《번역박통사》(중종연

72 “甲申副護軍崔世珍, 以大儒大奏議二卷. 皇極經世書說十二卷. 進獻曰 大儒大奏議, 雖皆古文, 然新撰哀集, 宜人君所當觀鑑. 皇極經世書說, 亦我國所無, 敢獻請印行, 使人人皆得見之, 傳曰, 知道仍傳于政院曰, 崔世珍前日亦以關於治道之書, 如 諺解孝經, 小學, 訓蒙字會, 四聲通解 等書. 累遣, 今又來獻, 雖在閑官, 其用心至勤, 如此者不易得也. 事大咨文, 亦必與議爲之, 世珍爲承文院是調, 其功豈少哉. 況爲堂上亦久, 特加階, 且賜酒.” 《중종실록》 중종 34(1539)년 5월 17일.

73 최세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안병희(2008), 《최세진 연구》, 태학사. 참고.

간), 《박통사언해》(1509년?)와 《노박집람》⁷⁴을 한데 섞어서 해설하기로 한다.⁷⁵ 《노걸대언해》와 《박통사언해》 두 책은 공히 당시 사람들이 한어를 학습기 위하여 편찬한 서적이다. 그런데 언해하지 않은 노걸대와 박통사와는 모두 어느 때에 누구의 저작인지 그 원저의 작자의 이름이 전해 있지 않으니 《노걸대신석》의 서문에서 보아도

“《노걸대》는 언제 지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록된 것을 따져보면 또한 거칠고(간략하여) 오

74 《노박집람(老朴集覽)》: 최세진이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의 어려운 어구와 고유명사 등을 뽑아 설명한 율해자 1책이다. 이 책은 서문이나 발문이 없으므로 언제 간행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번역박통사》와 《번역노걸대》의 관계나 《사성통해》의 최세진 서에서 말한 《집람》의 편찬 등으로 미루어 중종 12(1517)년에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제와 내용은 범례, 1음절어에 대한 단자해와 단음절어에 대한 누자해로 된 자해, 상하 2권인 《노걸대집람》, 상중하 3권인 《박통사집람》의 3부로 되어 있다. 이 책은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병주 교수의 편교로 1966년에 영인으로 간행되었다. 부록으로 《노걸대집람》과 단자해가 간행되고, 《박통사집람》이 《박통사언해》의 해당 구절에 삽입되어 간행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누자해는 효종 8(1657)년, 《어록해》에 「한어집람자해」로 중간되었다.

75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 한문본 《노걸대(老乞大)》는 4종으로 나눌 수 있다. 원나라 시대에 한어 언어(漢言語)를 본문으로 한 《원본노걸대》(1346년 경 편찬)와 이 책을 성종 조에 한인 갈귀(葛貴) 등이 명나라 북경관화로 교정한 《산개노걸대(刪改老乞大)》(1483년 추정)가 있으며 또 다시 이것을 조선 영조 때에 김창조, 변헌 등이 청대 만다린으로 새로 해석한 《노걸대신석》(1761년)과 또 이 청대본이 지나치게 비속한 언어를 반영한다고 하여 조선 정조 때에 이수(李洙) 등이 다시 아어(雅語)로 수정하여 중간한 《중간노걸대》(1795년 중간)가 있다.

한문본 《노걸대》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번역 또는 언해하여 한어 학습에 활용해 왔는데 번역 및 언해본으로 가장 오래된 번역본은 중종 대 최세진이 북경관화로 교정한 《산개노걸대》(1483년 추정)를 대본으로 하여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번역노걸대》(1515년경)가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 현종 11년 경술(1670)년에 사역원 강원의 역관들에 의하여 다시 언해되었고 최세진의 표음도 부분적으로 수정된 《노걸대언해》와 숙종조에 간행된 《박통사언해》는 모두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간행된 《산개노걸대》, 《산개박통사》를 언해한 숙종(정사, 1677년)에 이담명이 쓴 ‘박통사언해 서’에 의하면 최세진의 번역본이 두 차례의 전란에 인멸되었지만 그가 저술한 《노박집람》을 참고하여 변섭, 박세화 등 12인이 언해한 것임을 밝혀 두었다. 《노걸대》의 언해본으로는 중종조 최세진의 《번역노걸대》(1515년경)를 시작으로 하여 난해어와 난해구를 풀이한 《노박집람》이 있고 현종 11(1670)년에 정태화(鄭太和)의 계청에 의하여 이담명 등이 서문을 붙이고 교서관에서 간행한 《노걸대언해》가 있으며, 이를 다시 수정하여 영조 21(1745)년에 신성연, 변익 등이 평양 감영에서 중간한 《노걸대언해》도 있다. 그리고 영조 39(1763)년에 김창조, 변헌 등이 신석하여 언해한 《신석노걸대언해》가 있으며, 끝으로 정조 19(1795)년에 이수 등이 중간하여 언해한 《중간노걸대언해》가 현전하고 있다.

래되어 변한 것이다. 그러니 중간에 쓰이지 않은 게 이상할 것이 없다”⁷⁶

라고 되어 어느 때에 저작되었는지 모르나 이것이 오래되어서 그 오랫동안 전해 오는 동안에 그대로 내용은 변치 않고 실제 용어는 많이 달라졌으므로 《노걸대신석》⁷⁷을 편찬할 때에는 그 용어 사이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으며 또 그것은 시대와 더불어 으레 변할 것이므로 과히 괴이하게 생각할 것도 못된다고 말하였다.

또 《누판고》에 권4 〈역이류〉에

“찬술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화어를 섞어 역관이 재주를 겨룰 때 사용했는데 그 언해는 곧 최세진이 찬한 것으로 을묘년 사역원에서 왕명을 받들어 거듭 바로 잡았다.”⁷⁸

이라고 하여 원본 저작자의 성명을 모르는 것과 내용이 화어용인 것과 언해는 최세진이 찬정한 일과 정조 을묘(1675)년에 이것을 중정(重訂)한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였다.

또 이밖에 《증보문헌비고》 권 246에 〈역설류〉라는 제목이 있어서 《박통사》 4권이 라고 하여 기록이 있으나 그 원 저작자만은 역시 모르고 이 원본에 언해를 가한 이는 최세진인 것이 확실하다. 물론 이 3종서는 최세진 출생 연대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벌써 저작되었던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주자소에서 인간한 노걸대, 박통사를 승문원과 사역원에 나누어 주니, 이 두 책은 중국어를 번역한 책이다.”⁷⁹

76 “老乞大，不知何時所創，而原其所錄，亦草草且久而變焉。則不中用，無怪矣。”，《노걸대신석》 서문.

77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 영조 39(1763)년에 김창조(金昌祚), 변헌(邊憲) 등이 엮은 중국어 학습서로 활자본 1책으로 간행하였다. 《노걸대》의 내용이 낡았으므로 이를 약간 새롭게 고친 것으로, 체제는 그 전 책을 그대로 따랐다. 책머리에 홍계희의 서문이 있다.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중국의 인정, 풍습 등은 여러 방면의 역사적인 연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78 “不著撰人名氏，雜敘華語，用之象輦，較藝之時，其諺解則，崔世珍撰，當宁乙卯司譯院，奉教重訂。”，《누판고》권4, 〈역이류〉

79 “頒鑄字所印，老乞大，朴通事于承文院，司譯院。此二書，譯中國語之書也。”，《세종실록》 세종 16(1434)

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서 최세진이 이 2종의 책의 원저 작자가 아닌 것은 확실하나 이 2종의 책이 판으로 간행되기는 혹은 세종 5(1423)년이 그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노걸대, 박통사 전후한, 직해효경 등의 서적이, 판본이 없음으로 인하여 배우는 자가 전사하여 송습하게 되니, 주자소에 명하여 인출하게 하소서.”⁸⁰

기록이 세종 5(1423)년인 만큼 그때까지 판목이 전래된 것은 없었던 듯하다. 또 2종의 내용 즉 화어의 말됨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이것이 그보다도 이전인 원나라 때의 저술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⁸¹

“이창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명령을 받고 한어를 두목 대경(戴敬)에게 질정하는데, 대경이 노걸대와 박통사를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원나라 때의 말이므로, 지금의 중국말과는 매우 달라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여, 즉시 지금의 말로 두어 귀절을 고치니, 모두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청건대 한어에 능한 자로 하여금 모두 고치게 하소서.”⁸²

라고 한 것이 있으니 그 말됨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변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책 그대로는 시용에 맞지 않으니 이것을 맞도록 고쳐야만 당시에 사용되는데 용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책이 판본 아닌 사본으로라도 고려 말부터 벌써 있어온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점이 그 하나이니 《노걸대》 원문 중에도 고려 왕경에서 왔느니 고려인이니 하는 실용 어례가 있는 것으로

년 6월 21일.

80 “禮曹據司譯院膝呈啓, 老乞大朴通事, 前後漢直解孝經等書, 綠無板木, 讀者傳寫誦習, 請令鑄字所印出.” 《세종실록》 세종 5(1423)년 6월 23일.

81 원나라 시대에 인간된 한어본 《노걸대》가 대구에서 발견되어 경북대학교출판부에서 영인 출판하였다. 정광·남권희·양오진(2000), 〈원대 한어본 《구본노걸대》-신 발굴 역학서 자료, 《구본노걸대》.

82 “侍讀官李昌臣啓曰, 前者承命, 質正漢語於頭目戴敬, 敬見 老乞大, 朴通事曰 此乃元朝時語也, 與今華語頗異, 多有未解處, 卽以時語改數節, 皆可解讀. 請令能漢語者, 盡改之.”, 《성종실록》 122권, 성종 11(1480)년 10월 19일.

보아 이것이 그 사실을 아울러 정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로는 이때에 즉 최세진이 언해할 때에 전부 시용에 맞도록 변개하지 않았다. 생각되니 이렇게 생각하면 최세진이 이 《노걸대》와 《박통사》와 《노박집람》을 편찬하고 언해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성통해》의 부록으로 있는 《번역노걸대》, 《박통사》 범례에서 보면 “국음, 한음, 언음, 방점, 비(非)뵐, 봉(奉)뵐, 미(微)뵐 삼모(三母)”, “청탁 성세지변(聲勢之辯), 뵐뵐는 종성으로 하고(뵐뵐爲終聲), 정속음(正俗音), 支, 紙, 寘 삼운내(三韻內) 치음(齒音) 여러 글자” 등으로 갈라서 논하였으니 평, 상, 거, 입의 사성과 유모(喻母)의 ‘ㅇ’와 양모(穰母)의 ‘ㄷ’와 또 《사성통고》와 《흥무정운》과 몽고운과 함께 관련 있음을 말하였다.

이 번역 범례는 여러 문제를 해결 짓는 자료로서 귀한 것이다. 이 책들의 해제를 달리 자세히 했기로 여기는 이것만으로 약한다.⁸³

2. 《사성통해》

다음으로 《사성통해》는 어떻게 저작된 것인가 하면 먼저 그 경로가 이리하다. 세종대왕께서 신숙주에게 명하여 모든 한문자를 부류에 따라 모으고 사성에 따라서 청탁을 나누며, 매 글자에 국음(國音)을 달아 자모로써 표시하게 하고 이 책을 《사성통고》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한어를 학습하려는 자에게 있어서는 《노걸대》와 《박통사》를 그 맨 처음의 제1계단으로 사용하니 이 2종 책에 의하여 한어를 학습하는 자는 반드시 《사성통고》를 참고하여 한음의 정속(正俗)을 가려서 정하도록 되었다 한다. 그런데 《사성통고》가 당시의 한음에 있어서 그 정속을 분변하는 데는 필요한 책이지만 달리 이 책의 단차가 있었다. 즉 《사성통고》의 내용을 보면 그 여러 글자의 자음은 표시되어 있지만 해석이 없다. 여기서 최세진이 이 통고의 불편한 이 단차(단점)를 제거코자 하여 수정을 계획하고 손댄 것이 이것이다. 옛문에 따라 이것을 정정하고 더욱이 음해를 여기에다 함께 가입하여 4년이란 세월을 걸려서 겨우 한 책을 편찬하니 이것이 바로 이 《사성통해》라고 하는 책이

83 정광-윤세영(1997), 〈사역원 역학서 책판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다. 오늘날 우리는 전자인 《사성통고》는 보지 못하고 이 통해를 보니 이 통고와 통해의 사이에 있어서 그 두 책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요컨대 신숙주 편인 《사성통고》에다 수정을 곳곳에 더하고 거기에다 음해를 부기하여 표시한 것이 바로 이 《사성통해》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 원간본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 후일의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 인본으로 활자본과 목판본의 2종이 있다. 그런데 현존한 책으로는 전부하여 모두 한 56질이 있는 듯한데 그것이 전부 2책으로 되었으나 원래 편찬 당시에는 이 2책 외에 다시 옥편이 한 권 붙어있던 것을 통해 서문을 보아서도 알 것이지만 현존한 것은 아직 옥편까지 붙은 완질은 못 보았다. 생각컨대 혹은 《운회옥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지도 불분명하다.

이 《사성통해》의 가치로 보면 나는 대개 네 가지 점에서 특히 큰 것이라 보는 바이다. 첫째로 《사성통고》의 범례와 《노걸대박통사》의 범례를 부가한 점이 이 방면 참고문헌 상 중요한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고, 둘째로 《몽고운략》⁸⁴ 등 각종의 운서를 참고하였으며 그것을 비교하였으니 오늘에 현존하지 않은 이런 인용서로 인하여 이 운학 방면의 전공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점이고, 넷째로는 조선어학사료로써 그 자료로서의 가치는 크다. 이 두 책 속에 들어있는 우리말의 단어로만해도 군데군데서 주어 모으면 450여 어휘나 들어있으니⁸⁵ 고어 연구 상 큰 참고 자료이다. 이상의 네 가지의 가치로만도 이 책은 귀중한 존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저자의 위치는 점점 높음을 알게 될 뿐이다.⁸⁶

3. 《훈몽자회》

다음으로 《훈몽자회》는 그 이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글자 모

84 《몽고운략》: 조선 중종 때 최세진이 간행한 《사성통해》에 그 서명이 보이지만 실전되어 전하지 않는다. 원나라의 주종문(朱宗文)이 지은 《몽고자운》(1308년)은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간기가 “至大 戊申 清明前日”에 따르면 원나라 武宗 원년(1308)에 간행되었다.

85 ‘蠨바·다라·벌, 洪 시·위나·다, 蚣 회 초미, 菴 눈비얏, 蓄 슬웃’ 등 450 여개의 어휘가 실려있다. 박태권(2008), 《국어학사연구》, 세종출판사, 참조.

86 유창균(1981), 《몽고운략과 사성통고의 연구》, 형설출판사, 강신항(1973), 《사성통해연구》, 신아사.

듬이다. 《천자문》과 《유합》이라는 책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기에 단차가 많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저작된 것이니 즉 《천자문》과 《유합》과 같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데 쓰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정된 자회이라 할 수 있다. 상중하 3권으로 되어서 3,600자의 한자에 국문으로 뜻과 음을 달았다. 그리고 이 《훈몽자회》에는 목판으로 현존한 것이 5~6종이나 되어서 시대를 내려올수록 국문의 오자가 늘어간다. 최후 판본이라고 할 만한 광문회판본은 실로 그 오자가 해독하기조차 어려운 데가 많다. 이 《훈몽자회》에 관해서는 달리 자세한 해제를 했기로 여기는 훈민정음의 변천에 관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 긋는 중요한 존재이다. 이 《훈몽자회》 범례에 발표된 것이 오늘까지 전해오는 우리 글자의 근본을 지었다.⁸⁷

4. 《운회옥편》

이 책은 그 명칭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다만 운회에 나타나 있는 여러 글자를 수취하여 편찬한 그런 옥편인 만큼 다른 일반의 옥편과는 그 형식이 다르다. 그 한 예로 보아서 음과 해(解, 뜻풀이)를 부가하여 넣지 않았다.

“옛 옥편은 널리 여러 글자를 모아 음해를 달아 지은 때문에 운회에 글자는 음해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운모를 짓고 이후에 운으로 글자를 찾아 거기에 자석이 있다.”⁸⁸

라고 하여 《운회》라고 하는 책에 달리게 만든 옥편인 만큼 즉 오늘의 소위 색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형식의 책이므로 《운회》와 분리시켜 가지고는 그 효용의 전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금운회거요》라는 책에 보면 이 책에 언제든지 붙어서 한 질의 책으로 통행해서 쓰게끔 되었다. 간혹 이 옥편만으로 다니는 것은 그것은 물론 낙질의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 옥편이 물론 《운회》에 충실히 의충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작자는 일부의 정정도

87 이기문(1971), 《훈몽자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88 “古之玉篇，廣收諸字，故必著音解，今撰玉篇，只收韻會所受之字，故不著音解，只著韻母，使知所在之韻，然後尋韻得字，則釋在其中矣.”，《운회옥편》 서문.

하여 혹 결락된 글자가 있으면 이것은 보충하고 또 달리 이 책(운회)에 빠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수보하였고 또 착오된 대가 있으면 이것은 교정하였다. 그 범례에도

“운서의 여러 글자는 다른 운서에서 나누어 받아드려 그 주에 달았으니 운모로 구분하여 짓되 결락된 글자가 다수여서 지금의 각 글자 아래 운모로 상세하게 나누었다. 비록 본문의 분류나 착오자가 혹 덧붙이거나 혹 바르게 잡았으니 본문에 실리지 않은 것은 없다.”⁸⁹

라고 하여 혹 가입 혹 수정한 것을 명시하였다.

5. 《이문집람》

다음으로 《이문집람》⁹⁰이 중종 34(1539)년 7월 일의 서문을 붙이고 간행되었으니

89 “韻會諸字，分收他韻者，其註內，必著分收韻母，而間有缺落者多 今於各字之下，詳著分收韻母，雖本韻之收及錯誤者，或加或正之，勿以本韻不載爲疑也。”，《운해》 범례.

90 《이문집람(吏文輯覽)》: 《이문》은 명나라와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모아놓은 책으로 최세진이 이문의 학습 참고서로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중종 34(1539)년에 《이문집람》 권2~4와 《이문속집집람》 1권으로 된 4권 1책으로 《이문》에서 어려운 어구를 뽑아서 풀이한 책이다. 첫머리에 실린 최세진의 집람 범례에 의하면 어려운 어구를 상고하여 풀이하고 모르는 것은 승문원 소장의 《각년질정록(各年質正錄)》을 참조하여 풀이하였다고 한다. 또한, 권1이 없는 것은 《이문》 권1이 한어, 곧 중국어인 선유성지(宣諭聖旨)이므로 이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집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문》의 분량이 많지 않은 데다, 그 중에는 당시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으므로, 홍치가정 연간의 문서에서 이문을 가려 《이문속집》을 편찬한 뒤에 그 집람도 만들었다고 한다. 요컨대, 이 책의 편찬으로 이문의 학습서와 그 참고서가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람이란 《노박집람》 등의 예에 따라서, 표제어 아래 한문의 협주를 다는 방식이다. 그 주석에 간혹 ‘향명’, ‘향언’, ‘속언’이라 하여 고유어를 한글로 적어서 대응시키거나, 독특한 이두어와 우리나라의 한자어를 대응시킨 것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명나라의 속어에 대한 참고서일 뿐만 아니라, 국어사자료로서도 가치를 가진다. 원간본은 1539년 간행되었을 것이나 전하지 않고 중간본이 전한다. 현재로는 16세기 중엽의 간행으로 보이는 《증정이문집람》이 가장 빠르다. 이 책은 갑인자본으로 동국대학교 소장본이다. 흔한 것은 간기가 없으나 판식 등으로 미루어 을해자본의 복각으로 보이며 17세기 중엽의 목판본이다. 따라서, 원간본은 《노박집람》과 마찬가지로 을해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모든 중간본은 방점은 없지만, ‘△’이 정확히 사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협주에 나타난 약 80여개의 고유어는 물론이거니와 이두어와 한자어 역시 중세국어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책은 1942년 《훈독이문》에 부록으로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구병진(2013), 《이문역주》(상), (중), (하), 세창출판사와 정광·양오진(2011), 《노박집람 역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패관잡기》에

“모든 이어 및 중국의 대소 관제를 각 서적에 보이는 것은 매우 자세히 주석했으므로 이 책을 펴 보면 분명하니, 이른바 객은 돌아가기 마련인 것과 같다는 것이다.”⁹¹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며, 또 수집하여 실은 한어는 홍치 가정 연간(1488~1505)에 통용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였으니 그 범례에

“이문의 구조(옛 초를 잡은 것)가 많지 않으며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초를 더하여 홍치 가정 연간에 인출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문자를 학습하는 책으로 만들었다.”⁹²

라고 하였다. 이 《이문집람》도 자세한 해제는 달리 했기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미 상술된 바 있거니와 그밖에도 중종 19(1524)년 《친영의주》 2건과 《책빈의주》 1건을 언해한 일이 있고 또 중종 27(1533)년에는 《번역여훈》(1532년)을 진상하여 인쇄한 일도 있다.

“오위장 최세진이 《여훈》을 번역하여 진상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교서관에서 인쇄 하라고 하였다(五衛將崔世珍進翻譯女訓, 傳曰, 令校書館印刷).” 이와 같이 이 작가 최세진은 그 저작의 10 여종을 통하여서 그 학적 위치가 얼마나 높게 올라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작서를 종합해 보면 최세진은 과연 큰 학자였다는 것을 누구나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저서의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 수에 있어서도 참으로 많거니와 그 질로 보아서도 진실로 중요한 것뿐이다.⁹³

나는 이상에서 대개 그의 출생 연대 즉 그의 활약 시대를 먼저 추정하였고 다음으로 출세 즉 관리로서의 생활이 어떠하였는가를 알았고 다시 그가 그 당시 국가 학

주), 태학사, 양오진(2011), 《노걸대박통사연구》, 태학사.

91 “凡吏語及中朝大小官制之見於各書者, 註釋頗詳, 開卷了然, 殆所謂如客得歸者也.” 《패관잡기》 제2권.

92 “吏文舊抄不多, 又有不合時格者, 故今加抄出弘治嘉靖年間中, 中朝及本國文字, 於時習者, 以爲續集.”

93 《이문》(1658년), 《이문대사》(17~18세기), 《전율통보》(1786년), 《고금석립》(나려이두)(1978년), 《이문집례》(18세기 이후), 《유서필지》(19세기), 《오주연문장판고》(어록해변증설)(19세기) 등의 자료가 있다.

적 위치를 높이 우러러 보게 되었다. 한미한 그 집안에서 출생하여서 그와 같은 대학자가 되어 그 이의 성의와 노력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훈민정음의 제2기를 크게 획한데 대해서 우리 국어학의 역사적 단계로 보아 누구나 그를 그 자리에서 떼지 못할 그러한 뚜렷한 존재이다. 나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00주년이 되고 《훈몽자회》가 저작된지 420년이 되는 제7주갑인 올해를 당하여 이 해에 먼저 우리 어학의 공로자를 생각하고 기념하고자 하여 이 글을 초하는 바이다.

제3절 《송강가사》

이 《송강가사》란 무엇을 가지고 이름지었나 그것은 물론 송강 정철(1536~1593)의 저작인 가사들을 가르쳐 말함이요, 이들의 가사를 한데 모아서 한 권을 이룬 그 책을 이름이다.

그 가사들이란 것은 무엇무엇인가? 그것은 이 책의 내용 목차에 의하여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장진주사〉와 및 단가들을 총칭하여 말함이니 이것들을 모두 한 권에 모은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송강가사》 그것이다.

이 책을 저작한 이는 그 성은 정이요, 그 이름은 철이니 송강이란 그의 호이다. 조선 중종 31(1536)년에 경성에서 출성(출생하여 성장)하여 김하서와 기고봉에게 그 학을 수하였고 이율곡과 성우계와 가장 친하였다고 한다. 선조 임진란 후 1593년에 58세로 그 일생을 마쳤다.

그러면 이 가사는 어느 때에 저작되었는가? 물론 일시의 이들 장단(장가와 단가)과 단가가 지어진 것은 아니겠지마는 도무지 이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 없는 만큼 때 가사에 있어서 그 저작된 연대를 밝히기는 심히 곤란한 점이 많다. 문헌상에서 보면 작자는 그 31세 때에 ‘봉사관북(奉使關北)’ 조에

“북로에 있을 때 우연히 단가 1수를 지으니(在北路 偶作一短歌 未幾明廟賓天 蓋亦歌識也)”

라고 한 것을 보아 공은 나이 30 전후에 이미 이와 같이 작가에 펍 유의하였던 것

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처럼 젊었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의 행장에 의하면 45세 시에 강원도 관찰사로 간 일이 있는 만큼 <관동별곡>의 내용에 비추어 혹은 이것이 그 후의 작일 듯 한 것이며, 또 <사미인곡>, <속미인곡> 같은 것에 관하여는 ‘기암답택당(崎菴答澤堂)’에 의하여 보면 이것은 공이 51세 시절에 지어진 것인 듯도 하며, 또 그 단가에 있어서는 <경민편>에 의하면 우 단가 16수는 즉 선조 조 상신인 정철이 강원 감사로 있을 때에 소작이라고 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가사는 결국 공의 일생을 통하여 때를 따라 지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줄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현존한 이 책을 보면 다만 2종의 이판이 전할 뿐이다. 그러면 이 책은 어느 때에 간행이 되었을까 하는 문제이니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공이 살아 계실 때에 간행된 일이 있는 것인가? 둘째로 그 문인(문하생)의 손에서 혹은 그 자손의 손에서 그렇지 않으면 혹 다른 방법으로서 공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것이 간행된 것인가?

이제 이 판본에 관한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북관본이 있었음을 알겠으니 그것은

“공이 지난 북관에 있을 때 가곡을 간행하였는데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미 오랜 옛날 일이나 병란을 지내며 그 책을 잃어 전하지 않는데 그 성의가 애석하도다”⁹⁴

라고 한 것을 보아 그 간행 연대가 어느 때인지 확실한 연대를 찾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선(李選, 1632~1692)이 그 발을 쓴 그 책보다 먼저인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둘째로 관서판본이 있었음을 알겠으니 그것은 《누판고》의 기록에 ‘관서관찰영장’으로 된 것에 의하여 추측되는 것이다. 셋째로 의성본이 있었음을 알겠으니 이 판본은 성주본의 발문에 의하여 추측되는 것이다. 셋째로 의성본이 있었음을 알겠으니 이 판본은 성주본의 발문에 의하여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94 “北關，舊有公歌曲之刊行者，而顧年代已久，且經兵燹，遂失其傳，誠可惜也”，《송강가사》 성주본 발문.

“재종형 재의가 살던 곳에서 생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애석하게도 여러 가지 판본을 널리 구하지 못해서 내용이 달랐으니, 부족함이 있어 후의 것으로 미심쩍으나 남은 것은 곧 옛부터 집에 보관하던 것을 취하여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잘못이 많은 것을 교정을 보아서 전해오던 노래를 잃어버린 것도 많았으며 또 단가(短歌)도 많았는데 잃어버린 것이 많았다.”⁹⁵

라고 하여 송강의 현손(직계 손)인 천(漣)의 재종형되는 호(濤)가 의성(경북 의성)의 원이 되었을 때에 간행된 것이니, 이것은 현존 2종 판본 중의 그 하나인 듯하다. 넷째로 황주판본이 있었음을 알겠으니 역시 성주본의 발문에서

“자형 이이하, 계상 씨는 청강(淸江)의 후손으로, 황주 통판(通判, 지방 감독직)이었는데, 〈중략〉 이를 간행하여 배포하였는데 그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⁹⁶

라고 한 것을 보아 천(漣)의 자형이 된 이이하(李微夏)가 황주에서 간행한 것이니 이것은 판서본이라고 할 만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미상하다. 다섯째로 성주 판본이니 이것은 현존한 책의 거의 전부가 이 판본이다. 이것은 송강의 오대 손되는 성주목사 관하(觀河)의 추기(追記, 추록 기사)가 부기된 것으로 1권을 상하로 나누었다. 여섯째로는 현존한 2종 판본 중의 그 하나이니 이것은 위에서 기술한 5종에서 성주본을 제외한 4종 판본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되나 정확한 기록을 얻을 수 없으므로 혹은 의성본인지도 알 수 없다.

여기서 이 현존된 2종 본의 그 판의 비교는 달리 기술한 데도 있으므로 생략하고 이제 극히 간단히 그 내용의 한 예로 먼저 〈장진주사〉를 들어보면 이렇하다.

95 “再從兄濤之宰義城也。爲是之應刊以行之，而惜其不廣取諸本質其同異，有不足以徵信於來後，餘卽就家中舊藏，兩校正之則舛誤之多，反有甚於傳頌之失其，眞且其短歌多有見逸者”，《송강가사》 성주본 발문.

96 “姉兄李微夏季祥氏以淸江後孫，〈중략〉 通判黃州，取以刊布，其意非偶然也”，《송강가사》 성주본 발문.

〈장진주사〉⁹⁷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 그려, 이 몸이 주근 후면 지
게 위에 거적 덮여 줄리어, 메여가나 유소보장(流蘇寶帳, 술이 달린 비단 장막)의 만인이 우려네
나 어욱 속새 덮가나도 백양 속에 가기는 곧 가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굴근 눈 회오리바람 불
제, 어제 뉘 한 잔 먹자할까.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제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또 끝으로 단가 중에서 몇 개 예를 들고자 한다.

이고 진 저 늘그니 짐 푸러 나를 주오
나는 점었거니 돌히라 무거울까
늘거도 설웨라커든 지물 조차 지실가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도 무거울까
늙어도 설워하거늘 짐 조차 지실가

쓴 다물 데운 물이 고기도곤 마시 이서
草屋 조븐 줄이 더욱 내 분이라
괴다만당 님 그린 타스로 시름 겨워호노라

쓴 나물 데운 물이 고기보다 맛이 있어
초옥 좁은 줄이 더욱 내 분수라
그 집에 가득한 님 그린 탕으로 시름 겨워하노라

97 〈將進酒酒辭〉 한觥 먹새 그려 또 한觥 먹새 그려 곳 것거 算산노코 無무盡진無무盡진 먹새 그
려 이 몸이 주근 後후면 지게 우희 거적 덮혀 주리혀 메여가나 流류蘇蘇寶寶帳帳의 萬만人인이 우려
네나 어욱 속새 덮가나도 白백楊楊양 속에 가기 곳 가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굴근 눈 소소리바람 불제
어제 뉘 한觥잔 먹자할고 하물며 무덤 우에 잔납이 파람 불제야 뉘우친들 었디리

제4절 후반기 통설

다음으로 제 2기의 후부로 들어가면 첫째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문헌상으로 판이하다. 고어 어휘의 취사에 있어서 임진란 이후의 차이는 확실히 현저하다. 임진난 후로 본다면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첫째 방점이 빠져 없고, 둘째로 ‘ㄹ ㅎ’의 받침이 안 보이고, 셋째로 순경음을 안 썼고, 넷째로 ‘ㅇ’을 ‘ㅇ’에 혼입시켰고, 다섯째로 글자체의 주위가 없어졌다고 보겠다(즉 ㅅ을 ㅅ, ㅅ의 구별 같은 것을 이름).

둘째로 이 후기에 있어서 특기할 것은 신경준이 지은 영조 26(1750)년의 《훈민정음운해》와 유희가 지은 순조 24(1824)년의 《언문지》의 출현이다. 과연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이 후기까지에는 이 훈민정음만을 가지고 순전히 논한 책으로 단행본으로 된 것으로는 단지 이 두 책이 있을 뿐이 아닌가 한다. 이 두 책의 존재는 이 점만으로도 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이 시기에 들어서는 한문 학습에 관한 교과서의 정비를 말하게 되니 《천자문》, 《유합》 같은 자회류에 언해한 것도 있으며, 《계몽편》, 《사략》, 식구 등을 해석한 것도 있고 점차 사서, 삼경의 각 언해를 시작하여 정조 조에 이르러 일층 그 정리를 가한 것이 드러난다. 이리하여 한문도 좀 더 조선화하기에 노력한 형적이 완연히 드러난다.

넷째로 이 시기에 들어서는 가곡류의 성행을 들게 되나니 《악학궤범》 이후 정철의 송강가사에 나타나는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장진주사〉 그 밖에 단가 등이 있으며, 또 노계 가사와 고산 윤선도의 가사도 있고 그 후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류》 등이 있다.

다섯째로는 역어 관계를 말하게 되나니 《역어유해》(1690년), 《동문유해》(1748년), 《한청문감》(1779년), 《몽어노걸대》(1741년), 《청어노걸대》(1704년) 등 문헌이 우리 말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이 있다.[미주6]

여섯째로 운서와의 관계를 들지 않을 수 없으니 근본부터 훈민정음과의 관계가 그 제작에서부터 깊은 것이며, 《홍무정운역훈》과 《동국정운》 이래 《예부운략》⁹⁸, 《삼

98 《예부운략(禮部韻略)》: 중국 송나라 정도(丁度)가 지은 《배자예부운략》이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부터 애용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 《배자예부운략》의 체제를 개편한 《삼운통고》도 널리 애용되었으

운성휘), 《화동정음통석운고》, 《규장전운》에 이르기까지 이 방면과의 관계가 깊어 가지고 왔다.

일곱째로 의서 방면에 《향약구급방》, 《향약채취월령》, 《의방유취》⁹⁹, 《향약집성방》 이후에 《동의보감》¹⁰⁰, 《태창집요》, 《태창경험방》, 《춘가방》 등과의 관계를 들여다 겠다.

여덟째로 농서 방면이니 《농가집설》, 《구황촬요》¹⁰¹, 《산림경제》¹⁰², 《색경》¹⁰³ 등에서 우리말과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

아홉째로 전기 소설류이니 〈춘향전〉, 〈홍부전〉, 〈장끼전〉 그 밖에 번역소설류 등

나 이를 중국 자음과 한국 자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보전한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1747)가 생겨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다. 국내판으로 가장 오랜 것은 세조 10(1464)년의 간지를 가진 복각본이다. 이 복각본에 있는 ‘大德庚子’(고려 충열왕 26(1300)년)는 원나라 판이다. 이 밖에 중종 19(1524)년 등 많은 중간본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옥편을 덧붙여 《신간배자에부운략옥편》이라 한 책도 있다.

99 《의방유취(醫方類聚)》: 세조 15(1433)년 《향약집성방》을 완성한 후, 다시 한방 의서들의 유취를 편집하기 위하여 집현전 부교리 김예몽과 저작 유성원 등에게 명하여 의방을 수집 편찬케 하였으며, 뒤에 다시 집현전 직제학 김문, 신석조와 부교리 이예, 승문원 교리 김수온, 의관 전순의, 최윤, 김유지 등에게 편찬케 하고, 안평대군 용과 도승지 김사철 등에게 감수케 하여 세종 27(1445)년에 완성한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으로 총 266권 264책이다.

100 《동의보감(東醫寶鑑)》: 선조 29(1596)년에 태의 허준이 왕명을 받아 유익인 정작(鄭階), 태의 이명원(李命源), 양예수(楊禮壽), 김응탁(金應鐸), 정예남(鄭禮男) 등과 함께 찬집하였는데, 정유재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그 뒤 선조가 허준에게 다시 명하여 계속 편집하도록 하였으며, 내장방서 500권을 내주어 고증하게 하였다. 허준이 전심전력하여 광해군 2(1610)년에 25권 25책 목판본으로 인출, 널리 반포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간본으로는 내의원 훈련도감할자 초간본(1611~1613), 호남관찰영 전주장본, 영남관찰영 대구장본, 갑술 내의원 교정 영영개간본(1814), 갑술 내의원 교정 완영중간본(完營重刊本) 등이 있다. 《동의보감》의 제22~24권의 3권 3책은 탕액편으로 향약명 649개가 한글로 적혀 있어 국어사 연구에 도움을 준다. 1986년에 태학사에서 1613년의 활자본 및 그 이후의 중간본을 탕액판만 모아 영인한 적이 있다.

101 《구황촬요(救荒撮要)》: 《구황촬요》 명종 9(1554)년에 진흥청에서 흉년에 대비하여 기근을 구제하기 위한 방략을 언해본(한글)으로 간행한 1권 1책 목판본이다.

102 《산림경제(山林經濟)》: 조선 숙종 때 실학자 홍만선(洪萬選)이 엮은 농서 겸 가정생활서로 4권 4책, 필사본이다.

103 《색경(穡經)》: 숙종 2(1676)년 박세당(朴世堂)이 지은 농서로 2권 2책이다. 이 책은 농사에 관한 경서라는 뜻으로 색경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지방의 농경법을 연구하여 꾸민 농법기술서로서 서문과 상, 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이 많이 이 시대에 나타나 있다.

이 밖에 병서로 《병학지남》, 《무예도보통지》 등이 있고 《운음》류 오류 방면, 문집에 나타난 것, 또 총서류 예를 들면 《용제총화》(성종), 《지봉류설》(선조조), 《순오지》, 《성호사설》, 《여유당전서》, 《주영편》, 《청장관전서》(이덕무), 《오주연문장전산고》(이규경), 《송남잡지》 그 사적과의 관계에서 우리말과의 관계를 찾아보게 된다.

지면상 관계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약술했거니와 다음으로 훈민정음과 이 시대에서 관계있는 인물을 보면 위에 나온 사람 외에 명곡 최석정(1646~1715) 같은 이는 《경세정음도설》을 지었고 이제 홍양호(1724~1802) 같은 이는 여기에다 그 서로 발음 기관의 기원한 것을 주장하였다. 이외에 박성원(1697~1757), 안정복(1712~1791) 같은 이도 있다.¹⁰⁴

이상을 종합해보면 문학, 어학, 역어, 농서, 병서, 총서의 제류에서 우리말과의 관계를 찾게 된다. 좀 더 요약하면 제2시대의 전기는 《훈몽자회》와 훈민정음과의 비교에서 그 현저한 것이 있고 그 후기에는 《훈민정음운해》와 《언문지》의 재고에 의하여 드러날 것이 있다고 본다. 다시 연대 상으로만 본다면 제2시대의 후기가 가장 긴 기간이지만 훈민정음 그 자체에는 그만큼의 발전을 하지 못하였다. 모두 《훈몽자회》의 보인 바대로 지쳐온 데 불과하다고 보겠다.

이제 다시 이들의 사실을 연대적으로 우선 통털어 보면 불교는 점차로 더욱 그 형태를 산중으로 숨기는 데 반하여 유교는 확실히 그 전체를 가두로 적극적 진출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보겠으며, 그 사조 상으로 논해도 정신 방면에서 점차 실제의 방향으로 움직여 내려간 것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융차결한 맛이 없어지고 실제 사리의 방편으로 이것을 혹은 고상한 맛이 없어지고 차츰 좁혀 들었다고 말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형편으로 보여 진다. 이 시대의 초기부터는 당쟁이 분명해져서 세상은 갈수록 분주는 하면서도 그 대국적으로 여러 방면에 진전을 보여 주지는 못하였다. 더 논하지 않거니와 이와 같은 세태로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104 속중 연간에 실학자인 병와 이형상의 《자학제강》, 《약학편고》, 《훈민어》(실전), 《병와집》 등의 약학에 바탕을 둔 논의도 있다.

의 어학적 방면으로 연대적으로 내려와 보면 임진란 후로는 불교 방면에 의한 언해같은 것도 물론 보기 드물어져 가는 동시에 유교 위에서 논하는 ‘예(禮)’에 대한 논쟁 같은 것이 머리를 들게 되었다.

선조 조 말년은 난후 수습에 골몰하여 별로 이렇다할 것이 없고 다만 한문 학습의 교과서를 정리하는 정도로 지냈고 광해군 때에 들어서면서 의학 방면이 현저히 행하게 되어서 유명한 《동의보감》(1613)같은 대저를 위시하여 이 방면의 좋은 간행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조, 효종 2조를 합하며 보아도 다만 병서나 농가 방면에서 우리말을 극히 일부의 단어로 인용된 것이 보이는 정도이다.

현종을 지나서 숙종 때에 오면 우리말을 다만 역어 관계의 서적이나 운서에 인용하여 그 음이나 현토하는 그런 정도에 사용하는 문자로 나타날 뿐이다. 그런데 다만 명곡 최석정이 《경세정운도설》이라고 역시 운을 논하는 데 우리 문자를 사용한 기록이 있음이 오히려 특례라 할 만하다.

경종을 지나서 영정 때에 들어오면 《반계수록》이나 《산림경제》와 같은 방면의 서적이 성행되어 여기에 이용되었고 특히 정조 때를 아울러서 활자를 주조하면서 경서의 언해 방면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니 여기에서 우리의 문자를 이 방면과 역어류에서 엿볼 수가 있다. 이 동안에 신경준(1712~1781)의 《훈민정음운해》가 귀중하게 끼어있다. 이 영정 2대의 긴 동안을 거치어 순조 대에 들어오면 그 24년에 유희(1773~1837)라는 이가 지은 《언문지》라는 것이 우리말 방면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모저모를 종합하여 보아서 그 기간은 비록 길다 하겠지마는 그 동안에 훈민정음 자체 상에 발전으로는 이렇다할 만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그 후 80년에 《훈몽자회》가 나타나서 실용화를 주도하였는 바 그 후는 계속하여 이것에서 큰 변동이 없이 또 300여 년을 지낸 셈이다.

제5절 운서

운서가 훈민정음의 창제와 관계가 깊은 것은 이미 여러 번 말한 바이지만 이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그 관계도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이 운서와 훈

민정음과의 관계를 사적으로 전후를 통하여 고찰함도 중요한 일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그 후자인 즉 훈민정음이 제작된 후에 훈민정음이 운서에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바이다. 그러면 제한된 지면에 이 후자에 관한 것도 전부를 통론할 수도 없으므로 그 문헌 중의 한두 책을 들어서 써 그 윤곽을 살펴볼까 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용된 운서를 보면 중국의 《운회》와 《예부 윤략》과 《홍무정운》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고 관계되었다.

또 우리나라의 운서를 보면 세종대왕 때에 제일 많이 이것을 편찬하여 간행하고 번역하여 한자의 우리말음과 그 본음을 정리한 것이 드러나고 그 후로는 중종 때에 최세진이 《사성통해》와 《운회옥편》 등을 편찬하여 한음의 정속을 밝히기에 그 정력을 다한 것이 나타난다. 그 후는 숙종 이후에 또 이 방면의 관심을 가진 것이 보이니 생각컨대 최석정이 《경세정음도설》은 훈민정음과 관련을 지어 숙종 4(1678)년에 간행된 《배자예부윤략》에는 그 권말에 훈민정음 예의와 《황극정세서》를 부록으로 실어서 그 상호의 관계 내용을 말하였고 영조 때에 이후는 이들 《사성통해》와 《삼운통고》를 기초로 하여 편찬된 《화동정음통석운고》와 《삼운성휘》 등이 그 현적인 것들이고 그 후에는 정조 때에 《규장전운》을 명찬한 것이 이것이 운서에 치중된 *꼬트머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간단히 《화동정음통석》과 《삼운성휘》를 들어 논해볼까 하는 바이다.[미주12]

1. 《화동정음통석고》

이 책은 그 자서에 의하여 영조 23(1747)년 정묘에 처음 저작이 되어 정조 11(1787)년에 <정조대왕어제서>(본서와 《홍제전서》 권9를 권수에 두어서 출판된 것이니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보면

“박씨 성원의 《정음통석》 정종 어제 서에도 화동정음 서 등이 모든 운학에서 뛰어난 저서라 하였

다.¹⁰⁵

라고 처음에는 2종의 별도의 책이 각각 있는 듯도 보이고 《증보문헌비고》에서 보면

“박성원이 찬한 책으로 《화음정운》이라고 이르기도 하는데 상께서 《정음통석》¹⁰⁶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¹⁰⁷

이라고 하여 오묘인 듯이 보이는 글자도 있으나 여기서 1권이라고 하여 전자에 2권이라고 한 것과는 권수의 차이가 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에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첫째로 이 책에는 각 음 아래에 ‘언주(諺註)’라고 하여 오른쪽에 중국 음, 왼쪽에 우리 음인 정음을 가지고 달았으니 이것이 두 음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속음을 두주로 내어 참고하게 하였으니 이 점은 《아정유고》(권5-26)에도

“근세에 박성원이 지은 《정음통석》에서는 한음 즉 이언(현실음)을 없애지 않고, 우리나라 한자음의 속음을 특별히 보였으니”¹⁰⁸

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05 “朴氏性源, 有正音通釋, 正宗御製序文, 又有華東正音等書, 皆韻學之旁照者也”, 《오주연문장전산고》

106 《정음통석(正音通釋)》은 이 책은 박성원이 이언용의 도움을 얻어 지은 운서로서, 본래 이름은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이다. 영조 23(1747)년에 처음 간행되었고, 정조 11(1787)년에 정조의 〈어제정음통석서(御製正音通釋序)〉라는 서문을 붙여 비각에서 다시 간행한 이 책은 1787년에 인출되었으며, 25.4×16.3cm 크기로 국립중앙박물관(유물번호(신수(新收)-015358-000))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는 규장각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시대 초에 걸쳐 활동한 연안 이조승(李祖承)의 도장도 찍혀 있으며 장서인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중국 음(華音)과 한국 음(東音)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며, 속지 첫 쪽에 사성표가 붙어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속음화된 450자 이상의 한자음도 주석을 달아 표시하고 있어, 우리 한자음을 변별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107 朴聖源撰本, 稱音正韻, 自上賜名正韻通釋, 《증보문헌비고》.

108 “近世朴性源, 正音通釋, 華音則不刪俚音, 東音則特揭俗音”, 《아정유고》(권5:26)

셋째로 순음에 새로 ‘◇’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니 만일 이 글자를 시인한다면 훈민정음의 자수는 또 한 자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그 〈오음 초성〉의 조에서

“우순음 ㅁ ㅍ ㅓ ◇(羽唇音 ㅁ ㅍ ㅓ ◇)”

라고 하며 순음에 편입시키고 따로

“ㅇㅇ◇ 세 글자는 소리가 서로 비슷하여 이를 나타내는 글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나, 각우궁 세음에 나란히 이 초성이 있으므로 그 음대로 글자 모양을 조금 바꾸어 소속을 별도로 하였다.”¹⁰⁹

이라고 하여 ‘◇’를 새로 제정할 것을 말하였으니 이 점이 특히 고려할 바인가 한다.

넷째로 오음 ‘궁, 상, 각, 치, 우’와 ‘아, 설, 순, 치, 후’를 관련시켜 논하고 우리 음에는 오음 청탁의 분별을 알지 못하므로 ‘ㄴ, ㄷ’와 ‘ㄷ, ㅌ’를 오작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는 권말에 〈언문초중삼성변〉이라고 제목하여 〈초성중성통용팔자〉와 〈초성독용팔자〉와 〈중성독용십일자〉 각운 중성으로 나누어 논한 것이 있으니 권두에 있는 오음 초성의 범례와 같이 훈민정음과의 관계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화동정음통석》과 훈민정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본 것이니 그 글자 수 상에서 보면 《훈몽자회》와 같이 27자로 〈이삼성변〉에 기입되어있으나 그 〈오음론〉에서는 ‘◇’를 순음에 넣어 28자로 되어 있다. 즉 훈민정음에서 ‘ㅎ’자를 삭제하고 새로 ‘◇’만든 모양이 된다. 물론 《화동정음통석》은 한자의 음을 바르게 하는데 중력(重力, 힘을 기울인)한 것이니 이 책이 이후 나오는 여러 운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나온 이 책에 ‘ㅇㅇ◇’를 우리 음에도 사용되었음을 보았으니 이것이 그때의 실제음을 표시한 것인지 재고할 여지가 있다.

109 “ㅇㅇ◇, 此三者, 出聲相近, 不必異製, 角羽宮三音, 并有此初聲, 故隨其音而小變字樣以別所屬”, 《아정유고》(권5:26)

2. 《삼운성회》

이 책은 영조 27(1751)년 신미에 홍순보(洪純甫)의 저작으로 김재로(1682~1759)의 주와 홍계희(1703~1771)의 발을 붙이고 출판되었으니 《화동정음통석》과는 동시 것으로서 옥편을 첨부하여 3권으로 1751년과 1745년에 예각(藝閣, 교서관)과 영영(嶺營, 영남관영판)과 완영(完營, 전라관영판)에서 개판이 되어 있다.

이제 한자운에 관한 것은 생략하고 훈민정음과의 관계를 보기로 하면 이리하다. 첫째로 이 책에는 범례 외에 도표로 〈홍무운자모지도〉와 〈언자초중종성지도〉의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두 가지가 이 책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라고 보겠다. 이제 〈언자초중종성지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언문 초중성의 도식(諺字初中終聲之圖)

초중성 통용 8자(初中聲通用字八)

- ㄱ 君자 초성, 종성에는 役(ㄱ 君初聲 終聲)
- ㄴ 那자 초성, 종성에는 隱(ㄴ 那初聲 終聲)
- ㄷ 斗자 초성, 종성에는 末(ㄷ 斗初聲 終聲)
- ㄹ 閤자 초성, 종성에는 乙(ㄹ 閤初聲 終聲)
- ㅁ 彌자 초성, 종성에는 ㅍ(ㅁ 彌初聲 終聲)
- ㅂ 譬자 초성, 종성에는 邑(ㅂ 譬初聲 終聲)
- ㅅ 戌자 초성, 종성에는 衣(ㅅ 戌初聲 終聲)
- ㅇ 業자 초성, 종성에는 凝(ㅇ 業初聲 終聲)

초성 독용 6자(初聲獨用六字)

- ㅈ 卽자 초성(ㅈ 卽初聲)
- ㅊ 役자 초성(ㅊ 役初聲)
- ㅊ 呑자 초성(ㅊ 呑初聲)
- ㅋ 快자 초성(ㅋ 快初聲)
- ㅍ 漂자 초성(ㅍ 漂初聲)

ㅎ 盧자 초성(ㅎ 盧初聲)

종성 11자(終聲十一字)

ㄷ 覃자 중성(ㄷ 覃中聲)

ㄸ 穰자 중성(ㄸ 穰中聲)

ㄴ 齒자 중성(ㄴ 齒中聲)

ㄷ 驚자 중성(ㄷ 驚中聲)

ㄴ 洪자 중성(ㄴ 洪中聲)

ㄴ 欲자 중성(ㄴ 慾中聲)

ㄴ 君자 중성(ㄴ 君中聲)

ㄴ 戌자 중성(ㄴ 戌中聲)

ㄴ 卽자 중성(ㄴ 卽中聲)

합 중성 2자(合中聲二字)

ㄴ 光자 중성(ㄴ 光合中聲)

ㄴ 月자 중성(ㄴ 月合中聲)

ㄴ 侵자 중성(ㄴ 侵中聲)

· 呑자 중성(· 呑中聲)

무거운 중성 1자(重中聲一字)

ㄴ 橫중중성(ㄴ 橫重中聲)

이와 같이 도표를 작성하여 순서를 중성은 우리음의 ‘ㄷ, ㄸ, ㄴ, ㄷ’의 순으로 한자를 놓고 초성은 ‘ㄱ, ㄴ, ㄷ’의 순으로 한자를 배열하여 조선 사람으로서 찾기 쉽게 순서를 정하였다.

그리고 이 도표에 의하여 언자 즉 훈민정음이 영조 때에 이르러는 확실히 변천된 것을 살필 수 있으니 그것은 《훈몽자회》의 그것보다도 다른 것이 있다.

1. 〈초성통용팔자〉에서는 《훈몽자회》의 그것과 같으나 〈초성독용〉에서는 2자가

줄어 6자가 된 것이다.

2. <초성독용>에서 2자 즉 ‘ㅇ伊’와 ‘△而’의 2자가 없어지는 동시에 그 순서가 바뀌었으니 <훈몽자회>의 이른바

“ㄱ箕 ㅌ治 ㅍ皮 ㅅ之 ㅈ齒 △而 ㅇ伊 ㅎ屎”

는 이 <삼운성휘>에서는 ‘ㅅ, ㅈ, ㅌ, ㅋ, ㅍ, ㅎ’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생각컨대 후세의 소위 반절의 순서의 글자와 혼동이 있음을 말함이니 <훈몽자회>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ㅌ, ㅍ, ㅈ, ㅊ, △, ㅎ’의 순으로 정한 것임을 알겠는데 이 <삼운성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ㅋ, ㅍ, ㅎ’의 순으로 되어 현용의 자수인 14자이기는 하면서도 그 순서에 있어서는 ㅍ트머리가 지금까지와 좀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에 행용되는 소위 반절의 행순은 어느 때쯤부터 작정된 것일까 아마도 이 시대보다 이후의 일인 듯 보인다.

“이 도표는 훈민정음 본래의 순서와 다르며, 세속에서 흔히 말하는 반절의 순서에 따른 것으로 사람마다 쉽게 깨칠 수 있다.”¹¹⁰

이라고 한 것을 보아도 짐작된다.

3. ‘△’는 이때는 벌써 그 발음을 실제로 못하던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으니,

“△ 일모(日母) 즉 ㅅ, ㅇ 사이의 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내기가 어려워 기록할 수 없다.”¹¹¹

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자가 확실히 문헌상에서 안 쓴다고 명언하기는 이때이지만 실제 발음은 그 이전 즉 임진 이후 그 사용이 점차 없어진 것을 보아서 분명함을 알 수가 있다.

110 “此圖不因訓民正音本次, 而用俗所謂反切之次者, 欲使人易曉也”, <삼운성휘>.

111 “△日母, 卽ㅅㅇ間音, 而我國難於成音故不錄”, <삼운성휘>.

이상으로써 《화동정음통석》과 《삼운성취》가 훈민정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간단히 보고자 한 것이므로 그 각각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두 그 해당 조항에 밀기로 하는 바 이것은 다만 운서가 훈민정음과 관계있음을 논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말한다.

끝으로 운서의 중요한 것으로 들어서 당연히 《규장전운》을 빼지 못할 것이나 이것은 여기에 그 이름만을 말하는 정도로 그치고 모두 《증보삼운통고》 등 여러 가지 운서를 그 연구하는 조목에 밀기로 한다.[미주9]

제6절 무예제보

이 무예 방면 문헌은 ‘진법(陣法)’의 수양대군에 의하여도 알겠거니와 태종, 세종 이래 하륜(1347~1416), 변계량(1369~1430) 등에게 명하여 ‘진설(陣說)’을 찬집하여 교사의 상식을 삼았고 문종과 단종 이래 이언(李瑔, 1558~1648), 한교(1556~1627) 등에게 명하여 ‘진법’을 찬정하여서 병가의 모결을 삼았다. 또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단종 2년에 《역대병요》를 내었으니, 이것은 세종 이래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맡아보게 한 것이 단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 책이 완성한 것인 듯하다. 또 세조가 잡저 시에 문종의 명을 계승하여 병서의 구결을 찬정하다가 미완한 것을 등극 후에 신숙주(1417~1475), 권람(1416~1465), 최항(?~1257) 등에게 명하여 언해를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참말로 용병의 술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된 때는 아마 선조 임진난이 있는 후의 일인 듯 보인다. 물론 그 전에도 양병의 필요성을 논하고 제승(制勝, 적을 제압하여 승리함)의 방략을 말한 바가 있으며, 또 선조 5년에도 ‘진법’을 평안도에서 개판한 사실까지도 있는 바임을 우리는 안다.

선조 갑오에 이르러는 한교를 시켜 《무예제보》를 저작케 하였으니 그 때

“만력 계사년에 제독 이여송이 평양에서 왜노들을 대파하니 선조 임금께서 제독영에 거동하시어 전후 전쟁의 승패의 다름을 물으시니 여송이 대답하기를 앞서 온 북장은 항상 방호하는 전법을 익혔기 때문에 전쟁에 불리하였으나 지금 제가 와서 사용한 병법은 곧 왜적을 방어한 척장군의

《기효신서》에 의하였기 때문에 전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책서를 보자고 하였으나 여송이 비밀이라고 내어 놓지 않았다. 임금께서 역관에게 몰래 영을 내려 여송의 휘하에서 구득하였다.”¹¹²

아마 임진란 전후 오백년간에 그리 큰 전쟁이 없었던 탓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는가한다.

이제 그 문헌 중 몇 종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무예제보》

이 책의 초판은 선조 임진란 직후인 선조 27(1594)년에 나온 것이니 지금까지 그 초간본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 후판이 숙종 40(1714)년 갑오에 중각이 되었으므로 그 내용의 여하함만은 족히 엿볼 수가 있게 된다.

이제 먼저 이 책의 저작자인 한교의 내력을 간단히 찾아볼까 한다. 이 《무예제보》의 권말에 이이명(1658~1722)의 발문에 의하면 저작자의 이름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다만 임진란 후에 훈국(訓局)에서 이 무예제보를 인행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발보다도 전에 한교(韓嶠, 1556~1627)가 선조 26(1593)년 10월에 쓴 발이 붙어 있으니 그 발이 바로 초간 때의 것이다. 이 발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갑오년 봄에 훈련도감에 살수제보의 번역 특명을 받고 신이 그 때에 적절히 첨가하여 곧 승제조 전관에 시행하도록 지휘하였다.”¹¹³

라고 한 것을 보아 이여송(李如松, 1549~1598 중국 명나라 요동 철령위(鐵嶺衛))이 첫 번 전쟁에 불리하고 둘째 번에 승전한 것은 척 씨의 《기효신서》에 의한 탓이

112 “萬曆癸巳，提督李如松，大破倭奴於平壤，宣廟幸提督營，問前後勝敗之異，如松曰前來北將恒習防胡，故戰不利，今來所用，乃威將軍紀効新書禦倭，所以全勝也。上請見戚書，如松秘不出，上密令譯令講得麾下，上示相臣抑成龍曰，此書難曉，卿其講解，使可効法。”，《무예제보》 서문.

113 “歲在甲午春 特命訓練都監翻譯殺手諸譜 臣於其時適忝，卽僚承提調指揮專管是事….”，《무예제보》 서문.

라고 하므로 선조께서 그 책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여송이 감추고 보여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구하여서 류성룡(1542~1607)같은 이에게 강해하도록 명하였다. 여기서 류 씨는 한교(韓嶠, 1556~1627)에게 의뢰하여 한교는 병사를 전장하게 되어 한편 선조 27(1594)년에 《무예제보》¹¹⁴를 편찬하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까지 하였으며, 또 그 후 만력 40년에는 《연병지남》¹¹⁵이란 병서를 저작하고 언해하여 병차, 기병, 보병이 조련하며 전쟁하는 법을 기록하고 또 전차에 관하여도 그 자작과 유래를 약설하였다.

이 《무예제보》는 그 후 숙종 40년 경에 중간이 되었으며, 또 그 후 정조 14(1790)년에는 이것에 의하여 《무예제보통지》¹¹⁶와 그 언해가 새로 간행이 되었으니 이 때에는 또 《병학지남》도 개정 간행이 되었다.

이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는 병사 방면에는 그리 많은 저작이 없음을 보겠으니 그것은 그 뿐만이 아니라 정종대왕 어제 《무예도통지언해》 서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선조께서 이미 왜구를 평정하시고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구득하여 보신 후에 훈국랑 한교를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장사들에게 파견하여 두루 질정하여 곤봉 등 6기를 궁구하게 해득하여 도보를 만들게 하였으며”¹¹⁷

114 《무예제보》는 1598년 임진왜란 후 전쟁에 시급한 무예서의 필요에 따라 명나라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토대로 6기 곧 곤봉, 등패, 장창, 당파, 낭선, 쌍수도를 만들어 한교에 의해 편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이다.

115 광해군 4(1612)년에 한교(韓嶠)가 지은 군사학 교범으로 1책 36장이며 목판본으로 함산의 풍패관(豐沛館)에서 간행되었다. 본문은 한문으로 짓고 단락을 떼어가며 부분적으로 한글 번역문을 달았다. 서문도 발문도 없고 번역문이 달리지 않은 일부에는 제목도 붙지 않아서 체제가 불완전하며, 한글의 표기상태가 매우 혼란스럽다. 한글의 획이 떨어진 곳이 많고 번역된 용어에 통일성이 없으며 표기법 자체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지만 17세기 초기의 언어 자료이다. 이 책의 내용은 임진왜란 직후의 군사 훈련 상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116 《무예제보통지》: 정조 14(1790)년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하였으며, 4권 4책으로 목판본이다. 임진왜란 뒤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선조 31(1598)년에 한교의 《무예제보》와 영조 35(1759)년에 《무예신보》가 각각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무예제보》와 《무예신보》를 집대성하고 보완하였다.

117 “宣廟既平倭寇，購得戚繼光紀效新書遣訓局郎韓嶠遍質東來將士究其棍棒等六技作為圖譜”，《무예도통

라고 하여서 역시 한교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무예제보》를 편찬하고 또 이해한 것이라고 보겠다.

이제 《무예제보통지》 권수에 기록된 한교의 약전을 보면 이러하다.

“한교의 자는 사양(士昂)이고 호는 동담이며, 상당부원군 명회(明會)의 5세손 직장 수운의 아들이다. 일찍이 문성공 이이와 문간공 성혼에게서 종학하였고 학문을 논한 왕복된 서신이 있으며 천문, 지지, 점서, 병략에 꿰뚫어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만력 계사년에 제독 이여송이 평양에서 왜노들을 대파하니 선조 임금께서 제독영에 거동하시어 전후 전쟁의 승패의 다름을 물으시니 여송이 대답하기를 앞서 온 북장은 항상 방호하는 전법을 익혔기 때문에 전쟁에 불리하였으나 지금 제가 와서 사용한 병법은 곧 왜적을 방어한 척장군의 《기효신서》에 의하였기 때문에 전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척서를 보자고 하였으나 여송이 비밀이라고 내어 놓지 않았다. 임금께서 역관에게 물래 영을 내려 여송의 휘하에서 구득하였다. 임금께서 상신 유성룡에게 보이시고 유시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책은 깨닫기가 어려우니 경이 그것의 본받을 만한 법으로 하여금 강해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성룡이 종사관 이시발 등과 더불어 토론하고 거듭하고 한교를 역전하였다. 한교는 유생으로서 낭관이 되어 오로지 질문을 담당하였다. 이에 앞서 참장 낙상지가 성룡에게 명나라 군사가 돌아가기 전의 기회를 틈타 군사를 조련하는 법을 학습하도록 권장하니 성룡이 말을 달려 행재소에 서계를 올리고 군사 70여 명을 초모하고 낙상지는 장하에 10명을 발명하여 교사로 삼도록 하여 밤낮으로 창, 검, 낭선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룡이 논사를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 쉬게 되었는데 성룡이 장차 남환하려 할 때 임금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신은 비록 조정에서 물러가지만 오직 한교만은 끝까지 쓰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갑오년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상신 윤두수에게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하고 한교로 하여금 《살수제보》를 번역하게 하였다. 어찌하여 성룡을 잊고 대신 윤두수를 도제조로 삼고 조경을 대장으로 삼고 이덕형을 유사당상으로 삼고 신겨진, 이홍주를 낭속으로 삼았을까? 백성을 모집하여 군병으로 삼았는데 모병 시험에서 큰 돌 하나를 능히 들 수 있고 1장이 되는 담장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입선시켰다. 10일 만에 수천 명을 얻어서 척 씨의 사, 포, 감의 삼수기법을 가르치고 파총초관을 설치하여 부로 나누어 수개월 연습하여서 살수기법을 이루어서 여러 도에 교사를 파견하여 기법을 훈습시켰다. 을미년에 교련을 청하여 유격장군 호대수가 나와서 삼수군을 가르쳤다. 무술년에 한교가 또 유격장군 허국위에게 창법을 질문하여 다시 《살수제보》를 번역하였다. 허국위의 호는 원진이요, 진강 사람으로 무진사에 합격한 사람이다. 흠사통영북영유격장군으로서 보병 1160명을 거

지언해) 〈정종대왕 어저서〉.

느리고 무술년에 우리나라에 나왔다가 기해년에 돌아갔다. 문사를 잘하였으며 기개와 의리가 있었다. 경리 양호와 서로 친했는데 양호가 참소를 입었을 때 국위가 여러 장관들을 거느리고 본국에 상소문을 올려 죄가 없는 사실을 들어서 구원하였다.

한교는 처음에 창의하여 왜적을 토벌하다가 연이어 훈국에 들어갔다. 또 벽도원수 참모관으로 군부에 출입한 것이 거의 10년이 되었다. 그 공로로 장악첨정, 고성군수, 죽산부사, 의흥현감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계해년 정사훈 공신에 들어서 서원군에 봉해졌으며 호조참의에 제수되었다. 갑자년의 난 때 호위부장에 배관하고 곡산부사가 되어 나갔다가 그만두고 돌아와서 광진 나루터 위에 집을 짓고 병을 빙자하여 사직하고 두문불출하였다. 을축년에 서쪽에서 변이 또 일어나게 되니 진을 쳐서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을 상소하였다. 정묘년에 돌아가시니 나이가 72세였다. 그 후 몇 달 만에 과연 노가 크게 밀려오니 사람들은 비로서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저서로는 《홍범연의》, 《사칠도설》, 《가례보해》, 《소학속편》, 《심의고증》, 《무예제보》, 《신서절요》, 《조련도식》이 있다. 참의 안방준과 한교는 좋은 친구지간으로 일찍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사양의 저서는 모두 전현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밍게 보여서 배척하기를 원수와 같이 하여 그의 책들이 장차 세상에 전하여지지 않게 되었으니 매우 아깝구나라고 하였다.”¹¹⁸

이 《무예도보통지》에 의하여 안방준(1573~1654)과 친한 벗임을 알 수 있는데, 그의 문집인 《은봉전서》 보면 그 권4에 역시 간단한 기록이 있다. 대개 그 내용이 피차 같으므로 다시 옮겨 실는 것은 생략하거니와 여하간 한교라는 이는 이 기록에

118 “韓嶠字士昂號東潭，上黨府院君明僧五世孫，直長秀雲子也嘗從學于文成公李珣文簡公成渾有論學往復書，天心地誌卜筮兵略無不貫通 萬歷癸巳提督李如松，大破倭奴于平壤，宜廟幸提營，問前後勝敗之異，如松曰前來北將桓習防胡 故戰不利 今來所用 乃威將軍紀効新書禦倭 所以全勝也 上請見威書 如松秘不出 上密令譯令購得麾下 上示相臣柳城龍曰 此書離曉 卿其講解 使可效法 成龍與從事官李時發等討論 仍力薦嶠以儒生爲郎官，專掌質問，先是參將駱尙志，勸成龍築天兵未週，學習鍊兵之法，成龍馳啓行在，招募七十餘人，尙志撥帳下十人爲教師，日夜鍊習槍劍狼狽，既而成龍被論，事旋寢默，成龍將南還，白于上曰，臣雖去國，惟韓嶠終始可用，甲午設訓鍊都監，以相臣尹斗壽，領其事使嶠翻譯殺手諸諳七何，成龍代斗壽，爲都提調，趙倣爲大將，李德馨爲有司堂上，辛慶李弘貴爲郎屬，募民爲兵，能舉一巨石，能起一丈牆者入選，旬日得數千人，教以戚氏射砍三手技，置把總哨官部分演習數月而成，遣教師于諸道，訓習技法乙未請教鍊遊擊胡大，受出來，教三手軍戊辰嶠又質問槍法遊擊許國威更爲翻譯…嶠初倡議討倭尋入訓局，又辟都元師參謀官出入軍府者 殆十年，以勞歷官掌樂金正高城郡守竹山府使義興縣監癸亥參靖社勳封西原君，除戶曹參議，甲子之亂，拜扈衛副將，出爲谷山府使，罷還築室于廣津之上，杜門謝病，乙丑上疏以爲西變且起，陳陳防之策，丁卯卒年七十二，後數月，虜果大至，人始服其先見，著有洪範衍義，四七圖說，家禮補解，小學續編，深衣攷證，武藝諸譜，新書節要，操練圖式，參議安邦俊與嶠友善，嘗嘆曰士昂著書，皆前賢所未發，然見忤於人，排擯如仇敵，使其書將不傳于世，可勝惜哉”，《무예도보통지》，권수〈한교 약전〉.

의하여서 이 《무예제보》 외에도 저서가 많은 이로서 인조 16(1627)년에 72세에 죽었기 때문에 선조 임진년에 바로 그의 나이 37세이던 때이고 이 《무예제보》를 저작한 때는 그가 39세 때였다. 율곡에게 취학하였으므로 그 《율곡전서》를 보려고 하였으나 《은봉집》에 말하기를

“선비들이 거역하는 사람을 우러러보며 서인들을 물리쳐 배척함에 《율곡집》에 전부 누락되었으니 그 책이 어찌 가소롭지 않겠는가”¹¹⁹

이라고 했던 만큼 참고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 다시 찾아보지 않는다. 이상으로 저자에 대하여는 그만 기록한다.

다음으로는 이 《무예제보》가 만들어진 체제에 관하여 간단히 들추어 볼까 한다.

맨 처음에 목록이 1장이 있고 맨 끝에는 이이명(李爾命, 1658~1722)의 발문이 3장이 붙었으니 그 외의 전부인 59장과 합하여 모두 63장으로 1책이 되고 매 면이 10행으로 매행이 20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도해와 언해와 보해(譜解) 및 본문으로 되어서 그 순서는 처음에 그림을 먼저 그리고 다음에 원문을 적고 나서 그것을 다시 언해한다. 이와 같이 하기를 일개 종류에 관한 것이 끝나면 그 종류에 관한 총보(總譜)의 내용을 표로 풀이하여 그 한 가지씩 맞추게 하였다.

이제 그 내용에서 보면 먼저 그 근본인 무예에 관하여는 중국 것을 번역한 것이니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가 그 원서라 하겠고 그 실연은 임진란 시에 나왔던 중국 병사의 언행이 그 모범이 된 것이다. 이 내용문에 대하여 일일이 비판을 못하겠거니와 생각건대 무예도 시대와 더불어 관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용에 절실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으며, 오직 한 사료에 지나지 않는 것이리라고 보인다. 더군다나 나 같이 여기에서 그 전체의 가치를 찾는다 함보다도 다만 그 언해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그 본무인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중요한 자료 즉 무예에 관한 내용 외에 그 물명, 제조방 또는 이에 관한 도해는 여러 가

119 “士仰見忤於人，尤爲西人所斥，故栗谷集全闕，其書可笑”，조선 중기의 학자인 안방준(1573~1654)의 《은봉집》

지로 필요한 자료일 것이나 이들에는 일절 언급치 못하고 다만 언해에 관하여서는 이상 그 설명을 시도하는 정도에 그칠까한다.

이 책의 언해는 그 초간본도 아닌 만큼 첫째로 방점은 없고 받침의 ‘ㅇ’도 후음의 ‘ㅇ’과 구별이 되지 않았고 ‘△’의 받침음 글자가 사용된 것이 없으며, 한자음에 종성 ‘ㅃ’을 받치지 아니한 바로 속종 때의 언해의 모양이 확연하다. 더욱이 현용 어음과 차이나는 것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틸제는 막대에 도코 디를 제는 놀 도해 히리라(打則利於棒, 刺則於刃矣)”

“칠 때는 봉으로 하면 유리하고 찌를 때는 곧 검으로 하라”

여기서 ‘탈(打)’ 막대에 ‘도해(利)’ ‘디를(刺)’, ‘놀해(刃에)’ 등이 ‘칠’, ‘조’, ‘지를’, ‘놀’, ‘애’ 등에서 이 책이 매양 규칙 있게 사용되어 있음을 보아 가히 알 수가 있다. 또 품사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것이 마치 이런 것이 있다.

흔 바를 나오와 - 흔 발을 나오와

칼홀 자바 - 칼을 잡아

이것은 분명히 후일에 된 《무예도보통지》보다 시대가 앞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자료이다.

끝으로 한교의 발문에 보면 임진란 당시까지 무예의 숭상이라고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한 해외에 치우쳐서 있기 때문에 무기로서 전하는 것이 궁시(弓矢, 활)가 있을 뿐으로서 검쟁(劍鎗, 칼, 창)은 있었다고 하나 그 습용의 방법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버린 기구로서 되어 있다시피 했다. 그러므로 왜구와 대진함에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는 자리에서 비록 쟁창을 가졌기는 하나 그 용법이 익숙치 못한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고 하여 이것은 모두 연습에 있으니 마치 우리나라 사람은 밥 먹는 데 숟가락을 사용하며, 중국인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바 그 생소 여부가 다 그 익숙한지 익숙하지 않은지에 까닭하는 것과

도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때에 처음으로 조총이니 패선(牌箭, 방패)같은 무기도 보았다고 하였으니 생각컨대 우리나라의 무예는 임진란 이후에 일대 발전을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무예제보도》이 기운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니 척(戚)씨의 《기효신서》에서 뽑아서 이 책의 목록 즉 ‘곤보, 패보, 선보, 장쟁전보, 장쟁후보, 기보, 검보’의 육기를 원문에 의하여 언해하고 도해한 것이니 이 목록에는 다시 〈허유격답문〉과 〈주해중편교전법〉을 부록으로 달았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 《무예제보》와 《무예도보통지》와의 비교에서 참고하기를 바란다.¹²⁰

2. 《연병지남》

《무예제보》를 편찬한 한교는 그 후 또 《연병지남》이란 병서를 저작하니 이 책은 서문도 발문도 없으므로 그 유래가 분명치는 않으나 그 권말에

“만력 47년 7월 상순에 부표(府標) 아래 서북 교관 부사과 한교가 함산의 풍폐관에서 쓰다”¹²¹

라고 한 것을 보아 광해군 4(1612)년 그의 57세 때에 이 책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내용을 〈차교보대오구식〉이 약 4장과 그 다음 〈차교보합수소절목〉이 계속되어 제 12등까지에 끝나고 제13장에서부터 〈차교보대수절목〉이 제34장에 끝나고 그 다음은 〈전차제〉가 한문만으로 언해 없이 제36장 후면까지에 끝났으니 매행 11행으로 합하여 36장으로 맞추어졌다. 이제 그 내용의 일례를 들면 아래와 같이 한문이 먼저 있고 다음에 언해의 부분이 일자를 낮추어서 써 있다.

120 김동소(2011), 〈무예제보연구〉, 《한글》 251호, 한글학회.

121 “萬曆四十年七月上浣 府標下西北教練官副司果韓嶠書于咸山之豐沛館”, 《연병지남》 서.

“거정한 사람이 혼 수리의 나으며 므르느 호령을 오로 ㄱ읍 아라시니 혼 수린 즉 기총이 거정이 되고 혼 익에 혼 수리 즉기총이 거정이 될 디니라”

“거정 한 사람이 한 수례에 나가며 물러나는 호령을 오로지 대강 알았으니 한 수례에는 즉 기총이 거정이 되고, 한 애에 한 수례 즉 대총이 거정이 될 것이라”¹²²

이와 같이 이 언해에는 방점도 없고 ‘△’도 사용하지 않았고 ‘ㅇ’와 ‘○’와의 구별도 세우지 않았다. 내가 참고하는 이 경성대학(서울대학교) 도서관본은 반드시 그 초 판이라고 단언키는 어려운 점이 여러 곳 있다.

이 책을 보아서 그 당시에 거병, 교병, 보병이 조련하는 것과 전쟁에 움직이는 형편을 알 수 있으며, 또 그 때는 특별히 이런 병정이 따로 있는 것이 없고 병농이 불분하여 군병이 즉 농민이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전차제’가 있으니 여기서 전차가 어떻게 된 것임을 설명하였고 또 이것이 언제부터 있어온 것임을 말하여

“이것은 전봉준의 책으로 제작한 것으로 유병사 연이 취해 사용하던 것인데 다소 늘어나거나 줄인 것으로 송나라 張中行 所獻 차제 곧 양간 雙運轉轉 이기며, 매차 甲士 25인을 쓰며 <중략> 고려 康兆, 칼을 써서 수례를 방언하는 丹兵, 이제 이 車制는 가이 이 세가지를 견해서 사용할 수 있다.”¹²³

이라고 하여 여러 전차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다.

이밖에 여러 병서가 있으니 《병학지남》, 《무예도보통지》, 《신전자초방》¹²⁴, 《화포식

122 “車正一人專掌一車進退號命一旗一車則旗總爲車正一隊總爲車正.”

123 “此制本出於鄭峻鵬而柳兵使珩取而用之，稍加增損者也，宋時張中行所獻車制則兩竿雙運轉轉捷，每車用甲士二十五人……高麗康兆，作劍車禦丹兵，今此車制可以兼此三者耳。”

124 《신전자초방》: 숙종 24(1698)년 김지남(金指南)이 지은 1책 목판본이다. 역관 김지남이 북경에 가서 화약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기록하고, 그 뒤 윤사동(尹蓐東)의 건의로 정조 20(1796)년에 중간되었다. 이 책은 화약제조법에 관한 문헌 중의 하나인데 14세기 말에 최무선(崔茂宣)이 저술한 《화약수련법》은 전하지 않고 다만 인조 13(1635)년에 간행된 이서(李瑞)의 《신전자취염초방》이 있는데, 이것과

언해》¹²⁵ 등 모두 언해가 있어서 그 방면의 어휘를 수집하는 좋은 재료이다. 이것으로 선조 때와 그 후 정조 때에 나온 병서를 열거하는 데 그치고 그 자세한 것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

제7절 《언문지》

이 책은 훈민정음과 같이 훈민정음 그것을 제목으로 하여 전적으로 논고한 것 중의 그 하나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오늘날까지 5백여년에 그 변천 상황을 살필 적에 순전히 이것을 주제로 하여 논문 또는 저서가 있느냐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언문지》를 먼저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내용의 중요한 것으로 보아 《훈몽자회》의 범례와 《훈민정음운해》와 이 《언문지》의 3자를 먼저 들게 되는 것이 그 순서이라 할 것이다.

순조 24(1824)년 중하 상순에 서피양중서(西陂兩中書)라는 서문을 붙이고 한 사본으로서 전해왔으니 그 저자인 유희는 늘 이 방면에 관하여 《주영편》의 저자인 정동유와 더불어 논의가 있었고 또 최세진 저의 《사성통해》를 얻어 보게 되어 이 책을 완성하고 《언문지》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배열하는데 관하여는 그 서에도 말한 바와 같이 먼저 전권을 초성례, 중성례, 전자례의 4례에 나누어 논하였으니 그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그 전권을 초성해, 중성해, 중성해, 합자해 등으로 분해한 것과도 같은 형식이라고 보겠다. 다음으로 그 내용을 해설하는 데 관하여는 그 자에 “앞의 책에 연혁을 열거하고 논함을 마친다(列前書沿革終以論斷)”이라고 한 것과 같이 먼저 《언문지》 이전에 이것을 논한 여러 설을 전거하고 다음으로 자가 소신의 설을 가지고 이것을 결론짓는 그런 순자로서 해설하였다.

더불어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화약제조기술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125 《화포식언해》: 인조 13(1635)년 이서(李曙)가 《화포식(火砲式)》의 한글 번역본으로 2권 1책 목판본이며, 책 끝에 최명길(崔鳴吉)의 발문이 실려 있다. 책 후반부에 《신전자취염초방언해》가 합철되어 있다. 숙종 11(1685)년에 황해병영에서 중간한 목판본이 장서각에 있다. 여러 총통(銃筒)의 일반적인 용약법과 천자총통(天字銃筒), 지자총통(地字銃筒) 등 각종 화약병기의 용약법과 화약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언문지》의 저자인 윤희는 그 자는 계신(戒伸) 그의 호를 방편자(方便子), 서파(西陂), 남악(南嶽)이라고 불렸으니 진주인이다. 영조 49(1773)년에 경기도 용인군에서 출생하여 현종 3(1937)년에 65세로 별세하였으니 그의 저작은 《문통》 등 그 분량이 많으나 사본으로 혹은 유실되어 전치 못하는 것이 많다.

이제 이 내용을 이 책의 순자에 의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면 이리하다.

먼저 초성례에서 《광운》¹²⁶과 《집운》과 《운회》와 《홍무정운과》의 《사성통해》에 이미 있는 기록을 옮겨 신고 다음으로 〈훈민정음십오초성〉과 〈정음통석십칠초성〉을 들어 놓은 후 〈유씨교정초성이십오모〉라고 하여 도해와 문답식으로 자기의 초성에 대한 견해를 논단하였다.

〈훈민정음의 15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ㅌ ㅍ ㅊ ㅎ ㅈ

○ 〈정음통석의 17초성〉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ㅅ ㅈ ㅊ ㅍ ㅊ ㄷ ㄹ ㅎ ㅈ

○ 〈유씨교정 초성 25모〉

ㄱ ㅋ ㅊ ㆁ ㄷ ㅌ ㅅ ㄴ ㅈ ㅊ ㅍ ㅊ ㅈ ㅊ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이상과 같이 유씨 교정의 자모 수는 《훈민정음》보다는 10자, 《정음통석》보다는 8자나 많아졌으니 그러면 어떤 것이 늘어났는가? 그러나 가만히 유씨 교정의 자모를 볼 때에 《훈민정음》으로 지금까지 전해오는 책에 비추어 보면 그 25자모라는 것은 모두 신안이나 창제가 아니며, 또 자형을 바꾸거나 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

126 《광운》: 정식 이름은 《대송 증수광운》은 수나라 육법언(陸法言)이 지은 《절운》(601)은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여러 차례 증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절운계 운서로 마지막으로 나온 5권으로 된 운서이다. 《광운》은 복송 대종상부 원(1008)년에 진평년(陳平年) 등이 칙명에 따라 찬정(撰定)한 것으로서 완본이 전하고 있다. 그 음계도 거의 《절운》과 같기 때문에 중고음의 연구에 있어서 그 기본 자료가 된다. 《광운》은 수록 글자를 성조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으며, 각 권의 내부는 206운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 전혀 현재의 훈민정음 속에 들어 있는 초성 그것대로이다.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시에 초성이 17자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유 씨 교정의 25 자모가 다 그 속에 들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유씨는 훈민정음에서 이미 ‘병서’라는 명칭 아래에 포함시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의 6자와 ‘순경음’이라고 되어있는 ‘ㅃ ㅍ’의 2자(‘ㅁ’를 제하고)를 합하여 계산에 넣은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유 씨는 오히려 훈민정음보다도 ‘ㅁ’ 1자를 제거한 셈이 되고, 하나도 증가한 것은 실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병서’와 ‘순경음’을 훈민정음과 같이 원 자 수에는 넣지 않고 빨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 씨의 교정과 같이 초성으로서 한 글자의 자격을 완전히 주어서 합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 문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성례에서 《훈민정음》과 《정음통석》과 《삼운성휘》가 그 〈중성 11형〉에서 서로 같은 것을 말하고 유씨 교정 중성은 〈정례 15형〉과 〈변례 1형〉과 〈합 16자〉가 들어 있다.

〈정음통석 중성 11형〉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유씨교정 중성 정례 15형〉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중성 변례 1형〉

ㅣ

이상과 같이 유씨 교정의 중성 자수가 많은 것은 ‘ㅓ, ㅕ, ㅗ, ㅛ, ㅣ’의 5자를 가 입시킨 데 불과하니 아무런 창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유 씨는 초성에서 박성원 (1697~1757)의 ‘ㅇ’를 채용하지 않은 것과도 같이 중성에서도 신경준(1712~1781) 또는 이영익(1740~?)의 ‘ㅇ’도 취해 드리지 않았다.

셋째로 종성례에서 《정음통석》의 〈종성 8운〉을 들어서 《훈민정음》과 《삼운성취》도 다 같다고 하고 유씨 교정은 〈정례 6운〉과 〈변례 1운〉과 합하여 7자를 들어놓았다.

〈정음통석 종성 8운〉

ㄹ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유씨교정 종성 정례 6운〉

ㄹ ㄴ ㅂ ㅇ ㄴ ㅁ

〈종성 변례 1운〉

ㄹ

이상과 같이 받침자를 모두 7자로 다 줄였으니 《정음통석》보다도 ‘ㅅ’ 한 자가 사용되지 못하였다.

넷째로 전자례에서 언문 자수가 총히 10250이 된다고 하여 그 총 글자수를 내고 이것으로써 능히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고 하였다.

대개 이상과 같은 순서로 그 전권을 이루었으니 그 세의를 여기서 일일이 거론치는 못하나 그 중에 몇 개만 들어서 그 특이점을 살피는 재료로 삼을까 한다.

첫째로 우리가 그 시대를 분명히 어느 때까지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점을 알린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ㄷ’이 ‘ㅈ’으로 혼용된 것이 분명히 이 《언문지》의 저자가 생존되었던 순조 때에까지는 벌써 이미 있어온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설음에 이르러서는 특히 탁을 당겨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마침내 정치음으로 옮겨갔으니 그 족히 우습지 않는가?”¹²⁷

127 “至於舌音，特以接頭之難，遂移爲整齒，不其足哂乎.”，《언문지》

라고 하고 그 주에 이리하다.

“우리나라 습속에는 ‘다, 더’는 ‘자, 저’로, ‘타, 터’는 ‘차, 처’와 같게 부르는 것과 같이 설음의 톱을 눌러서(아래톱을 위로 눌러서) 음이 ‘다, 더’, ‘타, 저’는 발음이 어려우나 톱을 눌러서 치음의 ‘자, 저’, ‘차, 처’는 쉬운 이유에 불가한 것이다. 지금도 오직 관서 사람들은 ‘다, 더, 타, 터’의 설상음을 발음하는데 ‘天(텨)’과 ‘千(첸)’을 같이 발음하지 않으며, 고조 형제분이 한 분은 ‘知和(디화)’로, 한 분은 ‘至和(지화)’로 발음하니,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데 조금도 의아하지 않았으니 지금은 ‘ㄷ’와 ‘지’의 혼동되나 그리 오래지 않은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지(知)’의 본음이 ‘디’인 것은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다.”¹²⁸

라고 하여 그때에는 ‘다, 더’를 ‘자, 저’로 ‘타, 터’를 ‘차, 처’로 읽고 있지마는 그 고조 때만 해도 ‘至’와 ‘知’가 구별되어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관서(關西)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음이 변하지 않은 채 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이 저자는 훈민정음의 기원을 〈의몽고자양〉라고 하여 〈몽고자양〉에 의거하여 제작한 것임을 말했고 또 달리는 훈민정음을

“언문을 지을 때 본래 악율에 의거하였다”¹²⁹

이라고 하여 악률에다 관련시켜 말한 것이 있다.

셋째로 ‘.’는 그때에 벌써 ‘ㅏ’와 ‘ㅑ’로 더불어 구별치 못할 정도였음이 분명하니

“우리나라에서는 ‘.’ 음의 발음이 불명하여 거의 ‘ㅏ’로 혼동하였다. (‘兒’, ‘事’ 등의 한자는 ‘으’, ‘스’인데 지금 습속에는 잘못 전성하여 阿(아), 些(사)와 같이 발음하

128 “如東俗다더, 呼同자저, 타터呼同차처, 不過以按額之, 此難彼易也, 今唯關西之人, 呼天不與千同, 呼地不與至同. 又聞鄭丈言, 其高祖昆弟, 一名知和, 一名至和, 當時未嘗疑呼, 可見디지之混, 未是久遠也, 知本音디者, 說見上.”, 《언문지》.

129 “諺文之制, 本應樂律”, 《언문지》.

고 있다.) 또한 一 와도 섞였다.('흙(土)'라고 하던 것을 '흙(土)'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 'ㅡ' 음이 본래 'ㅏ' 와 'ㅡ' 의 중간음이기 때문이니 독자들은 마땅히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¹³⁰

라고 한 것에서 'ㅡ'의 변천 상황을 엿볼 수가 있다.

넷째로 'ㅇ'와 'ㅇ'가 그 당시에 벌써 부녀간에서는 구별이 없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겠으니 《정음통석》에서도 'ㅇ'만을 사용하고 'ㅇ'를 쓰지 않았으나 이 《언문지》의 저자는 그 부당함을 논하여 'ㅇ'을 다시 살리어 쓸 것을 주장하였다.

다섯째로 인용서를 보면 이런 것이 있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사성통고》, 《광운》, 《몽고운략》, 《정음통석》, 《삼운성휘》, 《사성통해》, 《노걸대》, 《박통사》, 《삼재도회》, 《자휘》 등이 있다.

위에서 기술한 사실 외에 '△'와 'ㄹ', 'ㄷ'와 방점과 사성과 오음과 청탁 등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으나 여기에서 그 일일을 거론치 않는다. 다만 이 사실이 훈민정음 이후 《훈몽자회》와 《훈민정음운해》와의 비교에서 그 변천의 개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상세하게 설명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이만으로 생략하는 바이다.

제8절 부록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 순전히 이것을 논한 서적으로는 《훈민정음운해》와 《언문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니 만큼 여기에서 당연히 거론할 것이지만 지면 관계로 그 자세한 것은 다른 자리로 미루고 간단히 그 중요함을 논하고 지나가려 한다.

훈민정음이 세종 25년에 창제가 되어 우리나라의 어음뿐만이 아니라 한자음까지도 정리하게 되어 많이 언해라는 형식 밑에 그 보급과 그 연장이 계속되었으니 영조 26(1750)년에 《훈민정음운해》가 저작될 때까지 오로지 이 훈민정음을 그 주체로 정하고 연구한 것은 실로 3백여년 간이나 이렇다할 만한 것이 없었다. 가만히

130 “東俗不明於，多混於ㅏ(如兒事等字從 ㅏ今俗誤呼如阿些)，亦或混一(如흙土 今讀爲흙土)，由其聲本在ㅏㅏ之間 讀者當知之.”，《언문지》.

2~3백년간을 살펴보면 불교의 쇠퇴에 반하여 유교는 실로 한문 편중의 교육을 시켜왔다고 보겠으니 그 결과로 보면 한문을 위한 한문만을 숭상하는 데 치중하였고 좀 더 실생활을 위한 글자를 가르키지는 못했다고 보겠다. 그러다가 그 경향은 효종을 거쳐 숙종 때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확연히 실제에 관한 이론이 시작되니 이 영향으로 인하여 훈민정음도 좀 더 그 전모를 자세히 드러내게 된 것이라 보겠다. 홍만중(1643~1725)같은 이가 《순오지》에 ‘이언’을 많이 수집하여 그것을 해석한 것이라든가 정다산 같은 이가 《이담속찬》을 편집한 것 같은 것은 다 한문을 위한 한문만에서는 얻어 보기 어려운 것이니 이후 방언이나 향명이나 하여 많이 취제한 것은 다 그것으로서 실로 좋은 참고 재료가 되는 것이다. 《성호사설》과 《잡동산이》와 《주영편》과 《송남잡식》 등 다 《용재총화》와 《지봉유설》 등과 같이 우리 어학 방면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는 문헌이다.

그 후 와재 황윤석(1729~1791)은 그 《와재유고》 권26 잡저에 〈자모변〉이란 제목 밑에 중국 운서와 우리 문자를 그 자모와 그 성질에서 대조한 것도 있고 또는 우리 말의 어원도 찾아보려고 애쓴 것이 드러나니 그 중에서도 그는 《훈민정음운해》에서 ‘, ’를 1자 신제할 필요를 말한 데 대하여 이 와재는 그것보다도 도리어 ‘..’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논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저 박성원이 그 《정음통석운고》에 ‘◇’를 순음에 새로 덧붙여야 되겠다고 한 것과 아울러 자수 상 발음상 고려할 여지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도 먼저 명곡 최석정이 《경세정운도설》을 지었는데 그 후 이계 홍양호는 그 서를 쓰면서 훈민정음에 관하여 기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언급하여있다.

순조 24(1924)년에는 유희가 《언문지》를 저작하였으니 내용을 초, 중, 종의 삼성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설명을 가하였으니 최세진 등의 《사성통해》와 박성원 저의 《정음통석》 등을 인용하고 다시 유 씨의 정견을 논하였다.

이상과 같이 훈민정음 이후를 통해서 보면 그 중요한 문헌으로는 《훈민정음운해》와 《언문지》를 들 수밖에 없다. 즉 훈민정음 《훈몽자회》, 《훈민정음운해》, 《언문지》의 순으로서 그 변천을 논하게 된다. 또 그 중요한 인물로 본다면 세종대왕을 위시하여 신숙주, 최세진, 신경준, 유희를 들게 되나니 물론 문헌으로나 인물로나

그 자세한 연구에 있어서는 여기에 일일이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달리 그 각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이미 또는 장차 논하러 함으로써 일절 생략한다.

제3장 국문시대와 한글시대

제1절 시대통설

이 시대는 매우 짧은 동안이지마는 우리 국문의 중흥기라고 나는 부르고자하는 바이다. 이 기간처럼 국문에 대한 관심이 개인으로부터 국가에까지 통해서 깊었던 때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처음일 것이다.

이 시대는 지년간 갑오(1894)년 지금으로부터 54년 전부터 그 후 경술(1910)년 지금으로 35년 전까지이다. 그 간이 약 16년 동안이 된다.

그 동안을 국문시대라고 내가 부르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이 시대 안에 나온 우리 말과 우리글에 관한 서적에 이런 이름으로 대부분이 사용되었으므로 그 점을 취한 것이다. 물론 이 보다도 전인 1869년에는 강위(1820~1884)¹³¹라는 이가 《국문자모분해》라는 서적을 발행한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대를 갑오경장이라고 부르거니와 이 당시는 역사상으로도 안으로는 일방 굳게 문을 닫히려고 애쓰는 한편 역시 세계의 대세에 휩쓸려 따라감을 금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되었다. 우리글과 우리말에 관해서도 좀 더 자가적(自家的) 의식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외래의 영향도 이때로부터 점차 받게 되었다.

짧은 기간을 연대 상으로 내려 보는 것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그 전부에 관하여 통틀어서 당시 우리 언문의 상세한 상황을 약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 손으로 된 문법에 관한 서적이 이때에 많이 나왔다. 1897년에는 ‘이봉

131 강위(姜瑋, 1820~1884)는 조선의 한학자이다. 자는 중무, 호는 추금·고환자, 본관은 진주이다. 어려서 민행로에게 학문을 배우고, 제주도에 가 있는 김정희를 방문하여 많은 감화를 받았다. 강화도 조약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일본과 청에 왕래하면서, 해외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운 회복에 힘썼다. 《한성순보》를 간행했다. 《황성신문》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이며 국문 연구에도 전력하였다. 지은 책으로 《동문자모분해(東文字母分解)》 혹은 《국문자모분해(國文字母分解)》가 있다.

운'이란 이가 《국문정리》라는 책을 내었고, 뒤이어서 최광옥(1879~1911), 유길준(1856~1914), 주시경(1876~1914) 같은 이들의 문법책이 국문 혹은 대한이란 제목을 붙이고 나온 것을 본다.

둘째로 외국인의 포교로 인하여 우리말과 우리글이 보급됨이니 이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문법, 사전 또는 회화용 책으로 그 선교 상 필요로 인하여 간행된 것이 한 중요한 사실이다.

셋째로 관보와 같은 신문류와 《만국지리지》, 《유년필독》¹³², 《국민소학독본》¹³³ 같은 교과서류 기타 관공문서에까지 비로소 국한문의 혼용을 실행한 중요한 점이다. 3백여 년 간 이를테면 안방에서만 간했던 우리 문자가 새로 사랑으로 나가게 된 셈이고, 새로 사람 속에 끼어서 미약하나마 그 권리를 행사해 보게 된 형편이다.

넷째로 지식영(1855~1935) 같은 이가 《신정국문실시》에 관하여 상소가 있는 후 이능화(1869~1943), 어윤적(1868~1935), 주시경, 윤돈구, 권보상 같은 십여 인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또 논문을 제출한 일이다.¹³⁴

132 《유년필독》: 초등학교용 교과서. 편저자 현채(玄采), 제작시기는 1907년(영인)년 4권 2책. 휘문관(徽文館)에서 발행하였다. 이 책은 1909년 5월에 일제로부터 발매금지를 당하였다. 이 때 금서로 된 여러 책 가운데에서 압수된 부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도 독자층의 넓은 범위와 독자의 열기를 알 수 있다. 1977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로 영인 출간되었다.

133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고종 32(1895)년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개화기 국어교과서이다. 이 책은 한장본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정교과서로써 총 72장 144면이다. 비교적 장문형이며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없고, 어려운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 책도 일제에 의하여 1910년 11월 발매 금지 조치를 당하였는데, 현재 한국학문헌연구소편(1977)의 영인본이 있다.

134 대한제국 말엽인 1906년 이능화가 〈국문일정의견〉을 학부에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07년 9월에 학부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우리말과 글에 대한 통일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총 23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 《국문연구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연구안은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년) 제정을 비롯한 〈국어맞춤법통일안〉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연구 구성원은 다소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국문연구의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윤치호, 장현식, 이능화, 권보상, 주시경, 우에무라 등이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구 과제는 10개 과제로 1) 국문의 원인과 자체 및 발음의 연혁, 2) 초성 ‘ㅇ,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ㄱ, ㆁ, ㅅ, ㅈ, ㅊ, ㅋ, ㆁ’의 사용여부, 4) ‘ㅇ’ 폐지와 ‘ㅁ’ 창제 여부, 5) 종성 ‘ㄷ, ㅅ’ 2자의 용법과 종성에서 ‘ㅅ, ㅈ, ㅊ, ㅋ, ㆁ’ 6자의 사용여부, 6) 자모 7음과 청탁의 구별 문제, 7) 사성표를 사용할지의 여부와 고저 표기 여부, 8) 한글 자모 명칭, 9) 자모 순서와 행순 문제, 10) 철자법 등이다. 그 뒤에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최종 확정된

다섯째로 국문연구소¹³⁵를 나라에서 설치하는 그런 시기에 이른 것과 주시경 같은 이가 국문강습소를 개최한 이런 일이다.

1. 한글시대

이 시대는 지나간 경술(1910)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을유(1945)년까지 약 35년간으로 보고자 한다.

이 시대에는 ‘국문’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말 우리 문자를 표시하려는 때에는 ‘한글’이란 말을 사용한 데가 많으므로 썼다.

이 시대의 사실을 연대적으로 내려 말하지 않고 역시 통틀어서 몇 가지로 분하여 설명하여 마치려 한다.

첫째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하였으니 이 시대에 들어서 현저한 것은 철자법에 대한 연구이다. 대개 요약하면 조선어학회의 활동이

종성의 형태음소론적 표기 문제와 된소리 표기법 문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국문’, ‘국자’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연구 결과였다. 결국 이 <국문연구의정안>이 일제 침탈로 흐지부지하게 끝났지만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상정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한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

- 135 국문연구소: 1907년 7월 학부에 설치되었던 한글연구기관으로 문자체계 연구, 맞춤법 연구 훈민정음 창제시 설치된 정음청 이후 최초로 한글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으로 학부대신 이재곤(李載崐)이 황제의 재가를 얻어 설치되었다. 설립 동기는 19세기 말부터 문자문제가 제기되고 공동연구에 의한 통일된 문자체계의 필요성을 느끼던 터에 1905년 7월 정부가 공포한 지석영의 <신정국문>이 내용상 문제점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1906년 5월 이능화가 학부에 제출한 <국문일정의견>에서 문자체계 통일을 역설하였기 때문이었다. 위원장에는 학부 학무국장 윤치호, 위원에는 학부 편집국장 장현식, 한성법어학교 교장 이능화, 내부 서기관 권보상, 일본인 학부 사무관 우에무라(上村正己), 주시경 등이 임명되었다. 이후 어윤석, 이종일, 지석영, 이민웅 등이 발탁되었다. 1907년 9월 제1차회의가 열린 뒤 1909년 12월까지 23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14개항의 문제를 제출하여 1909년 12월 <국문연구의정안>과 8위원의 연구안으로 꾸미진 보고서를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국문의 연원과 자체(字體) 및 발음의 연혁, 초성 ㅇ, ㅅ, ㅈ, ㅊ, ㅌ, ㅍ, ㅍ, ㅍ 8자의 사용 여부, 초성 중 ㄱ, ㄷ, ㅂ, ㅅ, ㅈ, ㅊ 6자의 병서법의 일정화, 중성 2자의 창제와 중성 ㄷ, ㅅ 2자의 용법과 ㅈ, ㅊ, ㅌ, ㅍ, ㅍ 6자의 중성 채용 여부, 자모 7음과 청탁과의 구별, 사성표의 사용 여부와 조선어 음의 고저(高低), 자모 음독일정, 자순과 행순의 일정, 철자법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고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상에 공포되지 못하였으나 <국문연구의정안>의 내용은 매우 훌륭한 문자 체계와 표기법 통일안으로 ‘자’를 사용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오늘날 사용하는 맞춤법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뚜렷하니 《한글》을 매월 발행하였다. 달리 조선어학연구회가 있어서 조선어학회와 대립의 처지에서 철자법상으로도 전혀 다른 경향을 견고 있었으며 《정음》이란 잡지를 계속하였다.

또 하나 조선어문학회가 있어서 그 회보와 총서를 발행한 일이 있다. 즉 전이회(前二會)가 철자법, 표준어, 사전문제를 가지고 맹렬히 연구하고 반대하고 하기에 피차 분주할 때에 달리 이 어문학회는 그 문제는 그 이회에 일임하고 그 외의 다른 언어학의 제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해 보자고 조직된 회요 그 회보이다. 그러나 이회는 전이회(前二會)에 비하여 그 존속된 기간이 짧고 그 회보도 7호에 그쳐버렸다.

둘째로 일본인 측으로 우리 언문에 관한 연구가 새로웠으니 오구라 신페이가 지은 《향가급이두(鄉歌及吏讀)》의 연구라든가 그 《조선어학사》 같은 것은 오늘날에 한 참고서로 중요한 것이고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가 지은 《려언고》, 《용가고어전》 그 밖에 《교주가곡집》 같은 것이 있으니 고어의 《운해》에 큰 노력이 있다. 이 밖에 다카하시(高橋亭),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그 밖에 회화책 같은 것을 내어 놓은 것이 비교적 많다.

셋째로 서양인 측에서 보면 ‘게일(James Scarth Gale)’, ‘언더우드(Underwood, Horace Grant, 1859~1916)’, ‘존스(Eli Stanley Jones, 1884~1973)’, ‘에카르트(Andreas Eckardt, 1884~?)’ 등의 사전, 문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잡지도 수종 귀한 것이 있어 계간되었다.

이와 같은 형편으로 내려오다가 이 시대의 말엽에 이르러서는 우리 문자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이 우리말과 더불어 같이 당하게 되었으니 우리말과 우리글의 자유로운 발표는 이때에 금지를 당하는 최후의 수난이 있었다.

제2절 사전

우리말의 사전으로서 한 형식을 갖춘 것이 출판된 것은 펍 근자에 속한 일로 보인다. 대개 어느 나라말이나 그렇겠지마는 우리말의 사전도 그 완전한 것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연대가 걸릴 것이고 또 그 이전에는 다만 한 단편적인 어휘들의 수집이 그 시작을 짓는 듯하다.

이제 우리말 사전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건댄 한문 전용의 사폐로 인하여 혼민정음을 가지고 우리말의 어휘를 사전식에 의하여 채취가 되기는 아마도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 포교의 목적으로 도래된 이후의 일인 듯하다.

이제 간단히 우리말사전의 주요한 것만을 연대순에 의하여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각자의 내용을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앓고 다만 그 해제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어를 조선어로 대역한 것이 1874년에 ‘푸칠로’의 저작으로 출판된 것이 있으나¹³⁶ 그러나 사전으로 그 체재를 잘 갖춘 것으로는 역시 프랑스어와 관계된 《한불사전》이 그 제1위에 속할 것이다.¹³⁷

136 《로한사전(露韓辭典)》: 《시작노한사전(試作露韓辭典)》 1874년 간행된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대역사전(對譯辭典) 상페체르부르크(C. Петербу́рг: 지금의 레닌그라드)에서 푸칠로(Пуи́лло, М.)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다. 원 제목은 《시작노한사전(試作露韓辭典), О́пытъ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이다. 46판으로 총 745면 러시아어의 주제어휘 총수는 약 7,300어 정도에 달한다(1면당 평균 10어). 러시아어는 활판 인쇄이고 한국어는 석판 인쇄로 되어 있다. 이 사전은 제정러시아 연해주의 한 지방관리였던 푸칠로가 당시 급증하였던 한국인 이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편찬한 것이다. 저자의 서문에 의하면 이 사전은 1872년에 이미 완성되었으나 비용이 없어 출판을 미루어오던 중 1873년 세계여행길에 연해주에 들렀던 대공작 알렉산드로비치의 하사금에 의하여 1874년에 사전출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말 어휘는 함경북도 육진지역(六鎭地域)의 방언이 지배적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푸칠로는 육진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 말을 배운 것으로 보이는데, 저자의 서문에 의하면 이 사전의 편찬에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양(梁)이라는 한국인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 《노한사전》은 외국어와 한국어를 대역한 최초의 사전이며, 아마도 한국어가 관련된 모든 사전 가운데서 최초의 사전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이 사전은 오늘날 함경북도 육진지역의 방언에 관한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곽충구(2007), <중앙아시아 고려말 자료사 연구>, 《인문논총》 제58호, 서강대학교인문학연구소, 참조.

137 《한불사전》: 1880년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에서 706명이 편찬한 한불대역사전(韓佛對譯辭典)으로 일본 요코하마(yokohama)의 Echo du Japon 인쇄소에서 인쇄하고 C. Levy, Imprimeur-Libraire에서 발행하였다. 원명은 《한불죽면(韓佛字典), DICTIONNAIRE COREEN-FRANCAIS》으

1. Dictionaire Green Francais, Par les Missionnaires de coree de la Socieie Missions entrangeeres de Paris.

《한불사전》은 불란서 선교사들이 조선인 교도의 힘을 빌어 편찬된 것이니 1880년에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출판된 것이다.

이 책은 연대 상으로도 불어와 조선어와로 된 것 중 제일 오랜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펴 잘 정리되어 있는 만큼 이 책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전은 다 이것을 참고하지 않은 것이 없다.

2. H. G. Underwood: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1890.

외국인으로서 포교의 필요에서 조선어를 학습하고 여기서 이 사전이 편찬되었으니 그 부록으로는 ‘하다’ 등의 어미 변화에 관하여 논한 것과 그밖에 지명과 우리 지도를 붙였다. 이 《한영사전》은 영어와 조선어로 된 사전으로서는 최초의 것이니 역시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되었다.¹³⁸

이 책은 한영과 영한과의 두 부분으로 되어서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에게도 또 외국인으로서 조선어를 배우는 데에도 다 필요하게 되었다.

3. Paroum Vocabulary and usum Stustasase Javentatis Coreanare, 1891.

《로한사전》은 도무지 서문도 없고 그 발문도 붙지 않은 만큼 그 작자가 누구며 그 유래가 어떠한지 알 길이 없다.

천주교회에 찾아보면 1891년에 상하이(香港)에서 출판한 것으로 방달지의 저작이라고 한다.

로서 한글이름, 한자이름, 불어이름이 위에서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등에는 불어 이름만 나와 있다.

138 《한영사전》: 1897년 게일(Gale, J.S.)이 편찬한 《한영사전(韓英辭典)》으로 이 책은 3차례 간행되었다. 단순한 증판이 아니고 책의 형태와 편찬방식을 달리하므로 2판과 3판은 개정판인 것이다. 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어 문법의 저술이다. 게일(Gale, J.S.)은 1894년 《스과지남(辭譯指南) Korean Grammatieal Forn》을, 1903년 이의 재판을 내었으며 1916년에는 개정판을 상재하였다. 이 책은 그의 사전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토대가 되어 사전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J. Scott; English-Corean Dictionaery, 1891.

이 책은 사전으로서는 불과 345쪽에 알파벳 순으로 어순은 배열되었으나 그 어휘는 그리 풍부하게 채집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서언이 매우 흥미 있는 기술이니 조선인의 언어와 인종에 관한 것까지 논하였다.

5. J. S. Gale; A Korean-English Dictionary, 1987.

이 《한영사전》은 1897년에 그 초판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되고 그 재판은 1911년에 삼판은 1931년에 출판되었으니 다른 모든 사전 중 가장 잘 정리되고 어휘도 매우 많다. 저자는 판을 더하면서 더욱 더 어휘를 보충하고 내용을 충실케 하여 이 《한영사전》 중의 최후 즉 최신판이 될 것이다.

6. Charles Alévêque; Petit Dictionaire Francaïe-Coéen, 1901.

《불한사전》은 프랑스어를 조선어로 대역한 것이니 《한불사전》과는 그 점에서 상대가 된다. 그 내용이 풍부한 점에 있어서는 《한불사전》의 류가 못되나 법어인 점에서 귀하다. 이 권말에는 조선어의 수사며 다른 여러 물명이 기록되어 있다.

7. Geoge Heber Ioneo; An English-Korean Dictionary, 1914.

《영한사전》은 천주교의 《한불사전》과 기일의 《한영사전》이 잘되기는 했으나 신시대어를 채집치 않았으므로 이 책에는 그 점을 주력하였다고 했다. 내용은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순서를 배열하고 어휘는 5081까지 번호를 기입하였으니 이것이 그 어수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서양 선교사의 손에 된 것을 그만두고 일본인이 저작한 것을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

8. 《선역국어대사전》

《선역국어대사전》은 대정 8년 5월에 송강헌치(松岡獻治)의 편으로 동경 대판옥호(大阪屋號)의 발행이니 일본 어휘를 약 73,000여 어를 수집하여 이것을 우리말로

역해한 것이다.

9. 《조선어사전》

이 책은 약 육만 어를 역해하여 조선총독부 편(編)으로 대정 9년 3월에 발행되었다. 내용도 체제도 정리되었으나 한자를 사용한 것이 너무 많은 듯한 흠이 있다.

10. 《조선어사전》

이 책은 문세영(1888~?) 편찬으로 1938년에 박문서관에서 출판된 것이니 우리말을 우리말로 주해하였고 조선인 한 개인의 명의로 출판된 최신의 것이며 최대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말 사전을 출판된 연대에 의하여 열거하여 보았으니 외국어와의 관계로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일어 등의 것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개 우리말 사전이 좀 더 빨리 나오지 못한 것은 한자와 일어와의 특수 관계가 그 진전의 지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고어 재료 사전》(전, 후집)

이밖에 1946년 11월에 방중현 선생이 출판으로 나온 것이 있으니 이것은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등에서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을 ‘가나다라’의 순으로 정리한 것뿐이니 활자 문제로 인쇄가 안되므로 ‘프린트’되어 있다.

12. 《우리말 큰사전》

그리고 조선어학회에서 그 동안 편찬 중이던 것으로 현재 인쇄 중에 있으므로 적어도 내 9월까지의 그 제1권이 나오리라고 한다. 이것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우리말 사전으로서는 최신 최대의 것이 될 것이다.

제3절 문법지

이제 여기서 우리 손으로 된 문법서를 간단간단히 열거하여 보고자 한다.

1. 《대한문전》 최광옥 저

이 책은 융희 3년 2월에 자서를 붙이고 출판되었으니 이 사전 목차에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서차와 체계를 세우기에 힘쓴 것이라고 보인다. 제1편에 서론, 제2편에 언어론, 제3편에 문장론의 3편으로 분하여 언어론에서 품사를 명사, 대명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접속사, 첨부사, 감동사의 8품사로 분하여 그 의의와 종류와 활용을 갈라서 논하였다.

2. 《초등조선어전》 김희상 저

책은 그 자서에도 사립학교 국어과 초등교육의 학생용으로 학부의 검정을 받은 것이니 저자는 1927년 2월 4일에 다시 ‘우리글들’이란 저작을 발표하였다. 제1편에 술에 제2편에 사(詞), 제3편 말의 3편으로 분하여 사(詞)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토(吐)의 6품사로 분하였다.

3. 《국어문법》 주시경 저

융희 3년 7월의 자서를 붙이고 동 4년 4월에 발행이 되었으니 국어문법이란 명칭으로는 이것이 그 처음인가 한다. 처음에는 소리, 둘째에는 사(詞), 셋째에는 문장으로 분한 것이지만 이 책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주지 하에서 편찬한 만큼 품사로 이것을 임, 엇, 읊, 께, 잇, 언, 억, 놀, 께 등으로 분하여 있다. 이하는 이 시대에 속하지 않고 다음 시대에서 논할 것이나 간단히 이 책명만을 열거하기로 하면 아래와 같다.

《김터조선말본》 김두봉 저, 《현금조선문전》, 이규영 저서, 1920년, 《조선어문제요》, 강매 저서, 1912년, 《조선정음문전》, 김원우 저서, 1922년, 《선문통해》, 이필수 저서, 1922년, 《신찬조선어법》, 이규방 저서, 1923년, 《정음문전》, 이필수 저

서, 1923년, 《잘 뽑은 조선말과 글의 본》, 강매·김진환 저서, 1925년, 《조선어문법》, 이상춘 저서, 1925년

이밖에 정열모, 최현배, 홍기문, 신명균, 심의린, 안확, 이완응, 여러 대가의 문법론이 있으니 여기에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생략한다.

결언

간단히 말하여 훈민정음은 어떠한 변천사를 가졌던가를 보고 싶은 데서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 사론을 전개시킨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이 변천하는 중에서 중요한 점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을 그 시대에 따라서 몇 개씩 예로 들어서 그 전체를 추측케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한 시대의 서설도 결론도 들어 있지 않다. 오직 단편적인 문헌의 인용에서 훈민정음과의 관계를 논함으로써 그 변천을 종으로 또는 횡으로도 미루어 볼까 한 것이다.

제1편에서는 주로 훈민정음이 제작되기 이전에 우리말과 우리 문자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한 것이요, 제2편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에 관하여 그 기원, 그 내용, 그 저작의 경로를 찾아 알고자 한 것이요, 제3편에서는 훈민정음이 저작된 이후에 그 변천이 어떻게 되어갔는가를 보고자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뜻이 전부 완전히 나타나게 체계 있게 편찬하였다면 이것은 훈민정음사 즉 조선 어학연구사의 일편도 될 수 있건마는 여기 이것은 그런 체계 있는 또는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서 나온 그런 사론도 못되는 것이니 오직 훈민정음에 관한 한 상식을 넓히는 도움이 될까하는 단편집이리고 하여서 좋을 것이다.

전편의 뜻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면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우리말을 표시한 문자가 한문자가 그 주였다는 것과 우리의 고어가 지금과 비교해서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훈민정음이 제작된 이후는 한문자와 병용되어 그보다도 한문자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쓴 때와 또는 독자적으로 한 문자의 형세

를 완전히 가져본 그런 때로 갈라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훈민정음이 제작 후를 살펴보면 간단히 추려서 세종대왕께서 처음 창제하시고 세조 때에 간경도감에서 언해를 많이 간행하였는 바 연산조에 이르러 일단 그 사용의 금지를 당하고 말았다.

중종조에 최세진이 당시의 실용을 주로 훈민정음을 정리하여 창제당시 28자이던 것을 27자로 줄이고 초종성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중성자수를 바꾸어 써 새 시기를 지었으며 숙종, 영조 때에 이르러 비로소 훈민정음 그 자체적 연구가 싹트기 시작하니 신경준 저 《훈민정음운해》가 그 대표이며 그리고 그 후 순조조에 유희가 《언문지》를 지으니 이것이 순전히 훈민정음만을 논한 것 이자(二者) 중 그 하나이다.

갑오경장 이후 우리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 국한문 혼용에서 다시 국문만을 사용하고 또 우리 손으로 문법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그 연구의 길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의외에도 정치상 관계로 우리는 정음자의 사용까지 임의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글맞춤법 통일안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 여기서 훈민정음은 24자만이 사용하게 되었다. 즉 훈민정음은 그 자수상으로 보아 세종대왕께서 28자로 창제된 것이 최세진 때에 이르러 27자로 되고 홍순보 저의 《삼운성휘》에서는 25자로 지적되고 한글맞춤법 통일안에는 ‘·’를 마저 정리하여 결국 24자로 현용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자수 상으로나 그 명칭 상으로나 또 그 사용상에서 늘 다른 시대를 지으면서 변천되어 온 것임을 우리는 능히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해방 후에 국어에 대한 일반 변천을 살펴건대 그 직후는 주로 우리 문자를 실용상에서 요청된 것이라고 보겠으니 많이 철자법 문제가 토론되었고 그 후 1년이나 못되어 이 문제는 위선 보편화한 일단락을 지어 왕성하던 그 열의는 잠깐 식은 듯한 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식은 것은 아니리라. 장차 묵직하고 큼직한 소리로 울려올 학적 준비기간임을 누구나 믿고 있다. 그것은 학문의 연구가 일시적인 열(熱)에서 보다는 침착하

고 꾸준한 성에서 좀 더 많이 얻음이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또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순서이다. 급하되 급할 것이 없이 순서 있게 정돈되어 나음이 학문의 길에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생각컨댄 지금은 역시 국어학의 준비기간일 것이라 보아 이상과 같은 상식을 그 내용으로 한 일권의 책을 편하여 피차 그 시간을 절약해 볼까 한 것이다.

〈해석 원본 《훈민정음》〉은 방종현 선생이 1940년 7월 30일로부터 8월 4일까지 5회로 나누어 〈조선일보〉에 게재했던 글인데 1946년 7월에 진단학출판협회에서 단권집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의 권두언은 진단학출판협회 경영을 맡고 있던 한돌 정재운이 쓰고 방종현 선생이 역자의 서문을 썼다. 이 역자의 말에서 “이 책은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그 발행자의 명의로는 비록 내 이름으로 되었으나 이것을 실제로 번역한 이는 홍기문이다”라고 밝혔듯이 1차 번역은 홍기문이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단학출판협회에서 출판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바뀌었으며, 홍기문의 《정음발달사》(서울신문사, 1946)에 실린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 정재운의 서문과 역자인 방종현 선생의 역자 서문을 생략했음을 밝혀둔다.

A solid orange circle containing the text '제 1 편' in white.

제 1 편

《훈민정음》예의

《御製訓民正音》¹

[어제 서문]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² 故愚民。³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⁴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⁵ 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⁶

- 1 '훈민정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곧 '훈민정음'을 해설한 책이름으로 또 새로 창제한 글자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다. “訓民正音은 百姓 ㄱㄷㅈㅊ는 正音 소리라”(《훈민정음》언해본)라고 하였기 때문에 글자 이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제 정음을 지을 때 정음 28자를 각각 상형으로 만들었다(今正音之作 正音二十八字各象形而制之)”(《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하여 새로 만든 글자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 2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 :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國之語音’은 조선의 입말과 글말에서 입말만 있고 글말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말이라는 뜻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글말은 한문과 한자를 빌려 쓴 이두나 구결뿐이었다. “異乎中國”은 ‘異乎中國(之語音)’은 조선과 중국의 입말도 다르고 글말은 중국의 한자밖에 없으니 조선의 글말을 한자로 적기에 부적당함을 말한다. 따라서 ‘與文字不相流通’은 중국 한자로 조선의 입말을 적어서 소통할 수 없으며, 또한 중국의 입말과 조선의 입말이 서로 소통되지 않음을 뜻한다. 세종 25년 세종이 창제한 문자는 정음이 아닌 ‘언문 28자’였으나 그 후 해례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표준 발음 표기 문자로 확대되면서 ‘정음’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세종 26년 2월 16일 《운회》를 언문으로 번역하라는 지시나 동년 2월 20일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정음’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으며 세종 스스로가 ‘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종 28년 11월에 궁중 내에 ‘언문청’이 설치되었다가 문종 원년 1450년에 정음청으로 바꾼 사실을 고려하면 세종이 창제한 당시 언문 28자는 우리말 표기를 위한 문자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후 한자음 교정 통일을 위해 그 쓰임이 확대되면서 ‘정음’이라는 용어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國之語音。異乎中國”에 대한 해석은 “국어음(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3 우민(愚民): 어리석은 백성. 곧 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 《국조보감》 5권에 《삼강행실》을 반포한 〈하교문〉에서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도형을 그려서 붙이고(尙慮愚夫愚婦未易通曉。附以圖形)”라고 하고 《세종실록》 갑자 2월조에는 “만일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옮겨 민간에 반포하면 우부우부가 모두 깨치기 쉽다(若以諺文譯三綱行實。頒諸民間。愚夫愚婦皆得易曉。)”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부란 한문을 모르는 그 당시의 문맹을 우부우부(愚夫愚婦)라 했으며, 이것을 줄여서 곧 우부의 뜻으로 우민이라 하였다.
- 4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조선에서는 글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이나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문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뜻을 말한다. ‘人’ 곧 ‘사람마दा’의 뜻을 홍기문(1946:3)은 우민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라의 말(語音, 입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중국어, 한자)로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한문으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초성의 글꼴과 음가]

ㄱ. 牙音。如君字初發聲⁷

並書。如虬字初發聲⁸

ㅋ. 牙音。如快字初發聲⁹

ㅇ. 牙音。如業字初發聲¹⁰

- 5 新制二十八字.: '字'는 곧 낱글자(자모)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제한적 음소문자로서 자모 28자를 말한다. 한자를 '文字'라고 한 반면에 한글 자모는 '字'로 표현하였고 어휘나 문장은 '諺字' 혹은 '諺文', '諺語'로 표현하였다.
- 6 便於日用耳.: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 떨어져 나간 1~2엽에서 '耳'를 '矣'자로 보사하는 과정에서 '便於日用矣'으로 잘못 쓴 결과였다.
- 7 ㄱ. 牙音。如君字初發聲.: 'ㄱ'자는 아음 곧 연구개음으로 중국 운서의 오음(아, 설, 순, 치, 후)에 따라 배치한 다음 중국 운서의 성모 글자를 우리말에 맞도록 바꾼 '君'자의 첫소리 곧 [k, g]와 같다는 말이다. 《동국정운》의 한자음으로는 '군(君, 평성)'이다. 글꼴 'ㄱ'과 그 음가를 규정하고 있다. 초발성(初發聲)은 중성과 종성을 고려하여 초성으로 줄여쓰게 된다.
- 8 並書。如虬字初發聲.: 아음 'ㄱ'자를 나란히 쓰면(並書) 'ㄲ'자가 되고 이 글자의 음은 '虬'의 첫소리 곧 [k', g']가 된다. 중국 운도의 종도는 '전청(무성음)', '차청(유기음)', '불청불탁(유성음)', '전탁(경음)'으로 배열되는 데는 여기서 채원정의 《경세성음도》의 청탁 배열 순서에 따라 '전청-전탁-차청-불청불탁'의 순서로 되어 있다. 한글 28자는 우리말 표기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음소였기 때문에 한자음 표기를 위한 전탁 6자(ㄲ, ㄳ, ㄴㅅ, ㄴㅆ, ㄴㅇ)는 제외되었다.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ㄲ(평성)'로 《동국정운》에서는 '꺄(평성)'로 표기하였다. 《동국정운》의 한자음에서 효섭과 유섭 한자는 음성운미 'ㅇ'를 부기하였다.
- 9 ㅋ. 牙音。如快字初發聲.: 'ㅋ'자는 아음(연구개음)의 차청(유기음) 글자로 중국 운서의 오음(아, 설, 순, 치, 후)에 따라 배치한 다음 중국 운서의 성모 글자를 우리말에 맞도록 바꾼 '快'자의 첫소리 곧 [kh, gh]와 같다. 《동국정운》의 한자음으로는 '꺄(거성)'이다. 《동국정운》에서는 역시 종성에서 지섭, 우섭, 과섭, 가섭, 해섭에 속하는 한자음에는 종성에 'ㅇ'자를 표기하였다. 중국 운서의 자모 '계(溪)'에 대응하여 '꺄(快)'로 정한 것은 당시 우리말의 통용음을 표준한 조치였다.
- 10 ㅇ. 牙音。如業字初發聲.: 'ㅇ'자는 아음(연구개음)의 불청불탁(유성음)의 글자로 '業'자의 첫소리 곧 [ŋ]

ㄷ. 舌音。如斗字初發聲

並書。如單字初發聲

ㅌ. 舌音。如吞字初發聲

ㄴ. 舌音。如那字初發聲

ㅍ. 脣音。如訢字初發聲¹¹

並書。如步字初發聲

ㅂ. 脣音。如漂字初發聲

ㅁ. 脣音。如彌字初發聲

ㅅ. 齒音。如卽字初發聲

並書。如慈字初發聲

ㅆ. 齒音。如侵字初發聲

ㅈ. 齒音。如戌字初發聲

並書。如邪字初發聲

ㅇ. 喉音。如挹字初發聲¹²

ㅎ. 喉音。如虛字初發聲

並書。如洪字初發聲

ㅇ. 喉音。如欲字初發聲

ㄹ. 半舌音。如閭字初發聲

와 같다. 《동국정운》의 한자음으로는 ‘업(입성)’이다. 중국 북방 한자음에서 초성에서 [ɳ]는 이미 소실되었고 오직 오방언에만 남아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이상적 표기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글 자모 28자는 완전한 음소문자가 아닌 제한적 음소문자이다.

11 ㅍ.脣音,如訢字初發聲.: ‘ㅍ’자는 순음으로 전청의 글자로 ‘訢’자의 첫소리 곧 [p, b]와 같다. 《동국정운》의 한자음으로는 ‘별(입성)’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별’으로 표기하였고 언해본에서는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와 동일한 ‘별’로 표기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해례본과 《동국정운》의 운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성 입성자의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음 표기에서 입성자의 처리 방식이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음성 운미의 한자음은 곧 ‘-ㅇ’(步甞, 慈忞), ‘-ㅈ’(快·쾌), ‘-ㅍ’(後:響)처럼 표기하여 언해본의 표기와 차이를 보여준다. 다만 입성자 ‘-ㅍ, -ㅌ, -ㄱ’ 가운데 ‘-ㅌ’는 해례본에서는 ‘ㄷ’으로 《동국정운》에서는 ‘-ㄹㅍ’로 표기하다가 《육조법보단경언해》에서부터 ‘ㄹ’로 바뀌었다.

12 ㅇ.喉音,如挹字初發聲.: ㅇ은 후음 불청불탁의 글자로 ‘挹’의 첫소리와 같다.

△. 半齒音。如穰字初發聲¹³

ㄱ[k]은 어금닛소리이나 君(군-평성)¹⁴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ㄱ[k⁷]) 虬(꾸-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ㅋ[k^h]은 어금닛소리이니 快¹⁵(쾌-거성)자 첫소리와 같다
 ㅇ[ŋ]은 어금닛소리이니 業(업-입성)자 첫소리와 같다
 ㄷ[t]은 혓소리이니 斗(뒸-상성)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ㄷ[t²]) 覃(담-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ㅌ[t^h]은 혓소리이니 吞(툰-평성) 첫소리와 같다
 ㄴ[n]은 혓소리이니 那(낭-평성) 첫소리와 같다
 ㅂ[p]은 입술소리이니 𪎐(뵈-입성)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ㅂ[p⁷]) 步(뵤-거성)자 첫소리와 같다
 ㅍ[p^h]은 입술소리이니 漂(표-평성) 첫소리와 같다

13 초성 17자에 대한 음가는 《동국정음》음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 | 전청 | 전탁 | 차청 | 불청불탁 |
|-----|-----------|-----------|-----------|-----------|
| 아음 | ㄱ:君-군(평성) | ㄱ:虬-꾸(평성) | ㅋ:快-쾌(거성) | ㅇ:業-업(입성) |
| 설음 | ㄷ:斗-뒸(상성) | ㄷ:覃-담(평성) | ㅌ:吞-툰(평성) | ㄴ:那-낭(평성) |
| 순음 | ㅂ:𪎐-뵈(입성) | ㅂ:步-뵤(거성) | ㅍ:漂-표(평성) | ㅁ:彌-밍(평성) |
| 치음 | ㅈ:卽-즉(입성) | ㅈ:慈-쥬(평성) | ㅊ:侵-침(평성) | |
| | ㅅ:戍-쑤(입성) | ㅅ:邪-샤(평성) | | |
| 후음 | ㅇ:捫-훔(입성) | ㅎ:虛-형(평성) | ㅇ:洪-홍(평성) | ㅇ:欲-욕(입성) |
| 반설음 | ㄹ:閭-령(평성) | | | |
| 반치음 | ㄷ:穰-상(평성) | | | |

세종 25년에 창제한 언문 28자의 청탁에 따른 배열이 중국 운서와 달랐고 또 언문 28자를 해설한 해례본에서도 역시 오음 음계가 중국의 운서와 다른 점이 있었다. 예의편에서의 ‘ㄱ-ㅂ-ㅋ-ㅇ’과 같이 초성의 배열은 “전청-전탁-차청-불청불탁”의 순서인데 중국 각종 운서에서의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 배열과는 달랐다. 이것은 채원정의 《경세성음도》에서 청탁 배열 순서가 ‘전청-전탁-차청-불청불탁’의 순서인데 이것을 답습한 결과로 보인다. 해례본 초성해에서는 이들의 순서가 《홍무정운》 계열과 같은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으로 변경이 이루어진다. 예의와 해례 사이에 곧 《고금운회거요》에서 《홍무정운》으로 중국 한자음의 연구 대상이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4 창제 당시의 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여기서는 그 후의 《동국정운》식 음으로 나타낸다. 이하 동일하다.
- 15 ‘快’는 우리 통용음을 표준화한 것이다. 한자음의 초성에서 ‘ㅋ’소리가 나는 것은 ‘夫’, ‘快’자 뿐이었다.

ㅁ[m]은 입술소리이니 彌(밍-평성) 첫소리와 같다
 ㅈ[ts]은 잇소리이니 卽(즉-입성)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ㅈ[tsʰ]) 慈(찌-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ㅊ[tʃ]은 잇소리이니 侵(침-평성) 첫소리와 같다
 ㅅ[s]은 잇소리이니 戌(쑤-입성)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ㅅ[sʰ]) 邪(샤-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ㅎ[h]은 목구멍소리이니 捫¹⁶(훔-입성) 첫소리와 같다
 ㅎ[h]은 목구멍소리이니 虛(형-평성)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ㅎ[hʰ]) 洪(홍-평성)자 첫소리와 같다
 ㅇ[j/h]은 목구멍소리이니 欲(옥-입성) 첫소리와 같다
 ㄹ[r]은 반혓소리이니 閏(령-평성) 첫소리와 같다
 ㄷ[z]은 반잇소리이니 穰(양-평성) 첫소리와 같다¹⁷

[중성의 글꼴과 음가]

- 。如吞字中聲¹⁸
- 一。如卽字中聲
- 丨。如侵字中聲
- ㄣ。如洪字中聲
- 乚。如覃字中聲
- ㄚ。如君字中聲

16 ‘捫’자만 《광운》의 중국 운서 자모와 동일한 글자이다.

17 언문 28자는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로 되어 있는데 예의에서는 최소한의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제한한 제한적 음소(constrain phonemic letters)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제한적이란 ㅁ, ㅇ, ㅅ, ㅈ, ㅊ, ㅎ 같은 자소는 초성이나 중성에서 모두 변별력을 갖지 못한, 곧 이음표기를 위한 글자이다. 그리고 중성에서 중화되는 자음들도 엄격한 의미에서 음소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 음소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례에서는 이들 자소의 합자(조합)에 의해 매우 다양한 표음적 음성문자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은 제한적 음소문자이면서 표음문자이며, 또 글자의 계열, 통합적인 체계 구성면에서 자질문자라라고 말할 수 있다.

18 ·。如吞字中聲: 중성 ‘·’자는 ‘吞’자의 가운데 소리 곧 [ɔ]와 같다.

ㄱ。如業字中聲

ㄴ。如欲字中聲¹⁹

ㄷ。如穰字中聲

ㄹ。如戊字中聲

ㅁ。如驚字中聲²⁰

· [ɔ]는吞(吞-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ㅡ [u]는卽(즉-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ㅣ [i]는侵(침-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o]는洪(홍-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ㅈ [a]는覃(탐-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ㅊ [u]는君(군-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ㅋ [ə]는業(업-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jo]는欲(욕-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ㅈ [ja]는穰(상-평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ㄹ [ju]는戊(음-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ㅁ [jo]는驚(별-입성)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중성]

19 ㄴ。如欲字中聲: 중성 ‘ㄴ’자는 ‘欲’자의 가운데 소리 곧 [jo]와 같다.

| | 상형자 | | | 초출자 | | | | 재출자 | | | |
|----|--------|--------|--------|--------|--------|--------|--------|--------|--------|--------|--------|
| 글꼴 | · | ㅡ | ㅣ | ㄴ | ㅈ | ㅊ | ㅋ | ㄴ | ㅈ | ㄹ | ㅁ |
| 음가 | 吞 튼 | 卽 즉 | 侵 침 | 洪 홍 | 覃 탐 | 君 군 | 業 업 | 欲 욕 | 穰 상 | 戊 음 | 驚 별 |

20 중성 11자에 대한 음가는 초성에서 사용한 성모 글자의 중성을 활용하여 그 음가를 표시하였다. 초성의 음가를 밝히기 위해 사용한 성모 글자는 “君, 虬, 快, 業, 斗, 覃, 吞, 那, 鼈, 步, 漂, 彌, 卽, 慈, 侵, 戊, 那, 挹, 虛, 洪, 欲, 間, 穰” 24자이다. 그 가운데 중성이 있는 글자는 “君, 業, 覃, 吞, 鼈, 卽, 侵, 戊, 挹, 洪, 欲, 穰” 12자이고 중성이 없는 글자는 “虬, 快, 斗, 那, 步, 漂, 彌, 慈, 那, 虛, 間” 11자인데 중성이 있는 글자 12자 가운데 ‘挹’를 제외하고는 초성과 중성에 각각 두 번씩 사용되었다. 중성에 사용된 글자는 모두 중성이 있는 “吞, 卽, 侵, 洪, 君, 業, 欲, 穰, 戊, 驚” 11자이다. (안병희 (2008:58~60) 참조) 아울러 중성에 사용된 대표 글자는 평성과 입성 글자만 사용되었다. 이처럼 언문 28자는 창제할 당시 고도로 기획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 ㄴ ㄷ ㅌ ㄱ ㅍ 附書²⁴於初聲之下。

ㅣ ㅌ ㄷ ㅌ ㄱ ㅍ 附書於右。

· ㄴ ㄷ ㅌ ㄱ ㅍ는 초성 아래에 붙여 쓰고

ㅣ ㅌ ㄷ ㅌ ㄱ ㅍ는 초성 오른쪽에 붙여 쓴다

[성음]

凡字必合而成音。²⁵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쳐야 소리를 이룬다

[사성]

左加一點則去聲。二則²⁶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²⁶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 두 점을 더하면 상성, 점이 없으면 평성이며
입성은 점 더하기는 같으나 촉급하다

24 부서(附書)는 위쪽에서 아래쪽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초성자와 중성자를 합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 ‘·’와 ‘ㅣ’가 어울려 ‘ㅌ’가 되거나 ‘·’와 ‘ㄴ’이 어울려 ‘ㄷ’이 되는 것을 부서라고 할 수 있다. 부서는 자소의 조합 방식에 따라 세운글자와 누운글자의 방식만 제안하였으나 해례본 합자해에서는 혼합글자까지 확대하였다. 해례본에서는 이 부서 규정을 합자 규정과 구분하고 있다. 곧 “초, 중, 종 3성은 합한 연후에 소리가 이루어지니 초성은 혹 중성 위에나 왼편에 어울려 쓴다.(初中終三聲合而成字. 初聲或在中聲之上或在中聲之左)”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25 성음(成音): “무릇 모든 글자는 합한 연후에 소리가 이루어진다”는 음절 구성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서 ‘字’는 음소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음소를 나타내는 글자는 초성과 중성 그리고 종성을 모아쓰기를 해야지 곧 음절이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한글은 이처럼 음소문자이면서 음절문자의 성격을 띤 것이다.

26 사성: 左加一點則去聲。二則²⁶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 이 문장은 “左加一點則去聲。左加二點則²⁶上聲。左加無點則平聲。左加點則入聲。左加點同而促急”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제 2 편

《훈민정음》 해례본

제1장 제자해(制字解)¹

[제자의 성리학적 배경]

天地之道。² 一陰陽³五行⁴而已。⁵ 坤復之間爲太極。⁶ 而動靜之後爲陰陽。⁷ 凡有生類⁸ 在天地之間者。捨陰陽而何之。故人之聲音⁹ 皆有陰陽之理。¹⁰ 顧人不察耳。³

- 1 제자해(制字解):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음가와 글자를 만든 원리를 성운학과 성리학적 관점에서 해설한 부분이다. 당시 동아시아의 통합적 우주관이 담긴 곧 송대 성리학의 자연철학적 순환 이론과 성운학 이론을 기반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 원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승녕(1976:50~51) 교수는 “세종 때에 명나라의 대표적인 사상전집이라 할 《성리대전》, 또는 그 속에 있는 《황극경세서》란 책의 사상이 그대로 옮겨졌다. <중략> 이것은 중국의 언어철학인 설명으로 권위를 장식한 셈이다”라고 한 뒤 “오늘날 일면에서 언어 연구를 과학 운운 말하고 있는데, 성리학적 언어 연구란 도저히 성립될 수 없겠다고 하겠다.”(이승녕, 1976:112)라고 하여 당대의 한글 창제의 성리학적 기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2 천지도도(天地之道): 하늘과 땅의 도리. 하늘과 땅의 도리는 오직 하나 곧 태극의 도이며, 이는 우주의 섭리를 말한다. 곧 하늘과 땅의 도가 태극인데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 상생 발전한다. 《태극도》에 의하면 오행은 “양이 변해 음에 합한다(陽變陰合)”에서 생긴 것으로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다(五行一陰陽).” 무극은 우주의 생성 이전이라면 하늘과 땅으로 그리고 음과 양으로 역학의 근본으로 나뉜 시조를 태극이라 하며 태극의 상태에서 동정이 이루어지면서 우주의 만물이 생성 소멸하는 순환이 진행된다는 순환적 자연철학이 훈민정음 제자의 기본 철학이다. 《역경》〈계사〉 상 제2장에 “육효의 변동이 천·지·인 삼재의 도리다(六爻之動 三極之道也)”라고 설명하였다. 천지는 하늘과 땅만이 아니고 우주 자연을 뜻하기도 한다.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에서도 ‘天地自然之聲’(천지 자연의 소리)이라고 한 바 있다.
- 3 음양(陰陽): 태극의 상태에서 하늘과 땅으로 나뉘면 동시에 음양과 오행이 갖추어진다. 주연계(周濂溪)의 《태극도설》에서는 태극(太極)이 ‘동(動, 움직임)’해서 ‘양(陽)’을 만들고 ‘동(動)’이 극에 달하면 ‘정(靜, 멈춤)’이 되고, ‘정(靜)’에서 ‘음(陰)’을 만들고 ‘정(靜)’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동(動)’한다는 순환이론에 기본을 두고 있다. 《태극도설》에는 “양이 변해 음에 합하여 수, 화, 목, 금, 토가 생성되며 오기가 두루 퍼져 사시로 나구나 오행이 하나의 음양이다(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라고 하였다. 곧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추는 것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으로 갈리고 양으로 갈리어 양의가 맞서게 된다고 하고, 이것이 우주만물의 대립되는 원리가 되는데, 다시 “양이 변하여 음에 합하여(陽變陰合) 오행이 생긴다”고 했고, 우주만물은 오행인 물(水), 불(火), 나무(木), 쇠(金), 흙(土)이 결부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역경》〈계사〉 제5장에서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하니(一陰一陽之謂道)”를 여기서는 “천지의 도리는 오직 음양뿐이다(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라고 한 것이다.

| 무극 | 태극 | 하늘(天) | 음(陰) | 오행 (五行) | 곤(坤) | 동(動) | 청(淸) | 율(律) |
|----|----|-------|------|------------|------|------|------|------|
| | | 사람(人) | | | 복(復) | 정(靜) | 탁(濁) | 려(呂) |
| | | 땅(地) | 양(陽) | | | | | |

- 4 오행(五行): 만물을 생성하는 5가지 원소, 곧 물(水), 불(火), 나무(木), 쇠(金), 흙(土)이다. 《서경》〈홍범〉에도 “오행의 하나가 물(水)이오, 둘은 불(火)이오, 셋은 나무(木)이오, 넷은 쇠(金)요, 다섯은 흙(土)이다(五行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라고 하였다. 천지 간의 운용은 이 오행에 의해 순환한다는 논리이다.
- 5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 이 대목은 《황극경세서》 서에 “천지는 오로지 음양의 동정과 순환하는 것일 뿐(天地陰陽動靜循環而已)”이라는 내용과 같은 의미이다.
- 6 곤복지간(坤復之間): ‘곤(坤)’이나 ‘복(復)’이나 역의 괘명인데, ‘坤復之間’이란 역의 괘도 ‘상곤괘(上坤卦)’에서 ‘복괘(復卦)’에 이르는 사이이며(순서는 복괘에서 시작해서 곤괘로 끝남), 곤(坤)이나 복(復)이나 모두 역의 괘명(卦名)인 바 ‘곤과 복 사이(坤復之間)’는 역의 괘도상 곤괘에서 복괘에 이르는 사이를 이름이다.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한 주희암의 말(《역학계몽》 집주)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극 앞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괘도상에서 순환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후에 구(姤)괘로부터 곤(坤)괘까지는 음이 양을 포함하나 복(復)괘로부터 건(乾)괘까지는 양이 음을 나누기 때문에 곤(坤) 괘부터 복(復)괘까지의 사이는 무극이다. 곤(坤)괘로부터 구(姤)괘까지 되돌아오기 까지가 무극의 앞이다(或問 無極如何說前, 朱子曰邵子就圖上, 說循環之意, 自姤至坤是陰含陽, 自復至乾是陽分陰, 坤復之間乃無極, 自坤反姤是無極之前)”라고 하였으니 괘도상 곤괘로부터 구(姤)괘까지 끼꾸로 올라가는 그 사이가 ‘무극 앞(無極前)’임에 대하여 복괘까지 이르는 그 사이가 무극이다.
- 7 동정지후위음양(動靜之後爲陰陽): 동(움직임)과 정(멈춤) 이후에 음양이 되니. 이 말은 《태극도설》에서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동해서 양을 생하고, 동이 극에 달하면 정해지니, 정하여서 음을 생하고, 정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동해진다.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는 것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으로 갈리고 양으로 갈리니 양의가 맞서게 된다(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靜極復動, 一陽一陰,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라고 한 말을 요약한 것이다. 태극을 《황극경세서》 서에서는 성수론과 관련하여 “1은 태극이다. 곧 일동과 일정 사이이다(一者太極也, 所謂一動一靜之間者也)”라고 하고 있다.
- 8 유생류(有生類): 생명을 가진 것. 곧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살아 있는 것을 말한다.
- 9 성음(聲音): 세상 만물에는 모두 소리가 있음을 말한다. 《황극경세서》 〈찬도지요〉 하에서는 “하나의 물(物)이 있으면 하나의 성(聲)이 있다. 성(聲)이 있으면 음(音)이 있고 율(律)이 있으며 려(呂)가 있다 (有一物別有一聲, 有聲則有音, 有律則有呂, 故窮聲音律呂以 萬物之數)”라고 하여 ‘성/율’-‘음/려’의 대응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 10 개유음양지리(皆有陰陽之理):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다. 여기서 하늘과 땅(우주) 사이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와 결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태극도설》에서 “태극에는 일동과 일정의 양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음양이 곧 한 번 변하고 합치는데 오행을 갖추지만 그러나 오행이라는 것은 바탕이 땅에서 갖추어지고 기는 하늘에서 행해지는 것이다(有太極則一動一靜而兩儀分, 有陰陽則一變一合而五行具, 然五行者, 質具於地而氣行於天者也)”라고 하였고, 《성리대전》 권27에서도 “주자가 말하기를 음양은 기(氣)이며, 오행은 바탕인데 이 바탕(質)이 있음으로써 물건과 일이 이루어져 나오는 것이다(朱子曰, 陰陽是氣 五行是質, 有這質, 所以做得物事出來)”라고 한 것처럼 우주 만물을 음양과 오행으로 순환에

제자해

[제자의 성리학적 배경]

천지의 도(道, 순환하는 우주의 원리)는 한 음양(陰陽) 오행(五行)뿐이니 곧(坤)과 복(復)¹¹의 사이가 태극(太極)¹²이 되고 동(動, 움직이거나)과 정(靜, 멈춤)의 뒤가 음양이 되는 것이니라. 무릇 천지 간에 있는 생류(生類, 살아 있는 생명)로써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오. 그러므로 사람의 성음(聲音)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이건만 사람이 살피지 못할 따름이니라.¹³

今正音¹⁴之作。初非智營而力索。¹⁵○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理既不二¹⁶。則何得不

따라 이루어지고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11 곧복지간(坤復之間): 곧(坤)과 복(復)의 사이는 곧 태극이라는 말이다. 《주역》의 괘명(卦名). 곧괘는 64괘 중 2번째 괘이고 복괘는 24번째 괘이다. 그 사이를 무극 혹은 태극이라고 한다. 우주 곧 태극의 양극단을 말한다.
- 12 우주의 본체는 하늘과 땅이 아직 열리지 않고 음양(陰陽)의 두 기(氣)가 나누어져 있지 않을 때를 단 하나의 존재로 보았다. 《태극도설》에서는 ‘태극→음양→오행→만물’이 되어 자연철학의 순환적 체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13 병와 이형상의 《자학》〈성운의 역사〉에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지은 훈민정음은 바로 언문을 말한 다. 소용(1011~1077)의 〈경세성음〉 곧 〈황극경세성유창화도〉 또한 훈민정음과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다(我世宗大王御製, 訓民正音, 郎所謂諺文, 邵氏 經世聲音, 亦如 訓民相表裏.)”라고 하여 《훈민정음》 제자해의 기본 이론이 소용에 유래됨을 말하고 있다.
- 14 정음(正音): 훈민정음을 줄여서 쓴 말. 해례에서는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제자해), “正音初聲, 卽韻書之字母也”(초성해),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정인지 서) 등에서처럼 ‘正音’이라고 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정음(正音)과 정성(正聲)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곧 ‘정음’은 한자음의 정음을 표기하는 글자라는 의미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언문’과 함께 사용된 것이다.
- 15 지영이력색(智營而力索): 지혜로서 이루고 힘씀으로서 찾은 것이 아니다. 《황극경세서》〈찬도지요〉 상에서 “태극이 갈라져서 음과 양이 되고 음과 양 속에 또 음양이 있어 자연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지혜로서 알게 되고 힘으로 찾아지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太極判而爲陰陽, 陰陽之中又有陰陽出於, 自然不待智營而力索也)”라는 표현과 같다.
- 16 이기불이(理既不二): 이치는 둘이 아니다. 천지간의 모든 이치는 이 제자해의 첫머리에서 “천지의 도(道, 순환하는 우주의 원리)는 한 음양 오행뿐이니(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라고 말한 것처럼 둘이 아니라 ‘음양 오행’ 하나의 원리뿐이라는 뜻이다.

與天地鬼神¹⁷同其用¹⁸也。

이제 정음을 만든 것도 애초부터 지혜로써 이루고 힘씀으로써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성음으로 인하여 그 이치를 다한 것뿐인 즉 이치는 이미 둘이 아니니 천지 귀신으로 더불어 그 용(用, 쓰임)을 같이 하지 않으리오.

[제자의 일반 원리]

正音二十八字。¹⁹ 各象其形而制之。²⁰

17 ‘鬼’와 ‘神’의 자형이 ‘鬼’는 머리에 점이 없으며 ‘神’은 점획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일종의 상주문이기 때문에 사서의 기록과 달리 편방점획(偏旁點畫)이 나타난다. 이형상의 《자학》에서 “자획이 많고 적음은 모두 《설문해자》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편방점획에 착오가 있는 것은 〈중략〉 당시에 법으로 매우 엄격하여 이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점점 법의 적용이 느슨하게 되어 편방점획은 단지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장(上奏章)에서만 쓰게 되었고”라는 기술과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매우 엄격한 편방점획의 제약과 함께 서체나 문장 양식의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해례본의 한자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편방점획이나 옛 속자가 《실록본》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類’자에서 ‘犬’의 점을 가감하거나 ‘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점 삭제하였다. 곧 불길한 의미를 지닌 한자의 경우 이처럼 감획을 하거나 ‘申, 秋’의 경우 점을 가획하고 있다. ‘爲’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장이나 연이어지는 문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爲’와 ‘爲’를 번갈아 다른 서체로 바꾸어 씌으로써 도형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殿下’나 ‘명(命)’ 글자 다음은 행간을 낮추거나 혹은 공격으로 하였으며, 신하의 이름을 나타내는 ‘臣申叔舟’처럼 ‘臣’자나 이름 ‘叔舟’는 작은 글씨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고도의 캘리그래프로 기획된 글쓰기의 결과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귀신은 천지간에 음양 변화의 굴신왕래(屈伸往來)하는 것을 뜻한다.

18 용(用): 송학에서는 모든 사물의 근본이나 바탕이 되는 것을 ‘체(體, 근본 바탕)’, 그 작용이나 응용, 활용을 ‘용(用, 쓰임)’이라고 하는데, 해례에도 이 개념을 도입하여 ‘체(體)와 ‘용(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체(體)를 ‘본체(體)-하늘(天)-해(日)-달(月)-별(星辰)-물(水)-불(火)-흙(土)-쇠(金)’의 관계로 용(用)은 ‘쓰임(用)-땅(地)-추위(寒)-더위(暑)-낮(晝)-밤(夜)-비(雨)-바람(風)-이슬(露)-우레(雷)’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19 正音二十八字: 《실록본》 예의에서는 “諺文二十八字”로 되어 있다. 예의에서 해례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글 28자의 명칭이 ‘언문·정음’으로 바뀌었으며, 제한적 음소문자에서 표음문자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말 표기에서 한자음을 비롯한 외래어 표기 문자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각상기형이제지(各象其形而制之): (정음 28자는) 각각 형상하여 만든 것이다. 훈민정음의 글자 제작 원리를 분명히 밝힌 구절이다. 곧 ‘상형(象形)’을 훈민정음 자소(날글자)의 제작 원리로 삼고, 초성은 조음기관 또는 발음하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고, 제자 순서는 먼저 아, 설, 순, 치, 후음별로 기본 글자

정음 28자는 다 각각 그 형상을 모상(模象)하여 만든 것이니라.

[초성 제자 원리]

初聲凡十七字。²¹ 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脣音ㅁ。象口形。齒音ㅅ。象齒形。喉音ㅇ。象喉形。ㄷ比ㄱ。聲出稍厲。故加畫。ㄴ而ㄷ。ㄷ而ㅌ。ㅁ而ㅂ。ㅂ而ㅍ。ㅅ而ㅈ。ㅇ而ㅊ。ㅊ而ㅎ。其因聲加畫之義²²皆同。而唯ㅇ爲異。²³ 半舌音ㄹ。半齒音ㄷ。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²⁴ 無加畫之義焉。

ㄱㄴㅁㅅㅇ을 제자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성가획(因聲加畫)’의 원리에 따라 발음이 센(厲)음의 순서대로 획을 더하여 다른 글꼴을 만들었다. 중성 역시 하늘(天, 園, 둥금), 땅(地, 平, 평평함), 사람(人, 立, 서있음)의 삼재를 상형한 一, 丨를 기본으로 하고 합성의 원리에 따라 초출자와 재출자의 글꼴을 만들었다.

| 음성분류 | 기본자 | 상형 내용 | 가획자 | 이체자 |
|--------|-----|---------|-----|-----|
| 어금니(牙) | ㄱ | 象舌根閉喉之形 | ㄱ | |
| 혀(舌) | ㄴ | 象舌附上腭之形 | ㄴ ㄷ | ㅇ |
| 입술(脣) | ㅁ | 象口形 | ㅂ ㅍ | ㄷ |
| 이(齒) | ㅅ | 象齒形 | ㅈ ㅊ | ㅊ |
| 목구멍(喉) | ㅇ | 象喉形 | ㅊ ㅎ | |
| 不厲→厲 | | | | |

- 21 초성범십칠자(初聲凡十七字): 전탁자(ㄲ, ㄳ, ㅁㅁ, ㅅㅅ, ㅈㅈ, ㅇㅇ) 6자를 제외한 17자를 초성 글자로 채택한 것은 우리말 표기 중심으로 한글이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자음 표기 등 외래어 표기를 위해서는 합자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이승녕(1976:52) 교수의 “훈민정음의 자모 체계는 우리 현실 국어의 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동국정운》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장 구실을 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와 같은 논의처럼 한글 28자가 한자음 표기를 위해 만들었다는 반론도 있다. 이러한 논거 위에서 이광호(2006:1397~1399) 교수는 심지어 해례본을 만든 이후에 예의를 만들었다는 추론도 제기하고 있으나 《세종실록》의 논거를 신뢰해야 할 것이다.
- 22 가획지(加劃之義): 가획의 의미는 한자에서도 ‘尸→戶, 心→必, 刀→刃’과 같은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 23 唯ㅇ爲異: 다만 ㅇ은 이체이다. 다른 자음 글자들은 모두 기본 글자에다가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지만 ㅇ만은 기본자인 ㅊ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가 아니라는 뜻. 즉 ㅇ은 ㅇ에서 나온 이체(異體) 자라는 뜻이다.
- 24 이기체(異其體): ㅇ, ㄷ, ㅊ도 각각 그 기본 글자인 ㅊ과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가 아닌 상형의 방법이나 가획의 방법에서 어긋나는 글자이다. 즉 체(體, 바탕 글자)인 ㄱ, ㄴ, ㅅ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달리 제작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의 체(體)를 자형으로 보고 ‘그 자형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초성은 무릇 17자니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ㄱ은 설근(舌根, 혀뿌리)이 목구멍을 가리는 형상을 모상한 것이요, 설음(舌音, 혀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형상을 모상한 것이요, 순음(脣音, 입술소리) ㅁ은 입 형상을 모상한 것이요, 치음(齒音, 잇소리) ㄷ은 이 형상을 모상한 것이요, 후음(喉音, 목구멍소리) ㅇ은 목구멍 형상을 모상한 것인데,

ㄱ은 ㄱ에 비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 조금 센(稍厲)까닭에 획을 더한 것으로 ㄴ에서 ㄷ, ㄷ에서 ㄷ, ㅁ에서 ㅂ, ㅂ에서 ㅍ, ㅅ에서 ㅈ, ㅈ에서 ㅊ, ㅇ에서 ㅎ, ㅎ에서 ㅎ은 그 소리로 인하여 획을 더한 뜻이 같으나 오직 ㅇ만은 다르고 반설음(半舌音) ㄹ과 반치음(半齒音) ㄷ는 또한 혀와 이의 형상을 모상은 했으나 그 모양을 달리 한 것(이체자)이요, 획을 더하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로라.

[초성 제자의 운학과 성리학적 원리]

。夫人之有聲本於五行。²⁵ 故合諸四時而不悖。²⁶ 之五音不戾。喉邃而潤。水也。聲虛

25 부인지유성본오행(夫人之有聲本於五行): 제자해 첫머리에서 사람의 성음도 오행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금운회거요》나 《절운지장도》의 〈변자모차차례〉 등을 참고 하여 오행, 오시, 오방 등과 결부하여 설명한 것이다. 다만 본문에서는 ‘합제사시(合諸四時)’라고 하였으나 실지로는 오시로 설명되어 있다.

| | | | | | |
|------------|---|---|---------|---|---|
| 오음 (五音(聲)) | 牙 | 舌 | 脣 | 齒 | 喉 |
| 오행 (五行) | 木 | 火 | 土 | 金 | 水 |
| 오시 (五時) | 春 | 夏 | 季夏 | 秋 | 冬 |
| 오음 (五音(樂)) | 角 | 徵 | 宮 | 商 | 羽 |
| 오방 (五方) | 東 | 南 | 무정위(중앙) | 西 | 北 |
| 오상 (五常) | 仁 | 禮 | 信 | 義 | 智 |
| 오장 (五臟) | 肝 | 心 | 脾 | 肺 | 腎 |
| 사덕 (四德) | 元 | 亨 | | 利 | 貞 |
| 오색 (五色) | 靑 | 赤 | 黃 | 白 | 黑 |

오행(五行)을 기준으로 하여 오방위(五方位), 오상(五常)이나 오장(五臟) 등을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관념적인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리학에서는 이들 모두를 우주 생성과 소멸의 인자(원소)로 보고 순환하는 일련의 상관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26 협음(叶音): 협운(叶韻)이라고도 한다. 협운은 당시의 음으로 고대의 운문을 읽을 경우 운이 맞지 않는 글자의 음을 운에 맞도록 임시로 고쳐 읽는 것을 협운이라 한다. 주자가 《시경》이나 《초사》를 해석 할 때 협운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염무는 “옛날에는 문자가 같아서 소리(聲)와 형상(形象)이 통하였으므로 무릇 글자 곁에 어떤 글자가 따르면 음도 반드시 그대로 따랐는데, 후세에는 그 음이 그릇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고음이라 하여 원래 다른 운을 협운이라 하여 통용하는 것은

而通。²⁷ 如水之虛明而流通也。於時爲冬。於音爲羽。牙錯而長。木也。聲似喉而實。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於時爲春。於音爲角。舌銳而動。火也。聲轉而颺。如火之轉展而揚揚也。於時爲夏。於音爲徵。²⁸ 齒剛而。斷金也。聲屑而滯。如金之屑瑣而鍛成也。於時爲秋。於音爲商。脣方爲合。土也。聲含而廣。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於時爲季夏。於音爲宮。然水乃生物之源。火乃成物之用。故五行之中。水火爲大。喉乃出聲之門。舌乃辨聲之管。故五音之中。喉舌爲主也。²⁹ 喉居後而牙次之。北東之位也。舌齒又次之。南西之位也。脣居末。土無定位而寄旺四季之義³⁰也。是則初聲之中。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대저 사람의 소리(聲)가 모두 오행에 근본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을 사시(四時, 네 계절)에 어울려 어그러지지 않고, 오음(五音, 궁, 상, 각, 치, 우)에 맞추어 틀리지 않는 것이니라.³¹

잘못이다. 그 까닭을 따지면 강동(江東) 사람들이 본디 사부만을 배우고 고훈(古訓)에 통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성음이 하나인데도 문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사부를 짓는 것은 정교하나 경전을 연구하는 데는 졸렬할 뿐 아니라 지금 사람과 옛날 사람을 마치 서로 알지도 못하는 딴 나라 사람들처럼 만들어서 협음설이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병와 이형상의 《자학제강》〈협음설〉에서 통운은 한시를 지을 때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운부를 말한다. 예컨대 평성(平聲) 동운(東韻)과 동운(冬韻)에 속하는 글자들은 서로 운자로 통용될 수 있다.

- 27 성허이통(聲虛而通): 소리가 비고 통하여 오음을 아, 설, 순, 치, 후의 순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목부터 조음기관의 순서에 따라 입술까지 조음기관의 모양 또는 각 조음기관에서 조음되는 각 음에 대하여 생리적 특징 곧 목에서 입까지 조음의 음상을 중심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목에서 발음 되는 후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28 ‘徵’자는 화음치. 보통 ‘징(徵)’이라고 발음하나 여기서는 ‘火音’을 뜻하는 ‘치(徵)’이다. 곧 만물이 성대해져서 번성한다는 뜻이다.
- 29 “然水乃生物之源, 火乃成物之用, 故五行之中, 水火爲大, 喉乃出聲之門, 舌乃辨聲之管, 故五音之中, 喉舌爲主也”: 오행과 조음기관을 결부하였을 때 물(水)=목구멍(喉), 불(火)=혀(舌)이므로 오행 중에서 물(水)과 불(火)이 중요하듯, 조음기관 중에서도 후(喉), 설(舌)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후(喉)는 소리의 문이고 설(舌)은 가장 중요한 조음체이다.
- 30 기왕사계지의(寄旺四季之義): 흙(土)은 중앙에 있으므로 사방에 배치되어 있는 4계절에 기댈 수 있다는 뜻이다. 《성리대전》권27, 〈이기〉2의 오행조에는 “오직 토는 정한 방위가 없으며 사계에 기댈 수 있다(惟土無定位, 寄旺於四季)”라고 있다.
- 31 초성의 제자 원리는 사람의 오성(五聲)을 오행(五行), 오시(五時), 오방(五方) 등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목구멍은 깊고 젖어서³² 물(水)이라 할 것이니 소리가 비(虛)고 통(通)하여 물의 허명(虛明, 비고 맑다)하고 유통(流通, 흘러 통하다)하는 것과 같은지라. 철(時, 계절)로는 겨울(冬)이요, 음(音, 음울)으로는 우(羽)며,

어금니는 울퉁불퉁하고 길어서 나무(木)라 할 것이니 소리는 목구멍 소리와 비슷해도 실해서 나무가 물에서 성장하건만 형체가 있음과 같은지라. 철로는 봄(春)이요 음으로는 각(角)이며,

혀는 날카롭고 움직여 불(火)이라 할 것이니, 소리는 구르고 날리어 불이 전전(轉展, 굴러 퍼져 나감)하여 양양(揚揚, 활활 타오름)함과 같은지라. 철로는 여름(夏)이요, 음으로는 치(徵)며,

이는 단단하고 끊어서 쇠(金)라 할 것이니, 소리는 부스러지고 막혀 쇠의 쇠설(瑣屑, 가루가 부스러짐)한 것이 단속(鍛鍊, 쇳가루를 불리어서)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지라. 철로는 가을(秋)이요, 음으로는 상(商)이며,

입술은 모지고 합하여 흙(土)이라 할 것이니, 소리는 머금고 넓어서 흙이 만물을 함축(含蓄, 머금어 기름)하여 광대한 것과 같은지라. 철로는 늦여름(季夏)이요, 음으로는 궁(宮)이니라.

그러나 물은 만물을 생장시키는 근원이요, 불은 물건을 이루는 작용인 까닭에 오행 중에 물(水)과 불(火)로 대(大, 대중)를 삼고, 목구멍은 소리를 내는 문이요, 혀는 소리를 변별하는 조각(管, 기관)인 까닭에 오음 중에 목구멍과 혀(喉舌)가 주장이 되나니라. 목구멍은 맨 뒤에 있고 어금니가 다음에 있으니 북(北)과 동(東)의 위(位, 자리)요, 혀와 이가 또 그 다음이니 남(南)과 서(西)의 위치요, 입술이 맨 끝에

있는데 주자학의 통합적 순환식 설명 방식이다. 본문에서는 '사시(四時)'라고 하였으니 '계하(季夏)'를 넣어 실제로는 오시(五時)로 설명하고 있다. 위의 본문에서 오음, 오행, 사시, 오방과 결부하여 설명하고 이를 다시 조음 작용면에서 음상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五聲 | 조음기관 모양 | 오행 | 사시 | 오음 | 오방 | 설명내용 | |
|----|---------|----|----|----|-----|------|------------|
| 喉 | 邃而潤 | 水 | 冬 | 羽 | 北 | 虛而通 | 如水之虛明而流通 |
| 牙 | 錯而長 | 木 | 春 | 角 | 東 | 似喉而實 | 如木之生於水而有形 |
| 舌 | 銳而動 | 火 | 夏 | 徵 | 南 | 轉而颺 | 如火之轉展而揚揚 |
| 齒 | 剛而斷 | 金 | 秋 | 商 | 西 | 屑而滯 | 如金之屑瑣而鍛成 |
| 脣 | 方而合 | 土 | 季夏 | 宮 | 無定位 | 含而廣 |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 |

32 방중현 선생의 원본 풀이에는 '처저'로 되어 있으나 '潤'의 의미로 '젖어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있으니 흙(土)은 정한 위치(位置, 자리 위치)가 없이 사시(四時)에 기왕(寄旺, 기대
어서 왕성함)하는 뜻으로 이는 초성 중에 스스로 음양 오행 방위의 수를 가지는 것
이니라.³³

33 초성 제자 원리를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오음(聲) | 어금니 소리(牙) | 혓소리(舌) | 입술소리(脣) | 잇소리(齒) | 목구멍소리(喉) |
| 오행 | 나무(木) | 불(火) | 흙(土) | 쇠(金) | 물(水) |
| 오시 | 봄(春) | 여름(夏) | 늦여름(季夏) | 가을(秋) | 겨울(冬) |
| 오성(樂) | 각(角) | 치(徵) | 궁(宮) | 상(商) | 우(羽) |
| 오방 | 동(東) | 남(南) | 중앙(中央) 무정위(無定位) | 서(西) | 북(北) |
| 생위 | 3 | 2 | 5 | 4 | 1 |
| 성수 | 8 | 7 | 10 | 9 | 6 |

초성의 배열순서가 예의나 해례본의 초성 제자해와 달라졌다. ① 예의에서는 ‘아→설→순→치→후’의
순서였는데 해례에서는 ‘후→아→설→치→순’의 순서로 배열한 것은 성문(出聲之門)인 목구멍에서 입
(聲之出口)까지 조음위치(point of articulation)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였다. 이 점은 당시 집현전
학사들이 현대 음성학적 조음의 원리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또한 세종이 창제한 초
성 17자의 배열 구도가 해례에 와서 종도와 직도 모두 배치 상의 번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예의에서는 운도의 종도에서 ‘전청-전탁-차청-불청불탁’의 배치였으나 해례 제자해에서는 ‘전
청-차청-전탁-불청불탁’의 순서로 바뀌었다.

③ 오음과 오성의 배치가 해례에서는 《고금운회거요》나 《절운지장도》에 따라 ‘순(脣)-궁(宮)’과 ‘후
(喉)-우(羽)’의 배치를 이루고 있는데,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에서는 ‘후(喉)-궁(宮)’과 ‘순(脣)-우
(羽)’의 배치로 전환되었다.

| 《훈민정음》 제자해, 《고금운회거요》, 《절운지장도》 | | | 모성 |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 | | |
|-------------------------------|---|---|----|--------------------------|---|---|
| 동 | 목 | 각 | 아 | 춘 | 목 | 각 |
| 남 | 화 | 치 | 설 | 하 | 화 | 치 |
| 중 | 토 | 궁 | 순 | 계하 | 토 | 우 |
| 서 | 금 | 상 | 치 | 추 | 금 | 상 |
| 북 | 목 | 우 | 후 | 동 | 목 | 궁 |

이 점은 《고금운회거요》의 번역 사업이 중단된 충분한 사유가 된다.

원나라 북방음이 반영된 《고금운회》에서 명나라가 새롭게 편찬한 훈찬 운서 《홍무정운》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而不爲牙音制字之始。³⁷ 盖喉屬水而牙屬木。○雖在牙而與○相似。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尙多水氣也。³⁸ ㄱ木之成質。ㅋ木之盛長。ㆁ木之老壯。故至此乃皆取象於牙也。

또 성음의 청탁(淸濁)⁴⁰으로 말하긴댄 ㄱ ㄷ ㅂ ㅅ ㅈ ㅊ는 전청(全淸)이 되고 ㅋ ㆁ ㄷ ㅌ ㅍ ㅎ는 차청(次淸)이 되고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ㅎ는 전탁(全濁)이 되고⁴¹ ㄴ ㄹ ㄷ ㅌ ㅍ ㅎ는 불청

36 次序雖在於後, 而象形制字則爲之始: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의 순으로 보면 ㄴ ㄹ ㄷ ㅌ ㅍ ㅎ는 불청불탁 소속음이라 그 순서가 뒤가 되지만, 각 조음기관에서 가장 약한 음을 골라 조음 상태를 상형하여, 제자할 때의 순서는 이들 글자가 각 음의 맨 앞이라는 뜻이다.

37 의여유다상혼용(疑與喻多相混用): ‘의(疑)’와 ‘유(喻)’는 각각 중국 등운학에서 말하는 36자모의 하나인데, ‘의(疑)모’는 ㄱ-음, ‘유(喻)모’는 ㄴ-, ㄹ-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12세기경부터 북방 한어에서는 어두의 ㄱ-음이 소실되어, ㄴ-, ㄹ-음을 가졌던 ‘유(喻)모’ 한자들과 같아졌으므로 여러 운서에서 한어 자음을 자모로 표시할 때 ‘疑’모자와 ‘喻’모자를 엄격히 구별하여 표음하지 못하고 ‘疑’모와 ‘喻’모의 혼동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해례 편찬자들은 훈민정음의 ㅇ자가 ‘疑’모에 해당되고, ㆁ자가 ‘喻’모에 해당되므로 ‘의(疑)’와 ‘유(喻)’모계 자음이 혼용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ㅇ음과 ㆁ음이 ‘상사(相似, 서로 비슷하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중세국어를 기록한 ㅇ자와 ㆁ자는 그 음가 면에서 도저히 비슷할 수가 없다. 제자해에서 ㅇ의 음가를 ‘설근폐후성기출비(舌根閉喉聲氣出鼻)’라고 해서 종성에서 [ŋ]임을, ㅇ의 음가는 ‘성담이허(聲淡而虛)’라고 해서 zero 혹은 ㄹ임을 말하였으므로, 훈민정음 해례 편찬자들도 ㅇ과 ㆁ의 음가 차이를 알고 있었다.

38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해례 편찬자들은 ㅇ자가 ㅇ자와 음가가 비슷하여 ㅇ자도 ㆁ자와 마찬가지로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ㆁ자는 아음의 불청불탁 소속자이면서도 아음의 기본 문자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이다. 다른 조음위치에서 발음되는 글자들은 불청불탁자가 기본 문자가 되었다.

39 ○雖在牙而與○相似…尙多水氣也: 여기서는 ㅇ와 ㆁ가 자형상 비슷하다는 뜻이며, ㆁ자는 아음이라 오행으로는 나무(木)이고, ㅇ자는 후음이라 물(水)인데, 다른 아음자와 달리 ㆁ자가 ㆁ자를 본받아 제자되었으므로 마치 나무가 물에서 생겨났으나 아직 물기가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40 ‘청탁(淸濁)’은 자음의 자질 중 하나인데, 성운학에서는 오음(五音)과 함께 성(聲)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아 왔다. 곧 오음의 각각을 다시 청탁에 따라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해례본에서는 ‘청탁’을 다시 소리의 세기인 ‘려(厲)’의 정도에 따라 ‘최불려(崔不厲)한 소리, ‘불려(不厲)한 소리, ‘려(厲)한 소리로 나누어 이를 《훈민정음》의 제자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임용기:2010).

41 전탁 글자 6자 가운데 ‘ㄱ, ㄷ, ㅂ, ㅅ, ㅈ, ㅊ’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만 사용되고 ‘ㅁ, ㆁ’은 우리말 표기에도 사용되었는데 《원각경언해》(1465년)에서부터 ‘ㆁ’이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말 표기에서 ‘ㄴ’을 끼름, 수물 띠, 녀쭈기, 마쭈기’와 같은 예외적 표기는 음가가 된소리 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 | | | | | |
|--|----------|--------|---------|--------|----------|
| | 어금닛소리(牙) | 혓소리(舌) | 입술소리(脣) | 잇소리(齒) | 목구멍소리(喉) |
|--|----------|--------|---------|--------|----------|

불탁(不清不濁)이 되는 것인데⁴²

ㄴㅇㅇ가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않은(不厲) 까닭에 차서(次序, 차례)는 비록 뒤에 있으나 상형 제자에는 시초가 된 것이요(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들을 시초로 하였다.) 스는 비록 다 같이 전청이지만 ㅅ이 ㅈ에 비해 소리가 세지 않은 까닭에 또한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초가 된 것이다.

오직 아음의 ㅇ은 비록 설근(舌根, 혀뿌리)이 목구멍을 막아서 소리 기운이 코로 나오되 그 소린 즉 ㅇ와 비슷해서 운서에도 ‘의(疑)’와 ‘유(喻)’가 많이 혼용되매 이제 또한 목구멍을 상강하여 아음(어금닛소리) 제자의 시초로 삼지 않은 것이니라. 대개 목구멍은 물(水)에 속하고 어금닛소리(아음)는 나무(木)에 속하는 것이다. ㅇ이 어금니에 있으면서 ㅇ으로 더불어 비슷하게 된 것은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성장하여 유연(柔軟, 부드러움)한 것이 아직도 물 기운을 많이 가진 것과 같으니라. ㄱ은 나무의 성질이요, ㅋ는 나무의 성장(무성함)이요, ㆁ는 나무의 노장(늘어서 굳건함)인 까닭에 이렇게 되어서 모두 어금니를 모상하였거니와

[전탁음과 병서]

全淸並書則爲全濁。以其全淸之聲凝則爲全濁⁴³也。唯喉音次淸爲全濁者。盖以ㄸ聲深不爲之凝。ㅎ比ㄸ聲淺。故凝而爲全濁也。⁴⁴

| | | | | | |
|----|---|---|---|-----|---|
| 전청 | ㄱ | ㄷ | ㄴ | ㄷ ㅌ | ㅎ |
| 전탁 | ㄲ | ㄸ | ㄴ | ㄷ ㅌ | ㅎ |

42 예의에서 청탁의 배열 순서가 ‘전청-전탁-차청-불청불탁’이었는데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전청-차청-불청불탁-전탁’의 순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全淸之聲凝則爲全濁: 한글 28자에는 이 전탁 6글자가 제외되었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한 자음의 표기를 위한 표음문자로서 전탁자를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동국정운》(1447년)의 서문에서 “우리나라 말소리는 그 청탁의 구별에 있어서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라고 하여 ‘어음(語音)’의 ‘청탁(淸濁)’ 구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탁(濁)’(여기서는 전탁(全濁))의 음가를 “그 전청의 소리를 가지고 엉기게 발음하면 전탁음이 된다(以其全淸之聲 凝則爲全濁也)”라고 하여 ‘된소리’로 설명하고 있다. ‘응(凝, 엉김)’은 성문폐쇄음이라는 설명이다.

44 唯喉音次淸爲全濁者, 盖以ㄸ聲深不爲之凝, ㅎ比ㄸ聲淺, 故凝而爲全濁也: ㅌ자의 음가가 성문폐쇄음 [ʈ]이며 소리는 ‘심(深, 소리가 깊다)’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국 음운학에서 어두자음을 조음 위치별로 분류하여 아, 설, 순, 치, 후음으로 하였으나 중국의 36자모 가운데 후음에 배열된 음들은 엄격히 말하면 모두 성문음이 아니어서, 영(影)모[ʈ]만이 성문음이고 효(曉)모[x], 압(匣)모[v]는 아음(연구개음)

전청을 병서(竝書, 나란히 쓰면)하여 전탁을 만드니 그는 전청의 소리가 응(凝, 엉기면)하면 전탁이 되는 까닭인데 오직 후음(목구멍소리)에서 차청으로 전탁을 만드는데는 대개 ㅎ은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않고, ㅎ은 ㅎ에 비하여 소리가 얇아서 엉기어서 전탁이 되는 것이니라.

[순경음과 연서]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者○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⁴⁵

○을 순음 아래 연서(連書, 이어서 쓰면)하여서 순경음(唇輕音, 입술을 가벼운 소리)을 만드는 것은 그 경음(輕音, 소리의 가벼움)은 입술을 합하면서 목구멍 소리가 많은 까닭이니라.⁴⁶

이며, 유(喻)모는 zero 또는 반모음[j](일부는 [ɲ]로 볼 수 있다). 훈민정음의 후음을 음(扐 ㅍ[ʰ]), 허(虛 ㅎ[h]), 홍(洪 ㅎ[hʰ]), 욱(欲 ㅍ[zero] 또는 [ɲ])으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성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후음이라도 ㅎ음은 성문 그 자체에서 발음되는 폐쇄음이므로, 된소리 요소인 성문폐쇄음을 중복시켜 된소리를 만들 수 없고, 같은 성문음인 ㅎ[h]음에 된소리 요소를 더하여 성문폐쇄 수반음인 ㅎ[hʰ]음이 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45 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 순경음의 음가가 양순마찰음임을 말한 것. 《변역노결대·박통사》〈범례〉(1510년경)에서는 “입술을 합하여 소리를 낼 때 ㅂ음이 되는 것을 순중음이라고 하고, ㅂ음을 낼 때에 입술이 합하는 듯 마는 듯하며, 날숨이 나오면서 ㅂ음이 되는 것을 순경음이라고 한다(合唇作聲 爲ㅂ而曰唇重音 爲ㅂ之時 將合勿合 吹氣出聲 爲ㅂ而唇輕音)”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순경음 ㅂ음이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여러 (초기 정음) 문헌의 용례로 보아 ㅂ음은 유성음인 [β]이었고, 한음을 표기한 ㅂ은 [f]였다. 순경음 역시 우리말을 표기하는 필수적인 음소가 아니었다. 모음에서 ㅏ, ㅓ와 마찬가지로 초성에서 ㅂ은 방언적 변이음을 표기하는데 사용되었다.

46 최세진의 《변역노결대·박통사》 범례에도 순중음과 순경음에 대해 “입술을 닫아서 소리를 내면 ‘ㅂ’이 되는데 이를 순중음이라고 한다. ‘ㅂ’이 될 때 입술을 닫으려 하다가 닫지 않고 공기를 불어서 소리를 내면 ‘ㅂ’이 되는데 이를 순경음이라고 한다. 글자를 만들 때 동그라미를 ‘ㅂ’ 아래에 붙이면 곧 입술을 비워서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合唇作聲 爲ㅂ而曰唇重音 爲ㅂ之時 將合物合吹氣出聲 爲ㅂ而曰唇輕音. 制字加空圈於ㅂ下字, 卽虛唇出聲之義也.)”라고 하였다.

[중성 글자의 제자 원리]⁴⁷

1. [상형의 제자]

中聲凡十一字。⁴⁸ · 舌縮而聲深。天開於子也。形之圓。⁴⁹ 象乎天地。— 舌小縮而聲不深不淺。地闢於丑也。形之平。象乎地也。| 舌不縮而聲淺。人生於寅也。形之立。象乎人也。

중성은 무릇 11자니

· 는 혀가 끌려 들어가고(縮, 오그라들) 소리는 깊으니(深) 하늘이 자(子, 자시)에 열리었는 바 둥근 형상은 하늘을 모상한 것이요, —는 혀가 조금 끌려 들어가고(小縮) 소리는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으니(不深不淺) 땅은 축(丑, 축시)에 펼쳐진 바 평평한 형상은 땅을 모상한 것이요, |는 혀가 끌려 들어가지 않고(不縮) 소리가 얕으니(淺) 사람은 인(寅, 인시)에 생긴 바 선 형상은 사람을 모상한 것이니라.

47

| 소리 체계 | | 글자 체계 |
|----------|---------------------------|----------|
| 단모음 글자 | ·, —, , ㄱ, ㅋ, ㆁ, ㄷ | 단일 중성 글자 |
| 이중 모음 글자 | ㅜ, ㅠ, ㅡ, ㅗ | 이자 중성 글자 |
| | ㅓ, ㅕ | |
| | ㅖ, ㅙ, ㅛ, ㅜ, ㅠ, ㅡ, ㅗ | |
| 삼중 모음 글자 | ㅗ, ㅛ, ㅜ, ㅠ, ㅡ, ㅗ | 삼자 중성 글자 |
| | ㅓ, ㅕ, ㅖ, ㅙ, ㅛ, ㅜ, ㅠ, ㅡ, ㅗ | |
| | ㅗ, ㅛ, ㅜ, ㅠ, ㅡ, ㅗ | |

48 中聲凡十一字: 15세기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7개였으나 훈민정음 창제 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도 각각 단위 문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중성자를 11자라고 한 다음, 역학의 천, 지, 인 삼재를 상형하여 국어 모음자의 기본자로 창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소옹의 <일월쇠장지수도>에 “하늘은 자(子)방에서 열리고 땅은 축(丑)방에서, 사람은 인(寅)방에서 열린다(天開於子, 地開於丑, 人生於寅)이라 하여 3재를 “天—子, 地—丑, 人—寅”으로 12방위에 대응시켰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초성이나 중성 모두를 12방위 수에 적용시켜 설명하는 성수(星宿)론이 명곡 최석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 기본자 | 자형 | 상형 내용 | 조음 때 혀 모양 | 혀의 전후 위치와 개구도의 차이에서 오는 느낌(음향감) | 음양 |
|-----|-----|-------|-----------|--------------------------------|----|
| · | 形之圓 | 天開於子 | 縮 | 深 | 양 |
| — | 形之平 | 地開於丑 | 小縮 | 不深不淺 | 중 |
| | 形之立 | 人生於寅 | 不縮 | 淺 | 음 |

49 《황국경세서》〈찬요지요〉에서 공자의 〈계사〉를 인용하면서 “둥근 것은 하늘이요, 모진 것은 땅이 되어 천지의 이치가 모두 여기에 있다(圓者爲天, 方者爲地, 天地之理皆在是也)”라고 하였다.

2. [초출자의 음가와 제자 방법]

此下八聲。一闔一闢。⁵⁰ ㄅ與・同而口蹙。其形則ㄅ與—合而成。取天地初交之義也。ㄅ與・同而口張。其形則ㄅ與・合而成。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⁵¹ ㄅ與—同而口蹙。其形則ㄅ與・合而成。亦取天地初交之義也。ㄅ與—同而口張。其形則ㄅ與—合而成。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ㄅ與ㄅ同而起於ㄅ。ㄅ與ㄅ同而起於ㄅ。ㄅ與ㄅ同而起於ㄅ。⁵²

이 아래의 8성은 하나가 합(闔, 입이 닫김 곧 원순성 모음)이요, 하나가 벽(闕, 입이 열림, 곧 비원순성 모음)인데 ㄴ는 ㆍ와 비슷하나 입이 오므라드니(口蹙) 그 형상인 즉 ㆍ와 ㅡ가 합하여 이룬 것으로 천지가 처음으로 사귀(交)는 뜻을 취한

50 此下八聲一闔一闢: 소옹은 《황극경세서》에서 ‘슴’을 ‘翁’자로, ‘開’를 ‘闢’자로 썼는데, 《훈민정음》에서는 ‘翁’자와 뜻이 같은 ‘闔’자를 써서 ‘闔, 闢’으로 표현했다. 또 ‘함벽(閤闢)’은 ‘구축(口鑊)’, ‘구장(口張)’과도 상호 연관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은 모음을 원순성 여부와 개구도를 참고로 해서 분류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역경》〈계사〉 상 6장에는 “긴은 고요할 때는 한결같고 움직일 때는 곧으니 그리하여 큰 것을 낳으며, 곧은 고요할 때 닫히고, 움직일 때 열리고 그리하여 넓음이 생겨서 넓고, 음은 하늘과 땅을 짊하고 변화의 통함은 네 계절과 짝을 이루고 음과 양의 변화하는 법칙은 해와 달과 짝하고 쉽고 간략한 좋은 원리는 지고의 덕과 짝한다(大乾, 其靜也專, 其動也直, 是以大生焉, 夫坤其靜也翕, 其動也闢, 是以廣生焉, 廣大配天地, 變通配四時, 陰陽之義, 配明易簡之善, 配之德)”이라 하여 “정(靜, 멈춤)-흠(翕, 닫침)-체(體), 동(動, 움직임)-벽(闢, 열림)-용(用)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역경》〈계사〉 상 11장에도 “이런 까닭에 문을 닫는 것을 곤(坤)이라고하고 문이 열리는 것은 건(乾)인데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히는 것을 변화라고 한다(是故闔戶謂之坤, 闢戶謂之乾, 一闔一闢謂之變)”이라는 구절이 있어서, 여기의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친다(一闔一闢)’는 말을 따온 것이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받아주는 입을 열고 닫는 것에 적용시킨 것이다.

51.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천지의 용(用, 쓰임)이 사물에 나타나고 사람(人)을 기다려서만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성리대전》 권1 《태극도설》에 “만물이 생겨나고 또 생성변화의 끝은 없으나, 오직 사람만이 때어내고 가장 신령스러움을 얻을 수 있다(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 唯人, 得其秀而最靈)”라 하였다. 또한 제자학의 결에서 “사람은 천지에 참여하여 최고신령마이라(人參天地爲最靈)”라 한 내용과 같다. 곧 하늘과 사람은 하나(天人合一)라는 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다.

52 起於丨:《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에서는 같은 이중모음인데도 ㄴㅑ ㅑ ㅑ ㅑ는 丨로 시작되는 이중모음으로 설명하고, ㅑ ㅑ는 중성해에서 합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역학 이론으로 ㄴㅑ ㅑ ㅑ를 설명하여 ‘ㄴㅑ ㅑ ㅑ 起於丨而兼乎人’이라고 하여 丨모음으로 시작되는 이중모음은 丨=사람(人)이므로 모두 사람이 들어있다고 하였다.

것ियो, ㅏ는 ㅊ와 비슷하나 입이 벌어지니(口張), 그 형상인 즉 ㅏ와 ㅊ가 합하여
이룬 것으로 천지의 용(用, 쓰임)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人)을 기다려서만 이루
어지는 뜻을 취한 것이요, ㅑ는 ㅓ와 비슷하나 입이 오므라드니(口蹙) 그 형상인
즉 ㅓ와 ㅊ가 합하여 된 것으로 또한 천지가 처음으로 사귄다는 뜻을 취한 것이요,
ㅓ는 ㅓ와 비슷하나 입이 벌어지니 또한 천지의 용(用, 쓰임)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人)을 기다리어서만 이루어지는 뜻을 취한 것이니라.⁵³

3. [제출자의 음가]

ㄱ與ㄴ同而起於ㅏ。ㅏ與ㅏ同而起於ㅏ。ㅑ與ㅑ同而起於ㅏ。ㅑ與ㅏ同而起於ㅏ。

ㅏ는 ㅏ와 비슷하나 ㅏ에서 일어나고, ㅏ는 ㅏ와 비슷하나 ㅏ에서 일어나고, ㅑ는
ㅑ와 비슷하나 ㅏ에서 일어나고, ㅑ는 ㅏ와 비슷하나 ㅏ에서 일어나니라.⁵⁴

- 53 구축(口蹙, 입을 오므림)과 구장(口張, 입을 벌림) 그리고 합벽(闔闢, 입을 닫고 엮)에 따른 모음의 상
관도는 아래 도표와 같다. 샘슨(Sampson, 1985) 교수는 “축(蹙)[back], 불축(不蹙)[front], 천(淺)
[grave], 합(闔)[acute], 벽(闢)[round]와 같은 변별적 자질을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을 변별
적 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형 | 음성 | 제자방법 | 제자원리 | 음양 | 입술모양 |
|----|--------|-------|------------------|----|------|
| ㅏ | ㅏ 同而口蹙 | ㅏ + ㅏ | 天地初交之義 | 양 | 합(闔) |
| ㅏ | ㅏ 同而口張 | ㅏ + ㅏ | 天地之用發於 事物待人而成 | 음 | 벽(闢) |
| ㅑ | ㅑ 同而口蹙 | ㅑ + ㅑ | 天地初交之義 | 음 | 합(闔) |
| ㅑ | ㅑ 同而口張 | ㅑ + ㅏ | 天地之用發於 事物待人而成 | 음 | 벽(闢) |

- 54 제출자의 제자원리와 그 음가를 요약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 제출자 | 입의 모양 변화 시작모양 → 끝모양 | 음양 | 입술모양 |
|-----|------------------------|----|------|
| ㅏ | ㅏ → ㅏ | 양 | 합 |
| ㅏ | ㅏ → ㅏ | 양 | 벽 |
| ㅑ | ㅑ → ㅑ | 음 | 합 |
| ㅑ | ㅑ → ㅏ | 음 | 벽 |

4. [초출자와 재출자의 제자 원리]

☰☷☰☷始於天地。爲初出也。☰☷☰☷起於☷而兼乎人。爲再出也。☰☷☰☷之一其圓者。取其初生之義也。☰☷☰☷之二其圓者。取其再生之義也。☰☷☰☷之圓居上與外者。以其出於天而爲陽也。⁵⁵ ☰☷☰☷之圓居下與內者。以其出於地而爲陰也。·之貫於八聲者。猶陽之統陰⁵⁶而周流萬物也。☰☷☰☷之皆兼乎人者。以人爲萬物之靈而能參兩儀⁵⁷也。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⁵⁸ 然三才爲萬物之先而天又爲三才之始。猶·☰☷☰☷三字爲八聲之首。而·又爲三字之冠也。

☰☷☰☷는 하늘(天)과 땅(地)에서 시작되어 초출(初出, 처음 나옴)이 되고 ☰☷☰☷는 ☷에서 일어나서 사람(人)까지 겸하여 재출(再出, 다시 나옴)이 되는 것이니 ☰☷☰☷의 동그라미(圓, ·)가 하나인 것은 그 초생(初生, 처음 생김)의 뜻을 취한 것이요, ☰☷☰☷의 동그라미가 둘인 것은 재생(再生)의 뜻을 취한 것이며, ☰☷☰☷

55 ☰☷☰☷之圓居上與外者。以其出於天而爲陽也: 《역학계몽》의 “양은 위에서 음과 교합하며 음은 아래에서 양과 교합한다(陽上交於陰 陰下交於陽)”, 또는 《역경》 부괘록에 있는 “즉 내삼효는 음, 외삼효는 양(內陰而外陽)”라고 있다. 곧 이것은 외삼효(外三爻)는 양이기 때문에 건괘의 성격 건, 활동적으로 보이며, 내삼효는 음이기 때문에 곤의 성격 순, 유순하게 보이지만 실은 내심 뼈가 없기 때문에 소인의 모습이다. 음은 소인, 양은 군자이기 때문에, 소인이 조정에 있고 군자가 밖에 내몰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상을 응용한 설명이다.

56 양지통음(陽之統陰): 양이 음을 그느린다는 뜻. 《역학계몽》의 “낙서에서는 5의 기수(1, 3, 5, 7, 9)로 4의 우수(2, 4, 6, 8)를 통여하기 때문에 각각 그 자리에 있다. 대개 양을 주로 하여 음을 통여하며, 그 변수의 용(用)을 시작한다(洛書以五奇數統四偶數 而各居其所 蓋生於陽以統陰而肇其變數之用)”의 내용을 응용한 설명이다. ·는 하늘(天)을 상형한 것이나 하늘(天)을 또 양으로 본 데서 나온 설명이다.

57 능참양의(能參兩儀): 양의는 하늘과 땅을 말한다. 《황극경세서》의 채원정 주에 있는 “천지만물은 모두 음양, 강유의 구분이 있다. 사람은 음양, 강유를 겸비하고 있어서 만물보다 영묘하기 때문에 천지에 참여할 수 있다(天地萬物皆陰陽剛柔之分 人則兼備乎陰陽剛柔 故靈於萬物 而能與天地參也)”와 같은 내용의 설명이다. 양의(兩儀)는 곧 천(하늘)과 지(땅)이다. 양의는 곧 《주역》〈계사〉에서 “역에는 태극이 있으며 이것이 양의를 생성한다(易有太極。是生兩儀)”의 ‘양의(兩儀)’는 천지(天地)를 이룸이다.

58 삼재지도비의(三才之道備矣): 삼재의 시초가 되는 것과 같다. 《역경》〈계사〉 하 제10장에서 “역이라는 책은 광대하여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하늘의 도가 있으며 사람의 도가 있고 땅의 도도 있다. 삼재를 겸하고 있어서 이것을 굽치기 때문에 육, 육이란 단 것이 아니고 바로 삼재의 도다(易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 非它也 三才之道也)”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한글의 기본 모음자와 결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의 동그라미가 위와 바깥쪽에 놓인 것은 그것이 하늘(天)에서 나와서 양(陽)이 되는 까닭이요, ☷의 동그라미가 아래와 안쪽에 놓인 것은 그것이 땅(地)에서 생기어 음(陰)이 되는 까닭이며

·가 8성을 통하여 있는 것은(貫, 꿰여있는) 양이 음을 통솔하여 만물에 주류(周流, 두루 미침)함과 같으며 ☵☷가 모두 사람(人)을 겸한 것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 능히 양의(兩儀, 양과 음, 하늘과 땅)에 참여하는 까닭이니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모상함에 삼재(三才)의 도가 갖추었으나 삼재가 만물의 먼저인 동시에 하늘(天)이 다시 삼재의 시초가 되는 것 같이 · — 1의 3자가 8성의 첫째 리인 동시에 ·가 다시 3자(·, —, 1) 중의 꼭대기(오�뜸)가 되나니라.⁵⁹

[중성의 역학과 성수]

☰初生於天。天一生水之位也。☷次之。天三生木之位也。☴初生於地。地二生火之位也。☲次之。地四生金之位也。☶再生於天。天七成火之數也。☱次之。天九成金之數也。☵再生於地。地六成水之數也。☳次之。地八成木之數也。⁶⁰ 水火未離乎氣。陰陽

59 초출자와 재출자의 제자 원리를 요약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 자형 | 음성 | 제자방법 | 제자원리 |
|----|--------|-------|--------------|
| ☰ | · 同而口蹙 | · + — | 天地初交之義 |
| ☷ | · 同而口張 | 1 + · | 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 |
| ☴ | — 同而口蹙 | — + · | 天地初交之義 |

60 ☰初生於天·地八成木之數也: 《역경》〈계사〉에서는 1부터 10까지의 수에서 기수를 하늘(天)에, 우수를 땅(地)에 배합했는데, 정현의 《역법》에서는 하늘과 땅(天地)의 수를 1에서 5까지를 생위, 6에서 10까지를 성수라 하고, 여기에다가 오행과 사계, 사방을 결부하였으며, 기(奇)수를 양, 우(偶)수를 음으로 보았다. 해례본에서는 여기의 기수에 양성모음, 우수에 음성모음을 배합시켰다. “건은 하늘(天), 곤은 땅(地), 하늘(天)은 음수, 지는 음수, 양은 기수이기 때문에 1, 3, 5, 7, 9가 이에 속한다. 음은 우수이므로 2, 4, 6, 8, 10이 이에 속한다. 하늘(天)의 수가 다섯, 땅(地)의 수가 다섯, 기수·우수, 오위가 1, 2, 3, 4, 5, 6, 7, 8, 9, 10처럼 각각 가까운 것끼리 짝을 이루어 각각 화합한다. 1과 6이 화합한 불(火), 3과 8이 화합한 나무(木), 4와 9가 화합한 쇠(金), 5와 10이 화합한 흙(土) 등이다. 하늘(天)의 수인 1, 3, 5, 7, 9를 합하면 30, 하늘과 땅(天地) 수의 총계는 55가 된다. 이 양수·음수가 음양의 변화와 진행 운행의 자취를 상징한다(天一地二, 天三地四, 天五地六, 天七地八, 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의 설명을 응용한 내용이다.

정현의 《역법》에서도 “하늘(天) 1이 북에 있어서 물(水)을 낳아 ☵(坎), 땅(地) 2가 남에 있어서 불(火)

交合之初。故闢。⁶¹ 木金陰陽之定質。故闢。·天五生土之位也。—地十成土之數也。|獨無位數者。盖以人則無極之眞。二五⁶²之精。妙合而凝。⁶³ 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是則中聲之中°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ㄱ가 맨 처음 하늘(天)에서 생기니 천일생수(天一生水, 하늘의 수로 1이며 물을 낳는 자리)의 위(位, 자리)요, ㄷ가 그 다음이니 천삼생목(天三生木, 하늘의 수로 3이며 나무를 낳는 자리)의 위요, ㄴ가 맨 처음 땅(地)에서 생기니 지이생화(地二生火,

를 낳아 ≡(離), 하늘(天) 3이 동에서 나무(木)을 낳아 ≡(巽), 땅(地) 4가 서에서 쇠(金)를 낳아 ≡(兌), 하늘(天) 5가 중앙에서 흙(土)을 낳는다. 양과 음에 배우가 없으면 상성할 수가 없다. 지 6이 북에서 물(水)을 생성하고 하늘(天) 1과 나란히 서며, 하늘(天) 7이 남에서 불(火)을 생성하여 땅(地) 2와 나란히 서며, 땅(地) 8이 동에서 나무(木)을 생성하여 하늘(天) 3과 나란히 서며, 하늘(天) 9가 서에서 쇠(金)를 생성하여 땅(地) 4와 나란히 서며, 땅(地) 10이 중앙에서 흙(土)을 생성하여 하늘(天) 5와 나란히 선다(天一生水于北, 地二生火于南, 天三生木于東, 地四生金于西, 天五生土于中, 陽無耦陰無配, 未得相成, 地六成水于北, 與天一並, 天七成火于南, 與地二並, 地八成木于東, 與天三並, 天九成金于西, 與地四並, 地十成土于中 與天五並)"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영달(孔穎達)의 《역경정의》에서는 "만물이 형성될 때 미소한 것부터 점점 나타나며, 오행의 전후도 또 미소한 것부터 먼저 나타난다. 물(水)은 가장 미소한 것으로서 1이 되며, 불(火)은 점점 나타나서 2가 된다. 나무(木)의 형체는 실지로는 3이 되며, 쇠(金)는 고체이기 때문에 4가 되며, 흙(土)은 바탕(質)이 크기 때문에 5가 된다(萬物成形以微著爲漸, 五行先後亦以微著爲先, 水最微爲一, 火漸著爲二, 木形實爲三, 金體固爲四, 土質大爲五)"라고 설명한 것을 응용한 것이다.

61 水火未離乎氣…故闢: 《위수도》에서 수(水)는 ㄱㅍ, 화(火)는 ㄷㅍ라고 하였으므로 ㄱㅍㅍㅍ는 합(闢, 원순모음)이요, 나무(木)는 ㄴㅍ, 쇠(金)는 ㄴㅍ라고 하였으므로 ㄴㅍㅍㅍ는 벽(闢, 장순모음)이라는 뜻이다.

62 이오(二五): 이오의 2는 음양을 5는 오행을 말하는데 곧 이오는 음양오행을 뜻한다. 음양은 1, 2로 구성되고 오행은 1, 0, 2로 구성되는데 결국 오행의 중위(0, 무극)를 제외하면 음양의 대립 곧 2원의 음양이론과 같다. 《태극도설》에 “무극은 진(眞, 참)이고 이오는 정(情, 본성)인데 묘하게 합하여 옹간다(無極之眞, 二五之情, 妙合而凝)”라 하였다. 오늘날 디지털의 기본 원리가 0, 1의 2원 대립으로 구성된 원리와 동일하다.

63 |獨無位數者…妙合而凝: 앞의 《위수도》에서 |모음은 아무데도 배정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다. 중성자의 제자 원리를 설명할 때 |모음에 대하여 “형은 서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을 형상한 것이다(形之立 象乎人也)”라고 하였으므로, |모음은 곧 사람(人)을 형상한 꼴이다. 이 사람(人)에 대해서는 《태극도설》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다. “무극의 참모습은 음양과 오행의 정이 기묘하게 배합하여 응결하는 것이다. 천도는 남이 되며 지도는 여가 된다. 음양의 이기가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하며, 만물은 발육, 변화하여 그 변화는 무궁하다(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 2는 곧 음양이며 5는 오행이다.

땅의 수로 2이며 불을 낳는 자리)의 위요, ㄱ가 그 다음이니 지사생금(地四生金, 땅의 수로 4이며 금을 낳는 자리)의 위요, ㄴ가 거듭 하늘(天)에서 생기니 천칠성화(天七成火, 하늘의 수로 7이며 불을 낳는 자리)의 수(數)요, ㄷ가 다음이니 천구성금(天九成金, 하늘이 수로 9이며 금을 낳는 자리)의 수요, ㄹ가 거듭 땅(地)에서 생기니 지육성수(地六成水, 땅의 수로 6이며 물을 낳는 자리)의 수요, ㄴ가 다음이니 지팔성목(地八成木, 땅의 수로 8이며 나무를 낳는 자리)의 수인데 물(水)과 불(火)은 기운됨을 벗어나지 못하여, 음양이 교합하는 시초임에 합(闔, 닫음)이요, 나무(木)와 쇠(金)는 음양의 정질(定質, 성질을 정함)임에 벽(闕, 열림)이 되나니라.

· 는 천오생토(天五生土, 하늘의 수로 5이며 흙을 낳는 자리)의 위요, —는 지십성토(地十成土, 땅의 수로 10이며 흙을 낳는 자리)의 수이어나와 1는 홀로 위(자리)나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人)이란 무극(無極, 태극 곧 우주 만물의 근원)의 참과 이오(二五, 2는 음양을 5는 오행임)의 정(精)함이 묘하게 합하여 영긴 것으로서 실로 정위(定位, 자리를 정함)와 성수(成數, 수를 이룸)로써 논의할 바가 아니니라.⁶⁴ 이는 중성 중에도 또한 제대로 음양 오행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니라.⁶⁵

64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방위(方位) | 오행(五行) | 생위(生位) | | 성수(成數) | |
|--------|--------|-----------|---|-----------|---|
| 북(北) | 물(水) | 하늘(天)일(1) | ㄱ | 땅(地)육(6) | ㄹ |
| 남(南) | 불(火) | 땅(地)이(2) | ㄷ | 하늘(天)칠(7) | ㄴ |
| 동(東) | 나무(木) | 하늘(天)삼(3) | ㄷ | 땅(地)팔(8) | ㄱ |
| 서(西) | 쇠(金) | 땅(地)사(4) | ㄴ | 하늘(天)구(9) | ㄷ |
| 중(中) | 흙(土) | 하늘(天)오(5) | · | 땅(地)십(10) | — |

65 중성의 제자 원리와 음양, 상수, 오행, 오행의 관계를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중성 | 음양(天地) | 상수(象數) | 오행·오방 |
|-----|----|--------|--------|-------|
| 초출자 | ㄱ | 初生於天-양 | 1 | 水-北 |
| | ㄷ | 初生於天-양 | 3 | 木-東 |
| | ㄷ | 初生於地-음 | 2 | 火-南 |
| | ㄴ | 初生於地-음 | 4 | 金-西 |
| 재출자 | ㄴ | 再生於天-양 | 7 | 火-南 |
| | ㄷ | 再生於天-양 | 9 | 金-西 |
| | ㄹ | 再生於地-음 | 6 | 水-北 |
| | ㄱ | 再生於地-음 | 8 | 木-東 |

[초성과 중성의 비교]

以初聲對中聲而言之。陰陽。天道也。剛柔。⁶⁶地道也。⁶⁷ 中聲者。一深一淺一闔一闢。是則陰陽分而五行之氣具焉。天之用也。⁶⁶ 初聲者。或虛或實或颺或滯或重若輕。⁶⁷ 是則剛柔著而五行之質成焉。地之功也。⁶⁸ 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初聲以五音清濁和之於後。而爲初亦爲終亦可見萬物初生於地。復歸於地也。

| | | | | |
|-----|---|-----|----|-----|
| 기본자 | · | 天-양 | 5 | 土-中 |
| | — | 地-음 | 10 | 土-中 |
| | l | 人-무 | 무 | 무 |

- 66 강유(剛柔): 강(剛, 강함)과 유(柔, 유연함, 약함)에 대해 《주역》에서는 음양이 서로 대립한 개념인데 ‘양→강’, ‘음→유’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입천의 도를 음과 양, 입지의 도를 강유, 입인의 도를 인(仁)과 의(義)로 대응시키기도 한다. 곧 삼재의 도는 천도→음양, 지도→강유, 인도→인(仁)의가 된다. 《역경》〈설괘〉(제2장)에 “천지의 도는 음과 양에 서고 땅의 도리가 강유에서 사람의 도리는 인의에서 선다(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剛與柔。立人之道曰仁與義)”라고 하였는데 “〈잡봉(雜卦)〉에는 ‘건은 강이고 곤은 음이다(乾剛坤柔)’”라고 하여 강유(剛柔)는 결국 음양에 대비되는 성질의 것이다.
- 67 以初聲…地道也: 여기서는 소옹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의 술어를 혼민정음과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소옹은 운모음을 천성(天聲), 성모음을 지음(地音)이라고 했는데, 운모음은 혼민정음의 중성(모음)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음양과 관련하므로 천도라 하였고, 성모음은 혼민정음의 초성(자음)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창화도에서 강유(剛柔)와 결부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지도(地道)라 하였다.
- 68 中聲者…天之用也: 앞에서 설명하였던 모음의 모든 성질을 한데 모아 설명한 것이다. 예컨대 ·는 심(深), l는 천(淺), l는 벽(闕)이다. 그리고 소옹은 운모음(중성)과 하늘을 결부하였으므로, 중성의 모든 성질을 ‘하늘(天)’의 ‘용(用)’으로 설명한 것이다.
- 69 或虛或實或颺或滯或重若輕: 초성의 자질을 설명한 대목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 | | | | |
|--------|-----|------|-------|--------|
| 초성의 자질 | 후음 | 허(虛) | 聲虛而通 | 후음 자질 |
| | 아음 | 실(實) | 聲似喉而實 | 아음 자질 |
| | 설음 | 양(颺) | 聲轉而颺 | 설음 자질 |
| | 치음 | 체(滯) | 聲屑而滯 | 치음 자질 |
| | 순중음 | 중(重) | 脣重 | 순중음 자질 |
| | 순경음 | 경(輕) | 脣輕 | 순경음 자질 |

돈황 유물에서 발굴된 수온(守溫)의 《운학간권》에서 자모 배열 순서는 ‘순→설→아→치→후’이며 《광운》에서는 ‘순→설→차→아→후’이다. 《혼민정음》 예의에서는 ‘아→설→순→차→후’의 배열은 《절운지장도》, 《고금운회》, 《홍무정음》의 배열과 동일하다. 다만 《혼민정음》 해례의 제자해의 설명 순서에서는 ‘후→아→설→차→순’으로 하여 오방(五方)의 위치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 70 初聲者…地之功也: 앞에서 설명하였던 자음의 모든 성질을 한데 모아 설명한 것이다. 예컨대 허(虛)는 후음, 실(實)은 아음, 颺(颺)는 설음, 체(滯)는 치음, 혹은약경(或重若輕)은 순중음과 순경음, 그리고 여기서도 초성과 땅이 결부된 것으로 보고 초성의 모든 성질을 ‘땅(地)’의 ‘공(功)’으로 설명한 것이다.

초성 대 중성으로 말한다면 음양(陰陽)은 하늘(天)의 도(道)요, 강유(剛柔)는 땅(地)의 도(道)라.⁷¹ 중성이란 것은 하나가 깊고(深) 하나가 얕으며(淺), 하나가 함(闔)이요 하나가 벽(闔)으로 이는 음양이 나뉘고 오행의 기(氣)가 갖추어진 것이니 하늘(天)의 용(用, 쓰임)이요.

초성이란 것은 혹 비고(虛), 혹 차고(實), 혹 날리고(飛), 혹 막히고(塞), 혹 무겁고(重), 혹 가벼운 것(輕)으로 이는 강유(剛柔, 강함과 부드러움)가 돌아나고⁷²(순환되고) 오행의 질(質, 바탕)이 이룬 것이니 땅(地)의 공(功)이니라.

중성이 심천함벽(深淺闔闔)⁷³으로 앞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 청탁으로 뒤에서 화답하여 첫 머리가 초성이 되고 또 중성이 되니 만물이 맨 처음 땅에서 생기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한 가히 볼 수 있나니라.

[음절 구성과 초중중성의 글자의 우주 순환원리]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動者。天也。靜者。地也。兼乎動靜者。人也。⁷⁴ 盖五行在天則神之運也。在地則質之成也。在人則仁禮信義智神之

즉 여기서는 소옹의 견해에 따라 초성(자음)을 地(지음)로 보고 설명한 것이다.

71 《주역》〈설괴전〉에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 하고 땅의 도리를 세워 유와 강이라 하고 사람의 도리를 세워 인과 의라하니 천지인 삼재를 겸하여 둘로 겹쳤기 때문에 여섯획으로 괘를 이루었다(是以立天地道曰陰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書成卦, 分陰分陽迭用剛柔, 故六位而成章)이라 하였다.

72 원본에는 ‘들어나고’로 되어 있다.(방중현, 1974:26)

73 중성의 자질. ‘심천(深淺)’은 ‘·, 一, |’를 구별하기 위한 자질인데 세 중성이 나는 자리에 따라 입의 뒤 쪽 깊은 데로부터 입안의 앞쪽 얇은 데로, 차례에 따라 벌인 것이다. ‘함벽(闔闔)’은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의 여덟 중성을 ‘·, 一, |’의 세 중성과 구별하기 위한 자질이다. ‘함벽’은 해례본에서 입의 오므림(口蹙)과 벌림(口張)으로 바꾸어 설명하기도 한다(임용기:2010).

74 以初中終…兼乎動靜者 人也: 초성자·중성자·중성자를 각각 자소(字素)처럼 생각하고 이들이 합해져 하나의 문자 단위, 즉 음절문자처럼 쓰이는 것을, 천지인 삼재와 음양설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하늘(天)과 초성, 사람(人)과 중성, 땅(地)과 중성을 결부하여 생각하고, 《태극도설》에 있는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동(動)이 극에 이르면 정(靜)이 되며, 정(靜)이 음(陰)을 낳는다. 정(靜)이 극에 이르면 또 동(動)이 된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춤(一動一靜)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음을 나누고 양을 나누어서 하늘과 땅(天地)이 성립한다(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라는 말을 요약한 다음, 하늘(天)은 동(動)이며 초성이고, 땅(地)는 정(靜)이며 중성이고, 사람(人)은 동과 정이 결합(動兼靜)으로 중성임을 설명하고 있다.

運也。肝心脾肺腎質之成也。⁷⁵ 初聲有發動之義。天之事也。終聲有止定之義。地之事也。中聲承初之生。接終之成。人之事也。蓋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成音。亦猶天地生成萬物。而其財成轉相⁷⁶ 則必賴乎人也⁷⁶ 終聲之復⁷⁷ 用初聲者。以其動而陽者乾也。靜而陰者亦乾也。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⁷⁵ 一元之氣。周流不窮。⁷⁶ 四時之運。循環無端。故貞而復⁷⁷ 元。冬而復⁷⁷ 春。初聲之腹⁷⁷ 爲終。終聲之。復⁷⁷ 爲初。亦此義也。

75 蓋五行…質之成也: 《성리대전》 권24 《홍범황극》 내편에는 “오행이 하늘(天)에서는 오기(五氣, 다섯가지 기운)가 된다. 우(雨), 양(陽)晴, 옥(燠)暖, 한(寒), 풍(風)이다. 땅(地)에서는 오질(五質, 다섯가지 바탕)이 된다. 수, 화, 목, 금, 토이다(五行在天則爲五氣雨暘 燠寒風也 在地則爲五 質水火木金土也)”라 하고 있다. 권25 〈오행인제성정도〉에는 이음란에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이 배열되어 있으며, 권27 〈오행조〉에는 “주자가 말하기를 기의 정영이 신이다. ‘금, 목, 수, 화, 토’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금, 목, 수, 화, 토’를 신으로 보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는 이(理, 이치)가 된다. 그리하여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다(朱子曰, 氣之精英者爲神, 金木水火土非神, 所以爲金木水火土者是神, 在人則爲理, 所以爲仁義禮智信者是也)” 등이 있어서 이를 종합하여 기술한 대목이다.

76 其財成輔相 則必賴乎人也: 《역경》 〈태괘〉에 “하늘(天)과 땅(地)이 교감하는 것이 태(泰)괘다. 군왕은 그것으로 하늘과 땅의 도를 제성하고, 하늘과 땅의 의(義)를 상보해서 백성을 부양한다(象曰, 天地交泰, 后以, 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에서 따온 내용이다. 재(財)는 재(裁)의 뜻이며, 상(相)은 좌(佐)의 뜻이고, 재성보상(財成輔相)은 재성은 천지의 도이며, 보상은 전지의 의(宜)인데 과오를 다스려 이루게 하고 부족한 것을 길어 도운다는 뜻. 곧 “잘 마무리하여 지나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잘 도와서 미치지 않은 바를 길도록 한다”는 뜻이다.

77 終聲之復用初聲者…無不君宰也: 초성 글자가 그대로 종성 글자로 사용되는 것을 역리로 설명한 것이다. 《태극도설》에서는 “그래서 동(動, 움직임)하는 것은 양(陽), 정(靜, 멈춤)인 것은 음의 본체다(所以動而陽 靜而陰之本體也)”라 했고 《통서》 순화 제11에서는 “하늘은 양(陽)을 가지고 만물을 생성하며, 음(陰)을 가지고 만물을 육성한다(天以陽生萬物 以陰成萬物)”라고 하였으며, 《역학계몽》에서는 “건으로 나누어 동(動)하여 양이 되는 것은 건(乾)이며, 정(靜)하여 음이 되는 것도 역시 건(乾)이다. 건(乾)은 실로 음과 양을 나누면서도 그것을 주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蠲乾以分之, 則動而陽者乾也, 靜而陰者亦乾也, 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라고 한 것을 응용한 대목이다.

78 一元之氣周流不窮: 《황극경세서》 〈경세일원소장지수도〉에서는 30년을 일세(一世), 12세를 일운(一運), 30운을 일회(一會), 12회를 일원(一元)이라 하고, 천지는 일원을 단위로 해서 변천한다고 하였으며, “끝나면 변화하며 변화는 생성하여 모든 생류는 무궁하게 생성한다(窮則變, 變則生, 蓋生生而不窮也)”라고 하여 우주 만물의 원리를 순환적 이치로 파악하고 있다. 주자는 《주역본의》에서 “원(元)’은 계절로는 봄(春)으로 사람의 덕성으로는 인(仁)이라 하면서 원은 사물을 낳는 시작이니 천지의 덕이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時)로는 봄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仁)이 되어 선(善)

초, 중, 종성이 합성되는 자(字, 글자 곧 음절구성)로 말한다면 또한 동정(動靜)이 서로 근본되고 음양이 사귀어 변하는 뜻이 있는 것이니, 동(動)이란 하늘(天)이요, 정(靜)이란 땅(地)이요, 동정(動靜)을 겸한 것은 사람(人)이라. 대개 오행이 하늘(天)에 있어서는 신(神)의 운행이요, 땅에 있어서는 바탕을 이룸이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가 신의 운행이요,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이 질(質, 바탕)의 이룸인데,

초성은 발동(움직임의 시작)의 뜻을 가지니 하늘(天)의 일이요, 종성은 지정(止定, 멈추어 정착함)의 뜻을 가지니 땅(地)의 일이요, 중성은 초성의 생(生)함을 받고 중성의 이룸을 이으니 사람(人)의 일이니라.⁸⁰

대개 자운(字韻, 글자의 소리, 음절)의 요점은 중성이 있으니 초성과 (중성이) 합하여 음(음절)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하나 그 재성보상(財成輔相, 다듬고 보완하여 이룸)은 사람(人)을 힘입는 바와 같으니라.

중성에 초성을 다시 쓰는 것은 동(動)이요, 양(陽)인 것도 건(乾)이며 정(靜)이요 음(陰)인 것도 또한 건(乾)으로 실상 건(乾)이 음양으로 나뉘어서도 주재(主宰)치 않는 것이 없는 까닭이니라. 일원(一元, 우주의 근원)의 기운이 주류(周流, 두루 통함)하여 다하지 않고 사시의 운행이 순환(循環)하여 끝이 없는 까닭에 정(貞)에서 다시 원(元)으로 겨울(冬)에서 다시 봄(春)으로 되는 것이니 초성이 다시 종성이 되

의 으뜸이 된다(元者, 生物之始, 天地之德莫先於此, 故於時爲春, 於人則爲仁而衆善之長也)”라고 하여 ‘원형이정(元亨利貞)’을 4제에 맞추어 설명하듯이 여기서는 오음을 오시로 대응시켜 설명하고 있다.

79 貞而復元: 《성리대전》 권26 〈이기조〉에는 “주자가 이르되 모든 정(貞)이 다시 원(元)을 생성하며 이와 같이 무궁하다(朱子曰…蓋是貞復生元 無窮如此)”라는 말이 있다. 또 《성리대전》 권27 〈사시조〉에는 “주자가 이르되 일세로 말하면 춘, 하, 추, 동이 있고 건으로 말하면 원형이정이 있다(朱子曰…以一歲言之, 有春夏秋冬, 以乾言之, 有元 亨利貞云云)”라고 있는데, “원(元)=봄(春), 형(亨)=여름(夏), 이(利)=가을(秋), 정(貞)=겨울(冬)”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80 초, 중, 종성의 합성 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분절음운론(Syllable phonology) 이론과 부합한다.

| | 음성원리 | 삼재 | 역학원리 | | |
|----|------------|-------|------|-----|-----|
| 초성 | 發動(on-set) | 하늘(天) | 動 | 天之事 | 神之運 |
| 중성 | 承接(core) | 사람(人) | 兼動靜 | 人之事 | 人之事 |
| 종성 | 止定(cord) | 땅(地) | 靜 | 地之事 | 質之成 |

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됨도 또한 이 뜻이니라.⁸¹

[제자해 결사]

吁。正音作而天地萬物之理咸備。其神矣哉。是殆天啓聖心而假手焉者乎。訣曰

아아! 정음(正音)이 만들어 지는 데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함께 갖추었으니 그 신
령스러운 저, 이것의 하늘이 성상(聖上)이 마음을 열어서 (성인의) 손을 빈 것이
로다. 결에 이르되⁸²

天地之化本一氣⁸³

陰陽五行相始終

物於兩間有形聲

元本無二理數⁸⁴通

正音制字尙其象⁸⁵

因聲之厲每加畫

音出牙舌脣齒喉

是爲初聲字十七

牙取舌根閉喉形

81 천도(天道)인 “乾元亨利貞(건은 하늘을 뜻한다. 곧 크게 행통하고 바르면 이름다)”는 말은 공영달(孔
穎達, 574~648)의 《주역정의》에 네 덕으로 또는 사시로 해석한 것을 원용한 내용이다.

| | | | | |
|--------|------|------|-------|-------|
| 천도(天道) | 건(乾) | 원(元) | 생겨남 | 봄(春) |
| | | 형(亨) | 자람 | 여름(夏) |
| | | 이(利) | 삶을 이룸 | 가을(秋) |
| | | 정(貞) | 완성됨 | 겨울(冬) |

82 총 70행의 칠언고시.

83 天地之化本一氣: 《역학계몽》에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의 기가 이미 있다(天地之間 一氣而已)”라고 있
어서 모든 것이 기(氣)로 이루어지는 듯이 이해되기 쉬우나, 제자해의 첫머리에 있는 “천지의 도는 하
나의 음양오행이 이미 있다(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는 내용과 결국 같은 말이다.

84 이수(理數): 여기의 수는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수를 가지고 설명한 소옹의 설 등을 말하는 것이다.

85 상기상(尙其象): 정음 창제 때 자음자는 발음기관을, 모음자는 천·지·인 삼재를 상형하여 제자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상기상은 그 모양 본뜨기를 주로 하였다(존중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唯業似欲取義別。⁸⁶

舌迺⁸⁷象舌附上腭

脣則實是取口形

齒喉直取齒喉象

知斯五⁸⁸義聲自明

又有半舌半齒音

取象同而體則異

那彌戊欲聲不屬

次序雖後⁸⁹象形始

配諸四時與冲氣⁹⁰

五行五音無不協

維喉爲水冬與羽

牙迺春木其音角

徵音夏火是舌聲

齒則商秋又是金

脣於位數本無定

土而季夏爲宮音

聲音又自有清濁

86 취의별(取義別): 여기의 '義'자는 ㅎ자의 상형 내용이 다른 아음자와 마찬가지로 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ㅎ에서 나왔으므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을 본뜬 아음과는 그 제자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87 迺: 乃(내), 곧.

88 오의(五義): 초성의 다섯 기본 글자를 상형한 뜻(이치)을 말하는 것.

89 次序雖後: 제자해의 주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不淸不濁에 속하는 那(ㄴ), 彌(ㅁ), 欲(ㅇ)은 중국 36자모표의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의 순서로 보아 끝이라는 뜻인데, 전청에 속하는 술(戌)(ㅅ)자 까지도 한데 묶어 설명한 것은 사실과 어긋나나, '불려(不屬)'를 기준으로 삼아 기본 문자를 만들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0 충기(冲氣): 《성리대전》 권1의 〈태극도설해〉(주자)에서 “토는 기가 충만하여 중에 거하는 까닭이다(土冲氣, 故居中)”라고 하여 〈오행도〉에서 중(中, 가운데)에 위치한 토(土)를 ‘충기(冲氣)’라고 설명했다. 곧 ‘충기(冲氣)’는 ‘충기(沖氣)’와 같은 말로 “천지간의 조화된 원기”를 말한다.

要°於初發細推尋
 全清聲是君斗驚
 卽戌挹亦全清聲
 若迺快吞漂侵虛
 五音各一爲次清
 全濁之聲叫覃步
 又有慈邪亦有洪
 全清並書爲全濁
 唯洪自虛是不同
 業那彌欲及閭穰
 其聲不清又不濁
 欲之連書爲脣輕
 喉聲多而脣乍合
 中聲十一亦取象
 精義未可容易°觀
 吞擬於天聲最深⁹¹
 所以圓形如彈丸
 卽聲不深又不淺
 其形之平象乎地
 侵象人立厥聲淺
 三才之道斯爲備
 洪出於天⁹²尙爲闔⁹³

91 성취심(聲最深): 모음 글자에 대한 설명이 때로는 자형을, 때로는 음가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음가를 설명한 것이다.

92 출어천(出於天): ㄱ(洪)나 ㄷ(覃)가 ㆍ(하늘)에서 나온 글자라는 뜻이다.

93 闔: 제자해의 주에서 설명한 대로 합(闔)은 합구(合口, 입을 다물다)를 뜻하며, 원순모음을 가리키고, 벽(闕)은 개구(開口, 입을 열다)를 뜻하며, 비원순모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는 ㄱ모음이 합(闔, 합구모음)이라는 뜻이다.

象取天圓合地平
 覃亦出天爲已闢
 發於事物就人成
 用初生義一其圓
 出天爲陽在上外
 欲穰兼人⁹⁴爲再出
 二圓爲形見°其義
 君業戌驚出於地⁹⁵
 據例自知何須評
 吞之爲字貫八聲⁹⁶
 維天之用徧流行
 四聲⁹⁷兼人亦有由
 人參天地爲最靈⁹⁸
 且就三聲⁹⁹究至理
 自有剛柔與陰陽
 中是天用陰陽分¹⁰⁰
 初迺地功剛柔彰

94 겸인(兼人): ㄱ ㅏ 등 이중모음이 ㅣ 모음(즉 사람을 상형해서 만든 글자)과 결합된 것이라는 뜻.

95 출어지(出於地): ㅏ ㅏ ㅏ ㅏ 가 모두 ㅡ모음과 한 부류라는 뜻.

96 관팔성(貫八聲): ㄱ ㅏ ㅏ ㅏ ㅏ ㅏ ㅏ ㅏ 의 8모음에는 모두 ㅏ 자(즉 줍튼의 중성인 ㅏ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

97 四聲: 여기서는 ㄱ ㅏ ㅏ ㅏ 를 말하는 것이다.

98 人參天地爲最靈: ㄱ ㅏ ㅏ ㅏ 의 구조를 人(ㅣ모음)과 결합된 것으로 보고 붙인 설명이다.

99 三聲: 초, 중, 중성을 말하는 것이다.

100 陰陽分: 《성리대전》 권8, 《황극경세서》 권2 〈정성정음표〉에서 소음은 운모(중성 포함)를 천성(天聲)이라 하고서 음양(陰陽)과 결부하였고, 성모(초성)를 지음(地音)이라 하고서 강유(剛柔)와 결부하였는데 여기의 설명도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초, 중, 중성을 깊이 살펴보면 초성과 결부된 강유와, 운모와 결합된 음양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중성은 하늘의 쓰임(天用)이며 또 음양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中聲唱之初聲和¹⁰¹

天先乎地理自然

和[°]者爲初亦爲終

物生復歸皆於坤

陰變爲陽陽變陰

一動一靜互爲根

初聲復[°]有發生義

爲陽之動主於天

終聲比地陰之靜

字音於此止定焉¹⁰²

韻成要在中聲用

人能輔相[°]天地宜¹⁰³

陽之爲用通於陰

至而伸則反而歸¹⁰⁴

初終雖云分兩儀

終用初聲義可知

101 中聲唱之初聲和: 운도에서 성모(地)와 운모(天)의 결합으로 자음(字音)을 표시하는 원리를 한글과 결부하여 설명한 것. 송나라 정초가 지은 《칠음약》 서에 사성을 경이라하고 칠음을 위하여 운도의 기본 골간을 제시하였다. 심약이 《사성보》를 지어 처음으로 사성을 세우고 승려 신평이 《등운》을 만들어 36모를 배열하고 사성에 다른 등운도를 완성하였다. 숙종 조 병와 이형상은 운도를 반절로 인식하고 ‘운법횡도’와 ‘운법직도’라는 개념으로 7음을 ‘운법횡도’로 청탁지별을 ‘운법직도’라는 개념으로 연문 반절도도 한자음의 연문 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102 字音於此止定焉: 한자음이 초, 중, 종성으로 갖추어진다고 보고, 초성을 양(陽(動)) 곧 천(天)으로, 종성을 음(陰(靜)) 곧 땅(地)으로 본 설명이다. 그래서 종성에 따라 자음이 정해진다고 한 것이다.

103 人能輔相天地宜: 人, 즉 ㅁ 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중성이, 天=초성, 地=종성을 도와 하나의 자음을 형성한다는 뜻이다.

104 至而伸則反而歸: 《태극도설》의 “태극이 동하여 양을 생성하고 동함이 극에 달하면 정이 되며 정이 음과 정을 생성하여 다시 동하니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는 것이 서로 그 근본이니 음과 양으로 나누어 양의를 세운다(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라는 ‘음-양’, ‘동-정’의 순환논리의 개념을 응용한 설명이다. 즉 지극한 데 이르러 퍼면 돌이켜 되돌아온다는 것은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생겨나듯이 중성 글자에 초성 글자를 다시 쓰는 것을 말한다.

正音之字只廿八

。探蹟錯綜窮深幾¹⁰⁵

指遠言近牖民易¹⁰⁶

天授何曾智巧爲

천지의 화성(化成, 이루어짐)은 본래가 한 기운
음양과 오행이 서로 종시(終始, 처음과 끝)라
그 중간의 물건(만물)은 형(形)과 성(聲) 있어도
원본(元本, 근본)이야 한 가지 이치와 수가 통하도다
정음의 제자는 제 형상 모상하되
소리가 센 자는 획만을 더할 뿐
어금니 소리(牙), 혀소리(舌), 입술소리(脣), 잇소리(齒), 목구멍소리(喉)서 소리가
나오니
그것이 초성의 열일곱 글자라
어금니 소리(牙)는 설근(舌根)이 폐후(閉喉, 목구멍을 막음)한 그 형상
업(業)은 오직 〇(欲)에 비슷하니 취의(取義, 취하는 의미)가 다르고
혀소리(舌)는 상악(上顎, 윗 잇몸과 입천장)에 혀바닥 붙인 것
입술소리(脣)은 그 실상 입 형상 그대로
잇소리(齒)와 목구멍소리(喉)도 치후(齒喉, 이와 목구멍)의 제 형상
그 다섯 뜻 안다면 소리는 환하리

105 探蹟錯綜窮深幾: ‘탐색(探蹟)’은 “감추어져 있어서 분명치 않은 것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 ‘착중(錯綜)’은 “복잡하게 서로 얽힌 것, 또는 여러 가지로 서로 얽은 것”, ‘심(深)’은 “깊은 이치”, ‘기(幾)’는 ‘시초, 까마득한 것, 현묘(玄妙)한 것’을 뜻하며 모두 《역경》〈계사〉에 나오는 말로서 원래는 모두 역에 관련된 설명이었으나, 해례 편찬자들은 이 내용을 훈민정음과 결부하여 설명한 것이다. 즉 “훈민정음은 겨우 28자이지만 깊은 이치와 복잡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고, 깊고 현묘한 원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동국정운》 서문에도 ‘탐색구심(探蹟鉤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계사〉에 있는 말이다.

106 유(牖): 《시경》〈대아〉〈생민지십편〉편에 ‘천민편민(天之牖民)’이란 말이 있다. ‘유(牖)’는 인도할 유, 곧 하늘은 백성을 이끈다.

그리고 반설(半舌)과 반치(半齒)의 음이란
 모양이 같아도 형상(體)이 틀린 것
 ㄴ(那)와 ㄹ(彌) ㅅ(戌)과 ㅇ(欲) 소리가 안 세어
 차서(次序, 순서)론 뒤로되 상형엔 시초로다
 사시(四時)와 충기(沖氣, 오행도 가운데 중앙 곧 토)에 배합이 되어서
 오행과 오음도 안 맞는 바 없으니
 목구멍소리(喉)란 건 물(水)이 되고 동(冬)이 되고 우(羽)가 되며
 어금니 소리(牙)라면 봄(春)과 나무(木) 그 소리는 각(角)이며
 치음(微音)은 여름(夏)과 불(火) 그제 곧 혀소리
 잇소리(齒)는 곧 상(商)과 가을(秋) 그리고 쇠(金)인 것
 입술소리(脣)만이 위(位, 자리)와 수(數, 성수) 정한 바 없으나
 늦여름(季夏)이요, 흙(土)이요, 또 궁(宮)음이로다
 성음엔 제대로 청탁(淸濁)이 있으니
 첫소리 거기서 자세히 찾으라
 전청(全淸)의 소리는 ㄱ(君)과 ㄷ(斗) 또는 ㅂ(暫)
 ㅈ(卽), ㅅ(戌) ㅊ(攄) 그 또한 전청의 소리요
 그러고 ㅋ(快), ㅌ(吞), ㅍ(漂), ㅊ(侵), ㅎ(虛)로 이르면
 오음 중 하나씩 차청(次淸)이 되는 것
 전탁(全濁)의 소리는 ㄴ(虬)과 ㄹ(覃)과 ㅃ(步)
 또 다시 ㅆ(慈)과 ㅈ(邪) 또 다시 ㅊ(洪)이니
 전청(全淸)의 병서(並書)가 전탁(全濁)이 되는 바
 ㅊ(洪)만은 ㅎ(虛)를 써 이것이 다르고
 ㅇ(業)과 ㄴ(那) ㄹ(彌)와 ㅇ(欲) 그리고 ㄹ(間)와 ㄷ(穰)
 그 소린 불청(不淸)에 또 불탁(不濁)이로다
 ㅇ(欲)자의 연서(連書)가 순경음(脣輕音)되는 건
 후성(喉聲)이 많고도 입술 잠깐 합해서
 열한 자 중성도 상형은 매일반

깊은 뜻 쉽사리 보내지 못 하리
 · (吞)은 하늘(天), 소리도 그 가장 깊으매
 그래서 둥글기 탄환과 같으며
 一(卽)소린 깊지도 알지도 않은즉
 그 형상 평평해 땅을 모상하고
 사람 선 丨(侵)의 모상, 그 소린 얕으니
 삼재(三才)의 도가 이로써 갖추도다
 乂(洪)은 하늘(天)에서 나오나 다시 합(闔, 합구 곧 폐모음)¹⁰⁷
 천원(天圓, 하늘 둥글)과 지평(地平, 땅 평평함)이 합한 것 모상하고
 卜(覃) 또한 하늘(天)에서 나오되 이미 벽(闕, 개구, 개모음)
 사물에 나타나선 사람이 이루는 것
 초생(初生)의 뜻으로 원(圓) 오직 하나요
 하늘(天)에서 나온 양(陽), 위와 밖에 있으며
 ㄹ(欲) ㅸ(穰)은 사람(人) 겸(兼)해 재출(再出)이 되나니
 원(圓)들의 그 형상 제 뜻을 보이리
 ㄱ(君)과 ㄴ(業) ㅅ(戌)과 ㅈ(驚)이 丨(地)에서 나온 건
 전례(前例, 앞의 예)로 알패라. 무엇을 평(評)하라
 · (吞)자가 팔성을 깡그리 통함은
 하늘(天)의 용(用, 쓰임) 그 두루 유통케 됨이요
 사성(四聲, ㅅ ㅸ ㅅ ㅸ)이 인겸(人兼, 사람을 겸함)한 데 또 까닭 있으니
 하늘과 땅에 참여해 사람(人)이 가장 신령코나
 삼성(三聲)에 나아가 지리(至理, 이치에 이름)를 살피면
 제대로 강(剛)과 유(柔) 음(陰)과 양(陽) 있는 바
 가운데 하늘의 용(用, 쓰임), 음과 양 나뉘고
 첫머린 땅(地)의 공(功), 강과 유가 있도다

107 해석 원본(방중현, 1946:29)에는 ‘閤’로 되어 있으나 해례본에는 ‘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였다.

중성이 불러서 초성의 화답은
땅(地)보다 하늘(天) 앞서 자연한 이치요
화답하는 그것이 초(初, 초성)되고 종(終, 종성)됨은
곤(坤, 땅)에서 물건이 나오고 되가는 것
음이 변해 양이 되고 양이 변해 음이 되니
일동(一動)과 일정(一靜)에 서로 근본이라
초성엔 또 다시 발생(發生, 피어서 생겨남)의 뜻있어
양(陽)의 동(動)이 되므로 하늘(天)에다 받들고
중성은 음의 정(靜)이 땅(地)로다 비기어
자음(字音, 글자의 소리)이 여기서 그쳐 정(定)하되
운(韻) 이루는 요점은 중성에 있으니
사람(人) 능히 천지를 보상함이라.
양(陽)의 용(用)됨이 음에도 통하여
(양이 음에) 이르러 편측슨 돌이켜(거꾸로) 돌아가니
초성이 그 비록 양의(兩儀)로 나누어지나
중성에 초성 쓰는 그 뜻을 알지로다
정음자(正音字) 그 단지 스물과 여덟이나
얕힌 것을 찾으며 깊은 것 뚫어서
뜻은 멀어도 알긴 쉬워 계몽(啓蒙)에 용(用, 쓰임)이 하니(많으니)
하늘이 주신 바라 지교(智巧, 지혜와 재주)로 될거라

제2장 초성해

초성해(初聲解)

正音初聲。卽韻書之字母也。¹⁰⁸ 聲音由此而生。故曰母。¹⁰⁹ 如牙音君字初聲是 ㄱ。ㄱ 與 ㄴ 而爲 君。快字初聲是 ㅋ。ㅋ 與 ㄴ 而爲 쾌。蚪字初聲是 ㄷ。ㄷ 與 ㄴ 而爲 斗。業字初聲은 ㅇ。ㅇ 與 ㄴ 而爲 업之類。舌之斗吞覃那。脣之驚漂步彌。齒之卽侵慈戍邪。喉之挹虛洪欲。半舌半齒之間穰。皆倣此。訣曰

정음의 초성은 곧 운서의 자모(字母)니 성음(말소리)이 이로부터 생기므로 모(母)라고 이르니라. 아음의 군(君)자 초성이 곧 ㄱ이니 ㄱ이 ㄴ과 더불어 군이 되며 쾌(快)자의 초성은 ㅋ이니 ㅋ이 ㄴ로 더불어 쾌가 되며 규(蚪)자의 초성은 ㄷ니, ㄷ가 ㄴ로 더불어 규가 되며 업(業)자의 초성은 ㅇ이니 ㅇ이 ㄴ으로 더불어 업이 되는 류와 같은데 혀소리(舌)의 ㄷ(斗), ㅌ(吞), ㄸ(覃) ㄴ(那), 입술소리(脣)의 ㅁ(驚), ㅍ(漂), ㅃ(步), ㅁ(彌), 잇소리(齒)의 ㅈ(卽), ㅊ(侵), ㅆ(慈), ㅅ(戍), ㅌ(邪), 목구멍소리(喉)의 ㅊ(挹), ㅎ(虛), ㅎ(洪), ㅇ(欲), 반설(半舌)과 만치(半齒)의 ㄴ(間)와 ㄷ(穰)은 모두 이와 방사(倣似, 비슷하다)하니라. 결에 가로되

君快蚪業其聲牙

舌聲斗吞及覃那

驚漂步彌則是脣

齒有卽侵慈戍邪

挹虛洪欲迺喉聲

108 正音初聲 韻書之字母也: 중국 성운학(음운학)에서 말하는 36자모가 한자음의 모든 어두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방식 그리고 음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 정리하고 하나의 한자로써 하나의 자음을 표시하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그 성격에 있어서는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의 초성 글자와 같다.

109 聲音由此而生 故曰母: 여기서는 해례 편찬자들이 자모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사실을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자모란 각 어두자음을 분류해서 하나의 어두자음을 나타내도록 그 대표로 정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모가 먼저 있어 거기서 성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故曰母’라는 표현은 정당하지 않다.

間爲半舌穰半齒

二十三字是爲母¹¹⁰

萬聲生生皆自此

ㄱ(君)과 ㅋ(快) ㅍ(虬)와 ㅍ(業) 그 소린 어금니 소리(牙)이요

혓소리(舌聲)은 ㄷ(斗)와 ㅌ(吞) 그리고 ㄷ(覃)과 ㄴ(那)

ㅂ(驚)과 ㅍ(漂) ㅅ(步)와 ㅁ(彌) 그 모두 입술소리(脣)이요

잇소리(齒)에는 ㅈ(卽), ㅉ(侵), ㅊ(慈), ㅊ(戌), ㅊ(邪)가 있는 것

ㅎ(挹)과 ㅎ(虛) ㅎ(洪)과 ㅎ(欲) 그는 곧 목구멍소리(喉聲)요

ㄹ(間)는 반설(半舌)이요 ㄹ(穰)은 반치(半齒)라

스물 세 글자가 자모를 이루나

만성(萬聲, 온갖 소리)의 생생(生生)이 모두다 여기서 (시작되네)

제3장 중성해

중성해(中聲解)

中聲者。居字韻之中。合初終而成音。¹¹¹ 如吞字中聲是 ㄱ ㅍ 居 ㅌ ㄴ 之間而爲音。卽字中

110 二十三字是爲母: 훈민정음의 자음(子音)은 제자해에서 ‘初聲凡十七字’라고 했으나 전탁(全濁: 각자병서)까지 합하면 23자이므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111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 여기에서는 중성이 자운의 초·중성 가운데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자음 중에는 반모음 j·w로 끝내는 快/k'waj/, 好/xaw/ 같은 것도 있는데,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절말의 j도 중성에 포함시켰다(-w는 ㅁ로 표기하고 중성으로 처리하였음). 따라서 여기의 설명이 중성의 개념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운’은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한자음을 가리키며 ‘성음’은 음절을 이루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흔히 말하는 ‘운’이란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자음에서 어두자음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 전부를 가리키는데, 해례 편찬자들은 중성해와 중성해에서 ‘居字韻之中’이니 ‘成字韻’이라 해서 ‘字韻’이라는 술어를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한자음처럼 쓰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자음의 표기가 《동국정운》이 제정되기 이전과 그 이후 기간 동안 차이를 보인다. 특히 -p, -t, -k 입성운미의 표기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t’운미인 ‘驚’을 ‘별’으로 표기하였고 ‘-w’ 운미 글자인 ‘뼉’도 ‘꾸’로 ‘-j’ 운미인 ‘快’도 ‘쾌’로 표기하여 ‘ㅇ’을 표기하지 않았다.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해례

聲是—。—居ㅈㄱ之間而爲즉。侵字中聲是ㅣ。ㅣ居ㅈㅍ之間而爲침之類。洪覃君業欲穰戍驚。皆倣此。

[중성의 정의와 음절 구성]

중성이란 것은 자운(字韻, 한자음 가운데 운모)의 맨 가운데 있어서 초성 중성과 합하여 음을 이루는 것이니라.

탄(吞 ㅌ)자의 중성은 곧 ㅌ인데 ㅌ가 ㅌㄴ의 사이에 있어서 ㅌㄴ이 되고 즉(卽)자의 중성은 곧 ㅌ인데 ㅌ가 ㅈㄱ의 사이에 있어서 ㅌㄱ이 되고 침(侵)자의 중성은 곧 ㅣ인데 ㅈㅍ의 사이에 있어서 침이 되는 류와 같으니 홍(洪), 탐(覃), 군(君), 업(業), 욕(欲), 양(穰), 순(戍), 변(驚)도 모두 이와 방사(倣似)하니라.¹¹²

二字合用¹¹³者。ㅇㅌ與ㅌㅌ同出於 ㅌ。故合而爲ㅌㅌ。ㅇㅌ與ㅌㅌ又同出於 ㅣ。故合而爲ㅌㅌ。ㅌㅌ與ㅌㅌ同出於 ㅌ。故合而爲ㅌㅌ。ㅌㅌ與ㅌㅌ又同出於 ㅣ。故合而爲ㅌㅌ。以其同出而爲類¹¹⁴故相合而不悖也。一字中聲之與 ㅣ 相合者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是也。二字中聲之與 ㅣ 相

본과 달리 지섭(止攝), 우섭(遇攝), 과섭(果攝), 가섭(假攝)과 해섭(蟹攝)의 ‘-ㅌ’ 운미에 ‘ㅇ’을 표기하고 효섭(效攝), 유섭(流攝)의 ‘ㅌ’표기로 진섭(鎭攝)과 산섭(山攝)의 ‘-ㅌ’운미인 경우 ‘-ㄹㅇ’을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법은 바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에서는 ‘ㅇ’ 표기는 반영하지 않고 ‘ㅌ’과 ‘ㅇ’표기만 반영하였으며 《육조법보단경언해》에서는 ‘ㅇ’과 ‘ㅌ’ 표기를 폐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영보래 표기인 ‘-ㄹㅇ’도 ‘-ㄹ’로 현실 동음으로 정착되었다.(임용기, 2012:11) 참조.

112 중성의 음절 구성 방식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중성(음절핵) | 초성 | 중성 | 종성 | 자운(음절) |
|---------|----|----|----|--------|
| ㅌ | ㅌ | ㅌ | ㅌ | 탄(吞) |
| ㅌ | ㅌ | ㅌ | ㅌ | 즉(卽) |
| ㅣ | ㅌ | ㅣ | ㅌ | 침(侵) |

113 합용(合用): 두 글자 이상을 합해서 쓰는 것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초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성에서도 합용이라고 했다.

114 同出而爲類: 두 가지 모음 글자를 아울러 쓸 때에도 원래 ㅌ 모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원래 ㅌ 모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됨을 설명한 글이다. 그래서 ㅌㅌ + ㅌㅌ → ㅌㅌㅌ, ㅌㅌ + ㅌㅌ → ㅌㅌㅌ가 되었다.

合者四。¹¹⁵ 네내페네是也。〕於深淺闔闢之聲。¹¹⁶並能相隨者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亦可見人之參贊開物¹¹⁷而無所不通也。詠曰

[중성 합용]

두 자를 합용하는 것은 ㄴ과 ㄹ로 더불어 같이 ㅂ에서 나온 까닭에 합해서 ㅅ가 되고 ㄴ과 ㄹ로 더불어 같이 ㅁ에서 나온 까닭에 합해서 ㅍ가 되며 ㄴ과 ㄹ로 더불어 같이 ㅁ에서 나온 까닭에 합해서 ㄱ가 되고 ㄴ과 ㄹ로 더불어 같이 ㅁ에서 나온 까닭에 합해서 ㄷ가 같이 나온 것 끼리 류가 됨으로서 서로 합해서 어그러지지 아니라.

한 글자(字) 중성이 丨로 더불어 서로 합한 자(者)가 열이니 곧 亅, 亇, 予, 争, 亊, 事, 二, 亍, 亍, 亍, 𠂇 두 자(字) 중성의 丨로 더불어 서로 합한 자(者)가 넷이니, 곧 𠂇, 𠂇, 𠂇, 𠂇 丨가 깊고(深), 얇고(淺), 합(闔)되고, 벽(關)되는 소리에 아울러 능히 서로 따르는 것은 혀가 퍼지고 소리가 얹아서 개구(開口, 입을 열기)키에 편한 까닭이니 또한 가히 사람이 물건을 열기에 참찬(參贊, 일에 관여하고 돕는 것)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니라.¹¹⁸ 결(訣)에 가로되

115 與 1 相合者四: **〈훈민정음〉** 중성해에서는 단모음과 중모음을 합해서 29개 모음자를 제시하였으나 이들 가운데 ㅑ 등 2개 모음은 국어나 한자를 표기에 쓰이지 않았다.

116 深淺闊窄之聲: 제자해에서 각 모음의 성격에 대하여 따로따로 설명한 것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종합하여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면 ㆍ는 심(深), ㅡ는 함(闊)이다. 그러나 ㅣ모음은 천(淺)이나 여기서는 ㅣ모음과 결합되는 중모음을 설명한 것이므로 여기의 천모음은 불심불천인 ㅡ모음을 가리킨다.

117 開物: 개발한다는 뜻. 또 《역경》〈계사〉 상에는 ‘開物成務’라 하여 ‘태고 시대에 인지(人知)가 발달하기 전에 사람으로 하여금 복축(卜筮)에 의하여 길흉을 알고, 해(害)를 피하는 지혜를 개발하여, 이로써 사업을 이루게 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으나, 후에 ‘사람의 지식을 개발하여 사업을 달성시킨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물(物)은 사람, 무(務)는 사업.

118 중성자의 기보자와 합용 방식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 | | 중성 글자 | 제자방법 |
|-----|------|---------------------|---------|
| 기본자 | 상형자 | · 一 卜 | 상형 |
| | 초출자 | ㄱ ㅏ ㅑ ㅓ | 합성 |
| | 재출자 | ㅕ ㅗ ㅛ ㅜ ㅠ | |
| 합용 | 2자상합 | ㅕ ㅗ ㅛ ㅜ ㅠ | 초출자+재출자 |
| | 3자상합 | ㅕ ㅗ ㅛ ㅜ ㅠ ㅕ ㅗ ㅛ ㅜ ㅠ | 1자중성+1 |
| | | ㅕ ㅗ ㅛ ㅜ ㅠ | 2자 중성+1 |

母字之音¹¹⁹ 各有中 (‘母’는 ‘每’의 잘못된 듯)

須就中聲尋闕闕

洪覃自吞可合用

君業出則亦可合

欲之與穰戊與驚

各有所從義可推

侵之爲用最居多

於十四聲徧相隨

모(母) 자(字)의 소리엔 각기 중성 있는 바

모름지기 중성에서 합(闕)과 벽(闕)을 찾으라

ㄱ(洪)과 ㅈ(覃) · (吞)으로부터 합용하고

ㅡ(即)에서 나온 ㄱ(君) ㅈ(業) 또 가히 합할 것

ㅅ(欲)과 ㅈ(穰)이나 ㅈ(戊)과 ㅈ(驚)은¹²⁰

쫓는 바 있거니 그 뜻을 미뤄 알라.

ㅣ(侵)의 용(用, 쓰임)됨이 그 가장 많으니 열네 소리에 두루 서로 따르도다.

119 母字之音: ‘모(母)’를 방중현(1946) 교수는 ‘매(每)’의 오자로 처리하였으나 음절의 핵모음을 뜻하는 원본의 ‘모(母)’가 옳은 것이다.

120 해석 원본(방중현, 1946:32)에 “모름이 중성에서 闕과 驚찾으라”를 “모름지기 중성에서 합(闕)과 벽(闕)을 찾으라”로 고친다. 또한 “欲과 ㅈ穰이나 戊과 ㅈ(闕)이나”를 “ㅅ(欲)과 ㅈ(穰)이나 ㅈ(戊)과 ㅈ(驚)은”으로 고친다.

제4장 종성해

종성해(終聲解)

[종성의 정의와 기능]

終聲者承初中而成字韻。如卽字終聲是 ㄱ。ㄱ居 ㄷ終而爲 ㄱ。洪字終聲是 ㅎ。ㅎ居 洪終而爲 洪之類。舌脣齒喉皆同。

종성이란 것은 초성을 이어서 자운(字韻)을 이루나니라.

즉(卽)자의 종성은 곧 ㄱ이니 ㄱ은 ㄷ의 끝에 있어서 ㄱ이 되고 洪(洪)자의 종성은 곧 ㅎ이니 洪의 끝에 있어서 洪이 되는 류와 같은 바 입술소리(脣), 혀소리(舌), 잇소리(齒), 목구멍소리(喉)도 모두 같으니라.

[종성 표기방법]

聲有緩急之殊。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¹²¹ 不清不濁之字。其聲不屬。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爲屬。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 ㅎ ㄴ ㄹ ㅇ ㄷ ㅌ ㅍ 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

소리에는 천천하고 급함(緩急)의 구별이 있는 까닭에 평(平), 상(上), 거(去)는 그 종성이 입성의 촉급(促急)함과 같이 얹으니 불청불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은 까닭에 종성으로 쓰면 평(平), 상(上), 거(去)에 맞고 전청 차청 전청의 글자는 그 소리가 (종성으로 쓰면) 입성에 맞는지라 그러므로 ㅎ ㄴ ㄹ ㅇ ㄷ ㅌ ㅍ의 여섯 자는 평상거의 종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되나(니라.)

121 聲有緩急之殊…入聲之促急: 원래 한어의 성조는 음절 전체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인데, 음절 말음이 -p, -t, -k이었던 음절(자음)들을 입성이라고 해 왔으므로, 여기서도 우선 종성만을 가지고 평·상·거성(緩)과 입성(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중성 표기방법]

然ㄱㅇㄷㄴㄹㅁㅂㅅㅈ八字可足用也。¹²² 如梨¹²³꽃爲梨花。엿의¹²³갓爲狐皮。而ㅅ字可以通用。故只用ㅅ字。且ㅇ聲淡而虛。不必用於終。¹²³ 而中聲可得成音也。ㄷ如變爲鶯。ㄴ如君。ㅂ如업爲業。ㅁ如땀爲覃。ㅅ如諺語옷爲衣。ㄹ如諺語:실爲絲之類。

(그러나) ㄱㅇㄷㄴㄹㅁㅂㅅㅈ의 8자 만으로 족히 쓸 수 있는 것이니라. 梨¹²³꽃이 이화(梨花)가 되고 엿의 갓이 호피(狐皮)가 되건만도 ㅅ자로써 통용할 수 있는 까닭에 오직 ㅅ자를 쓰는 것과 같으며 또 ㅇ는 소리가 담(淡, 맑고)하고 허(虛, 비고)하여 꼭 중성에 쓰지 않아도 중성으로만 소리를 이룰 수 있나니라 ㄷ는 변이 鶯이 되고 ㄴ은 군이 君되고 ㅂ는 업이 業되고 ㅁ는 땀이 覃되고 ㅅ는 언어(諺語)에 옷이 衣되고 ㄹ는 언어(諺語)에 실이 絲되는 류(類)와 같은 바

[원금에 따른 중성 대립]

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如牙之ㅇ與ㄱ爲對。而ㅇ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ㅇ而緩。舌之ㄴㄷ。脣之ㅁㅂ。齒之ㅅㅈ。喉之ㅇㅈ。其緩急相對。亦猶是也。

오음(五音)의 천천하고 급함이 각자 대(對, 짝)가 되니 어금니 소리(牙)의 ㅇ이

122 八字可足用也: 국어의 자음은 예를 들면 어두에서는 ㄷ[t-]과 ㅌ[tʰ-]이 구별되나 음절말에서는 중화 작용을 일으켜 다 같이 ㄷ[-t]으로 발음되어 ㄷ과 ㅌ이 구별되지 않다. 훈민정음 해례 편찬자들도 이 현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예의에서는 ‘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하였으나 중성해에서는 23초성자 가운데에서 8자만 필요하다고 해서 ‘八字可足用也’라고 하였고, 초기의 ‘정음’ 문헌에서도 몇 문헌을 제외한 모든 문헌에서 팔중성만 가지고 표기했다.

123 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모든 字音은 초, 중, 종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여 이른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는 중성으로 끝난 한자음에도 ㅇ중성을 표기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어 표기를 설명한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국어 표기에서는 중성으로 끝난 음절 밑에 일일이 ㅇ자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한어의 字音을 기록한 《홍무정운역훈》(1455년)에서도 중성 표기에 ‘ㅇ’은 쓰이지 않았다. 어말의 위치에서는 《사성통고》〈범례〉에 “지(支), 제(齊), 어(魚), 개(皆), 회(灰)은 글자는 마땅히 후음 ㅇ으로 중성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 설, 순모로 된 종성(-k, -t, -p)처럼 뚜렷하게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ㅇ으로 보충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ㄱ으로 더불어 대(對)가 되어서 ㅎ을 급히 내면 ㄱ으로 변하고 ㄱ을 천천히 내면 ㅎ으로 변하는 것으로 혀소리(舌)의 ㄴㅈ, 입술소리(脣)의 ㅁㅂ 잇소리(齒)의 ㅅㅆ 목구멍소리(喉)의 ㅇㅈ도 그 천천하고 급함의 서로 대(對)됨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반설음 ㄹ의 종성표기]

且半舌之ㄹ。當用於諺。而不可用於文。如入聲之驚字。終聲當用ㄷ。¹²⁴而俗習讀爲ㄹ。蓋ㄷ變而爲輕也。若用ㄹ爲驚之終。則其聲舒緩。不爲入也。訣曰

또 반설(半舌)의 ㄹ은 마땅히 언어(諺語)에 쓸 것이요, 한문에 쓸 수 없는 것이라. 입성의 驚자와 같은 것도 종성에 마땅히 ㄷ을 쓸 것을 속습(俗習)에 ㄹ로 읽는 것이니 대개 ㄷ이 변해서 가볍게 된 것으로 만약 ㄹ을 써서 驚의 종성을 삼을진대 그 소리가 퍼지고 천천하여 입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라.¹²⁵ 곁에 가로되

不清不濁用於終
爲平[°]上去不爲入
全清次清及全濁
是皆爲入聲促急
初作終聲理固然

124 終聲當用ㄷ: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음 가운데, -t 입성이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ㄷ[]로 발음되어 여기에서는 원래의 음대로 -ㄷ[-ㄷ]음으로 발음하라고 규정한 것인데, 세종 29(1447년)에 편찬 완료된 《동국정운》에서는 소위 ‘이영보래(以影補來)’식 표기법을 택하여 한자음의 -ㄷ입성 표기에 ‘ㄹ’을 사용했다.

125 반설음 ‘ㄹ’은 우리말에서 종성으로 쓰고 한자음에서는 ‘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한자음 입성 [ㄷ]가 우리말에서는 비입성자 ‘ㄹ’로 대응되기 때문에 《동국정운》에서도 “질(質)운과 물(勿)운 등 여러 운에서 마땅히 단모로써 종성을 삼아야 하지만 세속에서는 래(來)모로서 종성을 삼고 있다. 따라서 그 소리가 느려 입성으로 마땅하지 않으니 사성이 변한 것이다(質勿諸韻宜以端母爲終聲 以俗用來母。其聲徐緩 不宜入聲 此四聲之變也)”라고 하여 곧 우리말에서 ㄹ종성에는 ㅎ을 덧붙이는 이영보래(以影補來) 규정을 만들었다.

只將八字用不窮
 唯有欲聲所當處
 中聲成音亦可通
 若書卽字終用君
 洪聲亦以業斗終
 君業覃終又何如
 以那聲彌次第推
 六聲¹²⁶通乎文與諺
 戊間用於諺衣絲
 五音緩急各自對
 君聲迺是業之促
 斗聲聲緩爲那彌
 穰欲亦對戊與挹
 間宜於諺不宜文
 斗輕爲間是俗習

불청과 불탁을 중성에 쓴다면 평상거 되어서 입성은 안 되며
 전청과 차청과 및 전탁은 입성이 되어서 그 모두 축급코나
 초성이 중성됨 이치가 그렇거니
 다만 8자로 써서 궁함 없으라
 오직 ㅇ(欲)소리 당할만 그곳엔
 중성이 소리 이루어 또 가히 통하리
 즉(卽)자를 쓰려면 중성에 ㄱ(君)이요
 홍(洪), 변(聲)은 그 또한 ㅇ(業), ㄷ(斗)로 끝나며
 군(君)과 업(業) 및 탐(覃)의 중성은 어떤고
 ㄴ(那)와 ㅂ(聲) 및 ㅁ(彌)로 차례(次第, 차례)로 미루어라.

126 六聲: ㄱ ㄴ ㄷ ㄹ ㅂ ㅇ을 말함.

육성(六聲, ㄱㅇㄷㄴㅁㅇ)은 언어(諺語)와 한문에 통하되
 ㅅ(戍), ㄹ(閭)는 언어(諺語)의 종성만 쓰도다
 오음(五音)의 완급(緩急)이 다 각각 대(對)되니
 ㄱ(君)소린 그 바로 ㅇ(業)의 빠른 것
 ㄷ(斗), ㅂ(驚)이 천천하면 ㄴ(那), ㅁ(彌)가 되며
 △(穰), ㅇ(欲)이 ㅅ(戍), ㅈ(掎)에 대(對, 짝) 되는 것
 (ㄹ(閭)은 언어(諺語)엔 맞으나 한문에 안 맞는 것
 ㄷ(斗)가 가별게 ㄹ(閭)되 게 곧 속습(俗習)이로다.)

제5장 합자해

합자해(合字解)

[합자]의 개념과 방법

初中終三聲。合而成字。¹²⁷ 初聲或在中聲之上。或在中聲之左。如君字ㄅ在ㄣ上。業字ㅇ在ㄣ左之類。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ㅡ ㅜ ㅠ ㅑ ㅓ 是也。縱者在初聲之右。ㅣ ㅌ ㅍ ㅈ 是也。如吞字在ㅍ下。卽字在ㅓ下。侵字ㅍ在ㅗ右之類。終聲在初中之下。如君字ㄴ在下。業字ㅁ在ㅇ下之類。

[합자의 개념과 방법]

초, 중, 종의 세 소리가 글자를 이루는 바

초성은 흑 중성 위에도 있고 중성 원편에도 있으니 군(君)자 ㄱ가 ㅈ 위에 있고 업(業)자 ㅇ이 ㅊ 왼쪽에 있는 류(類)와 같으며 중성은 둥근 것과 가로된 것은 초성 아래 있는 것으로 그 곧 ㅁ, ㅂ, ㅅ, ㅌ, ㅍ 세로된 것은 초성 오른 편에 있는 것으로 그 곧 ㅊ, ㅋ, ㆁ, ㆆ 탄(呑)자 ㄷ가 ㅌ 아래 있고 즉(卽)자 ㄴ가 ㅈ 아래 있고 침

127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훈민정음에서는 초, 중, 종성과 초, 중, 종성자를 동일시한 듯하여, 여기의 ‘성’도 ‘자’를 뜻하며 ‘成字’의 ‘字’는 초, 중, 종성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음절을 뜻함.

(侵)자 丨가 ㄷ 오른 편에 있는 류와 같으며 종성은 초, 중 아래 있으니 군(君)자 ㄴ이 그 아래 있고 업(業)자 ㅂ이 이 아래 있는 류와 같으니라.

[합용과 병서]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¹²⁸如諺語 ㅅㅏ爲地。ㅅㅏ爲隻。·ㅅㅏ爲隙之類。各自並書。如諺語 ㅎㅏ爲舌而·ㅎㅏ爲引。과·여爲我愛人而과·여爲人愛我。소·다爲覆物而쏘·다爲射之類。中聲二字三字合用。如諺語 과¹²⁹爲琴柱。·해爲炬之類。終聲二字三字合用。如諺語 흙爲土。·낫爲釣。들·때爲酉時之類。其合用並書。自左而右。初中終三聲皆同。

초성의 두자나 석자를 합용하여 병서하는 것은 언어(諺語)에 ㅅㅏ가 땅(地)이 되고 ㅅㅏ이 ㅅㅏ(雙, ㅅㅏ)이 되고 ㅅㅏ이 극(隙, 틈)이 되는 류와 같으며¹³⁰

각자(各自)도 병서하는 것은 언어(諺語)에 ㅎㅏ가 혀(舌)가 되는데 ㅎㅏ가 끌다(引)가 되고 과·여가 내가 남을 사랑한다(我愛人)이 되는데 과·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人我愛)가 되고 소·다는 물건을 뒤엎다(覆物)가 되는데 쏘·다는 무엇을 쏘다(射之)가 되는 류와 같으며,

중성의 두자나 석자의 합용(合用, 어울러 씀)은 ㅏ는 거문고의 고임(琴柱)가 되고 ㅏ는 햇불(炬)이 되는 류와 같으며,

종성의 두자나 석자의 합용(合用, 어울러 씀)은 언어(諺語)의 흙이 흙(土)이 되고 낫이 낚시(釣)가 되고 들·때가 유시(酉時)가 되는 류와 같으니라. 그 합용해 병서하는 데는 왼편으로부터 오른 편으로 향하니 초, 중, 종의 세 소리가 모두 같으니

128 並書: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글자를 아울러 쓰는 것을 합용병서(合用並書), 똑같은 글자를 합해서 쓰는 것을 각자병서(各自並書)라고 구별했다. 합용(合用)은 중성, 종성의 경우에도 해당됨.

129 ㅏ: 거문고의 기러기 발, 꺾.

130 합자 방식을 요약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 중성 글자 모양 | 중성 글자 | 합자 방식 | 초중 합자 |
|------------------|-------------|-----------|-------------|
| 원(圓, ㅏ)과 횡(橫, ㅏ) | ㅏ ㅏ ㅏ ㅏ ㅏ ㅏ | 초성 아래(下) | ㅏ 그 고 구 교 규 |
| 종(縱, 丨) | 丨 丨 丨 丨 丨 丨 | 초성 오른쪽(右) | 기 가 거 겨 |

라.¹³¹

[국한혼용]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如孔子 | 魯人 : 사림之類。

한문과 언어(諺語)를 잡용(雜用, 섞어 씀)하게 되면 자음에 따라서 중성에 중성으로 써 보족(補足, 補以中終法)하는 것이 있으니 공자 | 魯人 : 사림의 류와 같으니라.¹³²

[사성]

諺語平¹³³上去入。¹³³如할爲弓而其聲平。·돌爲石而其聲¹³⁴上。·갈爲刀而其聲去。·붓爲筆而其聲入之類。凡字之左。加一點爲去聲。二點爲¹³⁵上聲。無點爲平聲。而文之入聲¹³⁴與去聲相似。諺之入聲無定。¹³⁵或似平聲。如간爲柱。넙爲脅。或似¹³⁵上聲。如:낫爲

131

| 병서 | 병서 방식 | 병서의 예 |
|----|-------|------------------------|
| 초성 | 합용병서 | ㅈㅅ(地), ㅈㅅ(雙), ㅈㅅ(隙) |
| | 각자병서 | ㅈ(引), ㅅ(여)(人愛我), ㅅ(射之) |
| 중성 | 합용병서 | 과(琴柱), ㄱ(炬) |
| 종성 | 합용병서 | 흙(土), 낫(釣), ㄱ(西時) |

132 보이중종법(補以中終法)에 대한 규정인 바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한글이 단순히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한문혼용체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33 諺語平上去入: 종성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선 종성만 가지고 중세국어의 성조를 설명했다. 그래서 :돌 등은 상성이고, ·붓은 입성이라고 했다.

134 文之入聲: 12세기경 이후 중국 북방음의 입성이 소실되고, 입성으로 발음되던 자음들이 거성으로 많이 변했던 것을 알고 있어서 여기에서 “한자의 입성은 거성과 더불어 서로 유사하다(而文之入聲 與去聲相似)”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동국정운》 서문(1447년)에서 “한자음은 곧 상성과 거성이 구별이 없다(字音則上去無別)”라고 하고, 15세기의 한국 한자음에 대하여 입성자에 거성과 마찬가지로 1점을 찍은 것으로 보아 여기의 설명이 한국 한자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35 諺之入聲無定: 앞에서는 종성만 가지고 중세국어의 성조를 설명했으나, 여기에 와서 비로소 중세국어의 성조를 실패대로 설명한 것이다. 중세국어에는 입성이라는 성조(調值)는 없고, 비록 종성으로 보아서 입성이라도 실지로는 평성·상성·거성의 3성조 가운데 어느 하나로 발음되고 있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즉 ‘간’은 종성만 보아서 입성이지만 실지 성조로는 평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가점은 곧 평, 상, 거성이 같다(其加點則與平上去同)”라고 하였다.

穀。·김爲縉。或似去聲。如·몬爲釘。·입爲口之類。其加點則與平¹³⁶上去同。平聲安而和。·春也。萬物舒泰。°上聲和而舉。夏也。萬物漸盛。去聲舉而壯。秋也。萬物成熟。入聲促而塞。°冬也。萬物閉藏¹³⁶

언어에 평, 상, 거, 입은 활은 활(弓)이 되는데 그 소리가 평(平)이요 :돌은 돌(石)이 되는데 그 소리가 상(上)이요 ·갈은 칼(刀)가 되는데 그 소리가 거(去)요 붓은 붓(筆)이 되는데 그 소리가 입(入)인 류니 무릇 글자의 원편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 점은 상성이요, 점이 없는 것은 평성이 되나니라.

한문의 입성은 거성으로 더불어 서로 비슷하거니와 언어(諺語)의 입성은 일정(定)함이 없어서 혹 평성과 비슷하니 긴이 기둥(柱)가 되고 녀이 옆구리(脅)이 되며, 혹 상성과 비슷하니 ·난이 곡식(穀)이 되고 :김이 비단(縉)이 되며 혹 거성과 비슷하니 ·몬이 못(釘)이 되고 ·입이 입구(口)가 되는 류로써 그 가획은 평, 상, 거로 더불어 같으니라.

평성은 안온(安穩, 편안하고 부드러움)하고¹³⁷ 고르니(安而和, 편안하고 부드러움) 봄이라 만물이 서태(舒泰, 천천히 피어남)하고 상성은 고르나 들리니(和而舉, 부드럽고 높음) 여름이라 만물이 점차 성(盛, 무성함)하고 거성은 들리나 장(壯)하니(舉而壯, 높고 씩씩함) 가을이라 만물이 성숙(成熟)하고 입성은 빠르고 막히니(促而

136 平聲安而和…萬物閉藏: 중국에서 平, 上, 去, 入 네 개 성조의 특성을 설명할 때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 이런 설명을 근거로 해서 실제적인 음가(調值)를 알기는 어려움이 있는 매우 관념적인 설명 방식이다. 몇 예를 들어보겠다.

《원화운보(元和韻譜)》(당나라 옹충)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평성은 애처로우면서도 편안하며, 상성은 거세면서 들리며)
去聲清而遠 入聲直而促(거성은 맑으면서 幽遠하며, 입성은 곧바로 축급하다)

《옥약시가결(玉鑰匙歌訣)》(명나라 진공(真空))

平聲平道莫低昇(평성은 평탄하므로 낮아기가 있으면 안 된다)
上聲高呼猛烈強(상성은 거세고 높으며 맹렬하고 세다)
去聲分明哀遠道(거성은 분명하며 애처롭고 幽遠하다)
入聲短促急收藏(입성은 짧으며 급히 끝난다)

《음론(音論)》(청나라 고염무(顧炎武))

平聲輕遲 上去入之聲重疾(평성은 가볍고 느리며, 상·거·입성은 무겁고 빠르다)

137 조용하고 편안하다.

塞, 빠르며 막힘) 겨울이라 만물이 폐장(閉藏, 감추어짐) 되나니라.¹³⁸

。初聲之ㄷ與ㅇ相似。¹³⁹於諺可以通用也。半舌有輕重二音。¹⁴⁰然韻書字母唯一。且國語雖不分輕重。皆得成音。若欲備用。則依唇輕例。ㅇ連書ㄹ下。爲半舌輕音。舌乍附上腭。一起ㅣ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當合二字而用。如기그之類。¹⁴¹其先。縱後橫。與他不同。訣曰

초성의 ㅎ는 ㅇ로 더불어 서로 비슷하니 언어(諺語)에서는 통용할 수 있으며 반설에도 경중(輕重) 두 가지 음이 있으나 운서(韻書) 자모가 오직 하나인데 우리말에도 비록 경중은 가리지 아니하나 모두 소리를 이룰 수는 있으니 만약(萬若) 갖추어 쓰려면 순경례(唇輕例)에 의해서 ㅇ를 ㄹ 아래 연서해서 반설경음(半舌輕音, ㄹ)을 만들 것으로 혀가 잠깐 상악(上顎, 윗 입천장)에 닿는 것이며

· ㄹ가 ㅣ성(聲)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우리말에 소용이 없으나 아이들의 말과 변야(邊野, 변두리 낮은 곳, 방언)의 말에 혹 있는데 마땅히 두 글자를 합해서 써서

138

| 사성 | 변별적 자질 | 역학적 설명 (사시의 변화) |
|----|--------|-----------------|
| 平 | 安+和 | 봄(春)→萬物舒泰 |
| 上 | 和+舉 | 여름(夏)→萬物漸盛 |
| 去 | 舉+壯 | 가을(秋)→萬物成熟 |
| 入 | 促+塞 | 겨울(冬)→萬物閉藏 |

139 ㄷ與ㅇ相似: ㄷ자의 음가는 [ʈ]이고 ㅇ자의 음가는 [zero], 또는 [ŋ]이었으므로, 이 두 음을 구별하기 어려워 '相似'라고 한 것이다.

140 半舌有輕重二音: 국어의 'ㄹ'은 음절 초에서 [ɾ](설타음), 음절 말에서는 [l](설측음)로 실현되는데, 중세국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표기하려면 반설중음 'ㄹ'과 반설경음 'ㄹ' (혀를 윗잇몸에 잠깐 대어서 발음함)로 구별하여 제자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ㄹ'자는 실용에 쓰이지는 않았다.

141 기그之類: 중세국어에 [ja][jɛ]와 같은 중모음이 있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즉 ·와 ㅣ모음과 결합된 중모음은 ㅣ모음이 이들 모음의 뒤에 와서 ㅈ, ㅊ등과 같이 되고, ㅣ모음이 앞에 오는 중모음은 ㅈ, ㅊ, ㅌ, ㅍ등인데 ·와 ㅡ모음의 경우에도 ㅣ모음이 앞에 올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의 설명은 훈민정음 해례 편찬자들이 얼마나 세밀히 중세국어의 음성을 관찰하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대 영남방언에서는 '여물다(熟)', '야물다(硬)'가 변별되듯이 [*yo]가 잔존해 있으며, 충청방언에서 '영:갑'이 '왕:갑'으로 장모음이 고모음화한 변이형들이 확인된다.

기그의 류와 같은 것이 세로로 된 것이 먼저 가고 가로로 된 것이 나중 가서(소리를 냄) 다른 것과 다르니라. 결(訣)에 가로되

初聲在中聲左上

扨欲於諺用相同

中聲十一附初聲

圓橫書下右書縱

欲書終聲在何處

初中聲下接着寫

初終合用各並書

中亦有合悉自左

諺之四聲何以辨

平聲則弓上則石

刀爲去而筆爲入

觀此四物他可識

音因左點四聲分

一去二上無點平

語入無定亦加點

文之入則似去聲

方言俚語萬不同

有聲無字書難通

一朝制作侔神工

大東千古開朦朧

초성은 중성의 왼쪽(左)와 위(上)에 있는데

ㅅ(扨)과 ㅇ(欲) 우리말(諺語)에 한 가지로 쓰이며

중성의 열한 자 초성에 붙는데

등근 것(圓, ·)과 가로로 된 것(橫, —) 아래에 세로로 된 것(縱, |)만은 오른편
종성을 쓰려면 그 어디에 있을까
초종성 아래에 붙여 쓸지라
초종의 함용은 다 각기 병서로
중성도 함용하되 모두다 원편부터
우리말의 사성은 무엇으로 가릴까
평성은 활(弓)이요 상성은 :돌(石)이며
·갈(刀)란 거성이요 ·분(筆)이란 입성이니
이 넷을 보아서 나머질 알리라
왼쪽의 점으로 사성이 나뉘니
하나는 거(去) 둘은 상(上) 없으면 평(平)이요
정(定)함 없는 우리말의 입(入)은 그 또한 가점(加點, 점을 더함)하되
한문의 입(入)만은 거성과 같도다
방언과 이어(俚語)가 만 가지 다르매
소리 있고 글자 없어 글도 통(通)하기 어렵거늘
일조(一朝, 하루 아침)의 제작이 신공에 견주니
대동(大同, 우리나라) 천고(千古, 오랜 역사)에 어두움 열리도다

제6장 용자례

용자례(用字例)¹⁴²

[초성용례]

初聲 ㄱ: 如: 감爲柿(柿) · ㄱ: 爲蘆. ㅋ: 如 우·케爲未春稻. 콩爲大豆. ㅇ: 如 러·울爲獺. 서·에爲流澌. ㄷ: 如 뒤爲茅. ㄷ: 爲牆. ㅌ: 如 고·티爲蔞. 두텁爲蟾蜍. ㄴ: 如 노로爲獐. 남爲猿. ㅂ: 如 ㅂ: 爲臂. ㅂ: 爲蜂. ㅍ: 如 파爲葱. ㅍ: 爲蠅. ㅁ: 如 뫼爲山. 마爲薯蕷. ㅅ: 如 사·비爲蝦. 드·비爲瓠. 스: 如 자爲尺. 조·히爲紙. ㅅ: 如 체爲簾. 채爲鞭. ㅅ: 如 손爲手. ㅅ: 爲島. ㅇ: 如 부형爲鵲. ㅎ: 爲筋. ㅇ: 如 비육爲鷄雛. ㅂ: ㅂ: 爲蛇. ㄹ: 如 무위爲鳧. 어·름爲水. △: 如 아스爲弟. ㄴ: ㅂ: 爲鵠.

초성 ㄱ은 :감이 감(柿)이 되고 ·ㄱ이 갈대(蘆)¹⁴³가 되는 것과 같으며, ㅋ은 우·케¹⁴⁴가 벼(未春稻)가 되고 콩이 대두(大豆)가 되는 것과 같으며 ㅇ은 러·울이 수달(獺),

142 용자례에서는 단음절 54개와 이음절어 40개 총 94개의 고유 어휘를 표기하는 실제적 용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초성 용례는 34개, 중성 용례 44개, 종성 용례 16개로 당시 표기법의 시행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초성 용례는 예의의 자모 순서에 따라 아-설-순-치-후의 방식으로 배열하였고 우리말 표기에서 제외될 전탁자 6자와 후음 ‘ㅇ’가 제외되고 ‘ㅂ’이 순음 위치에 추가되었다.

중성 용자의 예는 상형자(· ㄴ ㄹ)와 초출자(ㄴ ㄷ ㅌ ㅍ), 재출자(ㄴ ㅌ ㅍ ㅍ) 순으로 고유어 각 4개씩 중성 11자에 각각 4개의 어휘를 중성 제자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다만 중모음이었던 이자 합용 14자 가운데 동출합용(나, ㅂ, ㄷ, ㅌ) 4자와 이자 상합합용자 10자(ㄹ, ㄴ, ㄴ, ㅌ, ㄴ, ㅌ, ㅌ, ㅌ, ㅌ, ㅌ)와 삼자 상합합용 4자(ㄴ, ㅌ, ㅌ, ㅌ)의 용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종성 용례는 16개 어휘의 예를 밝혔는데 예의의 ‘終聲復用初聲’ 규정과 달리 해례의 ‘八終聲可足用也’ 규정에 따른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ㅅ’ 순으로 각 2개의 용례를 밝혔다. 결국 고유어의 사용 예만 94개를 들고 있다. 이 용자의 예를 보면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단순히 한자음의 표기나 외래어 표기보다는 고유어의 표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언류에서 고유어의 어휘만 제시한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단순히 한자음의 통일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143 ‘ㄱ:대(蘆)’, ‘ㄱ:대(蘆)’, 갈대.

144 ‘우·케(未春稻)’는 탈곡하지 않은 벼. 대체로 종자로 쓸 벼를 남부방언에서는 아직 ‘우케’라는 방언형이 잔존해 있다. 남방계열의 어휘로 추정된다.

너구리)¹⁴⁵이 되고 사·에가 성에(流澌, 성에)가 되는 것과 같으며 ㄷ은 ㄹ이 잔디(茅)¹⁴⁶가 되고 ㄷㅌ이 담(牆)¹⁴⁷이 되는 것과 같으며 ㅌ은 고·티가 고치(繭)¹⁴⁸가 되고 두·텃이 두꺼비(蟾蜍)¹⁴⁹이 되는 것과 같으며 ㄴ은 노로가 노루(獐)¹⁵⁰가 되고 납이 원숭이(猿)¹⁵¹가 되는 것과 같으며, ㅂ은 불이 팔(臂)¹⁵²이 되고 :벌이 벌(蜂)이 되는 것과 같으며 ㅍ는 ㅍ가 파(葱)가 되고 ㅍ·풀이 파리(蠅)¹⁵³가 되는 것과 같으며 ㅁ은 :뫼가 산(山)이 되고 ㅁ·마가 마(薯蕷)가 되는 것과 같으며 ㅂ는 사·비가 새우(蝦)가 되

145 '너구리(獺, 水獺, 貉, 山狗, 貂, 獾)'에 대응되는 용례 '러울'(훈정 용자례)의 '러울'의 예는 16세기에는 '녕우리'(훈몽, 상:18)와 '너구리'(신유 상:13)가 보인다. '녕우리'는 15세기에 보이는 '러울'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너구리'는 '녕우리'에서 모음간 자음 'ㅇ'의 'ㄱ'으로의 변화, 즉 비자음의 구개음화(口蓋音化)를 겪은 어형으로 간주된다. 16세기의 '너구리'는 18세기에 '너고리'(동유 하:39)에 나타난다. 근대국어 이후 《국한회어 59》(1895), 《조선어사전, 163》(1920) 등에도 '너구리'가 표제어로 등장한다. 결국 현대국어의 '너구리'는 '러울'녕우리'너구리'의 과정을 거쳐 왔음을 알 수 있는데 '러울'의 어원은 불명확하다.

146 '잔디'는 원래 '*잔뛰'와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잔뛰/잠뛰/잔뛰/잔뛰/잔뛰/잔뛰/잔뛰'와 같은 역사적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뽕(茅)를 뜻하는 '뽕'은 17세기에는 'ㅅ'과 소리가 같았기 '잔뛰/잠뛰', '잔뛰/잠뛰'로 표기된다.

147 '담(牆)'과 '책(柵)'은 경계를 나타내는 가리개라는 의미인데 전자는 보이지 않는 벽이라면 후자는 내부가 보이는 경계를 나타낸다.

148 '고치'는 '고티'고치' 변화이다.

149 '두텃이'는 '두텃이'는 *두티--+업(형용사접사)--+이(명사화접사)'이 구성인데 15세기 문헌에는 '두텃다'만 나오지만 16세기 이후에는 '둔텃다', '뚫텃다' 등도 보인다. 이들은 '두텃다'에서 변형된 표기에 불과하다. '뚫텃다'가 《조선어사전》(1938)에까지 보인다. 한편 16세기의 '둔거비'가 보이는데 이 형태는 '둔겁(厚)--+이(명사화접사)'의 구성형과 경쟁에서 '두터비'두거비'로 어형이 바뀐 결과이다.

150 '노로(獐)'는 '노르'가 모음 앞에서 'ㄴㅇ'로 실현된다. '노르'노로'의 변화.

151 '납(猿)'은 해례본 용자례에 처음 보인다. 그 후 "그 뫼해 늑근 눈 먼 獼猴 | 잇더니 獼猴는 납 ㄱ튼 거 시라"〈월인석보(1459)〉, "그르메는 납 우는 납미 브렛노니"〈두언초(1481)〉, "獼 납 미, 猴 납 후, 獼 납 후, 獼 납 손"〈훈몽(1527)〉, '납 원 猿'〈백련(1576)〉, '猿 獼 납 원 猴 납 후'〈신유(1576)상〉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17세기초에 와서 '납'은 사라지고 '진나비'가 등장한다. '猿申 猿狽 원싱이'〈국한(1895)〉, '원싱이 성(猩), 원싱이 원(猿), 원싱이 미(獼), 원싱이 후(猴)〈초학요선(1918)〉"의 예에서처럼 다시 18세기 말경 '원숭이'가 처음 나타나면서 어형이 교체된 결과이다.

152 '불'은 '불/풀'의 'ㅎ' 곡용은 19세기까지 이어진다.

153 '포리'는 '폴--+이(명사화접사)'의 구성이다. 12세기 《계림유사》에 "蠅曰蠅<1103, 계림유, 4ㄴ>"에 보인다. '蠅 포리 승'〈1527, 훈몽, 상-11ㄴ>의 예에서 '폴'폴이'로 변화하여 오늘의 '파리'로 정착한 것이다.

고 드·뵈가 뒤옹박(瓠)¹⁵⁴이 되는 것과 같으며 즈은·자가 자(尺)¹⁵⁵가 되고 죠·히가 종이(紙)가 되는 것과 같으며, 츠은·체가 체(籬)가 되고 ·체가 채찍(鞭)이 되는 것과 같으며 스는·손이 손(手)이 되고 ·섬이 섬(島)이 되는 것과 같으며 흥는·부형이 부엉이(鵂鶩)가 되고 ·힘이 힘줄(筋)¹⁵⁶이 되는 것과 같으며 오는·비육이 병아리(鷄雛)¹⁵⁷가 되고 ·뱀암이 뱀(蛇, 뱀)이 되는 것과 같으며 르은·무뤼가 우박(雹)이 되고 어·름이 얼음(氷)이 되는 것 같으며 △는 아스(弟)¹⁵⁸가 되고 :너시가 너새(鵲)가 되는 것과 같으며

[중성용례]

中聲·如·특爲頤。·풋爲小豆。ㄷ리爲橋。ㄹ래爲楸。ㅡ如·믈爲水。·발·측爲跟。그 력爲鴈。드·레爲汲器。ㅣ如·깃爲巢。:밀爲蠟。·피爲稷。·키爲箕。ㅏ如·논爲水田。· 톱爲鉅。호·믹爲鉏。벼·로爲硯。ㅑ如·밥爲飯。·낱爲鎌。이·아爲綜。사·슴爲鹿。ㅓ如·숯爲炭。·울爲籬。누·에爲蚕。구·리爲銅。ㅕ如·바쓰爲竈。:널爲板。서·리爲霜。버·들爲柳。ㅗ如·종爲奴。·고욤爲枵。쇼爲牛。삼도爲蒼朮菜。ㅜ如·남양爲龜。약爲鼃鼃。다야爲匣。자감爲蕎麥皮。ㅗ如·울미爲薏苡。죽爲飯乘。슈름爲雨緞。쥬련爲梔。ㅋ如·엿爲飴糖。·덜爲佛寺。벼爲稻。:저비爲燕。

중성 ·는·특이 턱(頤)¹⁵⁹이 되고 ·풋이 팔(小豆)¹⁶⁰이 되고 ㄷ리가 다리(橋)가 되

154 '뒤옹박'은 15세기에는 '드뵈'였다. '드뵈-+-박(瓠)'의 구성. '드뵈'는 '듬(蓋)-+-ㄱ'의 구성형으로 '드 뵈' > 드웨'로 변화한 밥 뚜껑의 방언형이 '밥 드웨'가 아직 잔존해 있다.

155 자(尺). "다섯 자히러라"〈석보 상-11:11〉, "火光이 다 기리 두서 자히로되"〈능엄, 9,108〉, "사 릅된 周尺으로 혼 자히오"〈월석, 9-53〉

156 '힘줄'은 '힘(筋)-+-줄'의 구성.

157 '비육-+-아리(접미사)'의 구성.

158 '아스>아으>아으>아우'의 변화.

159 '특>턱'의 변화는 'ㄱ'가 어두 음절에서는 '아'로 변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어'로 변화되었다는 점에 서 예외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불(重)벌', '일꾼(稱)->일꾼-', '남(他人)>남', '흥(爲)>허-' 등의 예도 있다. 이와 같은 'ㄱ>어'의 변화는 'ㄱ'의 두 단계에 걸친 변화에서도 'ㄱ'가 여전히 고수되다가 '어'의 후설화에 따라 '어'로 흡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형들이다.

160 '팔'의 15세기 형태는 '풋ㅓ, 풋, 풋'이었다.

고 ㄹ래가 개래나무 열매(楸)가 되는 것과 같으며 ㅡ는 물이 물(水)이 되고 발촉이 발꿈치(跟)가 되고 그럭이 기르기(雇)가 되고 드레가 두레박(汲器)¹⁶¹이 되는 것과 같으며 ㅣ는 깃이 깃(巢)이 되고 :밀이 밀랍(蠟)이 되고 피가 피(稷, 피)가 되고 키가 기(箕)가 되는 것과 같으며 ㄴ는 논이 무논(水田)이 되고 톱이 톱(鉤)이 되고 호·미가 호미(鉤)가 되고 벼·로가 벼루(硯)가 되는 것과 같으며 ㅈ는 밥이 밥(飯)이 되고 낫이 낫(鎌)이 되고 아·아가 잉아(綜)가 되고 사슴이 사슴(鹿)이 되는 것과 같으며 ㅅ는 숯이 숯(炭)¹⁶²이 되고 올이 올타리(籬)가 되고 누·에가 누에(蠶)¹⁶³이 되고 구리가 구리(銅)가 되는 것과 같으며 ㅈ는 부섭이 부엌(竈)¹⁶⁴이 되고 :널이 판(板)이 되고 서·리가 서리(霜)가 되고 버·들이 버드나무(柳)가 되는 것과 같으며 ㄴ는 종이 노(奴)가 되고 고·음이 고욤(栲, 고욤)이 되고 쇼가 소(牛)가 되고 삼도가 삼주(蒼朮)¹⁶⁵가 되는 것과 같으며 ㅈ¹⁶⁶는 남양이 남생이(龜)¹⁶⁷가 되고 약이 구벽(黿鼉, 거북의 일종)이 되고 다야가 대야(匱, 손대야)¹⁶⁸가 되고 자감이 메밀껍질(蕎麥皮)이 되는 것과 같으며 ㅈ는 올미가 올무(薏苡)가 되고 죽이 밥주걱(飯)¹⁶⁹

161 '드레박'은 '드레(擧)-ㅈ#박(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어유해》(1690)에 '鐵落 터로'와 '드레'가 대응되어 있는데, 몽고어였던 '터로'와 '드레'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2 '숯(炭)'은 '숯'에서 'ㅈ'이 탈락한 '숯'의 변화를 거친 것이다. 경북 방언의 방언형 '수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숯'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63 '누에'의 기원형은 '*누베'이다. '*누베'>누웨'>누에'로 변화하였다.

164 '부엌'은 '불'>불(火)-ㅈ쑤/섭'의 합성어이다. ㄹ 탈락과 함께 사있리 ㅈ>ㅈ으로 변한 '브섭'과 '브석'이 중세어에서 나타난다. '거북'>거북(龜). "흔 눈 가진 거북과(석보 상-21:40ㅈ), '쑤'>속(內)<훈몽, 하-15ㅈ>의 예들처럼 p/k의 대응은 방언의 차에 따른 교체형이다.

165 '삼주'는 '삼도'>삼두'>삼주의 변화 결과이다.

166 해서 원본(방종현, 1964:37)에 'ㅈ'가 쓰여야 할 자리에 'ㅈ'로 잘못 쓰였다. 해례본 원문에는 'ㅈ'로 되어 있다.

167 '남생이'는 '남양'>남양-ㅈ-이(명사화접사)'로 분석된다.

168 '대야/대야(이)匱, 치(匱), 우(盂), 선(鑊), 분(盆), 관(盥))'가 '술그릇'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가진 어휘이다. 여기에서는 세수를 하는 그릇의 용기를 가리킨다.

169 '주걱'을 '죽'>훈정 언해본, 용자례'이 17세기에 오면 '주계'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주계'는 '죽(粥)-ㅈ-익(명사화접사)'의 구성형이다.

이 되고 슈룹이 우산(雨傘)¹⁷⁰이 되고 주련이 수건(梘)¹⁷¹이 되는 것과 같으며 ㄹ는
 옛이 옛(飴餹)¹⁷²이 되고 덜이 불사(佛寺)가 되고 벼는 벼(稻)가 되며 :저비가 제비
 (燕)¹⁷³가 되는 것과 같으며

[종성용례]

終聲 ㄱ 如 닥爲楮 獨爲甕 〇 如 : 굽병爲蟪蛄 올창爲蝻蚪 ㄷ 如 : 갓爲笠 신爲楓
 ㄴ 如 : 신爲屨 ㅁ 반되爲螢 ㅂ 如 : 샅爲薪 굽爲蹄 ㅅ 如 : 범爲虎 ㅈ 如 : 잣爲泉 ㅊ 如 : 잣
 爲海松 ㅍ 爲池 ㅋ 如 : 들爲月 ㆁ 如 : 별爲星之類

종성 ㄱ은 닥이 닥나무(楮)가 되고 독이 독(甕)이 되는 것과 같으며 〇는 : 굽병이
 가 굽병이(蟪蛄)¹⁷⁴가 되고 올창이 올챙이(蝻蚪)¹⁷⁵가 되는 것과 같으며 ㄷ은 : 갓이
 갓(笠)¹⁷⁶이 되고 신이 단풍나무풍(楓)가 되는 것과 같으며, ㄴ은 : 신이 신(屨)이 되
 고 ㅁ 반되가 반디불이(螢)이 되는 것과 같으며 ㅂ은 : 샅이 땄나무(薪)가 되고 ㅅ
 발굽(蹄)이 되는 것과 같으며 ㅅ은 : 범이 범(虎)¹⁷⁷이 되고 : 샅이 샘(泉)이 되는 것과
 같으며 ㅈ은 : 잣이 잣나무(海松)가 되고 ㅊ이 못(池)이 되는 것과 같으며 ㅋ은 : 들
 이 달(月)이 되고 : 별이 별(星)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170 한자어 ‘우산(雨傘)’에 대응되는 고유어가 ‘슈·룹’이다.

171 주련(梘): 수건. ‘:슈·건 세(梘)’ <훈몽자회, 중11>

172 ‘옛’은 중세어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화 없이 ‘옛’으로만 나타난다.

173 ‘제비’는 ‘저비>제비>제비’로 17세기 ㅈ 음라우트와 단모음화를 거친 어형이다. 《한청문감》에 ‘자연(紫燕)’을 ‘치빈’이라 하였는데, 같은 계통의 어휘로 추정된다.

174 ‘굽병이’는 ‘굽병+--이(명사화접사)’의 구성이다.

175 ‘올챙이’는 ‘올창+--이(명사화접사)’의 구성이다. ‘올창+--이→올창이>올창이>올챙이’의 변화를 경험했다.

176 ‘갓’은 ‘갓>갓’으로 변화했는데은 18세기 후반부터 모음 앞에서도 연결되어 발음이 ‘ㄷ’에서 ‘ㅈ’으로 바뀌었다.

177 ‘범(虎)’은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모두 동일하게 ‘범’으로 나타난다. 이와 동의어로는 ‘호랑이’가 있는데, 이는 18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계림유사》에서도 “虎曰監浦南切”[*범]/[*범]/[*pəm], [*p’am]이라고 하였다.

이제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¹⁷⁸을 그 원문과 이에 의한 번역을 실어서 훈민정음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제7장 정인지 서문

[성음과 문자의 관계]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¹⁷⁹ 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而後世不能易也。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¹⁸⁰ 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¹⁸¹ 假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柄鑿之鉏鋤也。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強之使同也。”

“천지 자연의 성(聲, 소리)이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문(文, 글)이 있으니 그러므로 고인이 그 성을 인하여 그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서로 통하게 하고 삼재(三才, 천, 지, 인)의 도를 이에 신게 하였으니 후세에서도 이것은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이라.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각기 구별되어 성기가 또한 이에 따라서 다르나

178 정인지의 서문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맨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세종어제 서문과 구별하여 ‘정인지 후서’라고도 한다. 이 정인지 서문은 ‘세종 28(1446)년 9월 《세종실록》 권 113에 세종어제 서문과 예의 편(훈민정음 본문)과 함께 정인지 서문이 실려 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 끝에 실려 있다.

179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 천지 자연의 성(聲, 소리)이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문(文, 글)이 있으니. 《고금운회거요》의 유진옹(劉辰翁)의 서에 “기는 천지의 어머니이다. 소리의 기운이 동시에 나며 소리가 있는 즉 글자가 있는 것이니 글자는 또한 소리의 아들이라 할 만하다(氣者天地之母也, 聲氣卽有字, 字又聲之子也).”, 《고금운회거요》, 유진옹 서.

180 언어가 풍토에 따라 다른 점을 말한 대목이다. 《황극경세서》(《성리대전》 권8)에서 “音非 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謂風土殊而呼吸異故也”이라는 내용이 《홍무정훈역훈》에도 “대개 사방의 풍토가 같지 못 하고 기도 또한 그기에 따르는 바, 소리는 기에서 생기는 것인지라, 이른바 사성과 칠음이 지방에 따라서 편의함을 달리하거늘(蓋四方風土不同. 而氣亦從之. 聲生於氣者也. 故所謂四聲七音隨方而異宜.)”이라 하고 있다.

181 《고금운회거요》의 류진옹(劉辰翁)의 서문에 “기는 천과 지의 모체이라 성과 기는 동시에 일어나니 성이 있으면 곧 글자가 있으니 글자는 곧 성이라(氣者天地母也, 聲與氣同時而出. 有聲卽有字, 字又聲之子也).”라고 하였으니 이 글의 첫머리는 결국 류씨의 《운회》 서와 비슷한 견해를 말 한 것이다.

니, 대개 외국의 말에 그 소리는 있어도 이 소리를 적을 만한 문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중국의 한자를 빌어서 통용하게 되나니, 이 형편은 마치 속담에 이른바 예조(모난 자루)와 원조(둥근 구멍)¹⁸²가 서로 합할 수 없다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이한 것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찌 능히 다 통달하여 방애(防碍, 막힘)됨이 없을 수 있으리오. 요컨대 다 각각 그 처하는 바에 따라서 편하게 할 것이요. 강제로 이것을 동일하게 하려고 할 것은 아니니라.

[한문과 이두의 불편함]

“吾東方禮樂文章。倖擬華夏。但方言俚語。不與之同。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昔新羅薛聰。始作吏讀。官府民間。至今行之。然皆假字而用。或澁或窒。非但鄙陋無稽而已。至於言語之間。則不能達其萬一焉。”

우리나라의 예악과 문물은 가히 중화(華夏)에 모의(倖擬, 비교하여 견줄만 함)되나 그러나 방언과 이어(俚語, 우리말)가 이와 더불어 서로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글 배우는 이의 그 지취(旨趣, 글의 뜻을)가 깨닫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을 다스리는 이가 그 곡절에 통하기 어려움을 병 되이 여기는 배라.

지난 날에 신라 때에 설총이라고 하는 이가 비로소 이두라는 것을 지어서 이것을 관부와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여 지금까지 이것을 행용하나 그러나 이것이 다 한문자를 빌어서 쓰는 것이므로 혹 삼(澁, 껌껌하고)하고 혹 질(窒, 막혀서)하여 무미건조하며, 비루(鄙陋, 속되고)할 뿐만이 아니라 계고(稽考, 근거가 일정하지 않음)¹⁸³

182 원조(圓鑿): 둥근 구멍. 《이소경》의 《초사집주》에〈속리소 구변 제8〉에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로다. 나는 진실로 그것이 서로 어긋나서 들어맞지 않는 것을 알겠도다(圓鑿而方柄兮 吾固知其鉅錯而難入)”라는 글에서 따온 표현이다. 병과 이형상의 《자학》 ‘방언’ 항에 ‘예착(桺鑿)’의 ‘예(桺)’는 나무끝을 구멍에 넣는 것을 뜻하는데 송옥(宋玉)의 〈구변(九辨)〉에 “둥근자루와 네모난 구멍이야, 나는 그것이 서로 어긋나 들어가기 어려움을 아네”라고 하였다고 한다. 무릇 ‘예(桺)’는 본래 서로 들어가는 물건인데 오직 네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방(方)’과 ‘원(圓)’ 두 글자를 삭제하고 다만 ‘예(桺)’와 ‘착(鑿)’은 서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글자의 뜻도 통하지 않고 또한 문리도 어긋난다고 하였다.

183 계고(稽考): 지나간 일을 돌이켜 자세히 살펴봄.

한 데 없는 것뿐이라. 이것을 언어 간에 사용함(적음에)에는 그 만분의 하나도 뜻을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라.”

[훈민정음 창제의 우수성]

“癸亥冬。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叶七調。三極之義。二氣之妙。莫不該括。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故智者。不終朝而會。愚者可浹旬而學。以是解書。可以知其義。以是聽訟。可以得其情。字韻則清濁之能辨。樂歌則律呂之克諧。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得而書矣。”

계해년 겨울에¹⁸⁴ 우리 전하께서 처음으로 정음 28자를 지으시어 그 예의(例義)를 계시(들어 보임)하였으니 이것을 이름지어 훈민정음이라 하나니라. 형(글자꼴)을 상(형상)하되 글자를 고전에 의방하고(본 따고)¹⁸⁵ 성을 인(因, 근본)함에는 음을 칠

184 계해년 겨울: 세종 25(1443)년 12월.

185 칠조(七調): 정초(鄭樵)의 《칠음약(七音略)》 서에는 “四聲爲經。七音爲緯。江左之儒。知縱有平上去入爲四聲。而不知衡有宮商角徵羽半徵半商爲七音。縱成經。衡成緯。經緯不交。所以失立韻之源。”라고 하였는데 팽장경(彭長庚)의 말에도 “今見皇極經世書。聲爲律。音爲呂。一經一緯一縱一衡。而聲音之全數具矣。”라고 하고 《홍무정운》 서에도 “江左制韻之初。但知縱有四聲。而不知衡有七音。故經緯不交。而失立韻之原.”라고 하였다. 즉 정초를 비롯하여 그들은 사성을 경, 칠음을 위로 잡아서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소위 경과 위와 짝이 맞지 않아(經緯不交)로 입운의 본원을 잃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한자 음운에는 자모에 대하여 운부가 있으나 그 운부란 사성의 구별을 떠나서 제대로 서지 못한다. 운부와 함께 사성의 구별이 음운의 ‘經’으로까지 간주되는 것이라. 그 경(經)을 잃어서는 7음의 위(緯)도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모두다 무리가 아니다. 정초의 《칠음약》 서문에 궁, 상, 각, 징, 우의 오음에 변궁과 변치를 더한 것이 칠조라고 하였다. 또한 《예기》 권37에 〈악기조〉에 “凡音之起由人生也…故形於聲”이라는 대목의 주에 “正義曰 言聲者 宮商角徵羽也”라고 하여 사람의 소리를 오성에 따라 궁, 상, 각, 치, 우로 구분함을 말하고 있다. 병와 이형상의 《악학판고》 권1 〈성기원류〉에 “악학자는 본래 음을 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타악이 궁이 되고 차탁이 상이 되고 청탁 무거운 소리가 각이 되고 청이 우가 되고 차청이 치가 되며 또 궁이 본래 후음이고 상이 본래 치음이고 각이 본래 아음이고 치가 본래 설음이고 우가 본래 순음이다. 성운학자는 순음이 궁이고 치음이 상이고 아음이 각이고, 설음이 치이고, 후음이 우이며, 그 사이에 또 반치 반상이 있는데 모두 청탁으로서만 논할 수 없다. 오행학자는 “운류에는 청탁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오성으로 배치하여 오음을 유씨를 궁으로, 조씨를 각으로 장씨와 왕씨를 상으로, 무씨와 경씨를 우라고 한다(樂家本無定音, 常以濁者爲宮, 次濁爲商, 清濁重爲角,

조(七調)¹⁷⁹에 맞추었으니 삼극(三極, 삼재)의 뜻(義)과¹⁸⁶ 이기(二氣, 陰陽)의 묘(妙, 기묘한 이치)가 다 이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도다. 이 28자는 전환무궁 하여 매우 간략하되 지극히 요긴하고 또 정(精, 정교함)하고도 통(通, 꿰뚫음)하도다. 고로 지자(智者, 슬기로운 사람)이면 하루아침이 다 못하여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우자(愚者, 어리석은 사람)라 해도 열흘이 다 못되어 능히 다 배울 수 있는 것이니 이것으로써 만일 한문을 해석하면 가히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써 송사를 청하면 가히 그 정(情, 사정)을 득할 수 있다.

음운으로는 청탁의 능변함(能辨, 능히 구별함)¹⁸⁷과 악가(樂歌)로는 율려(律呂)¹⁸⁸의 극예(克諧, 고르게 함)함에 있어서 불비(不備, 갖추지 아니함)할 것이 없고 하여서 또 하지 못할 것(不達, 가서 통달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비록 바람소리 학이 울음 개의 짖음과 같은 것일지라도 다 가히 쓸 수가 있는지라.¹⁸⁹

淸爲羽, 次淸爲徵, 又曰宮本喉, 商本齒, 角本牙, 徵本舌, 羽本臂, 韻家臂爲宮, 齒爲商, 牙爲角, 舌爲徵, 喉爲羽, 其間又有半徵半商(未日之類), 皆不論淸濁以然也, 五行家以韻類於淸濁不以, 五姓參配, 五音與柳宮, 趙角, 張王爲商, 武庚爲羽是也”라고 하여 율려에 따른 성음을 오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186 《역경》 계사에(상 제2장)에 “육효가 동하는 것은 삼극의 도리이다(六爻之動三極之道也)”라고 하였으니 삼극은 천, 지, 인을 가르킴이요 《태극도설》에 “이기가 교감하고 변화하여 세상 만물을 생성한다(二氣交感化生萬物)”라고 하였으니 이기는 음, 양을 가르킴이다.

187 자모에서만 청, 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요 운에서도 청, 탁을 구별한다. 《광운》 권말에는 “辯四聲輕淸重濁法”이 있어서 평, 상, 거, 입의 사성자를 다시 경청과 중탁의 두 부류로 구별하여 놓았다.

188 《한서》〈율력지〉에는 “울은 12개가 있으니 양의 6개는 율이되고 음의 6개는 려가 된다(律有十二, 陽六爲律, 陰六爲呂).”라고 하였고 《서경》〈순전〉에는 “팔음극해(八音克諧)”라고 하였다. 《율여》 즉 음악도 혼민정음으로써 해협(諧協)된다는 뜻이다.

189 정초의 《칠언약》 서문에는 “학 울음소리 바람소리, 닭 울음 소리, 개 짖는 소리, 천둥 번개가 우지근 똑딱하고 모기나 동에가 귀를 스쳐 지나가더라도 모두 다 옮겨 적을 만하거늘(雖鶴唳風聲, 鷄鳴狗吠, 雷霆經天, 蚊虻通耳, 皆可譯也.)”이라고 하였다.

[훈민정음 협찬자]

遂命詳加解釋。以喻諸人。於是。臣與集賢殿。應。教臣崔恒。副校理臣朴彭年。臣申叔舟。修撰臣成三問。敦寧府注簿臣姜希顏。行集賢殿副修撰臣李璣。臣李善老等。謹作諸解及例。以紓其梗槩。庶使觀者不師而自悟。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이에 명하시어 상세한 해석을 가하게 하시어 이것으로 여러 많은 사람을 교유(가르치게)하게 하시다. 여기서 신과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수찬 성삼문, 돈녕 주부 강희맹, 집현전 부수찬 이개,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이 해석을 지어 써¹⁹⁰ 그 경개(梗槩, 대강의 줄거리)를 서술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휘할 바가 못 되는 것이오라.¹⁹¹

[세종의 독창성]

恭惟我殿下。天縱之聖。制度施爲超越百王。正音之作。無所祖述。而成於自然。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爲之私也。夫東方有國。不爲不久。而開物成務之大智。蓋有待於今日也歟。

오직 우리 전하께서 천縱(天縱, 하늘이 내리신)의 성인으로서 제도 시물(制度施爲, 베푸신 시정 업적)이 백주(여러 제왕)에 초월하시고 정음을 지으심이 어디 조술(祖述, 앞선 사람이 기술한)된 바 없이 자연에 이루어졌으니 그 지리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다 인위의 사사로움이 아닌저. 동방에 우리나라가 오래지 않음이 아니로되

190 “謹作諸解及例”을 “해(解)와 례(例)를 지어서”(홍기문(1946), 《정음발달사》, 강신항(2003:178))로 풀이하고 있다. “이 해석을 지어서”로 풀이한 이유는 자칫 ‘해례’와 ‘예의’를 모두 집현전 학사들이 지은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191 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 이 부분의 해석이 소략하다.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바랐으나 그 깊은 연원이나 자세하고 묘하고 깊은 이치에 대해서는 신 등이 능히 펴 나타낼 수 있는 바가 아니다.”(강신항(2003:178) 참고.

개물성무(而開物成, 만물의 뜻을 열어 놓는다)¹⁹²의 대지는 대개 오늘을 기다리고 있음이런가 합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올린 일자]

正統十一年九月上浣。資憲大夫禮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訓民正音

정통 11(세종 28) 8월 상한,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 우빈객¹⁹³ 정인지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삼가 씀.”

훈민정음

이상의 서문에서 우리는 훈민정음과 다른 학문과의 관련성도 알 수 있고 반포의 연월일도 짐작케 되니 이 문자에 의하여 우리는 해석되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2 개물(開物)은 만물의 뜻을 열어 놓는다는 말이다. 《주역》〈계사전〉상 11장에 “주역은 만물의 뜻을 열어 놓고 천하의 모든 일을 이룩하여 놓는다(夫易開物成務)”라고 하였다. ‘개물성무(開物成務)’에 대해 《주역본의》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서를 가지고 써 길흉을 알고 그것에 따라 일을 이루게 한다(開物成務, 謂使人卜筮以知吉凶而成事業)”라고 하고 있다.

193 조선 태조 1(1392)년에 세자에게 경사와 도의를 가르치기 위해 설치한 세자강원의 정2품 관직.



제 3 편

《훈민정음》 언해본

訓·훈민민正·정·정·정¹

訓·훈·은 마·르·칠·씨·오² 민·은 百·백·성·이·오·음·은³ 소·리·니 訓·훈민민正·정·정·정·은 百·백·
姓·성·마·르·치·시·논⁴ 正·정·정·소·리·라⁵

- 1 訓·훈민민正·정·정·정: 《월인석보》(1459년) 권1-2 권두에 실려 있는 서강대본의 권두서명은 《世·世宗宗 御·御製·정·훈민민正·정·정·정》이다. 그러나 박승빈 본 곧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본(육당문고본)의 권두서명은 《訓·훈민민正·정·정·정》으로 되어 있다. 서강대본의 1면은 번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청 복원본에서는 이를 교정하여 권두서명을 《訓·훈민민正·정·정·정》으로 복원하였다.(문화재청, 참조.)
'정'字의 음가는 성문폐쇄음인 [ʔ]로서 중국 36자모에서는 이를 하나의 어두자음으로 인정하고 영(影)모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중세국어에서는 어두자음으로 쓰인 일이 없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만 하나의 어두자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 2 마·르·칠·씨·오: '마·르·치-+-리(관형어미)+#스(의존명사)-+ㅣ(서술격조사)+-고(연결어미)'의 구성. 가르치는 것이고, 연결어미 '-고'는 '리, △, 반모음 ㅈ' 아래서 'ㄱ'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였으나, 특수한 경우로 서술격조사 '이-' 아래서도 탈락하였다.
- 3 음·은: 《동국정운》식 표기이다. 언해본의 한자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한자 아래에 주음을 해 두었다. 당시 이상적인 중국음과 현실음인 우리음을 절충하여 표기하였는데 그 특징은 첫째, 초성에 전탁자 'ㄱ, ㄷ, ㅌ, ㅍ, ㅈ, ㅊ' 6자와 '병, ㅇ, △, ㅍ' 4자로 표기하였다. 둘째, 초, 중, 종성을 갖추어 표기하였다. 종성이 없는 글자에는 '御·御製·정'처럼 'ㅇ'을 넣었으며 유모와 효모 글자는 '斗·斗'처럼 'ㅁ'을 넣었으며, 래모(來母)는 이영보래로 '達·達'처럼 '리'를 넣었다. 이러한 《동국정운》식 표기는 세조대까지는 사용되었으나 성종대 불경언해 《불정심경언해》, 《영험약초》, 《육조법보단경언해》에 와서는 전면 폐지되었다.
- 4 마·르·치·시·논: '마·르·치-+-시(존경)-+-느(현재시상)-+-오(의도법)-+-ㄴ(관형형)'의 구성. 가르치시는, '-느-+-오-'가 축약되어 '-노-'로 되었다. '마·르·치-'는 현대어의 '가르치(敎)-'와 '가리키(指)-'의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뜻으로 쓰였다. 중세국어 시상법선어 말어미로는 과거에는 '-ㄹ-, -터-, (-리-)', 현재 '-느-', 미래는 '-리-'가 있다.
- 5 正·정·정 소·리·라: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곧 동음으로서 《동국정운》에 맞는 소리라는 의미와 우리말의 발음을 바르게 쓴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正·정·정'을 《월인석보》에서는 "正·정·정·은 正·정·정 소·리·니 우·리·나·랏 :마·를 正·정·히 반·다·기 :올·히 :쓰·는 :그·릴·것 일·후·를 正·정·정·이·라 :하·느·니·라"고 하였다.

國·꺈之·징語:엱꺈꺈·이⁶ 國·꺈·은 나·라히·라⁷ 之·징는 ·입·겨지·라⁸ 語:엱는 :말·씩·미·라
나·랏 :말·씩·미⁹

- 6 國·꺈之·징語:엱꺈꺈·이: 나라의 말씀이. 이 대목은 언해의 풀이대로 해석하면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해석이 있다. 주격조사는 명사어간의 말이 자음일 경우 ‘-이, -ㅣ’ 모음 아래에는 ‘-zero’ 주격이 한자어 아래에서는 ‘-ㅣ’가 실현된다.
- 7 나·라히·라: ‘나라ㅎ(國)-+-이(서술격조사)-+-라(종결어미)’의 구성. 나라이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 ‘ㅎ’ 종성체언은 약 80개 정도 있으며, 곡용할 때 ‘ㅎ’이 안 나타나기도 한다. 체언 말이 자음이면 ‘이-’로 모음 ‘이[i]’나 ‘ㅣ[j]’면 ‘ㅇ’로 그 밖의 모음이면 ‘ㅣ’가 나타난다. 종결어미 ‘-다’가 ‘ㅣ’모음 아래에서는 ‘-라’로 교체가 된다. 곧 ‘ㅣ’모음 아래에서는 선어말어미 ‘-거-’도 ‘-어-’로 교체가 되고, 어말어미 ‘-게-’도 ‘-에’로, ‘-고’도 ‘-오’로 회상의선어말어미 ‘-더-’도 ‘-러’로 감탄선어말어미 ‘-도-’도 ‘-로’로 교체가 이루어진다.
- 8 ·입·겨지·라: ‘입꺈-+-이-+-라’의 구성. ‘입꺈’은 어조사에 대한 고유어로 말을 고르게 하거나 연결할 때 쓰는 말이다. 때로 ‘입꺈’이란 형태가 보이기도 한다(“哉는 입꺈체 쓰는 字ㅣ라”〈월곡서 9〉). 그러나 ‘입꺈’은 항상 치격 조사 ‘-에’와 결합될 때만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입꺈’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협주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어조사는 ‘입꺈지라’로 제시되지만, 설명이 필요한 어조사는 “-ㅎ는 꺈체 쓰는 字ㅣ라”란 형식으로 그 쓰임을 나타내고 있다.
- 9 나·랏 :말·씩·미: ‘나라ㅎ-+-ㅅ-+ㅎ말꺈-+-이’의 구성. 나라의 말씀이. 현대국어에서 ‘ㅅ(사이시옷)’은 복합어이나 출현하지만 15세기에는 속격조사의 한 가지로 쓰였다. 당시의 속격조사는 ‘-의/’-이/’-ㅅ’ 등이 있었는데 ‘-의/’이’는 유정물의 평칭 ‘ㅅ’은 유정물의 존칭이나 무정물에 쓰였다. 본문에서 ‘나랏말꺈’이라 한 것은 “우리나라의 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말꺈’은 ‘말(言)-+-꺈(접사)’의 구성으로 ‘-꺈’은 태도나 모양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異·英·乎·雍·中·等·國·····¹⁰ ··異·英··는 다를 ··씨·라 ··乎·雍·· :·아·모·그·에¹¹ ····¹² ··겨·체¹³ ··쓰·는¹⁴
字···· | 라 ··中·等·國····은 皇·帝·····¹⁵ 나··라·히·니 ··우·리·나···· 常·談·····에 江·南·····이라 ·
·····¹⁶

中·等·國····에¹⁷ 달·아¹⁸

- 10 異·英·乎·雍·中·等·國·····¹⁰ ··異·英··: 중세어에서 ‘하다’만 예외적으로 ‘호요, 호야’로 활용한다.
- 11 :아·모·그·에: ‘아모(부정칭대명사)---그(其)---에(처격조사)’의 구성. 아무에게, ‘---그에’는 속격 조사 ‘-의/의---그에’와 결합하여 ‘-이그에, -의그에’(---계, ---그에, ---겨기, ---손딴도)와 같은 평칭의 여격표시로 변화하였다. 다만 ‘---스---그에’의 결합은 존칭의 여격표시 ‘---께로 쓰였는데 이들은 후에 ‘---에게, ---께로 변화하였다.
- 12 ····¹²: ‘··(爲)---··(현재시상)---··(의도법)---··(동명사형)’의 구성. 하는.
- 13 ··겨·체: ‘결(傍)---에’의 구성. 결에, 처격조사는 양모음어간 뒤에는 ‘---에, 음모음어간 뒤에는 ‘---에, i 나 어간 뒤에는 ‘-이’나 ‘---에’가 사용되었다. 연결되면서 처격의 환경에서는 ‘트’이 ‘조’로 실현되었다.
- 14 쓰·는: ‘쓰(用)---는’의 구성. 쓰는. 중세어에서 동사 ‘쓰(用)’와 형용사 ‘쓰(苦)’는 ‘쓰(書)’와 구별되었다. 중세국어에서는 ㅅ계, ㅂ계, ㅈ계 어두자음군이 쓰였다.
- 15 겨·신: ‘겨시(在)---··’의 구성. 계시는, ‘겨시’는 ‘잇(有)’의 존칭어이다. 역사적으로는 사어화된 동사 어간 ‘겨(在)---시’가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로 판단된다. 이두에서 ‘在’가 ‘견’으로 읽히며 근대국어에서 ‘겨오서’가 후치사로 쓰인다.
- 16 ·····니·라: ‘··(爲)---··---··---··---라’의 구성. ‘---니’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라’는 종결형어미 ‘---다’이다. 선어말어미 ‘---오-, ---과-, ---더-, ---리-, ---니-, 계사’와 결합하면 ‘---다’는 ‘---라’로 교체된다.
- 17 中·等·國····에: ‘동국(中國)---에(처격, 비교)’의 구성. 중국과.
- 18 달·아: ‘다·(異)---··---아(부사형어미)’의 구성. 달라서, ‘다·’는 연결어미 ‘---아’나 의도법어미 ‘---오-’ 등과 결합할 때 어간형이 ‘달-’로 설측음화하여 분철되었다. 일종의 음절 구성의 재음절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 재음절화하는 용언으로 ‘니·(謂)-, 고·(均)-, 오·(上)-, 게·(怠)-, 그·(誤)-, 기·(養)-, 두·(圖)-, 바·(直)-’ 등이 있다. 일종의 ‘-·-/·-’ 불규칙의 환경에서나 ‘·’이 탈락한 환경에서는 분철이 되었다. 분철이 된 요인을 어두의 ‘·’이 음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곧 ‘·’이 소극적 기능일 때 어두음이 모음임을 표시하거나 ‘아, 어’ 등 어중 음절 경계(boundary, #)를 표시기 때문에 ‘·’이 분철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이 적극적 기능일 때 ‘·’이 *[g]>[ɣ]>[ɦ]으로 변화한 결과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이 [ɦ]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분철되었다는 설명이다. 곧 ‘달·’에서 ‘·+·’의 표기는 [ɦ]+[ɦ]를 나타낸 표기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적극적 기능을 가졌던 ‘·’의 소실은 ‘△+·’의 연결에서 먼저 소실되었다. ‘앗·(은)·(·)’의 음이 zero화하여 ‘△’음이 연결할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15세기 중세국어에도 ‘·’은 설측음 [ɦ]과 설전음 [r]로 실현되어 이것을 훈민정음 중성해에서는 “○連書·下爲半舌輕音舌·下附上勝”이라

與·英文文字· Jong-ro¹⁹ 不· 불상流²⁰ 통통홀· 씨²¹ 與· 영·는 ·이·와·더·와²² ·호·는 ·겨·체·쓰·는
字· Jong-l ·라·文·문·은 ·글·와·리·라²³ 不· 불·은²⁴ 아·니 ·호·는 ·쁘·디·라²⁵ 相·상·은 서·르 ·호·는 ·쁘·디·라 流
통·통·은 홀·러 스·몫·을 ·싸·라²⁶

文·문·字· Jong-wa-ro²⁷ 서·르 스·몫·디²⁸ 아·니 홀·씨

故·공·로 愚·웅·民·민·이 有· 용·所· 송·欲· 욕·言·언 ·호·야·도 故·공·는 전·척·라²⁹ 愚·웅·는 아·릴 ·싸·

고 하여 반설중음 ‘ㄹ’과 반설경음 ‘ㄹ’[ɾ]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ㄹ’의 이음(異音)을 당시 학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결과이다.

- 19 與·英文文字· Jong-ro: ‘-로’는 조격. 양모음 아래에서 ‘-으로’, 음모음 아래에서 ‘-으로’, 모음이나 ‘ㄹ’
아래에서 ‘-로’로 나타난다.
- 20 流: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종성이 없는 ‘ㄹ’은 운미음 [w]을 표기한 것이다. 훈민정음 창
제 이후 한자음의 표기는 《동국정운》이 제정되기 이전과 그 이후 기간 동안 차이를 보인다. 특히 -p,
-t, -k 입성운미의 표기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ㄷ’운미인 ‘뽻’을 ‘뵐’으로 표기하였고 ‘-w’ 운미
글자인 ‘뽻’도 ‘꺠’로 ‘-ㄹ’ 운미인 ‘뽻’도 ‘꺠’로 표기하여 ‘ㅇ’을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훈민정음》 언
해본에서는 해례본과 달리 지섭(止攝), 우섭(遇攝), 과섭(果攝), 가섭(假攝)과 해섭(蟹攝)의 ‘-j’ 운미에
‘ㅇ’을 표기하고 효섭(效攝), 유섭(流攝)의 ‘ㄹ’ 표기로 진섭(鎭攝)과 산섭(山攝)의 ‘-ㄷ’운미인 경우 ‘-ㄹ’
을 표기하여 입성 운미를 3성 체계에 따라 표기하였다.
- 21 不· 불상流 통통홀· 씨: 불상流 통통홀 -+-ㄹ 씨(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구속형어미)의 구성.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 22 ·이·와·더·와: 이것과 저것과. 공동격 ‘-와/-과’는 선행음절이 개음절인 경우 ‘-와’가 폐음절은 경우
‘-과’가 실현되었으나 근대국어에 가면 혼란을 보이게 된다.
- 23 ·글·와·리·라: ‘글월’〈용가 26〉은 ‘글밭’에서 변한 형인데 《석보상절》 서에는 ‘글월’〈석보서:4ㄱ〉이 쓰였
지만 《월석》 서에는 ‘글월’〈월석서: 11ㄴ〉이 쓰이고 있음으로 보아 ‘글밭’〈글월〉글월의 변화를 겪었다.
- 24 不· 불·은: 소위 ‘이영보래(以影補來)’식 입성말음표기. ‘ㄹ+ㅇ’ 방식을 취하여 입성의 ‘ㄷ’음이 ‘ㄹ’로 변
화한 것을 ‘ㅇ’음을 보충하여 ‘ㄷ’음에 가깝게 입성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 것이다.
- 25 ·쁘·디·라: ‘쁘-+-이-+-라’의 구성. 뜻이다. 협주 설명에서 부사는 일반적으로 ‘(해당부사)-호·는 쁘
-디·라’나 ‘(해당부사)-호·는 마·리·라’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 26 스·몫·을·싸·라: ‘스몫<스몫(通, 透, 徹, 河)-+-으-+-ㄹ(관형형)-+-(-스-+-ㅣ 라)’의 구성. 서로
통하는 것이다.
- 27 文·문·字· Jong-wa-ro: 문자와, 이때 ‘문자’는 일반적인 문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말한다. 또한 ‘-
로’는 향격 조사로서 뒤에 오는 ‘스몫-’과 호응된다. 곧 우리말이나 한자가 서로 상대방으로 ‘홀러 통
한다’는 의미와 호응하는 것이다. ‘-와/과(공동격)+-로(조격)’의 복합격이 동반격 ‘-와’와 문맥상 차
이가 있으나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또 내 나와로 四天王의 있는 宮殿 殿 째”〈능엄 2:33〉
- 28 스몫·디: ‘스몫’<스몫(通)-+-디’의 구성. 통하지. ‘스몫-’은 이른바 8중성법에 의한 표기이다.
- 29 전·척·라: ‘전·척(故)-+ㅣ 라’의 구성. 까닭이라.

라 有:을:는 이살·씨라³⁰ 所:송:는 ·배:라 欲:욕:은 흥·고:저 홀 ·씨:라 言:언:은 니를 ·씨:라

·이런 전:츠:로 어:린³¹ 百:백:姓:성:이 니르:고:져³² ·홍·배³³ 이:셔:도³⁴

而:상 終:중 不:불 得:득 伸:신 其:其 情:정 情:정 者:장 | 多:당 矣:잉·라 而:상:는 ·입:겨:자:라 終:중:은 末:츠:마:라³⁵ 得:득:은 시를 ·씨:라³⁶ 伸:신:은 ·펼:씨:라 其:其:는 :제:라 情:정:은 ·쁘:디:라 者:장:는 ·노:미:라 多:당:는 ·할 ·씨:라 矣:잉:는 :말 末:는³⁷ ·입:겨:자:라

30 이살·씨:라: ‘이시(有)---씨라’의 구성. 있는 것이라. ‘-씨라’는 ‘스(의존명사)---라’의 구성인데 어미로 융합된 결과이다.

31 어:린: ‘어리(愚)---ㄴ’의 구성. 어리석은. ‘어리-’는 ‘어리다(少)’와 ‘어리석다(愚)’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2 니르:고:져: ‘니르(言)---고:져’의 구성. 말하고자. ‘니르-’이르(謂)-’로 변화면서 의미도 조금 변한 것이다.

33 ·홍·배: ‘ᄃ(爲)---오(의도법)---ㄴᄃ(관형사형)+#바(의존명사)---ㅣ(주격)’의 구성. 할 바가. 우리말에 사용된 ‘ᄃ’는 사잇소리의 기능을 하였다.

34 이:셔:도: ‘이시(有)---어:도’의 구성. 있어도. ‘이시(有)-’의 세 가지 이형태가 쓰였다. ‘잇-’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 쓰이고, ‘이시-’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이나 자음 어간 아래에서 조음소가 삽입되는 어미의 앞에 쓰였다. ‘시-’는 ‘이시-’가 쓰일 만한 자리에 가끔 쓰였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35 末:츠:마:라: ‘ㅁ츄(終)---ㅣ라’의 구성. 마침이라. ‘ㅁ츄’는 ‘ㅁ츄---ㅁ(명사화접사)’의 구성으로 파생명사이고 ‘마츄’는 ‘ㅁ츄---옴’의 구성으로 동명사이다. 중세어에서는 파생접사(-ㅁ)의 경우와 동명사형(-옴/-옴)이 구별되었으나 ‘-오/우-’가 탈락되면서 그 구분이 없어졌다.

36 시를·씨:라: ‘신> 실(得, 載)---옴(매개모음)---ㄴ씨라’의 구성. 실는 것이라.

37 末:는: ‘ㅁ> ㅁ(終)---ㄴ’의 구성. 마치는.

ㅁ·츄:내³⁸ 제³⁹ ·쁘·들 시·러⁴⁰ 퍼·다:몬흥⁴¹·노·미 하나·라⁴²

子영 | 爲 嬴此:충·憫:민然·연·ㅎ·야 子영:는 ·내 ·ㅎ·습·시·는⁴³ ·쁘·디·시·니·라 此:충 ·는 ·이·라
⁴⁴ 憫:민然·연·은 :어·옛·비·너·기·실 ·씨·라
 ·내⁴⁵ ·이·를 爲 嬴·ㅎ·야⁴⁶ :어·옛·비⁴⁷ 너·겨⁴⁸

- 38 ㅁ·츄:내: ‘뫿(終)---옴(명사화접사)---내(부사화접사)’의 구성. 마침내. ‘-내’는 “~에 이르기까지”의 뜻을 가진 부사화접미사이다.
- 39 제: ‘저--- | (관형격)’의 구성. 자기의. 관형격조사로는 일반적으로 ‘-이/-의’ 등이 쓰였으나 대명사 ‘나, 너, 저’ 등은 원래의 명사에 ‘ㅣ’가 덧붙은 ‘내, 네, 제’가 속격형으로 쓰였다. 그러나 이들 대명사가 내포절의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내의, 네의, 저의’ 등으로 쓰였다.
- 40 시·러: ‘실(得)》실---어(부사화접사)’의 구성. 능히 할 수 있다. ‘-어’는 접속어미가 접사화한 것이다.
- 41 :몬흥: ‘몬ㅎ---ㄹ·ㅎ’의 구성. 못할. 의도법의 어미 ‘-오/우-’가 안 들어간 예이다.
- 42 하나·라: ‘하(多)---니·라’의 구성. 많으니라. 15세기에는 ‘하(多)-’와 ‘ㅎ(爲)-’가 뜻이 달리 사용되었지만 ‘ㅣ’의 소실로 인해 ‘하-’로 통합되면서 전자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전자는 ‘하고 많은’ 등 몇 가지에 화석화되어 남아 있다.
- 43 ·ㅎ·습·시·는: ‘ㅎ(爲)---습(겸양)---시(존경)---ㄴ(현재)---오(의도)---ㄴ(관형형)’의 구성. 하오신, 하시는. 겸양법과 존대법 선어말 어미를 결합할 경우 당연히 ‘-스 ㅅ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와 달리 ‘습’과 ‘시’가 직접 결합하였다.
 15세기 중세국어의 경어법으로는 존경법(주체존대법)에는 ‘-시-/~샤-’와 겸양법(주체겸양법)에는 ‘-습-(스 ㅅ)/-습-(스 ㅅ)/-즈-(즈 ㅅ)’이 있으며 공손법(상대존대법)에는 ‘-이-’가 있다. 겸양법의 ‘-습-(스 ㅅ)’는 ‘ㅎ, ㄱ, ㅂ, ㅅ, ㄹ·ㅎ’ 아래에서 ‘-습-(스 ㅅ)’는 ‘모음, ㄴ, ㄷ, ㄹ’의 아래에서 ‘-즈-(즈 ㅅ)’는 ‘ㄷ, ㅅ, ㅅ’ 아래에서 실현된다.
- 44 ·이·라: ‘이(대명사)--- | (서술격조사)---라’의 구성이다. 이라. 이다.
- 45 ·내: 일인칭 대명사 ‘나’는 주격과 속격 형태의 표기가 같이 ‘내’였다. 다만 주격은 거성, 속격은 평성으로 각각 성조를 달리 함으로써 구별되었다.
- 46 ·이·를 爲 嬴·ㅎ·야: 이를 위하여. 문맥상 그리 필요하지 않은 구절인데 이렇게 언해가 된 이유는 직역(直譯)에 가까운 언해의 영향인 듯하다. 뒤에 나오는 ‘히여’도 성격이 이와 같다.
- 47 :어·옛·비: ‘어·옛·비(憫)---이(부사화접사)’의 구성. 불쌍하게, 불쌍히. ‘어·옛·비-’는 불쌍하다(憫)는 뜻에서 예쁘다(媛)는 뜻으로 변화했다.
- 48 너·겨: ‘너기---어’의 구성. 여겨.

新新制·정 二·싱十·썩八·뵤字·쥑 ·ᄒ노·니 新新·은 ·새·라⁴⁹ 制·정·는 ·땡·ᄇ·ᄃ실 ·씨·라⁵⁰
 二·싱十·썩八·뵤·은 ·스·믈여·들바·라
 ·새·로 ·스·믈여·들 字·쥑·를 땡·ᄇ·노·니⁵¹

欲·욕使·승 人·인人·인·으로 易·잉썩·썩·ᄒ·야 便·뵤於·ᄒᄃ日·ᄃ用·용耳·싱·니·라 使·승·는
 :ᄒ·ᄃ⁵²·ᄒ·는·마·리·라 人·인·은 ·사·ᄃᄃ·미·라 易·잉·는 ·쉬·블·씨·라⁵³ 썩·썩·은 ·나·길 ·씨·라⁵⁴ 便·뵤·
 은 便·뵤安·안ᄃᄃ ·씨·라 於·ᄒ·는·:아·모·그·에 ·ᄒ·는·겨·체 ·쓰·는 字·쥑·|·라 日·ᄃ·은 ·나·리·라 用·용·
 은 ·뵤·씨·라 耳·싱·는 ᄃᄃ·미·라· ᄒ·는 ·ᄃᄃ·다·라

:사·름·마·다 :ᄒ·ᄃ· :수·비⁵⁵ 니·겨⁵⁶ ·날·로⁵⁷ ·뿌·메⁵⁸ 便·뵤安·안·ᄃᄃ⁵⁹ ᄒ·고·져 ᄃᄃ ᄃᄃ·
 미·니·라⁶⁰

- 49 ·새·라: 협주의 뜻풀이 형식으로 볼 때 ‘새’는 명사로 인식되고 있었던 듯하다. 현대어에서 ‘새’는 관형사로만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명사로도 쓰인 예들이 있다. 현웃도 새 곤 ᄒᄃ리니<월석 8: 100>
- 50 ·땡·ᄇ·ᄃ실·씨·라: ‘땡ᄃ(制)-+-으(매개모음)+-시-+-ᄃ식-+-|라’의 구성. 만드신 것이라.
- 51 땡·ᄇ·노·니: ‘땡ᄃ(制)-+-ᄃ(현재시상)-+-오(의도법)-+-니’의 구성. 만드니. 원형은 ‘땡ᄃ다’. ‘땡ᄃ’은 ‘땡ᄃ-’, ‘땡ᄃ-’ 등의 이형태가 쓰였으나 이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지는 않다. 여기서 ‘-오-’는 의도법선어말어미이다.
- 52 :ᄒ·ᄃ·: ‘ᄒ(爲)-+-| (사동접사)-+-어’의 구성. ‘ᄒ다(爲)’의 사역형이다. 실지 음가는 없으나 ‘ᄃ’이 자음으로서의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ᄃ’은 어중음표기에 사용한다. ‘ᄃ’ 등 15세기 문헌의 피동 및 사역형 표기에 쓰였다.
- 53 :쉬·블·씨·라: ‘썩(易)-+-으-(매개모음)+-ᄃ(관형형어미)+#스(의존명사)-+-|라’의 구성. 쉬운 것이라.
- 54 나·길·씨·라: ‘닉(習)-+-이-(사동접사)+-ᄃ+#스-+-|라’의 구성. 익힐 것이라.
- 55 :수·비: ‘썩(易)-+-이’. 썩게. ‘썩-’은 부사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될 때 어간형이 ‘술-’이 되었다.
- 56 니·겨: ‘닉(習)-+-(사동접사)이-+-어’. 익혀. 중세어에서 사동접미사로 ‘-이-’가 결합되던 용언들 가운데 현대어로 오면서 접미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시기->시키-’ 등 참고.
- 57 ·날·로: ‘날(日)-+-로(부사화접사)’의 구성. 날마다. ‘새로, 저로, 간대로’ 등의 파생 부사가 있다.
- 58 ·뿌·메: ‘ᄃ(用)-+-음(명사형)-+-에’의 구성. 씬에.
- 59 便·뵤安·안·ᄃᄃ: ‘편안(便安)-+#ᄒ(爲)-+ᄃ(계)’의 구성. 편안하게. 《훈민정음언해》, 《석보상절》에는 ‘-ᄒᄃ’로 나타나지만 《월인석보》에는 ‘-ᄒᄃ/ᄒᄃᄃ’가 혼용되었다. 단 《월인석보》에서의 ‘-ᄒᄃᄃ’는 《석보상절》에서 배긴 부분에만 나타난다.
- 60 ᄃᄃ·미·니·라: ‘ᄃᄃ(의존명사)-+-이(서술격조사)-+-니라’의 구성. 이다. 이니라.

ㄱ·는 牙향음·이·니⁶¹ 如聲君 ㄱ·字·쥬⁶² 初총發·뵈聲성·히·니 並·뽕書성·면 如
 聲蜚·뽕·뵈·字·쥬⁶³ 初총發·뵈聲성·히·니·라 牙향·는 :어미·라⁶⁴ 如聲·는 :ㅁ·틀··씨·라⁶⁵ 初총發·
 뵈聲성·은·쳐·섬··파·아·나·는 소·리·라 並·뽕書성·는·글·바⁶⁶··쓸··씨·라

61 牙향음·이·니: 아음(牙音)이니, 어금닛소리이니.

62 ㄱ·字·쥬: ㄱ·字, ‘ㄱ’은 사잇소리로 앞 종성이 불청불탁자로 끝났을 때 ‘ㄴ’의 같은 계열의 전청자 ‘ㄷ’을 사잇소리로 썼다. 《훈민정음》 언해와 《용비어천가》에서만 나타나는 사잇소리는 종성이 유성자음인 한자음일 경우, 그 종성의 종류에 따라 사잇소리가 각각 달리 쓰였다. 이들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종성 ‘ㄹ’인 한자음은 이른바 이영보래(以影補來)에 의해 ‘ㅇ’을 붙여 ‘ㄹㅇ’으로 표기했다. 우리 말의 경우에는 거의 ‘ㅅ’으로 쓰였으나 《용비어천가》에서는 몇몇 예외적인 쓰임을 보였다. 그러나 성종 이후에는 불경언해류에서는 전부 ‘ㅅ’으로 통일되었다. 《훈민정음》 언해에서 나타나는 사잇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종성의 종류 | ㅇ | ㄴ | ㅁ | 뽕 | ㅇ |
|--------|---|---|---|---|---|
| 사잇소리 | ㄱ | ㄷ | ㅂ | 뵈 | ㅇ |

63 如聲蜚·뽕·뵈·字·쥬: ‘蜚·뽕’내서 한자음 표기에 나타나는 ‘뽕’는 ‘뽕(불청불탁자)+뵈(같은 순경음의 전청자)+쥬’로 사잇소리 ‘뵈’가 사용되었다.

64 :어미·라: ‘엄(牙)---ㅣ라’의 구성. 엄소리라. 어금니 소리라.

65 :ㅁ·틀··씨·라: ‘글(如)---ㅇ(매개모음)---ㄴ+ㅅ(의존명사)---ㅣ라’의 구성. 같은 것이라.

66 글·바: ‘꺠(並)---아(부사형)’의 구성. 병서하면, 나란히 쓰면, ‘꺠다(꺠아, 꺠으니, 꺠으며...)’는 영남방언에서는 남아 있다.

ㄱ·는⁶⁷:엄쏘·리·니⁶⁸ 君군ㄷ字:쥬·처섬⁶⁹·퍼·아⁷⁰·나는 소·리·ㅁ·ㅌ·니⁷¹ 𪛗·바·쓰·면⁷²
 𪛗·꺄·ㅁ·ㅌ·니⁷³ 쥬·처섬·퍼·아·나는 소·리·ㅁ·ㅌ·니·라

ㅋ·는 牙양음흙·이·니 如성快·꺄·字:쥬 初총發·뵘·聲성·ㅎ·니·라

ㅋ·는 :엄쏘·리·니 快·꺄·字:쥬·처섬·퍼·아·나는 소·리·ㅁ·ㅌ·니·라

ㅇ·는 牙양음흙·이·니 如성業·업·字:쥬 初총發·뵘·聲성·ㅎ·니·라

ㅇ·는 :엄쏘·리·니 業·업·字:쥬·처섬·퍼·아·나는 소·리·ㅁ·ㅌ·니·라

- 67 ㄱ·는: 당시에는 각 자음을 뒤에 모음 ‘ㅣ’를 붙여서 읽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를 ‘ㄴ’으로 한 것이나 《훈몽자회》에서 ‘其役, 尼隱’ 등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참고가 된다.
- 68 :엄쏘·리·니: ‘엄(牙)---ㅅ(사잇소리)---소리’, 어금닛소리, ‘쏘’에서 치음의 된소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는 자음을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엄쏘리, 혀쏘리, 입시울쏘리, 니쏘리, 혀쏘리, 반혀쏘리, 반니쏘리’ 등으로 언해되어 있다.
- 69 ·처섬: ‘첫>첫(初)---엄(명사화접사)’의 구성. 치음: ‘처섬’은 ‘처섬>처엄>처음’의 과정을 거쳐 변화하였다.
- 70 ·퍼·아: ‘퍼(發)---아’의 구성. 퍼어. 당시의 모음조화로 보면 응당 ‘퍼어’ 퍼’가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음양조화의 일탈형이다. 아마도 강화 현상이거나 ‘퍼-’의 모음 ‘ㅣ’가 /jə/가 아니라 /jA/에서 발달한 것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강의적인 의미로 일종의 이화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 71 ·ㅁ·ㅌ·니: ‘곤(訥)---글(如)---ㄴ니’의 구성. 같으니. ‘글(如)’은 ‘곤(訥)---’의 축약형이다. 이러한 쓰임에서 어간을 ‘글-’, ‘ㅁ·ㅌ-’ 가운데 어느 것으로 잡아야 할지 분명치 않다. ‘ㅁ·ㅌ야’ 등에 기대면 ‘ㅁ·ㅌ-’일 듯도 하나 ‘ㄱ거뇨’ 등으로 보면 ‘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72 𪛗·바·쓰·면: ‘꺄(齒)---아---쓰(書)---면’의 구성. 나란히 쓰면, 병서하면.
- 73 훈민정음에서 초성 소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모표는 중국의 36자모표를 본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말의 음운체계가 그와 그대로 맞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제정자들은 독자적으로 23자모표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모자들도 새로운 한자들을 사용하였다. 훈민정음의 설명에 사용된 한자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한자의 음들은 <동국정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각자병서의 경우 제 음가를 보이지 못한 것일 수가 있다. 국어의 현실 한자음에서는 된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자를 이용하여 음가를 보이는 데서 오는 한계라 할 수 있다.

| 아음 | 설음 | 반설음 | 순음 | 치음 | 반치음 | 후음 |
|--------|-------|-------|-------|-------|-------|-------|
| ㄱ(君)군 | ㄷ 斗 둘 | | ㅂ(𪛗)뵘 | ㅅ(卽)즉 | ㅈ(戔)쥬 | ㅇ 扞 홉 |
| ㄴ(匹) r | ㅌ(覃)탐 | | ㅍ 步 뵘 | ㅆ 慈 쥬 | ㅊ 邪 썩 | ㅎ 虛 형 |
| ㅋ 快 꺄 | ㅍ(吞)튼 | | ㅊ 漂 퍽 | ㅌ(梗)짚 | | ㅎ(洪)훈 |
| ㅇ(業)업 | ㄴ 那 낭 | ㄹ 間 령 | ㅁ 彌 밉 | | ㅇ(穰)양 | ㅇ(欲)욕 |

ㄷ·는 舌·췌·음·ㅣ·니 如·성·斗·들·ㅂ·字·중 初·총·發·뵈·聲·성·ㅎ·니 並·뽕·書·성·ㅎ·면 如·성
覃·ㅂ·字·중 初·총·發·뵈·聲·성·ㅎ·니·라 舌·췌·은·혜·라

ㄷ·는 ·혀·쏘·리·니 斗·들·ㅂ·字·중 ·처·섬 ·펴·아 ·나·는 소·리 ·ㅁ·ㅈ·니 古·바·쓰·면 覃
ㅂ·字·중 ·처·섬 ·펴·아·나·는 소·리 ·ㅁ·ㅈ·니·라

ㅌ·는 舌·췌·음·ㅣ·니 如·성·吞·吞·ㅈ·字·중 初·총·發·뵈·聲·성·ㅎ·니·라

ㅌ·는 ·혀·쏘·리·니 吞·吞·ㅈ·字·중 ·처·섬 ·펴·아 ·나·는 소·리 ·ㅁ·ㅈ·니·라

ㄴ·는 舌·췌·음·ㅣ·니 如·성·那·那·ㅈ·字·중 初·총·發·뵈·聲·성·ㅎ·니·라

ㄴ·는 ·혀·쏘·리·니 那·那·ㅈ·字·중 ·처·섬 ·펴·아 ·나·는 소·리 ·ㅁ·ㅈ·니·라

ㅂ·는 脣·순·음·ㅣ·니 如·성·𪛗·𪛗·字·중⁷⁴ 初·총·發·뵈·聲·성·ㅎ·니 並·뽕·書·성·ㅎ·면 如·성
步·뽕·ㅈ·字·중 初·총·發·뵈·聲·성·ㅎ·니·라 脣·순·은 입·시·우·리·라⁷⁵

ㅂ·는 入·시·울·쏘·리·니 𪛗·𪛗·字·중 ·처·섬 ·펴·아 ·나·는 소·리 ·ㅁ·ㅈ·니 古·바·쓰·면 步·
뽕·ㅈ·字·중 ·처·섬 ·펴·아 ·나·는 소·리 ·ㅁ·ㅈ·니·라

ㅍ·는 脣·순·음·ㅣ·니 如·성·漂·漂·ㅂ·字·중 初·총·發·뵈·聲·성·ㅎ·니·라

ㅍ·는 入·시·울·쏘·리·니 漂·漂·ㅂ·字·중 ·처·섬 ·펴·아 ·나·는 소·리 ·ㅁ·ㅈ·니·라

ㅁ·는 脣·순·음·ㅣ·니 如·성·彌·彌·ㅈ·字·중 初·총·發·뵈·聲·성·ㅎ·니·라

ㅁ·는 入·시·울·쏘·리·니 彌·彌·ㅈ·字·중 ·처·섬 ·펴·아 ·나·는 소·리 ·ㅁ·ㅈ·니·라

ㅅ·는 齒·창·음·ㅣ·니 如·성·卽·卽·字·중 初·총·發·뵈·聲·성·ㅎ·니 並·뽕·書·성·ㅎ·면 如·성·慈

74 如·성·𪛗·𪛗·字·중: ‘𪛗·𪛗’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로 ‘ㄹ’ 아래에 ‘ㅎ’을 표기한 것은 이영보래(以影補來) 규정에 따른 이상적 표기 방식이다. 동음에서 ‘ㄹ’로 끝나는 입성 한자음은 중국에서는 이미 성 문폐쇄음으로 탈락된 현실을 반영한 표기방식이다. 동음에서 입성자 [-t][ʔ][-ø] 매우 규칙적으로 ‘ㄹ’로 대응된다.

75 입·시·우·리·라: ‘입시울(脣)---ㄹ’의 구성. 입술이라. ‘입---시울---입술(복합어)’.

쫙 ㄹ字 쫙 初총發 赬聲성 ㅎ·나·라 齒:창 ㄴ·나·라

스 ㄴ·니·쏘·리·니 卽·즉·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 글·바·쓰·면 慈쫙 ㅎ
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츠 ㄴ·齒:창·音·ㅎ·아·니 如·성·侵·침·ㅂ·字 쫙 初총發 赬聲성 ㅎ·나·라
츠 ㄴ·니·쏘·리·니 侵·침·ㅂ·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스 ㄴ·齒:창·音·ㅎ·아·니 如·성·戌·畵·字 쫙 初총發 赬聲성 ㅎ·니 並·뺑·書·성 ㅎ·면 如·성·邪
쌍·字 쫙 初총發 赬聲성 ㅎ·나·라
스 ㄴ·니·쏘·리·니 戌·畵·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글·바·쓰·면 邪쌍
ㅎ·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ㅎ ㄴ·喉·響·音·ㅎ·아·니 如·성·捫·音·字 쫙 初총發 赬聲성 ㅎ·니·라 喉·響·는 모·기·라
ㅎ ㄴ·목·소·리·니 捫·音·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ㅎ ㄴ·喉·響·音·ㅎ·아·니 如·성·虛·형·ㅎ·字 쫙 初총發 赬聲성 ㅎ·니 並·뺑·書·성 ㅎ·면 如·성·
洪·響·ㅍ·字 쫙 初총發 赬聲성 ㅎ·나·라
ㅎ ㄴ·목·소·리·니 虛·형·ㅎ·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 글·바·쓰·면 洪·響·ㅍ
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ㅇ ㄴ·喉·響·音·ㅎ·아·니 如·성·欲·욕·字 쫙 初총發 赬聲성 ㅎ·나·라
ㅇ ㄴ·목·소·리·니 欲·욕·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르 ㄴ·半·반·舌·蜃·音·ㅎ·아·니 如·성·閭·령·ㅎ·字 쫙 初총發 赬聲성 ㅎ·나·라
르 ㄴ·半·반·혀·쏘·리·니⁷⁶ 閭·령·ㅎ·字 쫙 ·처·섬 ·퍼·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76 半·반·혀·쏘·리·니: '반설음'은 설측음 또는 탄설음일 것으로 파악된다.

△·는 半·반齒:칭읍·이·니 如聲穰양 ㄱ字·중 初發·뵈聲성·히·니·라

△·는 半·반·니·쏘·리·니⁷⁷ 穰양 ㄱ字·중 ·치·섬 ·퍼·아·나·는 소·리·ㄱ·트·니·라

·는 如聲呑吞 ㄷ字·중 中聲聲성·히·니·라 中聲·은·가·운·딛·라⁷⁸

·는 呑吞⁷⁹ ㄷ字·중 가·운·딛·소·리⁸⁰·ㄱ·트·니·라

ㄴ·는 如聲卽·즉·字·중 中聲聲성·히·니·라

ㄴ·는 卽·즉·字·중 가·운·딛·소·리·ㄱ·트·니·라

ㄹ·는 如聲侵침 ㅂ字·중 中聲聲성·히·니·라

ㄹ·는 侵침 ㅂ字·중 가·운·딛·소·리·ㄱ·트·니·라

ㄴ·는 如聲洪洪 ㄱ字·중 中聲聲성·히·니·라

ㄴ·는 洪洪 ㄱ字·중 가·운·딛·소·리·ㄱ·트·니·라

ㅂ·는 如聲覃覃 ㅂ字·중 中聲聲성·히·니·라

ㅂ·는 覃覃 ㅂ字·중 가·운·딛·소·리·ㄱ·트·니·라

ㄱ·는 如聲君君 ㄷ字·중 中聲聲성·히·니·라

ㄱ·는 君君 ㄷ字·중 가·운·딛·소·리·ㄱ·트·니·라

77 半·반·니·쏘·리·니: 반치음이니. 반치음은 유성 치조마찰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78 가·운·딛·라: ‘가운딛(申)--- ㄹ’의 구성.

79呑吞: 중성을 보이기 위해 쓴 한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한자는 초성을 대표하기 위해 썼던 것을 다시 이용하였는데 여기서도 훈민정음 제정자들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呑 卽 ㄹ 侵 ㄴ 洪 ㅂ 覃 ㄱ 君 ㄷ 業 ㄱ 欲 ㄴ 穰 ㅅ 戊 ㄱ 弊’

80 가·운·딛·소·리: ‘가운딛(申)---ㅅ(사잇소리)+소리---ㅅ(공동격 생략)’의 구성. ‘가운딛’는 ‘가쁜딛’>‘가운데’의 변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다.

ㄱ·는 如聲業·업字·중 中등聲성·히·니·라

ㄱ·는 業업字·중 中 가운데·뒷소리·ㄱ·ㅁ·ㅌ니·라

ㄳ·는 如聲欲·욕字·중 中등聲성·히·니·라

ㄳ·는 欲욕字·중 中 가운데·뒷소리·ㄱ·ㅁ·ㅌ니·라

ㄴ·는 如聲穰·양字·중 中등聲성·히·니·라

ㄴ·는 穰양字·중 中 가운데·뒷소리·ㄱ·ㅁ·ㅌ니·라

ㅁ·는 如聲戌·숯字·중 中등聲성·히·니·라

ㅁ·는 戌숯字·중 中 가운데·뒷소리·ㄱ·ㅁ·ㅌ니·라

ㄷ·는 如聲驚·별字·중 中등聲성·히·니·라

ㄷ·는 驚별字·중 中 가운데·뒷소리·ㄱ·ㅁ·ㅌ니·라

終중聲성·은 復·뽕用·용初중聲성·히·느니·라 復·뽕·는 다시·히·는·쁘니·라

乃·냉終중字·소·라·는 다시·첫소리·를·쁘·느니·라⁸¹

81 乃·냉終중字·소·라·는 다시·첫소리·를·쁘·느니·라: ‘終聲復用初聲’은 훈민정음의 제정자들이 중국음운학의 2분법(聲과 韻)을 버리고 초, 중, 종성으로 3분하는 체계를 세우면서 종성을 초성과 같은 것으로 파악한 태도가 반영된 구절이다. 이 구절을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 써야 한다는 문자 운용 규정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종성은 새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이용한다는 중서의 제자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를 連련書성⁸² 脣순音음之之下: 嚮호.면 則.즉爲爲脣脣순輕輕音音⁸³. 호.느니.라 連
련은.니.를.싸.라.下: 嚮호.는.아.래.라.則.즉은.아.마.리.호.면⁸⁴. 호.는.겨.체.쓰는.字.쥬.라.爲
원.는.드.워.싸.라⁸⁵ 輕輕音音은.가.비.야.볼.싸.라

○.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비야.불⁸⁶ 소리 드외.느.니.라⁸⁷

初총聲성·을·습·합·용·용·흥디·면⁸⁸·則·즉·並·땡書성·하·라·終중聲성·도·同똥·하·니·라
 습·합·은·어·울·씨·라⁸⁹·同똥·은·훈·가·자·라··하·는·쁘·디·라
 ·첫·소·라·를·어·울·위⁹⁰·뽕·디·며⁹¹·글·바··쓰·라·乃·내·終중·그·소·리·도·훈·가·자·라

· 一卜丁卩卩 란 附.뽕書.성初총聲성之징下:항亨.고 附.뽕.는 브.틀.씨.라

· 와 一 와 ㅏ 와 ㅑ 와 ㅓ 와 ㅕ 와 ㅗ 와 ㅛ 와 랑⁹²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나 나 ㄴ ㄴ 란附.뵙書성於右:울ㅎ.라 右:울:는 .울ㅎ 녀기.라

82 **連련書書**: ‘연서’는 ‘병서와 부서’와 구별이 필요하다. 훈민정음의 규정으로 보면 자음자를 좌우로 나란히 하여 쓰는 것은 병서라 하였고 모음을 자음의 오른쪽이나 아래에 붙여서 쓰는 것을 부서라 하였다. 연서는 이들과 구별하여 자음을 위아래로 이어서 쓰는 것을 뜻한다.

83 脣舐輕경음: 순경음은 입술 가벼운 소리로서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유성 양순 마찰음을 뜻한다.

84 :아·므리ᄃᆞ·면: ‘아므리’는 ‘아·므+리’로 분석된다. 여기서 ‘-리’는 대략 ‘-게’의 뜻으로 ‘이리·더리·그리’ 등의 ‘-리’와 관련된다.

85. ㄷ월·쓰.라: ‘ㄷ월’ > ㄷ외(爲) - - - ㄹ + #스 - - - | 라’의 구성. 될 것이라.

86 가·비·야·분: ‘가비얹(輕)+-은’의 구성. ‘가비얹-〉가비얹-〉가비엿-〉가뵈-’의 과정을 거쳐 현대어에 이른다.

87. 드외늑니라: ‘드외(爲)++늑++니++라’의 구성. 된다. ‘드외-’에서 변한 것으로 뒤에 ‘되-’가 되었다. ‘드외-’는 현대어의 형용사 파생 접사 ‘되-’의 어원형이기도 하다.

88. **·홀디·면:** ‘**ㅎ-+-오/우-+리ㅎ+#디(의존명사)+-면**’ 할 것이면.

89 어·울·씨·라: ‘어우-+-ㄹ+#씨라’, 어우를 것이라.

90 ·어·울·워: ‘어울(슴)-+-우(사동접사)-+-어’의 구성. 어울리.

91. *뽕·디·면: ‘*뽕+-오/우+-~~ㅁ~~+#디(ㄷ+ㅣ)+-면’의 구성. 쓰면, ‘디’는 ‘ㄷ(의존명사)+-ㅣ(서술격조사)’의 구성.

92 ·와 ·一과 丄·와 丁·와 乚·와 冫·와 ㄱ·와 ㅅ·와 ㅈ·와 ㅊ·와 ㅋ·와 ㆁ·와 :란: 공동격조사. ‘란’은 주체격조사의 특수한 용례이다. 집단 공용에서 공동격 조사 ‘-와’를 맨 마지막 명사에게까지 붙이는 것은 중세국어의 특징였다. 하지만 당시 문헌에서도 이외는 다른 쓰임이 발견되기도 하여 의미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ㅣ와 ㅈ와 ㅊ와 ㅊ와 ㅊ와란 올흔 녀·기⁹³ 부·터 ·쓰·라

凡𐄂字·𐄂 必·𐄂合·𐄂而·𐄂成·𐄂聲·𐄂音·𐄂 ㅎ·ㄴ·니⁹⁴ 凡𐄂·은· ㅁ·ㅂ·ㅅ· ㅎ·ㄴ· ㅂ·ㅅ·다·라 必·𐄂·은· 모·
로·매· ㅎ·ㄴ· ㅂ·ㅅ·다·라 成·聲·은· :일· ㅅ·라⁹⁵

ㅁ·ㅂ· 字·𐄂 ㅁ·로·매⁹⁶ 어·우·러·사⁹⁷ 소·리· :이·ㄴ·니⁹⁸

左·장·加·강· 一·點·點·덱·ㅎ·면 則·즉·去·경·聲·이·오⁹⁹ 左·장·는· ㄹ·원·녀·기·라 加·강·는· ㅌ·을· ㅅ·
라· 一·點·은· ㅎ·나·히·라 去·경·聲·은· ㅌ·노· ㅂ· ㅅ·리·라

:원·녀·기 點·點·덱·을· ㅌ·으·면¹⁰⁰ ㅌ·노· ㅂ· ㅅ·리·오¹⁰²

93 ·올흔녀·기: ‘울(右)-+-ㄹ-+-ㄴ-+#녃-+-’의 구성. 현대의 ‘녃’는 격음화를 겪은 것이고 ‘-’는 음성모음 뒤에 오는 처격조사이다.

94 必·비·合·합·而·而成·聲·音· ㅎ·ㄴ·니: ‘必·合·而·成·音’ 규정은 말 그대로 ‘成音’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 힘들다. 모음은 아무런 자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음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오히려 글자의 모양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낫다. 곧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자음 ‘ㅇ’을 덧붙여 글자의 모양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95 :일·씨·라: ‘일(成)-+ㅅ(의존명사)+-ㅣ’라’의 구성.

96 모·로·매: ‘모·ㄹ-+-ㅁ-+-ㅌ-+-에(부사화접사)’의 구성. 모름지기, 부사로 ‘모름이, 모름즉, 반·개’ 등의 변이형이 있다.

97 어·우·러·사: ‘어·을-+-어-+-ㅅ’의 구성. 아울러야, ‘-ㅅ’>야는 강세 보조사.

98 :이·ㄴ·니: ‘일(成)-+-ㄴ-+-니’의 구성. ‘일-’은 접미사 ‘-ㄹ, -우’가 붙어 각각 사동사로 파생될 수 있었으나 ‘이·ㄹ(成就)-’와 ‘일·우(築)-’가 구별되어 쓰였다.

99 중세국어의 성조에 대한 규정이다. 성조는 글자의 왼쪽에 점으로 표시하였는데 1점은 거성 2점은 상성 점이 없는 것을 평성을 나타냈다. 또한 입성은 이들 점과 관계없이 종성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상성이 후에 대부분 장음으로 변한 것으로 판단하면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의 성격에 대한 훈민정음 합자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성(무점) 安而和, 상성(2점) 和而舉, 거성(1점) 舉而壯, 입성 促而塞으로 설명하고 있다.

100 ㅌ·으·면: ‘ㅌ·으(加)-+-면’의 구성. ㅌ·하·면, 현대어 ‘더하-’는 ‘ㅌ·으-’에서 부사 ‘더’가 파생되고 이것에 다시 ‘하-’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01 ㅌ·노· ㅂ·: ‘ㅌ·노(접두사)-+높(高)-+-은’의 구성. 최고 높은, 가장 높은.

102 소·리·오: ‘소리(聲)-+-오’의 구성. 연결어미 ‘-고’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ㅍ’를 포함한 이중모음의 뒤에서 ‘ㄱ’이 탈락되었다.

二·싱則·측上:쌍聲성·이·오 二·싱·는 :둘하·라 上:쌍聲성·은·쳐서·미 ㄴ:갑·고¹⁰³ 乃:냉終중·
이 노·폰소·리·라

點·덤·이 :둘하·면¹⁰⁴ 上:쌍聲성·이·오

無·무則·측則·측平·평聲성·이·오 無·무·는 :업슬·씨·라 平·평聲성·은·못·늦·가·븐¹⁰⁵ 소·리·라

點·덤·이 :업스·면 平·평聲성·이·오

入·입聲성·은 加·강點·덤·이 同·똥而·싱·促·촉·급·급·히·나·라 入·입聲성·은 쉼·리 긋·든·¹⁰⁶
소·리·라 促·촉·급·급·은 섹·힐·씨·라

入·입聲성·은 點·덤·더·우·믄¹⁰⁷ ㅎ·가·지·로·되· 섹·릭·니·라

漢·한·음·음·齒:칭聲성·은 有·유·齒:칭·頭·똥·正·정·齒:칭·之·징·別·뵈·히·니 漢·한·음·음·은 中·중
國·국 소·리·라 頭·똥·는 머·리·라 別·뵈·은 굴·힐·씨·라¹⁰⁸

中·중·國·국 소·리·옛¹⁰⁹ ·니·쏘·리·는¹¹⁰ 齒:칭·頭·똥·와¹¹¹ 正·정·齒:칭·왜¹¹² 굴·히·요·믹¹¹³ 잇
느·니

103 ㄴ:갑·고: ‘ㄴ’>ㄴ(底)→+갑(형용사접사)→+고의 구성. 낮고, 형용사에 접미사가 결합되어 다시 형용사로 파생된 것인데 이러한 유형으로 ‘덜갑-’ 등이 있다.

104 :둘하·면: ‘둘ㅎ→+이(서술격)→+면’의 구성. 둘이면, ‘둘ㅎ’은 이른바 ‘ㅎ’ 종성 체언이다.

105 ·못·늦·가·븐: ‘못→+ㄴ→+갑→+ㄴ’의 구성. 제일 낮은.

106 긋·든·: ‘긋(斷)→+#든(逃)→+ㄴ’의 구성. 끊고 달아나는.

107 더·우·믄: ‘더(加)→+옴→+은’의 구성. 더하면.

108 굴·힐·씨·라: ‘굴·힐(擇, 別)→+ㄴ씨라’의 구성. 가리는 것이라.

109 소·리·옛: ‘소리→+예→+ㅅ’의 구성. ‘소리’의 말음이 ‘ㅣ’이기 때문에 처격 조사로 ‘예’가 쓰였다. ‘ㅅ’은 무정물에 쓰인 속격 조사이다.

110 ·니·쏘·리·는: ‘니(齒)→+ㅅ→+소리(聲)→+ㄴ’의 구성. 잇소리.

111 齒:칭·頭·똥·와: ‘치두→+와’의 구성. 치두음과. 치두음은 중국어에서 혀끝을 윗니에 가까이 닿아서 내는 치음의 하나이다. ‘상치경 파찰음’, ‘치파찰음’으로 보기도 한다.

112 치두음과 정치음, ‘왜’는 공동격 조사 ‘와’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된 것이다. 치두음은 상치경 파찰음 또는 치파찰음·정치음은 권설음 또는 경구개치경음으로 판단된다.

113 굴·히·요·믹: ‘굴·히(選)→+오·우→+ㅁ→+ㅣ’의 구성. ‘ㅣ’ 모음으로 인해 ‘오·우’가 ‘요’가 되었다. ‘굴·히→+옴+ㅣ→굴·히→+옴(앞 ㅣ 모음의 영향)+ㅣ’, ‘-옴’은 명사형 어미이다.

ㄲ 大 𡇗 𡇘 𡇙 𡇚 𡇛 字: 龠: 用·용 於 亨 齒: 𪙐 頭 咄 亨. 고

·이 소·리·는 우·리나·란 소·리·예·서¹¹⁴ 열·병·니·혀·그·티 우·닝머·리·예 다투·니·라¹¹⁵

ㅈ ㅊ ㅋ ㆁ ㄷ ㅌ ㄴ 字. 쫓. 는 齒: 칭頭뚝스 소리. 예. 쓰. 고

ㅈ ㅊ ㅋ ㆁ ㄷ ㅌ ㄴ 字. 쫘. 는 用. 용於형正. 정齒. 칭ㅎ느니

·이 소·리·는 우·리·나·랏 소·리·에·서 두·터·볼·니¹¹⁶ ·헛·그·티 아·랫 ·넛·므·유·메 다·뭇·니·라

[illegible]

牙^아향^향舌^설쑤^읍唇^순뵈^후候^호嚥^연之^지징^자字^조. 쯔^는 통^통用^용 용^於於^영漢^한韓^음音^음 . 흥^는 나라

·엄·과¹¹⁸ ·혀·와 입시·을·와¹¹⁹ 목소·리·엿 字·꼳·는 中·國·국 소·리·에 通·통·히 ·쓰·는
나·라

訓·훈民民正·정音음

114 소·리에·서: 소리(聲)-+-에서(비교격). ‘-에서’는 앞에 있는 ㅟ 모음의 순행동화의 결과이다.

115 다·나·라: ‘닿(接) - + - 나·라’의 구성. u[n:], 자음동화가 그리 많이 표현되지는 않았으나 ‘ㅎ’이 ‘ㄷ’으로 중화된 다음에 ‘ㄴ’으로 동화되는 경우는 흔히 동화가 표기되었다. 이곳의 표기는 음절말의 ‘ㄴ’을 다음 음절의 초성에 병서한 것인데 실제로 발음이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 지나친 언절 표기라 보아야 할 것이다.

116 두터·보·니: ‘두텁(厚)-+으니(설명형어미)’의 구성. 두터우니.

117. 쓰·느니: ‘쓰(用)-+-느-+-니(설명형어미)’의 구성. 쓰니.

118 :엄:과: ‘엄(牙)-+-과(공동격조사)’의 구성. 어금닛소리와.

119 일반적으로 ‘-와’가 모음 뒤, ‘-과’가 자음 뒤에 쓰이는 것은 현대어와 같으나 유독 자음 ‘ㄹ’ 뒤에서만은 현대어와 달리 ‘-와’가 쓰였다.

미주

[미주1] 차자표기 발달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말은 있었지만 그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으니 한자의 음이나 훈을 활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였다.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을 차자표기라고 하는데 한문의 정착 과정과 관련하여 그 발달 과정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한문이 완전히 정착되기 이전 단계에는 한자를 빌어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고 필요한 조사나 어미를 기입하는 이두 형식과 여기에서 어간 부분까지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표기한 향찰표기가 있다.

이와 함께 한문이 정착되는 초기 단계에 변체문으로서 일종의 변형된 한문(Broken Chinese)은 초기 단계의 이두 형식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거나 우리말 형태소까지 표기하던 방식에서 한문이 정착된 이후에는 정격 한문에다가 형태소만 첨부하는 이문(吏文) 형식으로 발달된 이두는 조선 후기까지 사용되었다. 대체로 고려 시대 무렵 한문이 정착된 단계에서 이두 형식은 이문으로 특수한 서리 집단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한문을 이해하기 위해 구두자리에 우리말 형태소(토)를 다는 방식을 구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두와 구결은 엄격하게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두는 서사어로, 구결은 한문 구송과 해석을 위한 표기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결은 단순히 한문 대문을 읽을 때 구두 단위를 표시하는 음독구결(순독구결)과 한문 원문의 해석을 위해 우리말 어순으로 구두 단위를 표시한 석독구결(훈독구결) 방식이 있다. 구결은 표기 방식에 따라 정자체 구결과 약자체 구결 그리고 서사 방식이 아닌 각필로 부호를 표시하는 각필구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자를 활용한 어휘 표기 방식과 이두, 그리고 구결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자.

1) 어휘 표기

《삼국사기》와 우리나라나 사서나 중국 고대 사서에 인명이나 지명 관명 표기가 있다. 《삼국사기》 소재 지명 자료(도수희, 《한국 지명 신연구》, 제이앤씨, 2010.)에 예를 살펴보자.(김영환, 《고구려의 언어유산》,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참조.)

(1) 고구려

| | |
|----------------------|---------------------------|
| 祖波衣 鵠巖 [*조바의] | 去斯斬 楊根 [*거스잡] |
| 漢忽 漢城 [*한홀] | 買忽 水城 [*매홀] |
| 首知衣 牛嶺 [*수지의] | 松村活達 釜山 [*송촌활달] |
| 刀臘 雄嶽 [*도랍] | 古斯也忽次 獐項口 [*고스야홀자] |
| 屈於押 江西 [*굴어압] | 仇斯波衣 童子忽(*忽은 고유어) [*구사바의] |
| 若只頭恥 朔頭, 衣頭 [*약지두지] | 皆伯 王逢, 王迎 [*개백] |
| 耶耶, 夜牙 長淺城 [*야야, 야아] | 灑隱別 七重 [*난은별] |
| 也尸買 牲川 [*야시매] | 於乙買串 泉井口 [*어을매곶] |
| 要隱忽次 楊口 [*요은홀차] | 毛乙冬非 鐵園 [*모을동비] |
| 密波兮 三峴 [*밀바헤] | 非勿 僧梁 [*비물] |
| 鳥斯 猪足 [*도사] | 功木達 熊閃山 [*공목달] |
| 馬忽 臂城 [*마홀] | 於斯內 斧壤 [*어스내] |
| 首知 新知 [*수디] | 阿珍押 窮嶽 [*아달압] |
| 冬音奈 休陰 [*동음내] | 泥沙波忽 麻田淺 [*니사바홀] |
| 達乙省 高峰 [*달을성] | 鳥阿忽 津臨城 [*도야홀] |
| 伏斯買 深川 [*복스매] | 甲比古次 穴口 [*갑비고자] |
| 皆次丁 王岐 [*개자정] | 達乙斬 高木根 [*달을잡] |
| 別史波衣 平淮押 [*별사바의] | 買旦忽 水谷城 [*매단홀] |
| 未乙省 國原城 [*미을성] | 德頓忽 十谷 [*덕돈홀] |
| 冬斯 栗木 [*동사] | 于次吞忽 五谷 [*우자단홀] |
| 古斯也忽次 獐項 [*고스야홀자] | 內米忽 池城, 長池 [*내미홀] |
| 南買 南川 [*남매] | 古所於 獐塞 [*고소서] |
| 滅鳥 駒城 [*멸오] | 夫斯波衣 仇史峴 [*부스바의] |
| 省知買 述川 [*성지매] | 奈吐 大堤 [*나토] |
| 於斯買 橫川 [*어스매] | 今勿內 萬弩 [*금물내] |

(2) 예맥(濊貊) 고유 지명에서 고구려 한역 지명으로 바뀐 것.

| | |
|------------------|------------------------------|
| 於乙買 泉井 [*어을매] | 休壤 金惱(*뇌惱는 고유어, 壤은 漢譯) [*휴양] |
| 首乙吞 原谷 [*수을단] | 斤尸波兮 文峴 [*그리바헤] |
| 古衣浦 鵠浦 [*고의포] | 習比吞 習比谷 [*습비단] |
| 於支吞 翼谷 [*어지단] | 買伊 水入 [*매이] |
| 沙非斤乙 赤木 [*사비근을] | 也次忽 毋城 [*야자홀] |
| 鳥生波衣 猪守峴 [*도생바의] | 鳥斯押 猪遼穴 [*도스잡] |

(3) 압록강 이북 항복하지 않은 11성 지역의 지명 (□□□)은 개정 전 지명의 소실 표시)

助利非西 北扶餘城州 [*조리비서]

蕪子忽 節城 [*무자홀]

肖巴忽 豐夫城 [*조바홀]

仇次忽 新城州 [*구자홀]

波尸忽 桃城 [*바리홀]

非達忽 大豆山城 [*비달홀]

鳥列忽 遼東城州 [*오열홀]

□□□ 屋城州 [*]

□□□ 白石城 [*]

□□□ 多伐嶺州 [*]

安寸忽 安市城 [*안촌홀]

(4) 압록강 이북 항복한 11성 지역의 지명

□□□ 棕壘城

□□□ 木底城

□□□ 藪口城

□□□ 南蘇城

甘勿伊忽 甘勿主城 [*감믈이홀]

□□□ 麥田谷城

居尸押 心岳城 [*거리(시)갑]

尉那靉城 國內州 [*위나암성]

肖利波利忽 屑夫婁城 [*조리바리홀]

骨尸押 朽岳城 [*골리(시)갑]

櫟大城[*]

乃勿忽 鉛城[*내믈홀]

□□□ 面岳城

皆尸押忽 牙岳城 [*개리갑홀]

甘弥忽 驚岳城 [*감니홀]

赤利忽 積利城 [*적리홀]

召尸忽 水銀城 [*소리홀]

加尸達忽 犁山城 [*가리달홀]

(5) 압록강 이북 타득 3성의 지명

甲忽穴城 [*갑홀]

折忽 銀城 [*널홀]

史忽 似城 [*사홀]

(6) 고구려식 한역 지명(669)

忽 城 [*홀]

居尸心 [*거리]

乃勿 鉛 [*매믈]

甲 穴 [*갑]

波尸 桃 [*바리]

押 岳 [*갑]

召尸 水銀 [*소리]

折 銀 [*널]

達 山 [*달]

那, 內 壤 [*나, 내]

加尸 犁 [*가리]

(7) 백제 고유 지명·고구려 한역 지명·신라 경덕왕 한역

| | |
|-------------------------|--------------------------|
| 仍斤内 □□□ 槐壤 [*내근내] | 加火押 □□□ 唐嶽(憲德王) [*가불갑] |
| 骨内斤 □□□ 黃壤(骨斤内?) [*골내근] | 夫斯波衣 □□□ 松峴(憲德王) [*부사바의] |
| 仍忽 □□□ 陰城 [*내홀] | 伐力川 □□□ 綠繞 [*벌력천] |
| 奈兮忽 □□□ 白城 [*나혜홀] | 熱沙伊 □□□ 淸風 [*사열이] |
| 沙伏忽 □□□ 赤城 [*사복홀] | 古斯馬 □□□ 玉馬 [*고사마] |
| 仍伐奴 □□□ 穀壤 [*내벌노] | 薩寒 □□□ 霜陰 [*살한] |
| 齊次巴衣 □□□ 孔岩 [*제자바의] | 加支達 □□□ 菁山 [*가지달] |
| 主夫吐 □□□ 長堤 [*주부도] | 買尸達 □□□ 蒜山 [*매리달] |
| 首尔忽 □□□ 戊城 [*소니홀] | 達忽 □□□ 高城 [*달홀] |
| 骨衣奴 □□□ 荒壤 [*골의노] | 吐上 □□□ 隄上 [*도상] |
| 鳥斯含達 □□□ 兎山 [*오사합달] | 波利 □□□ 海利 [*바리] |
| 伊珍買 □□□ 伊川 [*이달매] | 波旦 □□□ 海曲 [*바달] |
| 扶蘇岬 □□□ 松岳 [*부소갑] | 屈火 □□□ 曲城 [*굴불] |
| 冬比忽 □□□ 開城 [*동비홀] | |
| 德勿 □□□ 德水 [*덕물] | |
| 息達 □□□ 土山 [*식달] | |

2) 이두(吏讀) 자료

우리 글자가 없는 시대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서사어로 활용한 것을 차자표기라고 한다. 매체에 따라 돌, 금속, 죽간, 종이, 천 등에 기록된 차자표기 자료를 일괄하여 이두라고 할 수 있다. 상대시기에는 인명, 지명, 관직명 등 고유명사를 표기하다가 차츰 우리말 어순의 문장체로 바뀌면서 토를 다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일종의 변체문이라고 할 수 있는 차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서사체로 이문(吏文)의 서사 양식으로 계속 발전되기도 하여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대명률직해》와 법제문서나 외교 및 나라 안 서리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이문으로 고정되어 조선 후기까지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두가 서사문학의 양식으로 곧 완전한 우리말 표기 방식인 단어나 조사 및 어미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차용표기로 발전된 양식이 향가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목록이다.(남풍현(2009), 《고대한국어연구》, 시간의 물레. 참조.)

(1) 상대시기 이두 금석 자료: 고구려

- 1) 고구려영강명금동불상광배명(高句麗永康銘金銅佛像光背銘)(396년)
- 2)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414년)
- 3) 평양고구려성벽석각문 1-2(平壤高句麗城壁石刻文 1-2)(446년?)
- 4) 평양고구려성벽석각문 3-4(平壤高句麗城壁石刻文 3-4)(449년?)
- 5) 서봉총은합간명(瑞鳳冢銀盒杆銘)(451년 추정)
- 6) 중원고구려비명(中原高句麗碑銘)(490년 추정)
- 7) 신묘명금동삼존불광배명(辛卯銘金銅三尊佛光背銘)(571년 추정)

(2) 상대시기 이두 금석 자료: 백제

- 1) 백제무령왕능 출토 은천명(百濟武寧王陵 出土 銀釧銘)(520년)
- 2) 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夫餘 陵山里 出土 木簡)(미상)

(3) 상대시기 이두 금석 자료: 신라

- 1) 영일냉수리비명(迎日冷水里碑銘)(503년 추정)
- 2) 울진봉평신라비명(蔚珍鳳坪新羅碑銘)(524년 추정)
- 3) 울주천전리서석원명(蔚州川前里書石原銘)(525년 추정)
- 4) 울주천전리서석추명(蔚州川前里書石追銘)(539년 추정)
- 5) 단양신라적성비명(丹陽新羅赤城碑銘)(540년대)
- 6) 임신서기석명(壬申誓記石銘)(552년 추정)
- 7) 무술오작비명(戊戌塲作碑銘)(578년 추정)
- 8) 남산신성비명 1~7(南山新城碑銘 1~7)(591년)
- 9) 명활산성작성비명(明活山城作成碑銘)(611년)

(4) 통일신라시대 금석 자료

- 1) 감산사미륵보살상조성명(甘山寺彌勒菩薩像造成銘)(719년)
- 2) 감산사아미타불상조성명(甘山寺阿彌陀佛像造成銘)(719년)
- 3) 관문성석각(關門城石刻)(722년?)
- 4) 상원사종명(上院寺鐘銘)(725년)
- 5) 무진사종명(無盡寺鐘銘)(745년)

- 6) 화엄경사경조성기(華嚴經寫經造成記)(755)
- 7) 정창원소장 신라장직(正倉院所藏 新羅帳籍)(758년?)
- 8) 정창원소장 신라출납대장(正倉院所藏 新羅出納臺帳)(758년?)
- 9) 정창원소장 전의 첩포명(正倉院所藏 氐의 貼布銘)(8세기 중엽)
- 10) 영태2년명 석조비로차나불조성명(永泰2年銘 石造毘盧遮那佛造成銘)(766년)
- 11) 창령관용사석불대좌명(昌寧觀龍寺石佛臺座銘)(772년)
- 12) 갈항사석탑명(葛項寺石塔銘)(785~798년)
- 13) 영암 서구림리 매향비명(靈巖 西鳩林里 埋香碑銘)(786년)
- 14) 영천청제비정원명(永川菁堤碑貞元銘)(789년)
- 15) 선림원종명(禪林院鐘銘)(804년)
- 16) 창령인양사비명(昌寧仁陽寺碑銘)(810년)
- 17) 중초사당간석주명(中初寺幢竿石柱銘)(827년)
- 18) 청주연지사종명(菁州蓮池寺鐘銘)(833년)
- 19) 규흥사종명(竅興寺鐘銘)(856년)
- 20) 함통명금□명(咸通銘禁□銘)(865년)
- 21) 삼화사 철불조상명(三和寺 鐵佛造像銘)(860년대)
- 22) 선방사탑지석명(禪房寺塔誌石銘)(879년)
- 23) 영양석불좌상광배명(英陽石佛坐像光背銘)(889년)
- 24) 송산촌대사종명(松山村大寺鐘銘)(904년)

(5) 고려시대 이두 자료

- 1) 명봉사자적선사능운탑비음명(鳴鳳寺慈寂禪師凌雲塔碑陰銘)(941년)
- 2) 성주석불좌상배명(星州石佛坐像背銘)(967년)
- 3) 하남시 교리 마에약사좌상명(河南市 校里 磨崖藥師坐像銘)(977년)
- 4) 예천 개심사석탑기(醴泉 開心寺石塔記)(1010년)
- 5) 약목 정두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若木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1031년)
- 6) 보현사석탑기(普賢寺石塔記)(1044년 추정)
- 7) 통도사국장생석표명(通度寺國長生石標銘)(1085년)
- 8) 나주서문내석등기(羅州西門內石燈記)(1093년)
- 9) 승정경엄석관기(僧正景廉石官記)(1102년)

- 10) 천북관세음사종명(川北觀世音寺鍾銘)(1107년)
- 11) 밀양오층석탑조성기(密陽五層石塔造成記)(1109년)
- 12) 양등사반자(楊等寺半子)(1160년)
- 13) 표충사합은향완명(表忠寺合銀香垵銘)(1177년)
- 14) 상주안수사종명(尙州安水寺鍾銘)(1178년 추정)
- 15) 태화이년명반자(太和二年銘飯子)(1201년0)
- 16) 고령사금고(高嶺寺金鼓)(1214년)
- 17) 정축명반자(丁丑銘飯子)(1217년 추정)
- 18) 수선사사원현황기(修禪社寺院現況記)(1221~1226년)
- 19) 이의사반자(利義寺飯子)(1224년)
- 20) 예천사반자(醴泉寺飯子)(1238년)
- 21) 수정사반자(修定寺飯子)(1240년)
- 22) 류경의 상서도관첩문(柳敬의 尙書都官帖文)(1262년)
- 23) 차송우의 상서도관첩문(車松祐의 尙書都官帖文)(1262년)
- 24) 송광사노비문서(松廣寺奴婢文書)(1281년)
- 25) 정인경정안(鄭仁卿政案)(1288년)
- 26) 정인경 공신록권(鄭仁卿 功臣錄券)(1289년)
- 27) 광산김씨김련준호구(光山金氏金璉准戶口)(1301년)
- 28) 광산김씨김진호구단자(光山金氏金鎭戶口單子)(1333년)
- 29) 함창김씨병자년준호구(咸昌金氏丙子年准戶口)(1336년)
- 30) 청주목관문서(淸州牧官文書)(1349년)
- 31) 감은사반자(感恩寺飯子)(1351년)
- 32) 해남윤씨노비문서(海南尹氏奴婢文書)(1345년)
- 33) 백암사첩문1(白巖寺帖文1)(1357년)
- 34) 경주시수호장행안1(慶州司首戶長行案1)(1361년)
- 35) 이자수정안(李子修政案)(1366년)
- 36) 백문질자녀분급문서(白文質子女分給文書)(1371년)
- 37) 밀양박씨임자년준호구(密陽朴氏壬子年准戶口)(1372년)
- 38) 이자수고신1(李子修告身1)(1376년)
- 39) 백암사첩문2(白巖司帖文2)(1378년)

- 40) 경주사수호장행안2(慶州司首戶長行案)2(1361년)
- 41) 남씨노비문서(南氏奴婢文書)(1382년)
- 42) 이자수고신2(李子首告身)2(1382년)
- 43) 류종혜고신1,2(柳從惠告身)1,2(1382, 1387)
- 44) 장전소지(張晉所志)(1385년)
- 45) 홍무19년 노비문서(洪武19年 奴婢文書)(1386년)
- 46) 고려말화령부 및 개경호적문서(高麗末和寧府 및 開京戶籍文書)(1390~91년)
- 47) 경술명백운사반자(庚戌銘白雲寺飯子)(미상)
- 48) 계미명종명(癸未銘鍾銘)(미상)
- 49) 계유명청동신장립상좌대명(癸酉銘靑銅神將立像座臺銘)(미상)
- 50) 을유명보제사반자(乙酉銘普提寺飯子)(미상)
- 51) 을해명두정사종명(乙亥銘頭正寺鍾銘)(미상)
- 52) 무자명법천사광명대명(戊子銘法泉寺光明臺銘)(미상)
- 53) 무자명청동향완(戊子銘靑銅香�urn)(미상)
- 54) 병인명금□명(丙寅銘禁□銘)(미상)
- 55) 임오명자복사반자(壬午銘資福寺飯子)(미상)
- 56) 임오명청동정병(壬午銘靑銅淨瓶)(미상)
- 57) 을사명동종(乙巳銘銅鐘)(미상)
- 58) 을유명화엄사반자(乙酉銘華嚴寺飯子)(미상)

3) 이두 자료의 예

이들 자료 가운데 먼저 사례를 《역주 한국고대금석문》(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2)을 참고하여 살펴본다.

[평양고구려성벽석각문(平壤高句麗城壁石刻文)]

[제1석] 己丑年 五月 廿八日 始役 西向 十一里 小兄 相夫若牟利 造作

기축년 5월 28일 처음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서쪽으로 향하여 11리 구간은 소형 상부약모리(相夫若牟利)가 쌓는다.

[제2석] 己酉年 [三]月 廿一日 自此下向 東十二里 物苟小兄 俳湏百頭 作 節矣
기유년 3월 21일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향하여 12리 구간은 물구(物苟) 소형 배회
백두(俳湏百頭)가 맡는다.

[제3석] 己丑年三月 廿一日自此下 向□[下]二里 內[中] 百頭 上位使 余丈作 節矣
기축년 3월 21일 여기서부터 □쪽으로 내려가면서 2리는 내부 백두 상위사 이장
(余丈)이 맡아서 공사를 한다.

[제4석] 丙戌十 二月中 漢城 下節⁷ 小兄 文達 節自此 西北行 涉之
병술년 12월에 한성 하후부 소형 문달이 여기서부터 서북 방향을 맡는다.

[제5석] 卦婁盖切 小兄 加群自 此東廻上□ 里四尺治
괘루개절(卦婁盖切) 소형 가상은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위쪽으로 4리 4자를
쌓는다.

울주 천전리서석 원명과 추명(이문기(1983), <울주 천전리 서석 원, 추명의 재검
토>, 《역사교육논집》 제4집.)

[울주천전리 서석원명(蔚州川前里 書石原銘)]

乙巳(年六月十八日昧)

沙喙部(葛)

文王覓遊來始得見谷□

之古谷(?)无名谷善石得造(書?)

乙以下爲名書石谷字作(之?)

并遊友妹麗德光妙於史

郢安郎三之

食多煞作功人尔利夫智奈(麻)

悉得斯智大舍帝智 作食(人)

榮知智壹吉干支妻居知尸奚夫(人)

眞宓智沙干支妻阿兮牟(弼)夫人

作書人慕慕余智大舍帝智

[현대어]

을사(525)년 6월 18일 새벽에 사훼부(沙喙部, 신라 왕경 육부의 하나)의 갈문왕(법흥왕의 동생이자 진흥왕의 아버지인 입종갈문왕)이 찾아 놀러와 처음으로 골짜기를 보았다.

고곡(古谷, 오래된 골짜기)인데, 이름없는 골짜기이므로 좋은 돌을 얻어 (글을) 짓고,

(말미암아) 서석곡(書石谷)으로 이름을 삼아 글자를 만들었다(명문을 새겼다).

아울러 놀리온 이는 (갈문왕과) 우매(友妹 사랑하는 누이)와 여덕광묘(麗德光妙)한 어시(於史)

추여랑(鄒女郎) 셋이다.

식다살작공인(食多煞作功人, 행차의 준비인 곧 들에서 수렵한 것을 장만하는 사람)은 이리부지(余利夫智) 대나마(大奈麻, 경위 10등급)와

실심사지(悉溥斯智) 대사제지(大舍帝智 경위 12등급 대사의 존경어미)이며

작식인(作食人, 음식물 만드는 담당자)은 영지지(榮知智) 일길간지(一吉干支, 경위 제등급)의 아내 거지시해(居知尸奚) 부인과

진솔지(眞宐智) 사간지의 아내 아혜모홍(阿兮牟弘) 부인이고,

글 쓴 사람은 모모이지(慕慕余智) 대사제지(大舍帝智)이다.

[울주천전리 서석 추명(蔚州川前里 書石追銘)]

過去乙巳年六月十八日昧 沙喙

部 徙夫知(葛)文王妹於史鄒安郎

三共游來以後□年八巳年過去妹王考

妹王過人乙巳年王過去其王妃只須尸兮妃

愛自思巳未年七月三日興王與妹共見書石

叱見來谷 此時共三來 另郎知太王妃夫乞

支妃 徙夫知王導朗梁(?)畎(?)夫知共來此麗

作功臣喙部陳禮夫知沙干□泊六知
居伐干支禮臣丁乙余知奈麻 作食人眞
宥智波玆干支婦阿六牟呼夫人 余夫知居伐干支婦
一利等次夫人居禮次□干支婦沙爻功夫人分共作之

[현대어]

지난 을사(525)년 6월 18일 새벽에 사궤부(沙喙部)의 사부지갈문왕(徙夫知葛文王, 진흥와의 동생이자 진흥왕의 아버지 입종 갈문왕)과 동생과 어사추안랑(於史鄒安郎) 3인이 함께 놀러 온 이후 □년이 (지나갔다.) 八巳年過去妹王考妹王過人(미상) 정사년에 왕은 과거의 지몰시혜(只沒尸兮妃) 왕비 부절지비와 도부지왕자랑과 심 □부지가 함께 왔다. 이 때 □작공신은 궤부 知沙부지 사간지와 □泊六知 거벌간 지이며, 예신은 眞宥智 波玆干支의 아내 阿六牟呼夫人과 余夫知 居伐干支의 아내 인 一利等次夫人과 居禮次 □干支의 아내인 沙爻功夫人으로 나누어 함께 지었다.

[임신서기석]

진흥왕 12~13(551~552)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서기석으로 알려진 서기석명은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한 초기 이두문의 양식이다. 5행에 나오는 ‘-지’가 ‘-다’를 나타내는 이두로 초기 한문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壬申年 六月 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無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 大亂世 可容行誓之
又別先 辛未年 七月廿二日 大誓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현대어]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서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 충도(충성과 도리)를 집지(執持, 다잡아 가짐)하고 과실(허물)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 이 일을 잃으면(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받을 것을 맹서한다.

또 따로 먼저 신미년 7월 22일 맹서하였다.

시경, 상서, 서전, 예기, 좌전을 차례로 습득할 것을 맹서하되 3년으로 한다.

4) 구결(口訣) 자료

구결은 이두와 달리 서사체가 아닌 구송을 위해 단 토를 말한다. 구결은 주로 한자의 음을 활용한 정자체와 이를 약체자로 쓴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또 한문의 대문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두 위치에 첨가하는 우리말 토를 구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문을 읽기하기 위해 단 토를 음독구결이라고 하고 해독을 위해 우리말 어순으로 재배열한 ‘·’(되돌이 점)이 첨가된 석독구결로 구분할 수 있다. 한문 대문의 행간에 점이나 사선의 각필부호를 넣은 각필구결도 있다. 남풍현(2009)은 음독구결을 순독구결로 석독구결을 자토석독구결, 각필구결을 점토석독구결이라고도 명명한다.

구결 자료에 대해 살펴보자.(남풍현(2009), 《구결연구》, 태학사.)

(1) 음독 구결자료

먼저 음독구결 자료로는 남풍현(2009:74~75)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1) 소곡본 능엄경(13세기 후반?)
- 2) 남권희본 능엄경(13세기 후반~14세기 초반)
- 3) 고려판 남명집(14세기 후반)
- 4) 규장각본 능엄경(가람문고본)(14세기 말 15세기 초)

- 5) 기림사본 능엄경(15세기 초)
- 6) 송성문본 능엄경(15세기 초)
- 7) 규장각본 능엄경(일쇄문고본)(15세기 초)
- 8) 파리국립도서관본 직지심체요절(14세기 말~15세기 초)
- 9) 윤희두본 불설사십이장경(14세기 말~15세기 초)
- 10) 엄인섭본 범망경(14세기)
- 11) 국립도서관본 범망경(14세기)
- 12) 한국학중앙연구원본 범망경(14세기)
- 13) 일쇄문고본 원각경소주경(14세기 말 15세기 초)
- 14) 성암고서박물관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14세기 말)
- 15) 고려말 자비도장참법(14세기)
- 16) 연세대학교도서관본 법화경(14세기 말)
- 17) 국립도서관본 고봉화상선요(15세기 초)

(2) 석독구결 자료

석독구결 자료로는 남풍현(2009:68~69)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1) 석화엄교분기원통초 석독구결(10세 중엽)
- 2) 화엄경소 권35(11세기 말~12세기 초)
- 3) 화엄경 권14(12세기 중엽 추정)
- 4) 합부금광명경 권3(13세기 초 추정)
- 5) 구역인왕경 상권(13세기 중엽 추정)
- 6) 유가사지론 권20(13세기 후반 추정)

(3) 각필구결 자료

각필구결 자료로는 남풍현(2009:73)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1) 화엄문의요결(8세기 중엽 추정)
- 2) 성암고서박물관소장본 진보화엄경 권20(9~10세기 추정)
- 3) 호림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권3(11세기 전반 추정)
- 4) 성암고서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권5, 권8(11세기 전반 추정)
- 5) 일본경도납선사소장 유가사지론 권8(11세기 전반 추정)

- 6) 성암고서박물관소장 주본화엄경 권6, 권22, 권 36, 권37(11세기 말~12세기 초 추정)
- 7) 호림박물관소장 주본화엄경 권33, 권34(11세기 말~12세기 초 추정)
- 8) 연세대학교 도서관본 법화경 권1(10세기~11세기 추정)
- 9) 합부금광명경 권3(13세기 초기 추정)
- 10) 수덕사 소장 법화경 권7(13세기 전반기 추정)

(4) 석독구결 자료의 예

석독구결은 좌우에 구결 토를 첨가해 두고 우단의 순서로 읽어가다가 ‘·’(되돌이 권점)을 만나면 다시 앞쪽의 좌단 구결 부분을 읽어 한문 어순을 우리말 어순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역인왕경>은 구본으로 <불설인왕반야파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羅密經)> 2권과 <인왕호국경(仁王護國經)> 2권 이 있는데 한문본 <인왕경>은 당나라 불공(不空)이 번역한 것으로 부처님이 16국 당으로 하여금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호국 3부경으로 《법화경》, 《인왕경》, 《금광명경》을 수지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료 가운데 13세기 중엽 자료로 추정되는 《구역인왕경》 상권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역인왕경 상권]

<원문>: 원문의 상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편의상 좌단 토(吐)를 윗첨자로 표시하였다.

<풀어읽기>: 석독구결을 풀어서 석독하였다. 즉 우리말로 읽은 것이다.

<15세기 재구>: 석독구결의 음을 정음 표기로 재구하여 읽은 것이다. 차자 토의 음을 추정하여 읽었다.

<현대어>: 현대어 번역이다. 의미가 통하지 않을 때는 의역을 하였다.

<원문>: 信行し具足ッニカ復ッ1有ヒナカ五道セ一切衆生リ・復ッ1有ヒナカ他方セ不
失リヒセ 可セッ1量ノ・衆、

<풀어읽기>: 信行し具足ッニカ 復ッ1 五道セ 一切 衆生リ 有ヒナカ 復ッ1 他方セ 量ノ
・ 可セッ1 不失リヒセ 衆 有ヒナカ<舊仁02:01-2>

<15세기 재구>: 信行 具足히시며 쏘흔 五道人 일체 중생이 잇거며 쏘흔 他方人 量흠(혜

아름) 짓흔 안디이닛 무리 잇겨며

〈현대어〉: 신행을(淸信行을) 구축하시며 또 五道에 모든 중생이 있으며 또한 他方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으며

〈원문〉: 復ッ 1 有セナ 1 : 變ッ ㄹ 十方淨土し、現ッ ㄹ 百億高座し、化ッ ㄹ ノ 1 ㄷ、百億須彌寶花し、

〈풀어읽기〉: 復ッ 1 十方淨土し 變ッ ㄹ 百億高座し 現ッ ㄹ 百億須彌寶花し 化ッ ㄹ ノ 1 ㄷ 有セナ 1 : 〈舊仁02:02-3〉

〈15세기 재구〉: 또흔 十方 淨土를 변혀저 百億 高座를 현혀저 百億 須彌寶花를 化혀저흔나 잇겨여

〈현대어〉: 또한 시방정토를 변하게 하며 百億高座를 나타내며 百億須彌寶花로 化하는 이도 있구나.

〈원문〉: 各々各々うホ座前セ花ニセ上ナ有ナハニハ無セ 1 量、化佛 ㄹ 有ナハニハ

〈풀어읽기〉: 各々各々うホ 座前セ 花ニセ 上ナ 量 無セ 1 化佛 ㄹ 有ナハニハ 〈舊仁02:03〉

〈15세기 재구〉: 제제아곰 자리 앞췌 고즈릇 우히 헤아름 업슨 化佛이 겨기시며

〈현대어〉: 제각각의 자리 앞 췌로부터(꽃) 위에(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化佛이 계시며

〈원문〉: 有ナハニハ無セ 1 量菩薩: 比丘: 八部: ノ ㄸ 大衆 ㄹ、各々各々ホ坐ッニハ寶蓮花 ㄹ 十、

〈풀어읽기〉: 量 無セ 1 菩薩: 比丘: 八部: ノ ㄸ 大衆 ㄹ 有ナハニハ 各々各々ホ 寶蓮花 ㄹ 十 坐ッニハ 〈舊仁02:04〉

〈15세기 재구〉: 헤아름 업슨 菩薩여 比丘여 八部여 호릿 大衆이 겨기시하 제제곰 寶蓮花아히 (아귀) 좌하시며

〈현대어〉: 헤아릴 수 없는 보살과 비구와 八部라고 하는 大衆이 계서서 제각기 寶蓮花에 앉으시며

〈원문〉: 花上ろ十皆セ有セウ 一ム無セ 一量、國土リ、一一國土ろ十ヶ 一佛、及ハ

大衆: ノヲリッ白ウ 一ム如這今し、無セニカ異ッ 一

〈풀어읽기〉: 花上ろ十 皆セ 量 無セ 一 國土리 有セウ 一ム 一一國土ろ十ヶ 一 佛: 及ハ 大

衆: ノヲ리ッ白ウ 一ム 今し 如這 異ッ 一 無セ니카〈舊仁02:05-6〉

〈15세기 재구〉: 곳 우아히 닛 헤아롬 업슨 국토이 이손디 一一國土아히마다 佛여 믹 大衆여 호리이 ㅎ슬본디 ㅎ을 곧 異ㅎ 업스시며

〈현대어〉: 꽃 위에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국토가 있는데 국토 하나 하나마다 부처와 대중이라고 하는(할) 이가 말하되 지금과 같이 다른 것 없으시며

〈원문〉: 一一國土セ中ろ十一一佛: 及ハ大衆: ノ々ヶ 一各ろ各ろホ説モハニ 一 般若波羅密
し、

〈풀어읽기〉: 一一國土セ 中ろ十 一一佛: 及ハ 大衆: ノ々ヶ 一 各ろ各ろホ 般若波羅密
し 説モハニ 一〈舊仁02:06-7〉

〈15세기 재구〉: 一一國土스 中아히(아기) 一一 佛여 믹 大衆여 호리마다 제제곰 般若波羅密을
니르느기시다

〈현대어〉: 각 國土 가운데 각각 부처와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般若波羅密을 말씀
하고 있다.

〈원문〉: 他方セ大衆: 及ハ以ホ化衆: 此 三 界セ中ろセ衆: ノ 尸 十二大衆 一皆セ來ッろホ
集會ッろ坐ッ白ウ 一ム九劫蓮花座ろ十、

〈풀어읽기〉: 他方セ 大衆: 及ハ 以ホ 化衆: 此 三 界セ 中ろセ 衆: ノ 尸 十二大衆 一 皆
セ 來ッろホ 集會ッろ 九劫蓮花座ろ十 坐ッ白ウ 一ム〈舊仁02:07-8〉

〈15세기 재구〉: 他方스 大衆여 믹 빠곰 化衆여 이 三界스 中엿 衆여 흘 十二大衆은 닛 來ㅎ야
곰 集會ㅎ야 九劫 蓮花座아히 坐ㅎ슬본디

〈현대어〉: 他方의 大衆과 化衆(을 아울러서) (이) 三界의 가운데에 있는 대중이라 할 十二大衆
은 모두 와서 集會하고 九劫 蓮花座에 坐定하였는데

〈원문〉: 其會セ方廣一 九百五十里リ 一 し 大衆リ 僉然キ 而…坐ッモハニ |

〈풀어읽기〉: 其會セ 方廣一 九百五十里リ 一 し 大衆リ 僉然キ 而…坐ッモハニ | 〈舊仁 02:08-9〉

〈15세기 재구〉: 其會ス 方廣은 九百五十里인 大衆이 僉然히 而로 坐흐느기시다

〈현대어〉: 그 회의 사방 넓이가 九百五十里이라 大衆이 모두 함께 (그러므로) 坐定한 것이다.

〈원문〉: 爾セッ 一 時十號リ 三明リ 大滅諦リ 金剛智リ 一 釋迦牟尼佛 一 初セリ
ッ 一 年し 月セ 八日 十 方セ 坐ッニ 十地 十.

〈풀어읽기〉: 爾セッ 一 時十號リ 三明リ 大滅諦リ 金剛智リ 一 釋迦牟尼佛 一
年し 初セリ 一 月セ 八日 十 方セ 十地 十 坐ッニ 十 〈舊仁 02:10-11〉

〈15세기 재구〉: 엇흔(연흔) 卍히 十號이저 三明이저 大滅諦이저 金剛智이저 ㅎ신 釋迦牟尼佛
은 ㅎ를 비릇오흔 ㄷ 八日아히 ㄴ 十地아히 坐흐시하

〈현대어〉: 그때에 十號이며 三明이며 大滅諦이며 金剛智이신 釋迦牟尼佛은 (그) 해가 시작된
달 초팔일에 바로(바야흐로) 十地에 坐定하셔서

5) 고려시대 이문 자료

《대명률직해》는 태조 4(1395)년에 고사경, 김지 등이 중국 명나라 때의 형법전 《대명률》을 이두로 대역하고, 정도전, 당성(唐誠) 등이 윤색한 책이다. 원간 연대는 발문의 연대인 태조 4(1395)년으로 추정되나 원간본은 전하지 않으며, 세종 28(1446)년에 중간되었다. 《대명률》은 조선 전신대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 법(보통법)으로서 적용되었으며, 역사상 외국 법전을 전체적으로 계수한 최초의 예이다. 《대명률직해》는 《대명률》을 원문 그대로 직해한 것이 아니고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관제, 관서명, 직명, 친족호칭을 조선의 명칭과 호칭으로 바꾸었고, 속형의 동전을 오승포로 환산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용어와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오늘날 전해오는 판본은 우리나라에 있는 홍문관본, 비변사본, 규장각본을 비롯하여 일본에 건너 가 있는 내각문고본과 탁족암본 등이 있다. 현대의 복제본은 17

세기의 한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고 여러 이본을 대교하여 활판으로 간행한 《교정 대명률직해》(1936년)와 16세기의 한 중간본을 영인한 《대명률직해》(1986)가 있다. 여기서 《대명률직해》의 일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자.

[대명률직해]

악역(惡逆)

祖父母及父母果夫矣祖父母及父母等乙打傷爲弥, 謀殺爲弥, 父矣兄弟在伯叔父果伯叔妻在母果父矣同生妹在姑果吾矣兄果長妹果母矣父母果夫等乙謀殺爲行臥乎事.(악역은 조부모 및 부모와 남편의 조부모 및 부모들을 타상하거나 모살하며, 부의 형제인 백숙부와, 백숙부의 처 백숙모와 부의 제매인 고모와, 자기의 형과 만누이와, 모의 부모와, 자기 남편 등을 모살하는 일이다.)

부도(不道)

一家內死罪不踰在三人乙殺害爲弥, 他人矣四支乙截割爲弥, 害人毒蟲等物乙畜養爲弥, 魘魅咀呪爲行臥乎事.(불도는 일가 내 사죄 아닌 세 사람을 살해하며, 남의 사지를 절해하며, 남의 생기를 채취하며, 사람을 해치는 독충을 기르며, 염매저주하는 일이다.)

대불경(大不敬)

大廟及陵廟良中神御之物進上車與服用物等乙偷取爲弥, 御印乙偷取及僞造爲弥, 進上藥乙不依本方, 誤錯合造爲齊, 藥封名乙錯書爲齊, 進上飲殮乙誤犯食禁爲齊, 親幸船楫乙誤錯亦堅實造作不冬爲行臥乎事.(대불경은 대묘 및 릉묘에 신어의 물건과, 진상하는 수레 가마와 왕의 복용물 등을 도취하며, 어인을 도취 및 위조하며, 진상하는 약을 본방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못 조제하거나, 약봉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진상하는 식사를 짓는데 잘못하여 식금을 범하거나, 왕이 타는 주선을 잘못하여 견실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일이다.)

불효(不孝)

祖父母果父母果夫矣祖父母果父母果乙訴告爲弥, 惡談罵詈爲弥, 祖父母果父母果現在爲去乙戸別各居, 家財分執爲弥, 奉養欠闕齊, 父母蒙喪良中嫁娶爲齊, 或宴飲作樂或脫喪服爲遣, 着吉服爲齊, 祖父母及父母喪乙聞遣, 隱匿不發爲齊, 生存爲在祖父母及父母乙身故爲乎樣以妄稱爲行臥乎事.(불효는 조부모와 부모와 남편의 조부모와 부모와 부모들을 고소하며, 악담욕설하며, 조부모와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데, 각기 별거하여 가재를 나누어 가지며,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모 몽상중에 시집 장가들거나, 혹은 연음작악하며, 혹은 상복을 벗고 길상복을 입으며, 조부모나 부모의 상사를 듣고도 숨기고 발상하지 아니하며, 생존한 조부모나 부모를 죽은 양으로 거짓 일컫는 일이다.)

불목(不睦)

總麻同姓八寸已上親屬乙殺害爲乎爲作謀爲弥, 放賣爲弥, 其夫及大功同姓四寸已上族長及幼小功同姓五六寸族長等乙打傷爲弥, 訴告爲行臥乎事.(불목은 시마복(석달동안 입는 상복)해야 할 동성팔촌 이상의 친속을 살해하려고 작모하거나 방매하며, 그의 남편과 대공복(대공친의 상사에 9개월동안 입는 복제)해야 할 동성 사촌 이상의 족장이나, 소공복(소공친의 상사에 5개월 동안 입는 복제)해야 할 동성 오륙촌의 족장등을 타상하거나 고소하는 일이다.)

불의(不義)

掌內人民以屬官員乙殺害爲弥, 軍士亦主掌兵馬使副使千戸百戸等乙殺爲齊, 人吏及軍卒等亦本屬五品已上官員乙殺害爲齊, 受訓師傅乙殺害爲齊, 其夫喪乙聞遣, 隱匿不發爲齊, 宴飲作樂爲齊, 脫喪服爲遣, 着吉服爲齊, 他夫乙改嫁爲行臥乎事.(불의는 영내의 인민이 소속한 관원을 살해하며, 군사가 그를 주장하는 병마사 부사 천호 백호 등을 살해하며, 어전과 군졸 등이 소속한 오품 이상의 관원을 살해하며, 자기가 수훈한 스승을 살해하며, 그의 남편의 상을 듣고도 숨기고 발상하지 아니하며, 연음작악하며,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으며, 다른 남편을 개가하는 일이다.)

[미주2] 고려시대 어휘자료

1) 《계림유사》

《계림유사(鷄林類事)》는 송나라의 손목(孫穆)이 숙종 8(1103)년 서장관으로서 고려에 와서 고려의 조제, 풍토, 구선(口宣), 각석 등 고려의 풍물과 함께 고려어 약 360어휘를 채록하여 3권으로 분류하여 편찬한 책이다. 손목이 1103년 사신 유구(劉逵)와 오식(吳拭)을 수행하여 고려에 다녀간 뒤 편찬된 것인데 송대의 《중흥관각서목》과 《수초당서목》에 의하면 《계림유사》 단행본이 전래되다가 원대 지정 26(1366)년 이전에 도종의(陶宗儀)의 《설부》에 일부가 절록된 뒤 소실되었다. 현재 《계림유사》는 원래의 단행본은 전하지 않고 절록본으로서 전해지고 있는데, 《설부》 외에도 중국의 총서인 《오조소설(五朝小說)》, 《오조소설대관》, 《고금도서집성》과 우리나라 정조 때 한치윤(韓致堧)이 지은 《해동역사》 등에 실려 전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계림유사》의 이본은 약 20종이 된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고본으로는 홍콩대학 핑핑산 도서관(馮平山圖書館)에 있는 명대 가정 연간 ‘설부분’과 대만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설부분’을 들 수 있다.

현전하는 《계림유사》의 체제는 각 판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명대 필사본을 중심으로 체제를 종합하여 보면, 표제 부분은 〈계림유사삼권송손목봉사고려국신서상관(鷄林類事三卷宋孫穆奉使高麗國信書狀官)〉으로 되어 있고, 기사 부분은 각 판본에 따라 3분단, 4분단, 또는 9분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전문은 10여 조항으로 동일하다. 또한, 발췌되었기 때문인지 조제와 토풍의 내용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뒤섞여 있다. 역어 부분도 판본에 따라 어휘 배열 체제가 다르나 대부분 ‘방언’이라고 부제를 쓴 밑에 ‘天日 漢捺’로부터 시작하여 ‘淺日 昵低’로 마친다.

《계림유사》에 대한 해독 자료는 방중현(1955), 《계림유사연구》, 연세대학교, 《동방학지》 제2집, 이원식(1973), 〈계림유사약고〉, 《조선학보》, 제67집, 강신항(1980), 《계림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001. 天曰漢桡 [*하늘]/[*하늘]/[*ha-nar], [*han-kiap]
nat]
002. 日曰姁 [*히] 003 ‘契’와 바뀜. [*들]/[*hai], tap]
[*hai]
003. 月曰契 [*들], 002 ‘姁’와 바뀜. ‘得二’ 《화이역어》 참조. [*히]/[*tar], [*tat]
004. 雲曰屈林 [*구름] ‘故論’ 《화이역어》 참조. [*siuə-muət]
구름]/[*ku-rum], [*k’iut-liəm]
005. 風曰字纒 [*바람]/[*바람]/[*pa-rām], [*puət-lam]
006. 雪曰皴 [*눈]/[*눈]/[*nun], [*nuən]
007. 雨曰霏微 [*비]/[*비]/[fi-vi/]/[*pi], [/fi-vi]
008. 雪下曰皴耻 凡下皆曰耻 [*눈 디다/눈 티다]/[*눈티]>눈치다]/[*nun-ti], [*nuən-t’i]
009. 雷曰天動 [*턴동]/[*턴동]>천동]/[*t’jən-top], [*t’ian-təp]
010. 電曰霍 [*미상]/[*우작]/[*pak(sə)], [*huak]
011. 電曰閃 [*미상]/[*섬>섬]
012. 霜露皆曰率 [*서리, 이슬]/[*서리-이슬]/[*sə-ri], [*siuət]
013. 霧曰蒙 [*미상]/[*안개-해무]/[*muŋ]
014. 虹曰陸橋 [*미상]/[*陸橋-무지개]
015. 鬼曰幾心 [*귀신]/[*귀신]/[*kui-sin], [*ki-siəm]
016. 神曰神通 [*신통]/[*신통]
017. 佛曰孛 [*미상]/[*불]
018. 仙人曰遷 [*선신]/[*선신]>선인]
019. 一曰河屯 [*흔]/[*흔]/[*ha-tan], [*ha-t’uən]
020. 二曰途孛 [*툴]/[*두불>두불>두울]/[*tur(h)], [*tu-pur], [*t’uə-puət]
021. 三曰酒 廝乃切 [*세]/[*서이]/[*səi(h)], [*sa], [*sai]
022. 四曰泗 [*네]/[*네이]/[*nəi(h)], [*nai]
023. 五曰打戩 [*다섯]/[*다섯], [다섯]/[*ta-sas], [*ta-siuət]
024. 六曰逸 [*여섯]/[*여섯]/[*jə-sis], [*iət-siuət]
025. 七曰一急 [*닐곱]/[*닐곱]/[*nir-kup], [*iət-
026. 八曰逸答 [*여덟]/[*야답]/[*jə-tirp], [*iət-
027. 九曰鴉好 [*아홉]/[*아홉]/[*a-hop], [*a-hau]
028. 十曰噎 [*열]/[*열]/[*jər(h)], [*iat]
029. 二十曰戔戔 [*스믈]/[*스믈]/[*si-mir(h)], [*siuə-muət]
030. 三十曰實漢 [*설흔]/[*설흔]/[*sjər-hin], [*siət-han]
031. 四十曰麻兩 [*마흔]/[*마흔]>마흔]/[*ma-zan], [*ma-zjən]
032. 五十曰舜 [*쑤]/[*쑤]/[*suin], [*siuən]
033. 六十曰逸 [*여섯]/[*예쑤]/[*jə-sjuin], [*iət-sjuən]
034. 七十曰一短 [*닐흔]/[*일흔]/[*nir-hin], [*iət-tuan], [*iət-hiuan]
035. 八十曰逸頓 [*여든]/[*야든]/[*jə-tin], [*iət-tuən]
036. 九十曰鴉順 [*아흔]/[*아흔]/[*a-han], [*a-hiuan]
037. 百曰醞 [*온]/[*온]/[*on], [*iuən]
038. 千曰千 [*천]/[*천]/[*c’jən], [*ts’ian]
039. 萬曰萬 [*만]/[*만]/[*man], [*van]
040. 旦曰阿慘 [*아침]/[*아침]/[*a-c’am], [*a-ts’am]
041. 午曰稔宰 [*나직]/[*나직]/[*na-cai], [*niap-tsai]
042. 暮曰占棕 [*저믈]/[*저믈]/[*c’jə-mir], [*tsiam-muət]
043. 前曰記載 [*그제]/[*그제]/[*ki-cai], [*ki-tsai]
044. 昨日曰訖載 [*어제]/[*어제]
045. 今日曰烏棕 [*오늘]/[*오늘]/[*o-nar], [*uə-nat]
046. 明日曰轄載 [*니일]/[*미상]/[*hu-cai], [*hat-tsai]
047. 後曰日母魯 [*모로]/[*모루]/[*mo-roi], [*mæu-luə]
048. 約明日至日轄烏受勢 [*오슈서]/[*오쇼서]/

- [*hu-cai-'o-sjo-sjə], [*hat-tsai-'uə-sjəu-si]
049. 年春夏秋冬 [*히], 춘, 하, 추, 동]/[*년, 춘, 하, 추, 동]
050. 上曰頂 [*뎡]/[*뎡]/[*tiəŋ], [*tiəŋ]
051. 下曰底 [*더]/[*디다]/[*ti]
052. 東西南北 [*동, 서, 남, 북]/[*동, 서, 남, 북]
053. 土曰轄希 [*홀]/[*홀]/[*hark], [*hat-hi]
054. 田曰田 [*뎡]/[*뎡]
055. 火曰字 [*불]/[*불]/[*pir], [*puət]
056. 山曰每 [*뫼]/[*뫼]/[*moi(h)], [*muai]
057. 石曰突 [*돌]/[*돌]/[*tor(h)], [*t'uət]
058. 水曰沒 [*몰]/[*몰]/[*mir], [*muət]
059. 海曰海 [*히]/[*히]
060. 江曰江 [*강]/[*강]
061. 溪曰溪 [*계]/[*계]
062. 谷曰丁蓋 [*골개]/[*골개]/[*tiəŋ-kai]
063. 泉曰泉 [*천]/[*천]
064. 井曰烏沒 [*우몰]/[*우몰]/[*u-mir], [*uə-muət]
065. 草曰戌 [*새]/[*새]/[*siuət]/[*sup(p')], [*siuət]
066. 花曰骨 [*꽃]/[*꽃]/[*koc(s)], [*kuət]
067. 木曰南記 [*남기]/[*남기]/[*nam-k(i)], [*nam-ki]
068. 竹曰帶 [*대]/[*대]/[*tai], [*tai]
069. 果曰果
070. 栗曰監 鎖檻切 [*밤]/[*밤]/[*pam], [*p'am]
071. 桃曰枝棘 [*복성]/[*복사]/[*tʃi-kiək]
072. 松曰鮓子南 [*жат나모]/[*жат나모]/[*cas-nam], [*tʃa-tsi-nam]
073. 胡桃曰渴來 [*마래]/[*가래]/[*ka-rai], [*k'at-lai]
074. 柿曰坎 [*감]/[*감]/[*kam], [*k'am]
075. 梨曰敗 [*빅]/[*빅]/[*pai], [*pai]
076. 林檎曰悶子訖 [*냉금]/[*냉금]/[*mun-z-pai], [*muən-tsi-fu]
077. 漆曰黃漆 [*황칠]/[*황칠]/[*hwaŋ-c'ir], [*hwaŋ-ts'iat]
078. 菱曰質姑 [*질고]/[*질고]/[*tʃi-kuə]
079. 雄曰鵠試 [*수]/[*수]/[*su(h)], [*huət-si]
080. 雌曰暗 [*암]/[*암]/[*am(h)], [*am]
081. 雞曰喙 [*돛]/[*돛]/[*Lark], [*tat]
082. 鶯曰漢賽 [*한새]/[*한사이]/[*han-sai], [*han-sai]
083. 鳩曰于雄 [*비들기]/[*비들기]/[*iuə-'iəŋ]
084. 雉曰雉賽 [*티새]/[*티새]/[*skwəŋ-sai], [*tj-sai]
085. 鴿曰弼陀里 [*비두리]/[*비두리]/[*pi-tu-ri], [*piət-t'a-li]
086. 鵲曰渴則寄 [*가치]/[*가치]/[*ka-c'i], [*k'at-tsək-ki]
087. 鶴曰鶴 [*학]/[*학]/[*hak], [*hak]
088. 鴉曰柯馬鬼 [*가마괴]/[*가마괴]/[*ta-ma-k(i)uəi]
089. 雁曰哭利弓幾 [*그려기]/[*그려기]/[*ki-rjə-ki], [*k'ək-li-kiəŋ-ki]
090. 隼曰笑利象畿 [*그려기]/[*소뢰기]/[*so-ro-(ki)-tar-ki], [*siau-li-t'uan-ki]
091. 禽皆曰雀譚 [*새]/[*새]/[*tsiak-t'am]
092. 雀曰賽斯乃反 [*새]/[*사이]/[*sai], [*sai]
093. 虎曰監浦南切 [*범]/[*범]/[*pəm], [*p'am]
094. 牛曰曉 [*쇼]/[*쇼]/[*sjo], [*siau]
095. 羊曰羊 [*양]/[*양]
096. 猪曰突 [*돌]/[*돌]/[*tot'], [*t'uət]
097. 犬曰家穢 [*가히]/[*가히]/[*ka-hi], [*ka-hi]
098. 猫曰鬼尼 [*괴]/[*괴모]/[*ko-ni], [*k(i)uəi-ni]
099. 鼠曰𧔒 [*쥐]/[*쥐]/[*cui], [*ts(i)uəi]
100. 鹿曰鹿 [*록]/[*록]
101. 馬曰末 [*몰]/[*몰]/[*mʌr], [*mua]
102. 乘馬曰轄打 [*탁]/[*타]/[*har-t'a], [*hat-ta]
103. 皮曰渴翅 [*가치]/[*가치]/[*kac(i)], [*k'at-si], [*tʃ'i]
104. 毛曰毛 [*모]/[*모]
105. 角曰角 [*각]/[*각]
106. 龍曰稱 [*미르]/[*미르]/[*ka'i]
107. 魚曰水脫 剔曰切 [*수달]/[*수달괴]/[*s(i)uəi-t'iaŋ]

108. 驚曰團 [*단]/[*단]
 109. 蟹曰慨 [*게]/[*거이]/[*kai], [*k'ai]
 110. 鯁曰必 [*필]/[*필]/[*piət]
 111. 螺曰蓋慨 [*짜개]/[*짜개]/[*kai-k'ai], [*kai-k'ai]
 112. 蛇曰蛇 [*샤]/[*샤]
 113. 蠅曰蠅 [*승]/[*승]
 114. 蠟曰蠟 [*루]/[*루의]
 115. 蠟曰裾 [*니]/[*니]/[*ni], [*ni]
 116. 蛋白批勒 [*벼록]/[*벼록]/[*pja-rrok], [*p'i-lak]
 117. 幾曰側根施 [미상]/[*주근니]/[*tɕiək-kən-si]
 118. 墓曰蛇鋪 [*돛거비]/[*돛거비]/[*p'uə]
 119. 人曰人 [*인]/[*인]
 120. 主曰主 [*쥬, *님]/[*쥬, *님]
 121. 客曰孫命 [*손]/[*손]/[*son-nim], [*suən-miəŋ]
 122. 官曰眞理 [*원]/[*원님]/[*wən], [*'iuan-li]
 123. 土曰進 寺修切 [*딘즈]/[*딘즈]/[*sɕjən-pai], [*sɕiən]
 124. 吏曰主事 [*쥬스]/[*쥬사]
 125. 商曰行身 [*행신]/[*행상]/[*həŋ-siən]
 126. 工匠曰把指 [*마지]/[*마지]/[*pa-ci], [*pa-tɕi]
 127. 農曰宰把指 [*직바지, *녀름지시]/[*직바지]/[*tsai-pa-tɕi]
 128. 兵曰軍 [*군, *군스]/[*군, *군사]
 129. 僧曰福田 [*복던]/[*복던]
 130. 尼曰阿尼 [*아니]/[*아니]/[*a-ni], [*a-ni]
 131. 遊子曰浮浪人 [*부랑인]/[*부랑인]
 132. 丐曰丐剝 [*거러치, *걸방이]/[*거랑방]/[*kəs-βas], [*kai-pak]
 133. 倡曰水作 [*쥬체]/[*쥬체, 미상]/[*su-ca(h)], [*ɕ(i)uəi-tsa]
 134. 盜曰婆兒 [*바술]/[*빠앗다]/[*pa-zɔ], [*p'ua-zɔ]
 135. 倡人之子曰故作 [*고자]/[*고자]/[*ko-cja], [*kuə-tsa]
 136. 樂工曰亦故作 多倡人子爲之 [*교자]/[*교자]
 137. 稱我曰能奴少 [*내, *나]/[*내, *나]/[*nai], [*nai]
 138. 問你汝誰何曰餽箇 [*누구, *누고]/[*누구]/[*nu-ko], [*nuai-ka]
 139. 祖曰漢了秘 [*한아비]/[*한아비]/[*하나비]/[*han-'a-pi], [*han-'a-pi]
 140. 父曰子了秘 [*아비]/[*아비]/[*a-pi], [*a-pi]
 141. 母曰了秘 [*어미]/[*어미]/[*ə-mi], [*a-mi]
 142. 伯叔亦皆曰了查秘 [*아자비]/[*아자비]/[*a-ca-pi], [*a-tɕa-pi]
 143. 叔伯母皆曰了子彌 [*아즈미]/[*아즈미]/[*a-ca-mi], [*a-tsi-mi]
 144. 兄曰長官 [*당관]/[*당관]/[*t'iaŋ-kuan]
 145. 嫂曰長漢吟 [*당한음]/[*하님]
 146. 婦曰娉妹 [미상]/[*남매]/[*-muai]
 147. 男子曰吵喃 [*스나히]/[*스나히]/[*스나히]사래]/[*sa-na-hi], [*sa-nam]
 148. 弟曰了兒 [*아스]/[*아스]/[*a-za], [*a-zi]
 149. 妹曰了慈 [*이즈]/[*이즈]/[*a-za], [*a-tɕi]
 150. 女子曰漢吟 [*하님]/[*하님]/[*ha-nim], [*han-ŋiəm]
 151. 自稱其夫曰沙會 [*사회]/[*사회]/[*sa-hoi], [*sa-huai]
 152. 妻亦曰漢吟 [*하님]/[*하님]/[*ha-nim], [*han-ŋiəm]
 153. 自稱其妻曰細婢 [미상]/[미상]/[*si-pi]
 154. 男兒曰了姐 [*아들]/[*아들]/[*a-tar], [*a-tat]
 155. 女兒曰寶姐 [*쥬]/[*쥬]/[*ptar], [*pau-tat]
 156. 父呼其子曰了加 [*아가]/[*아가]/[*a-ka], [*a-ka]
 157. 孫曰了村了姐 [*아촌아들]/[*아촌아들]/[*a-c'an-'a-tar], [*a-ts'uən-'a-tat]
 158. 舅曰漢了秘 [*한아비]/[*한아비]/[*han-'a-pi], [*han-a-pi]
 159. 姑曰漢了彌 [*한아미]/[*한아미]/[*han-'ə-mi], [*han-'a-mi]

160. 婦曰了村 [*아촌]/[*아촌]/[*a-c'an], [*a-ts' uən]
161. 母子兄曰訓鬱 [*훈울]/[*훈울]/[*hiuən-iuət]
162. 母子弟曰次鬱 [*차울]/[*차울]/[*ts'i-iuət]
163. 姨姑亦皆曰了子彌 [*아즈미]/[*아즈미]/[*a-ca-mi], [*a-tsi-mi]
164. 頭曰麻帝 [*마리]/[*머리]/[*ma-ti], [*ma-ti]
165. 髮曰麻帝核試 [*마리헤시]/[*마리칼]/[*ma-ti-hæik-si]
166. 面曰棕趨 [*늑치]/[*늑치]/[*nas(c')], [*nat-si]
167. 眉曰蹠步 [*섭]/[*섭]/[*nun-səp], [*nuən-siap]
168. 眼曰嫩 [*눈]/[*눈]/[*nun], [*nuən]
169. 耳曰愧 [*귀]/[*귀]/[*kui], [*k(i)ui]
170. 口曰邑 [*입]/[*입]/[*ip], [*iap]
171. 齒曰你 [*니]/[*니]/[*ni], [*ni]
172. 舌曰竭 [*혀]/[*혀]/[*hjə], [*hiat]
173. 面美曰棕趨朝勳 [*늑치도호]/[*늑치도호]/[*na-c'i-tjo-han], [*nat-si-tiau-hiuən]
174. 面醜曰棕趨沒朝勳 [*늑치문도호]/[*늑치문도호]/[*na-c'i-mot-tjo-han], [*nat-si-muat(muə?)-tiau-hiuən]
175. 心曰心 音尋 [*심]/[*심]
176. 身曰門 [*몸]/[*몸]/[*mom], [*muən]
177. 胸曰軻 [*가슴]/[*가슴]/[*ka-sam], [*k'a-]
178. 背曰腿馬末 [*미상]/[*미상]/[*t'uai-ma-muat]
179. 腹曰擺 [*빅]/[*빅]/[*pai], [*pai]
180. 手曰遜 [*손]/[*손]/[*son], [*suən]
181. 足曰潑 [*발]/[*발]/[*par], [*p'uat]
182. 肥曰骨鹽眞 赤曰鹽骨易成 [*기름진]/[*기름진]/[*jəm-kir-i-sjə], [*iam-kuət-iək-ts'ieŋ]
183. 瘦曰安里鹽骨眞 [*아니 기름진]/[*아니 얹그진]/[*a-ni-jəm-kir-(cin)], [*an-li-iam-kuət-tšien]
184. 洗手曰遜時蛇 [*손시서]/[*손시서]/[*son-si-sə], [*suən-si-sia]
185. 凡洗濯曰時蛇 [*사셔]/[*사셔]/[*si-sə], [*si-sia]
186. 白米曰漢菩薩 [*흰쌀]/[*흰쌀]/[*흰쌀]/[*hain-psar]/[*han-p'ua-sat]
187. 粟曰田菩薩 [*조쌀]/[*조쌀], [*좁쌀]/[*co(p)-psar], [*t'ian-p'ua-sat]
188. 麥曰密頭目 [*밀]/[*밀]/[*t'ai], [*t'ai]
189. 大穀曰麻帝骨 [*미상]/[*ma-ti-kok], [*ma-ti-kuət]
190. 酒曰酥亨 [*술]/[*수불]/[*수불]/[*수을]/[*술]/[*su-pur], [*suə-puət]
191. 醋曰生根 [*초]/[*새근]/[*siin-kəs], [*səŋ-kən]
192. 醬曰密祖 [*머주]/[*머주]/[*mjə-cu], [*miət=tsua]
193. 鹽曰蘇甘 [*소곰]/[*소곰]/[*so-kom], [*suə-kam]
194. 油曰畿入聲林 [*기름]/[*기름]/[*ki-rim], [*ki-liəm]
195. 魚肉皆曰姑記 [*고기]/[*고기]/[*ko-ki], [*kuə-ki]
196. 飢曰朴舉 [*밥]/[*밥]/[*pap], [*p'ak-kiə]
197. 粥曰謨 倣一作 [*모주]/[*모주]/[*muə-tsua]
198. 茶曰茶 [*차]/[*차]/[*c'a], [*ta]
199. 湯水 [*탕, *물]/[*탕]
〈民〉湯曰湯水〈古〉〈五〉湯曰水
200. 飲酒曰酥李麻蛇 [*수불 마셔, 마샤]/[*술마셔, 마셔]/[*su-pur-ma-sjə], [*suə-puət-ma-sia]
凡飲皆曰麻蛇[*ma-sjə], [*ma-sia]
201. 煖酒曰蘇亨打里 [*수불다리]/[*술다리]/[*su-pur-ta-ri-(ta)], [*suə-puət-ta-li]
凡安排皆曰打里 [*다마즈]/[*다마즈]/[*ta-li]
202. 勸客飲盡食曰打馬此 [*다마즈]/[*다마즈]/[*ta-ma-c'a], [*ta-ma-ts'i]
203. 醉曰蘇亨速 [*수불소]/[*술취]/[*suə-puət-sək]
204. 不善飲曰本道安排麻蛇 [*본되 아니 마셔]/[*본되 아니 마셔]/[*pon-tai-a-ni-ma-sjə], [*puən-tau-an-li-ma-sia]
205. 熟水曰泥根沒 [*니근물]/[*니근물]/[*ni-kin-

- mir], [ˈni-kən-muət]
206. 冷水曰時根沒 [*시근물]/[*si-kin-mir], [ˈʃi-kən-muət]
207. 飽曰擺咱七加反 [*빅차]/[*빅차]/[*pai-cʰa], [ˈpai-tsʰaʼ-an-li]
208. 飢曰擺咱安理 [*빅차 아니]/[*빅차 아니]/[*pai-cʰaʼ-a-ni], [ˈpai-tsʰaʼ-an-li]
209. 金曰那論義 [*노론이]/[*노랑이]/[*nu-rən-soi], [ˈna-luən-s(i)uə]
210. 珠曰區戊 [*구슬]/[*구슬]/[*ku-sir], [ˈkʰuə-siuət]
211. 銀曰漢歲 [*한쇠]/[*한쇠]/[*hɛn-soi], [ˈhan-s(i)uə]
212. 銅曰銅 [*동]/[*동]/[*top], [ˈtʰəŋ]
213. 鐵曰歲 [*쇠]/[*쇠]/[*soi], [ˈs(i)uə]
214. 絲曰絲 [*스]/[*스]/[*sɛ], [ˈsi]
215. 麻曰三 [*삼]/[*삼]/[*sam], [ˈsam]
216. 羅曰速 [*느]/[*느]/[*sək]
217. 錦曰錦 [*금]/[*금]/[*kim], [ˈkiəm]
218. 綾曰菩薩 [*쌀]/[*미상]/[*pʰuə-sat]
219. 絹曰及 [*깃]/[*깃]/[*kip], [ˈkiəp]
220. 布曰背 [*벼]/[*벼]/[*poi], [ˈpuai]
221. 苧曰毛 [*모시]/[*모시]/[*mo-si], [ˈmau-si]
222. 苧布曰毛施背 [*모시벼]/[*모시벼]/[*mo-si-poi], [ˈmau-si-puai]
223. 幘頭曰幘頭 [*복도]/[*복도]/[*pok-to], [ˈpək-tʰəu]
224. 帽子曰帽 [*모]/[*모]/[*mo], [ˈmau]
225. 頭巾曰土捲 [*두건]/[*두건]/[*tu-kən], [ˈtʰuə-kiuan]
226. 袍曰袍 [*포]/[*포]/[*pʰo], [ˈpʰau]
227. 帶曰腰帶 亦曰謁子帶 [*요띠]/[*요띠]/[*jo-tai], [ˈʰiau-tai], [ˈjo-z-tai], [ˈiat-tsi-tai]
228. 皂衫曰軻門 [*가든]/[*가든]/[*kə-mɛn], [ˈka-muən]
229. 被曰泥不 [*니블]/[*니블]/[*ni-pir], [ˈni-fuət]
230. 袴曰珂背 [*마뵤]/[*마뵤]/[*kʰa-poi], [ˈkʰa-puai]
231. 袂曰安海珂背 [*안해마뵤]/[*안해마뵤]/[*ʰan-hai-kʰa-poiʰ(oi)], [ˈʰan-hai-kʰa-puai]
232. 裙曰裙 [*군]/[*군]/[*kun], [ˈkʰiuan]
233. 鞋曰盛 [*신]/[*신]/[*sin], [ˈtʰʃiəŋ], [ˈcʰjəŋ], [ˈtʰʃiəŋ], [ˈsin], [ˈʃiəŋ]
234. 襪曰背戌 [*보선]/[*보선]/[*po-sjən], [ˈpuai-tʃiəŋ], [ˈpo-sjən], [ˈpuai-ʃiəŋ]
235. 女子蓋頭曰子母蓋 [*자모개], [미상]/[*tsi-məu-kai]
236. 針曰板棕 [*바늘]/[*바늘]/[*pa-nɛr], [ˈpan-nat]
237. 夾袋曰南子木蓋 [*남자모개]/[*남자모개] [미상]/[*nam-tsi-mək-kai]
238. 女子勒帛曰質帶 [*실썩]/[*실썩]/[*sir-stii], [ˈʃiət-tai]
239. 綿曰質 [*실]/[*실]/[*sir], [ˈʃiət]
240. 繡曰繡 [*슈]/[*슈]/[*sju], [ˈʃiəu]
241. 白曰漢 [*한]/[*한]/[*hɛn], [ˈhan]
242. 黃曰那論 [*노론]/[*노란]/[*nu-rən], [ˈna-luən]
243. 靑曰靑 [*청]/[*청]/[*cʰjəŋ], [ˈtʰʃiəŋ]
244. 紫曰質背 [*지뵤]/[*지뵤] [미상]/[*tit-poi], [ˈtʃiət-puai]
245. 黑曰黑 [*흑]/[*흑]/[*hik], [ˈhək]
246. 赤曰赤 [*적]/[*적]/[*cʰjək], [ˈtʰʃiək]
247. 紅曰眞紅 [*진홍]/[*진홍]/[*cin-hoŋ], [ˈtʃiən-həŋ]
248. 緋曰緋 [*바]/[*바]/[*pai], [ˈfi]
249. 染曰沒涕里 [*물 드리]/[*물 드리]/[*mir-ti-ri], [ˈmuət-tʰi-li]
250. 秤曰雌字 [*저블]/[*저울]/[*cə-purʰ(ʉr)], [ˈtsʰi-puət]
251. 尺曰作 [*자]/[*자]/[*ca(h)], [ˈtsa]
252. 升曰力音佳 [*되]/[*되]/[*toi], [ˈtuai]
253. 斗曰抹 [*말]/[*말]/[*mar], [ˈmuat]
254. 印曰印 [*인]/[*인]/[*in], [ˈʰiən]
255. 車曰車 [*차]/[*차]/[*cʰja], [ˈtʃiʰa]
256. 船曰擺 [*배]/[*배]/[*pai], [ˈpai]

257. 席曰筵音筵 [*둥]/[*둥]/[*tiŋ-(mɔi)], [*təŋ] tsi]
258. 席薦曰質薦 [*지즙]/[*지즙]/[*ci-cir(k)], [*tʃiət-tsiən]
259. 椅子曰馳馬 [*티마]/[*티마]/[*to-ma], [*t'a-ma]
260. 卓子曰食床 [*식상]/[*식상]/[*sik-saŋ], [*ʃiək-tʃiəŋ]
261. 林曰林(林) [*상]/[*상]
262. 燭曰火炬 [*화거]/[*화거]/[*hwa-kə], [*hwa-kə]
263. 簾曰簾 [*발]/[*발]/[*par], [*pak]
264. 燈曰活黃 [*활황]/[*호롱]/[*hwaet-huan] *호롱
265. 下曰簾箔 [*발티라]/[*발티라]
266. 簾曰枯字 [*고블]/[*궤]/[*ko-por], [*kuə-puət]
267. 耻曰囁 [*취립]/[*취립]/[*par-t'i-kə-ra], [*pak-t'i-kiuə-la]
- 傘曰聚笠 [*sju-rup], [*tsiuə-liəp]
268. 扇曰孛采 [*부척]/[*부척]/[*pu-c'ai(c'ai)], [*puət-ts'ai]
269. 笠曰蓋音渴 [*갓]/[*갓]/[*kat], [*k'at]
270. 梳曰苾音必 [*빗]/[*빗]/[*pis], [*piət]
271. 篋曰類希 [*빈혀]/[*빈혀]/[*pin-hjə], [*p'iən-hi]
272. 齒刷曰養支 [*양지]/[*양지]/[*'jaŋ-ci], [*iaŋ-tʃi]
273. 合曰合子 [*합자]/[*합자] [미상]/[*hap], [*hap-(tsi)]
274. 盤子曰盤 [*반]/[*반]/[*pan], [*p'uan]
275. 瓶曰瓶 [*병]/[*병]/[*piŋ], [*p'iəŋ]
276. 銀瓶曰蘇乳 [*소용]/[*소용]/[*suə-z'iuə]
277. 酒注曰瓶訖 [미상]/[*p'iəŋ'-uan]
278. 盞盤曰臺盤 [*딤반]/[*딤반]
279. 釜曰吃枯吃反 [*술]/[*술]/[*k'iək]
280. 盆曰雅數耶 [*아수야]/[*아수야] [미상]/[*pa-siuə-'ia]
281. 鬲曰宰 [*적]/[*술]/[*sot], [*suət]
282. 碗曰已顯 [미상]/[*사발]/[*si-hian]
283. 櫟曰櫟至 [*덥시]/[*덥시]/[*tjəp-si], [*tiap-kə]
284. 盂曰大耶 [*대야]/[*대야]/[*tai-'ja], [*tai-'ia]
285. 匙曰戔 [*술]/[*술]/[*sur], [*siuət]
286. 茶匙曰茶戔 [*차술]/[*차술]/[*c'a-sur], [*t'a-siuət]
287. 箸曰折七吉反 [*절]/[*절]/[*cə], [*c'jə], [*tʃiət]
288. 沙羅曰戎羅 又曰敖耶 [*수라]/[*소라]/[*so-ra] [siuət-la], [*'pau-'ia]
289. 硯曰皮盧 [*벼로]/[*벼로]/[*pjə-ro], [*p'i-luə]
290. 筆曰皮盧 [*본]/[*본]
291. 紙曰垂 [*조히]/[*조히]/[*tʃ'iui]
292. 墨曰墨 [*먹]/[*먹]/[*mæk], [*mæk]
293. 刀子曰割 [*갈]/[*갈]/[*kar], [*kat]
294. 剪刀曰割子蓋 [*갈지개]/[*가시개]/[*kʌz-kai(kʌzgai)], [*kat-tsi-kai]
295. 骰子曰節 [*절]/[*절]/[*tsiat]
296. 鞭曰鞭 [*편]/[*편]/[*p'jən], [*p'ian]
297. 鞍曰末鞍 [*몰안]/[*몰안]/[*mar-'an], [*muat-'an]
298. 轡曰轡 [*비]/[*비]/[*pi], [*pi]
299. 鼓曰濮 [*붐]/[*붐]/[*pup'], [*pök]
300. 旗曰旗 [*기]/[*기]/[*kii], [*k'i]
301. 弓曰活 [*활]/[*활]/[*hwar], [*huat]
302. 箭曰薩 亦曰矢 [*살]/[*살]/[*sar], [*sat]
303. 劍曰長刀 [*당도]/[*당도]/[*tjaŋ-tau]
304. 火刀曰割刀 [*갈도]/[*훈도]/[*hiuən-tau], [*kat-tau]
305. 斧曰烏子蓋 [*오지개]/[*돛기]/[*o-ci-kai], [*'uə-tsi-kai]
306. 炭曰蘇成 [*숯]/[*숯]/[*sus(k)-su(c')], [*suə-tʃiəŋ(siuə)]
307. 柴曰亭南木 [*불나모]/[*불나모]/[*pir-na-mo], [*puət-nam-mək]
308. 香曰寸 [*촌]/[*촌]/[*ts'uan]
309. 索曰鄒 又曰朴 [*노. *바]/[*노. *바]/[*no], [*na], [*pa], [*p'ak]
310. 索縛曰那沒香 [*노모향]/[*노모독]/[*no-mus-kə], [*na-muat-hiaŋ]

311. 射曰活索 [*활쏘]/[*활쏘]/[*hwar-so], [*huat-sak]
312. 讀書曰乞鋪 [*글보]/[*글보]/[*kir-po], [*k'iat-p'ua]
313. 寫字曰乞核薩 [*글히슬]/[*글써]/[*kir-ki-zir], [*k'iat-hak-sat]
314. 書曰乞林 [*그림]/[*그림]/[*ki-rim], [*k'ia?-liəm]
315. 榜曰栢子 [*빅죽]/[*미상]/[*pak-tsi]
316. 寢曰作之 [*자]/[*자지]/[*ca-ci], [*tsa-tsi]
317. 興曰你之 [*니지]/[*니지]/[*ni-ci-ni-tsi]
318. 坐曰阿則家囉 [*아즉가라]/[*아자거라]/[*'an-ca-kə-ra], [*'a-tsək-ka-la]
319. 立曰立 [*립]/[*립]
320. 臥曰乞寢 [*그침]/[*취침] [미상]/[*k'iat-ts'iam]
321. 行曰欺臨 [*거름]/[*거름]/[*kə-rim], [*k'i-liəm]
322. 走曰連音打 [*연음타]/[*늘은다]/[*njən-ta], [*lian-'iən-ta]
323. 來曰鳥囉 [*오라]/[*오라]/[*'o-ra], [*'ua-la]
324. 去曰匿家入囉 [*니가라]/[*니거라]/[*ni-kə-(ci-ra)], [*ni-ka-zjəp-la]
325. 笑曰胡臨 [*우슴]/[*우슴]/[*huə-liəm]
326. 哭曰胡住 [*우름]/[*우름]/[*huə-tjuə]
327. 客至曰孫鳥囉 [*손오라]/[*손오라]/[*son-'o-ra], [*suən-'ua-la]
328. 有客曰孫集移室 [*손집이실]/[*손집이서] [*son-cip-'i-sir], [*suən-tsiəp-'i-siət]
329. 客入曰屋裏坐少時 [*오리좌쇼시]/[*이리안즈쇼시]/[*o-ra-cu-sjo-sjə], [*ua-li-tsua-siau-si]
330. 語話曰替里受勢 [*미상]/[*드리쇼서], [*ti-rə-sjo-sjə], [*t'i-li-siau-si]
331. 擊考曰屋打理 [*옥다리]/[*옥다리]/[*'ua-ta-li]
332. 決罪曰滅知衣底 [미상], [*못되다]/[*miat-ti]
333. 借物皆曰皮離受勢 [*비리쇼서]/[*비리쇼션]/[*pi-ri-sjo-sjə], [*p'i-li-siau-si]
334. 問此何物曰設審 [*설심]/[*므슨]/[*mi-sim], [*muət-siəm]
335. 乞物曰念受勢 [*념쇼서]/[*념쇼서]/[*-sjo-sjə], [*niam-siau-si]
336. 問物多少曰密翅易成 [*며치이서]/[*며치이서]/[*mjə-c'i-'i-sjə], [*miət-si-'iək-tɕiəŋ(sjəŋ)]
337. 凡呼取物皆曰都囉 [*도라]/[*도라]/[*to-ra], [*tuə-la],
338. 相別曰羅數少時 [*라회쇼시]/[*여회쇼서]/[*'jə-hi-sjo-sjə], [*la-hi-siau-si]
339. 凡事之畢皆曰得 [*득]/[*되]/[*ta], [*tək]
340. 勞問曰雅蓋 [*아개]/[*애개]/[*'a-kai]
341. 生曰生 [*싱]/[*싱]/[*saiŋ-səŋ]
342. 死曰死 [*스]/[*사]/[*sə-si]
343. 老曰刀斤 [*도근]/[*늘근]/[*nir-kin], [*liək-kin]
344. 少曰亞退 [*아퇴]/[*애티]/[*'a-c'an], [*'a-t'uai]
345. 存曰隆囉 [*사라]/[*사라]/[*sa-ra], [*sat-la]
346. 亡曰朱幾 [*주거]/[*주거]/[*cu-kə], [*tɕiuə-ki]
347. 有曰移實 [*이실]/[*이실]/[*'i-sir], [*'i-siət]
348. 無曰不鳥實 [*업실]/[*업실]/[*'əp-sir], [*'uə-fuət-siət]
349. 大曰黑根 [*흑근]/[*흑근]/[*hək-kən]
350. 小曰胡根 [*효근]/[*효근]/[*hjo-kin], [*ho-kən], [*huə-kən]
351. 多曰覺合及 [*흔호거]/[*흔하저]/[*hin-ha-ti], [*hien-ha-tsi]
352. 少曰阿捺 [*아날]/[*가날]/[*'a-nat]
353. 高曰那奔 [*노푼]/[*노푼]/[*no-p'an], [*na-puən]
354. 低曰捺則 [*늑죽]/[*늑죽]/[*nə-cək], [*nat-tsək]
355. 深曰及欣 [*깊흔]/[*기흔]/[*ki-p'in], [*kiəp-hiən]
356. 淺曰眼底 [*너튼]/[*njə-t'i], [*ŋan-ti]

2)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이 책은 본래 고려시대 고종 23(1236)년경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던 대장도감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뒤 태종 17(1417)년 7월 경상도의 흥현(義興縣, 군위군 의흥면)에서 중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둘 다 전하지 않고 1417년 간본 1부가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비장되어 있을 뿐이다. 이 책의 책명으로 되어 있는 '향약'이라는 말은 향토에서 산출되는 약재를 의미한 것인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약을 당재 혹은 당약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총칭이다. 고려 중기 후반 경에 해당되는 고종 때 이 책을 간행하게 된 것은 종래에 많이 사용되어 오던 외국산 약재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향약으로 충당하고자 한 것인데, 이때부터 우리 의학을 자주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향약 자립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상, 중, 하 3권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에 각 병명 아래 그 병에 해당되는 여러 종류의 치료 방법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약명에는 속명들로서 주해하였다. 복약방법으로서 식전, 식후, 공복 등이 구분되었으며, 복약의 금기와 포(炮), 초(炒), 구(灸), 배(焙) 등의 제약법과 용약에 관한 중량들이 적혀 있어서 구급의 실용에 편의하도록 편집되어 있다.

부록으로 향약목, 초부(草部) 아래 향약 180종에 대한 속명과 약미(藥味), 약독(藥毒), 채취 방법들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180종의 향약명은 한자어 아래 향명(鄉名)이라 하여 차자표기로 당시 우리말을 기록하고 있어 고려시대 우리말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구급방이 간행되던 고려 중기 이후 말기는 향약의 연구가 점차 확충되어 많은 향약의 방서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예로 《삼화자향약방》을 비롯하여 《향약고방》, 《향약혜민방》 등 수종의 향약방서들을 들 수 있다.

이 구급방에 수록된 향약들은 고려시대의 고전어의 연구와 그 시대의 이두식 한자의 사용법을 고증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그 시대의 본초학 내지 약용식물들의 연구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헌이다. 향명의 표기법은 차자표기법의 여러 모습을 잘 보여준다. 즉 '山梅子(郁李)', '朝生'落花生(牽牛子)'와 같

이 음독자(音讀字)만으로 표기된 것, ‘馬屎木, 오좁나무(莠)’, ‘精朽草, 솜서근풀(黃芩)’과 같이 훈독자(訓讀字)만으로 표기된 것, ‘鳥伊, 麻, 새삼(菟絲子)’, ‘影’伊, 汝乙伊, 그르메너홀이(蠅蠅)’와 같이 훈독자의 발음을 가자(假字)로 첨기한 것, ‘道羅次, 도랏(桔梗)’, ‘伊屹烏音, 이홀음(通草)’과 같이 음가자(音假字)만으로 표기된 것, ‘加火左只, 더블자기(茵陳蒿)’, ‘月老, 뢰(藺)’와 같이 훈가자(訓假字)와 음가자가 혼용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기법은 삼국시대부터 시대의 변천과 함께 발달되어 온 여러 표기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13세기 중엽까지 이어져 내려온 차차 표기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 | | |
|------------------------------------|--|
| 1. 葛根 叱乙根/叱乙 줄불휘/줄 | 20. 桔梗道羅次/刀스次 도랏/도랏 |
| 2. 乾藕 蓮根 넉근 | 21. 糯米粘米 출발 |
| 3. 決明子 狄小豆 되뫓(ㄱ) | 22. 蘿菴唐菁實/唐菁 대무수뻘/대무수 |
| 4. 京三稜 結次邑笠根/結叱加次根 락쥬간불휘/락쥬갓 불휘 | 23. 落蹄熊月背 골뫓릭 |
| 5. 雞冠 雞矣碧叱 돌의뻘 | 24. 飢子小蒜根/月老, 月乙老돌리 |
| 6. 戒火(景天) 塔菜 탐노돌 | 25. 藍 青台/青苔/青乙召只 청티/청티/플죽 |
| 7. 苦蔘 板麻 널삼 | 26. 狼芽草 狼矣牙 일히의업 |
| 8. 苦瓠 朴葉/朴 막닙(뇨)/박 | 27. 蘆根菴乙根 굴불휘 |
| 9. 括囊 天叱月乙/天原乙/天乙根 하늬돌/하늬톨/하늬 톨불휘 | 28. 露蜂房 于乙蜂家 쇼벌집 |
| 10. 槐 迴之木 횃나무 | 29. 鸛鷀烏支 가마오디 |
| 11. 蕎麥木麥 모밀 | 30. 鹿角沙蔘矣角 사스믹뿔 |
| 12. 韭 厚菜 후척 | 31. 膽 与老 여로 |
| 13. 薤 解菜/海菜/海菜白根 히척/히척/히척힌불휘 | 32. 當歸黨歸菜/旦貴草 당귀척/당귀초 |
| 14. 瞿麥石竹花/鳩目花 석독화/구목화 | 33. 大戟楊等漆根/楊等漆 버들웃불휘 |
| 15. 蠅蠅影’伊汝乙伊/蛇良汝乙伊 그르메너홀이/그르메너홀이 | 34. 大麥包衣, 包來/包衣末 보리/모리 마릭 |
| 16. 蚯蚓居乎/居叱□□/居兒乎 겹휘/겹섯휘(?)/겹휘 | 35. 大蒜’汝乙 마늘 |
| 17. 芎藭芎□草/蛇休草/蛇避草 궁궁초/뱀암말이플/뱀암두러기플 | 36. 獨走根(馬兜鈴) 勿叱隱阿背/勿叱隱提阿/勿兒隱 提良 뭉슨아빅/뭉슨돌아/뭉슨돌아 |
| 18. 葵子阿夫實 常食阿夫實也 아보뻘 | 37. 獨活虎驚草 --돌홉 |
| 19. 茵(毒) 背也/地瘡/木瘡 뵤(?) | 38. 麻子與乙 열 |
| | 39. 馬齒莧 金非陵音/金非音 쇠비름/쇠비름 |
| | 40. 蔓菁子 眞菁實 줍무수뻘 |
| | 41. 麥門冬 冬乙沙伊/冬沙伊 겨울사리/겨울사리 |

42. 麥飯石 粘石 출돌
43. 麵 眞末 춤츠름
44. 茅香置伊有根/置伊存 뒤잇불휘/뒤잇
45. 無患子(木患) 木串子/夫背也只木모관자/부벽여
기나모여름
46. 木賊省只草 속새
47. 牡蠣甲 屈召介甲/屈召介 굴조개집질/굴조개
48. 牡鼠矢 雄鼠糞 수(人)귀똥
49. 蕪荑白榆實 힌느릅씨
50. 薄荷芳荷 방하
51. 半夏雄矣毛老邑/雌矣毛立끼의모름/끼의모름
52. 白斂大伊刀叱草/大刀叱草 가히돗풀/가
히돗풀/가히돗풀
53. 白術沙邑菜 삼척
54. 百合大伊那里根/犬那里花가히나리불휘/가히나리
꽃
55. 蕪荑見甘介 보들개(?)
56. 麩 只火乙 기블
57. 腐婢花 小豆乙 꽃꽃
58. 浮萍魚矣食/魚食 고기이밥/고기밥
59. 射干虎矣扇根/虎矣扇 범의부채불휘
60. 蛇床子 虫也音置良只菜實 벅암두리기느 돌씨
61. 蒴藋馬屎木 물오좁나모
62. 山茱萸 數要木實 수유나모여름
63. 酸棗三於大棗 사미대조
64. 商陵者里宮根/者里宮/章柳根 자리궁불휘/장류근
65. 橡實猪矣栗 돌이밤
66. 黍米只支 갓
67. 薯蕷个支 마디, 만(?)
68. 石決明 生鮑甲 생보갑질
69. 蟾蜍豆何非 두허비
70. 細辛洗心 세심
71. 小麥眞麥 줌밀
72. 蘇子紫蘇實 즈소씨
73. 水藻勿 물
74. 苾菜無蘇 木수
75. 升麻雄骨木/雄鳥老草 티골목(?)/끼도료풀
76. 柴胡青玉葵/猪矣水乃立/山叱水乃立/椒□ 청옥근/
돌씨
77. 夜合花 沙乙木花 살나모꽃
78. 藜蘆箔草 박새
79. 蠡實□□花/筆花 --꽃/본꽃
80. 蘭茹烏得夫得/五得浮得 오득보득, 우득부득/오득
보득, 우득부득
81. 鎗 那勿 나물
82. 燕脂你叱花 니시(닛)꽃
83. 羚羊角 山羊角 산양뿔
84. 烏鷄黑鷄 겁닭
85. 蜈蚣之乃 지내
86. 萵苣紫夫豆莢/紫夫豆 卒부두느 물/즈부두
87. 芋 毛立 모름
88. 牛膝牛膝草 쇼무릎풀
89. 牛溺牛矣小便 쇼이오좁
90. 郁李山叱伊賜羅次/山梅子밋이스랏/산미즈
91. 雄省矢 雄鳥屎 수새똥
92. 遠志非師豆刀草/阿只草 비스두료풀/아기풀
93. 威靈仙 豹尾草/能消/車衣菜 표미초(?)/능쇼/슬위
느물
94. 蝟皮高蔘猪/苦蔘猪矣皮 고슴돌/고슴도티갓
95. 惹蓼豆訟/伊乙每/伊乙梅 두송/이을미/이을의
96. 茵蔯蒿 加火左只 더불자기
97. 蚝(虫) 所也只 소야기
98. 紫菀治加乙/拖加乙 티갈/티갈
99. 省麥鼠矣包衣/鼠包衣 귀의보릭/쥐보릭
100. 楮葉 茶只葉/多只 닥닙(뉘)/닥
101. 剪草 驪耳草 나귀풀
102. 葶藶子 豆衣乃耳/豆音矣薺 두의나시/두름의나시
103. 薺尾 薺矣加次/薺矣皮 나르익갓(갓)/노르익갓
104. 蟾蜍 夫背也只 부벽여기
105. 自萊 注也邑/鼠獸木實 주엽/쥐엽나모여름
106. 枳 只沙里皮/只沙伊 기사리거풀/기사리
107. 地膚子 唐樞伊/唐樞 대박리/대박리
108. 地榆 苾茶/瓜菜 외느물/외느물
109. 蜘蛛 居毛伊/居毛 거미/거미
110. 秦皮 水青木皮/水青木 물프레나모거풀(겹질)
111. 蒺藜子 古冬非居參 고들비거슴

- | | |
|--------------------------------------|-------------------------------------|
| 112. 車前子 大角古又/吉刑菜實 길형늑물씨 | 129. 荊芥 □□汝只 --너기 |
| 113. 蒼耳 升古々伊/刀古休伊 도고마리/도고마리 | 130. 胡桃 唐楸子 당츄즈 |
| 114. 菖蒲 消衣々/松衣々 송이마(소리마)/송이마(소리마) | 131. 胡麻 荏子 쎄 |
| 115. 天南星 豆也々次火/豆也味次두여맛불/두여맛 | 132. 滑石 膏石 곱돌 |
| 116. 川椒 眞椒 진조 | 133. 黃芩 所呂朽斤草/精朽草 솜서근풀/솜서근풀 |
| 117. 芫蔚 目非也次/目非阿次 눈비얏/눈비얏 | 134. 黃蓍 甘板麻/數板麻/目白甘板麻 돈닐삼/수닐삼/눈힐돈닐삼 |
| 118. 漆姑 漆矣於耳/漆矣母 옷이어시/옷이어시 | 135. 黃蠟 黃密 누른밀 |
| 119. 沢瀉 牛耳菜 쇼귀늑물 | 136. 丹毒 所乙 솔 |
| 120. 土瓜 鼠苳根/鼠瓜 귀외불휘/ | 137. 發背癰疽 包爾刀(□) 보곰돗 |
| 121. 菟絲子 鳥伊麻 새삼 | 138. 附骨疽 骨無伊 쎄(?)뒤 |
| 122. 通草 伊乙吾音蔓/伊屹鳥音이홀음너줄/이홀음 | 139. 疣目 斤次左只 근즈자기(?)/닐즈자기(?) |
| 123. 藟豆 汝注乙豆 너줄콩 | 140. 癰疹 豆等良只/置登々只 두드러기/두드러기 |
| 124. 胞衣 □□音 --로 | 141. 齒齏 齒所叱史如 니웃식다 |
| 125. 蒲黃 蒲槌上黃粉/助骨槌 부들마치우휏누른마르/ (조빅마치) | 142. 獼犬 狂犬 미친가히 |
| 126. 草馬子 阿叱加伊實/阿叱加伊實아즈가리씨/아즈가리 | 143. 鬲斗 多里甫伊/多里甫里 다리브리/다리브리 |
| 127. 鶴鵒 狐矣尿 여즈이오좁 | 144. 女爾母 乳母 젖어미 |
| 128. 玄蓼 心回草/心迴草 심회초/심회초 | 145. 牽牛子 朝生暮落花子 묘싱모락화즈 |
| | 146. 伏竈肝 竈中其釜下黃土也 |
| | 147. 晦泉 釜下黑也/釜腰黑也 |

3)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

《일석국어학논집》 90~114쪽에 실린 유고이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일석국어학논집》을 참고. 본고는 《향약채취월령》에 나오는 향약명을 우리말로 읽기 위한 연구이다. 한자 약명 및 오른편 것이 《향약채취월령》에 있는 항목이며, 그 왼편 우리말이 본고의 연구 결과로 얻어진 독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세종 13(1431)년 집현전의 유효통(俞孝通) 등이 편집하고 윤희(尹淮)의 발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민간 약재의 향명과 채취하는 시기에 따라 향명을 한자차자로 기록한 것으로 현재 2종의 필사본만 전하는데 약 180여개의 약재에 대한 향명이 있어 14세기 초기 국어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세종 13(1431)년에 왕명으로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등이 간행한 의약서로 1권 1책 필사본이다. 세종 때는 국내의 향약의 분포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세종

실록》지리지 및 《경상도지리지》 등에 수록하였다. 또한 향약의 올바른 채취, 감별, 재배, 수납 등을 위한 약무 행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향약본초학 및 향약의방을 수립하기 위하여 《향약채취월령》 및 《향약집성방》 등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 책은 《향약집성방》 중의 본초지부를 편찬하기 위한 준비용으로 일반대중이 향약채취에 직접 편리하게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인본은 산실되어 존재하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간 수사본(手寫本)을 전사한 것이 규장각도서로 보관되어 있을 따름이다. 내용은 춘하추동 12개월로 나누어서 토산약재를 배열하고 채취에 중점을 두어 각 약초들의 채취에 적합한 월령과 약초의 이름 아래에는 이두로 된 향약명이 부기되어 있다.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약재의 종류는 160종이며, 두 개의 달에 중복해서 수록된 5종의 약재를 빼면 155종에 불과하다. 《향약채취월령》은 민간에서 월별로 채취하여야 될 약재의 명칭을 목록화한 것이므로, 한어의 약재명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향명을 차자(借字)로 기록하여 민간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 향명은 훈민정음 창제 직전의 우리 말이므로 국어의 발달사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4)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세종 15(1433)년 편저자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등이 85권 30책으로 간행된 향약에 관한 의약서이다. 1431년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유효통, 전의감정 노중례, 동부정 박윤덕에게 명하여 1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1433년 6월에 완성하였다. 이 책은 정종 31(1399)년 제생원에서 간행한 《향약제생집성방》 30권의 구증과 구방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향약의 모든 방문들을 수집하고, 또는 널리 방서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분류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초간본은 전하지 않고 인조 11(1633)년에 85권으로 된 중간본만 전한다. 최명길의 서문에 중간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 위유(萎蕤): 鄉名 豆應仇羅 本朝 古用 防己是也 [*동글레]
- 2.운모(雲母): 鄉名 石鱗 [*돌비늘]
- 3.맥문동(麥門冬): 上層 冬沙伊 [*겨스사리]
- 4.독활(獨活): 鄉名 地頭乙戶邑(집성방) [*삿돌흙]
- 5.승마(升麻): 鄉名 知骨木 又雉鳥老草 [*의털가릿불 휘]
- 6.세신(細辛): 鄉名 縵 [*쇠]
- 7.용담(龍膽): 鄉名 觀音草 [*과남풀]
- 8.황기(黃耆): 鄉名 甘板麻 [*든너삼]
- 9.천근(茜根): 鄉名 古邑豆訟 [*곱도송]
- 10.사삼(沙蔘): 鄉名 加德 [*더덕]
- 11.팔루근(括樓根): 鄉名 天叱月伊 [*하늘타리]
- 12.당귀(當歸): 鄉名 僧庵草 [*승업초]
- 13.작약(芍藥): 鄉名 大朴花 [*합박꽃]
- 14.진구(秦朮): 鄉名 網草 [*망초]
- 15.백합(百合): 鄉名 犬伊日 [*개나리]
- 16.백지(白芷): 鄉名 仇里竹 [*구리대]
- 17.황금(黃芩): 鄉名 裏朽斤草 [*숨서근풀]
- 18.전호(前胡): 鄉名 蛇香菜 [*사양작]
- 19.석화(石葦): 上層一名 石花 [*석화]
- 20.지유(地榆): 鄉名 瓜菜 [*외늬물]
- 21.초삼능(草三稜): 鄉名 每作只根 [*매자기]
- 22.제니(薺): 鄉名 季奴只 [*계로기]
- 23.예장(鱧腸): 旱蓮草 [*한련]
- 24.길경(桔梗): 鄉名 都乙羅叱 [*도랏]
- 25.백급(白芨): 鄉名 竹栗膠 [*대왕풀]
- 26.관중(貫衆): 鄉名 牛高非 [*회초미]
- 27.백담(白欝): 鄉名 加海吐 [*가윗돌풀]
- 28.상륙(商陸): 鄉名 這里君 [*자리군]
- 29.천남성(天南星) 鄉名 豆也摩次作只 [*두여머주자]
- 30.낭독(狼毒) 鄉名 吾獨毒只 [*오독도기]
- 31.백두옹(白頭翁) 鄉名 注之花 [*주지꽃]
- 32.귀구(鬼臼)
- 33.호장근(虎杖根) 鄉名 紺著(감데)
- 34.상표소(桑螵蛸) 鄉名 桑土上倚衣阿之家 [*뽕나무 우희당의아직집]
- 35.석결명(石決明) 鄉名 生跑 [*싱포]
- 36.초조두(草烏頭) 鄉名 波申 [*바쑈]
- 37.궁궁(薊苳)
- 38.고삼(苦蔘) 鄉名 板麻 [*쓴너삼]
- 39.현삼(玄蔘) 鄉名 能消中
- 40.자초(紫草) 鄉名 芝草 [*지취]
- 41.백미(白薇) 鄉名 摩何尊 [*마이존]
- 42.수평(水萍) 鄉名 魚食 [*머구리밥]
- 43.왕과(王瓜) 鄉名 鼠瓜 [*귀춤외]
- 44.여로(蘆薈): 鄉名 朴草 [*박새]
- 45.사간(射干) 鄉名 虎矣扇 [*범부채]
- 46.청상자(靑箱子) 鄉名 白蔓月阿比 [*만다라미]
- 47.택칠(澤漆) 鄉名 柳漆 [*버들웃]

5) 조선관역어

14세기 후기 한자로 우리말 어휘를 기록한 어휘집으로 《화이역어(華夷譯語)》중에 실려 있다. 국내의 것은 오구라 신편이(小倉進平)가 런던대학의 동양학과 도서관의 것을 등사해 온 것이 유행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다른 이본이 여럿 있고 중국 중앙 연구원(Academia Sinica)의 《화이역어》에는 《조선관역어》가 누락되어 있다. 현재 유행하는 《조선관역어》는 명나라 모서징(茅瑞徵)의 편집으로 되어있고

서문은 주지번(朱之蕃)이 썼다. 내용은 천문, 지리, 시령, 화목, 조수, 궁실, 기용, 인물, 인사, 신체, 의복, 성색, 진보, 음식찬, 문사, 수목, 간지, 패명, 통용 등 19부 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재된 어휘는 597개 단어이다. 그 체제는 ‘天上 哈嫩五 會 忝賞’처럼 한 어휘가 3단으로 구분되어 첫 단에는 한자로 뜻을 표시하고 다음 단은 국어의 발음을 표기하고 끝단은 첫 단 한자의 중국음을 표기한 것이다. 이 표기 한자음에 대한 다이음으로 정밀하게 재구하면 14세기 후기 우리말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중국에서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관청인 회동관에서 중국 주변 13개국의 어휘를 대역한 자료로 《화이역어》 가운데 실려 있다. 현존하는 《화이역어》는 모두 3종류가 있다. 1. 홍무(洪武) 《화이역어》(또는 갑종 《화이역어》), 2. 영락 《화이역어》(또는 을종 《화이역어》), 3. 회동관 《화이역어》(또는 병종 《화이역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 회동관 《화이역어》(또는 병종 《화이역어》)에 《조선관역어》가 실려 있다.

회동관 《화이역어》는 명나라 모서징(茅瑞徵)이 자료를 수집하여 명대 회동관(會同館)에서 편집했다. 이 《화이역어》는 잡자만 있고 내문은 없으며 어휘는 한자로 주음을 표기하고 있으며 여진 문자 원문은 없다. 그것은 통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사에게 맡겨서 편집했기 때문이다. 조선(朝鮮), 유구(琉球), 일본(日本), 안남(安南), 점성(占城), 섬라(暹羅), 외오아(畏吾兒), 서번(西番), 회회(回回), 만날가(滿刺加), 여진(女眞), 백이(百夷) 등 모두 13개관의 역어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관역어》를 통해 파열음과 파찰음에 유기음과 경음 계열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ㅇ’, ‘ㅁ’, ‘ㄷ’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으며 특히 입성자 ‘ㄹ’의 표기로 ‘ㄹ’을 규칙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문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선규, 《조선관역어연구》, 경인문화사, 1973의 해독 자료와 권인한,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학회, 1998의 자료를 [*문선규]/[*권인한]의 자료 순으로 배열하였다.

[조선관역어]

1. 天 哈嫩二 [*하늘]/[*하늘]
2. 日 害 [*히]/[*히]
3. 月 得二 [*달]/[*달]
4. 星 別二 [*별]/[*별]
5. 風 把論 [*바람]/[*바람]
6. 雲 故論 [*구름]/[*구름]
7. 雷 別刺 [*벼락]/[*벼락]
8. 雨 必 [*비]/[*비]
9. 霜 色立 [*서리]/[*사리]
10. 雪 嫩 [*눈]/[*눈]
11. 霧 按盖 [*안개]/[*안개]
12. 露 以泌 [*이슬, *이슬]/[*이슬]
13. 天晴 哈嫩二墨大 [*하늘 맑다]/[*하늘 # 맑다]
14. 天陰 哈嫩二墨立大 [*하늘 흐리다]/[*하늘 # 흐리다]
15. 天上 哈嫩五會 [*하늘 우회]/[*하늘 # 우회]
16. 天下 哈嫩阿賴 [*하늘 아래]/[*하늘 # 아래]
17. 天高 哈嫩那大 [*하늘 높다]/[*하늘 # 높다]
18. 天邊 哈嫩格自 [*하늘 ㄱ지]/[*하늘 # ㄱ]
19. 天曉 哈嫩把憂大 [*하늘 볼 것다]/[*하늘 # 볼가다]
20. 天晚 哈嫩展根格大 [*하늘 잠들 것다]/[*하늘 # 잠들다]
21. 天旱 哈嫩格悶格大 [*하늘 ㅁ 들 것다]/[*하늘 # ㅁ들다]
22. 日出 害那格大 [*히 나 것다]/[*히 # 나가다]
23. 日落 害底格大 [*히 더 것다]/[*히 # 더가다]
24. 日長 害吉大 [*히 기다]/[*히 # 길다]
25. 日豆 害迷勅大 [*히 더르다]/[*히 # 더르다]
26. 日照 害必羣那大 [*히 비취었다]/[*히 # 비취어다]
27. 日煖 害得大 [*히 덥다]/[*히 # 덥다]
28. 月圓 得二朶略大 [*달 두렵다]/[*달 # 도렵다]
29. 月缺 得二以思路大 [*달 이즈 것다]/[*달 # 잇가다]
30. 月斜 得二吉卜格大 [*달 기울 것다]/[*달 # 기울어 로다]
31. 月明 得二墨大 [*달 맑다]/[*달 # 맑다]
32. 星少 別二哈大 [*별 하다]/[*별 # 하다]
33. 星少 別二哲大 [*별 적다]/[*별 # 적다]
34. 星密 別二擺大 [*별 비다]/[*별 # 비다]
35. 星稀 別二得莫大 [*별 드므다]/[*별 # 드므다]
36. 大風 捎把論 [*큰 바람]/[*큰 # 바람]
37. 小風 哲根把論 [*저근 바람]/[*저근 # 바람]
38. 涼風 燦把論 [*찬 바람]/[*찬 # 바람]
39. 有雲 故論以思大 [*구름 이시다]/[*구름 # 있다]
40. 無雲 故論額大 [*구름 업다]/[*구름 # 없다]
41. 白雲 害故論 [*흰 구름]/[*흰 # 구름]
42. 黃雲 努論故論 [*누른 구름]/[*누른 # 구름]
43. 紅雲 本格故論 [*붉은 구름]/[*붉은 # 구름]
44. 黑雲 格悶故論 [*거먼(은) 구름]/[*가먼 # 구름]
45. 大雨 捎必 [*큰비]/[*큰 # 비]
46. 小雨 哲根必 [*저근 비]/[*저근 # 비]
47. 有雨 必以思大 [*비 이시다]/[*비 # 있다]
48. 無雨 必額大 [*비 업다]/[*비 # 없다]
49. 雷響 別刺文大 [*벼락 운다]/[*벼락 # 울다]
50. 霧罩 按盖底格大 [*안개 띠 것다]/[*안개 # 띠가다]
51. 雪飛 嫩極大 [*눈 논다]/[*눈 # 논다]
52. 有露 以沁額大 [*이슬 이시다]/[*이슬 # 있다]
53. 無露 以沁額大 [*이슬 업다]/[*이슬 # 없다]

54. 氷凍 氷後額大 [*어름 어렀다]/[*어름#얼다], [변]
[*빙동]
55. 氷化 氷後那憂敢大菓華 [*어름 노가간다]/[*어름
#노가#가다], [*빙화]
56. 地 大 [*싸]/[*싸]
57. 山 磨一 [*되]/[*되],
58. 江 把刺 [*마르]/[*마를], [*강]
59. 河 闊二 [*물]/[*마를], [*하]
60. 海 把刺 [*마르]/[*물], [*하]
61. 水 闊二 [*물]/[*물], [*수]
62. 井 五闊 [*우물]/[*우물], [*정]
63. 溝 活 [*골]/[*골], [*구]
64. 田 把 [*반]/[*밭], [*년]
65. 土 黑二 [*흙]/[*흙], [*토]
66. 石 朵二 [*돌]/[*돌], [*석]
67. 城 雜思 [*잣]/[*잣], [*성]
68. 牆 丟 [*담]/[*특], [*장]
69. 路 吉二 [*길]/[*길], [*로]
70. 村 吞 [*둔?촌?]/[*분], [*촌]
71. 洞 谷莫 [*구모]/[*구모], [*동]
72. 郊 得勒 [*드르]/[*드르], [*교]
73. 橋 得屨 [*다리]/[*다리], [*교]
74. 中國 [*둥국]/[*둥국]
75. 外國 [*외 국]/[*외국]
76. 地界 大色直 [*싸스ㅅ]/[*싸#스ㅅ], [*디계]
77. 山高 磨那大 [*되 높다]/[*되#높다], [*산고]
78. 山低 磨那憂大 [*되 낮갑다]/[*되#낮갑다], [*산
데]
79. 山岩 磨必賴 [*되 비래]/[*되#비래], [*산암]
80. 山前 磨阿迫 [*되 알피]/[*되#알피], [*산전]
81. 山後 磨堆迫 [*되 뒤해]/[*되#뒤해], [*산후]
82. 山頂 磨墨立 [*되 머리]/[*되#머리], [*산딩]
83. 青山 噴磨 [*폰 린되]/[*폰#되], [*청산]
84. 海闊 把刺那大 [*바르 넓다]/[*바를#넓다], [*하·
팔]
85. 江心 把刺嚙噴得 [*바르 가본되]/[*바를#가본·
되], [*강심]
86. 江邊 把刺格自 [*바르 ㅁㅅ]/[*바를#ㅁ], [*강]
87. 河深 闊吉大 [*물 깊다]/[*물#깊다], [*하심]
88. 河淺 闊那憂大 [*물 얕갑다]/[*물#얕갑다], [*하
천]
89. 大河 捐闊 [*큰 물]/[*큰#물], [*대하]
90. 小河 哲根闊 [*저근 물]/[*저근#물], [*쇼하]
91. 水清 闊墨大 [*물 맑다]/[*물#맑다], [*슈청]
92. 水混 闊墨立大 [*물 흐리다]/[*물#흐리다], [*슈
혼]
93. 水急 闊迫勒大 [*물 섹러다]/[*물#섹러다], [*·
슈급]
94. 井深 五闊吉大 [*우물 깊다]/[*우물#깊다], [*정
심]
95. 井淺 五闊那憂大 [*우물 얕갑다]/[*우물#얕갑·
다], [*경천]
96. 清泉 墨根色 [*물 근심]/[*물근#심], [*청천]
97. 開田 把那勒大 [*밭 여렀다]/[*밭#얼다], [*기
던]
98. 種田 把敢大 [*반 간다]/[*밭#갈다], [*종던]
99. 分田 把那哈大 [*밭 논호다]/[*밭#난호다], [*분
던]
100. 爭田 把架吞大 [*밭 다투다]/[*밭#다투다], [*·
정던]
101. 果園 刮世把 [*과실 받]/[*과실#받], [*과원]
102. 花園 果把 [*곳 받]/[*곳#받], [*화원]
103. 菜園 餒墨把 [*늑 들 받]/[*늑#들#받], [*작원]
104. 村裏 吞阿奈 [*둔?촌?안히]/[*툰#아내], [*촌
리]
105. 郊外 得勒把吉 [*드르 밋기]/[*드르#밋기], [*·
교외]
106. 出城 雜那憂大 [*жат 나가다]/[*жат#나가다], [*·
출성]
107. 入城 雜得勒憂大 [*жат 드러가다]/[*жат#드러#·
가다], [*입성]
108. 牆高 丟那大 [*담 높다]/[*특#높다], [*장교]
109. 牆低 丟那憂大 [*담 낮갑다]/[*특#낮갑다], [*·
장매]
110. 路遠 吉墨大 [*길 머다]/[*길#말다], [*로원]

111. 路近 吉憂憂大 [*길 갓잡다]/[*길#갓잡다], [*·히]), [*빅년]
- 로근]
112. 路濫 吉自大 [*길 즈다]/[*길#줄다], [*로람]
113. 路乾 吉墨勒大 [*길 므라다]/[*길#므라다], [*로간]
114. 修路 吉大憂 [*길 닷마]/[*길#닷가], [*슈로]
115. 石橋 梁得屢 [*돌 더리]/[*돌#더리], [*석교]
116. 新橋 塞得屢 [*새 더리]/[*새#더리], [*신교]
117. 舊橋 勒根得屢 [*놀근 더리]/[*놀·굴#더리], [*구교]
118. 溝深 活吉大 [*골 깊다]/[*골(*)#깊다], [*구심]
119. 溝淺 活憂憂大 [*골 년잡다]/[*골(*)#년잡다], [*구천]
120. 春 播妹 [*보미]/[*보·미>봄-이]), [*춘]
121. 夏 呆論 [*너름]/[*너름], [*하]
122. 秋 格自 [*마술]/[*마술], [*추]
123. 冬 解自 [*겨슬]/[*겨슬], [*동]
124. 陰 墨立大 [*흐리다]/[*흐리다], [*음]
125. 陽 別 [*별]/[*별], [*양]
126. 早 阿怎 [*아춤]/[*아춤], [*조]
127. 晚 展根大 [*점근다]/[*점·글나], [*만]
128. 冷 尺卜大 [*치롭다]/[*잡다], [*랭]
129. 熟 得卜大 [*더롭다]/[*답다], [*열]
130. 古 呆 [*네]/[*네], [*고]
131. 今 耶在 [*열제]/[*열·제], [*금]
132. 春前 播妹阿迫 [*보미알찍]/[*보·미#알찍], [*춘전]
133. 春後 播妹推迫 [*보미뒤해]/[*보·미#뒤해], [*춘후]
134. 夏至 呆論卧那大 [*너름오놋다]/[*너름#·오나다], [*하지]
135. 冬至 解自卧那大 [*겨슬오놋다]/[*겨슬#·오나다], [*동지]
136. 今年 我害 [*올해]/[*올해], [*금년]
137. 明年 我嫩害 [*오논해]/[*오·논#해], [*명년]
138. 一年 罕害 [*흔해]/[*흔#해], [*일년]
139. 百年 墨嫩害 [*흔은해]/[*흔·은#해]([*흔#은#
140. 千年 展害 [*천해]/[*천#해], [*천년]
141. 萬年 蠻害 [*만해]/[*만#해], [*만년]
142. 書長 那吉大 [*낫기다]/[*낫#길다], [*두당]
143. 野短 半送勒大 [*밤더러다]/[*밤#더러다], [*야단]
144. 今朝 我嫩阿怎 [*오날아춤]/[*오·날#아춤], [*금도]
145. 明朝 餞直阿怎 [*닉실아춤]/[*닉·실#아춤], [*명도]
146. 早起 阿怎以你格刺 [*아춤일니거라]/[*아춤#일#닐아라], [*조·기]
147. 早去 阿怎以你格刺 [*아춤일니거라]/[*아춤#일#니거라], [*조·기]
148. 正月 [*정월]/[*정·월]
149. 二月 [*이월]/[*아·월]
150. 三月 [*삼월]/[*삼·월]
151. 四月 [*스월]/[*스·월]
152. 五月 [*오월]/[*오·월]
153. 六月 [*류월]/[*륙·월]
154. 七月 [*칠월]/[*칠·월]
155. 八月 [*팔월]/[*팔·월]
156. 九月 [*구월]/[*구·월]
157. 十月 [*시월]/[*십·월]
158. 十一月 [*십일월]/[*십·일·월]
159. 十二月 [*십이월]/[*십·아·월]
160. 花 果思 [*고시]/[*꽃], [*화]
161. 桃 卜賞 [*복상]/[*복상], [*도]
162. 李 外亞吉 [*외야지]/[*외·야지], [*리]
163. 杏 所貴 [*슬고(괴?구?귀?)]/[*슬·괴], [*형]
164. 梨 擺 [*빅]/[*빅], [*리]
165. 棗 大左 [*대초]/[*대·초], [*조]
166. 松 所那莫 [*소나모]/[*소·나모], [*송]
167. 樹 那莫 [*나모]/[*나모], [*슈]
168. 果 刮世 [*과실]/[*과·실], [*과]
169. 菜 餞墨 [*늑물]/[*늑·물], [*척]
170. 瓜 歪 [*외]/[*외], [*과]
171. 茄 戛直 [*가지]/[*가지], [*가]

172. 米色迷 [*쌀]/[*쌀], [*미]
173. 豆孔 [*콩]/[*콩], [*두]
174. 稻別思 [*벼베]/[*벼], [*도]
175. 麥冊閔 [*츄밀]/[*츄#밀], [*믹]
176. 花開 果耶大 [*꽃(긔)여다]/[*꽃#열다], [*화키]
177. 花朵 果迫 [*꽃(긔)파기]/[*꽃#꺾], [*화타]
178. 紅花 本根果 [*불근긔(긔)]/[*불근#긔], [*홍화]
179. 靑李 噴外亞吉 [*푼론외야지]/[*푼#외야지(*), [*청]
180. 黃杏 努論所貴 [*누른슬긔(긔)? 구? 귀?)]/[*누른#슬긔], [*황형]
181. 墨棗 格悶大左 [*거먼(문)대초]/[*가른#대초], [*흑조]
182. 榛子 改揜 [*개얌]/[*개염], [*잔즈]
183. 松子 雜思 [*жат베]/[*жат], [*송즈]
184. 糊椒 果絳 [*고쵸]/[*고쵸], [*호쵸]
185. 鳥木 格悶那莫 [*거먼(문)나모]/[*가른#나모], [*오목]
186. 丁香 [*딩향]/[*딩향]
187. 木香 [*목향]/[*목향]
188. 結果 刮世埋雜大 [*과실미жат다]/[*과실#미자스마]
189. 果熟 刮世你格大 [*과실니жат다]/[*과실#닉자다], [*과수]
190. 摘果 刮世大卧那刺 [*과실파오나라]/[*과실#파#오나라], [*덕과]
191. 糯米 敢別色二 [*즈? 벼쌀]/[*벼#쌀], [*나미]
192. 梗米 傘染色二 [*선도쌀]/[*산도#쌀], [*경미]
193. 粟色 左色二 [*조쌀]/[*조#쌀], [*속미]
194. 黍米 吉雜色二 [*기장쌀]/[*기장#쌀], [*서미]
195. 蕎麥 莫閔 [*모밀]/[*모밀], [*교믹]
196. 龍米立 [*미르]/[*미르], [*룡]
197. 虎 半門 [*버든]/[*범], [*호]
198. 象 課吉立 [*코기리]/[*코가리], [*상]
199. 駝 阿大 [*악대]/[*악대], [*타]
200. 牛 杓 [*쇼]/[*쇼], [*우]
201. 馬 墨二 [*몰]/[*몰], [*마]
202. 熊 果門 [*고든]/[*곰], [*웅]
203. 鹿 酒滲 [*사슴]/[*사슴], [*록]
204. 獐 努落 [*노르]/[*노로], [*장]
205. 免 吐吉 [*룻기]/[*룻기], [*토]
206. 猪 朶 [*돌]/[*돌], [*데]
207. 羊 揜 [*염]/[*염], [*양]
208. 鶯 格以 [*거위]/[*거위], [*아]
209. 鴨 我係 [*올히]/[*올히], [*압]
210. 雞 得二 [*들]/[*들], [*계]
211. 犬 改 [*가히]/[*개], [*견] p125
212. 鷹 埋 [*매]/[*매], [*웅]
213. 雁 吉勒吉 [*그리기]/[*기러기], [*안]
214. 龍吟 [*룡음]/[*룡음]
215. 虎嘯 [*호쇼]/[*호쇼]
216. 獅子 助盖 [*?]/[*??], [*스즈]
217. 麒麟 [*기린]/[*기린]
218. 象吼 賞文大 [*상운다]/[*상#올다], [*상후]
219. 鹿鳴 酒滲文大 [*사슴운다]/[*사슴#올다], [*록명]
220. 驕馬 阿大墨二 [*악대몰]/[*악대#몰], [*선마]
221. 兒馬 阿直盖墨二 [*아질게몰]/[*아질게#몰], [*마]
222. 騾馬 按墨二 [*암몰]/[*암몰], [*과마]
223. 靑馬 噴墨二 [*푼론몰]/[*푼#몰], [*청마]
224. 黃馬 努論墨二 [*누른몰]/[*누른#몰], [*황마]
225. 赤馬 本根墨二 [*불근몰]/[*불근#몰], [*적마]
226. 白馬 害墨二 [*흰몰]/[*흰#몰], [*백마]
227. 黑馬 格悶墨二 [*거먼(문)몰]/[*가른#몰], [*흑마]
228. 馬駒 墨埋亞直 [*몰미야지]/[*몰#미야지], [*마구]
229. 雞啼 得二文大 [*들운다]/[*들#올다], [*계데]
230. 仙鶴 杜路迷 [*두루미]/[*두루미], [*선학]
231. 海靑 寵谷埋 [*송골매]/[*송골#매], [*힌청]
232. 天鵝 哈嫩格以 [*하늘거위]/[*하늘거위(?)], [*턴아]
233. 黃鷹 努論埋 [*누른매]/[*누른#매], [*황웅]

234. 鳥雅 憂罵貴 [*가마귀]/[*가마귀], [*오아] 266. 鍾 遂卜 [*쇠분(붐)]/[*쇠분], [*중]
235. 鸚鵡 果果立賽 [*궂고리새]/[*궂고리#새], [*잉
무]
267. 鼓 卜 [*분(붐)]/[*분], [*고]
236. 老鸛 管處 [*관초]/[*관초], [*로관]
268. 笙 [*싱]/[*싱]
237. 鯉魚 板果吉 [*부어? 고기]/[*판(板?)#고기], [*리어]
269. 笛 底 [*더]/[*덕]
270. 紙 着必 [*초히]/[*초히], [*지]
238. 蝦蟇 酒必格以 [*새비게]/[*사비#게], [*하히]
271. 墨 孟 [*먹]/[*먹]
239. 宮 [*궁]/[*궁]
272. 筆 卜 [*분]/[*분], [*필]
240. 殿 [*던]/[*던]
273. 硯 必路 [*벼루]/[*벼루], [*연]
241. 樓 大刺 [*다락]/[*다락], [*루]
274. 弓 華二 [*활]/[*활], [*궁]
242. 門 [*문]/[*문]
275. 箭 酒二 [*살]/[*살], [*전]
243. 寺 送二 [*덜]/[*덜], [*시]
276. 盃 兎貴 [*투구]/[*투귀(*)], [*괴]
244. 廟 [*묘]/[*묘]
277. 甲 [*갑]/[*갑]
245. 房 直 [*집]/[*집], [*방]
278. 鎗 [*창(정)]/[*창]
246. 梁 墨勒 [*막릭]/[*막릭], [*량]
279. 刀 跨二 [*칼]/[*칼], [*도]
247. 府 [*부]/[*부]
280. 牌 [*패]/[*패]
248. 部 [*부]/[*부]
281. 銃 [*호통]/[*호통], [*총]
249. 州 大額 [*대읍]/[*대읍], [*주]
282. 傘 速路 [*슈름]/[*슈름], [*산]
250. 縣 杓額 [*쇼읍]/[*쇼읍], [*현]
283. 扇 卜冊 [*부채]/[*부채], [*선]
251. 衙門 [*아문]/[*아문]
284. 卓 果左爽 [*고족상]/[*고족상(?)], [*탁]
252. 館驛 [*관역]/[*관역]
285. 椅 角位 [*교의]/[*교의], [*의]
253. 涼亭 直燦大 [*집촉다]/[*집#촉다], [*량당]
286. 碗 洒擺二 [*사발]/[*사발], [*원]
254. 媛閣 直得大 [*집답다]/[*집#답다], [*난각]
287. 碟 迭世 [*덱시]/[*덱시], [*덱]
255. 臥房 雜嫩直 [*자논집]/[*자논#집], [*와방]
288. 匙 速二 [*술]/[*술], [*시]
256. 廂房 [*상방]/[*상방]
289. 筋 哲 [*저]/[*저], [*더]
257. 倉房 [*창방]/[*고방]
290. 筋 憂罵 [*가마]/[*가마], [*과]
258. 庫房 [*고방]/[*창방]
291. 盆 迫尺 [*박지?]/[*버치], [*분]
259. 瓦房 吉賽直 [*디세집]/[*디세#집], [*와방]
292. 壺 主平 [*주병]/[*주병], [*호]
260. 草房 敢自直 [*글세집]/[*글·짚(?)#집], [*초
방]
293. 盞 站 [*잔]/[*잔]
261. 樓房 大刺直 [*다락집]/[*다락#집], [*루방]
294. 銅鼓 遂卜 [*쇠분(붐)]/[*쇠#분], [*통·고]
262. 街市 哲在 [*저제]/[*저제], [*개시]
295. 銅鑼 遂爭 [*쇠징]/[*가차#분], [*과·고]
263. 鄰舍 以本直 [*이붓집]/[*이붓(*)#집], [*린
사]
296. 哼囉 主屢 [*주라]/[*쇠#징], [*통라]
264. 堅柱 吉董捨以大 [*기동세다]/[*기동#서아다], [*슈뉴]
297. 喇叭 主刺 [*주라]/[*주라], [*볼라]
265. 上梁 直墨勒我根大 [*집 막릭 올라간다]/[*집#
막릭#올아다(?)], [*상량]
298. 鎖納 必刺 [*페리]/[*주라], [*랄팔]
299. 馬鞍 墨吉林罵 [*말기르마]/[*과리], [*쇠납]
300. 馬粘 得盖 [*덱게]/[*몰#가르마], [*마안]
301. 皮鼓 憂尺卜 [*가치분(붐)]/[*돌애], [*마침]
302. 轡頭 主谷 [*不明, 자갈?]/? ?, [*비두]
303. 肚帶 我浪 [*오랑]/[*오랑], [*두디]

304. 君 臨貢 [*님굼]/[*님굼], [*군]
 305. 后 哀火 [*군후]/[*군후], [*후]
 306. 妃 枉必 [*왕비]/[*왕비], [*비]
 307. 公 [*공]/[*공]
 308. 候 [*후]/[*후]
 309. 伯 [*빅]/[*빅]
 310. 官 刮嫩 [*관원]/[*과원](←관원), [*관]
 311. 吏 捨立 [*서리]/[*서리], [*리]
 312. 軍 [*군]/[*군]
 313. 民 迫升 [*빅성]/[*빅·성], [*민]
 314. 父 阿必 [*아비]/[*아비], [*부]
 315. 母 額密 [*어미]/[*어미], [*모]
 316. 翁 色阿必 [*식아비]/[*식아비], [*웅]
 317. 姿 色額密 [*식어미]/[*식어미], [*파]
 318. 兄 格格 [*가가]/[*가·거], [*형]
 319. 弟 阿自 [*아스]/[*아스], [*데]
 320. 姐 哲哲 [*저저]/[*저저], [*저]
 321. 妹 餒必 [*누비?]/[*누비], [*믹]
 322. 妻 結直 [*거집]/[*거·집], [*처]
 323. 子 阿得二 [*아들]/[*아들], [*즈]
 324. 總兵 [*총병]/[*총병]
 325. 頭目 [*두목]/[*두목]
 326. 將軍 [*장군]/[*장군]
 327. 伯父 捐阿必 [*큰아비]/[*큰#아비], [*빅부]
 328. 伯母 捐額密 [*큰어미]/[*큰#어미], [*빅모]
 329. 外父 憂色阿必 [*가식아비]/[*가·식#아비], [*와부]
 330. 外母 憂色額密 [*가식어미]/[*가·식#어미], [*외모]
 331. 君子 [*군즈]/[*군즈]
 332. 小人 [*쇼인]/[*쇼인]
 333. 男子 赧自 [*남즈]/[*남인], [*남즈]
 334. 婦人 呆忍 [*녀인]/[*녀인], [*부인]
 335. 富人 憂怎撒論 [*마즈삼름]/[*가·삼#삼름], [*부인]
 336. 貧人 憂根撒論 [*가난삼름]/[*가·난#삼름], [*빈인]
 337. 好人 朶根撒論 [*도환삼름]/[*도·환#삼름], [*호인]
 338. 互人 莫底撒論 [*모딘삼름]/[*모·딘#삼름], [*대인]
 339. 商人 亨整撒論 [*홍정삼름]/[*홍·정#삼름], [*상인]
 340. 匠人 [*장인]/[*장인]
 341. 去 你格格 [*니거라]/[*니·거라], [*거]
 342. 來 臥那刺 [*오나라]/[*오·나라], [*리]
 343. 見 播你 [*보니]/[*보·니], [*견]
 344. 辭 哈底 [*하딕]/[*하·딕], [*스]
 345. 回 朶落你格格 [*도로니거라]/[*도·로#니거라], [*회]
 346. 問 母勒 [*무러]/[*무·러], [*문]
 347. 說 你格格 [*닐거라]/[*닐·어라](←니르거라), [*설]
 348. 答 大打 [*딕답]/[*딕·답], [*답]
 349. 座 阿格刺 [*안쩌라]/[*앗거라], [*좌]
 350. 立 捨格刺 [*서거라]/[*서·거라], [*립]
 351. 進 得勒 [*드러]/[*드·러], [*진]
 352. 退 悶勒 [*믈러]/[*믈·러], [*퇴]
 353. 走 格嫩大 [*것(겅)느디]/[*겅·느·다], [*주]
 354. 到 迷冊大 [*미찿다]/[*미·츠·다], [*도]
 355. 買 洒大 [*사다]/[*사·다], [*믹]
 356. 賣 迫刺 [*פק라]/[*פק·라], [*매]
 357. 貴 必色大 [*빌쌔다]/[*빌·쌔·다], [*귀]
 358. 賤 必底大 [*반디다]/[*반·디·다], [*천]
 359. 陪臣 [*빅신]/[*빅·신]
 360. 書狀 [*셔장]/[*셔·장]
 361. 質正 [*질정]/[*질·정]
 362. 通事 [*통스]/[*통·스]
 363. 押馬 [*압마]/[*압·마]
 364. 押物 [*압물]/[*압·물]
 365. 醫士 [*의스]/[*의·스]
 366. 醫獸 [*의슈]/[*의·슈]
 367. 從人 [*종인]/[*종·인]
 368. 夷人 [*이인]/[*이·인]
 369. 進貢 [*진공]/[*진·공]
 370. 聖節 臨貢省直 [*님궁싱진]/[*님·궁#싱실], [*

상·결]

371. 正旦 色二 [*설]/[*설], [*정단]

372. 千秋 [*천추]/[*천추]

373. 種馬 著直墨二 [*종직물]/[*종지(*)#물], [*종-마]

374. 到京 [*도경]/[*도경]

375. 鴻臚寺 [*홍러시]/[*홍로시]

376. 報名 [*보명]/[*보명]

377. 習禮 [*습례]/[*습례]

378. 見朝 [*견도]

379. 如今 耶在 [*연제]/[*연제(*)], [*셔금]

380. 朝廷 臨貢 [*님금], [*도명]/[*님금], [*도명]

381. 法度 白朶大 [*법도다]/[*법도다], [*법도]

382. 利害 莫底大 [*모디다]/[*모딜다], [*리해]

383. 精通 色必按大 [*소피안다]/[*슬퍼#알다], [*정통]

384. 夷語 格大論罵 [*격? 다룬말]/[*격(格?)# 다룬#말], [*이어]

385. 好生 采以 [*도히]/[*도이(<도히)], [*호성]

386. 省論 阿貴 [*알고]/[*알외], [*싱유]

387. 知道 按大 [*안다]/[*알다], [*다도]

388. 午門前 臥閑阿迫 [*오문알릭]/[*오문(午門)#알-픽], [*오문전]

389. 罷齊 捨自吉迫列 [*마즈기버려]/[*마즈기#바-려], [*패제]

390. 上御路 額落我憂 [*어로 어가]/[*어로(御路)#올아], [*상어로]

391. 鞠躬 黑立谷迫 [*허리구퍼]/[*하리#구버], [*국궁]

392. 五拜 打色墨立左雜 [*다섯머리조사]/[*다섯#(*)], [*수]

마리#조사], [*오빅]

393. 與 你憂 [*닐가]/[*닐어], [*홍]

394. 叩頭 [*고두]/[*고두]

395. 平身 [*평신]/[*평신]

396. 酒飯 數本把 [*수불·밥]/[*수불(*)#·밥], [*쥬반]

397. 交方物 [*방을 만티]/[*방물#맛더], [*교방물]

398. 欽賜 [*흠스]/[*흠스]

399. 下程 [*하당]/[*하당]

400. 筵宴 以把底 [*이바디]/[*이바디], [*연연]

401. 賞賜 [*상스]/[*상스]

402. 謝恩 [*사은]/[*사은]

403. 辭朝 [*하덕]/[*하덕], [*소도]

404. 身 磨 [*몸]/[*몸], [*신]

405. 心 墨怎 [*막슴]/[*막슴], [*심]

406. 頭 墨立 [*머리]/[*머리], [*두]

407. 面 板思 [*늑치]/[*늑], [*면]

408. 耳 貴 [*귀]/[*귀], [*이]

409. 目 嫩 [*눈]/[*눈], [*목]

410. 鼻 課 [*고]/[*코], [*비]

411. 舌 解 [*혀]/[*혀], [*설]

412. 口 以 [*입]/[*입], [*구]

413. 齒 你 [*니]/[*니], [*치]

414. 鬚 那落 [*나룻]/[*나룻](<날룻), [*슈]

415. 鬚 墨立吉 [*머리깃]/[*머리#깃], [*발]

416. 手 算 [*손]/[*손], [*슈]

417. 腳 把二 [*발]/[*발], [*각]

418. 腰 墨立 [*허리]/[*허리], [*요]

419. 腿 墨堆 [*허퇴]/[*허퇴], [*퇴]

420. 筋 欣門 [*히문]/[*힘], [*근]

421. 骨 處 [*(뼈)]/? ?, [*골]

422. 皮 憂 [*가치]/[*가치], [*피]

423. 腸 拜 [*빅]/[*빅], [*복]

424. 氣 近 [*기운]/? ?, [*기]

425. 血 必 [*피]/[*피], [*혈]

426. 肥 色尺大 [*슬찌다]/[*슬-자다], [*비]

427. 瘦 耶必大 [*여뵈다? , 야비압다]/[*여-비·다]

428. 眉毛 努色 [*눈섭]/[*눈섭], [*미모]

429. 眼珠 嫩按 [*눈알]/[*눈#알], [*안주]

430. 鼻孔 課谷母 [*구구무]/[*콧#구무], [*바·궁]

431. 洗面 板世色 [*놋시서]/[*놋#시서], [*세면]

432. 梳頭 墨立必色 [*머리비서]/[*머리#비서], [*소두]

433. 漱口 以下數耶 [*입부쉬어]/[*입#부쉬어], [*수구]

434. 咳嗽 吉怎 [*기츄]/[*기츄], [*헉수]
 435. 嘆氣 罕孫 [*한숨]/[*한숨], [*탄기]
 436. 心寬 墨怎勒大 [*ㅁ슴넙다]/[*ㅁ슴#넙다], [*심
 관]
 437. 知心 墨怎按大 [*ㅁ슴안다]/[*ㅁ슴#알다], [*디
 심]
 438. 好心 朶恨墨怎 [*도흐ㅁ슴]/[*도.흐#ㅁ슴], [*
 호심]
 439. 段必膽 [*비단]/[*비단], [*단]
 440. 羅 [*라]/[*], [*라]
 441. 綾果稜 [*고로]/[*고로], [*롱]
 442. 錦 [*금]/[*금]
 443. 錦被 根你卜二 [*금], [*니블]/[*금#나블], [*금
 피]
 444. 紗 [*사]/[*사]
 445. 絹 [*깁]/[*깁], [*견]
 446. 布 [*포]/[*포]
 447. 線 世二 [*실]/[*실], [*선]
 448. 袍得盖 [*담개]/[*담.개], [*포]
 449. 袖 色埋 [*스미]/[*스.미], [*슈]
 450. 裙 止罵 [*치마]/[*치마(?)], [*군]
 451. 襖 哲谷立 [*저구리]/[*저구리], [*오]
 452. 靴 火甚 [*휘신]/[*휘#신], [*화]
 453. 韢 展亨 [*헝전]/[*헝], [*말]
 454. 紗帽 [*사모]/[*사모]
 455. 圓領 [*원령]/[*원령]
 456. 玉帶 [*옥띠]/[*옥띠]
 457. 綵段 [*척단]/[*척단]
 458. 衣服 臥思 [*오시]/[*옷], [*의.복]
 459. 夾衣 結臥思 [*겹오시]/[*겹#옷], [*겹의]
 460. 錦褥 [*금요]/[*금요]
 461. 皮襖 戛左 [*가죽]/[*가.촉], [*피오]
 462. 雨籠 戛莫 [*갓모]/[*갓모], [*우롱]
 463. 氎衫 [*전삼]/[*전삼]
 464. 氎條 [*전도]/[*전도]
 465. 靑 噴必 [*푼빋]/[*푼#빋], [*청]
 466. 黃 努論必 [*누른빋]/[*누른#빋], [*황]
 467. 紅 本根必 [*블근빋]/[*블근#빋], [*홍]
 468. 白 害必 [*흰빋]/[*흰#빋], [*백]
 469. 黑 格悶必 [*거먼(른)빋]/[*거먼#빋], [*흑]
 470. 藍 [*람]/[*록]
 471. 綠 [*록]/[*남]
 472. 紫 [*즈]/[*즈]
 473. 大紅 [*다홍]/[*다홍]
 474. 天靑 [*던청]/[*던청]
 475. 金黃 [*금황]/[*금황]
 476. 黑綠 [*흑록]/[*흑록]
 477. 葱白 [*총백]/[*총.백]
 478. 金 [*금]/[*금]
 479. 銀 遂 [*쇠]/[*쇠], [*은]
 480. 珠 [*주]/[*주]
 481. 玉 [*옥]/[*옥]
 482. 銅 谷速 [*동]/[*구.슬], [*통]
 483. 鐵 遂 [*쇠]/[*쇠], [*털]
 484. 錫 靚捨 [*듀석]/[*듀석], [*석]
 485. 錢 端 [*돈]/[*돈], [*전]
 486. 赤金 [*적금]/[*적금]
 487. 白錢 [*백은]/[*백은]
 488. 珍珠 [*진주]/[*진주]
 489. 瑪瑙 [*마노]/[*마노]
 490. 琥珀 [*호박]/[*호.박]
 491. 珊瑚 [*산호]/[*산호]
 492. 水晶 [*수경]/[*수경]
 493. 銀瓶 [*은병]/[*은병]
 494. 金盆 [*금박지?]/[*금#머지], [*금분]
 495. 玳瑁 [*다미]/[*다.미]
 496. 茶 [*차]/[*차]
 497. 飯 把 [*밥]/[*밥], [*반]
 498. 酒 數本 [*수불]/[*수.불], [*주]
 499. 肉 果吉 [*고기]/[*고기], [*속]
 500. 油 吉林 [*기름]/[*기름], [*유]
 501. 鹽 所昏 [*소곰]/[*소곰], [*염]
 502. 醬 自盖 [*지(찌)개?]/[*찌.개(*)], [*장]
 503. 醋 [*초]/[*초]
 504. 湯 谷 [*국]/[*국], [*탕]
 505. 餅 杓并 [*쇼병]/[*쇼병], [*병]

506. 蒸 迭刺 [*따라]/[*따라(←따-어-라)], [*중]
 507. 煮 色罵刺 [*슬따라]/[*슬따라], [*자]
 508. 早飯 阿怎把 [*아참밥]/[*아참#밥], [*조반]
 509. 晚飯 那左把 [*나조밥]/[*나조#밥], [*만반]
 510. 黃酒 努論數本 [*누른수불]/[*누른#수불(*)], [*황주]
 511. 涼酒 燦數本 [*춘수불]/[*춘#수불(*)], [*량주]
 512. 熱酒 得真數本 [*더불수불]/[*더불#수불(*)], [*열주]
 513. 燒酒 阿浪氣 [*아라기]/[*아라기], [*쇼주]
 514. 詩 [*시]/[*시]
 515. 書 [*서]/[*서]
 516. 經 [*경]/[*경]
 517. 典 [*던]/[*던]
 518. 誥 [*고]/[*고]
 519. 表 [*표]/[*표]
 520. 策 [*척]/[*척]
 521. 論 [*론]/[*론]
 522. 敕書 [*틱서]/[*틱서]
 523. 勘合 [*감합]/[*감합]
 524. 印信 [*인신]/[*인신]
 525. 文書 [*문서]/[*문서]
 526. 讀書 根白昏大 [*글비혼다]/[*글#빅·호다], [*독서]
 527. 寫字 根沁大 [*글순다]/[*글#스다], [*샤즈]
 528. 雙 [*쌍]/[*쌍]
 529. 單 [*단]/[*단]
 530. 丈 [*당]/[*당]
 531. 尺 [*척]/[*척]
 532. 分 [*분]/[*분]
 533. 寸 [*촌]/[*촌]
 534. 兩 [*량]/[*량]
 535. 毫 [*호]/[*호]
 536. 一 哈佛 [*하나]/[*하나], [*일]
 537. 二 撮 卜二 [*두불]/[*두불·이]
 538. 三 色 二 [*세]/[*세] [*삼]
 539. 四 餞 一 [*네]/[*네] [*스]
 540. 五 打 色 [*다섯]/[*다섯], [*오]
 541. 六 耶 沁 [*여섯]/[*여섯], [*륙]
 542. 七 色 谷 [*닐곱]/[*닐곱], [*칠]
 543. 八 耶 得 二 [*여덟]/[*여덟], [*팔]
 544. 九 阿 戶 [*아홉]/[*아홉], [*구]
 545. 十 耶 二 [*열]/[*열], [*십]
 546. 二十 色 悶 二 [*스물]/[*스물], [*아십]
 547. 一百 黑 嫩 [*흔온]/[*흔논(←흔-온)], [*일백]
 548. 一千 [*일천]/[*일천]
 549. 一萬 [*일만]/[*일만]
 550. 子 罪 答 [*죄 때]/[*죄#답(?)], [*즈]
 551. 丑 杓 答 [*쇼때]/[*쇼#답(?)], [*축]
 552. 寅 則 卜 論 答 [*? 때]/[*답(?)], [*인]
 553. 卯 吐 答 [*토 때]/[*토(兎)#답(?)], [*묘]
 554. 辰 米 立 答 [*미르때]/[*미르#답(?)], [*진]
 555. 巳 拜 言 答 [*빅얌때]/[*빅·얌#답(?)], [*스]
 556. 午 墨 二 答 [*몰 때]/[*몰#답(?)], [*오]
 557. 未 揜 答 [*염 때]/[*염#답(?)], [*미]
 558. 申 那 答 [*납 때]/[*납#답(?)], [*신]
 559. 酉 得 二 答 [*돌 때]/[*돌#답(?)], [*유]
 560. 戌 改 答 [*가히때]/[*개#답(?)], [*술]
 561. 亥 朶 答 [*돌 때]/[*돌#답(?)], [*히]
 562. 乾 [*건]/[*건]
 563. 坎 [*감]/[*감]
 564. 艮 [*근]/[*근]
 565. 震 [*진]/[*진]
 566. 巽 [*손]/[*손]
 567. 離 [*리]/[*리]
 568. 坤 [*곤]/[*곤]
 569. 兌 [*태]/[*태]
 570. 吉 [*길]/[*길]
 571. 凶 [*흉]/[*흉]
 572. 爻 [*효]/[*효]
 573. 象 [*상]/[*상]
 574. 東 [*동]/[*동]
 575. 西 [*서]/[*서]
 576. 南 [*남]/[*남]
 577. 北 [*북]/[*북]
 578. 左 [*좌]/[*좌]

| | |
|---------------------|---------------------|
| 579. 右 [*우]/[*우] | 589. 甲第 [*갑데]/[*갑데] |
| 580. 中 [*똥]/[*똥] | 590. 有限 [*유흔]/[*유흔] |
| 581. 前 [*전]/[*전] | 591. 無窮 [*무궁]/[*무궁] |
| 582. 後 [*후]/[*후] | 592. 何遲 [*하디]/[*하디] |
| 583. 內 [*닉]/[*닉] | 593. 太早 [*태조]/ |
| 584. 外 [*외]/[*외] | 594. 更新 [*경신]/[*경신] |
| 585. 繁 [*긴]/[*긴] | 595. 改舊 [*기구]/[*기구] |
| 586. 密 [*밀]/[*밀] | 596. 之乎 [*지호]/[*지호] |
| 587. 同 [*동]/[*동] | 597. 者也 [*자야]/[*자야] |
| 588. 登科 [*등과]/[*등과] | |

[미주3] 훈민정음 창제

1) 한글의 창제 목적

한글의 창제 목적은 해례본에 실린 세종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우리말과 중국의 말이 서로 달라 중국 한자로는 우리말을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날마다 쓰기에 편한 한글 28자를 만들었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변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문자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만 문자가 없어서 나라말을 표기할 수 있는 한글 28자모를 만들었다. 서문은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자주정신, 소통의 민주화, 백성들의 지식을 함양하여 국민을 교화시키려는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예의에서 밝힌 언문 28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만든 제한적 음소문자였다. 그러나 예의에서 밝힌 당시의 창제 목적은 해례본을 만드는 과정에 조선의 한자음의 교정 및 통일과 중국의 한어 학습의 필요에 따른 표음문자로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런데 한글의 창제 목적과 관련하여 전혀 다른 견해들도 제기되었다. 이승녕 교수(1976:52)는 “훈민정음의 자모 체계는 우리 현실 국어의 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동국정운》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습장 구실을 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글을 제정한다고 가정할 때, 그 체계가 현실 국어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

니고, 장차 개혁할 한자음의 체계를 실었다고 하면, 큰 시비를 받을 것이다. 그와 같이 한 것이 바로 이 훈민정음의 체계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은 《동국정운》의 이해를 위한 연습장의 구실을 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한자음의 개신을 둘러싸고 문제점이 많으며, 세종의 언어정책의 진의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가 의심될 것이다”라고 하여 한글 창제의 목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역시 이러한 논점은 “《동국정운》은 훈민정음 창제의 이론적 바탕을 만든 것이다.(이동림, 1968)”, “훈민정음 창제가 《동국정운》보다 선행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정경일, 202:65)”, 강규선·황경수(2006:74)에 “《동국정운》을 만드는 것도 한자음 개신책으로 한글을 만든 것으로 예단할 수 있다”라는 논의로 번져갔다. 이와 함께 정광(2006:34) 교수 역시 세종 서문에 나오는 “國之語音 異乎中國”에 대한 해석을 “(한자의) 국어음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서 ‘국어음(國語音)’을 ‘한자의 동음(東音)’으로 규정하면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 한자음의 규범음을 정하기 위하여 발음 기호로서 훈민정음을 고안하였다.”, “훈민정음은 실제로 한자음의 정리나 중국어 표준발음의 표기를 위하여 제정되었다가 고유어 표기에도 성공한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훈민정음, 또는 정음으로 불리었고 후자를 위해서는 언문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정광, 2006:36)라고 하여 한글 창제의 기본 정신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 하고 있다.

만일 한글 28자를 한자음 통일을 위한 부호로 만들었다면 중국 한자음 표기에 필요한 전탁음, 연서, 부서, 합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많은 조합한 모음들을 고려하지 않고 28자만으로 한정하여 창제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해례본의 용자례에 모두 고유어의 예만을 든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한글을 단순히 한자음 표기를 위해 고안된 문자라는 견해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정광(2006:36) 교수는 “훈민정음은 실제로 한자음의 정리나 중국어 표준 발음의 표기를 위하여 제정되었다가 고유어 표기에도 성공한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훈민정음’, 또는 ‘정음’으로 불리었고, 후자를 위해서는 ‘언문’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판단은 예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이다. 예의에서 전탁자 6자를 제외한 우리말 표기를 위해 언문 28자모를 창제한 다음 한자음 표기를 위해

서는 글자 운용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우리말 표기를 위해서 ‘언문’이라고 나중에 《동국정운》, 《홍무정운》, 《사성통고》의 한자 정속음 표기를 위해서 그 이름을 ‘정음’이라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광 교수의 “중국어 표준 발음의 표기를 위하여 제정되었다가 고유어 표기에도 성공한 것이다”라는 논의는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30일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야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라는 실록의 근거를 전면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말 표기에 필요한 제한적 음소문자 28자를 만들어 다양한 조합에 따라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 25년 세종이 창제한 문자는 정음이 아닌 ‘언문 28자’였으나 그 후 해례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표준발음 표기 문자로 실용화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정음’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세종 26(1444)년 2월 16일 《운회》를 언문으로 번역하라는 세종의 하교나 동년 2월 20일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정음’이라는 용어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언문’이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있으며, 세종이 내린 하교문에서도 세종 스스로 ‘언문’이라는 명칭을 두 차례나 사용한 그 때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기 1여 년 전의 일이다. 또한 세종 28(1448)년 11월에 궁중 내에 ‘언문청’을 설치하고 《용비어천가》에 실린 한문 용비시를 언문으로 번역하도록 명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세종이 창제한 당시 언문 28자는 우리말 표기를 위한 문자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후 한자음 교정 통일을 위해 활용되면서 정음이라는 용어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國之語音, 異乎中國”에 대한 해석은 백성을 기준으로 한 “국어음(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민정음은 국한 혼용표기를 위해 제정한 것이니 오늘날과 같이 한글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곧 훈민정음 해례본 합자해에서도 “한자와 언어(諺語)를 잡용하게 되면 한자음에

따라서 중, 종성으로써 보족(補足, 補以中終法)하는 것이 있으니 공자(孔子) 魯(魯:사름)의 유와 같으니라(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如孔子 魯:사름之類。)"라고 하여 국한혼용표기를 전제로 혼민정음을 창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완진(1996:313) 교수는 “세종이 설계한 민족의 문자 생활이란 정음과 한자의 조화된 병용”이라는 매우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둘째, 조선의 한자음의 표준화를 위해 한글을 활용하였다. 반절식으로 나타내던 한자음을 등운도를 활용하고 한글을 활용하여 중국 《홍무정운》의 한자음 개신음을 적절히 수용하여 조선의 한자음을 표준화를 위해 《동국정운》을 만들었으며 이어 《홍무정운역훈》을 통해 중국 내부의 정음과 속음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한문혼용체나 현음혼용체를 일관 백성들까지 학습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곧 소통의 계층적 차등을 줄이려는 세종의 의도가 서문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다.

셋째, 외국어음의 표기를 위해 한글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곧 《용비어천가》에 조선의 북관 지역의 여진 지명, 여진 인명과 몽고 인명을 보더라도 한자로 표기하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 한글을 활용하였다. ‘托溫[타-온], 泰紳[타-신], 禿魯[투-루], 豆漫[투-먼], 禿魯兀[툰-우], 童巾[통-건], 婆猪江[포주], 哈蘭[하-란], 哈蘭北[하-란-뒤]와 같이 여진, 몽고 지명과 인명을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한자로 쓰던 표음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넷째, 한자 차용으로 불완전한 조선의 고유어에 대한 표기로 한글을 활용함으로써 조선의 고유어뿐만 아니라 몽고, 여진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고유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의 우리 고유어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문 원전의 해독에서 한자어 대신 우리 고유어로 이해하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지만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차츰 한자 어휘로 대치되는 변화가 생겨났다.

다섯째, 한서의 이해를 통한 백성들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손꼽을 수 있다.

세종은 동아시아의 성리학과 성운학의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 순환주

의적 사유를 조선식으로 재해석하고 응용한 정수가 바로 한글의 창제로 요약된다. 역학과 성음의 관계, 예악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음과 정성의 확립을 위해서 한자 음의 바른 음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한글이다. 《성리대전》을 통해 성인지학을 세우고 백성을 교화하고 한자 차자표기 방식에서 오는 소통의 불편함을 줄이는 동시에 주변 국가와 교린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보편적 표음문자(universal phonetic letters)이자 자질문자(Features letters)인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이 한글 창제의 원리를 해설서로 담아낸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현대 언어학적인 원리를 능가하는 변별적 대립과 계열적·통합적 언어학의 기본 원리로 한글의 제자와 실용의 원리와 방법을 해설한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리석은 백성이 한자보다 배우기 쉬운 한글을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한 것이 한글 창제의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2)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조선을 개국한 태조로부터 태종에 이어 4대 세종은 조선의 왕도 기반을 닦은 뛰어난 왕이었다. 일찍 동아시아의 자연철학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음양오행 사상의 구조적인 통합적 학문체계를 견실하게 익힌 성군이였다. 중국 고대 복희와 문왕의 팔괘와 하도와 낙서에 연원을 둔 송나라 성리학의 원리가 역학, 성수학, 율려(악학), 천문학, 성운학 등 전체를 하나로 꿰뚫어 기술하는 동아시아의 학문적 연원과 기반을 세종은 경연과 집현전의 탁월한 학자들과 함께 훌륭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 결과 조선의 왕도 정치 기반을 천도 사상과 예악과 음악을 존중하는 법치적 국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조선의 건국 기반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성운학의 정비와 한글 창제, 고제의 연구, 법령정비, 지지 작성, 율려 정비, 전제 개혁, 측우기를 비롯한 정전 관리를 위한 천체 천문학 연구 등 실로 자주적 조선의 학문적 기반을 견실하게 닦아 왔던 것이다.

특히 세종의 외교적 전략은 매우 뛰어났다. 조선의 북관을 침탈했던 여진 세력을 물리친 것은 당시 명나라가 요동 도시를 세우고 만주 지역의 경략을 시도한 것과

맞물려 있다. 육진 중성 지역에 산거하던 여진 세력을 명나라 요동 도사로 송출함으로써 명나라의 천제는 조선의 세종을 천자(天子, 황제)의 지위로 인정하게 된다. 세종 26(1444)년 3월 명나라로부터 천자를 상징하는 오조용복 3습을 특별히 하사 받은 후에 왕실 제도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1449)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예전에 사조용의(四爪龍衣)를 입었었는데, 뒤에 듣자니 중국에서는 친왕이 오조용(五爪龍)을 입는다기에 나도 또한 입고 천사(天使)를 대접했는데, 그 뒤에 황제가 오조용복(五爪龍服)을 하사하셨다. 지금 세자로 하여금 사조용(四爪龍)을 입게 하면 내게도 혐의로울 것이 없고 중국의 법제에도 잘못됨이 없겠다 라고 하매,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하나이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又曰 昔子服四爪龍衣, 後聞中朝親王服五爪龍, 予亦服之, 以待天使, 其後, 帝賜五爪龍服. 今令世子服四爪龍, 則於我無嫌, 於朝廷法制, 亦無妨焉. 僉曰 允當, 從之)”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1449)년

세조 2(1456)년의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 26(1443)년까지는 사조용의(四爪龍衣)를 입다가 세종 26(1443)년 3월 26일 명나라로부터 오조용복(五爪龍服)을 하사받아 오조용의(五爪龍衣)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세종의 뛰어난 국제 경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종 25(1443)년 성리학과 성운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주체적인 자국의 문자를 만드는 여건은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신흥 명나라의 어문 정책 변화와 더불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자국 문자 제정(거란대소자, 여진대소자, 몽고파스파 문자 등)의 전통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문자 제정을 통한 전 국민들의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세종의 국가 경략의 이상이 이루어낸 결과였다.

첫째, 조선은 입말은 있었지만 글말이 없어 오랫동안 한자를 이용하는 불완전한 글말 소통의 부자유스러움을 극복하려는 뚜렷한 의지가 세종의 예의 서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한글 창제는 조선의 입말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주요 학문적 언어인 한문을 언해하여 보급하는 일은 국가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요체임을 깨닫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두나 구결을 통한 차자 표기의 불완전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국내 한자음의 혼란을 정리하고 표준화하려는 일은 무엇보다 더 현실적인 당면 과제였다고 보인다. 한글을 창제한 그 이듬해인 세종 26(1443)년에 이미 《운서》의 번역에 착수한 것이나 《동국정운》의 인간과 《용비어천가》에 용비시를 한글로 번역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한자음을 통일하려는 정음(正音), 정성(正聲)을 바로 세우는 일이 치국의 요결임을 깨닫고 있었다.

셋째, 국제 교린을 위한 중국의 표준음을 한글로 표기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홍무정운역훈》을 간행하였다. 당시 세종은 원나라 북방음 계열인 《고금운회거요》에 기반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나 집현전 신진 학자들은 명나라 관찬 운서인 《홍무정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으로써 한자음 정비 사업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금운회거요》에서 《홍무정운》으로 변화되었다.

넷째, 당시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가장 인접해 있었던 여진 세력의 경략과 교류를 위해 다양한 외국어의 음차 표기의 필요성에 따라 “비록 바람소리, 학의 울음, 개의 짖음과 같은 것일지라도 다 가히 쓸 수가 있는지라(雖風聲鶴唳,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또 “무릇 한자와 본국의 방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쓸 수 있다(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라고 하여 표음문자로서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다섯째, 새로 창제한 한글을 나라 안으로는 한자와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의 문헌을 언해하여 보급하는 동시에 국제 교린을 위한 사학(한어, 몽어, 여진, 왜학)의 교재 개발과 학습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3) 훈민정음 창제자

한글 창제자에 대한 학설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한글은 세종이 친히 창제하였다는 ‘세종 친제설’(홍기문: 1946, 방종현: 1947, 이기문: 1974), 둘째 ‘왕실 협력설’

은 다시 세분하여 ‘대군 협력설’(임흥빈, 2006:1385), ‘정의공주 협력설’(이가원: 1994, 정광: 2006)이 있으며, 셋째 ‘집현전 학사 협찬설’(이승녕: 1958, 김민수: 1964, 허웅: 1974, 김진우: 1988, Albertine Gaur: 1995)과 넷째 ‘세종 친제 협찬설’(강신항: 2003, 안병희: 2004), 다섯째 ‘세종 창제 명령설’(이기문: 1997) 등 매우 다양한 학설이 제기 되어 있다.

한글 창제자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문제는 한글 28자의 창제자와 이를 운용하도록 해설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든 이들과는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글 28자의 창제는 세종 친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사료는 매우 많이 있다. 《세종실록》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30일 기사에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지었는데”를 비롯해서 《임하필기》 제38권 〈해동약부〉에 “세종대왕이 자모 28자를 창제하여 이름을 언문이라 하였는데”, 《정음통석》 서문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언서로 중국 반절음을 풀이하면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홍재전서》 제9권 〈서인(序引)〉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언서(諺書)로 중국의 반절음을 풀이하면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라는 등의 기록이 세종 친제설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 친제설에 대한 반론으로 이승녕 교수의 《혁신국어학사》(박영사, 1976)의 제2장 “세종(世宗)의 전지요양(轉地療養)과 그 안질(眼疾)”의 내용은 후일 《세종대왕의 학문과 사상》(아세아문화사, 1981), 제1장 3에 〈세종(世宗)의 전지치료(轉地治療)에 대하여〉라는 글에서보다 더 소상하게 세종은 당시 안질(眼疾), 감기(感氣), 당요(糖料), 고혈압(高血壓), 풍병(風病), 성병(性病) 등 10여 가지의 노인성 질환으로 정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근거를 밝혀 두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반 백성이 아닌 임금의 일거수 일투족과 특히 건강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 실록 기록만으로 바라보면 이미 식물 인간에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최만리의 반대대상소문을 보면 온양 행궁에서도 일일이 정무를 챙겼으며, 특히 훈민정음과 관련 업무에 노심초사했음을 알 수 있어 이승녕 교수의 이러한 논의는 과장된 추측이 아닌가 한다.

한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어학자의 이러한 논의는 곧바로 엘버틴 가울(Albertin Gaur)(1995)이라는 외국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엘버틴 가울은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손수 발명한 공로자로 종종 묘사되지만 이런 현사는 대개 예우와 새로운 관습에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가 섞인 것이다”라고 하여 훈민정음의 세종 친제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정광(2006:8) 교수는 “훈민정음이란 신문자를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을 강조하여 문자의 권위와 그로 인한 어떠한 부작용도 제왕의 그늘 속에 묻어버리려는 뜻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세종이 신문자 28자를 직접 제작했다는 실록의 기사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기사다”라고 하면서도 정의공주 협찬설을 주장한다.

왕실 협력설 가운데 먼저 세종과 문종의 협력설이 있다. 《직해동자습》 서문의 “우리 세종과 문종대왕은 이에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 이미 만든 훈민정음이 천하의 모든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어”라는 다소 신뢰성 떨어지는 기록과 《운회》 변역 등의 각종 사업에 왕자나 세자에게 일을 감독하도록 명한 내용을 들어 대군 협력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글의 글꼴과 음가를 규정하는 한자 대표 글자(자모)의 배열을 가지고 대군협력설을 제안한 임홍빈(2016:1385) 교수는 ‘군규쾌업(君虬快業)’ 곧 “임금과 왕자가 일을 좋아한다”를 “임금과 왕세자가 훈민정음을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여 한글은 임금과 왕세자(문종)와의 협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공주 협찬설이다. 《몽유야담》〈창조문자〉에 “우리나라 언서는 세종 조에 연창공주가 지은 것이다”와 《죽산안씨대동보》에서 “세종은 방언이 한자와 서로 통달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비로소 훈민정음을 지었는데 변음과 토착음은 오히려 다 연구하지 못하여 여러 대군으로 하여금 풀게 하였으나 모두 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공주에게 내려 보냈다. 공주는 곧 풀어 바쳤다”라고 하는 전거를 들어 정의공주 협력설이 제기되었다. 야담 소설이나 족보의 근거가 국가 기록인 실록보다 실증적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집현전 학사 협찬설도 있다. 논거로는 《청장관전서》 권54 〈양엽기 1〉에 “장헌대왕이 일찍이 변소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배열해 보다가 문득 깨닫고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창제하였다”는 기록이나 병와 이형상이 지은 《악학편고》 권1 <성기원류>에 “정하동 인지 신고령 숙주 성승지 삼문 등에게 명하여 언문 28자를 지었으니” 등의 논거도 있다.

한글 창제 경위에서 적어도 2단계에 걸친 과정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곧 첫 단계는 세종 25(1443)년 《세종실록》에서 표방한 ‘언문 28자’를 창제한 시기, 곧 언문 28자 창제는 분명하게 세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단계에서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세종 친제 언문 28자에 대한 이론적 골간을 세운 과정에서는 세종이 직접 진행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론의 틀을 고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세종이 창제한 한글 28자를 성리이론이나 성운학 이론에 기반하여 중국 운서의 번역과 중국 한자음의 통일을 진행 과정에서는 세종과 집현전의 8명의 신예 학사들과 공동으로 추진된 것이다. 곧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은 세종과 함께 집현전 학사들의 공동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언문 28자의 세종 친제설의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제 단계에서 한글 28자모를 만드는 일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성운학의 성모와 운모에 해당되는 초성 17자와 중성 11자에 배당된 한자 대표자를 선정하는 일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성모 23자모도 중국의 전통적인 성모 한자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중성과 중성에 배치할 것을 미리 고려하여 초, 중, 중성에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 곧 ‘吞(·), 慈(·)/卽(—), 揖(—)/侵(1), 彌(1)/步(ㄴ), 洪(ㄴ)/覃(ㅌ), 那(ㅌ)/票(ㅕ), 欲(ㅕ)/穠(ㅈ), 邪(ㅈ)/君(ㅊ), 斗(ㅊ)/虛(ㅊ), 業(ㅊ)/蚪(ㅊ), 戍(ㅊ)/驚(ㅊ), 間(ㅊ)/快(ㅊ)’는 초성자에서 사용한 23자의 한자음을 중성에 거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快(ㅊ)’ 한 자만 제외한 22자를 중성 11자에 골고루 2자씩 배치한 것이다. 안병희 교수(2007, 54~55)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두 글자 가운데 중성이 있는 앞의 한자를 모음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일을 집현전 여러 학사가 모여 결정한 일이 아니라 운학에 통달한 세종이 직접 고안해 낸 창의적인 안일 수밖에 없다. 예의편의 초·중·성 자모를 대표하는 한자만 하더라도 그대로 해례와 《동국정운》에서 승계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설

과정에서도 일일이 신숙주를 통해 제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면 한글 28자모는 세종의 친제임이 분명하다.

두 번째 단계에서 예의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실들이 대폭 확장되는 해례본의 완성은 세종의 단독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집현전 신예 학사 8명과 함께 세종이 창제한 언문 28자를 한자음이나 한어 표기뿐만 아니라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우리 고유어까지 표기할 수 있어 세상의 만물의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로 확장시킨 것이 해례본이다. 한자음과 외래어 표기 및 중국어 원음 표기와 중국 운서를 번역하는 일 또한 세종과 함께 집현전 학사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문 28자모는 세종의 친제이고 연이는 정음의 운용 방안과 실제 적용의 문제는 집현전 학사들과 협찬에 의해 완성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곧 예의는 친제요 해례는 협찬 제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자를 규명하는 데 두루뭉술하게 쓴 사료의 하나인 성삼문의 《직해동자습》에 “우리 세종과 문종이 개연히 문제를 염려하여 이미 훈민정음을 지었으니(我世宗文宗慨然念於此，既作訓民正音)”의 예를 들어 세종과 문종의 협찬설을 주장하는 일이나 “세종은 혼자서, 아니면 은밀하게 신문자를 준비하였고”(이승녕, 1976:17)와 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마치 훈민정음 창제를 궁중의 비밀 프로젝트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세종이 가족을 동원하여”라는 등의 근거없는 논의들을 확대 재생산하기도 한다.

《국조보감》 제7권 〈세종조 3〉의는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여 대략적으로 예의를 게재하여 제시하였다”라는 당시의 정황을 기술했던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세종 친제설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곧 세종 25(1443)년에 한글 28자모를 만들어 어제 서문과 예의를 함께 발표한 것은 분명하게 세종의 친제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해례본을 만든 3년 동안은 세종 단독이 아닌 집현전 신예 학사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집현전을 대표하는 정인지를 통해 수시로 재가를 받을 만큼 치밀하게 진행했을 것이다. 《해동역사》 제42권 〈예문지〉에서도 “성인께서 처음으로 글자를 창제한 공이 크다고 하겠다”라고 하여 세종에게 그 공을 크게 돌리고 있다.

1단계 곧 언문 28자의 창제는 바로 세종이 직접 구상한 결과이며, 이것을 토대로 한 2단계 곧 해례편의 완성은 집현전 학사들과 협찬에 이루어진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세종이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시고(略揭例義以示之)”라는 대목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예의임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 이광호(2006:1398) 교수는 세종실록의 근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채, 해례를 만든 다음에 이를 요약한 것이 예의라는 논의를 제기한 것은 말 그대로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숙종 시대의 운학자인 명곡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도설》 47에 “세종대왕이 지으신 ‘언문’의 이름을 정인지가 ‘훈민정음’이라 지었다(世宗大王, 撰諺文名曰, 訓民正音, 鄭麟趾作)”라고 하여 언문 28자모는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이고 이를 해설을 통해 자모를 조합하여 다양한 한자음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으로 그 사용영역을 확장시킨 것은 세종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와의 협찬의 결과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책으로 펴냈던 것이다.

4) 훈민정음 창제 시기와 반포

훈민정음의 창제와 둘러싼 논의 가운데 뜨거운 논점 거리가 또 하나가 있다. 훈민정음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과연 백성들에게 반포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이다. 먼저 훈민정음이 창제 시기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의 사료에 근거하여 세종 25(1443)년 12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세종 28(1446)년 9월에 “是月, 訓民正音成, 御製曰, 國之語音, 異乎中國…”이라는 사료를 근거로 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을 창제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언문 28자가 창제된 시점은 세종 25년이지만 이를 해설하고 문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으로 규정한 것은 세종 28년이다.

한글 28자가 완성된 곧 새로운 문자가 탄생한 시기를 창제로 보지 않고 제정이라는 견해로 《훈민정음》 해례본 책을 펴낸 시기인 세종 28(1446)년 12월을 완성 시기로 보고 이를 기점으로 반포하였다는 관점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언문’ 또는 ‘훈민정음(정음)’이라는 새로운 민족 문자를 세

종이 창제한 이후 2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곧 세종 25(1443)년 12월에 한글 자모 28자의 창제에 이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워 해설한 것은 세종 28(1446)년이라는 사실에는 어떤 이문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과연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정식으로 전 백성에게 사용하기를 권면하는 반포가 이루어졌을까? 왕의 고유나 칙령을 백성들에게나 승정원에 하교하는 법적 행위를 반포라고 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 문자와 관련된 내용의 반포라는 기록은 어디에서고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세종실록》 세종 26(1446)년 갑자 2월 20일에 최만리가 올린 상소문에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서리 무리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하여 공장 수집 인을 모아 각본하여서 급하게 널리 광포(廣布)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에 어찌하겠습니까”라는 기사에 ‘광포’라는 말을 확대하여 ‘반포(頒布)’로 해석함으로써 마치 법적 선포식을 행한 것처럼 오인하게 된 것이다.

한글날 기념식을 세종 28(1446)년 9월 상한(上澣)으로 보고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잡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문제는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날짜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세종 25년 창제한 날을 기준으로 하든지, 세종 28년 해례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든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글의 창제를 언문 28자를 만든 시점으로 잡는다면 세종 25(1443)년 12월임은 분명하고 이것을 해설한 해례본의 완성 시기는 세종 28(1446)년 9월 상한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언문 28자를 창제한 내용이나 혹은 《훈민정음》 해례를 완성하여 반포를 했다면 반드시 “유지, 교서, 칙서, 고명”이라는 형식에 의해 승정원이나 의사청을 통해 대내외에 널리 알렸을 것이며, 만일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실록에 그 근거 사료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반포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어떤 사료에서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반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 반포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조선조 문헌 기록상 《훈민정음》의 ‘반포(頒布)’라는 용어는 단 한 군데도 사용된 적이 없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나타난 ‘광포(廣布)’라는 용어를 본따 김윤경(1954년) 교수나 방종현(1946년) 교수도 ‘발포(發布)’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반포’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으며, 오쿠라 심페이(1964년)는 ‘공포(公布)’라 하였고, 박승빈(1947년)은 ‘영포(令布)’라고 하였다. 이는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반포 기념식을 공식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포’라는 용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반포설을 전면 부정하고 세종 25(1443)년 12월 창제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글 창제 기념일에 대한 논란으로 연결될 예민한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세종 25(1443)년을 창제 시기로 보지 않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해설서가 완성된 시기인 세종 28(1446)년 12월을 새 문자를 반포한 시기로 보는 종래의 관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창제 당시에 발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소홀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26(1446)년 갑자 2월 20일에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이미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로 책판을 찍기 위해 움직이던 모습이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례를 완성한 이후에 예의가 만들졌다는 추론이나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를 위해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등의 논의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창제와 반포라는 연계적인 과정으로 인식한 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는 이승녕 교수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였다.¹ “다시 결론한다면, 실록의 세종 28년 9월 끝의 기사로 ‘訓民正音成’은 앞에서도 말한 것이지만 원고가 작성되어 임금께 올린 것이지, 책이 출판된 것은 아니다. 〈중략〉 다시 강조한다면, ‘한글날’은 훈민정음의 원고를 써서 세종께 바친 날이지 출판기념일도 아니다”라고 하여 세종 28(1446)년 9월 상한이 훈민정음 반포일이 아니라는 논의와 함께 훈민정음의 창제는 “《동국정운》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습장 구실”을 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라고 하여 한글은 한자음 표기를 위한 일개 수단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해설서에 불과하며 또 반포로 볼 수도 없다”(정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24쪽, 2006년)는 주장과 함께 반

1 이승녕, 《개혁국어학사》, 박영사, 15~16쪽, 1976.

포일은 훈민정음 예의편을 언해한 《훈민정음》이 《월인석보》 권두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반포일로 보아야 한다는 좀 생경한 주장도 있다.²

한글 창제를 둘러싼 논의 가운데 뜨거운 논점 거리가 또 하나 있다. 한글이 언제 완성되었느냐라는 문제이다. 먼저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의 사료에 근거하여 세종 25(1443)년 12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세종 28(1446)년 9월에 “是月, 訓民正音成, 御製曰, 國之語音, 異乎中國”이라는 사료를 근거로 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간행 시기를 완성 시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언문 28자모가 완성된 곧 새로운 문자가 창제된 시기를 그 기점으로 보지 않고 사료에 전혀 근거가 없는 ‘제정’ 혹은 ‘반포’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어 창제 시점을 세종 28(1446)년 12월로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반포하였다는 관점은 문제점이 없지 않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언문 또는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민족 문자를 세종이 창제한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곧 세종 25(1443)년 12월의 창제에 이어 이를 이론적으로 줄가리를 세워 해설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 시기는 세종 28(1446)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도 있을 수 없다. 세종 《세종실록》 세종 26(1446)년 갑자 2월 20일에 최만리가 올린 상소문에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서리 무리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하여 공장 수십 인을 모아 각본 하여서 급하게 널리 ‘광포(廣布)’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에 어떠하겠습니까”라는 기사에 ‘광포’라는 말을 확대하여 ‘반포(頒布)’로 해석함으로써 마치 법률적 선포식을 행한 것으로 오인하게 된 것이다.³

- 2 정광, <새로운 자료와 시각으로 본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 《언어정보》 제7호,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5~38쪽, 2006.
- 3 영조 12(1736)년 병진 중추(팔월)에 《여스서언해》의 영조 서문에 “참조롭다 그 이 글을 기간하야도 오히려 기간치 못 혼 前전과 又호며 그 이 글을 넘그매도 오히려 넘지 아닌 前전과 又호면 이 엇지 나의 眷顧眷顧하야 廣광布포호는 쓰지리오 그 각각각 힘써 조금도 忽홀치 말을 써이다”라고 하여 ‘광포(廣布)’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곧 관찬한 책의 서문에 임금의 밝힌 내용이다.

1926년 지금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가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에 훈민정음 반포 여덟 회갑(480년)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고, 이 날을 ‘가갸글’이라는 당시 한글의 이름에 따라 제1회 기념식을 가졌다.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인 1928년부터는 ‘한글날’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1931년 10월 29일에 처음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완성을 기념하는 기념식(반포식 기념일이라고 칭함)을 처음 가졌다. 1934년부터는 1582년 이전에 율리우스력을 썼던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10월 28일로 바꾸었다가 다시 1934년부터 10월 9일을 기념일로 정하였다.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어 9월 상순에 책으로 펴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다시 정하였다. 1945년 이후 10월 9일부터 그 날을 한글날 기념일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만들었다. 1991년 한글날 공휴일을 폐지하였다가 2005년 다시 국경일로 제정하였으며, 2012년 11월 7일 한글날을 다시 국경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한글날 기념과 관련하여 왜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한글파와 한자파의 끝없는 대립, 갈등과 정치적 세력과 언제 어떻게 손을 잡는가에 따라 한글날이 국경일에서 기념일로 다시 국경 공휴일로 뒤바뀌는 굴곡을 만나게 된 것이다. 2013년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 왔다. 한글,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랏말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우리말과 글을 더욱 소중하게 보듬는 기회가 되길.(정광(2006), 〈새로운 자료와 시각으로 본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 《언어정보》 제7호,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5~38쪽, 참조.)

5) 한글 명칭

‘훈민정음’은 세종 25(1443)년 12월에 세종이 친제한 우리 겨레의 고유 문자인 한글, 곧 문자 이름으로서 ‘훈민정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해설한 책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600여 년이 지나오면서 그 명칭은 시대 변화에 따라 변천해 왔다.

훈민정음 혹은 정음이라는 명칭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문자 이름으로나 혹은 책이름, 또는 이문(吏文)의 과거 시험의 과목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세종 당시에도 최세진의 상소문에도 훈민정음이나 정음이라는 명칭은 단 한 군데에도 나타나지 않고 언문이라는 명칭이 무려 26회나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 26(1444)년 2월 기록에서 최세진의 반대 상소에 대해 세종이 하교한 교시에도 임금 스스로 한글의 이름을 ‘언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곧 “지금 이 언문도 또한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데 있는 것(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이라는 내용이다. ‘훈민정음이 문자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해례본 창제를 둘러싼 학사들이 결정한 이름일 뿐 문자 이름으로서의 생명은 세종 당대에 끝난 것이다. 다만 과시의 과목 명칭으로나 책 이름으로서의 명맥만 유지되었다.

한글 창제의 최초 기록은 세종의 25(1443)년 《세종실록》에서 ‘언문 28’자라고 하여 ‘언문(諺文)’이라는 명칭이 훈민정음이라는 명칭과 함께 나타난다. 최세진의 반대 상소문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는 ‘훈민정음’ 혹은 그 약자인 ‘정음’보다 ‘언문’이라는 이름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창제 직후에는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시니...이를 훈민정음이라 한다(上親制諺文二十八字)”에서 분명하게 ‘언문’이라고 부르다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례본의 어제 서문에서는 “新制二十八字...訓民正音”로 썼었다. 곧 창제 당시에는 ‘언문’과 ‘훈민정음(혹은 정음)’이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해례본의 종성해에서도 이 ‘언(諺)’과 ‘문(文)’은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且半舌之_ㄹ當用於諺而不可用於文.”, 또 합자해에서도 “文與諺雜用則”이라고 하여 ‘언’은 우리말을 ‘문’은 한자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문’은 한자어를 ‘언’은 우리말 곧 고유어를 나타내는 말이다. 곧 ‘언문’은 한문자에 대한 말로서 한문자가 아닌 ‘언자’의 개념을 포괄한 우

리 문자와 글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언문에 담긴 뜻은 ‘언(우리말 혹은 문자)’, ‘문(한문, 혹은 한자음)’을 합성한 말로 한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고유어를 비롯한 한자까지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뜻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초기에는 ‘언문’과 ‘정음’이라는 용어는 함께 사용되었으나 ‘정음’보다 오히려 ‘언문’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말에 언문 28자의 창제를 알리는 첫 기사에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⁴라 실렸다. ‘언문’이라는 명칭과 함께 해례본 용자해에서는 “如諺語爲依。如諺語絲 爲絲之類”라고 하여 ‘언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병와 이형상(1653~1733)의 《악학편고》에서도 “世宗大王設諺文廳(중략)命鄭河東麟趾申高寧叔舟成承旨三問等, 製諺文日初終聲八字”라고 하여 ‘언문’이라는 용어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언문으로 된 《삼강행실열녀도》의 약간을 찍어서 한양에 오부와 여러 도에 반사하여”(《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이언적(1491~1553)이 언문 《소학》을 인출하여”(《명종실록》 권1, 명종 원년), “임금이 언문으로 된 유지를 승정원에 내려”(《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속명의를》를 한결 같이 원편의 준례에 따라 진서와 언문으로 인출하여 반포하고”(《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등과 같이 임금의 하교문에서도 ‘훈민정음’이니 ‘정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언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언문’을 한자 혹은 한문에 비해 열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언문’의 뜻풀이를 “상말을 적는 문자라는 뜻으로,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훈민정음 창제 이

4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30일.

후에 쏟아져 나온 각종 언해들이 모두 상말로 적은 글이라는 뜻이었을까? 《석보상절》이 석가의 일대기를 상말로 적은 책이라는 말일까? 학계에서는 이 언문이라는 용어에 대해 “훈민정음”을 낮게 일컬어 ‘언문’이라고 하던 이름을 버리고 ‘위대한 글자’라는 뜻으로 ‘한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강신항, 2010:10)는 편견을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해 온 결과이다. 이 문제는 세종의 한글 28자 창제 목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곧 세종이 새로운 문자를 만든 배경이 단순히 한자음 통일을 목표로 하여 한글 28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이루어진 서책을 우리 고유 문자로 번역하여 많은 백성이 새로운 신지식을 배우게 하고 또 이 고유 문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하였다. 또 한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말까지를 전면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신문자로서 ‘언문’ 28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 언문 28자를 대상으로 하여 집현전 학사들과 이 문자의 운용을 위한 이론적 틀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자음의 통일을 비롯한 한어의 학습에 이르기까지 활용의 폭이 점차 넓어진 것이다. “언문”이라는 용어는 훈민정음을 낮잡아 부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언문’이 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모 이름으로는 부적절한 것”(임흥빈, 2006:1361)이라는 관점에서 ‘언문’이라는 이름에서 ‘훈민정음’으로 그 문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됐으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언서, 언간, 언찰’ 등의 이름을 보더라도 ‘정음서, 정음간, 정음찰’과 같은 조어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조에 한글을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용어는 바로 ‘언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 창제한 언문 28자에 대해 해설서를 완성한 당시 새로 만든 문자의 이름은 ‘언문’과 함께 ‘훈민정음(정음)’이라 일컬었으며, 또한 이를 해설하여 책으로 간행한 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석보상절》 서문에서는 “正音은 正音 소리니 우리 나랏 말을 正히 반득기 올히 쓰는 그릴씨 일후를 正音이라 호느니라”라고 하여 ‘훈민정음’과 이를 줄인 ‘정음’이 언문 28자의 공식적인 명칭임을 밝혀 주고 있다. 마치 오늘날 ‘한글, 국어, 국문, 우리말글’이 함께 쓰이 듯, 우리말과 한자말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문자가 곧 ‘언문’이며, 이를 일컬어 ‘훈민정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창제 초기에는 ‘언문’ 또는 ‘훈민정음’, ‘정음’이 함께 사용되었다. 해례의 정인지 서문에도 “창제 정음 28자”라고 하였으며 해례 곳곳에서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正音二十八字 各象形而制之”와 같이 ‘정음’으로 줄인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용비어천가》 제3장의 주에도 “漢字難通之字 卽以正音之字書之”라든지 《월인석보》 서에도 “而正音就加譯解”라고 하여 ‘정음’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언문’보다는 훨씬 적게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을 보면 ‘언문’이라는 용어는 ‘언서’라는 용어와 함께 조선 후기까지 줄기차게 사용되고 있다. 조선 후기에 병와 이형상은 《자학》에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지으신 훈민정음은 바로 언문을 말한다.”⁵⁾는 기록을 보면 한글 이름이 조선 후기에는 ‘훈민정음’에서 ‘언문’으로 반전되어 정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언문’을 ‘한문(진서, 진문)’에 비해 낮잡아 부르는 경향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나타나게 되었지만, 실제로 언문이 바하적인 의미를 담은 명칭이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 물론 조선조 사대부들이 한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문자 이름으로서 비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언문’과 ‘훈민정음(정음)’이 함께 문자 이름으로, 또 그것으로 쓴 글까지를 포괄한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곧 ‘언문’은 ‘한문’에 대응되는 우리의 문자와 글의 명칭으로, ‘정음’은 ‘속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동국정운》이나 《홍무정운역훈》과 같은 바른 한자음을 표기하는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글’의 표음 방식이 중국의 반절법과 비슷하다고 하여 ‘반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반절은 일종의 운형도에서 36자모를 횡으로 배열하여 우보(右譜, 성모)라고 하고 종으로는 108운을 섭(攝, 운모)이나 평상거입 곧 사성으로 나누거나 16섭으로 구분하여 모든 한자의 음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이 운법직도(韻法直圖)에서 반절 상자인 성모를 결정하고 반절 하자인 운모를 결정하는 곧 ‘知’는 ‘眞奇切’로 반절하여 그 음이 ‘지(ㅈ+ㅣ)’임을 확인하게 된다. 36자모를 다시 오음으로 분류한 전통은 범어에서 기원하며 중국 운학에서 109운을 섭이나 사성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발전된 결과이다.

5 “我世宗大王御製 訓民正音, 卽所謂諺文也”, 이형상의 《자학제강》〈운학시종〉.

한글을 반절이라고 부른 것은 최세진의 《훈몽자회》 범례의 주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속에서 소위 반절 27자라고 하는(俗所謂反切二十七字)”이라는 기록에서 한글을 ‘반절’이라고 일컬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규경(1788~1856)의 《오주연문장산고》에서 “속되게 언자를 언문반절이라고 하는(俗以諺爲諺文反切)”이라고 하여 반절이라는 용어는 중국과 구별하기 위해 ‘언문반절’이라고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 “我東則以 世宗御製訓民正音爲翻切”이라고 하여 ‘번절’이라고도 하였다. 이 반절이라는 용어는 언문의 다른 명칭이라기보다 “가, 가, 거, 저…”와 같은 한글 반절 자모가 완성된 이후의 자모의 합성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모 36자와 운모 109여 자의 성모와 운모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두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의 음을 결정하는 반절 방식이 언문 28자를 초·중·종으로 합하여 음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한글 28자를 반절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적절한 명칭이 아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국어와 국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봉운의 《국문정리》(1897년)에서처럼 ‘나랏글, 나랏말’이라는 뜻으로 국어와 국문이 언문이나 정음이라는 말을 밀쳐 내게 된 것이다. 곧 개화기부터 국가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면서 ‘나라의 글’이라는 뜻으로 ‘국어’ 혹은 ‘국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오늘날 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대한제국의 시대를 거쳐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의 국어와 국자가 밀려드는 틈을 타서 일제의 국어에 대응하여 ‘조선어’와 ‘조선말’이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세종이 창제한 언문 28자에 대한 글자 이름으로 오늘날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라는 말은 주시경 선생이 처음 만들고 또 조선어학회(한글학회)를 통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우리 고유 글자의 이름으로서 ‘한글’이란 ‘위대한 글자’의 뜻으로 또는 ‘한(韓)민족의 고유한 글자’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글’이라는 이름이 순전히 ‘글자’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말만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글자’만을 ‘한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자’와 ‘한국어’를 아울러 ‘한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사대부들은 《훈몽자회》, 《천자문》, 《유합》 등 기초적인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히기 위해 한글의 학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안병희

(2007:199~213) 교수는 이미 16세기에는 시골 선비들까지 한글이 보급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공식적인 통문의 방식이 주로 한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문과 언문은 상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인 결과, 조선 후기에는 ‘언문’이라는 용어는 진문 곧 한문에 비해 낮은 글이라는 의미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글의 확산 과정에서 사회 계층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여 ‘안글’, ‘암글’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하층민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편견으로 영남지방 사대부가에서는 한글은 변소에서나 읽는 글이라 하여 ‘통싯글’이라고 비하한 속설도 생겨나게 되었다.

통어로서의 우리말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면서도 통문으로서의 한글은 시대에 따라 사대부층과 하층민,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회 계층에 따라 사용자 층이 달랐다. 그 결과 통문을 위한 글자인 한글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게 된 것이다.

중화에 대한 사대주의와 일제 침략이라는 굴절을 겪으며, 한글은 겉과 속이 다른 편견에 내몰리면서도 한문현토체 한글에서 국한문 혼용기를 거쳐 한글 전용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던 지난 시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나라의 나라 글자가 둘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말과 글을 잘 가꾸는 동시에 한문 문화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문은 학문용 문자로서 또 글로서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언문청과 정음청

‘언문청’ 설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 세종 28(1446)년 병인 11월 8일 기사에 “《태조실록(太祖實錄)》을 내전(內殿)에 들여오기를 명하고, 드디어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사적(事迹)을 상고해서 용비시(龍飛詩)를 첨입(添入)하게 하니,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실록(實錄)은 사관(史官)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언문청(諺文廳)은 알아서 드러나게 되고 외인(外人)의 출입이 무상(無常)하니, 신 등은 매우 옳지 못하였다고 여깁니다”라고 하였으며, 동 실록 세종

29(1447)년 정묘 7월(117권 1장)에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언문청과 의방찬집(醫方撰集) 서사인, 별시위, 충순위, 내직원, 사준원은 서찰에 공로가 있으므로 별도를 주고자 하는데 어떠할까”라는 기록이 있다. 또 《용재총화》(권7)에도 “세종이 언문청을 설치하였다(世宗設諺文廳)”라고 하여 실록의 기록과 부합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를 발표한 후에 다시 ‘언문청’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에 대한 사업을 전개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강희맹의 〈최항 묘지〉(《태허정집》)에서는 “세종이 언문을 창제하신 후에 궁중에 기관을 설치하여(世宗創制諺文, 開局禁中)”라고 하였는데 임원준의 《보한재집》 서문에도 똑같은 문구를 썼고 또 그가 신숙주의 행장에서는 “세종이 언문 자모 28자를 창제하신 후 궁중에 기관을 설치하여 문신을 뽑아(언문 관계 서적을 편찬할 때 공이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 (御製諺文字二十八字, 設局於禁中, 擇文臣撰定, 公實承審裁)”, 《보한재집》〈신숙주 행장〉)”라고 하였는데 이파의 동인 묘지와 이승소의 동인 비명 등에도 대동소이한 말을 하였다. 이로 본다면 세종이 금내에 언문청을 설치하고 최항, 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 보게 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의사청에 간직이 많아서 그 일부를 언문청으로 사용한 것인지 처음에는 의사청을 임시로 쓰다가 딴 청사로 옮긴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승녕(1967:33~40) 교수는 “정음청은 과연 한글 연구의 아카데미인가?”라는 글에 “정음청은 《세종실록》에 나올 리 없고 오직 문종과 단종 때에 실록 기사가 나올 따름이다”라고 하여 ‘정음청’이 한글 연구를 위한 아카데미였다는 주장에 대해 조작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언문청’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이를 활용한 최초의 사업으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용비시 125장의 언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궁중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해례본을 편찬하면서 한자음 연구로 쏠리면서 ‘언문’이 ‘정음’ 혹은 ‘훈민정음’으로 부르듯이 ‘언문청’이 ‘정음청’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기관은 연구 기관이 아닌 언문으로 된 서책 간행을 관장했던 기관이었으나 운서 간행을 위해서 문종 대에 “따로 정음청을 설치하고 환관을 시켜 관장케 하니”라는 《문종실록》의 기록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언문청과 집현전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집현전은 훈민정음만 연구한 기관이 아니라 임금의 국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했던 기관이며, 그 가운데 집현전의 직함을 가진 일부의 사람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연구와 운서 언해 작업을 추진했던 하나의 청이라고 볼 수 있다. 서거정의 《필원잡기》(1권)에는 세종 때의 이야기로 “유신들에게 명하여 분국을 설치하고 여러 서적을 편찬하도록 하였는데 《고려사》, 《치평요람》, 《병요》, 《언문》, 《운서》, 《오례의》, 《사서오경음해》”라고 하였으니 언문청은 그 분국의 하나인 증거다. 《세조실록》 원년 병자 정월에는 “傳于集賢殿曰, 今明使出來, 國家多事, 明皇誠鑒就本殿出註, 勿別開局。”이라고 하였으니 그 당시 한 서적을 편찬할 때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별국을 설치했던 증거다. 따라서 언문청이 집현전을 중심 삼아서 별개로 개국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정음청도 필시 세종 말년 문종 초년에 있어 그러한 개국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오직 그것은 유신이 아니요, 환관들로 담당시켰던 것인 듯하다.

‘정음청’에 대한 기록은 《문종실록》(4권 34)의 2년 경오 10월에는 도승지 이계전, 좌승지 정이한과 문답 중 “별도로 정음청을 설치하고 환관이 업무를 맡아라(別設正音廳. 使宦官掌之.)”라고 하였고 또 동년 12월(5권 19장)에는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근일에 정음청에서 《소학》을 인쇄하기를 마쳤으니, 그 주자는 마땅히 주자소(鑄字所)에 내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들으니 본소가 좁아서 갈무리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하니, 그대로 정음청에 두고 주자소의 관리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감독하고 맡아 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라는 기록이 있다. 세종대에 설치한 ‘언문청’이 문종대 1450년에 ‘정음청’으로 바뀌었고 거기서 소학을 인간하였고 또 그 뒤 갑의(甲衣)의 제조처로 바뀐 것이다. 그 당시에 정음이라고 이름지은 것을 보면 훈민정음과 관련이 전연 없을 것같지 않다. 곧 언문청에도 따로 인각(印刻)하는 시설을 가졌던 것으로 정음청을 계승한 궁내 기관으로 추정된다. 《중종실록》 원년 병인 9월에는 “언문청을 혁파하다(革諺文廳)”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언문청’이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의 6왕대를 거쳐 중종 때 비로소 없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문을 탄압하였던 연산조에 혁파하지 않았던 ‘언문청’이 왜 중종대에 들어서서 ‘언문청’을 혁파하였다는 것은 확실히 불가

사의한 일이며, 또한 이미 문종대에 ‘언문청’이 ‘정음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이 당시에 ‘언문청’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7)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ㄱ은 牙향홀름·이니 如聲君 팔 ㅅ字 初發 罷聲 ㅎ·니·라”라고 하여 ‘ㄱ’ 다음에 격조사가 ‘ㄴ’인 것으로 보아 양성모음이나 중성모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ㄱ’은 ‘기’ 혹은 ‘ㄱ’였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한글 자모의 명칭은 처음으로 최세진의 《훈몽자회》 범례에 자모 배열과 함께 각 자모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초종성통용팔자〉에서 “ㄱ其役, ㄴ尼隱, ㄷ地末, ㄹ梨乙, ㅁ眉音, ㅂ非邑, ㅅ時衣, ㅇ異凝”, 〈초성독용팔자〉 “ㅋ箕, ㅌ治, ㅍ皮, ㅈ之, ㅊ齒, ㅊ而, ㅇ伊, ㅎ屎”와 〈중성독용십일자〉에서 “ㅏ阿, ㅑ也, ㅓ於, ㅕ余, ㅗㅜㅝ, ㅛㅜㅝ, ㅜ牛, ㅠ由”로 자모의 명칭을 밝혀두고 있다. 초성에서 “ㄱ其役, ㄷ地末, ㅅ時衣”은 먼저 ‘기’음이 아니고 ‘기역’이 된 것은 한자로 ‘음’으로 읽히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역(役)’으로 표시했으며, 역시 ‘ㄷ地末’도 ‘근’이라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끝말(末)’의 자석으로 표시했으며, ‘ㅅ時衣’ 역시 ‘옷의(衣)’의 자석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다른 초성은 모두 ‘니은’, ‘리을’, ‘미음’ 등으로 ‘으’로 끝나는데 위의 석 자는 ‘기역’, ‘디근’, ‘시옷’이 되어 마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초성독용팔자〉에서는 “ㅋ箕, ㅌ治, ㅍ皮, ㅈ之…”처럼 한자음의 핵모음이 모두 ‘ㅣ’로 끝난다. 이러한 점에서 〈초성통용팔자〉의 자모 명칭도 ‘기, 니, 디, 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병와 이형상(1653~1733)의 《자학》〈언문반절설〉에 따르면 이들 초성의 명칭 “ㄱ其役”에서 ‘其’는 초성의 소리를 ‘役’은 중성의 소리를 마치 반절하듯이 그 명칭을 정했다는 증언과도 일치한다.

이 한글 자모의 명칭이 《국문연구의정안》에서 2음절인 “ㅇ이음, ㄱ기음, ㄴ니은, ㄷ디근, ㄹ리을, ㅁ미음, ㅂ비음, ㅅ시옷, ㅈ지옷, ㅊ히웁, ㅋ키음, ㅌ티을, ㅍ피

을, ㅈ치읓”으로 결정되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안에 의거하여 자모 명칭을 결정했으나 1934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기역’, ‘디귤’, ‘시읏’과 나머지는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등으로 최세진의 《훈몽자회》 범례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한글의 자모 순서는 훈민정음 예의(1443년)의 초성 순서는 아, 설, 순, 치, 후 오음의 순에 따라 모음은 하늘(天, ·), 땅(地, —), 사람(人, |)의 순서에 따라 가획에 의한 초출자와 재출자로 배열하였다.

초성: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ㅅ, ㅆ, ㅈ, ㅊ, ㅅ, ㅎ, ㅇ, ㄹ, ㅁ (17자)

중성: ㆍ, —,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1자)

그 후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년) 범례에서는 자모의 배열순서가 크게 바뀌었다. 성운학과 성리학적 역학의 원리에 따라 배열된 훈민정음의 자모 순서를 깨트리고 일대 변화를 이룬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팔중성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초성과 중성에 두루 사용되는 〈초중성통용팔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를 먼저 배열하고 다음에 〈초성독용팔자〉 ‘ㆁ, ㅋ, ㅌ, ㅍ, ㅅ, ㅆ, ㅇ, ㅁ’을 아, 설, 순, 치, 후에 맞추어 배열한 결과이다. 중성은 하늘(天, ·), 땅(地, —), 사람(人, |)을 기준으로 하여 개구도가 큰 모음으로부터 개구도가 작은 모음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결국 실용학적인 관점에서 한글 반절도를 만들면서 자모 순서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ㅌ, ㅍ, ㅅ, ㅆ, ㅇ, ㅁ, ㅎ (17자)

중성: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11자)

이후 최세진의 《훈몽자회》 범례의 자모 배열순서는 숙종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는 실학자들 연구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오늘날의 자모 순서와 가장 근접하는 홍계희의 《삼운성휘》(1751년)에서는

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14자)

중성: ㅌ, ㅍ, ㄷ, ㄷ, ㅅ, ㅅ, ㅈ, ㅈ, ㅊ, ㅊ, ㅊ, ㅊ, ㅊ, ㅊ (11자)

오늘날의 자모 순서와 ‘ㄱ’과 ‘ㅌ’의 순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 《훈몽자회》 범례의 자모 배열순서와 비교해 보면 <초성통용팔자>를 먼저 배치하고 <초성독용팔자>를 뒤로 미루어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ㅌ’과 ‘ㅇ’은 제외되었고 나머지 6자가 치음자 ‘ㅈ, ㅊ’이 앞에 나오고 설음자 ‘ㅌ’, 아음자 ‘ㄱ’, 순음자 ‘ㅍ’, 후음자 ‘ㅎ’의 순서로 되어 있어 《훈몽자회》 범례의 자모 배열순서인 ‘ㄱ, ㅌ, ㅍ, ㅈ, ㅊ, ㅎ’와는 다르다.

《국문연구의정안》에서는 청음자(무성음)를 앞에 배치하고 격음자(유기음)를 나중에 배치하였는데 유독 ‘ㅇ’을 맨 앞에 배치한 것은 강위의 《동문자모분해》(1869년)와 일치한다. 《국문연구의정안》에서의 자모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초성: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14자)

중성: ㅌ, ㅍ, ㅌ, ㅍ, ㅌ, ㅍ, ㅌ, ㅍ, ㅌ, ㅍ, ㅌ, ㅍ (11자)

《국문연구의정안》의 자모 배열순서는 어윤적이 주장한 ‘ㅌ’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고려하면 그의 제안과 일치하고 있다. 중성은 ‘ㅌ’를 제외한 《훈몽자회》 범례의 자모 배열순서와 완전 일치한다.

반면 주시경은 《국문연구》에서 초성의 배열 순서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성도 “ㅌ, ㅍ, ㅌ, ㅍ, ㅌ, ㅍ, ㅌ, ㅍ, ㅌ, ㅍ, ㅌ, ㅍ”로 그 배열순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훈몽자회》 범례의 자모 배열 순서에서 ‘ㄱ, ㅌ, ㅍ’와 ‘ㅈ, ㅊ’의 순서를 바꾸고 ‘ㅇ’을 없앤 대신 ‘ㅇ’을 그 자리에 놓고 ‘ㅌ’를 제외시켰다.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초성: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
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14자)

중성: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10자)

다만 북한에서는 국어사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선말규범집》(1987년)에서 자모의
순서와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초성: ㄱ(기읍, 그), ㄴ(니은, 느), ㄷ(디은, 드), ㄹ(리을, 르), ㅁ(미음, 므), ㅂ(비
읍, 브), ㅅ(시읏, 스), ㅇ(이응, 응), ㅈ(지읏, 즈), ㅊ(치읏, 츠), ㅋ(키읏, 크), ㅌ
(티읏, 트), ㅍ(피읏, 프), ㅎ(히읏, 흐)

중성: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ㅐ(에), ㅑ(애), ㅓ(예), ㅕ(예), ㅗ(외), ㅛ(위), ㅜ(의), ㅟ(와), ㅑ(위), ㅓ(왜), ㅕ
(웨)

남북 간의 자모 배열 차이는 얼핏보면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사전 편찬의 올림말의 순서 차이로 이어져 민족 언어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8) 훈민정음의 이본

1) 《훈민정음》 이본

《훈민정음》 이본은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핵심적인 내
용을 담고 있는 예의와 이를 해설한 해례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사용 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구분되는데 한문본에는 예의와 이를
해설한 해례본이 있으며, 한글본으로는 예의를 언해한 《월인석보》 권두본 등 몇

가지 이본이 있다.

(1) 《훈민정음》 한문 예의

먼저 예의는 세종 25(1443)년 한글 창제의 기본을 밝힌 글인데 그 분량이 4장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책으로 간행되지 않았고 《조선왕조실록》(태백산사고본, 정족산사고본)을 비롯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에 실린 것을 비록하여 언해본이 있다. 예의본의 원본 계열로는 ① 《조선왕조실록》 실록본 〈태백산본〉, ② 《조선왕조실록》 실록본 〈정족산본〉, ③ 《훈민정음》 해례본 본문인 예의가 있으며, 중간 계열로는 ① 《열성어제본》 예의, ② 《배자예부운략》의 권두 예의, ③ 《경세훈민정음도설》 권두 예의, ④ 《오주연문장전산고》 예의, ⑤ 《해동역사》 예의(어제 서문은 없음)가 있으며, 숙종 〈훈민정음후서〉 계열에는 ① 《임하필기》에 실린 숙종의 〈훈민정음후서〉, ② 《열성어제》 숙종의 〈훈민정음후서〉가 전한다.

《세종실록》 세종 28(1446)년 9월의 끝머리 세종의 서(序)와 예의(例義), 정인지의 해례서(解例序)가 실려 있고, 정작 중요한 해례의 본문은 빠져 있다. 이것은 순 한문으로 되어 있다. 해례본이 발간되기까지는 이것이 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훈민정음》 예의 언해본

예의 언해본은 몇 가지 자료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459년 《월인석보》 권1·2의 권두에 실린 서강대본이다. 또 ‘서강대본’과 동일본으로 추정되는 단행본이지만 1장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보수한 ‘박승빈 소장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담문고본)이 있다. 또 《월인석보》(1459년)를 복각한 ‘희발사본’(선조 5(1572)년)이 있다. 또한 ‘박승빈본’과 거의 일치하는 필사본으로 일본 ‘궁내성본’과 《월인석보본》과 동일한 필사본 ‘가네자와(金澤三郎 소장)본’이 있다.

(3)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의 예의에 대한 해설서인 해례본은 세종이 28(1446)년 9월에 인간된 판

본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1940년경 안동의 어떤 고가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책은 순 한문으로 되어 있으나 용례는 한글로 되어 있다. 세종의 서, 예의, 해례, 정인지의 해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경북 상주시에서 공개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을 포함하면 2종이 있다.

2) 《훈민정음》 예의

한글 28자의 창제 동기와 목적을 밝힌 어제 서문과 자모 28자에 대한 글자꼴과 음가와 간략한 글자의 운용법의 핵심을 밝힌 내용인데 《세종실록》 세종 28(1446)년에 실려 있다. 예의는 《실록본》 예의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이 실려 있는 이 두 가지 계열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3년이라는 시차를 가진 것으로 양식과 서사 방식이 다른 이본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두 가지 기록이 후대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분명히 계열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세종이 창제한 예의를 토대로 하여 집현전 학사와 함께 종성 규정과 한자음 표기 등을 보완하여 해례편을 완성하였으며, 그 이후 《홍무정운역훈》의 완성과 함께 치성 규정을 보충하여 언해본을 만드는 일련의 계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예의를 단순히 해례본 본문에 붙어 있는 일부로 간과함으로써 예의에 실린 한글 28자에 대한 글자꼴과 음가를 언해본의 음가로 해석하거나 예의 이본들을 글자 오류나 누락의 차이 정도로만 인식해 온 것이다.

지금까지 훈민정음 연구에서 해례본과 언해본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예의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소홀했던 감이 없지 않다. 예의라면 당연히 해례본의 본문에 실린 것쯤으로 생각해 온 결과이다. 세종 25년에 발표한 예의는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를 대내외에 최초로 알린 기록이다. 그 이후 3년 동안 세종은 집현전 학사 8인과 함께 예의를 토대로 하여 확대 해설한 해례본을 완성하였다. 한글의 완성 과정은 예의에서 해례본으로 그 이후 언해본에 이르기까지 완결되지 않았던 종성 표기 규정이나 한자음 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강하는 일련의 계기적인 연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원본으로 생각하고

예의를 해례본의 일부로 간과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의 완성 시기로 잡고 있다.

그런데 이광호(2006:1398) 교수는 “우리가 본문(예의)과 해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기하려는 문제는 해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을 요약 정리하여 ‘예의’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해례를 만든 이후에 ‘예의’가 만들어졌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전체의 내용으로 보자면 그 저술의 선후 문제로 제일 먼저 《훈민정음》 해례가 저술되고, 이것을 간추려서 요약 정리하여 ‘본문(세종서문+예의+정인지 서문)’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한글의 창제자를 세종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실록의 기록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듯한 암시를 하고 있다.

흥기문(1946:5) 선생은 “이 예의는 《훈민정음》 문헌으로서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다. 또 더구나 세종의 어제(御製)이다. 어떤 의미로는 해례나 언해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하나의 성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언해에 파묻혀 그 독자적인 존재가 불명료했지만 이제는 해례의 발견으로 그 존귀한 가치가 절하될 염려가 있다. 언해는 물론 예의에 대한 언해요, 해례도 또한 예의를 토대로 삼은 해례이므로 일단 예의로부터 출발하여 다시 두 문헌에 미치는 것이 사리의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라고 기술하면서 예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스스로 《훈민정음》 언해본을 예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모순에 빠졌다.

숙종 조 이후 다시 훈민정음의 중간인 《열성어제본》 예의나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본》 예의의 이본들을 비교해 보면 해례본의 배포의 한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예의를 더 많이 활용함으로써 예의가 성운학 연구의 주요 텍스트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행간 필자 자료에서 유일하게 운도의 대응의 차이를 지적한 내용이 보일 뿐 해례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례본은 그 자체가 널리 반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셋째, 예의는 언해본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박승빈본 언해본에서 떨어져 나간 앞장을 보수할 때 그 전범이 된 것이 다름 아닌 《배자예부운략》(1698

년의 권두에 실린 예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정우영, 2000:29~30). ‘박승빈본’ 언해본의 낙장을 보사하면서 참조한 것은 《실록본》 예의나 혹은 《열성어제본》 계열에 속하는 《배자예부운략본》 예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훈민정음 연구에 있어서 예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은 것이다.

넷째,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의 서문 가운데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간략한 예의들 들어보이시고 이를 훈민정음이라 하였다(癸亥冬, 我殿下略揭例義而示之, 名曰訓民正音)”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예의라고 일컫는 것처럼 세종의 한글 창제의 의도를 집약한 일종의 창제 선언문(한글 창제의 최종 어제 기획안)이기 때문에 예의 이본과 해례본이나 언해본과의 연관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의의 이본의 계열을 수립하는 동시에 어제 서문에 담긴 한글의 창제 목적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예의 이본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도 안병희(2007:115) 교수가 예측했던 대로 숙종 대 중간 외에 개인 문집이나 저술에서 2편과 숙종의 《훈민정음》 중간 후서가 실린 자료 1편 더 있다. 어제 서문과 한글 28자모에 대한 글꼴과 그 음가를 밝히고 간략한 글자 운용 방법을 실은 예의가 한글 창제의 최초의 기록임을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30일의 가사에 예의를 신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당시 세종이 한글 창제에 대한 기본 내용을 말로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1446)년 9월 29일에 실린 예의에 해당하는 수고본 원본이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해례편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세종이 하달했던 수고본 예의(癸亥冬, 我殿下略揭例義而示之, 名曰訓民正音)는 해례본의 완성 과정을 통해 약간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창제 당시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단정을 할 수는 없다. ‘君, 虬, 快, 業’에 해당하는 음가 표기는 언해본에서는 ‘군, 꺄, ·꺄, ·업’이고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가 확정되기 이전의 해례본에서는 ‘군, 꺄, ·꺄, ·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례본보다 3년 앞에 나온 예의의 한자음 표기는 언해본과는 분명하게 달랐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현대어로 해석할 때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고 언해본의 음가 표기인 ‘군, 꺄, ·꺄, ·업’으로 한 것은 분

명한 잘못이다. 이처럼 예의에서 해례본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개와 첨삭이 이루어진다. 우리말 표기와 한자음 표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예의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의에 청탁(淸濁) 구분에 따른 글자의 배열이 ‘전청(ㄱ)–전탁(ㄴ)–차청(ㅋ)–불청불탁(ㅇ)’의 순서인데 해례본에서는 ‘전청(ㄱ)–차청(ㅋ)–전탁(ㄴ)–불청불탁(ㅇ)’의 순서로 바뀌게 된다.(임홍빈(2006:1378),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이병근선생퇴임기념논문집 《국어학논총》, 태학사) 그뿐만 아니라 해례본에서 밝힌 운도에서 오성과 오음의 대응 곧 ‘후음(喉)–우(羽)’, ‘순음(脣)–궁(宮)’의 관계가 《홍무정운》이나 《사성통해》에 가면 ‘후음(喉)–궁(宮)’, ‘순음(脣)–우(羽)’으로 변개된 일부인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변개가 아니라 예의에서 한자음 표기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훈민정음》 언해본

《훈민정음》 언해본은 예의를 언해한 자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록본》 예의와 다른 점은 예의에 실린 정인지 서문 부분이 생략된 대신 예의 마지막에 치성 부분이 덧붙여 있는 차이점 외에 《실록본》 예의에 있는 ‘어제왈’이 누락되었거나 참여한 학사들의 기명이나 관명의 기록, 년대 표기 등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언해본은 《실록본》보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기준으로 하여 언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언해본은 다음과 같은 이본이 있다. ① 《월인석보》(1459년) 권두에 실린 언해본이 있다. 《월인석보》(1459년) 권 1·2 권두에 실린 《훈민정음》 언해본은 1972년 통문관으로부터 구입하여 현재 서강대학교 도서관에 수장된 자료로 권두 서명은 〈世宗宗御·영製·정訓·훈민민正·정음음〉이고 권말 서명은 〈訓·훈민민正·정음음〉이다. 판심제는 ‘正音’이고 장차와 상하대향어미로 15엽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두 본문에 해당하는 예의 부분의 언해와 함께 치성에 대한 언해가 덧붙여 있다. 반곽의 행격은 7행 1자로 되어있으나 1면의 1~4행은 고친 부분으로 18~20자로 늘어나 있다.(정우영, 2000:28) 현재까지 전해진 언해본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안병희(2007:5) 교수는 《석보상절》 권1에 언해본의 원간본이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광(2012:200) 교수는 구권 《월인석보》(1448년)의 권두에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 ② 박승빈본 언해본이 있다. 박승빈의 고조부의 사위인 이세근(李世根)의 소장본인데 1830년 이전에 박씨 집안에서 보전하다가 현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문고에 소장된 것이다.(정우영, 2000:28) 권두 및 권말 서명은 〈訓·훈민민正·정·정음〉으로 동일하고 판심제는 ‘正音’이고 장차와 상하대향어미로 15엽으로 그 내용은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두 본문에 해당하는 예의 부분의 언해와 함께 치성에 대한 규정이 덧붙여 있다.(정우영, 2000:28) 반곽의 행격은 7행 1자로 되어있으나 1면의 1~7행은 16자이다. 1엽 부분은 새로 보사하여 《월인석보》(1459년) 권두에 실린 언해본과 상당히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류가 아니라 보사할 당시에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가가 밝혀져야 할 문제이며 텍스트 간의 상호 영향 관계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부분이다. 곧 보사할 당시 분명하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참고 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의 가운데 어떤 계열의 자료를 참고하였는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박승빈본’의 낙장 부분에 보사한 내용은 후대에 《실록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열성어제본》이나 《배자예부운략본》 예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③ 희방사본 언해본이 있다. 초간본 《월인석보》(1459년)를 1568년에 복각한 것으로 권두 서명은 〈世·세宗宗御·영·영·정·정·훈민민正·정·정음〉이고 권말 서명은 〈訓·훈민민正·정·정음〉이다. 판심제는 ‘正音’이고 장차와 상하대향어미로 15엽이다. 《월인석보》(1459년) 권두에 실린 언해본과 대교를 통해 19곳이 차이(박종국, 1984)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우영(2000:31~33) 교수의 대교 결과 오각과 방점 탈락 등 32곳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④ 일본 궁내성본이 있다. 1920년대 어윤적(魚允迪) 소장본이었는데 가네자와(金澤三郎)가 일본으로 가져가서 현재 일본 궁내성에 소장되어 있다. 사진판은 서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박승빈본’과 거의 동일하며 오사 부분까지 서로 일치하는 필사본인데 누가 언제 필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6 정광, 《훈민정음과 파스와 문자》, 역락, 2012, 200쪽.

4)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 25(1443)년 9월에 세종이 창제한 ‘언문 28자’에 대한 어제 서문 및 예의편과 이를 해설한 해례편과 정인지 서문을 합간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28(1446)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원본 해례본 《훈민정음》은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어 1962년에 국보 제70호로 지정 간송미술관 소장본으로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될 당시 표지와 1~2엽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원본 복원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원본 해례본의 이본이 새로 발견된다면 종래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의문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곧 책의 표지 명칭이나 권두 수제 명칭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 모서리가 일부 훼손되어 글씨가 마모된 부분의 구두점이나 글자의 네 모서리에 들어가는 일부 첩은 글자의 권점과 성조와 한자음에 표기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7월 30일에 신문과 방송 보도를 통해서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물로 등록될 만큼 한글의 창제자와 창제 관련 주요 기록으로서 세계 인류 문화의 중요 기록 자산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까지 유일본으로 표지와 앞 두 엽이 낙장된 것을 복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해례본이 발견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 당시에 한국국학진흥원의 소속 연구원이 실사하여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책의 일부 또는 공개된 전부를 안동 MBC 뉴스 방송팀이 촬영하였다. 당시 국립국어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필자로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튿날 경북 상주로 달려가 원본의 일부를 직접 실사하고 안동 MBC에서 촬영된 편집 이전의 화면 전 분량 영상 자료를 입수하여 정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세종 당시에 간행된 원본으로 간주한 바 있다. 또한 필자는 자료의 정밀한 검토와 함께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한글》298:5-50,

2012)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책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이라 하고 하고 서지적인 면에서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세종 당시에 간행된 원본임을 밝힌 바가 있다.

현재의 이 판본은 제5엽부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9엽(사진 참조.)의 하단 3분의 1이 기름 때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첫 장으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판심제가 ‘正音解例’인 부분 5, 6, 7, 8, 9, 10, 11, 12, 13, 14, 26, 27, 28. 도합 13엽이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세종의 서문과 예의(판심제 ‘正音’ 1~4) 부분이 없으며, 해례 부분도 제1엽에서 제4엽까지가 없다. 제15엽에서 25엽까지 그리고 정인지 서문의 마지막 장(즉 ‘正音解例’ 29엽)도 없어 매우 불완전한 잔본임이 분명하다.

이 책은 경북 상주에 있는 골동품 가게(주인 조용훈)에서 유출된 것인데 조용훈 씨의 말에 의하면 안동에서 구입해 온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던 중 상주에 거주하는 배익기 씨가 다른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훔쳐갔다는 주장과 함께 불행히도 소유주 송사에 휘말려 세상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었다가 현재는 이 책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민사소송 결과 원소유주가 조용훈 씨라는 판결을 받고, 2012년 5월 3일자로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기증식을 가졌다. 그 후 형사소송 결과 배익기 씨가 훔친 물건이라는 물증이 입증되지 않는 이유로 배 씨가 승소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다만 안동 MBC에서 촬영한 편집 이전의 화면 전 분량을 검토해 보면 이 책의 발견 경위를 묻는 안동 MBC의 기자 질문에 배익기 씨가 현재 본인이 거주(상주)하는 집 천정을 수리하다가 발견하였다는 진술이 있어 석연찮은 점이 없지 않다.

이 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자산이라는 면에서도 현 소지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루 빨리 국가 문화재로 기증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 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이 실물을 보면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배익기 씨가 은닉 보관하고 있어서 보관 상태에 대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다만 필자가 언론 공개 당시에 배익기 씨 집을 방문하여 실사한 내용과 안동 MBC에서 촬영한 전체 화상 자료를 검토 해 본 결과 총 33엽 가운데 약

1/3정도에 지나지 않는 총 13엽만 언론에 공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배익기 씨는 4엽만 없고 나머지 29엽이 남아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낙장이 매우 많은 불완전한 판본이기 때문에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이라고 잠정적으로 호칭하였다. 이 판본은 현재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라는 제명이 달린 개장한 표지와 해례편 잔엽 13엽 이외는 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 소지자의 진술에 의하면 원간 표지를 비롯하여 어제 서문 부분 2엽과 마지막 33엽을 비롯한 해례편 중간 부분의 1, 2엽과 마지막 33엽이 떨어져나간 잔엽본이라고 한다. 유일본으로 알려져 온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도 세종의 서문 부분 2엽이 떨어져 나간 낙장본의 상태이기 때문에 완본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도 불과 13엽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어제서문과 예의편 부분인 본문은 단 1엽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해례 본문의 나머지 부분의 존재 유무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 가운데 제일 앞부분인 9엽 전면은 1/3 이상 부식된 것을 보면 그 앞의 해례본의 본문도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남아 있더라도 부식 정도가 매우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이 유일본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이 제기되었고 또 이것을 영인한 여러 종의 영인본과 복각본에도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오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없었다.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에 남아 있는 13엽의 부분만이라도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과의 상호 대교를 통해 의문시되었던 부분을 확정지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판본이 비록 잔엽본이기는 하지만 원간본과 동일본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자료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원간본임을 입증하였다.

현재 공개된 이 판본의 표지는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능화관의 문양은 연꽃과 보상화문(寶相華紋)이 어우러진 16~17세기까지의 유형이며, 5침안의 장정 흔적이 있다. 현재 이 책은 제본을 했던 실이 일부 남아 있는 파판본의 상태이며 각장의 내부에 남은 당시의 침안을 볼 때 4침안, 5침안의 흔적이 있다. 현존 표지의 침안

은 5침안이므로 초간될 당시의 제본 형태는 4침안으로 추정된다.

개장 표지에는 ‘五聲制字攷’로 묵서로 적혀 있다. 이 판본의 원소유주가 개장 후에 서명을 추정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서명을 쓴 시기는 앞부분이 낙장 되어 원제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쓴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 판본이 유일본으로 알려진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3엽을 가지고 구두 권점 및 첩은 권점과 성조 표기를 확인해 본 결과 구두 권점과 첩은 권점, 성조의 표기가 완전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원본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판본이 전면 공개되는 날이 오면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이 유일본이었을 때 제기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판본과의 대교를 통해 확증할 수 있다.

또 반곽이나 계선의 파손 유무를 확인해 보아도 두 판본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 두 판본은 동일한 목판에서 새출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간송미술관 소장본은 개장과 함께 원본의 아래와 윗부분의 일부를 잘라낸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잔엽 상주본은 위아래가 잘리지 않은 원래의 판본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존 간송본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병희(2007 : 28) 교수는 원본의 크기가 새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판본판의 크기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세로 32.2 cm, 가로 16.3cm 혹은 세로 29cm, 가로 20cm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 판본의 크기를 세로 29.3 cm, 가로 20.1cm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모두 보수와 보사를 한 이후 축소된 개장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였다. 이번 이 판본의 9엽 1장의 크기를 측정해 본 결과 이상백(1957:21) 교수가 밝힌 것과 비슷한 세로 32cm, 가로 16cm 정도의 크기였다. 물론 9엽도 약간 찌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 결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본 《훈민정음》 본래의 크기는 안병희 교수가 지정한 세로 32.2cm, 가로 16.3cm 내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판본의 반곽의 크기는 9엽 한 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로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와 동일한 세로 22.6 cm, 가로 16.1cm(9엽 기준)이다. 따라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은 원간본과 동일본으로 그 일부 잔본임이 분명하다.

비록 늦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훈민정음》에 대한 서지적 조사를 보다 정밀하게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기록 유산에 대한 서지적 정보가 이처럼 불완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각 엽별 반곽의 크기나 행간의 크기 등 형태서지적인 정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 책의 원소장자로 추정되는 분이 행간 아래 위에 필사 목서를 남겼다. 이 목서 기록은 당시 성운학자로서 대단한 식견을 가진 이의 기록으로 추정되며, 이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면 원래 소장자가 어떤 가문의 학자였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목서 기록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나타나는 오음 곧, 조음 위치(아, 설, 순, 치, 후)와 오성(궁, 상, 각, 치, 우)과의 배치가 《고금운회거요》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홍무정운역훈》 이후 오음과 오성의 배치가 달라진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목서로 된 필사기록은 10ㄴ, 11ㄱ, 11ㄴ, 12ㄱ, 12ㄴ의 행간 아래 위 여백에 남아 있다. 제자해의 결 부분인 14엽 뒷면과 15~16엽 상·하단 행간 공간에 《훈민정음》 제자해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운도의 오음계 배치를 기록한 내용이다. 이 필사 내용은 한글 자모 순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성의 배치 차이에 대한 내용을 고증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오음계의 배치와 한자음의 표준음 이해를 위해 만든 《홍무정운역훈》의 오음계는 차이가 있다. 곧 《고금운회거요》 계열의 운도를 기준으로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입술소리(脣)–궁(宮)’, ‘목구멍소리(喉)–우(羽)’의 오음계 배치로 되었지만 《홍무정운》 계열의 중국의 운서에는 ‘입술소리(脣)–우(羽)’, ‘목구멍소리(喉)–궁(宮)’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운학자들 간에 논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인지의 서문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그러나 풍토가 구별되고 성기 또한 따라서 다른즉”이라 하였으며, 《동국정운》 서문에서도 “대저 음에 같고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 따라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지방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니, 대개 지세가 다르면 풍기가 틀리고 풍기가 다르면 호흡이 다르니”라고 대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 행간 필사 내용과 같은 반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병와 이형상은 《악학판고》에서 종률(鍾律)의 오음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으며, 박성원의 《화음정음통석고》의 서에는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처음부터 아, 설, 순, 치, 후 등 성모의 음계와 합벽 등의 운모의 발음의 묘에 밝지 못해서 오음의 음계가 뒤섞였다. 그래서 궁음이 혹 우음이 되고 상음이 혹 치음이 되어 아직도 일정한 음운이 없으니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에서 언문이 돌로 갈라지고(일치하지 않음) 또 뜻에만 중점을 두고 음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至於我東, 則初不明其牙舌脣齒脣喉閤闢出聲之妙. 故五音相混. 宮或爲羽, 商或爲齒, 尙無一定之音韻, 此實我東謬文爲二, 務於義而忽於音之致也.). 《화음정음통석고》 서문.

라고 하여 《훈민정음》 해례의 오음계 배치가 《훈민정음》 해례본과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었다. 곧 동아시아의 음양 오행 사상 체계로 만든 훈민정음 제자의 원리를 밝힌 제자해에서 제시한 ‘脣-宮’의 배합과 ‘喉-羽’의 배합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곧 “元和韻譜及神珙 喉音爲宮土”라고 하여 ‘喉-宮’의 배합이 옳으며, 이어서 “韻譜及沈約神珙 皆以脣爲羽音”이라고 하여 ‘脣-羽’의 배합이 옳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오음, 오성, 오계, 오시 등 뿐만 아니라 특히 율려와 성음의 이치를 성운학과 통합한, 곧 전체를 하나의 원리로 관통하고 하나를 곧 전체로 일관하는 통합적 구조주의의 원리에서 오성과 오음(또는 칠성과 칠음)의 배합 원리가 심약의 《원화운보》〈오음지도(五音之圖)〉의 “宮 舌居中(喉音), 角 舌縮却(牙音), 徵 舌拄齒(舌頭, 舌上), 商 口開張(齒頭, 正齒), 羽 口撮聚(脣重, 脣輕)”로 기술한 내용과 다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께서 원나라 북방음이 반영된 《고금운회거요》를 기준으로 오음과 오성을 결정했던 결과이다. 그 이후 명나라에서는 심약의 《원화운보》를 기준으로 한 《홍무정운》의 운도에서 이들 배치가 달라졌다. 이 필사 기록은 조선조 후기 성운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필사 시기와 이 《훈민정음》의 원 소장 가문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지만 현재로

서는 필사자를 추적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추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해 둔다.

지금까지 잔본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공개 경위와 이 판본의 가치에 대해 가볍게 훑어보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분명히 전 인류의 위대한 기록 자산의 하나이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문화재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문본으로 인출되었던 《훈민정음》 해례본을 15세기 당대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글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일이다. 한글의 해설서가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방패형의 한글의 음절 구성 자체가 한자와 변별력이 떨어져 한글을 한자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다. 따라서 당시의 한자음에 대한 정교한 연구와 구결토를 확정하여 예의의 언해본처럼 해례본의 언해 작업이 추진되기를 기원한다. 세종 당대에 이러한 일이 추진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한글의 세계화 사업으로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의 외국어 번역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독본의 출판과 더불어 다국적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 학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한글 연구의 세계화에도 눈을 돌릴 기회이다. 한글은 이제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는 가치 있는 인류의 문자 가운데 하나이다. 한글을 통한 지식 생산과 관리를 위해 눈을 떠야 할 시기이다. 안으로는 많은 한문으로 된 전적의 국역 사업과 함께 흩어져 있는 한글 고문서와 시문 등의 자료를 국가 기록물로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깥으로는 무문자 국가의 음성 기록 자료의 전사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인류의 지식 정보를 갈무리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아닐까? 끝으로 상주에서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모습을 온 국민과 함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빨리 오기를 염원한다.⁷

7 이상규(2013),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인》 vol. 23, 국가기록원.

9)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 복원

안병희(1986) 교수가 《훈민정음》 원간본의 1~2면의 복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 정우영(2000) 교수를 비롯한 몇몇 분들의 주요 논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보사(補寫)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인 ‘便於日用矣’를 ‘便於日用耳’로 복원한 점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ㄹ.半舌.音如間字初發聲’에서 구두점의 위치를 ‘ㄹ.半舌音.如間字初發聲’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함이 입증되었다. 둘째, 낙장 부분에 구두점과 권점에 대한 보사 과정의 오류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병서 규정의 행관 문제는 처음으로 류렬(1947)의 《원본 훈민정음 풀이》에서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並書. 如叫字初發聲”와 같이 동일한 행에 연이어 씌으로써 원간본의 행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서강대본 《훈민정음》 언해본의 초성해에서 병서 부분의 행관을 분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넷째, 권두 서명에 대한 문제인 ‘어제훈민정음’이나 ‘훈민정음’이냐를 두고 완전한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원간본 《훈민정음》 이본이 발견되면 모두 해결될 문제인데 상주본 《훈민정음》에도 이 부분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1~2엽 낙장본 복원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를 교감한 안병희(1968), 조규태(2007), 정우영(2001)의 대안은 아래와 같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안병희, 《훈민정음 연구》(2007:21)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

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

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爲 거성)

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易 거성)(便 평성)

ㄱ。牙音。如君字初發聲。並書。

如叫字初發聲

조규태, 《훈민정음》(2007:16)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

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

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爲。 거성)

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易。 거성)

ㄱ。牙音。如君字初發聲

並書。如叫字初發聲

정우영, <《훈민정음》 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129(2001:221)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

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

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爲。 거성)

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易。 거성)

ㄱ。牙音。如君字初發聲

並書。如叫字初發聲

세 분의 견해를 요약하면 구두점에 대한 문제와 첩운 권점과 병서 규정의 행관 처리 문제로 요약되는데 이 가운데 안병희 교수만 유일하게 제기한 ‘便’의 첩운 권점의 처리 부분인 ‘.便(평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便’은 첩운 글자인데 언해본에서 평음으로 처리되어 있다. 현대어에서 ‘便’은 ‘편할 편’ 또는 ‘똥오줌 변’ 두 가지로 사용된다. 《훈민정음》 언해본(2007, 문화재청본)에 “欲·욕使:승人인人인·으·로易·잉習·씩·헝·야便便於平日·싫用·용:싱니·라”에서처럼 평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병와 이형상의 《자학》에서 “‘便’은 ‘편안함, 익숙함’이니 ‘편안(安便)’, ‘복편(腹便)’의 ‘편(便)’은 평성이다. ‘방변(方便)’, ‘승변(乘便)’, ‘풍변(風便)’, ‘주랑변(周朗便)’의 ‘便’은 음은 ‘변’이며 ‘마땅하다’는 뜻이니 거성이다”라고 하

여 첩운자 대한 성조를 규정하고 있다. 곧 “便於日用耳”의 ‘便’은 ‘편안함, 익숙함’의 뜻으로 사용되는 글자로 평성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안병희(2007) 교수의 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안병희 교수가 이 동형이음, 이의어를 ‘파음자(破音字)’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상고하지 못했으나 병와 이형상은 동형 이음, 이의어 약 345개 글자의 사례를 들면서 첩운(疊韻)이라 명명하고 있다. 사성 권점의 명칭은 파음자라는 용어보다 첩운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구두점과 관련된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구두점은 문장이 끝나거나 접속되는 자리에 찍는 구점(。행간 오른편 점)과 대체로 주어나 주어절의 위치에 찍는 두점(◦행간 가운데 점)이 있다.

ㄱ。牙音。如君字初發聲(예의편)

ㄱ◦象舌根閉喉之形。唇音ㅁ◦象口形。(제자해)

ㄱㄷㅂㅅㅈ◦爲全清(제자해)

예의편에서 자모를 설명하는 대목에 ‘ㄱ’ 다음에 구점이 놓여 있으나 제자해에서는 ‘ㄱ’ 다음에 두점이 놓여 있다. 제자해에서는 두점이 놓여 있는 ‘ㄱ’이나 ‘ㄱㄷㅂㅅㅈ◦’은 주어나 주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두점이 놓인다. 그런데 예의편에서 ‘ㄱ.’가 주어나 전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접속의 기능으로 해석한다면 언해본에서 “ㄱ는 엄소리니 군자 처섬 피아나는 소리ㄱ트니”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두점의 배치는 임의성과 융통성(정우영 2001 : 217)이 주어지는 것이라 하여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 ‘ㄱ’의 명칭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일단 제기해두고자 한다.⁸

8 이상규(2009), <<훈민정음> 영인 이본의 권점 분석>, 《어문학》 제100호, 한국어문학회.

10) 《훈민정음》 해례본 서지 문제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 경에 경북 안동군 와용면 주하동 이한결(李漢杰)의 셋째 아들 용준(容準)이 당시 김태준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학계에 알려 지게 되었다. 원본의 표지와 앞의 2장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세종실록》본의 본문을 참고하여 보사를 하는 과정에 ‘편어일용이(便於日用耳)’를 ‘편어일용의(便於日用矣)’로 오류를 범하였다. 보사한 상태로 간송 전 형필에게 넘어가 현재는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 소장처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25(1443)년에 세종이 친제한 언문 28자에 대한 문자 창제의 원리와 응용 방법을 해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해례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곧 본문에는 어제 서문과 언문 28자에 글꼴과 음가, 문자의 운용법을 설명한 예의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뒷부분은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곧 5해 1례와 함께 정인지 서문과 참여한 여덟 학사의 명단이 실려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책은 본문격인 예의편을 해례편을 합하여 세종 28(1446)년 9월 상한에 목판으로 총 33엽으로 인쇄하였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 책은 현재 두 가지 이본이 남아 있다. 1940년 안동 고가에서 찾아낸 원간본은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와 동일한 이본이 2008년 경북 상주에서 공개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 다만 잔엽 상주본은 전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두 가지 원간본 《훈민정음》은 모두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이상규, 2012). 전자는 1~2엽이 낙장본이고 후자는 중간 중간이 떨어져 나간 잔엽본에 지나지 않지만 원간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 셈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 서문과 예의편인 본문 4엽과 해설편인 5해 1례로 된 ‘훈민정음해례’와 정인지 서문 부분이 실린 29엽을 합해서 총 33엽이다. 간송미술관 소장본 《훈민정음》의 서지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이 책의 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안병희(2007:28) 교수는 새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책판의 크기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세로 32.2cm, 가로 16.3cm 또는 세로 29cm, 가로 20cm로 추정하고 있다. 훈민정음 연구자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인 안병희 교수조차도 이 책의 실물을 실측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로 3.2 cm, 가로 3.6cm 정도의 오차 범위로 책의 크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책 크기에 대한 판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원(2007) 교수는 이 책의 크기를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에 가장 근접하는 크기인 세로 29.3cm, 가로 20cm로 발표하였다. 그 외에 많은 연구자들은 직접 실측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씌워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서로 다르다.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이 책의 크기를 세로 29.3cm, 가로 20.1cm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김주원의 실측과 가로의 크기가 0.1cm의 오차를 보이거나 이것은 측정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이거나 각 엽마다 다소의 크기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문제이다.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와 대비해 본 결과 결국 문화재청 조사 결과나 김주원 교수의 측정 결과는 모두 보수와 보사를 한 이후 축소된 개장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였다.

개장하기 이전의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의 본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의 9엽 1장의 크기를 측정해 본 결과 이상백 교수가 밝힌 것과 비슷한 세로 32cm, 가로 16cm 정도의 크기였다. 물론 9엽도 약간 찌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 결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간본 《훈민정음》 본래의 크기는 세로 32cm, 가로 16cm 내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외형상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은 간송미술관 소장본 《훈민정음》과 동일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간송미술관 소장본 《훈민정음》 해례본의 반곽은 쌍변으로 행간 계선이 있는데 이 반곽의 크기 또한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통문관의 이점노 씨가 처음으로 반곽의 크기를 세로 23.3cm, 가로 16.7cm로 보고하였다. 그 후 이상백(1957 : 21) 교수와 안병희(2007 : 28) 교수는 세로 23.2cm, 가로 16.5cm로 발표하였고

강신항(2003 : 89)과 조규태(2008 : 12) 교수는 세로 23.3cm, 가로 16.8cm로 각각 보고하였다. 최근 문화재청 조사 결과는 세로 22.6cm, 가로 16.1cm(본문 4장 앞면 기준)로 발표하였다. 반곽의 가로 크기는 문화재청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상백(1957 : 21)과 안병희(2007 : 28)는 1.4cm, 강신항(2003 : 89)과 조규태(2008 : 12)는 0.7cm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로 크기는 문화재청 조사 결과와 이상백(1957 : 21)과 안병희(2007 : 28)를 비교해 보면 0.4cm, 강신항(2003 : 89)과 조규태(2008 : 12)는 0.7cm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반곽의 크기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최대 1.4cm의 오차를 보인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책판 크기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실측 환경에 따른 오차이거나, 반곽의 내선을 측정하지 않고 외선을 측정한 오류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해례본의 반곽이 장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먹의 농도 차이나 각 엽마다 원판의 차이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거나 반곽의 크기도 엽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책판과 반곽의 크기는 9엽 한 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로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와 동일한 세로 22.6cm, 가로 16.1cm(9엽 기준)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본문 부분을 제외한 해례편은 세종과 함께 집현전 학사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당시 성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음양 오행의 원리를 응용한 융합학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성운학, 역학, 예악, 수리, 방위, 시절, 천문학 등, 우주생성의 바탕을 천-지, 음-양에 두고 중국의 운도와 운서를 토대로 언문 28자의 생성과 구조 및 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음성학 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음성학적 이론을 능가하는 과학성을 띄고 있다.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이 더 발견됨으로써 원본이 두 종류로 늘어난 셈이다.(이상규(2012:5~55),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 《한글》 제298집. 참조.)

11)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과 시대배경

한글을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글의 어떤 점이 우수함을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인류의 문자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인지를 살펴보자.

먼저 발생적 측면에서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한 시기가 매우 분명한 세계 유일의 문자이다. 대체적으로 문자 발전은 오랜 시간을 경유하여 사용자들의 언어적 특징에 맞추어 변형되는 데 비해 한글은 마치 혜성이 나타나듯 세종 25(1443)년 12월에 세종이 직접 창제한 언문 28자의 글꼴과 그 음가와 간략한 문자(글꼴, 자모)의 운용법을 밝힘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한자음을 비롯한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세종 26(1444)년 언문청을 신설하여 <용비사> 언해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우리말 표기는 이미 예의 발표 당시 완성되었음) 집현전 학사들과 3년이라는 연구를 거쳐 한글의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완성함으로써 한글이 탄생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글은 다른 문자를 변형하거나 개조하여 만든 문자가 아니라 ‘상형(象形)’ 원리에 근거하여 완전 독창적으로 창작한 발명문자이다.

세종은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를 포함한 총 28자의 글꼴과 그 음가를 밝히는 동시에 자모의 결합 방식을 연서, 병서, 부서의 방법과 음절결합과 성음 방식을 비롯한 중성 규정과 초분절음소인 사성 규정을 예의로 제시하면서 완벽한 새로운 문자를 발표하였다.

예의에서 밝힌 초성 곧 자음은 조음위치에 따른 아, 설, 순, 치, 후, 반치, 반설과 조음방식인 ‘전청-전탁-차청-불청불탁’을 기준으로 발음기관과 발음하는 모양을 형상한 기본자와 이를 가획한 글자와 이체자의 원리로 만들다. 중성 곧 모음은 하늘(天, ㆍ), 땅(地, ㅡ), 사람(人, ㅣ) 삼재를 형상한 기본자 3자에서 부서의 조합 방식으로 11자를 만들었다. 자음과 모음 모두 다른 글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상형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 문자사에서 유일하게 독창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다.

문자 분류적인 측면에서 한글 28자는 제한적 음소문자인 동시에 다양한 외국어

를 표기할 수 있는 음성문자(phonetic writing)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자모문자(alphabetic writing)이다. 예의에서 밝힌 28자 가운데 전탁글자(ㄲ, ㅋ, ㆁ, ㄷ, ㅌ, ㄴ, ㄹ,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6자는 그 당시 우리말의 음소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연서 규정에 의해 만들 수 있는 ㅂ, ㅃ, ㅄ, ㅅ, ㅆ, ㅈ, ㅉ와 같은 글자 역시 당시 외국어인 한어를 표기하기 위한 음성 부호인 잉여적인 문자였다. 세종은 한글 창제 당시 우리말 표기를 위해 제한적 음소문자로 만들었다. 우리말의 이음표기를 위해 ‘△, ○, ㉸, ㉹, ㉺’과 같은 표음문자와 당시 중국어나 몽고, 여진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합자 방식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음문자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서도 “비록 바람소리, 학 울음, 개의 짖음과 같은 것일 지라도 다 가히 쓸 수가 있는지라(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得而書矣。)” 또 “무릇 한자와 본국의 방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쓸 수 있다(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라고 하여 보편적 음성문자(universal phonetic letters)로서의 우수성을 창제 당시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글 28자의 자모의 결합은 반드시 ‘C(초성)+V(중성)+C(종성)’의 음절 구성을 전제로 성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모음 중심의 음절문자(syllabic writing)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자 구성상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영어 알파벳에서 ‘A-B-C’의 글꼴이 형태상 아무런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B-D-R’, ‘E-F’ 정도 형태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글이 가지고 있는 자형 간의 계열적 통합적 체계적인 관련성과는 거리가 멀다. 한글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CVC 단위로 구성되는 음절문자로서 V(모음)을 중심으로 좌-우, 상-하의 자모 조합에 의해 한 음절의 글자가 만들어지는 방패형(네모형) 문자이다. 이 점은 한자나 거란문자, 여진문자의 모아쓰기 방식과 매우 유사한 동아시아 문자사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⁹

한글의 자모인 자음과 모음은 글꼴 그 자체가 음소적 시차성을 함축시켜놓은 놀라운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ㄴ-ㄷ-ㅌ’, ‘ㄹ-ㅍ-ㅊ’, ‘ㅅ-ㅆ-ㅈ’의 관계가 횡적으로 자모의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에 가획이라는 방식에 따라 조음 위치를 변별해 주고, ‘ㄴ-ㄹ-ㅅ’, ‘ㄷ-ㅍ-ㅈ’, ‘ㅌ-ㅊ-ㅊ’의 관계가 종적으로 조음

9 이상규, 『명왕신덕 사이함빈의 대역 여진어 분석』, 《언어과학》 63집, 언어과학회, 2012.

방법에 따른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가 고려된 2원적 조직체계라는 면에서 매우 뛰어난 과학적 조직 체계를 갖춘 문자이다. 모음 역시 원형인 하늘(·)을 땅(ㅡ)과 결합하여 누운 글자 ‘ㄱ-ㅏ-ㅑ-ㅓ-ㅕ-ㅗ-ㅛ’를 만들고 하늘(·)을 사람(丨)과 결합하여 세운 글자 ‘ㅏ-ㅑ-ㅓ-ㅕ-ㅗ-ㅛ’를 만들어 이 역시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가 2원적으로 조직된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이다. 이러한 조직 원리를 갖춘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Sampson(2000) 교수는 한글을 자질문자(Feature writing)라고 규정하며 한글의 과학성을 예찬하고 있다.¹⁰

한글은 이렇게 문자 구성 자체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배워서 익힐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서도 “이 28자는 전환무궁하여 매우 간략하되 지극히 요긴하고 또 정하고도 통하도다. 고로 지자(智者, 슬기로운 사람)이면 하루아침이 다 못하여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우자(愚者, 어리석은 사람)라도 열흘이 다 못되어 능히 다 배울 수 있는 것이니(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故智者。不終朝而會。愚者可浹旬而學。)”라고 하였다.

1) 동아시아의 융합적 자연철학을 바탕으로

세종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로부터 태종에 이어 조선의 왕도 기반을 닦은 뛰어난 왕이었다. 일찍 동아시아의 자연철학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음양오행 사상의 구조적인 학문 체계를 견실하게 익힌 성군이였다. 우주의 삼라만상의 생성 원리를 융합된 사상으로 해석하는 자연철학과 성운학을 기조로 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중국 고대 복희와 문왕의 팔괘와 하도와 낙서에 연원을 둔 송나라의 성리학은 물론 역학과 성수학, 율려, 천문학, 성운학 등 전체를 하나로 꿰뚫어 기술하는 동아시아의 성리학 이론의 기반을 경연과 토론을 통해 견실하게 닦은 세종은 집현전의 탁월한 학자들의 지원으로 충분히 익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근거를 사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선의 왕도 정치 기반은 천도사상과 예악과 음악을 존중하는 법치적 국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성운학의 정비와 훈민정음

10 제프리 샘슨 저·신상순 역, 《세계의 문자 체계》, 한국문화사, 195쪽, 2000.

창제, 고제의 연구, 법령정비, 지지 작성, 울려 정비, 전제(田制) 정비, 측우기를 비롯한 정전 관리를 위한 천체 천문학 연구 등 실로 자주적 조선의 학문적 기반을 견실하게 닦으면서 실천했던 것이다.

특히 세종의 외교적 전략은 매우 뛰어났다. 조선의 복관을 침탈했던 여진 세력을 물리친 것은 당시 명나라가 요동도사를 세우고 만주 지역의 경략을 시도한 것과 맞물려 있다. 육진 중성 지역에 산거하던 여진 세력을 명나라 요동 도사로 송출함으로써 명나라 황제는 조선의 세종을 천자의 지위로 인정하게 된다. 세종 26(1444)년 3월 명나라로부터 천자를 상징하는 오조용복 3습을 특별히 하사받은 후에 오조용복의 왕실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1449)년의 기록에 남아 있다.

“예전에 사조용의(四爪龍衣)를 입었었는데, 뒤에 듣자니 중국에서는 천왕이 오조용(五爪龍)을 입는다기에 나도 또한 입고 천사(天使)를 대접했는데, 그 뒤에 황제가 오조용복(五爪龍服)을 하사하셨다. 지금 세자로 하여금 사조용(四爪龍)을 입게 하면 내게도 혐의로우 것이 없고 중국의 법제에도 잘못됨이 없겠다”하며,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하나이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又曰 昔予服四爪龍衣, 後聞中朝親王服五爪龍, 予亦服之, 以待天使, 其後, 帝賜五爪龍服. 今令世子服四爪龍, 則於我無嫌, 於朝廷法制, 亦無妨焉. 僉曰 允當. 從之.”)(《세종실록》 125권, 세종 31(1449)년)

세조 2(1456)년의 《세종실록》의 기록에서도 세종 26(1443)년까지는 사조용의(四爪龍衣)를 입다가 세종 26(1443)년 3월 26일 명나라로부터 오조용복(五爪龍服)을 하사받아 오조용의(五爪龍衣)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의 뛰어난 국제 경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종 25(1443)년 동아시아 자연철학인 성리학과 성운학, 역학, 악학, 성수론 등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주체적 자국의 문자를 만드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신흥국인 명나라의 국가 어문 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주변 국가들의 자국 문자 제정의 전통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조선의 글자를 만들어 계승을 뛰어넘어 모든 백성들의 소

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세종이 숙성된 국가 경락을 구현한 결과였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 조선은 입말은 있지만 글말이 없어 오랜 동안 한자를 이용한 불완전한 글말 소통의 부자유를 극복하려는 뚜렷한 의지가 훈민정음 세종의 서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자국의 고유문자 훈민정음 제정은 조선의 입말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주요 학문적 언어인 한문을 언해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지식 기반을 확대하고 굳건하게 하는 요체임을 깨닫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두나 구결을 통한 차자 표기의 불완전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국내 한자음의 혼란을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더 현실적인 당면 과제였다고 보인다. 훈민정음 창제 그 이듬해인 세종 26(1443)년에 이미 《운서》의 번역에 착수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곧 정음(正音), 정성(正聲)을 세우는 일이 치국의 요결임을 깨닫고 있었다. 이승녕(1976:52) 교수는 “훈민정음의 자모체계는 우리 현실 국어의 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동국정운》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장적 구실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여 한글 창제는 전적으로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일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당시 한문 글쓰기가 가능했던 사대부층 0.5%(추산)을 위해 한자음을 표준화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해놓고 예의 서문에 세종 스스로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과대광고를 한 것처럼 이해하려는 것은 너무 심한 자조적인 결론이 아니었을까?

셋째, 국제 교린을 위한 중국어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위해 중국의 표준음을 정음으로 표기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홍무정운역훈》을 간행하게 된다. 원래 세종은 당시 원나라 북방음 계열인 《고금운회거요》에 기반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집현전 신진 학자들은 명나라 관찬 운서인 《홍무정운》을 역해하였다. 한자음 정비 사업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자음의 근거가 되는 운서 번역 사업의 향방이 실록의 기록과 예의와 해례의 비교를 통해 《고금운회거요》에서 《홍무정훈》으로 바뀌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넷째, 당시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가장 인접해 있었던 여진 세력의 경략과 교류를 위해 다양한 외국어의 음차 표기의 필요성에 따라 “비록 바람소리, 학의 울음, 개 짖음과 같은 것일지라도 다 가히 쓸 수가 있는지라(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得而書矣。” 또 “무릇 한자와 본국의 방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쓸 수 있다(凡干文字及本國俚語。皆可得而書)”라고 한 것처럼 보편적 음성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용비어천가》에서 ‘紐出闊失[닌췌·시]’처럼 우리말 음소에 없는 ‘셔’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자로는 도저히 원음에 가까운 표기가 불가능했으며 또한 읽어낼 수 없었음을 세종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은 잘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새로 창제한 훈민정음을 국내로는 백성들이 익혀서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의 문헌을 보급하는 동시에 국제 교린을 위한 사학(한어, 몽어, 여진, 왜학)의 교재 개발과 학습을 장려하고 정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훈민정음 창제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첫째, 훈민정음은 국한 혼용표기를 위해 제정한 것이니 오늘날과 같이 한글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곧 《훈민정음》 해례본 합자해에서도 “한자와 언어(諺語)를 잡용하게 되면 한자음에 따라서 중, 종성으로써 보족(補足, 補以中終法)하는 것이 있으니 공자ㅣ魯人:사· 름의 류와 같으니라.(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如孔子ㅣ魯人:사· 름之類.)”라고 하여 국한혼용표기를 전제로 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선의 한자음의 표준화를 위해 한글을 활용하였다. 반절식으로 나타내던 한자음을 등운도를 활용하고 한글을 활용하여 중국의 《고금운회거요》와 《홍무정운》의 한자음 개신음을 적절히 수용하여 조선 한자음을 표준화한 《동국정운》을 만들었으며 이어 《홍무정운역훈》을 통해 중국 내부의 정음과 속음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을 활용한 것이다.

셋째, 외국어음의 표기를 위해 한글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였다. 뜻글자인 한자의 표음적 취약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글로 《용비어천가》에 조선의 북관 지역의 여

진 지명, 여진 인명과 몽고 인명을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었다. ‘托溫[타·온], 泰紳[타·신], 禿魯[·투루], 豆漫[투·먼], 禿魯兀[톨·우], 童巾[통·컨], 婆猪江[포주], 哈蘭[하·란], 哈蘭北[하·란·뒤]’와 같이 여진 지명과 인명을 정음으로 표기함으로써 한자로 쓰던 표음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넷째, 한자 차용으로 불완전한 조선의 고유어에 대한 표기도 한글을 활용함으로써 조선의 고유어를 정확하게 표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종의 한글 창제는 중세 시대의 우리 고유어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문 원전의 해독에서 한자어 대신 우리 고유어로 이해하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지만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차츰 한자 낱말로 대량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생겨났다.

동아시아의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순환적 융합적 사유 방식을 조선식으로 재해석하고 응용한 정수가 바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이다. 역학과 성음의 관계, 예악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음, 정성의 체계화를 꾀한 역작이 훈민정음이다. 《성리대전》을 통해 성인지학을 세우고 백성을 교화하고 한자 차자에서 오는 소통의 불편함을 줄이는 동시에 주변 국가와 교린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표음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이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를 해설서로 담아낸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현대 언어학적인 원리를 능가하는 변별적 대립과 계열적·통합적 언어학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2) 한글,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까지

한글은 우수한 음성 문자로서 세계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 전 세계 6천여 종의 언어 가운데 문자를 가진 언어는 불과 350여 종 밖에 안 된다. 나머지 언어는 표기 수단이 없든지 다른 문자를 빌어서 쓸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한글을 활용하여 문자가 없는 인류의 구어 자료를 기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찍부터 해왔다.

그럼 과연 한글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표음 문자인지 살펴보자.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는 한글의 표기 기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바람소리, 학의 울음, 개의 짖음과 같은 것일지라도 다 가히 쓸 수가 있는지라

(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得而書矣。” 또 “무릇 한자와 본국의 방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쓸 수 있다(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라고 하여 한글의 표음적 기능이 매우 우수한 문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우리말에서 바람이 ‘싸아’, ‘씨잉’, ‘살랑살랑’, ‘설렁설렁’, ‘우수수, 솔솔분다’처럼 바람소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전 세계에서 과연 한글 이외에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세종은 한글 창제 당시부터 한글은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는 훌륭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용재 성현(1439~1504)은 《용재총화》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의 말소리를 한글로 표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막힘이 없고 통하지 않음이 없다(本國及諸國語音文字所不能記者, 悉通無礙)”라고 하여 한글의 표음적 기능의 탁월함을 설파하였다. 또 병와 이형상(1653~1733)도 《병와집》에서 “본국 및 주변 여러 나라 언어도 어문으로 막힘 없이 기록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규경(1788~1856)은 《오주연문장전산고》라는 책에서 한글을 “한글로 천하의 글을 다 쓸 수 있다(引而伸之, 足以盡天下之文)”라고 하여 이미 조선조에서도 한글의 표음기능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다.

세종은 보편적 음성문자(표음문자)로서 탁월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용비어천가》를 통해 과연 한글을 가지고 여진어, 만주어, 몽골어, 한어 등을 표음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였다. 한글로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외래어를 표기한 사례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용비어천가》는 세종 27(1445)년 4월에 한문으로 쓴 원고를 편찬하여 세종 29(1447)년 5월에 목판본 10권 5책으로 간행하였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왕조의 창업을 송영한 노래책으로 모두 125장에 달하는 서사시로서, 한글로 엮은 책으로는 한국 최초의 것이다. 왕명에 따라 당시 새로이 제정된 훈민정음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이 짓고, 성삼문, 박팽년, 이개 등이 주석하였으며, 정인지가 서문을 쓰고 최항이 발문을 썼다. 《용비어천가》의 용비시 125장을 한글로 언해하기 위해 세종 27(1445)년 4월 ‘언문청’을 설립하도록 하고 하였으니 이때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지기 1년 전의 일이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유래의 유구함과 조상들의 성덕을 찬송하고, 태조의

창업이 천명에 따른 것임을 밝힌 다음 후세의 왕들에게 경계하여 왕업이 번영하기를 비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 장 2행에 매 행 4구로 되어 있으나, 1장이 3구이고 125장이 9구로 된 것만은 예외이다. 3장에서 109장까지는 대개 첫 절에 중국 역대 제왕의 위업을 칭송하였다. 다음 절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등 6대 임금의 사적을 읊고 있다. 110장에서 124장까지는 〈물망장(勿忘章)〉이라 하여 후왕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비어천가》의 형식은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원문에 다음에 한역시와 언해를 달았다. 또 이 노래의 1, 2, 3, 4, 125장 등 5장에는 곡을 지어서 〈치화평〉, 〈취풍형〉, 〈봉래의〉, 〈여민락〉 등의 악보(《세종실록》 권14 〈악보〉)를 만들고 조정의 연례악(宴禮樂)으로 사용하였다. 광해군 4(1612)년, 효종 10(1659)년, 영조 41(1765)년의 중간본이 있으나, 초간본은 권 1~2가 서울대 규장각 가람 문고 본이 남아 있고 그 전질이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의 전10권 중 계명대학교 소장본 권 8~10의 3권은 보물 제1463-1호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권3~4의 2권은 보물 제1463-2호로,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권1~2는 보물 제1463-3호로,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권 1~2, 7~8은 보물 제1463-4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한국어학 자료로 매우 소중한 운문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글로 표기된 당시 여진 지역과 북관 지역의 지명, 인명 자료는 유일한 자료이다.

《용비어천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한글로 기록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서 15세기의 언어와 문학, 역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석 중의 여진, 왜 등에 관한 기록은 역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甲州[가쥬], 古州[고쥬], 紉出關失[닌쥬·시], 韃旦洞[다대골], 實眼春[산·춘], 先春[산·춘], 常家下[상가·하], 薛列罕[설현], 隨州[수쥬], 速平[수·핑], 實隣[시·린], 阿木河[아모·라], 阿沙[아·샤], 阿的郎貴[아치랑·귀], 也頓村[야·툰], 眼春[안·춘], 阿都哥[어두·위], 阿刺孫[어러·순], 韓朶里[오도·리], 韓東[오·동], 阿木河[옴·회], 兀刺[·우·라], 兀兒忽里[울후·리], 韓合[위·허], 托溫[타·온], 泰紳[타·신], 禿魯[·투루], 豆漫[투·먼], 土門[투·문], 禿魯兀[툰·우], 童巾[통·컨], 婆猪江[포쥬], 哈蘭[하·란], 哈蘭北[하·란·뒤], 海洋

[해·연], 海通[해·툰], 火兒阿[홀아], 回叱家[훗·가], 歸州[후쥬], 忽面[홀·면], 洪肯[홍·컨], 海西[히·스], 奚關城[:훗·жат] 등은 한글로 여진이나 몽고 지명을 표기한 사례이다.

다음으로 여진 및 몽고 사람 이름을 표기한 것으로 高卜兒어[:갈불·어], 夾溫猛哥帖木兒[가·온멍거터·물], 夾溫不花[가·온부·허], 夾溫的兀里[가·온치우·리], 古論豆蘭帖木兒[고·론두란터물], 古論孛里[고·론보·리], 古論阿哈出[고·론어허·쥬], 高時帖木兒[고시더·물], 括兒牙八兒速[골·야발·소], 括兒牙兀難[골·야오·난], 括兒牙火失帖木兒[골·야키테·물], 括兒牙乞木那[골·야키무·나], 括兒牙秃成改[골야투칭·개], 南突阿刺哈伯顏[남·돌아라·카바얀], 完秃古魯[넌·투구·루], 答比那[디비·나], 阿只拔都[아기바툴], 奧屯完者[앙툰원저], 兀魯帖木兒[우로터·물], 雲剛括[·운강·고], 朱胡貴洞[쥬·후·귀·툰], 朱胡完者[쥬·후원·저], 朱胡引答忽[쥬·후인다·호], 可兒答哥[컬더·거], 甫赤莫兀兒住[푹 | ·모월·쥬], 奚灘古玉奴[히·탄구유·누], 奚灘孛牙[히·탄보야], 奚灘薛列[히·탄서·러], 奚灘塔斯[히·탄타·스], 奚灘訶郎哈[히·탄하랑·개] 등이 있다. 또한 여진 및 몽고식 종족, 부족 이름을 한글로 쓴 예로는 南突[남·돌], 兀郎哈[오랑·개], 兀狄哈[우디·거], 闊兒看[쿨·칸], 嫌眞[혐·진]이 있으며, 여진 및 몽고식 관직 명칭을 표기한 예로는 猛安[밍·간], 移闌豆漫[이·란투먼], 吹螺赤[쥬라·치], 唐括[탕·고] 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재를 한글을 이용하여 만든 한어학, 청학, 몽학 학습서가 사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글 창제와 함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인명, 지명 등을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음성문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짜아찌아 부족들의 말을 한글로 음사하여 그들의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한 일들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읽을 수 있다. 한글 나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온 국민이 기뻐한 것이 엇그제 같다. 2009년 8월, 인도네시아의 짜아찌아 부족이 그들의 말을 한글로 기록하기로 한 것은 한글 세계화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훈민정음학회의 한글 교육과 그 뒤를 이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한글 수출 1호관 떠들썩함이 무색하게 2010년 짜아짜아족에 대한 한글 교육이 슬그머니 중단된 것은 재정난 때문이었다. 한 재단이 약속한 지원금을 내지 못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업을 이어받은 것은 우리 정부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에 한국어를 교육·보급하는 세종학당을 올 1월 현지에 세우고 한글과 한국어를 함께 교육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종학당의 위탁 운영을 맡았던 한 국립대는 자체 재정 1년에 3600만원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철수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출발부터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지 못했고, 국제 봉사와 협력 정신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지적할 것은 한글 보급이 한글과 한국어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언어 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문자가 없는 소수 부족의 토착 말을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일과 한국어·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일은 구분돼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글과 말을 혼동했다.

문화 상호 존중이 부족했다는 점도 들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의 발달과 자본의 이해관계로 인류의 소수 토착 언어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소수 언어의 절멸(絶滅)은 고유한 토착 지식과 문화·생태의 절멸로 이어진다. 과거 제국주의 지배 경영을 주도했던 몇몇 국가가 문화 경계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피지배국이나 소수 부족의 언어를 없애버린 상처를 경험했다. 이 때문에 국가 간에 국지적 경계를 넘나들며 말을 가르치는 일은 문화 상호 존중이라는 철학적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오히려 외교적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문자가 없는 국가나 부족에 소통 수단으로 한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인류 문화 복지를 증진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언어는 6000여 종이지만 그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350여 종뿐이다. 문자 없는 언어의 토착 지식과 정보 유산을 한글을 이용하여 기록으로 남긴다면 인류 문화의 다원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일이 될 것이다.

애초 세종학당은 언어 침탈 방식이 아니라 언어·문화·역사의 상호 이해 존중을 목표로 했다. 자본의 우월이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아니라 문화 경계를 넘나드는 평화주의와 인류 공존을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인 것이다. 이제 세종학당재단이 출범해 이 사업이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됐다. 한글과 한국어의 해외 보급이 성공하려면 치밀한 교육과정과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호 이해 존중과 봉사라는 기본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IT 산업과 한류(韓流)가 세계를 달구면서 한국어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나, 1970~80년대 일본어 학습자 증가세가 2000년대 들어서 툭 떨어진 것을 보면 한국어 학습 수요 역시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에서 실패한 것을 한글 보급의 좀 더 성숙한 새 지평을 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¹¹

12) 한글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시각

한글이 세계인의 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갑오개혁(1894~1896년)을 선언하기 이전 서구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첫발을 디딘 1820년 무렵부터이다. 창제자 및 창제 시기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여 심지어 한글이 374년 백제 왕조에서 만들었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Scott(1893) 박사는 한글 창제자는 세종이며 그 공포 시기를 1447년으로 추정하였다. Aston(1895)과 Courant(1894~1896)도 한글은 1443년 세종이 만든 것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밝혔다. 한글의 자모 수 및 순서에 대해서도 Gützlaff(1833), Scott(1891), Scott(1893) 등의 논의가 있었으며, Klaproth(1832), Siebold(1850), Gützlaff(1833) 등에 의해 자모의 음가 추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Medhurst(1835)는 ‘ㅇ’과 ‘ㅇ’을 어두와 어말의 환경에서 어두에서는 묵음으로 어말에서는 ‘gna’ 음가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11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다학제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논문이 최근 발표되었다. 반재원,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천문도와의 상관성>,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Underwood(1980) 박사는 성서번역을 하면서 ‘ㅈ’까지 포함하여 ‘ㄱ 𐄀 𐄁 𐄂 ㅈ’이 각각 ‘지 새 ㅈ ㅈ’을 대신하여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양인의 눈에 신비하게 비쳐진 한글 자모 ‘ㄱ, ㄴ, ㄷ, ㄹ...’의 글꼴 유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Klaproth(1832)의 한자 기원설, Abel-Rémusat(1820)의 거란 여진 문자 기원설, Hulbert(1892)의 창호기원설과 고대 중국 문자(古篆)와 산스크리트 문자 기원설 등의 논의들이 있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쳐진 한글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위의 논의들은 실증적 논거가 약한 에세이 형식 수준에 지나지 않는 글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한글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Jensen(1935/1969) 교수는 한글은 이전 여러 문자들의 특징을 알고 있었던 한 솜씨 있는 탁월한 사람에 의해 의식적으로 발명한 문자라고 결론지으며, 동아시아를 통틀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극찬하였다. 한글은 원래 음절 단위로 필획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세로쓰기보다 가로쓰기가 유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국내에서는 주시경과 최현배 선생은 한글의 과학화를 부르짖으며 가로쓰기와 풀어쓰기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G.J. Ramstedt(1939) 박사는 한글 자모의 이름과 전사 방식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계통, 음운, 문법, 어원 전반에 걸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세계에 소개하였다. Diringer(1948)의 《알파벳: 인류 역사에의 열쇠》라는 문자개론서 수정판 제 8장에서 ‘인도 갈래’ 속에 ‘한국 문자’라는 이름으로 한글과 그 계통을 소개하였다. 다만 한글의 자모와 그 기원을 소개하면서 한글 자모의 불완전성을 언급하였다. 곧 한글 자모의 기원 역시 독창적이지 않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Moorhouse(1953)는 한글의 창제자, 창제 시기, 기원에 대해 간략한 언급을 하고, 한글을 극동 아시아의 유일한 고유 알파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한글은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온다. Reischauer&Fairbank(19

58)는 하버드 대학의 교과서로 출간된 책에 한글을 음소적이고 음절적인 장점을 지녔으며, 세계 어느 나라의 문자보다 가장 과학적인 체계의 문자라고 평가하였다. Vos(1964)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훈민정음 창제의 상형설은 인정하되, 음성적 분류(음소 배열의 순서)는 외국(중국 성운학)의 예에서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정확한 비판과 실증적 근거를 가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McCawley(1966) 교수 역시 《언어(Language)》(42권 1호)에 한글에 대한 포스(Vos)의 말에 전적인 동감을 표한다는 서평을 쓰면서 국제학회에 공인을 받게 된다. Pihl(1983)의 논문 <동아시아의 알파벳>은 《훈민정음》에 대한 서지와 내용을 연구한 성과였다. Ledyard(1966/1998) 교수는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박사학위 논문으로 <1446년의 한국의 언어 개혁>을 발표하여 《훈민정음》을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논문은 국립국어원에서 영문판으로 출판하여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인지 서문에 나오는 ‘字倣古篆’의 ‘고전(古篆)’을 파스파 문자로 간주하였으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파스파 문자는 한글 창제에 어떤 부분도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어학 개론서에도 한글을 소개하는 글들이 나타나는데 Bolinger(1968/1975)는 약 500년 전에 한국인들이 이룩한 한글을 서양의 알파벳을 능가하는 과학성을 지닌 문자로 높이 평가하였다. Trager(1972), Chao(1968) 등의 논의도 있다. 특히 한글 자모가 ‘자질 체계’로 만들어졌다는 Chao(1968)의 논의는 Sampson(1985)의 자질문자설을 주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글을 디자인 측면에서 논급함으로서 국내의 켈리그래프의 연구를 촉발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French(1976) 교수도 음소문자인 알파벳과의 비교를 통해 “서구의 알파벳이 한국의 ‘한글’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한글은 자질 문자로서 세계 최고 우수한 문자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과연 자질 문자란 무엇인가? Sampson(1985) 교수는 한글은 한국어의 30개 분절 음소의 수보다 적은 15개의 변별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자질 문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한글의 자모인 자음과 모음은 글꼴 그 자체가 음소적 변별자질을 함축시켜 놓은 놀라운 조직체계

를 가지고 있다. ‘ㄴ-ㄷ-ㅌ’, ‘ㄹ-ㅍ-ㅍ’, ‘ㅅ-ㅅ-ㅅ’의 관계가 횡적으로 자모의 통합 관계에 가획이라는 방식에 따라 조음 방식을 변별해 주고, ‘ㄴ-ㄹ-ㅅ’, ‘ㄷ-ㅍ-ㅅ’, ‘ㅌ-ㅍ-ㅅ’의 관계가 종적으로 조음 위치에 따른 계열 관계가 고려된 2원적 조직 체계라는 면에서 매우 뛰어난 과학적 조직체계를 갖춘 문자로 평가하고 있다. 모음 역시 원형인 하늘(·)을 땅(ㅡ)과 결합하여 누운 글자 ‘ㅏ-ㅑ-ㅓ-ㅕ’를 만들고 하늘(·)을 사람(丨)과 결합하여 세운 글자 ‘ㅗ-ㅛ-ㅜ-ㅠ’를 만들어 이 역시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가 2원적으로 조직된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이다. DeFrancis(1989) 교수는 한글 창제에는 인도와 중동으로부터 온 알파벳의 원리와 중국으로부터 온 음절의 원리의 두 가지 원리를 채택하였으나 자질의 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과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 문자를 자질 문자로 이해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점을 예로 들어서 자질 문자설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진우(1997) 교수가 비판하면서 한국어에는 자음과 관련된 8개의 자질과 모음과 관련된 5개의 자질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하게 한글과 한국어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King(1996) 교수는 한글이 어느 정도 자질적인 문자로서의 성격을 지녔지만 궁극적으로는 표음 문자인 알파벳과 같은 부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끝으로 Hannas(1997) 교수의 주장은 매우 교훈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글이 우수한 문자인 것도 사실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분명하지만, 그것을 백 번이나 천 번 들으면 지겨워진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 결코 완성형의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수하다는 자랑만 일삼을 일이 아니라, 문자의 과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 문자와 음성과의 연계 문제를 비롯한 한글의 공학적 발전, 글자체의 시각적 연구, 글자체의 예술성, 스토리텔링 등의 다방면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충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한글의 표음적 우수성을 과신한 나머지 예컨대 영어의 효과적 학습을 시키기 위해 ‘빙[V]’와 같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국어의 글자는 가장 적절한 음소문자로 정제되어 있다.

외국어 표기를 위해 우리나라 문자에 새로운 음성 문자를 늘리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종이 합자의 조합 원리로 무수한 문자를 만들 수 있었지만 제한적 음소로서 28자모만 정한 슬기로움을 올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¹²

문자, 그 자체는 사물의 본질적 속성과 아무 관계없는 무의미한 기호일 뿐이다. 한글이 보다 더 발전된 문자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징검다리는 아직 무한히 많다. 음성과 문자의 긴밀한 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동시에 글자 공학적인 연구 과제는 산적해 있다. 디지털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길을 걸으면서 말을 하면 자동으로 전산으로 입력되는 방식으로 발전될 날이 멀지 않았다. 문자 기호는 음소와 음소 사이를 형태소 분절 표시(tacking)을 하여 자유자재로 검색할 수 있지만 음성(sound tacking)과 의미(semantic mining)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불연속적 음성 파형을 기호문자 수준으로 소리마디를 분할하여 형태소를 분절 표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말과 문자를 연결하고 전 세계 다양한 문자와 언어를 상호 연결하는 글자 공학적 연구는 향후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한글 산업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NASA에서 우주 촬영을 위해 개발한 영상 기술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화하면서 비디오테이프로 전환하여 각종 디스플레이 기기 개발과 함께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전산 기기가 스스로 문자를 인식하고 추론이 가능한 로봇 언어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문자 공학적 연구의 기반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사전을 좀 더 확장하고 기계언어로 전화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한글의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현재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2 이기문(2000), <19세기 서구학자들의 한글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제39집, 김정대(2004), <외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 연구>, 《국어학》 제43집.

13) 중세 성운학의 이해

중국의 성운학(聲韻學)에서는 성모(聲, onset)와 운모(韻, rhyme)로 반절을 구성하는데 운모는 다시 운복(韻腹, nucleus)과 운미(韻尾, coda)로 구성된다. 곧 2분법의 구성을 훈민정음에서는 성모를 초성으로 운모의 운복을 중성으로 운미를 종성으로 3분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중국 성운학에서도 운복을 ‘섭(攝)’, 또는 ‘뉴섭(紐攝)’으로 분류하여 18개의 부류로 구분하였는데 훈민정음에서는 중국의 운복(韻腹)을 천지인 삼재(三才)에 따라 11개의 모음 곧 중성으로 제정한 것이다.

한자의 음을 성모와 운모로 구성되는 반절 체계로 규정하기 위해 성모 36자와 음모 108자 내외로 지정한 글자를 한자의 자모라 한다. 이와 같이 정음으로 초성과 중성에 해당하는 한자를 ‘대표자’(임홍빈, 2006:1378)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한자 운서의 자모의 배열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여기서 《훈민정음》의 자모 배열을 중국 운서에서 그대로 본받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광운》에서는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전청-차청”의 배열 순서이지만 《훈민정음》 초성 제자해에서는 “전청-전탁-차청-불청불탁-전청-전탁”과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아, 설, 순, 치, 후의 오음계의 배치의 차이 등의 차이가 있다.

| | 아음 | 설음 | 지음 | 지음 | 후음 | 반설반치 |
|------|-----|-----|-----|----------|-----|----------|
| 전청 | 君 ㄱ | 斗 ㄷ | 驚 ㄴ | 戌 ㄷ, 即 ㄷ | 悞 ㄹ | |
| 차청 | 快 ㅋ | 呑 ㅌ | 漂 ㅍ | 次 ㅊ | 虛 ㅎ | |
| 전탁 | 群 ㄱ | 覃 ㄷ | 步 ㅍ | 邪 ㅊ, 慈 ㅊ | 洪 ㅎ | |
| 불청불탁 | 業 ㅇ | 那 ㄴ | 彌 ㅁ | | 欲 ㅇ | 穰 ㄷ, 間 ㄷ |

성모 23자모도 중국의 전통적인 성모 한자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중성과 종성에 배치할 것을 미리 고려하여 초·중·종성에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곧 ‘呑(·), 慈(·)/卽(·), 揖(·)/侵(·), 彌(·)/步(·), 洪(·)/覃(·), 那(·)/票(·), 欲(·)/穰(·), 邪(·)/君(·), 斗(·)/虛(·), 業(·)/蚪(·), 戌(·)/驚(·), 間(·)/快(·)’는 초성자에서 사용한 23자의 한자음을 중성에 거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快(쾌)’ 한 자만 제외하면 22자를 중성 11자에 곱고루 2자씩 배치

한 것이다. 안병희 교수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두 글자 가운데 중성이 있는 앞의 한자를 모음에 배치하였다. 《훈민정음》 예의편에서는 초성 23자 가운데 중성에 각각 2자씩 배당된 초성 자모의 주음 가운데 다음의 순서와 같이 중성의 주음 한자를 선택하였다. 《훈민정음》 예의편의 중성 글자의 배열은 ‘吞(툰), 卽(즉), 侵(침), 洪(홍), 覃(탐), 君(군), 業(업), 欲(옥), 穰(상), 戌(쑤), 譬(뵈)’로 곧 ‘·,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의 순서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제자해에서는 중성을 오음과 자형의 위수(位數)와 함께 는 합벽(闔闔)과 동출(同出) 및 재출(再出)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다만 상수합용(相隨合用)의 글자에 대한 것은 초성의 합용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때문에 예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례본에서는 초성은 예의에서의 ‘아-설-순-치-후’의 배열 방식에서 공기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 ‘후-아-설-치-순’의 배열방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중성의 자소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 곧 기본자 3자 초출자 4자, 재출자 4자를 합한 11자에서 동출합용(과, ㅏ, ㅑ, ㅓ) 4자, 1자 합용(ㅣ, ㅡ, ㅗ, ㅛ, ㅕ, ㅗ, ㅛ, ㅕ, ㅗ, ㅛ) 10자, 2자 합용(내, ㄴㅞ, ㅞ, ㅞ) 4자를 합한 18자를 포함하여 총 28자로 늘어났다. 이는 예의에서 해례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한자음 표기를 위한 음성 기호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현의 《용재총화》 권7에 “세종은 언문청을 설치하고 신고령, 성삼문 등에게 언문을 제작토록 명하고 초중성 8자, 초성 8자, 중성 12자를 그 글자체는 범자에 의거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최세진의 훈문자회 이전에 이미 성현에서부터 이미 ‘초중성 8자’, ‘초성 8자’, ‘중성 12자’를 기준으로 하여 자모 순서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14) 훈민정음 해례본의 다국어 번역에 나타난 문제

한글의 세계화라는 야릇하고 달콤한 말에 쉽게 취해 버리기 쉽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2006년 국립국어원장에 취임한 후 한글의

해설 원전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국어로 번역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늘 많은 국어학자들이 한글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라고 자랑하면서도 실제 외국인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30여개 국가어로 번역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번역본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장 훌륭하게 번역된 한글 번역본을 가려내는 일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번역자와 해설을 쓸 연구자를 물색하였다.

1차 한글본 번역은 신뢰할 만한 훈민정음 연구자인 강신항 교수와 해설을 쓸 이상익 교수와 김주원 교수를 선정하여 5개 국가어 곧 영어, 베트남어, 몽고어, 러시아어 판 번역자를 의뢰하고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1차 성과는 2008년 한글날 직전에 도서출판 생각과 나무에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고어 3개 국가어 번역판과 중국어판은 중국 현지에서 간행하였다. 국립국어원장 퇴임 후인 2009년 러시아어 판이 출간 되었다.

그러나 최근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어판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한문으로 된 원전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글판 번역에서 그동안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대목이나 해석상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자어로 된 용어에 대한 번역 방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라는 세종 어제 서문 부분의 해석을 “(한자의) 국어음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정광, 2006:34)”라고 하여 “國之語音”의 부분을 “중국한자음” 곧 ‘국어음(國語音)’을 한자의 동음(東音)으로 규정하여 “세종은 중국과 우리 한자음의 규범음을 정하기 위하여 발음 기호로서 훈민정음을 고안하였다.(정광, 2006:34)”는 주장과 함께 “훈민정음은 실제로 한자음의 정리나 중국어 표준발음의 표기를 위하여 제정되었다가 고유어 표기에도 성공한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훈민정음, 또는 정음으로 불리었고 후자를 위해서는 언문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정광, 2006:36)”라는 논의는 한글 창제의 기본 정신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편파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國之語音 異乎中國”에 대한 해석은 “국어음(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마치 한글 창제가 한 자음 교정 통일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이와 같이 1차 번역인 한글판의 고정 문제가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이다.

영어판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에는 몇 종류가 있다. 그 가운데 1) 이정호 교수의 《HANGEUL: The History and Special Features of Korean Indigenous Characters.》, 훈민정음-국문영문 해설 역주》(보진재, 1973)와 2) 김석연 교수의 《The Korean Alphabet of 1446》(Humanity Books, 2001.), 3) 국립국어원,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생각의나무, 2008.)의 영문판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¹³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명 번역이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정호(1973): Hun-Min-Jeong-Eum(Right Sounds to Educate the People)

김석연(2001): Hwunmin Cengum(The Orthophonic Alphabet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국립국어원(2008): Hunmin jeongeum(the correct sounds for educating the people)

물론 그동안 로마자표기법의 개정으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글 용어를 단순히 로마자표기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훈민정음’을 해석한 세 사람의 영어 번역은 또 다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정호(1973) 교수는 “Right Sounds to Educate the People”로 김석연(2001) 교수는 “The Orthophonic Alphabet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로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the correct sounds for educating the people”로 번역함으로써 그 통일성을 잃고 있다.

세종어제 서문에 나오는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라는 대목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노정되어 있는 대목이지만 영어 해석 차이는 매우 크다. 먼저 “國

13 이외에도 Ledyarrd, G.R., <The Korean Lanruage Reform 1446>, <the Origin Background and Early History of the Korean Alphabet>, Ph.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등이 있다.

之語音”에 대한 번역은 아래와 같다.

이정호(1973): The speech sounds of this country

김석연(2001): The speech sounds of our country's language

국립국어원(2008): the phonological system of Korean

특히 국립국어원의 번역판은 “나라의 말(國之語音)”을 “한국어의 음운체계(the phonological system of Korean)”로 번역하였다.

이어서 “與文字不相流通”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정호(1973): there is no writing in which to communicate,

김석연(2001): are not communicable with the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국립국어원(2008): the Chinese characters that describe both Chinese and Korean cannot be used in communication,

“國之語音”의 부분과 호응되기 매우 어렵다. 특히 국립국어원의 번역문에서는 한국의 음운체계와 중국 문자와 비교한 꼴이 된다.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의 대목은 “國之語音。異乎中國[之語音。]與文字不相流通。”과 같이 ‘中國’ 다음에 ‘之語音。’이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말과 문자와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과 문자를 다 갖추고 있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는 서로 소통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의미와 상당히 유리된 번역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親制’라는 용어에 대한 번역도 이정호(1973) 교수는 “I newly made”, 김석연(2001) 교수는 “I have newly designed”,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I have newly created”로 되어 있다. “내가 새로 만들었다.”나 “내가 새로 디자인했다”거나 “내가 새로 창조했다”는 표현의 차이는 아마 매우 큰 차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창제자에 대한 협찬설이나 공동 제작설 때문에 ‘친(親)’이라는 부분이 영어판에 누락된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훈민정음》 예의편에 초성 부분은 아, 설, 순, 치, 후라는 다섯 조음기관의 위치와 전청, 전탁, 차청, 불청불탁이라는 조음 방식에 따른 글꼴과 함께 한자로 음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와 관련된 번역어의 차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이정호(1973) | 김석연(2001) | 국립국어원(2008) |
|-------|-------------------|-------------------------------|-----------------------------|
| 초성 | the first sound | the initially uttered phoneme | the initial sound |
| 牙音 ㄱ | Molar sound | molar/velar innunciant | velar sound |
| | ㅋ | " | " |
| | ㆁ | " | " |
| 舌音 ㄴ | Lingual sound | lingual innunciant | lingual or tongue-tip sound |
| | ㄷ | " | " |
| | ㄹ | " | " |
| 脣音 ㅍ | Labial sound | labial innunciant | bilabial sound |
| | ㅂ | " | " |
| | ㅁ | " | " |
| 齒音 ㅈ | Dental sound | incisor/dental innunciant | dental sound |
| | ㅊ | " | " |
| | ㅅ | " | " |
| 喉音 ㅎ | Glottal sound | laryngeal innunciant | glottal sound |
| | ㅇ | " | " |
| | ㅇ | " | " |
| 半舌音 ㄷ | Semi-dental sound | semi-lingual innunciant | tongue-flap sound |
| 半齒音 ㅈ | " | semi-incisor innunciant | semi-dental sound |

오음 곧 아, 설, 순, 치 후는 현대 언어학적 의미로는 조음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용어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번역에서 ‘ㄷ’을 ‘tongue-flap sound’ [r]로 설명하다가 ‘ㅈ’에 대해서는 한자어 반치음(半齒音)을 그대로 ‘semi-dental sound’로 대역 번역하여 ‘반설음’과 ‘반치음’ 간에 번역의 균형을 잃고 있다.

‘병서’ 부분도 이정호(1973) 교수는 “written dually abreast”, 김석연(2001) 교수는 “As a diplogram”,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written dually abreast”로 번역

하여 ‘전청, 차청, 불청불탁’의 해석과 균형을 잃고 있다. 곧 아, 설, 순, 치 후는 현대 음성학적 조음위치로 번역한 다음 조음 방식에 따른 ‘전청, 전탁, 차청, 불청불탁’의 번역은 체계적 번역에서 전혀 빛나간 결과가 되었다.

‘중성’에 대한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정호(1973) 교수는 “the middle sound”, 김석연(2001) 교수는 “like the medial phoneme”,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the middle sound”로 번역하였는데 외국인들에게 “the middle sound”라고 했을 때 과연 음절의 핵(syllable core)라는 의미로 전달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사성의 ‘성조’의 명칭에 대한 번역도 이정호(1973) 교수는 “falling(거성), rising(상성), evenrapidly(평성), closing(입성)”으로 김석연(2001) 교수는 “Going Tone, Rising Tone, Even Tone, Entering Tone”으로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high tone, rising tone, level tone, high-falling tone”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제자해 부분에는 중국의 성리학의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로마자표기법으로 표기한 사례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역학이나 상수학과 같은 중국 성운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용어를 번역한 결과 도리어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 조차 없지 않다.

‘해례(解例)’에 대해 이정호(1973) 교수는 “Commentaries and Examples of Right Sounds to Educate the People”, 김석연(2001) 교수는 “Explanations and Examples of the Orthophonic Alphabet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Commentaries and Examples of Hunmin jeongeum,”으로 각각 번역하였다.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훈민정음’을 앞에서 “the correct sounds for educating the people”로 번역하였다. 그러면 해례에 대한 번역 부분 “Commentaries and Examples of Hunmin jeongeum,”의 ‘Hunmin jeongeum’ 부분에 “the correct sounds for educating the people”을 대조해야만 그 뜻이 통하게 된다. 로마자표기를 해야 할 부분과 간략한 학술용어의 해설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자초한 결과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본문 격인 세종어제 서문과 예의와 더불어 5례 1예로 구성된 해례본의 본 내용과 마지막에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해석이 어떤지 살펴보자.

‘제자해’

이정호(1973): Explanations on Forming Letters

김석연(2001): Explanations of the Design of the Letters(EDL)

국립국어원(2008): Explanations of the Forming of the Letters

‘초성해’

이정호(1973): Explanations on the First Sounds

김석연(2001): Explanations of the Initial Consonants

국립국어원(2008): Explanations on the Initial Sounds

‘중성해’

이정호(1973): Explanations on the Middle Sound

김석연(2001): Explanations of the medial enunciants

국립국어원(2008): Explanations on the Medial Sounds

‘종성해’

이정호(1973): Explanations on the Last Sounds

김석연(2001): Explanations of the terminal enunciants

국립국어원(2008): Explanations on the Final Sounds

‘합자해’

이정호(1973): Explanations on Combining Letters

김석연(2001): Explanations of the Combining of the Letters

국립국어원(2008): Explanations on Combining the Letters

‘용자례’

이정호(1973): Examples of Usage of Right Sound Letters

김석연(2001): Explanations of the Use of the Letters

국립국어원(2008): Examples on the Use of Letters

‘정인지 서문’

이정호(1973): Preface of Jeong Yin Ji

김석연(2001): Ceng In-ji's Postface to Text HCH(鄭麟趾 跋文): "The Concluding Essay of Ceng In-ji"

국립국어원(2008): Preface of Jeong Inji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불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글은 표음문자인 동시에 음절문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제자해를 “Explanations on Forming Letters”로 번역했을 때 그 본래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까? 초성해에서 합자해의 설명 부분의 마지막에 칠언시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을 ‘訣曰’로 잇고 있는데 이정호(1973) 교수는 “For the convenience of memorization”로 김석연(2001) 교수는 “Metrical Summary”로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In summary”로 번역하였다. 이 내용은 분명한 7언시로 된 것이지만 단순한 요약문이 아니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번역의 결과이다.

다음 제자해 부분은 혼민정음 창제의 원리와 그 배경 곧 동아시아의 우주 자연철학관이 담긴 대목이다.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제 사상을 기반으로 역학과 율려에 바탕을 둔 오성, 사철을 바탕으로 한 사계절, 오방위, 성수도와 수리, 천문, 인체 기관 등 삼라만상의 원리를 통합적 순환 논리로 풀어서 설명한 동아시아의 성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음양오행(陰陽五行)’에 대한 번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정호(1973): Eum and Yang and the rotation of the five elements,

김석연(2001): Yin-Yang Five Agents¹⁴

14 음양에 대한 각주: Yin and Yang are considered to be the two opposing forces in Oriental

국립국어원(2008): Yin and Yang and the interaction of the Five Elements(五行)

‘음양’을 모두 로마자 표기로 나타낸 점을 공통적이거나 다만 김석연(2001) 교수만 각주로 음양 오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坤復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에 대해서도 각가 아래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이정호(1973): Between 坤(gon) and 復(bok) is the Absolute(太極) and after the first motion and stillness, 陰 and 陽 form.

김석연(2001): The space between Terra(坤) and Return(復) becomes the Grand Ultimate(太極) and the successor of [its] Motion-Stillness is Yin-Yang.

국립국어원(2008): Between Kon(坤: read 'kun' in Chinese) "earth" and Bok(復: read 'fu' in Chinese) "return" is formed the Supreme Ultimate(太極); after the Supreme Ultimate moves and stops Yin and Yang are formed.

‘곤(坤)’, ‘복(復)’, ‘태극(太極)’과 같은 역학의 용어를 모두 로마자표기법으로 처리하거나 한자어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법이다. 성리학의 우주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기술한 이 내용을 직역의 방식으로는 외국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제자해>에 나타나는 역학 용어에 대한 번역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역학 용어 | 이정호(1973) | 김석연(2001) | 국립국어원(2008) |
|-------|---------------------|--------------------|----------------------|
| 음양 | Eum and Yang | Yin-Yang | Yin and Yang |
| 오행 | five elements | Five Agents | Five Elements |
| - 목 | trees (Spring) | Wood (Spring) | wood(spring) |
| - 화 | Fire (Summer) | Fire (Summer) | fire(summer) |
| - 토 | earth (late summer) | Soil (Term-summer) | earth(indian summer) |
| - 금 | Metal (Autumn) | Metal (Autumn) | metal(autumn) |

thinking that pervade all universal phenomena, natural and human, such as manifest in the oppositions of east-west, north-south, male-female, dark-light, hot-cold, etc.(p.122)

오행에 대한 각주: There are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which interact on the principles of mutual begetting and mutual overcoming. "wood→fire→earth→metal→water→wood" is the cyclical order of mutual begetting that symbolizes harmony, and "wood→earth→water→fire→metal→wood" is the cyclical order of mutual overcoming that symbolizes discord.(p.122)

| | | | |
|--------|------------------------------|------------------------|--|
| －수 | Water (Winter) | Water (Winter) | water(winter) |
| 오음(五音) | five sounds | the Five Notes | five speech sound |
| －각 | 角(Mi or E) | Sol(角) | 角(Mi or E) |
| －치 | 徵(sol or G) | Mi(徵) | 徵(sol or G) |
| －궁 | 宮(do or C) | Do(宮) | 宮(do or C) |
| －상 | 商(re or D) | Re(商) | 商(re or D) |
| －우 | 羽(la or A) | La(羽) | 羽(la or A) |
| 곤(坤) | 坤(gon) | Terra(坤) | Kon(坤: read ‘kun’ in Chinese) “earth” |
| 복(復) | 復(bok) | Return(復) | Bok(復: read ‘fu’ in Chinese) “return” |
| 태극(太極) | the Absolute (太極) | the Grand Ultimate(太極) | the Supreme Ultimate(太極) |
| 이(理) | the principle | the Pattern(理) | the principles |
| 삼재(三才) | three(Heaven, Earth and Man) | the Three Germinants | the Three Rudiments [other papers included in this volume prefer ‘the Three Powers’] |
| 도(道) | － | the Tao(way) | the principles |

오음의 ‘각’을 김석연(2001) 교수는 솔([sol])로 이정호(1973)과 국립국어원(2008)은 미([mi])로 처리하여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며 ‘오행’을 ‘Five Elements’, ‘Five Agents’로 직역함으로써 전혀 그 본의를 파악하는 데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제자해〉에서 자형의 창제 원리에 대한 용어 또한 매우 불완전하다.

먼저 ‘훈민정음’을 줄인 ‘정음’에 대한 용어 번역을 김석연(2001) 교수는 “the Orthophonic Alphabet(正音)”,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the Correct Sounds(正音: jeongeum, other name of Hunmin jeongeum)”이라고 하였다. 제자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상형’에 대해서 이정호(1973) 교수는 “according to the shape”, 김석연(2001) 교수는 “depicting the outlines(of the speech organs)”,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according to the shape”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김석연(2001) 교수는 발음기관을 상형한 것으로 번역하여 한글 자모의 자형 제작원리에 근접된 기술이다.

다음으로 ‘가획’에 대해 이정호(1973) 교수는 “one stroke is added”, 김석연(2001)

교수는 “adding strokes”, 국립국어원(2008)에서는 “one stroke is added”로 ‘병서’는 “written dually abreast”, “written as diplograms”, “written dually side by side”으로 번역하였다. 그 외에 관련 용어의 번역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자상의 용어 | 이정호(1973) | 김석연(2001) | 국립국어원(2008) |
|------------|--|--|--|
| 초성이자삼자합용병서 | Two or three first sounds are written abreast | With the initial enunciants, two or three letters may be used together and written side by side. | Two or three initial sounds, when combined, |
| 중성이자삼자합용 | The combined use of two or three middle sounds | With the medial enunciants, two or three letters may be used together. | Two or three medial sounds are combined |
| 종성이자삼자합용 | two or three sounds used together as the last sounds | With the terminal enunciants, two or three letters may be used. | The combined use of two or three final sounds |
| 보이중중성 | add some middle sounds and last sounds after the sounds of characters. | supplementation with [isolated] medial and terminal enunciants. | added depending on the sounds of the preceding Chinese characters. |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대 언어학적인 용어와 일치하는 음성학적 용어가 많이 있다. 성음, 청탁, 전청, 차청, 전탁, 성심, 합흡, 응 등의 한자 용어에 대한 번역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음성학적 용어 | 이정호(1973) | 김석연(2001) | 국립국어원(2008) |
|----------------------|----------------------------------|----------------------|----------------------------|
| 성음(聲音) | to say something | speak of enunciation | speak of the speech sounds |
| 청탁(淸濁) | clearness and dullness of sounds | clarity and dullness | clarity and dullness |
| 전청(淸音 ㄸ ㅈ ㅊ ㅌ ㅊ ㅍ ㅍ) | completely clear | wholly clear—全淸 | wholly clear sound |

| | | | |
|-----------------------------|-----------------------------------|---|---|
| (voiceless and unaspirated) | | | |
| 차청(유기 ㄱ ㅋ ㆁ ㄷ ㅌ ㄴ ㄹ) | somewhat clear | partly clear-次清 | partly clear(次清: ciqing)(voiceless and aspirated) |
| 전탁(경음 ㄱ ㅋ ㆁ ㄷ ㅌ ㄴ ㄹ) | completely dull | wholly eluvial-全濁 | wholly dull(全濁: quanzhuo)(voiceless, unaspirated, glottal stop) |
| 불청불탁(ㅇ ㄴ ㄹ ㄷ ㅌ ㄴ ㄹ) | neither clear nor dull | neither clear nor dull-不清不濁 | neither clear nor dull(voiced sounds) |
| 응(凝) | coagulated | congeal | coagulated |
| 성심(聲深) | deep sound/voice is deep | the enunciation is deep | the voice is deep |
| 성불심불천 | | | |
| (聲不深不淺) | sound is neither deep nor shallow | the enunciation is neither deep nor shallow | the voice is neither deep nor shallow |
| 성천(聲淺) | light sound/sound is shallow | enunciation is shallow | the voice is shallow |
| 설축(舌縮) | constricted tongue | the tongue retracts | the tongue constricted [some prefers 'retracted'] |
| 설소축(舌小縮) | slightly constricted tongue | the tongue retracts a little | the tongue slightly constricted |
| 설불축(舌不縮) | tongue is not constricted | the tongue does not retract | the tongue not constricted |
| 구장(口張) | mouth is spread apart | the mouth is spread | the mouth is spread open |
| 구축(口蹙) | pronounced with rounded lips | the mouth is contracted | the lips rounded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일차적으로 예의의 언해본처럼 15세기 당시의 모습으로 각각 구절을 달고 세주를 넣은 한글로 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고난도의 작업이지만 한글의 원전을 해설한 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15세기 당대의 한글본으로 만든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1차 한글판 번

역의 표준화를 꾀한 다음 다국어로 2차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15)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타나는 첩운 권점

권점 ㄹ에 대한 그 명칭과 기능을 살펴 본 후에 ‘훈민정음’ 원본과 각종 영인 이본에 나타나는 각종 오류를 제시하고 향후 원본 복원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권점은 그 쓰임새에 따라 구두 권점과 사성 권점으로 구분되는데 구두 권점은 한문의 원문에 끊어 읽어야 할 자리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문맥(文脈)이 끊어지는 곳을 ‘구(句)’라 하고, 구 가운데 읽기에 편리하도록 끊어 읽는 곳을 독(讀)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부호 ㄹ의 쓰임새에 따라 이 부호의 이름은 세분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통상적으로 명명해 온 ‘권점’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그 기능에 따라 구두 권점과 사성 권점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 ‘사성 권표’, ‘파음자 권성’, 또는 ‘권성’, ‘월점’ 등 다양하게 명명되었지만 그 명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장 구두 위치를 나타내는 ‘구두 권점’과 파음자의 사성을 표시하는 ‘사성 권점’으로 구분하였다.

《훈민정음》 해례에 나타난 첩운자의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사성 권점이 표시된 어휘 가운데 평성 글자는 ‘便’, ‘夫’, ‘治’ 3자, 상성 글자는 ‘上’, ‘微’, ‘長’, ‘處’, ‘强’ 5자, 거성 글자는 ‘爲’, ‘易’, ‘復’, ‘論’, ‘要’, ‘見’, ‘先’, ‘和’, ‘相’, ‘趣’, ‘讀’, ‘調’, ‘塞(거성)’, ‘離’ 14자, 입성 글자는 ‘索’, ‘塞(입성)’, ‘別’, ‘着’ 4자이다. 총 26자를 대상으로 사성 권점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향후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파음자에 대한 숫자 문제는 좀 더 상고해야할 과제이나 본고에서는 사성 권점 26자에 한정해서 사성 권점 실현 환경을 살펴보았다.

(1) 평성

1. 便: ‘便’은 언해본에서 평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대어에서 ‘便’은 ‘편할 편’ 또는 ‘똥오줌 변’ 두 가지로 사용된다. 훈민정음 언해본(2007, 문화재청본)에 “欲·욕 使:승人인인신·으·로易·잉꺠·씩·헛·야便便於헝日·싫用·용:싱니·라”에서 평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병와 이형상의 《자학제강》에서는 “‘便’은 ‘편안함, 익숙함’이니, ‘安便’·‘腹便’의 ‘便’은 평성이다. ‘方便’·‘乘便’·‘風便’·‘周朗便’에서 ‘便’의 음은 ‘변’이며 ‘마땅하다’는 뜻이니 거성이다.”이라고 하여 파음자에 대한 사성 성조를 규정하고 있다.(김인중, 〈이형상의 《자학제강》 역주〉,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2007.)

2. 夫: ‘夫’가 ‘지아비’라는 뜻이 아닌 ‘대저’라는 감탄어로 사용된 경우 평성이다. “夫東方有國。不爲不久。而開物成務之大智。(정인지 후서)”의 기록에 분명하게 평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용비어천가》 등 사성 권점이 표시된 자료를 더 상고한 다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로 박창원(2005)의 영인본에는 ‘夫’의 사성 권점이 누락되어 있으나 통문관 영인본이나 한글학회 영인본에는 평성의 사성 권점이 표기되어 있다.

3. 治: ‘治’는 ‘다스리다, 관리하다, 건설하다, (병)치료하다’라는 뜻인 경우 한음으로 [zhi]이다.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정인지 후서)”에 뜻은 “글을 배우려는 이는 그 뜻을 깨우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며, 옥사를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이다. 여기서 ‘治’는 파음자도 아니고 동형이의어로 사용된 경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성으로 사성 권점을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2) 상성

1. 上: ‘上’은 ‘오르다’의 뜻으로 사용될 때와 ‘위’의 의미로 사용될 때 사성이 다르다. “二則。上聲無則平聲。(예의편)”의 예에서 ‘上’은 상성 사성의 권점이 나타나는데 “二.싱則-즉上:쌍聲성.이.오(언해본)”에서도 상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논거가 분명하다. 그 외에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중성해)

故用於終則宣於平。上去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宣於入。(중성해)

爲平。上去不爲入(중성해)

諺語平。上去入。如 활 爲弓而其聲平。(합자해)

：聶爲石而其聲。上。갈爲刀而其聲去。(합자해)

聶爲脅。或似。上聲。(합자해)

萬物舒泰。上聲和而去。(합자해)

平聲則弓。上則石(합자해)

一去二。上無點平(합자해)

2. 徵: ‘徵’은 ‘부를 징’과 ‘음률이름 치’로 사용된다. 그 용례로는 “於時爲夏。於音爲徵。(제자해)”, “徵音夏火是舌聲。(제자해)”와 같이 두 곳에 나타난다.

3. 長: ‘長’은 ‘길다’와 ‘자라다’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木之盛。長。木之老壯。(제자해)”에서 ‘자라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경우 상성의 사성 권점이 나타나는 데 ‘용비어천가’의 “長者是使(용가 45장), 維是長者(용가 45장), 長史所聞(용가 65장), 爭長之言(용가 75장)”에서 입증이 가능하다. 또한 “다大땡 阿항羅랑漢한. 앓:아논長:당 老:룰숨.상리.링弗.불.와(아미타 3-a)”에서도 당시 한자음이 ‘長:당’과 같이 상성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處: ‘處’는 ‘곳’이나 ‘살다, 처하다’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살다, 처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성의 사성 권점이 나타난다. “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強之使同也。(정인지후서)”의 용례를 입증할 수 있는 용례는 “狄人與。處(용가 4장), 野人與。處(용가 4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 強: ‘強’은 ‘강하다’, ‘강요하다’, ‘굳세다’와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며 그 뜻에 따라 사성이 달라진다. “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強之使同也。(정인지 후서)”에서는 ‘강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그 사성 권점은 상성이다.

6. 稽: ‘稽’는 ‘머무르다’, ‘쫓다’, ‘저축하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중국에서는 평성으로는 [ji]로 상성으로는 [qi]로 읽힌다.

(3) 거성

1. 爲: ‘爲’는 ‘되다, 하다’와 ‘위하다’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전자의 경우 평

성이고 후자의 경우 거성이다.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서문)”에서 ‘爲’가 거성임을 입증할 자료는 日爲某言(용가 39장) “爲安民斯(용가 70장), 中興斯爲(용가 73장), 匪直爲武(용가 80장), 不爲其主(용가 105장), 謂爲其主耳(용가 121장), 爲諸菩薩(법화 1-53b)”의 예와 같다. 그러나 “於時爲夏。於音爲徵。(제자해)”에서의 ‘爲’는 ‘되다, 이다’의 뜻이므로 평성이 되어야 한다. “爲欲設比 爲當授記(법화 1-87a), 皆爲法師(법화 1-98b)”와 같이 사성 권점이 달라진다. “初총機긔를爲嵬·헝·노·니(금강경 5-a)”에서 당시 한자음으로 ‘爲嵬’와 같이 상성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爲’가 ‘~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사용될 경우 [wéi] 곧 상성(2성)으로 ‘~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경우 [wèi] 곧 입성(4성) 표시의 사성 권점이 들어갈 수 있다.

2. 易: ‘欲使人人易習’에서 ‘易’는 ‘바꿀 역’, ‘쉬울 이’로 사용되는데 ‘쉽다’와 ‘바꾸다’라는 뜻으로 달리 사용되는 경우 그 음도 달라진다. ‘쉽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그 음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사성이 달라지는 파음자 사성 권점이 붙게 된다. 훈민정음 언해본(2007, 문화재청본)에 “欲·육·使: 승人인人인·으·로易·잉·習·씹·헝·야便·뵈於·형·日·씸·用·용: 싱니·라”를 보면 ‘易·잉’가 거성이다. 따라서 ‘欲使人人易習’도 ‘欲使人人易·習’으로 파음자 사성 권점을 붙여야 한다. “精義未可容易·觀(제자해)”, “指遠言近·용·民·易·(제자해)”의 예에서 ‘易’가 ‘쉽다’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 거설 사성 권점이 나타난다. “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의 언해본 “欲·육·使: 승人인人인·으·로易·잉·習·씹·헝·야便·뵈於·형·日·씸·用·용: 싱니·라”에서 “易·잉”가 거성 사성으로 실현되는 예를 통해 입증된다.

3. 復: ‘復’은 ‘회복하다’의 뜻인 경우 ‘복’으로 ‘다시’의 뜻인 경우 ‘부’로 읽히는 파음자이다. “終聲復·用·初聲·(제자해), 循環無端·故貞而復·元·冬而復·春·初聲之復·爲終·終成之復·爲初·亦此義也·(제자해), 初聲復·有發生義(제자해)”에서 사용되는 ‘다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성이다. 이를 입증할 예는 “終·중·聲·성·은·復·뵈·用·용·初·총·聲·성·헝·늑·니·라(예의)”의 예에서 확인되며 또한 “酒復·用·之·(용가 77장), 酒復·生·之·(용가 77장), 茂焉復·盛·(용가 84장), 忘咎復·任·使·(용가 121장)”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4. 斷: ‘斷’은 ‘끊다’와 ‘결단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齒剛而斷。金也。(제자해)”에서 거성 사성 권점이 들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용례를 찾지 못하였다.
5. 論: ‘論’은 ‘논할 논’, ‘조리 룬’ 두 가지로 뜻도 다르고 음도 다르게 실현된다. 특히 ‘논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妙合而凝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제자해)”의 예에서처럼 거성으로 실현되나 이를 입증할 용례를 찾지 못하였다.
6. 要: ‘要’는 ‘구하다’와 ‘중요하다’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경우 거성으로 실현된다. “要。於初發細推尋(제자해)”와 “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強之使同也。(정인지 후서)”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7. 見: ‘見’은 ‘볼 견’, ‘뵈을 현’과 같이 두 가지의 뜻으로 그리고 두 가지음으로 읽힌다. ‘보이다’의 뜻인 경우 ‘현’으로 읽히며 거성의 사성 권점이 들어간다. “二圓爲形見。其義(제자해)”의 예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來見。父王(용가 91장)”이 있다. “我:향신知딩見·견·을터으며(금강경 4-b)”에서처럼 당시 한자음이 ‘見·견’처럼 상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8. 先: ‘先’은 ‘먼저’와 ‘앞서다’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앞서다’의 뜻인 경우 거성 사성 권점이 나타난다. “天先。乎地理自然(제자해)”의 거성을 확인할 예수 있는 예로 “聖孫將興。爰先。嘉祥/(聖孫將興·에·嘉祥·이)(용가 6장), “爰先。嘉祥(용가 7장)”가 있다.
9. 和: ‘和’는 ‘화하다’와 ‘화답하다’, ‘화목하다’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 ‘화답하다’의 뜻으로 사용될 경우 “中聲唱之初聲和。(제자해)”, “和。者爲初亦爲終(제자해)”에서처럼 거성 사성 권점이 있다.
10. 相: ‘相’은 ‘서로 상’, ‘모양 상’ 두 가지 뜻으로 주로 사용된다. ‘서로’의 뜻으로 사용된 ‘相’은 “與:영文문字·중·로·不·흠相·상·流·통·통·홀·씩(언해본)”에서처럼 평성 사성 권점으로 나타난다. ‘모양’의 뜻인 경우 “人能補相。天地宜(제자해)”에서처럼 거성 사성 권점이 들어 있다. 이를 입증한 예로는 “大耳之相。(용가 29장)”와 “且忘反相。(용가 76장)”가 있다. “種:종·種:종·行·행·相·상 :다:알·사·라(금강경 6a)”에서 당시 한자음이 ‘相·상’처럼 상성으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趣: ‘趣’는 ‘취향’, ‘깨우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깨우치다’의 뜻인 경우 거성의 사성 권점이 들어간다.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정인지 후서)”의 사례를 입증할 예는 찾지 못하였다.
12. 讀: ‘讀’은 ‘읽을 독’와 ‘구절 두’와 같이 두 가지 뜻으로 각각 다른 발음으로 실현된다. 파음자 ‘두’로 읽히는 경우 “昔新羅薛聰○始作吏讀○官府民間○(정인지 후서)”와 같이 거성 사성 권점이 나타난다.
13. 調: ‘調’는 ‘고를 조’, ‘아침 주’와 같이 두 가지 뜻으로 각각 달리 발음된다. “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叶七調○(정인지 후서)”의 예에서처럼 ‘고르다’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 거성 사성 권점으로 표시된다.
14. 塞: ‘塞’은 ‘변방 새’, ‘막힐 색’ 두 가지 뜻으로 각각 달리 발음된다. “塞○外北狄(용가 54장)”의 예를 통해 ‘변방’의 뜻인 경우 거성의 사성 권점이 나타난다. 단 “入聲促而塞○冬也○(합자해)”에서처럼 ‘막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 입성 사성 권점이 표시된다.
15. 離: ‘離’는 ‘떠날 리’ 또는 ‘벗어날 리’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水火未離○乎氣○陰陽交合之初○故合○(제자해)”처럼 ‘벗어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거성 사성 권점이 있다.

(4) 입성

1. 索: ‘索’은 ‘찾을 색’, ‘동아리줄 삭’과 같이 두 가지 뜻으로 각각 달리 발음된다. “初非智營而力索○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제자해)”에서처럼 ‘찾다, 탐색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 입성 사성 권점이 표시되어 있다.
2. 塞: ‘塞’은 ‘변방 새’, ‘막힐 색’ 두 가지 뜻으로 각각 달리 발음된다. “入聲促而塞○冬也○(합자해)”에서처럼 ‘막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 입성 사성 권점이 표시된다. “塞○外北狄(용가 54장)”의 예를 통해 ‘변방’의 뜻인 경우 거성의 사성 권점이 나타난다.
3. 別: ‘別’은 ‘다를 별’, ‘나눌 별’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維業似欲取義別○(제자해)”에서 ‘다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입성 사성 권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然

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정인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東海之別。有발해。”(용가1)에서도 입성 표기가 입증된다.

4. 着: ‘着’은 ‘불다’와 ‘다다르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불다, 접촉하다’의 뜻인 경우 “初中聲下接着。寫(합자해)”에서처럼 입성 사성 권점으로 실현된다.

16) 문화재청 정보 《훈민정음》 연해본 복원

한글 창제의 원전인 한문본 훈민정음은 세종 25(1443)년에 창제한 내용을 실은 〈실록본〉과 그 이후 다음 세종 28(1446)년에 이를 해설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 그리고 해례본의 모두에 실린 세종어제 서문과 예의를 한글로 언해한 《훈민정음》 언해본을 합쳐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실록본〉도 태백산본과 정족산본 2종이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의 모두에 실린 소위 본문과 비교해 보면 ‘欲使人易習’의 자구 차이나 ‘ㅏ, ㅑ, ㅓ, ㅕ’ 등의 모음의 글꼴의 변개 등 등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며 정인지의 서문이 합철되어 있다. 적어도 세종 25(1443)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위 본문의 내용은 창제와 동시에 발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전하가 창제하신 훈민정음 28자를 간략하게 예의로서 알리시니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殿下創製, 訓民正音 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 名曰訓民正音)” 말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 세종 26(1444)년 2월에 최만리의 상소문에서도 궁중에 운서 번역을 시작하여 훈민정음을 알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례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본 조선조 성운학자들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록본〉의 내용만 논의되고 있다.

훈민정음 〈실록본〉 계열의 예의에 대해 해설을 한 해례본이 없었다면 한글 창제의 근본을 제대로 밝힐 수 없을만큼 중요한 문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자료의 중요성과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별개의 문제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의 완성으로 판단하고 마치 반포를 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한다. 아직 사적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했다는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으며,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 시점을 기해 ‘반포(頒布), 발포(發布), 영포(令布)’ 등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인지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간략하게 예의로서 알리시니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略揭例義以示, 名曰訓民正音)”라는 정인지의 서문 내용을 통해 예의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로 한문으로 작성된 예의의 내용을 언해한 문헌이 몇 종류가 전한다. 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 권1, 2의 권두에 실린 서강대본 ‘세종어제훈민정음’과 1568년에 복각한 《월인석보》에 실린 희방사본 ‘세종어제훈민정음’이 있는데 이 두 이본은 방점이나 글자의 오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서강대본에는 치성 규정이 있으나 희방사본에는 치성 규정이 없는 차이가 있다. 이와 달리 현 고려대 소장본인 박승빈본에는 권두 수제가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으며 1장과 2장의 일부분이 개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사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정우영:2000, 29~30)

따라서 언해본 사이에 이러한 내용의 출입 관계가 확인되자 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 이전에 《석보상절》의 모두에 언해본의 원고본이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하거나 심지어 언해본의 간행이 바로 반포를 의미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의 사실 관계는 앞으로 사료 발굴과 더불어 더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리라 판단한다. 다만 언해본의 이본이 판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훈민정음》의 한문본과 언해본 두 가지 모두 온전하게 갖추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우리 민족의 고전 운운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훈민정음’ 즉 ‘한글’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각종 출판물이나 영상 자료에서 해례본보다도 언해본이 훨씬 더 많이 인용되는 자료이다. 그런데 현재 그 언해본은 자료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내용 복원이 잘못된 경우가 있고, 오자와 탈자가 있으며 방점이 누락되어 있는 등 흠이 많은 자료만 전해지고 있음은 정연찬(1972:380~381), 박종국(1984:192~193), 정우영(2000:27~34), 이상규(2009:1~3)에서 지적되어 온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청에서 원간본에 가까이 복원한 정본 언해본이 공개 되었다.(문화재청, 《훈민정음 언해본-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 2007.)

이번 정본 복원 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의 핵심으로 1459년의 《월인석보》(권1) 권두본(서강대본)에서 제1장 앞면 1~4행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하는 데 있다. 곧 세종이 승하함으로써 ‘世宗’ 또는 ‘世宗御製’를 서명에 추가하여 전체 체재인 ‘1행 16자’보다 글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나온 판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장 앞면 1~4행까지를 고쳤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권두 서명이 ‘御製訓民正音’이었거나 ‘訓民正音’이었다는 말과 같다. 권두서명 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각종 오류들을 정밀하게 복원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판단한다.

[문화재청 《훈민정음》 복원 언해본]

訓·훈민민正·정음음

訓·훈민민正·정음음 訓·훈은 ㄱㄹ·칠·씨·오 민민·은 百·백姓·성·이·오 음음·은 소·리·니 訓·훈민민正·정음음·은 百·백姓·성 ㄱㄹ·치시·논 正·정훈 소·리·라

國·국·之·정語·영음음·이 國·국·은 나·라하·라 之·정·는 입·겨지·라 語·영·는 :말·씨미·라
나·랏·말·씨·미

異·잉·乎·홍·中·중國·국··히·야 異·잉·는 다를·씨·라 乎·홍·는 :아·모그에 ·히는 ·겨체 ·쓰는 字·
宗 | ·라 中·중國·국·은 皇·황帝·뎡 :거신 나·라히·니 ·우·리나·랏 常·쌍談·뎡·에 江·강南·남·이·라 ·
히·는·니·라

中·중國·국·에 달·아

與·영·文·문·字·宗·로 不·불·相·상·流·류·通·통·흐·씨 與·영·는 ·이·와 ·더·와 ·히는 ·겨체 ·쓰는

字·종 | 라 文·문·은 글·와리·라 不·불·은 아·니·혹·는 ·쁘디·라 相·상·은 서르·혹·는 ·쁘디·라 流
 通·통·은 흘·러 스·므·출·씨·라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므·디 아·니·홀·씨

故·공·로 愚·옹·民·민·이 有·유·所·송·欲·욕·言·언·하·야·도 故·공·는 諫·찬·라 愚·옹·는 어·릴·
 씨·라 有·유·는 이·실·씨·라 所·송·는 배·라 欲·욕·은 하·고·져 홀·씨·라 言·언·은 니·를·씨·라
 ·이·런 諫·찬·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홀·배 이·셔·도

而·상·終·중·不·불·得·득·伸·신·其·경·情·정·者·장 | 多·당·矣·왕·라 而·상·는 입·겨·지·라 終·중·은
 只·춤·라 得·득·은 시·를·씨·라 伸·신·은 펼·씨·라 其·경·는 제·라 情·정·은 ·쁘·디·라 者·장·는 ·
 노·마·라 多·당·는 할·씨·라 矣·왕·는 말·못·는 입·겨·지·라
 只·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몬·홀 ·노·미 하·니·라

予·영 | 爲·왕·此·충·懼·민·然·연·하·야 予·영·는 내·혹·습·시·는 ·쁘·디·시·니·라 此·충·는 이·
 라 懼·민·然·연·은 어·엿·비 너·기·실·씨·라
 ·내 ·이·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新·신·制·제·二·싱·十·십·八·뽕·字·종·하·노·니 新·신·은 새·라 制·제·는 밍·ᄫ·ᄫ·살·씨·라 二·
 싱·十·십·八·뽕·은 스·믈 여·들·비·라
 ·새·로 ·스·믈 여·들 字·종·를 밍·ᄫ·ᄫ·노·니

欲·욕·使·송·人·신·人·신·으·로 易·잉·習·씩·하·야 便·뵐·於·형 日·실·用·용·耳·싱·니·라 使·
 송·는 하·여·혹·는 마·라·라 人·신·은 사·르·미·라 易·잉·는 쉬·를·씨·라 習·씩·은 니·길·씨·라 便·
 뵐·은 便·뵐·安·안·홀·씨·라 於·형·는 아·모·그·에·혹·는 거·체·쓰·는 字·종 | 라 日·실·은 나·리·라 用·
 용·은 쓸·씨·라 耳·싱·는 썩·ᄫ·미·라 ·혹·는 ·쁘·디·라
 :사·름·마·다 :하·여 :수·히 니·겨 ·날·로 ·뿌·메 便·뵐·安·안·키 하·고·져 홀 썩·ᄫ·미
 니·라

ㄱ·는牙양音흙·이·니如성君 군ㄷ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 並·뽕書성ㅎ·면 如
 성蜚꿀봉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牙양·는·어미·라如성·는·ㄱ·틀·씨·라 初총發·
 뽕聲성·은·처섬·펴·아·나는 소·리·라 並·뽕書성·는 글·바·쓸·씨·라
 ㄱ·는·:엄쏘·리·니 君군ㄷ字·중·처섬·펴·아·나는 소·리·ㄱ·뜯·니 글·바·쓰·면 蜚
 꿀

봉字·중·처섬·펴·아·나는 소·리·ㄱ·뜯·니·라

ㅋ·는牙양音흙·이·니如성快·광ㅇ字·중 初 총發·뽕聲성ㅎ·니·라
 ㅋ·는·:엄쏘·리·니 快·광ㅇ字·중·처섬·펴·아·나는 소·리·ㄱ·뜯·니·라

ㅇ·는牙양音흙·이·니如성業·업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ㅇ·는·:엄쏘·리·니 業·업字·중·처섬·펴·아·나는 소·리·ㄱ·뜯·니·라

ㄷ·는舌·췌音흙·이·니如성斗·둘ங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 並·뽕書성ㅎ·면
 如성覃땀ㅈ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舌·췌·은·해·라
 ㄷ·는·:혀쏘·리·니 斗·둘ங字·중·처섬·펴·아·나는 소·리·ㄱ·뜯·니 글·바·쓰·면
 覃땀ㅈ字·중·처섬·펴·아·나는 소·리·ㄱ·뜯·니·라.

ㅌ·는舌·췌音흙·이·니如성呑ㅌㄷ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ㅌ·는·:혀쏘·리·니 呑ㅌㄷ字·중·처섬·펴·아·나는 소·리·ㄱ·뜯·니·라

ㄴ·는舌·췌音흙·이·니如성那낭ㅇ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ㄴ·는·:혀쏘·리·니 那낭ㅇ字·중·처섬·펴·아·나는 소·리·ㄱ·뜯·니·라

ㅂ·는脣ㅅㅍ音흙·이·니如성𪎐·뽕字·중 初 총·發뽕聲성ㅎ·니 並·뽕書성ㅎ·면 如

영步·뽕ㅇ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脣쑤은 입시·우리·라
ㅂ·는 입시·울쏘·리·니 驚·뽕字·중·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 글·바·쓰·면
步·뽕ㅇ字·중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라

표·는 脣쑤音ㅎ·아·니 如聲漂표·뽕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표·는 입시·울쏘·리·니 漂표·뽕字·중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라

ㅍ·는 脣쑤音ㅎ·아·니 如聲彌·뽕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ㅍ·는 입시·울쏘·리·니 彌·뽕字·중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라

저·는 齒·칭音ㅎ·아·니 如聲卽·즉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 並·뽕書성ㅎ·면 如
聲慈·중ㅇ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齒·칭·는 ·니·라
저·는 ·니·쏘·리·니 卽·즉字·중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 글·바·쓰·면 慈
중ㅇ字·중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라

ㅈ·는 齒·칭音ㅎ·아·니 如聲侵침·ㅂ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ㅈ·는 ·니·쏘·리·니 侵침·ㅂ字·중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라

ㅊ·는 齒·칭音ㅎ·아·니 如聲戌·숯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 並·뽕書성ㅎ·면 如聲
邪·쌍ㅇ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ㅊ·는 ·니·쏘·리·니 戌·숯字·중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 글·바·쓰·면 邪
쌍ㅇ字·중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라

ㅎ·는 喉·훤音ㅎ·아·니 如聲挹·흠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라 喉·훤·는 모·기·라
ㅎ·는 목·소리·니 挹·흠字·중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ㅌ·니·라

ㅎ·는 喉·훤音ㅎ·아·니 如聲虛·형ㅇ字·중 初총發·뽕聲성ㅎ·니 並·뽕書성ㅎ·면 如

성洪 洪 ㄱ字 中 初총發·뵈聲성 ㅎ니·라

ㅎ·는 목소·리·니 虛형 ㅎ字 中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트니 ㄱ·바·쓰·면 洪
洪 ㄱ字 中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트니·라

ㅇ·는 喉響 音음·이·니 如聲 欲·욕 ㄱ字 中 初총發·뵈聲성 ㅎ니·라

ㅇ·는 목소·리·니 欲·욕 ㄱ字 中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트니·라

ㄹ·는 半·반舌·뽕 音음·이·니 如聲 閏령 ㄱ字 中 初총發·뵈聲성 ㅎ니·라

ㄹ·는 半·반·혀·쓰·리·니 閏령 ㄱ字 中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트니·라

ㄷ·는 半·반齒·칭 音음·이·니 如聲 穰穰 ㄱ字 中 初총發·뵈聲성 ㅎ니·라

ㄷ·는 半·반·니·쓰·리·니 穰穰 ㄱ字 中 ·처섬 ·퍼·아·나는 소·리 ·ㄱ·트니·라

·는 如聲 呑 ㄱ字 中 中등聲성 ㅎ니·라 中등·은 가·운·되·라

·는 呑 ㄱ字 中 가·운·되·소리 ·ㄱ·트니·라

一·는 如聲 卽·즉 ㄱ字 中 中등聲성 ㅎ니·라

一·는 卽·즉 ㄱ字 中 가·운·되·소리 ·ㄱ·트니·라

ㅣ·는 如聲 侵 침 ㄱ字 中 中등聲성 ㅎ니·라

ㅣ·는 侵 침 ㄱ字 中 가·운·되·소리 ·ㄱ·트니·라

ㄱ·는 如聲 洪 洪 ㄱ字 中 中등聲성 ㅎ니·라

ㄱ·는 洪 洪 ㄱ字 中 가·운·되·소리 ·ㄱ·트니·라

ㅏ·는 如聲 覃 ㅏ ㄱ字 中 中등聲성 ㅎ니·라

ㅏ·는 覃 ㅏ ㄱ字 中 가·운·되·소리 ·ㄱ·트니·라

ㄷ·는 如聲君군ㄷ字·중 中聲聲성ㅎ·니·라
ㄷ·는 君군ㄷ字·중 中 加·운·딛 소리 ·ㄱ·ㅌ니·라

ㄱ·는 如聲業業字·중 中聲聲성ㅎ·니·라
ㄱ·는 業業字·중 中 加·운·딛 소리 ·ㄱ·ㅌ니·라

ㄹ·는 如聲欲·욕字·중 中聲聲성ㅎ·니·라
ㄹ·는 欲·욕字·중 中 加·운·딛 소리 ·ㄱ·ㅌ니·라

ㅌ·는 如聲穰穰ㅌ字·중 中聲聲성ㅎ·니·라
ㅌ·는 穰穰ㅌ字·중 中 加·운·딛 소리 ·ㄱ·ㅌ니·라

ㅍ·는 如聲戌·숯字·중 中聲聲성ㅎ·니·라
ㅍ·는 戌·숯字·중 中 加·운·딛 소리 ·ㄱ·ㅌ니·라

ㅋ·는 如聲髻·별字·중 中聲聲성ㅎ·니·라
ㅋ·는 髻·별字·중 中 加·운·딛 소리 ·ㄱ·ㅌ니·라

終聲聲·은 復·뿔用·용 初聲聲·ㅎ·느니·라 復·뿔·는 다시 ·ㅎ·는 ·쁘니·라
乃·내終聲ㅌ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쁘·느니·라

ㅇ·를 連連書성脣音음之·下·행·면 則·즉爲·爲脣音音·ㅎ·느니·라 連
連·은 나·슬·씨라 下·행·는 아·래·라 則·즉은 :아·무리·면 ·ㅎ·는 ·겨·체 ·쁘는 字·중 | ·라 爲
爲·는 드·월·씨라 輕聲·은 가·비·야·불·씨·라

ㅇ·를 입시·울·쏘·리 아·래 나·서·쓰·면 입시·울 가·비·야·불 소리 드·외·느·니·라

初충聲성·을 습·합用·용·흥디·면 則·즉並·뽕書성·하·라 終중聲성·도 同똥·하·니·
라 습·합·은 어·울·씨·라 同똥·은 흥가·지·라 ·하·는 ·쁘·디·라

·첫소·리·를 ·어·울·워 ·뽕·디·면 글·바·쓰·라 乃·내·終중·기 소·리·도 흥가·지·라

· 一 ㄱ ㄷ ㅂ ㅈ ㅊ·란 附·뽕書·성 初충聲성·之·下·하·고 附·뽕·는 브·틀·씨·라

· ·와 一·와 ㄱ·와 ㄷ·와 ㅂ·와 ㅈ·와 ㅊ·와·란 ·첫소·리 아·래 브·터·쓰·고

ㅣ ㅌ ㄴ ㄹ ㅊ ㅋ·란 附·뽕書·성於·右·울·하·라 右·울·는 ·울·흔·녀·가·라

ㅣ·와 ㅌ·와 ㄴ·와 ㄹ·와 ㅊ·와·란 ·울·흔·녀·기 브·터·쓰·라

凡뽕字·쥬 ㅣ 必·뽕·합·而·싱·成·뽕·音·뽕·하·느·니 凡뽕·은 ㅁ·읃·하·는 ·쁘·디·라 必·뽕·은
모·로·매·하·는 ·쁘·디·라 成·뽕·은·일·씨·라

ㅁ·읃·字·쥬 ㅣ 모·로·매 어·우·리·샤 소·리 ·이·느·니

左·장·加·강·一·點·點·뎡·하·면 則·즉·去·경·聲·성·이·오 左·장·는 ·원·녀·가·라 加·강·는· 더·을·
씨·라 一·點·은· 흥·나·히·라 去·경·聲·성·은· ㅁ·노·폰 소·리·라

·원·녀·기 흥·點·點·을· 더·으·면 ·ㅁ·노·폰 소·리·오

二·싱·則·즉 上·쌍·聲·성·이·오 二·싱·는· 둘·히·라 上·쌍·聲·성·은· 처·셔·미· ㅁ·갑·고
乃·내·終·중·이· 노·폰 소·리·라

點·點·이 ·둘·히·면 上·쌍·聲·성·이·오

無·뽕·則·즉 平·뽕·聲·성·이·오 無·뽕·는· 업·슬·씨·라 平·뽕·聲·성·은· ㅁ·듯·가· ㅁ·소·리·라
點·點·이 ·업·스·면 平·뽕·聲·성·이·오

入·삽·聲·성·은· 加·강·點·點·이 同·똥·而·싱·促·촉·急·급·하·느·니·라 入·삽·聲·성·은· 썰·리· ㅁ·돋·는
소·리·라 促·촉·急·급·은· 썰·를·씨·라

入·십聲성·은 點·덤 더·우·믄 혼가·지로·되 섹·ㄹ·니·라

漢·한音음 齒·칭聲성·은 有·유齒·칭頭똥 正·정齒·칭·之·징 別·별·ㅎ·니 漢·한音음·은
中·똥國·궐 소·리·라 頭똥·는 머·리·라 別·별·은 골·힐·싸·라

中·똥國·궐 소·리·옛 ·니·쏘·리·는 齒·칭頭똥·와 正·정齒·칭·에 골·히·요·미 잇·느·니

ㄴ ㄸ ㄹ ㄺ ㄻ 字·쥬·는 用·용於·형 齒·칭頭똥·ㅎ·고 ·이·소·리·는 ·우·리·나·랏 소·
리·에·서 열·브·니 ·헛·그·티 웃·닛·머·리·에 다·뉼·니·라

ㄴ ㄸ ㄹ ㄻ 字·쥬·는 齒·칭頭똥· ㅅ·소·리·에 ·쓰·고

ㄴ ㄸ ㄹ ㄻ ㄼ 字·쥬·는 用·용於·형 正·정齒·칭·ㅎ·느·니 ·이·소·리·는 ·우·리·나·랏
소·리·에·서 두·터·브·니 ·헛·그·티 아·랫 ·닛·므·유·메 다·뉼·니·라

ㄴ ㄸ ㄹ ㄼ 字·쥬·는 正·정齒·칭·ㅅ·소·리·에 ·쓰·느·니

牙·양·舌·썩·屑·쑤·候·후·之·징·字·쥬·는 通·통·用·용於·형 漢·한音음·ㅎ·느·니·라

:엄·과 ·혀·와 입·시·울·와 목·소·리·옛 字·쥬·는 中·똥國·궐 소·리·에 通·통·히 ·쓰·
느·니·라

訓·훈·民·民·正·정音음

[미주4] 고활자의 개관

우리나라 고활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 쿠텐베르크보다 200여 년 앞선 12세기 고려활자로 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와 1234년 상정예문자로 된 《고금상정예문》, 1297~1298년에 심요법문자로 된 《청량답순종심요법》, 1377년 직지자로 된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초결》 등 역사적 유래는 오래되었다.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서 1403년 계미자, 1420년 경자자, 1434년 초주갑인자를 비롯하여 1497~1498년 성조 조의 성종 갑인자와 1515년 중종 갑인자 등이 활자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 특히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최초의 한글 활자는 1447년 《석보상절》 한글 활자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금속 및 나무로 새긴 한글 활자가 널리 활용되었는데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1447년대 석보상절 한글 활자

《석보상절》(1449년), 《월인천강지곡》(1449년)

2) 1448년대 동국정운 한글 활자

《동국정운》(1448년)

3) 1455년대 강희안 한글 활자

《금강반야밀다경》(1457년), 《능엄경언해》(1457년), 《영가진각대사증도가》(1457년), 《금강반야바라밀경십칠가해언해》(1459), 《금강경언해》(1464년), 《구급방언해》(1466), 《주역전의강녕전구결》(1466년), 《찬주분류두시언해》(1480년), 《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언해》(1482년), 《영가대사증도가남명선사계송언해》(1482년),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1518년), 《노걸대언해》(1506~1544), 《박통사언해》(1506~1544), 《중용언해》(1506~1544), 《맹자언해》(1506~1544), 《소학언해》(1506~1544), 《남화진경대문구결》(1506~1544), 《논어대문구결》(1506~1544)

4) 1455년 홍무정운 한글 활자

《홍무정운》(1455년)

5) 1465년 정란중 한글 활자

《원각경구결(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1465년)

6) 1496년 불경 목 한글 활자

《법화경언해》(1496년 경), 《능엄경언해》(1496년 경), 《금강경육조언해》(1496년 경), 《심경언해》(1496년 경), 《영가집언해》(1496년 경), 《석보상절》(1496년 경), 《금강경오가해》(1496년 경)

7) 1573년 갑인자 한글 활자

《소학언해》(1573~15926년), 《논어언해》(1573~15926년), 《맹자언해》(1573~15926년), 《중용언해》(1573~ 15926년), 《대학언해》(1573~15926년), 《효경언해》(1573~15926년)

8) 1580년 한호 한글 활자

《소학언해》(1587년), 《논어언해》(1590년), 《맹자언해》(1590년), 《중용언해》(1590년), 《대학언해》(1590년), 《효경언해》(1590년)

9) 1613년 훈련도감 한글 활자

《시경언해》(1613년), 《노걸대언해》(1670년), 《논어언해》(1695년), 《서전언해》(1695년), 《중용언해》(1695년), 《맹자언해》(1675~1719년), 《시경언해》(1675~1720년)

10) 1688년 갑인자 한글 활자

《어제소학언해》(1744년), 《어제상훈언해》(1745년), 《사서울곡언해》(1749년), 《어제훈서언해》(1756년), 《예기문언독》(1767년)

11) 1693년 원종 한글 활자

《어제어필맹자언해》(1693년)

12) 1777년 갑인 한글 활자

《속명의록》(1778년)

13) 1795년 정리 한글 활자

《오륜행실도》(1797년)

14) 1810년 장흔 한글 활자

《몽유편》(1810년)

15) 1815년 전사 한글 활자

《화음계몽언해》(1883년)

16) 1895년 학부 한글 활자

《조선지지》(1895년), 《만국지지》(1895년), 《근이산술지》(1895년), 《사민필지》(1895년), 《간이사칙문제집》(1895년), 《국민소학독본》(1895년), 《만국약사》(1895년), 《조선역대사략》(1895년), 《숙혜기략》(1896년 경), 《조선약사 십과》(1896~1897년), 《유몽휘편》(1905년)

17) 1897년 정리 한글 활자

《신정삼상소학》(1897년), 《디구략론》(1897년)

[미주5] 《용비어천가》의 특수 한글 표기

《용비어천가》는 세종 27(1445)년 4월에 원고를 편찬하여 세종 29(1447)년 5월에 목판본 10권 5책으로 간행된 조선왕조의 창업을 송영한 노래책으로 모두 125장에 달하는 서사시로서, 한글로 엮은 책으로는 한국 최초의 것이다.¹ 왕명에 따라 당시 새로이 제정된 한글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이 짓고, 성삼문, 박팽년, 이개 등이 주석하였으며, 정인지가 서문을 쓰고 최항이 발문을 썼다.

내용은 조선 건국의 유래가 유구함과 조상들의 성덕을 찬송하고, 태조의 창업이 천명에 따른 것임을 밝힌 다음 후세의 왕들에게 경계하여 왕업이 번영하기를 비는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장 2행에 매행 4구로 되어 있으나, 1장이 3구이고 125장이 9구로 된 것만은 예외이다. 3장에서 109장까지는 대개 첫 절에 중국 역대 제왕의 위업을 칭송하였고, 다음 절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등 6대 임금

1 《용비어천가》에 반절 한자어 글자는 1,494자인데 이들 한자 반절 방식은 《고금운회거요》, 《홍무정운》, 《광운》, 《예부운략》, 《용감수경》 등의 반절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동국정운》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강신향, 1994)

의 사적을 읊고 있다. 110장에서 124장까지는 〈물망장(勿忘章)〉이라 하여 후왕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비어천가》의 형식은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원문 다음에 한역시와 언해를 달았다. 또 이 노래의 1, 2, 3, 4, 125장 등 5장에는 곡을 지어서 〈치화평〉, 〈취풍형〉, 〈봉래의〉, 〈여민락〉 등의 악보(《세종실록》 권14 〈악보〉)를 만들고 조정의 연례악(宴體樂)으로 사용하였다. 한글로 기록된 최고의 문헌으로서 15세기의 언어와 문학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석 중의 여진, 왜 등에 관한 기록은 역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광해군 4(1612)년, 효종 10(1659)년, 영조 41(1765)년의 중간본이 있으나, 초간본은 권1~2가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 본이 남아 있고 그 전질이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의 전10권 중 계명대학교 소장본 권 8~10의 3권은 보물 제1463-1호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권3~4의 2권은 보물 제1463-2호로,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권1~2권은 보물 제1463-3호로,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권 1~2, 7~8권은 보물 제1463-4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국어학 자료로 매우 소중한 운문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글로 표기된 당시 여진 지역과 북관 지역의 지명, 인명 자료는 유일한 자료이다.

《용비어천가》에 한글로 표기된 지명, 인명 등 최초의 외래어 표기 자료
(조규태(2007), 《용비어천가》, 한국문화사.)

1) 우리나라 지명

- | | |
|-----------------|-----------------|
| 1) 岐灘 [가·린여·홀] | 12) 楸洞 [·마·래·울] |
| 2) 加莫洞 [가막·골] | 13) 達川 [·달·내] |
| 3) 加斤洞 [가·큰·동] | 14) 隄川 [·달·내] |
| 4) 加乙頭 [갈·두] | 15) 答相谷 [답샹·골] |
| 5) 荒山 [거칠·외] | 16) 堂山 [당·외] |
| 6) 熊津 [고·마·늑·르] | 17) 竹田 [·대밭] |
| 7) 廣津 [·광·늑·르] | 18) 德積 [덕·물] |
| 8) 孔巖 [구무바·회] | 19) 德巖 [·덕바·회] |
| 9) 文音 [그슴] | 20) 猪灘 [돈여·홀] |
| 10) 煤島 [그슴·섬] | 21) 石浦 [·돌·개] |
| 11) 金谷浦 [김·곡·개] | 22) 東良北 [동량·뒤] |

- 23) 渡迷 [·두미]
- 24) 北泉洞 [·윗·삼·곶]
- 25) 澄波渡 [듬바·되]
- 26) 登山串 [등산·곶]
- 27) 鎖浦 [·딘·개]
- 28) 綠楊峴 [·로양·재]
- 29) 防牆洞 [마·근·담·곶]
- 30) 麻屯津 [마·툰·늑]
- 31) 沙峴 [물·애·개]
- 32) 舍音洞 [막·흙·곶]
- 33) 馬山 [물·되]
- 34) 巖房 [바·횃방]
- 35) 鳳凰巖 [·부황바·회]
- 36) 赤池 [불·근·못]
- 37) 赤島 [불·근·섬]
- 38) 蛇浦 [·빅얌·개]
- 39) 梨津 [빅·늑]
- 40) 梨浦 [빅·애]
- 41) 蛇洞 [·빅얌·곶]
- 42) 箭灘 [·살여·홀]
- 43) 三田渡 [삼밭·개]
- 44) 箭竹藪 [·삿·대·수]
- 45) 草黃 [새와·이]
- 46) 草閑 [·새한]
- 47) 所磨洞 [설멧·곶]
- 48) 立石 [·선·돌]
- 49) 善竹 [·선·새]
- 50) 松原 [·소두·듕]
- 51) 窄梁 [·손돌]
- 52) 鼎山 [숯·되]
- 53) 淵遷 [·쇠·벼·늑]
- 54) 金城 [·쇠·갯]
- 55) 鐵峴 [쇠·재]
- 56) 牛峴 [·쇼·갯]
- 57) 車踰 [술·위나·미]
- 58) 炭峴 [숯고·개]
- 59) 酸水 [산·물]
- 60) 按板灘 [·안반여·홀]

- 61) 暗林串 [·암림·곶]
- 62) 烏島城 [오·도·갯]
- 63) 孤島 [·외·섬]
- 64) 雲田 [운·턴]
- 65) 威化島 [울·혜·섬]
- 66) 圍仍浦 [·이상·개]
- 67) 伊布 [잇·뵈]
- 68) 城串 [·갯·곶]
- 69) 城山 [·갯·되]
- 70) 栗村 [조·꿀]
- 71) 召忽島 [조·곶·섬]
- 72) 照浦 [쫄·애]
- 73) 助邑浦 [조·곶·개]
- 74) 滓甓洞 [직·벽·곶]
- 75) 兎兒洞 [투·윗·곶]
- 76) 椴山 [·피모·로]
- 77) 鶴橋 [·학·다리]
- 78) 大灘 [·한여·홀]
- 79) 合浦 [합·개]
- 80) 厚叱只 [훙·기]
- 81) 白巖 [·흰바·회]
- 82) 泥峴 [흙고·개]
- 83) 泥城 [흙성]
- 84) 白達 [·흰·다리]

2) 우리나라 인명 등

- 1) 小斤 [저근]
- 2) 排至 [빅·지]
- 3) 覃浦 [담·뵈]
- 4) 橫防 [엇마·기]
- 5) 此耳 [·귀·건·쥔]
- 6) 防尾 [·치·나·마·기]
- 7) 持彼 [디·피]

3) 여진 및 몽고식 지명

- 1) 甲州 [·가쥬]
- 2) 古州 [고쥬]

- 3) 紉出闊失 [닌췌·시]
- 4) 韃靼洞 [다대골]
- 5) 的邊發 [더·벌]
- 6) 實眼春 [산·춘]
- 7) 先春 [산·춘]
- 8) 常家下 [상가·하]
- 9) 薛列罕 [설현]
- 10) 隨州 [수주]
- 11) 速平 [수·평]
- 12) 實隣 [시·린]
- 13) 阿木刺 [아모·라]
- 14) 阿沙 [아·샤]
- 15) 阿赤郎貴 [아치랑·귀]
- 16) 也頓村 [야·툰]
- 17) 眼春 [안·춘]
- 18) 阿都哥 [어두·위]
- 19) 阿刺孫 [어러·순]
- 20) 斡朶里 [오도·리]
- 21) 斡東 [오·동]
- 22) 阿木河 [옴·회]
- 23) 兀刺 [·우·라]
- 24) 兀兒忽里 [울후·리]
- 25) 斡合 [워·허]
- 26) 托溫 [타·온]
- 27) 泰神 [타·신]
- 28) 禿魯 [·투루]
- 29) 豆漫 [투·먼]
- 30) 土門 [투·문]
- 31) 禿魯兀 [틀·우]
- 32) 童巾 [통·킨]
- 33) 婆猪江 [포주]
- 34) 哈蘭 [하·란]
- 35) 哈蘭北 [하·란·뒤]
- 36) 海洋 [해·연]
- 37) 海通 [해·툰]
- 38) 火兒阿 [홀아]
- 39) 回叱家 [횃·가]
- 40) 歸州 [후췌]

- 41) 忽面 [홀·면]
- 42) 洪肯 [홍·컨]
- 43) 海西 [히·스]
- 44) 奚關城 [·훤·жат]

4) 여진 및 몽고식 인명

- 1) 高卜兒闊 [:갈불·어]
- 2) 夾溫猛哥帖木兒 [가·온명거터·물]
- 3) 夾溫不花 [가·온부·허]
- 4) 夾溫赤兀里 [가·온치우·리]
- 5) 古論豆蘭帖木兒 [고·론두란터·물]
- 6) 古論孛里 [고·론보·리]
- 7) 古論阿哈出 [고·론어허·츄]
- 8) 高時帖木兒 [고시터·물]
- 9) 括兒牙八兒速 [골·야발·소]
- 10) 括兒牙兀難 [골·야오·난]
- 11) 括兒牙火失帖木兒 [골·야켓터·물]
- 12) 括兒牙乞木那 [골·야키무·나]
- 13) 括兒牙禿成改 [골야투창·개]
- 14) 南突阿刺哈伯顏 [남·돌아라·카바얀]
- 15) 暖禿古魯 [넌·투구·루]
- 16) 答比那 [디바·나]
- 17) 阿只拔都 [아기바틀]
- 18) 奧屯完者 [알툰원저]
- 19) 兀魯帖木兒 [·우로터·물]
- 20) 雲剛括 [·운강·고]
- 21) 朱胡貴洞 [췌·후·귀·툰]
- 22) 朱胡完者 [췌·후원·저]
- 23) 朱胡引答忽 [췌·후인·다·호]
- 24) 可兒答哥 [컬터·거]
- 25) 甫赤莫兀兒住 [화·모윌·췌]
- 26) 奚灘古玉奴 [히·탄구유·누]
- 27) 奚灘孛牙 [히·탄보야]
- 28) 奚灘薛列 [히·탄서·리]
- 29) 奚灘塔斯 [히·탄타·스]
- 30) 奚灘可郎哈 [히·탄하랑·개]

5) 여진 및 몽고식 종족, 부족명

- 1) 南突 [남·돌]
- 2) 兀良哈 [오랑·캐]
- 3) 兀狄哈 [우디·거]
- 4) 闊兒看 [꼴·칸]
- 5) 嫌眞 [혐·진]

6) 여진 및 몽고식 관직명

- 1) 猛安 [망·간]
- 2) 移闌豆漫 [이·란투먼]
- 3) 吹螺赤 [츄라·치]
- 4) 唐括 [탕·교]

[미주6] 사역원 학습서

1) 《역어유해》

《통문관지》에 의하면 숙종 8(1682)년에 민상국(閔相國)이 사역원 중국어 역관인 신이행, 김경준(金敬俊), 김지남(金指南) 등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한 중국어 어휘 사전으로 내용 각 어휘를 문항별로 배열하고, 그 중국어 발음과 뜻을 한글로 적은 유별사서(類別辭書)이다. 숙종 16(1690)년에 중국인 문가상(文可尙), 정선갑(鄭先甲) 등의 수정을 받아 사역원의 정창주(鄭昌周), 윤지흥(尹之興), 조득현(趙得賢)으로 하여금 간행하게 하였다.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김지남의 손자 홍철(弘喆)에 의하여 그 보편이 영조 51(1775)년에 《역어유해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오늘날 2종의 인본이 전해지고 있고 필사본도 전한다. 현존하는 여러 이본 가운데에서 원간본이 어느 것인지 아직 알 수 없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동문유해》

영조 24(1748)년 현문항(玄文恒)이 편찬한 만주어 어휘집으로 청어역관(만주어 통역관)들의 학습용으로 사역원에서 간행하였다. 안명열(安命說)의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이 간행되기 이전에 구전된 만주어 어휘를 기록한 《물명》이라는 소책자가 있

었으나 오류가 많아서 만주어 학습자들에게 큰 병폐가 되었다. 그 책이 이용된 지 백여 년 뒤에 사역원 훈장인 현문항이 당시 중국에서 간행된 만주어 사전과 어휘집 《청문감》, 《대청전서》, 《동문광휘》 등을 참고하여 6년여에 걸쳐 수정, 편찬하였다고 한다. 《동문유해》는 어휘를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총 55류에 4,800개의 어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3) 《한청문감》

《한청문감》에는 간행연월일이 적혀 있지 않아 확실한 간행년을 알 수 없는데 오구라(小倉進平)는 《한청문감》의 간행년을 1775년경으로 민영규(閔泳珪)는 영인본의 해제에서 폭넓은 고증을 통하여 1779년경으로 추정하였다. 《한청문감》은 청문감(淸文鑑)과 한문감(漢文鑑)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편찬된 책으로 보인다. 《한청문감》은 오늘날 완질본 2질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동경대학도서관의 구 오구라 소장본,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있는데 이 둘은 동일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1971년에 또 하나의 색다른 완질본이 박은용(朴恩用)에 의하여 동경대학 법학부 연구실의 구 미야자키(宮崎道三郎) 소장본이 소개되었다. 이는 교정쇄본으로 오쿠라본과 같은 판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청문감》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된다. 그 밖에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에 낙질본으로 권9, 권10, 권11, 권12, 권13, 권15가 전한다.

4)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조선 후기 사역원에서 역관들의 학습 및 역과사용으로 8권 8책 목판본으로 간행한 몽고어학습서이다. 이 책에는 각면 7행으로 각 행에는 왼편에 위구르(uighur) 몽문자로 몽고어 문장이 쓰여 있고, 오른편에 한글로 발음이 표시되어 있다. 《몽어노걸대》의 몽고어는 기본적으로 17, 18세기에 정착, 보급되어 현재까지 중국 내몽고에서 사용되는 몽고어 문어(고전전몽고어)와 유사하지만 당시의 구어적요소 혹

은 현대 몽고어와 동일한 형태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글로 표기된 발음부호는 몽고문자 표기와 다른 구어체가 상당수 눈에 띈다. 이런 성격 때문에 18세기 몽고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서 소장되어 있고, 1983년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영인하였다.

5)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

영조 14(1765)년 함흥 역학이던 김진하(金振夏)가 수정하여 기영(평양)에서 간행한 중간본이 남아 있다. 본래 한어로 기술된 《노걸대》를 만주어로 번역한 책이다. 각 행의 좌측에 만주문자로 쓰고 우측에 만주어음을 한글로 전사하였으며, 한 문장 혹은 한 구절이 끝나면 국역을 붙여놓은 형태로서, 사역원 간행 외국어 회화학 습서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1765년 간행된 책으로는 파리동양어학교 도서관본, 대영도서관본, 탁족문고본(永平寺藏書 濯足文庫) 등 3질이 전한다. 그 중 파리 동양어학교 도서관본이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인문과학》 11, 12집에 영인되었다.

[미주] 간경도감 불경언해서

1)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

세조 9(1463)년에 송나라 온릉 계환(溫陵戒環)이 요해하고 일여(一如)가 집주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간경도감에서 번역하여 7권 목판본으로 인간하였다. 이 책의 체재와 번역의 양식 등은 간경도감 간행의 목판본 《능엄경언해》, 《원각경언해》 등과 일치한다.

세조 9(1463)년 9월 2일자로 된 간경도감 도제조 윤사로(尹師路)의 전(箋)이 있고, 《세조실록》의 같은 날짜에 ‘간경도감신간법화경(刊經都監進新刊法華經)’이라는 기

록을 참조하면 원간은 세조 9(146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능엄경언해》에 이은 두 번째 불경 언해서가 된다. 원간본은 현재 공공도서관과 개인소장으로 전하나 대개 영본이며 전질인 경우에도 낙장이 있다. 복각본은 상당히 많은데, 간기가 확인된 것만 3종이 있다. 즉, 중종 18(1523)년의 한 사찰, 인종 1(1545)년에서 명종 2(1547)년 사이에 전라도 나주 중봉산 쌍계사(雙溪寺), 영조 40(1764)년에서 1768년 사이의 충청도 덕산 가야사(伽倻寺)에서 간행된 복각본이 있다. 이들 복각본은 원간본의 판심 서명 《法華經》을 ‘法華, 法’으로 줄이는 등 정밀한 판각은 아니나, 번역은 대체로 원간본대로 되어있으므로 원간본과 동일한 자료로 다루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들 복각본과 전혀 다른 중간본이 전한다. 원간본에서 주석문을 삭제하고 《법화경》 본문의 번역만 수록한 책이다. 번역은 원간본과 대체로 일치 하나, 각자병서의 폐기와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의 지양에서 차이를 보인다. 간년은 연산군 6(1500)년으로, 권1, 21책이 국립중앙도서관, 권4, 1책이 성암문고에 전할 뿐이다. 그밖에 《법화경》의 서문만 번역한 책과 본문에 한글로 한자 독음만 달아놓은 책이 있다. 모두 임진왜란 뒤의 간행이다. 이 책은 각종 중간본을 포함해 국어사연구의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연구》, 문학과지성사, 508~510쪽.)

2) 《금강경언해》

세조 10(1464)년 육조혜능(六祖慧能)의 구결에 한글로 토를 달고 번역하여 상하 2권으로 간경도감에서 《반야심경언해》와 함께 간행되었다. 권두에 간경도감 도제조 황수신의 <진금강심경전(進金剛心經箋)>과 효령대군, 해조, 김수온, 한계희, 노사신의 발문이 있으며 권말에 번역광전사실(瀆譯廣轉事實)이 있어 번역, 간행 경위가 소상히 나타나 있다. 세조 8(1462)년 9월 세조가 꿈에 《금강경》에 대한 물음을 세종한테서 받았고, 요절한 의경세자를 만났으며, 중궁도 또한 꿈에 세종이 이룩한 불상을 보았다는 데 감격하여 《금강경》의 번역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세조 자신이 토를 달고 한계희에게 번역하도록 하는 한편, 효령대군과 판교종사인 해조

를 비롯한 승려에게 교정, 연구하게 하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원간본 계통으로는 연산군 1(1495)년에 인출된 책(임형택 소장본)이 가장 완전하고 상태가 좋다. 이 책에는 발문과 번역과정 등이 삭제되어 있다. 책 끝에 목활자로 된 인출할 때의 학조의 발문이 있다. 이와 비슷한 하권 1책이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같은 계통의 상권 1책(소장자 미상)을 저본으로 한 석판본이 광복 직후에 간행되었으며, 이 석판본을 저본으로 한 영인본이 1977년 대제각에서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원간본을 복각한 중간본은 선조 8(1575)년 전라도 안심사에서 간행되었다. 그 책판이 6, 25전쟁 이전까지 보존되어 있었다. 1932년 한용운이 책판을 보수하여 많은 부수를 인출하였다. 보관도 있으므로 원본과의 구별에 주의할 요한다.

이 책은 각자병서의 표기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간경도감의 언해서이다. 즉, 《능엄경언해》와 《법화경언해》에서는 ‘가, 까’로 표기되던 어형이 이 책에서는 ‘까’로 되었는데, 이듬해의 《원각경언해》에서는 ‘가’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정서법의 변천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ㅁ’ 합용병서는 나타나지 않고 ‘ㅎ’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만 사용된다. 방점이 찍혀 있으나 언해문에만 나타나 있고 구결에는 찍지 않았는데, 이는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다른 언해서들과 동일한 성격이다. 15세기 국어를 연구하는 데는 물론이며, 훈민정음 창제 직후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정서법의 변천을 살피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불교 교리 연구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안병희(1992), 《국어사자료연구》, 문학과지성사, 511~512쪽.)

3)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세조 10(1464)년 영가(永嘉) 현각(玄覺)의 《선종영가집》에 간행한 당나라 영가대사(永嘉大師)의 《선종영가집》을 세조가 친히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와 효령대군 등이 번역하여 간경도감에서 상하 2권으로 간행하였다. 책머리에 간경도감 도제조인 황수신의 전문과 도제조 이하 간행 관여자의 관직과 이름이 실려 있고,

끝에 신미와 효령대군의 발문이 있어서 간행 경위가 분명하다.

원간본은 상권이 동국대학교 도서관, 하권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일사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원간본의 책판으로 연산군 1(1495)년에 인쇄한 책(권하 1책)이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있는데, 그 책 끝에 이른바 인경목활자로 된 학조의 발문이 있다. 중간본으로는 중종 15(1520)년 경상도 장수사에서 원간본을 복각한 것이 있다. 책판이 낡았으나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서 근년의 후쇄본도 유포되어 있다.(안병희 (1992), 《국어사자료연구》, 문학과지성사, 510쪽.)

4) 《아미타경언해(阿彌陀經諺解)》

《아미타경》은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의 하나인 《불설아미타경》에 한글로 구절을 달고 언해한 책으로 불분권(不分卷) 1책이다. 내제 다음에 ‘어제역해(御製譯解)’라 한 점과 “天順八年 甲申歲 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라는 기록을 통해 세조 10(1464)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복각된 중간본들이 전한다. 명종 13(1558)년 나주의 쌍계사에서 간행된 것을 비롯하여 숙종 28(1702)년 경상도 고성 의 운흥사와 영조 29(1753)년 대구 동화사에서 중간된 책이 있다. 1958년 정양사와 1974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운흥사판을 영인하였다.

새로 발견(성암문고 소장)된 을해자로 된 활자본은 한자는 대, 중, 소자와 한글 소자는 활자본 《능엄경언해》와 같으나 한글 중자가 사용된 점이 특이하여 활자 연구에 중요한 문제를 제공한 책이다. 언해 방식은 위 목판본과 같으나, 구결표기의 한글에도 방점이 있다. 활자본 《능엄경언해》와 간경도감의 일반 언해본과 구별되고 《몽산법어언해》와 《훈민정음언해》와 공통되는 점이다. 이 활자본에는 불교용어의 한자독음과 활자본 《능엄경언해》의 간행년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간경도감의 언해본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 언해문에서 목판본과 다른 점은 활자본에는 ‘둘어범그러 이실’로, 목판본에는 ‘둘어이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활자본이 《월인석보》 권7의 《석보상절》 부분에 일치한다. 이 활자본은 1461년경 교서관(을해자는

교서관에서만 사용되었다.)에서 활자본 《능엄경언해》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인쇄된 것이라 생각된다.(안병희(1992), 《국어사자료연구》, 문학과지성사, 511쪽.)

5)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

《원각경》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약칭인데, 당나라 종밀(宗密)의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鈔)》에 세조 11(1465)년에 《원각경》에 세조가 한글토를 달고, 신미, 효령대군, 한계희 등이 번역하여 10책으로 간경도감에서 간행하였다. 상1이 1, 2, 상2가 1, 2, 3, 하1, 2, 3이 각각 1, 2로 분권되어 있다. 책머리에 간경도감 도제조 황수신의 전과 간행에 관여한 황수신, 박원형, 김수온 등 관원의 이름이 열기되어 있다.

현재 원간본은 권하3의 1, 2(李崇寧家 소장) 등이 전한다. 원간본의 책판으로 1472(성종 3)년에 인출된 책도 있다. 원간본과 인면(印面), 지질 등이 같지만, 권두의 내제(內題) 다음에 있는 ‘御定口訣 慧覺尊者臣信眉 孝寧大君臣補 仁順府尹臣 韓繼禧等譯(어정구결 혜각존자신신미 호령대군신보 인순부윤신한계희등역)’의 2행이 빈칸으로 바뀌었다. 간경도감의 폐쇄 등 인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책끝에 활자로 된 김수온의 발문이 있다. 중간본은 1575(선조 8)년 전라도 안심사(安心寺)에서 원간본을 복각한 책이다. 이 책판은 6, 25 때까지 보존되어 있었는데, 1932년 한용운(韓龍雲)이 보수하여 인출하였다. 《금강경언해》도 함께 인출하였는데, 약간의 보판(補板)이 있으므로 자료로 다룰 경우 주의를 요한다. 1932년 인출본을 저본으로 한 영인본이 1977년 대제각(大提閣)에서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이 책의 판식과 번역 양식은 모두 목판본 《능엄경언해》와 같다. 그러나 정서법에 있어서는 ㅎ과 각자병서가 폐기된 점이 특이하다.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에서 ‘가, 까’, 《금강경언해》에서 ‘까’로 표기되던 어행이 ‘가’로만 표기된 것이다. 어두의 각자병서, 예컨대 ‘쓰다, 닳다’도 ‘스다, 혀다’로 표기되었다. 이 책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러한 표기는 성종 때의 《두시언해》 등에 계속된다. 《원각경언해》에서 언해부분만을 제외하고 구결부분만으로 된 책이 있다. 을유자(乙酉

字)로 된 《원각경구결(圓覺經口訣)》로 분권은 언해본과 같고, 모두 5책이다. 현재 원간본과 이를 복각한 중간본이 모두 전한다.

[미주8] 《동국정운》

1) 동국정운 해설

세종이 한글을 창제 한 이후 원나라 시대의 《고금운회》 계열의 한자음을 명나라 관찬 운서인 《홍무정운》의 개신 한자음을 도입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 신숙주, 최항, 박평년 등이 왕명으로 편찬하여 세종 30(1448)년에 6권 6책의 활자본으로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운서이다. 국보 제71호(간송문고본, 권1, 6)와 국보 제142호(건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완질)가 있다.

이 책은 세종 29(1447)년에 편찬이 완성되었고, 이듬해인 세종 30(1448)년 10월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편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실록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다만 세종조의 운서 편찬 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조의 중요한 운서 편찬 사업으로는 《사성통고》, 《홍무정운역훈》, 《동국정운》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세종 26(1444)년 2월부터 동시에 착수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25(1443)년 12월에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그 이듬해 2월 14일에 의사청에 물어 훈민정음으로 써 《운회》를 번역하게 하였다. 이 《운회》는 원나라의 웅충(熊忠)이 개찬한 《고금운회거요》를 뜻하는데, 이 번역본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 《동국정운》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운회》의 번역본의 계획을 바꾸어 《동국정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운회》의 반절음을 우리나라 음으로 번역하여 훈민정음으로 표음하고, 훈민정음의 초성 차례에 따라 자류의 배열을 바꾸어놓은 것이 《동국정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열순서는 《동국정운》이 작시 위주의 운서가 아니라 한자음을 검색하기 위한 심음(審音) 위주의 운서이다. 이에 비하여 《홍무정운역훈》이나 《사성통고》는 작시용이므로, 세종조의 운서

편찬 사업이 작시용과 심음용의 이원화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정운》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신숙주, 최항, 성삼문, 박팽년, 이개, 강희안, 이현로, 조변안, 김증 등의 9인인데, 이들의 분담업무는 감장은 동궁, 그 보좌로는 진양대군과 안평대군, 주무는 신숙주와 성삼문, 우리나라 한자음의 사정은 최항과 박팽년, 중국음에 대한 자문은 조변안과 김증, 교정과 정리는 강희안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숙주의 서문에 의하면 《동국정운》의 편찬은 세종이 지시한 4대 기본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기본방침은, 첫째 속간에 쓰이는 관습을 널리 채택할 것, 둘째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적을 널리 상고할 것, 셋째 한 글자가 여러 개의 음으로 쓰일 때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 넷째 옛날부터 전해오는 협운(叶韻: 어떤 음운의 글자가 때로는 다른 음운과 통용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할 것 등이었다. 이 방침에 따라, 91운 23자모의 운도를 세우고, 반절 대신에 훈민정음으로써 표음(表音)하고, ㄷ입성은 속간의 발음에 따라 ㄹ로 바꾸되, 입성의 자질을 살리기 위하여 ‘ㄸ(이영보래)’로 표기하였다.

《동국정운》은 신숙주가 쓴 서문만이 전해오다가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첫째 권과 여섯째 권의 두 책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간송문고에 있다. 그 뒤 1972년에 중종 때의 문신인 심언광(沈彦光)의 수택본으로 집안에 전해오던 6권 6책의 전질이 강릉 심교만(沈敎萬)의 집에서 발견되어 현재 건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간송문고본은 전 6권 가운데 두 책만이 남아 있으나 권수에 선사지기(宣賜之記)가 날인되어 있고 표지의 제침(題簽)도 본래의 것으로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판심제(版心題)는 ‘正韻(정운)’이라고 되어 있다. 활자 중 본문의 한글과 한자 대자는 목활자이고, 소자와 서문의 대자는 초주 갑인자이다. 자체는 본문 대자가 《홍무정운》의 글씨와 비슷하고, 묵개의 음문(陰文)이 안평대군의 글씨와 비슷하나 편찬자의 한 사람인 강희안의 필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건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간송문고본과 같은 인본인데, 선장본(線裝本)을 포배장(包背裝)으로 개장하면서 책의 천지(天地)를 약간 절단하였고, ‘선사지기’가 없으며, 제전(題淺) 아래에 차례를 나타내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목서로 가필한 점이 다르다.

권1의 권두에 신죽주의 ‘동국정운서(東國正韻序)’와 ‘동국정운목록(東國正韻目錄)’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다. 이 본문은 권6에까지 이어지는데, 각 권은 26운목(韻目)의 배열 차례에 따라 분권되어 있다. 본문은 먼저 운목을 운류별로 표시한 뒤 행을 바꾸어 자모(字母)를 음각(陰刻)으로써 표기하였고, 자모 바로 밑에는 훈민정음으로 음을 표시하였다. 한 자모 아래에는 평성(平聲), 상성(上聲), 거성(去聲), 입성의 순서로 그 자모에 속하는 한자 1만 8천 7백 75자를 배열하였다. 각 글자의 뜻은 풀이하지 않았으며, 한 글자가 여러 음을 가질 경우 그 글자 바로 밑에 세주(細註)를 붙였다. 『동국정운』의 편운체계는 신숙주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91운 23자모로 되어 있다. 이 편운체계는 운서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는 동시에 당시의 국어 음운체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체계는 당시의 우리나라 한자음을 명확히 구현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대(宋代) 등운학과(等韻學派)들의 이론체계나 명대(明代) 『홍무정운』의 언어정책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 다분히 현실과 맞지 않은 인위적인 요소가 작용하게 되었다. 본문의 유형은 훈민정음의 자질에 따르고, 차례도 훈민정음의 종성과 중성에 따른 것이다.

내부의 분운으로서, ㅅ는 ㅅ, ㅈ, ㅊ를 치는 ㅈ, ㅊ를 ㅈ는 ㅈ, ㅈ을 ㅈ는 ㅈ,
ㅈ, ㅈ을 ㅈ는 ㅈ, ㅈ, ㅈ, ㅈ, ㅈ, ㅈ을 포함한다. 이것은 15운섭(韻攝)으로 통합할
수 있는데 등운학의 16운섭과 대조하면 같다. 《동국정운》의 자모는 23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와 완전히 일치한다. 성모자는 송대 등운학
의 자모자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 체계는 등운학의 36자모도에서 설두음
과 설상음, 순중음과 순경음, 치두음과 정치음을 통합한 현실 동국음을 반영한 것
이다. 청탁에서 전탁음(全濁音: ㄱ, ㅋ, ㆁ, ㄷ, ㅌ, ㄴ 등)을 분리, 독립시킨 것은
당시 국어의 현실음과 어긋나는 이상적 표기이다. 이처럼 청탁음을 분리한 것은
청탁의 대립이 있어야 한다는 등운학의 음운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인위적인 표기
방식이었다. 또한, ‘業(ㅇ), 揖(ㅍ), 欲(ㅇ)’의 3개 자모를 분리, 독립시킨 점도 당대
의 현실음과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이상적 한자음의 표기였다. 이러한 이유로 《동
국정운》의 한자음은 주로 불견역해에서만 주음(注音)으로 사용되어오다가 16세기

초에 《육조법보단경언해》에 이르러서는 그 사용이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동국정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자음을 우리의 음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국어 연구 자료로서의 중요성도 《훈민정음》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한자음의 음운체계 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의 제자 배경이나 음운체계, 그리고 각 자모의 음가연구에 있어서 기본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간송문고본 《동국정운》은 1958년 통문관에서 영인하였고, 건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1973년에 건국대학교 출판부에서 영인하였다.

2)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의 특징

첫째로 중국의 한자음에는 ‘설두음’과 ‘설상음’, ‘순중음’과 ‘순경음’, ‘치두음’과 ‘정치음’이 등의 구분이 있었지만, 조선의 한자음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었다. 따라서 《동국정운》에서는 중국의 《고금운회거요》에 107운과 36자모 체계를 변형하여 국어 한자음의 체계에 맞추어서 독자적으로 91운 23자모 체계를 세웠다. 둘째로 《고금운회거요》 등에 서는 반절을 이용하여 한자음을 표기하였는데, 《동국정운》에서는 반절법 대신에 새로 창제한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정음)을 사용하여 한자의 음을 달았다. 셋째로 중국에서는 입성인 ‘단모(端母, ㄷ)’에 속하는 ‘질(質)운’ ‘물(勿)운’을 ‘래(來)모’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래(ㄹ)모’의 뒤에 ‘影(ㅇ)모’를 붙여서 입성자음을 표기하는 이영보래(以影補來) 표기법을 만들었다. 이처럼 현실적 이상주의적 한자음 표기를 제정했던 세종은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의사에 따라 하게 하라(勿強敎, 使學者隨意爲之)”라고 일렀다. 《세종실록》 권122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법의 한계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세종 대에서부터 세조 대에 이르기까지 간행된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훈민정음언해》, 《월인석보》 등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은 그리 오래 쓰이지 못하고

이처럼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는 중국 운서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정리하였

기 때문에 전승을 곧 속음과는 거리가 생겨나 성종대에 《삼강행실도》 언해(1481년), 《불정심다라니경언해》(1485년) 등 일부 문헌에만 사용하다가 결국 《육조법보단경언해》에 가서는 속음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신숙주는 《동국정운》의 서에서 조선 한자음의 변화를 자모, 칠음, 청탁, 사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밝혔다.

첫째, 조선 한자음 중에서 ‘자모’가 변한 예로는 ‘克’이 ‘극’에서 ‘극’으로, ‘困’가 ‘곤’에서 ‘곤’으로 변한 것처럼 아음에서 ‘계(溪)모’의 글자의 태반이 ‘견(見)모’로 바뀌었다.

둘째, 조선의 한자음 중에서 ‘칠음’이 변한 예로는 ‘酷’이 ‘곡’에서 ‘혹’으로 바뀐 것처럼 ‘계(溪)모’의 글자가 ‘효(曉)모’로 바뀐 것으로 아음에서 후음으로 바뀐 칠음의 변화가 있었다.

셋째, 조선 한자음 중에서 ‘청탁’이 변화한 예로는 ‘極, 食, 貧, 談’이 ‘꼭, 씹, 뻥, 땀’으로 전탁 글자인데 ‘극, 식, 빈, 담’으로 전청 글자로 바뀐 변화가 있었다.

넷째, 조선 한자음 중에서 ‘사성’이 변화한 예로는 ‘景’이 상성에서 거성으로 바뀌었다.(강주진(1988:10~29), 〈보한재 신숙주 정전〉, 세광출판사. 참조.)

3) 《동국정운》 서

天地綱緼，大化流行，而人生焉。陰陽相軋，氣機交激而聲生焉。聲既生而七音自具，七音具而四聲亦備。七音四聲經緯相交，而清濁輕重深淺疾徐生於自然矣。

是故包犧畫卦，蒼頡制字，亦皆因其自然之理，以通萬物之情，及至沈陸諸子，彙分類集，諧聲協韻，而聲韻之說始興。作者相繼，各出機杼，論議既衆，舛誤亦多。於是溫公著之於圖，康節明之於數，探蹟鉤深，以一諸說。然其五方之音各異，邪正之辨紛紜。

천지의 기운이 꼭 달라붙어 대화(大化, 대자연의 변화)가 유행하여(만물을 생성하는 원기가 모여 큰 교화가 물처럼 널리 미치어) 사람이 생기며, 음양이 서로 부비고 만물의 생성 근원(氣機)이 함께 작동(激)하여 소리가 생겼다. 소리가 이미 생기

게 되면 칠음이 스스로 어울리고 운모와 사성이 또한 갖추어졌다. 칠음과 사성이 경(가로)과 위(세로)로 서로 얹혀짐에 청탁(淸濁), 경중(輕重), 심천(深淺)의 질서(疾徐, 빠른 소리와 느린 소리)가 자연히 생겼다.

그러므로 복희(包犧)가 괘(卦)를 짓고 창힐(蒼頡)이 글자를 만든 것도 또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만물의 정을 통한 것이므로 심약(沈約)과 육법언(陸法言)이 글자를 만듬에 이르러서는 어휘(彙)로 나누고 유(類)로 모아 성(聲)을 고르게 하고 운(韻)을 맞추니 성운(聲韻)이라는 말이 비로소 생겼다. 운서를 만든 이가 줄을 이어서 각기 제 주장을 하는 논의가 술함에 따라 그릇됨이 또한 많은지라. 이에 사마온공(溫公)이 운도(圖)로 짓고 소강절(邵康節, 소옹)이 성수론으로 밝혀 깊은 이치를 찾고 심오한 이치를 연구함으로써 여러 학설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오방의 음이 각각 달라서 옳고 그름(邪正)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夫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盖以地勢別而風氣殊, 風氣殊而呼吸異. 東南之齒唇西北之頰喉是已. 遂使文軌雖通, 聲音不同焉. 矧吾東方表裏山河自然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 則宜若與華音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經重翕闕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 其音雖變, 淸濁四聲則猶古也, 而曾無著書以傳其正,

대저 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 따라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지방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다. 대개 지세가 다르면 기후와 풍토가 틀리고 기후와 풍토가 다르면 호흡(즉 발음)이 다르니 동남쪽 사람은 순음이나 치음, 서북쪽 사람은 후음을 많이 쓰는 것이 곧 그것이라. 드디어 세상 문물 제도처럼 통일시킨다 하더라도 성음은 같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 동방은 안팎으로 산하(山河)가 저절로 한 구획이 되어 지리와 기후가 이미 중국과 다르니 어음이 어찌 화음(華音, 중국의 음)과 화합하겠는가. 그런 즉 어음(말 소리)이 중국과 더불어 다른 것은 이치로 보아 당연하거니와 문자(한자)의 음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화음(華音)과 서로 부합되어야 하나, 그 호흡하고 발음하는 사이

에 성모와 운모의 기틀(經重翕關)이 반드시 저절로 어음에 끌리게 되니 곧 한자음이 또한 따라서 변한 바이다. 비록 그 음은 변했어도 청탁과 사성은 옛과 같아질 수 있으나 진작 책을 지어 바름을 전하지 못하였다.

庸師俗儒不知切字之法，昧於紐躡之要，或因字體相似而爲一音，或因前代避諱而假他音，合二字爲一，或分一音爲二，或借用他字，或加減點畫，或依漢音，或從俚語，而字母七音清濁四聲皆有變焉。若以牙音言之，溪母之字太半入於見母，此字母之變也。溪母之字，或入於曉母，此七音之變也。我國語音其清濁之辨，與中國無異也，而於字音獨無濁聲，豈有此理，此清濁之變也。語音則四聲甚明，字音則上去無別，質勿諸韻，宜以端母爲綜聲，而俗用來母，其聲徐緩，不宜入聲，此四聲之變也。端之爲來，不唯綜聲，如次第之第，牡丹之丹之類，初聲之變者亦衆。國語多用溪母，而字音則獨失之一音而已。此尤可笑者也。

어리석은 스승과 속된 선비들은 반절(切字)의 법도 모르고 자모와 운모의 분류 방식인 뉴섭(紐躡, 뉴는 자모, 섭은 107운모를 16~14 단위로 묶음)의 요지에도 어두워서 혹 자체가 비슷하므로 한 음을 만들고 혹 전대의 피휘(避諱)로 다른 음을 빌고, 혹 두 글자를 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혹 한 음을 나누어 둘로 만들고, 혹 다른 자도 차용하고, 혹 점과 획을 가감하고, 혹 한음에 따르고, 혹은 이어(방언)에 따라서 자모, 칠음, 청탁, 사성이 모두 변하였다.

만약에 아음으로 말한다면 계모(溪母, k'-)의 글자가 태반 견모(見母, k-)에 들어가 있으니 이는 자모의 변함이요, 계모(溪母)의 글자가 혹 효모(曉母, h-)에도 들어가 있으니 이는 칠음의 변함이다. 우리 어음도 청탁의 구별이 중국과 다름이 없거늘 우리 한자 자모에만 단지 탁성이 없으니 어찌 그런 이치가 있으리오. 이는 청탁의 변함이다. 우리 어음에는 사성이 아주 분명하건만 한자음에는 상성과 거성이 구별이 없고, '질(質)운'과 '물(勿)운'에는 마땅히 단모(端母, ㄷ음)로 종성을 삼아야 하는데, 속습에 '래(來)모'를 (종성에) 씌으로써 그 소리가 느려져서(徐緩) 입성에 맞지 않으니 이는 사성의 변함이다. 단(端, ㄷ)모가 래(來, ㄹ)모로 변한 것은 오직 종성만이 아니요, 차(次)모와 제(第)모의 제(第)와 모란(牡丹)의 단(丹)의 부류로 초

성이 변한 것도 또한 많으며, 우리말에는 계모(溪母, ㄱ)를 많이 쓰는데도 한자모에는 다만 왜(夫)의 한 종류뿐이니 이 더욱 우스운 바이다.

由是字畫訛而魚魯混眞，聲音亂而涇渭同流，橫失四聲之經，縱亂七音之緯，經緯不交，輕重易序，而聲韻之變極矣.

世之爲儒師者，往往或知其失，私自改之，以教子弟，然重於擅改，因循舊習者多矣. 若不一大正之則，愈久愈甚，將有不可救之弊矣.

蓋古之爲詩也，協其音而已，自三百篇而降，漢魏晉唐諸家，亦未嘗拘於一律，如東之與冬，江之與陽之類，豈可以韻別以不相通協哉. 且字母之作，諸於聲耳，如舌頭，舌上，脣重，脣輕，齒頭，正齒之類，於我國字音未可分辨，亦當因其自然，何必泥於三十六字乎.

恭惟我主上殿下，崇儒重道，右文興化，無所不用其極，萬機之暇，概念及此，爰命臣叔舟，及守集賢殿直提學臣崔恒，守直集賢殿臣成三問，臣朴彭年，守集賢殿校理臣李塏，守吏曹正郎臣姜希顔，守兵曹正郎臣李賢老，守承文院校理臣曹變安，承文院副校理臣金曾，旁採俗習，博考傳籍，本諸廣用之音，協之古韻之切，字母七音清濁四聲靡不究其源委，以復乎正.

이로 말미암아 자획이 어그러져 ‘어(魚)’모와 ‘노(魯)’모가 뒤섞이고 성음은 흐트러져 경위(涇渭, 정음과 와전된 음이 함께 쓰이므로) 운도에서 가로는 사성의 경(經)을 잃고 세로는 칠음의 위(緯)를 어지럽혀 경과 위가 바르게 뒤엎히고 순경음과 순중음이 차례가 바뀌어 성운의 변함이 극심하다.

세간의 유사(儒師, 유학자)된 자가 왕왕 그 잘못을 알고 사사로이 고쳐서 그들 자체를 가르치기는 하되 제멋대로 고치기(擅改)가 어려워 구습에 그대로 따르는(因循) 자가 많으니 만약 크게 바로 잡지 아니 하면 시간이 오를수록 더 심해져 장차 는 구할 수 없는 폐가 있으리라.

대저 옛날에 시를 지을 때는 그 음을 맞게 할 뿐이니 3백편(시경)으로부터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당나라 시대의 여러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역시 하나의 운운(운문, 운모)에만 구애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동(東)운과 동(冬)운이나 강(江)운과 양(陽)

운과의 부유(운모류)를 어찌 운모가 구별됨으로써 통하게 쓰이지 않겠는가. 또 자모를 만드는 데도 성모에 고르게 할뿐이라. 설두-설상, 순중-순경, 치두-정치의 부류는 우리 한자음에서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니, 그 또한 자연에 연유한 것으로 어찌 반드시 36자모에 구애받을 것인가?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유학을 숭상하시고 도학을 중히 하여서 문에 힘쓰시고 교화를 일으켜 극진하지 아니 하신 바가 없는지라. 만기(萬機, 임금의 바쁜 업무 가운데)의 겨를에 개연히 생각을 여기(한자음 문제)까지 미치어 이제 신 신숙주 및 수집현전 직제학 신 최항과 수직집현전 신 성삼문과 신 박팽년과 수집현전교리 신 이개와 수 이조정랑 신 강희안과 수병조정랑 신 이현로와 수승문원교리 신 조변안(曹變安)과 승문원부교리 신 김증(金曾)에게 명하시어 한편으로는 속습을 채집하고 널리 전적을 상고해서 널리 쓰는 음을 근본으로 삼고 고운(古韻)의 반절에도 맞추어 자모, 칠음, 청탁, 사성에 걸쳐 그 본말을 밝히지 아니 함이 없이 옳바른 것을 회복하라 명하였다.

臣等才識淺短，學問孤陋，奉承未達，每煩指顧乃因古人編韻定母，可併者併之，可分者分之，一併一分，一聲一韻，皆稟宸斷。

而亦各有考據，於是調以四聲，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又於質勿諸韻，以影補來，因俗歸正，舊習譌謬，至是而悉革矣。書成，賜名曰東國正韻，仍命臣叔舟爲序，

臣叔舟竊惟，人之生也，莫不受天地之氣，而聲音生於氣者也。清濁者陰陽之類，而天地之道也。四聲者造化之端，而四時之運也。天地之道亂，而陰陽易其位，四時之運紊，而造化失其序，至哉。聲韻之妙也，其陰陽之閭奧，造化之機緘乎。

況乎書契未作，聖人之道寓於天地，書契既作，聖人之道載諸方策。欲究聖人之道，當先文義，欲知文義之要，當自聲韻，聲韻乃學道之權輿也。而亦豈易能哉。

신 등은 재주와 학식이 얇고 짧으며, 학문이 고루하여 전하의 분부를 옳게 이루지 못하고 매양 가르침을 받기 위해(指顧) 번거롭게 하였다. 이에 옛 사람들의 편운(編韻, 운목)과 정모(定母, 자모)로부터 합칠 것은 합치고 나눌 것은 나누되 하나의

합침과 하나의 나눔과 하나의 성(聲)과 하나의 운을 정함에 있어 모두 상감의 재가(宸斷)를 품한 바요, 또한 각각 상고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에 사성을 조정하여 91운과 23자모로 작성하고 임금이 지으신 훈민정음으로 그 음(한자음)을 정하고 또 질(質)운과 물(勿)운의 여러 운(韻, 입성 운미음)에는 ‘影(ㅇ)모’로 ‘來(ㄹ)모’를 보충하여 속습에 따라 바로잡았으니 구습의 그릇됨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졌다. 책이 이루어짐에 이름을 내리시어 《동국정운》이라 하시고 이어서 신 숙주에게 명하시어 서를 지으라 하시니

신 숙주는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람이 생긴 데는 천지의 기운을 받지 아니 함이 없고, 성음은 기운에서 생기는 것인 바, 청탁이란 음양의 부류로서 천지의 도이며, 사성은 조화에 끝으로서 사시 운행이라, 천지의 도가 어지러워지면 음양이 그 위치를 바꾸고, 사시의 운행이 뒤섞여서는 조화가 그 차례를 잃게 되니, 지극하도다, 성운의 묘함이며, 그 음양의 중심(閭奧)이요, 조화의 중요한 요점(機緘)이온저. 하물며 서계(書契, 중국 태고의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인의 도가 천지에 닿아 있고 서계가 만들어진 뒤에는 성인의 도가 여러 책에 실린지라. 성인의 도를 밝히고자 하면 마땅히 글의 뜻(文義)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 뜻의 요점을 알려면 마땅히 성운으로부터 알아야 할 것이니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초(權輿)이건만 또 한 어찌 쉽게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此我 聖上所以留心聲韻，斟酌古今作爲指南，以聞億載之羣蒙者也。古人著書作圖，音和，類隔，正切，回切，其法甚詳，而學者尙不免含糊囁嚅味於調協。自正音作而萬口一聲，毫釐不差，實傳音之樞紐也。

淸濁分而天地之道定，四聲正而四時之運順，苟非彌綸造化，軫輶宇宙，妙義契於玄關，神幾通于天籟，安能至此乎。淸濁旋轉，字母相推，七均而十二律而入十四調，可與聲樂之正，同其太和矣。

吁，審聲以知音，審音以知樂，審樂以知政，後之觀者，必有所得矣。

이는 우리 성상이 성운에 유심(마음에 뜻을 둠)하시고 고금에 취사선택하시어 길잡이(指南)를 만들어서 수억년(億載)에 걸쳐 못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시는 바이

다. 옛 사람이 글(운서)을 짓고 운도를 그려 음화(音和, 동음동모)니 유격(類隔, 청탁동일)이니 정절(正切)이니 회절(回切)이니 하여 그 법이 심히 소상하건만 오히려 얼버무림과 우물쭈물함을 면치 못하여 조협(調協, 한자음을 고르게 나타내는 일)에 어둡더니 정음이 나면서부터 만고의 한 가지 소리가 털끝만큼(毫釐)도 차차(差錯)이 없으니, (정음은) 실로 음을 전하는 구조(樞紐, 가장 중심되는 구실)입니다. 청탁이 나눔에 천지의 도가 정해지고, 사성이 바름에 사시의 운행이 순리대로 되니 조화를 미륵(彌綸, 모두 다스리고)하고 우주를 교갈(轆轤, 세차게 달려서)하여 묘한 뜻이 현관(玄關, 현묘한 도의 입구)에 계합(契合, 서로 부합됨)되고, 신령한 기틀이 천뢰(天籟, 하늘 소리)에 통하는 것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에 이를 것인가. 청탁이 선전(旋轉, 빙빙 돌고)하고 자모가 서로 미루어 7운(七韻)에서 12율로 84조(調)로 되어 가히 성악(聲樂)의 바름과 그 태화(太和, 큰 화합)를 함께 할 것입니다.

아, 소리를 살피 음을 알고, 음을 살피 음악을 알고 음악을 살피 정사를 아나니, 후세에 보는 자가 그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正統十二年，丁卯九月下潮，通德郎守集賢殿應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臣叔丹，拜手稽首謹序

정통 12년 세종 29(1447)년 정묘 9월 하순, 통덕랑 수 집현전 응교 예문 응교 지제교 경연 검토관 신 신숙주는 두 손 모아 머리를 조아려 삼가 서를 씀.

(강주진(1988), 《보한재 신숙주 정전》, 출판사, 10~20쪽 참조.)

[미주9]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1) 《홍무정운역훈》

《홍무정운》은 중국 명나라 태조 홍무 8(1375)년에 악소봉 등이 왕명에 따라 펴낸 운서이다. 양나라의 심약(沈約)이 제정한 이래 800여 년이나 통용되어 온 사성의 체계를 모두 북방 중원음을 표준으로 삼아 개정한 것으로,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을 짓는 데 참고 자료가 되었다.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은 단종 3(1455)년에 신숙주, 성삼문, 조변안, 김증, 손수산 등이 16권 8책으로 편찬한 활자본 운서이다. 현재 14권 7책이 고려대학교 도서관(보물 제417호)에 소장되어 있다. 명나라 흠찬 운서인 《홍무정운》의 중국음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한글로 주음을 단 운서로 당시 중국과의 교린을 위한 중국 한자음 표기 자료이다. 이 책은 그 서문만이 신숙주의 《보한재집》 권15와 《동문선》 등에 이름만 전하여오다가, 1959년 《진단학보》 제20호에 발표된 이승녕 교수의 〈홍무정운역훈의 연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그 전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각권이 표제(表題), 운목(韻目), 자모(字母), 역음(譯音), 자운(字韻) 등은 대자로 표시되어 있고, 반절, 속음(俗音), 발음 설명, 석의(釋義) 등은 소자로 표시되어 있다. 편찬 목적은 첫째, 정확한 중국 발음을 쉽게 습득하고, 둘째, 속음(북방음)의 현실성을 참고로 이를 표시하였으며, 셋째 《홍무정운》을 중국 표준음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며, 넷째 세종의 어문정책 전반에 관한 소망성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한 인물은 감장자로 수양대군, 계양군이며, 편찬자는 신숙주, 성삼문, 조변안, 김증, 손수산이며, 수교자는 노삼, 권인, 임원준이다. 간행 시기는 신숙주의 서문에 ‘景泰六年仲春既望’이라 하여 단종 3(1455)년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행시기로 볼 수 있고, 서문 중간에 ‘凡謄十餘藁, 辛勤反復, 竟八載之久’라 하였으므로 세종 30(1448)년 경에 이미 착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표준 운서로서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자료로서의 큰 가치를 가진다. 한자음의 전통적 표시 방법은 반절이나 운도 등에 의지하는데, 이들은 한글 표기의 정확성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책의 한글 표기는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된다.

신숙주의 이 서문은 《보한재집》에 들어 있다. 《홍무정운역훈》은 《사성통고(四聲通考)》음과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홍무정운역훈》 서

聲韻之學最爲難精。蓋四方風土不同，而氣亦從之，聲生於氣者也。故所謂四聲七音隨方而異宜。自沈約著譜，雜以南音，有識病之，而事歷代未有釐正之者。

洪惟皇明太祖高皇帝，愍其乖舛失倫，命儒臣一以中原雅音，定爲洪武正韻。實是天下萬國所宗。

《성운》의 학문이란 가장 정밀하여 어려운 것이니 대개 사방의 풍토가 같지 못하고 기(氣, 기운)도 또한 거기에 따른 바, 소리는 기에서 생기는 것인지라, 이른바 사성과 칠음이 지방에 따라서 편의함을 달리하거늘 심약이 보(《사성운보》)를 지은 후로 중국 남방음이 섞여서 식자들이 병통으로 여기되 역대로 바로잡은 자가 없었다. 널리 생각하건대 명나라 태조 황제께서 그 괴천실윤(乖舛失倫, 그 체계가 어그러지고 순서가 어지워짐)을 민망히 여겨 유신에게 명하여 오로지 중원아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홍무정운》을 짓도록 명하시니 《홍무정운》은 실로 천하 만국의 받들 바이다.

我世宗莊憲大王留意心韻學，窮研底蘊，創制訓民正音若干字。四方萬物之聲，無不可傳，吾東邦之士，始知四聲七音，自無所不具，非特字韻而已也。於是以前吾東國世事中華，而語音不通，必賴傳譯，首命譯洪武正韻，令今禮曹參議臣成三問，典農少尹臣曹變安，知金山郡事臣金曾，前行通禮門奉禮郎臣孫壽山，及臣叔舟等，稽古證閱，首陽大君臣諱，桂陽君臣璿，監掌出納，而悉親臨講定，叶以七音，調以四聲，諧之以清濁，縱衡經緯始正罔缺。

우리 세종 장헌대왕께서는 운학에 유심(뜻을 두고)하시고 그 저운(바닥과 속 깊이)을 궁극히 연구하시어 훈민정음 약간 글자를 창제하시니 사방 만물의 소리를 전하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우리 동방의 선비들이 비로소 사성 칠음이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데가 없으니 특히 자운만이 아닌 줄을 알거니와 이에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화를 섬겼으나 어음이 통하지 못하여 반드시 전역(통역관)에게 힘입게 됨으로써 맨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하라 명하시어 지금의 예조참의 신 성삼문, 전농소윤 신 조변안과 금산군 지사 신 김증과 전행 통례문 봉례랑 신 손수산과 및 신 숙주 등으로 하여금 계고증열(稽古證閱, 옛 문헌을 상고하여 널리 벌여 증명함)하게 하시고 수양대군 휘(諱)와 계양군 증(贈)으로 하여금 출납을 담당하게 하시고 친히 임석하여 전 과정에 간여하시어 칠음을 맞추고 사성을 고르고, 청탁을 해협(맞도록)하게 하시니 가로 세로 경과 위가 비로소 바르게 되어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然語音既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 所與質之者若干人, 燕都爲萬國會同之地, 而其往返道途之遠, 所嘗與周旋講明者, 又爲不少, 以至殊方異域之使, 釋老卒伍之微, 莫不與之相接, 以盡正俗異同之變. 且天子之使至國, 而儒者則又取正焉. 凡曆十餘載, 辛勤反復, 竟八載之久, 而向之正罔缺者, 似益無疑. 文宗恭順大王, 自在東邸, 以聖輔聖, 參定聲韻, 及嗣寶位, 命臣等及前判官臣魯參, 今監察臣權引, 副司直臣任元濬, 重加讐校.

그러나 어음이 이미 다르고 전와(傳訛, 바뀌어 잘못됨)가 또한 심하여 이에 신 등에게 명하시어 중국의 선생 학사에게 질정(물어서 바로 잡도록)하게 하시는 지라, 왕래가 7~8번에 이르러 더불어 질문한 자가 약간 사람이다. 연도(燕都, 연경)는 만국이 회동하는 땅이요, 그 오고 가는 먼 길에서 일찍이 더불어 주선강명(周旋講明, 교섭하여 밝혀보려고 함)하는 자가 또한 적지 않으니 변방 이역의 사신이나 석노졸오(釋老卒伍, 늙은 중이나 병사 곧 일반 백성)의 미천한 이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만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으니 이로서, 정속(正俗)의 이동 변천을 다 밝혔다.

또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이르되 유학자이면 다시 나아가서 질정하니 무릇 원고를 등초하기 10여 회째 몸을 근면히 되풀이 하여(애를 써서 고쳐) 마침내 여덟 해만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 어지러짐이 없다는 것이 더욱 의심없게 되었습니다.

문종 공순대왕은 동궁으로 계실 때부터 성왕 성인(세종)을 도우시어 성운의 일에

참여하신 터인 바 보위를 이으신 뒤에는 신 등과 전 판관 신 노삼(魯參)과 지금의 감찰 신 권인(權引)과 부사직 신 임원준(任元濬)에게 명하시어 거듭 수교(讐校, 수정하도록 명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夫洪武韻用韻併析，悉就於正，而獨七音先後，不由其序，然不敢輕有變更，但因其舊，而分入字母於諸韻各字之首，用訓民正音，以代反切，其俗音及兩用之音，又不可以不知，則分注本字之下，若又有難通者，則略加注釋，以示其例，且以世宗所定，四聲通攷，別附之頭面，復著凡例，爲之指南。

대저 《홍무정운》은 용운병석(用韻併析, 운을 가지고 합하고 나눈 것)이 모조리 바르게 되었으나 오직 칠음의 선후만이 그 차서(순서)를 말미암지 아니 하였것만(순서가 맞지 않음)을 감히 가볍게 변경하지 못하여 옛것 그대로 여러 운을 표시하는 각 글자의 첫머리에 자모(성모)만 구분하여 넣고 훈민정음으로서 반절을 대신하며, 그 속음과 두 가지로 쓰는 음은 꼭 알아야 할 것은 본 글자 아래 나누어 주를 달고 예를 넣었다.

만약 통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주석을 더하고 그 예를 보이며, 또 세종이 소정하신 바의 《사성통고》를 따로 첫머리에 붙이고 다시 범례를 만들어서 지남(기준)을 삼았습니다.

恭惟，聖上卽位，亟命印頒，以廣其傳，以臣嘗受命於先王，命作序，以識顛末，切惟，音韻，衡有七音，縱有四聲，四聲肇於江左，七音起於西域，至于宋儒作譜，而經緯始合爲一，七音爲三十六字母，而舌上四母，唇輕次清一母，世之不用已久，且先輩已有變之者，此不可強存而泥古也，四聲爲平上去入，而全濁之字平聲，近於次清，上去入近於全清，世之所用如此，然亦不知其所以至此也，且有始有終，以成一字之音，理之必然，而獨於入聲，世俗率不用終聲，甚無謂也。

공손히 생각하건대 성상(단종)이 즉위에 하시면서 빨리 인반(印頒, 간행 반출)하여 널리 전하게 하라 명하시니, 신이 일찍 선왕께 명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서를 지어서 전말을 적으라 하셨다.

가만히 생각건댄 음운이란 (운도에) 가로로 칠음이 있고 세로로 사성이 있는데, 사성은 강좌(양즈강 좌안)에서 시작되었고 칠음은 서역(西域, 인도지역)에서 일어났으므로 송유(송나라 학사)가 운보(《사성보》)를 만드는데 경과 위가 비로소 합해서 하나가 된 것이다. 칠음은 36자모가 되나 설상의 4모와 순경 차칭의 1모(數母, 부모)는 세상에서 쓰지 아니한지 오래라. 이를 억지로 두어서 옛 것에 구애될 것이 없는 바이다.

사성은 평, 상, 거, 입이 되는데 전탁의 글자가 평성은 차칭에 가깝고 상, 거, 입성은 전칭에 가까운데 세상에 쓰임이 이러하다. 또한 그렇게 된 연유를 모르는 바이다. 또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어서 한 글자의 음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이치인 바인데 홀로 입성에 모두 중성을 쓰지 않는 것은 심히 까닭모를 일이라고 할 수 있다.

蒙古韻與黃公紹韻會，入聲亦不用終聲何耶。如是者不一，此又可疑者也。

往復就正既多，而竟未得一遇精通韻學者，以辨端緒紐攝之妙，特因其言語讀誦之餘，邇求清濁開闔之源，而欲精夫所謂最難者，此所以辛勤歷久而僅得者也。

臣等學淺識庸，曾不能鉤探至蹟，顯揚聖謨。尙賴我世宗大王，天縱之聖，高明博達無所不至，悉究聲韻源委，而斟酌裁定之，使七音四聲，一經一緯，竟歸于正。吾東方千百載，所未知者，可不浹旬而學，苟能沈潛反復，有得乎是，則聲韻之學，豈難精哉。

몽고운(《몽고운략》)과 황공소(黃公紹)의 《운회》도 입성을 또한 중성에 쓰지 않으니 그 무슨 일일까? 이런 것이 하나만이 아니니 이 역시 의심스러운 것이다.

왕부(중국을 오가며) 질정함(바로 잡음)이 이미 여러 번이지만 마침내 한 번도 운학에 정통한 자를 만나서 유섭(紐攝, 성모(紐)와 운모(攝))을 조해(調諧, 고르게 분별함)하는 묘함을 터득하지 못하고 특히 그 언어 독송(글을 읽음)에 따라 청탁(淸濁), 개합(開闔)(성모(청탁), 운모(개합))의 근원을 소구(거슬러 올라가서)해서는 이른바 가장 어려운 바를 정하게 하고자(운학의 이치를 밝히고자) 하니 이 곧 신근함을 오래 내어서만 겨우 얻게 된 바이다.

신들은 배움이 얹고 아는 것이 용렬하여 지극히 궁극(이치를 연구)한 것을 밝혀 임금의 뜻을 현양치 못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세종대왕은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고명 박달(밝고 넓게 아시지 못하는 바가 없음)하셔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심에 성운의 원위(근원)조차 모조리 밝게 연구하셔서 짐작재정(헤아려 결정해 주심)하심에 힘을 입어서 칠음과 사성의 한 경과 한 위로 하여금 마침내 바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 우리 동방에서 천백 년 동안 알지 못하던 것을 불과 열흘 안에 얻을 수 있으니 진실로 침잠반부(沈潛反復, 되풀이 하여 깊이 생각한 다음)해서 이치를 깨칠 수 있으면 성운이라는 학문인들 어찌 연구하기 어렵겠습니까.

古人謂梵音行於中國，而吾夫子之經，不能過跋提河者，以字不以聲也。夫有聲乃有字，寧有無聲之字耶。今以訓民正音譯之，聲與韻諧，不待音和，類隔，正切，回切之繁且勞，而舉口得音，不差毫釐，亦何患乎風土之不同哉。我列聖製作之妙，盡美盡善，超出古今，而殿下繼述之懿，又有光於前烈矣。

옛사람이 이르기를 범음(梵音)은 중국에서 사용되었으니 공자의 경서는 발제하(跋提河, 인도와 중국 경계에 있는 강)를 넘지 못한 글자이자 소리로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저 글자가 있으면 이에 소리가 있는 것이니, 어찌 소리없는 글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훈민정음으로써 번역하니 소리가 운과 해협(잘 들어맞아 제대로 자음을 나타낼 수 있음)되어 음화(音和), 유격(類隔), 정절(正切), 회절(回切)의 번거롭고 수고로움을 기다릴 것이 없이 입으로 발음하면 소리를 얻되 호리(털끝만큼)의 차차(차이와 오차)이 없는지라. 또 무슨 풍토가 같지 아니 함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열성(세종-문종)의 제작의 묘함이 진미진선(盡美盡善, 진실로 아름답고 선하여)하여 멀리 고금에 뛰어나시고 전하(단종)의 기술의 아름다움(조상의 업적을 이르신 아름다움)도 또한 선열에 빛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景泰六年仲春既望，輪忠協策靖難功臣，通政大夫，承政院 都承旨，經筵 參贊官兼尙瑞 尹 修文殿 直提學 知製教 充春秋館 兼判奉常寺事 知吏曹事 內直司樞院事 臣 申

叔舟, 拜手稽首敬序

경태 6년, 단종 3(1455)년 음력 4월 16일에 수충협책 정반공신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경연 참연관 겸 사서운 수문권 직제학 지제교 충춘추관 겸 판봉상사시지이 조사 내직사준원사 신 신숙주는 두 손 모아 머리를 조아려 공손히 책 서문을 씀.

[미주10] 《사성통고(四聲通考)》

1) 《사성통고》와 《사성통해》

중종 12(1517)년에 최세진(崔世診)이 《홍무정운역훈》(1455년)의 음계를 보충하고, 자해(字解)가 없는 신숙주의 《사성통고》를 보완하기 위하여 2권 2책으로 편찬하였다. 수록된 한자의 배열이 《홍무정운》보다 4운(韻)이 많은 80운을 기준으로 하고, 각 운에 속하는 한자는 《사성통고》와 마찬가지로 먼저 자모순으로 분류하고, 같은 자모에 속하는 한자는 사성순으로 배열하였다. 각 소운(小韻)의 대표자는 《홍무정운역훈》의 그것과 거의 같으며, 소운 대표자 앞에 그 자음을 한글로 표음하고, 때로는 속음을 병기하는 방식도 같다. 최세진의 서문에 의하면, 먼저 《홍무정운역훈》의 수록자를 대폭 보충한 《속침홍무정운》을 짓고, 이것을 《사성통고》 형식으로 개편하여 《사성통고》를 지었는데, 그가 따로 지은 《노박집랍》도 참고하면서 4년간에 걸쳐 원고를 일곱번 고쳤다고 했다. 《사성통해》의 내용 순서는 서문 다음에 ‘운모정국’이 있고, 이어서 《광운》 36자모지도, 《운회》 35자모지도, 《홍무정운》 31자모지도가 실려 있고, 범례 26조항 다음에 ‘동운(東韻)’부터 한자가 배열되어 있다. 현전본의 하권 끝에는 《사성통고》 범례 10조와 《번역노걸대》, 《박통사》 범례 9조, 그리고 <동정자음(動靜字音)>항이 실려 있다. 《사성통해(四聲通解)》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무정운》의 반절은 옮겨 적지 않고 한글로 표음한 《홍무정운역훈》의 음을 그대로 옮겨 적어 정음(正音, 홍무정운음)과 속음(俗音, 15세기 중국 북방음)을 구별하였으며 때로는 최세진이 관찰한 16세기의 북방음을 금속음(今俗

품, 대체로 중원 음운음과 같음)이라고 하여 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홍무정운역훈》과 《사성통해》는 정음과 속음의 음계가 같고 전탁음을 유지하고 있는 정음, 속음의 31성모, 76운목(《사성통해》는 80)의 운모 중성도 같다. 둘째, 이 책에서는 중국의 관화(官話)에서 이미 소실된 입성운미(入聲韻尾, -p, -t, -k)를 그대로 반영하여 《홍무정운역훈》의 정음과는 달리, 정음에서도 입성운미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약운(藥韻)’의 정음만 ‘빙’으로 운미 표기하였다. 《홍무정운역훈》에서는 정음입성운미로 ㄱ, ㄷ, ㅂ을 표기했고, 속음의 입성운미는 ‘ㅇ’(약운만 ㅂ)이었는데, 《사성통해》의 속음도 이와 같다. 셋째, 수록자의 자순은 《홍무정운역훈》, 《사성통고》과는 달랐고 소운 대표자도 다르며, 때로는 《홍무정운역훈》, 《사성통고》의 소운을 통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최세진이 《몽고운략》, 《고금운회거요》, 《운학집성》과 《중원아음》, 《고운지음》 등을 참고로 하여 《사성통해》를 지을 때, 《홍무정운》과 《몽고운략》에서 음이 같은 글자부터 수록했기 때문이다. 넷째, 이 책에서는 정음, 속음, 금속음 이외에 ‘몽고운략’음, ‘운회거요’음, ‘중원음운’음 등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자석은 주로 《고금운회거요》에서 취했는데, 자석 가운데에는 451여 단어에 걸쳐 물명 등을 국어로 기록하기도 했다. 이 책은 한글로 표음된 문서로서 중국어, 특히 근세 북방음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된 자석도 있어 국어사의 연구 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현재 원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올해자로 된 복각본으로서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목판본이 일본의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내에는 광해군 6(1614)년의 목활자본과 효종 7(1654)년의 목판본이 규장각도서에 있다. 국내에서는 1614년판을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영인하였다.(강신항(1973), 《사성통해 연구》, 신아사. 참조.)

2) 《사성통고》 범례

이 범례에는 첫째, 그 당시 한음과 우리 어음의 차이. 둘째, 《사성통고》 음 즉 《홍무정운역훈》 음의 정체. 셋째, 훈민정음과 몽고자의 관계 등을 추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재료들이 들어 있다. 그뿐 아니라 훈민정음이 발표된 이후 치두, 정치의

구별이 추가되고 또 문자의 순서가 변경되고 또 한자음에도 ‘ㅇ’ 종성을 쓰지 아니한 예 등의 중요한 사실도 오직 이로써 알게 되고 해례가 나오기 전까지 원칙으로 종성을 반듯이 갖추어야 하고 편법으로 ‘ㅇ’의 종성이 생략된다는 사실도 오직 이로써 알게 되었을 뿐이다.

一. 以圖韻諸書及今中國人所用, 定其字音, 又以中國時音所廣用, 而不合圖韻字, 逐字書俗音於反切之下.

一. 도(圖)와 운(韻)의 여러 책과 지금 중국인이 쓰는 것으로서 그(홍무정운역혼)음을 정하고 중국 당시 음으로 널리 쓰이나 운도와 운서에 맞지 않는 것은 그 글자마다 반절 아래 속음을 달았다.

一. 全濁上去入三聲之字, 今漢人所用, 初聲與清音相近, 而亦各有清濁之別. 獨平聲之字, 初聲與次清相近, 然次清則其聲清, 故音終直低, 濁聲則其聲濁, 故音終稍厲.

一. 전탁의 상, 거, 입 3성의 글자는 지금 한인의 쓰는 바, 초성이 청성(전청)과 근사하기는 하지만 또한 각각 청탁의 구별이 있다. 오직 평성자의 초성은 차청에 가깝으나 차청은 그 음이 청함에(소리가 맑음) 음상이 늘 곧고 낮으며, 탁성은 그 소리가 흐리므로 음이 늘 조금 거세다.

一. 凡舌上聲以舌腰點腭, 故其聲難而, 自歸於正齒. 故韻會以知徹澄孃歸照穿牀禪. 而中國時音, 獨以孃歸泥. 且本韻混泥孃而不別, 今以知徹澄歸照穿牀, 以孃歸泥.

一. 무릇 설상성(舌上聲)은 혀의 혀리가 잇몸에 닿으므로 그 소리가 어려워서 저절로 정치(整齒)로 돌아가는 까닭에 《운회》에서도 ‘니(泥)’와 ‘양(孃)’을 섞어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지(知)’, ‘철(徹)’, ‘증(澄)’은 ‘조(照)’, ‘천(穿)’, ‘상(牀)’, ‘선(禪)’모로 합치고, ‘양(孃)’은 ‘니(泥)’로 합쳤다.

一. 脣輕聲非數二母之字, 本韻及蒙古韻, 混而一之, 且中國時音亦無別, 今以數歸

고 정제됨)됨이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중성에서 ㅏ, ㅑ, ㅓ, ㅕ의 장구(張口, 입을 옆으로 벌려 발음하는 평순음)의 글자는 초성을 낼 때도 입이 변치 아니하고 ㅗ, ㅛ, ㅜ, ㅠ 축구(縮口, 입을 오므리고 발음하는 원순음)의 글자는 초성을 낼 때도 혀가 변치 아니하는 것이라. 중성의 ㅏ가 되는 자는 ㅏ, ㅑ의 중간과 같이 읽고(발음하고) ㅑ일 때는 ㅑ, ㅓ의 중간과 같이 읽고 ㅓ는 ㅓ, ㅕ의 중간, ㅕ는 ㅕ, ㅗ의 중간, ㅗ는 ㅗ, ㅛ의 중간, ㅛ는 ㅛ, ㅜ의 중간, ㅜ는 ㅜ, ㅠ의 중간, ㅠ는 ㅠ, ㅡ의 중간, ㅡ는 ㅡ, ㅗ의 중간, ㅣ는 ㅣ, ㅗ의 중간이라야 거의 중국음에 맞다. 지금 중성이 변한 것은 운마다 같은 중성 첫 자 아래 이를 설명한다.

一. 入聲諸韻終聲，今南音傷於太白，北音流於緩弛，蒙古韻亦因北音，故不用終聲。黃公紹韻會入聲，如以質韻颺卒等字，屬屋窻字母，以合韻閣榼等字，屬葛韻葛字母之類，牙舌脣齒音，混而不別，是亦不用終聲也。平上去入四聲，雖有清濁緩急之異，而其有終聲，則固未嘗不同，況入聲之所以爲入聲者，以其牙舌脣之全清，爲終聲而促急也，其尤不可不用終聲也，明矣。本韻之作，併同析異，而入聲諸韻，牙舌脣終聲，皆別而不雜，今以ㄱㄷㅂ爲終聲。然直呼以ㄱㄷㅂ，則又似所謂南音，但微用而急終之，不至太白可也。且今俗音，雖不用終聲，而不至如平上去之緩弛，故俗音終聲，於諸韻用喉全清ㄱ，藥韻用脣輕全清ㅂ，以別之。

一. 입성인 모든 운의 중성이 지금 남방음에서는 너무 분명함이 흠이고 북방음은 완이(緩弛, 느리고 늘어짐)함에 흐르거니와 몽고운도 또한 북방음을 따른 까닭에 중성을 쓰지 않았으며, 황공소(黃公紹)의 《고금운회》에도 입성에서 ‘질(質)’운의 ‘울(颺)’, ‘졸(卒)’ 등의 글자를 ‘옥(屋)’운 ‘국(菊)’ 자모에 넣고 ‘합(合)’운의 ‘합(閣)’, ‘함(榼)’ 등의 글자를 ‘갈(葛)’운 자모에 넣어 아(-k), 설(-t), 순(-p)의 음(중성)을 혼동하여 구별치 아니하였으니 이 또한 중성을 쓰지 아니한 것이라. 평, 상, 거, 입의 사성이 비록 청, 탁, 완, 급의 차이는 있을망정 그 중성이 있을 때만 본시 일반일 뿐이 아니라 하물며 입성이 입성되는 바는 아, 설, 순음의 전청으로 중성을 삼아서 축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욱 중성을 쓰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본운을 지음에 있어 같은 운을 합하고 다른 운은 갈라서 입성 여러 운의

아, 설, 순 종성도 모두 구별하여 섞지 아니 하였으니 이제 ㄱ, ㄷ, ㅂ로 종성을 삼는다. 그러나 ㄱ, ㄷ, ㅂ를 곧게 발음하면 또 소위 남방음과 같아지니 다만 가볍게 써서 급히 마쳐 너무 분명하게는 발음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또 속음은 비록 종성을 쓰지는 않는다고 하지만은 평, 상, 거와 같이 완이(緩池)함에 이르지 않는 까닭에 속음 종성으로 여러 운에는 후음 전청의 ‘ㅇ’을 쓰고 ‘약(藥)운(종성에만)에는 순경 전청의 ‘ㅁ’을 써서 구별한다.²⁰

一. 凡字音必有終聲，如平聲支齊魚模皆灰等韻之字，當以喉音○爲終聲，以今不爾者，以其非如牙舌脣終之爲明白，且雖不以○補之，而自成音爾，上去諸韻同

一. 무릇 자음에는 반드시 종성이 있어야 하니 평성의 ‘지(支), 제(齊), 어(魚), 모(模), 개(皆), 회(灰)’ 등의 운자도 마땅히 후음 ‘ㅇ’으로 종성을 삼아야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아니하여도 아, 설, 순의 종성과 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요, 또 ‘ㅇ’으로 보충하지 아니 하더라도 제대로 음을 이루기 때문에 상, 거의 모든 운도 마찬가지다.

一. 凡字音四聲，以點別之，平聲則無點，上聲則二點，去聲則一點，入聲則亦一點。

一. 무릇 자음의 사성은 점으로써 구별하니 평성은 점이 없고, 상성은 두 점이요, 거성은 한 점이요, 입성도 또한 한 점이라.

20 최세진의 《번역노검대박통사》 범례에 의하면 몽고운에서 소(蕭), 효(爻), 무(尤) 등은 평, 상, 거 3성의 각운과 약(藥)운에는 ‘ㅁ’으로 종성을 삼았다. 소(蕭), 효(爻), 무(尤) 등의 운에 그대로 ‘ㅁ’의 종성을 쫓고 오직 약(藥)운에만 그 입성을 보이기 위하여 전청의 ‘ㅁ’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미주11] 《용재총화(慵齋叢話)》

용재 성현(成俔, 1439~1504)은 호가 용재(慵齋), 부휴자(浮休子), 허백당(虛白堂), 국오(菊塢)이며, 세종 21(1439~1504)년 사이의 조선 초기의 학자이다. 성현은 음률에 정통하여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를 겸하였으며 유자광(柳子光) 등과 당시의 음악을 집대성하여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한성부 판윤을 거쳐서 공조판서와 대제학을 겸임한 대학자이다. 1504년에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저술하였다. 죽은 뒤에 수 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서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했다. 그러나 그 뒤에 신원되었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그의 저서 《용재총화》 권2에 훈민정음과 관련된 중요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한글의 자형 기원에 대한 논의와 자모배열과 관계 있는 ‘초, 종성 여덟 글자’요, ‘초성이 여덟 글자’요, ‘중성이 11자’라는 기록은 최세진보다 더 앞선 기록이며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의 배열순서 또한 해례본과 차이를 보여주는 주요 기록이다. (《용재총화》, 경산대학교 개교20주년기념 한국학자료집성, 2000. 참조.)

성현의 팔종성설(八終聲說)

世宗設諺文廳, 命申高靈成三間等製諺文, 初終聲八字, 初聲八字, 中聲十一字. 其字體依梵字爲之, 本國及諸國語音文字所不能記者, 悉通無礙, 洪武正韻諸字, 亦皆以諺文書之, 遂分五音而別之曰, 牙舌唇齒喉, 唇音有輕重之殊, 舌音有正反之別, 字亦有全清次清全濁不清不濁之差. 雖無知婦人, 無不瞭然曉之, 聖人創物之智, 有非凡力之所及也. 《용재총화(慵齋叢話)》 권7.

세종께서 언문청을 설치하시고 신숙주, 성삼문 등으로 하여금 한글을 제작하게 하시니 초, 종성 여덟 글자요, 초성이 여덟 글자요, 중성이 11자이다. 그 글자의 모양은 범자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글자를 기록할 수 없는 것을 모두 막힘이 없이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홍무정음》에 실린 한자의 음을 모두 언문으로 표기하고 드디어 오음으로 나누어 이를 분류하니 아, 설, 순, 치, 후이며 순음은 순경음과 순중음의 구별이 있고 설음은 정과 반의 구별이 있으며

(설두음, 설상음) 자음에는 또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의 차이가 있으며,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부녀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니 성인(세종)께서 사물을 창조하시는 지혜가 비범한 힘으로 미쳤기 때문이다.

[미주12] 숙종 시대 이후의 성운학

1) 숙종 훈민정음 후서

숙종의 훈민정음 후서는 숙종 46(1729)년 세상을 떠난 해 실록 편찬과 함께 임금께서 남긴 시문을 모아 엮은 《열성어제》 41권 24장에 실린 것이다. 이 자료는 그 후 영조 52년에 편찬한 《열성어제》에도 실려 있는데 1924년 경성신문사에서 현토를 달아 활판본으로도 인간하였다. 그리고 《임하필기》 권18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에 ‘훈민정음’이라는 제하에 훈민정음 창제 경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숙종의 훈민정음 후서 전문이 실려 있다. 안병희(2007:107) 교수는 이 자료를 소개하면서 세종이 창제한 예의를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행할 때 정인지의 후서가 들어갔듯이 이를 참고하여 훈민정음 중간본의 후서를 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숙종 당시에 중간된 ‘훈민정음’이 무엇일까? 안병희 교수는 훈민정음 예의편의 이본인 박승빈 소장본 《훈민정음》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낙장 부분을 보사하는 데 참고한 것은 숙종 4(1678)년에 교서관에서 간행한 《배자예부운략》에 권두에 실린 훈민정음 예의의 후서이다. 《임하필기》 제18권 <문헌지장편>에도 ‘훈민정음’에 숙종의 <훈민정음 후서> 전문을 싣고 있다. 숙종 이후 《배자예부운략》은 널리 읽혀진 책으로 그 권두에 실린 훈민정음 예의편은 안병희 교수가 예상했듯이 개인문집 가운데 상당한 기록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마찬가지로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도설》이나 이형상의 《자학》과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반절과 변뉴에 대한 변증설>, 《임하필기》 제18권 <문헌지장편>에 실린 예의의 자료가 있다. 특히 《배자예부운략》에 “異乎中國”

의 ‘류’가 ‘異’자 아닌 점은 이규경의 자료나 앞에서 든 박승빈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배자예부운략》을 간행하면서 권두에 붙은 훈민정음 예의에 대한 중간 후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³

訓民正音 後序

恭惟我世宗大王, 聖資天縱, 高出唐虞, 禮樂文物燦然備具而猶慮夫東方語音之異乎中國, 愚民之不得伸請乃於聽政之暇, 新制二十八字, 昭示後人, 蓋欲其易學習而便於日用也.

象形而高低, 叶音字約而轉用廣大, 人無愚智, 事無巨細而不能形容於文字者, 皆得以正音解之, 極造化之妙, 通萬物之情, 是誠大聖人之所作爲, 自有不期然而合至理者, 於乎其美矣. 於乎其盛矣, 歲在重光協洽, 黃鍾念一序.

현토문

訓民正音後序

恭情惟我世宗大王이 聖資ㅣ 天縱호야 高出唐虞호시니 禮樂文物이 燦然備具而猶慮夫東方語音之異乎中國호야 愚民之不得伸請호사 乃語聽政之暇에 新制二十八字호야 昭示後人호시니 蓋欲其易學習而便於日用也라

象形而高低ㅣ 叶音호고 字約而轉用이 廣大호야 人無愚智호고 事無巨細而不能形容於文字者를 皆得以正音으로 解之호야 極造化之妙호고 通萬物之情호니 是誠大聖人之所作爲ㅣ 自有不期然而合至理者니 於乎其美矣며 於乎其盛矣 ㄱ더 歲在重光協洽¹²⁴ 黃鍾念一¹³⁵에 序호노라

11 윤정하(1938), <훈민정음후서>, 《정음》 22호, 1938.1.

12 중광협흥(重光協洽)은 고갑자로 신미(辛未)년 곧 숙종 17(1691)년을 말한다.

13 황중(黃鍾)은 11월이다. 《요의(要義)》에 말하기를 “두가 세워지는 곳은 땅 위에서 진방(辰方)이 되니 진방이 천상에서 모이는 곳의 순서로는 두가 진방과 더불어 부합된다”고 하였고 포운용은 말하기를

훈민정음 후서¹⁴⁶

삼가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타고난 성스러운 자질이 요순보다도 높아 예약과 문물이 찬란히 구비되었는데도 우리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함을 우려하셨다. 그리하여 정사를 돌보시는 여가에 새로 28자를 만들어 밝게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으니, 대개 쉽게 배워 날로 쓰는 데 편리하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다.

형상을 본떠 만들었는데도 고저가 음에 맞으며, 글자가 간략한데도 이리저리 쓸 수 있는 범위가 광대하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 할 것 없이 큰일이나 작은 일 할 것 없이 문자로 형용할 수 없었던 것이 모두 이를 통하여 바른 소리로 풀리게 되었다. 조화(造化)의 묘리를 극진히 하고 만물(萬物)의 정을 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대성인이 하시는 바는 그렇게 만들려고 기필하지 않아도 지극한 도리에 합치되는 것이다. 아, 아름답도다. 아, 훌륭하시도다 라고 하였다.

“두병이 세워지는 것은 12진으로 일체를 원편으로 돌며(左璇) 12월은 달과 더불어 수(宿)에 합하여 오른편으로 돈다. 다만 두가 세워진 곳이 땅 위 12진에 있기 때문에 자축(子丑)이 같고 진방이란 것은 일월의 모이는 곳(會)인데 회는 하늘 위 12차이기 때문에 추자와 강루(降婁)가 같다. 12월 때문에 후기(候氣)와 관성(管聲)에서 음양이 각기 합치됨이 있게 되니 황중(黃鍾)은 11월이 자(子)에서 세워짐과 같은 것 따위가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황중 염일은 11월 21일을 말한다.

- 14 후서(後序)는 세종이 《배자예부운략》을 간행하면서 그 권두에 실린 중간 훈민정음 예의편에 대한 후서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序’는 책머리에 붙여 그 책이 이루어진 내력을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서는 책 뒤에 붙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시간적으로 뒤에 중간을 할 경우에 붙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숙종이 이 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안병희(2007:111) 교수는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도설》을 들어서 최석정의 영향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당시 매우 중요한 운서 가운데 하나인 《배자예부운략》간행이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다. 물론 이 《배자예부운략》에 실린 훈민정음 예의편이 그대로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도설》에도 실린 것으로 보아 이러한 3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승빈본 역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로는 ‘昇平中國’에서 실록본 예의편의 ‘異’ 자를 ‘昇’로 표기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예의편 훈민정음 이본 가운데 이 《배자예부운략》의 간행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 예의편의 간본이나 필사본이 개인 문집에도 나타난다.

2) 명국 최석정의 《경세정운서설(經世正韻序說)》

명국 최석정이 숙종 4(1678)년에 쓴 《경세정운(經世正韻)》은 《훈민정음도설》, 《경세훈민정음도설》이라고도 하며 2권 필사본으로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표지에는 《경세훈민정음도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속표지에는 《경세정운서설》이라고 되어 있다. 일본의 경도대학(京都大學)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1960년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국내학자들이 발견, 연세대학교에서 영인, 간행한 바 있다.

〈경세정운서설(經世正韻序說)〉, 〈경세정운서설〉, 〈운섭도(韻攝圖)〉, 〈경세정운오찬(經世正韻五贊)〉, 〈성음편〉, 〈군서절충(群書折衷)〉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둘째 장의 운섭도이다. 운섭도는 가로로는 24자모를 배열하고 세로로는 등운(等韻)과 사성을 구별하고 있는데, 도식의 구조는 《절운지남(切韻指南)》과 같다. 각 도를 외전(外轉)과 내전(內轉)으로 구별하였는데, 외전은 저모음계열, 내전은 고모음계열로 되어 있다. 섭(攝)은 운미(韻尾)의 유형과 모음의 자질에 따라 구별되는데, 외전, 내전이 각 8섭으로 도합 16섭으로 되어 있다. 개모(介母)는 [-w]의 개재여부에 따라 벽합(闕翕)으로 구별하는데, 벽은 개구음(開口音), 합은 합구음(合口音)을 뜻한다. 한 섭은 벽이 1도, 합이 1도, 각각 2도로 이루어져 있다.

최석정은 훈민정음의 기원을 열수상형(列宿象形)에 있다 하고, 초성의 17자는 오행의 차례(次例)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중성의 11자는 태극, 음양, 팔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최석정의 운섭도는 이러한 상관체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강절(邵康節)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皇極經世聲音唱和圖)》에 따른 것이다.¹⁵⁷

《경세정운서설(經世正韻序說)》

訓民正音

世宗 長憲大王 御製

15 김지용(1968),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 《연세대학교인문과학》 19.

ㄱ 牙音如君字初發聲 並書如蚪字初發聲

ㄱ은 아음이나 君자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蚪자 첫소리와 같다

ㅋ 牙音如快字初發聲

ㅋ은 아음이니 快자 첫소리와 같다

ㆁ 牙音如業字初發聲

ㆁ은 아음이니 業자 첫소리와 같다.

ㄷ 舌音如鬥字初發聲並書如覃字初發聲

ㄷ은 설음이니 斗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覃자 첫소리와 같다

ㅌ 舌音如吞字初發聲

ㅌ은 설음이니 吞 첫소리와 같다

ㄴ 舌音如那字初發聲

ㄴ은 설음이니 那 첫소리와 같다

ㅅ 唇音如擎字初發聲並書如步字初發聲

ㅅ은 순음이니 擎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步자 첫소리와 같다

ㅆ 唇音如漂字初發聲

ㅆ은 순음이니 漂 첫소리와 같다

ㅁ 唇音如彌字初發聲

ㅁ은 순음이니 彌 첫소리와 같다

ㄷ 齒音如卽字初發聲 並書如慈字初發聲

ㄷ은 치음이니 卽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慈자 첫소리와 같다

ㅈ 齒音如侵字初發聲

ㅈ은 치음이니 侵 첫소리와 같다

ㅊ 齒音如戌字初發聲 並書如邪字初發聲

ㅊ은 치음이니 戌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邪자 첫소리와 같다

ㅎ 喉音如挹字初發聲

ㅎ은 후음이니 挹 첫소리와 같다

ㅍ 喉音如虛字初發聲 並書如洪字初發聲

ㅎ은 후음이니 虛 첫소리와 같으며 나란히 쓰면 洪자 첫소리와 같다

ㅇ 喉音如欲字初發聲

ㅇ은 후음이니 欲 첫소리와 같다

ㄹ 半舌音如間字初發聲

ㄹ은 반설음이니 間 첫소리와 같다

△ 半齒音如穰字初發聲

△은 반치음이니 穰 첫소리와 같다

· 如吞字中聲

· 는呑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如卽字中聲

ㄴ 는 卽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如侵字中聲

ㄴ 는 侵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如洪字中聲

ㄴ 는 洪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如覃字中聲

ㄴ 는 覃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如君字中聲

ㄴ 는 君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如業字中聲

ㄴ 는 業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如欲字中聲

ㄴ 는 欲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如穰字中聲

ㄴ 는 穰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ㄴ 如戌字中聲

ㄸ 는 戌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ㄸ 如 驚字中聲

ㄸ 는 驚자 가운데소리와 같다

終聲復用初聲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 連書 唇音之下則爲脣輕音

○ 을 순음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初聲合用則並書 終聲同

초성을 함께 쓸 때에는 나란히 쓴다. 종성도 같다

· ㄴ ㄷ ㄹ ㄺ ㄻ 附書初聲之下

· ㄴ ㄷ ㄹ ㄺ ㄻ 는 초성 아래에 붙여 쓰고

ㅣ ㅏ ㅑ ㅓ ㅕ ㅗ ㅛ 附書於右

ㅣ ㅏ ㅑ ㅓ ㅕ ㅗ ㅛ 는 초성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쳐야 소리를 이룬다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 두 점을 더하면 상성, 점이 없으면 평성이며
입성은 점 더하기는 같으나 촉급하다

御製曰 國之語音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어제 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날로 씬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正統十一年 柔兆攝提格 九月 日

정통 11(1678)년 유조 섭제조격 9월 일

臣錫鼎謹按. 御製諺文二十八字, 卽列宿之象也. 初聲十七字, 牙音角屬東方木象物之始生, 故爲首舌音, 齒屬火唇音宮屬土, 齒音商金喉音羽屬水以五行, 相生之序. 爲次中聲十一字. 太極兩儀, 乾卦之象也.

신 석정 삼가 올립니다. 어제 언문 28자는 곧 별자리를 벌여놓은 것을 형상하여 초성 17자는 아음과 각음은 동방의 나무를 형상 만물이 생성되는 까닭에 설음의 머리자리에 놓고 치음은 화에 속하고 순음은 궁으로 토에 속하며, 치음은 상으로 금에 후음은 우로 수에 속하며 오행을 이루니 상생의 차례이다. 다음 중성 11자는 태극의 양의의 건곤의 형상이다.(김석득(2009), 《우리말 연구사》, 태학사. 참조.)

3) 병와 이형상의 《자학제강》

(1) 《자학제강》 해제

《자학(字學)》은 숙종 42(1716)년에 병와(瓶窩) 이형상(1653~1733)이 저술한 한자의 자형과 성음에 대한 연구서이다. 《자학》의 내제는 ‘자학제강(字學提綱)’으로 숙종 42(1716)년에 쓴 필사본으로 《갱영록(更永錄)》 9권 가운데 권2에 해당한다. 이 형상은 저술 동기를 “육서의 뜻은 각각 취한 바가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면서 와전되어 대부분 그 참된 뜻을 잃어버렸다. 혹은 마음대로 글자체를 변화시킨 것도 있고 혹은 알지 못하여 획을 잘못 쓴 것도 있으며 또한 고금에 통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서문에서 밝혔다. 이는 육서의 체계가 혼란되고 글자체의 변종과 그 음운

의 착란을 바로 잡기 위해 자학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자학》은 한자의 자형과 성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 시대와 지리적 변화에 따라 한자의 자형이 서로 달라지고 성과 운이 달라진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글자 자형을 상사, 상합으로 구분하여 구속의 차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며 성운의 차이, 첩운의 상이를 구속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서에 나타나는 자형의 구속의 차이와 금석문 변체자에 대한 개설적인 소개와 더불어 각종 어록해를 한글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자학》의 ‘천축문자설’에서는 천축문자의 성모도와 ‘외이문자설’에서는 구국소서팔자를 아홉 나라의 문자로 기술하면서 훈민정음의 문자 기원을 범자로 잡고 있어서 지봉 이수광과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김언중(2008), 《자학역주》, 푸른역사. 참조.)

(2) 《자학제강》의 〈추록언문반절설(追錄諺文半切說)〉

余於頃年纂《樂學便考》四卷，又於前夏下爲儕友所囑，作此《字學》於一句之內，疏略爲可恨，獨於諺文無所記，正所爲當詳者略也，今又書其假令于下。我東一從華書，書之同文者此也，而邦音之不諧於中華，抑其理勢然也。嗟夫！東音既偏於齒，自古無樂府者，固無足怪，而平調羽調界面調，亦適於鄉樂。學詩者，依倣喝唱，則亦不害爲本國之風。余所繚繚於《便考》者，亦或少罪矣。況此諺文，亦仍其呼吸而刼，深加究覈亦足音響，覽者怒之。

내가 근년에 《악학편고》 4권을 편찬하였고 또 작년 여름에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 10일 만에 《자학》을 지었는데 소략한 점이 있어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언문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어서 이른바 마땅히 상세해야 할 것이 소략하게 되었으니 지금 또 아래의 대략을 쓴다.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중화의 글자를 따랐으니, ‘서동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음이 중국과 어울리지 않은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아, 우리나라 음이 이미 처음에 편중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악부가 없었던 것은 본래 이상할 것이 없지만 다만 평조, 우조, 계면조는 또한 악부에 적합하고, 시를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모방해서 노래하니 또한 조선의 한 국풍이 되기에 손색이 없

다. 내가 《악학편고》에서 간절히 논했던 것은 또한 과실이 적은 편이나 하물며 이 언문은 또한 그 호흡하는 그대로 만든 것으로 깊이 더 분석해 보면 음향이 되기에 적합한 것이다. 독자들은 삼가 이해해 주기 바란다.

初聲終聲通用凡八字, ㄱ其役, ㄴ尼隱, ㄷ池末, ㄹ梨乙, ㅁ眉音, ㅂ非邑, ㅅ時衣, ㅇ異凝, 此末衣二字, 只取本字之釋, 俚語爲聲也. 其尼池梨眉非時異八音, 用於初聲, 役隱末乙音邑衣凝八音, 用於終聲.

초성과 종성에 통용되는 여덟자는 ㄱ其役(기+역), ㄴ尼隱(니+은), ㄷ池末(디+근), ㄹ梨乙(리+을), ㅁ眉音(미+음), ㅂ非邑(비+읍), ㅅ時衣(시+옷), ㅇ異凝(이+응)이며 여기서 말(末)과 의(衣) 두 자는 단지 이 글자의 훈(訓)을 취한 것으로 이어에서는 소리가 된다. ‘其(기), 泥(니), 池(디), 梨(리), 眉(미), 非(비), 時(시), 異(이)’ 8자의 음은 초성에 쓰이며, ‘役(역), 隱(은), 末(근), 乙(을), 音(음), 邑(읍), 衣(옷), 凝(응)’ 8자의 음은 종성에 쓰인다.

蓋初終獨用八字, ㅋ箕, ㅌ治, ㅍ皮, ㅈ之, ㅊ齒, ㅌ而, ㅇ伊, ㅎ屎, 箕字初取本字之釋, 俚語爲聲也.

초성에만 쓰이는 여덟자 ‘ㅋ箕(키), ㅌ治(티), ㅍ皮(피), ㅈ之(지), ㅊ齒(치), ㅌ而(이), ㅇ伊(이), ㅎ屎(히),

箕(키) 자 또한 이 글자의 훈(訓)을 취한 것으로 이어에서는 소리가 된다.

中聲獨用十一字 ㅏ阿, ㅑ也, ㅓ於, ㅕ余, ㅗ吾, ㅛ要, ㅜ牛, ㅠ由, ㅡ應(不用終聲), ㅣ伊(只用中聲) ㅍ思(不用初聲), 初中聲合用作字, 가, ㄱ, 거, ㄴ, 고, ㄷ, 구, ㄹ, 그, 기, ㅁ, ㅂ, 以 ㄱ其爲初聲, 以 ㅏ阿爲中聲, 合 ㅏㅏ爲字則가, 此家字音也. 又以 ㅓ役爲終聲, 合가ㅓ爲字則각, 此各字音也, 餘倣此.

중성으로만 쓰이는 열 한자 ‘ㅏ阿(아), ㅑ也(야), ㅓ於(어), ㅕ余(여), ㅗ吾(오), ㅛ要(요), ㅜ牛(우), ㅠ由(유), ㅡ應(응)(중성으로는 쓰지 않음), ㅣ伊(이)(단지 중성으로만 씀), ㅍ思(은)(초성으로 쓰이지 않음)’ 초성과 중성이 합쳐서 글자를 만든

다.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마’

‘ㄱ(其)’를 초성으로 하고 ‘ㅏ(阿)’를 중성으로 하여 ‘ㄱ’과 ‘ㅏ’를 합한 글자가 ‘가’가 되며, 이것은 ‘家’자의 음이다. 또한 ‘ㄱ(其)’을 종성으로 하여, ‘가’와 ‘ㄱ’을 합한 글자가 ‘각’이 되며 이것은 ‘各’자의 음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初中終三聲合用作字, 간肝, 간筵, 갈刀, 감柿, 갑甲, 갓皮, 강江, ㄱ下各音爲初聲, ㅏ下各音爲中聲, 作字如가가例, 作一百七十六字, 以ㄴ下七音爲終聲, 作字如肝至江七字, 唯ㅇ之初聲, 與ㅇ字音俗呼相同, 故俗用初, 初聲則皆用ㅇ音, 若上字有ㅇ音終聲, 則下字必用ㅇ音爲初聲也. ㅇ字之音, 動鼻作聲, ㅇ字之音, 發爲喉中, 輕虛之聲而已, 故初雖稍異, 而大體相似也. 漢音ㅇ音, 初聲或歸於尼音, 或ㅇ混無別, 此則四聲通解可者也.

초성, 중성, 종성 3성을 합하여 글자를 만드는데 ‘간(肝), 간(筵), 갈(刀), 감(柿), 갑(甲), 갓(皮), 강(江)’은 ‘ㄱ’과 ‘ㅏ’ 이하의 각 음은 초성이 되고 ‘ㅏ’ 이하의 각 음은 중성이 되는데 이렇게 글자를 만든 것으로 ‘기’와 ‘갸’와 같은 예가 있으며, 176자를 만들 수 있다. ‘ㄴ’ 이하 7음은 종성이 되는데 이렇게 글자를 만든 것으로 ‘간(肝)’에서 ‘강(江)’의 ‘ㅇ’이 초성에서는 ‘ㅇ’자의 음과 속음에서 서로 같기 때문에 속음에서는 초성으로 쓰인다. 초성은 모두 ‘ㅇ’의 음을 사용하는데, 만약 앞 글자에 ‘ㅇ’이 종성으로 쓰이면 아래 글자는 ‘ㅇ’의 음을 사용하여 초성으로 한다. ‘ㅇ’字的 音은 코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것이며, ‘ㅇ’자의 음은 목구멍에서 나온 것으로 가볍고 빈 소리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비록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서로 비슷하다. 중국어에서 ‘ㅇ’의 음은 초성에서 혹은 니음(尼音)에 귀결되거나 혹은 ‘ㅇ’과 ‘ㅇ’이 혼재되어 구별이 없다. 이것은 《사성통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清而遠, 入聲直而促, 諺文亦然. 舌縮却爲角, 舌拄齒爲徵, 口開張爲商, 撮口聚爲羽, 舌居中爲宮, 此皆便考中所已錄者.

평성은 애절하고도 편안하고, 상성은 사납고 들려지며, 거성은 맑고 멀고, 입성은 곧고 축급한 것으로 언문도 또한 그러하다. 혀를 움츠리면 각음이 되고, 혀가 치아

에 대면 치음이 되고, 입을 넓게 벌리면 상음이 되고, 입을 오르려 모으면 우음이 되며, 혀가 가운데에 있으면 궁음이 되니, 이것은 모두 《악학편고》 중에 기록한 것이다.

昔我世宗大王設諺文廳，命鄭麟趾申叔舟成三問等，倣篆籀二十八字母，演爲諸字，或諧聲或會意而爲之，其字依梵字造作，本國及諸國語音中，文字所不記者，悉通無訛，洪武正韻亦以此書之，故樂府歌詞之連音累字，皆賴而成調，遂分五音而別之曰，牙舌唇齒喉，而牙音有輕重之殊，舌音有正反之別，亦有全清次清全濁不清不濁之差，時大明學士黃鑣謫遼東，命三問等，連續質問，往返凡十三度，本自反切而創，故名曰反切，然今之字音中，或有不協者，蓋緣方音不同而然，此法所記之冊，方在太學云，恨未能考閱而證訛也，後一年丙申七月，更書以遺兒輩，其後又見佛書有曰，平上去入，如入，自平地升上行去還入之意，又解曰，平上去入四字는 사르미平地로 브터 올라든 여가 도로 도라옴과 ㄱ탄 브디라云云，平上去入，本自梵音而出，三韻通考亦番僧所纂，則彼之稍慧者，能通音律，故並書之，其毋以外道而忽之。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언문청을 설치하시고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명하시어 전서(篆書)와 주문(籀文)을 모방해 28자모를 만들어서 여러 글자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혹은 소리에 어울리게 하거나 뜻을 합하여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글자는 범자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및 여러 나라의 어음 중에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통하고 오류가 없게 되었다.

《홍무정운》도 또한 이것으로 쓰여진 까닭에 악부에 가사의 연음과 누자(累字, 탈락된 글자)는 모두 그것에 의지하여 성조를 이룰 수 있었다. 마침내 오음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牙, 舌, 唇, 齒, 喉’라고 하였다. 아음은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있고, 설음은 정과 반의 구별이 있으며, 또한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의 차이가 있다. 이때에 명나라 학사인 황찬이 요동에 귀양 와 있었는데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여러 차례 질문하게 하여 오고 간 것이 13회 정도가 되었다. 본래 반절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자음중에 더러 발음이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규칙이 기록

된 책이 지금 성균관에 있다고 하는데, 살펴보고 틀린 것을 증명할 수 없음이 한스럽다. 일년 뒤 병신년 7월에 다시 써서 자식들에게 주었다. 그 뒤에 또 불경서(佛書)에는 “平上去入, 如入自平地升上行去還入之意”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문으로 풀이하면, “平上去入 4자는 사람이 평지로부터 위로 올라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평, 상, 거, 입은 본래 범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삼운통고》 또한 서역에서 온 중이 편찬한 것이니, 저들 중에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는 능히 음률에 통할 수 있으므로 아울러 기록한다. 외도(불교)의 것이라고 하여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란다.

(3) 《자학제강》의 〈성운학의 역사(韻學始終)〉

韻書昉於梁沈約以四聲爲譜。至唐，以聲律取士，有《禮部韻》。宋景祐中，學士丁度剽取詩賦所常用爲《韻略》。元時，韓孝彥字允中 道昭字伯暉父子並昌黎人，作《五音篇韻》。先是王與祕復陽人也，廣《玉篇》而爲《篇海》，荊璞字彥寶，涪川人也，亦金人，辨五音而編《集韻》。韓氏專門字書，實有天縱之識，而濟以家傳之妙，遂取二書，究觀要指，惜其各自爲書而不相統，且其中多疏謬處，於是，刪煩補略，併同析異，合爲一書。俾後之得其字而失其音者，先數字劃，求之於篇，識其音切，然後就《集韻》，求其韻母，而辨其訓義，體用相涵，內外共貫，其於小學，可謂該矣。是書行於成化，而剗厥時，山人戒璇，實相其役，考證潤色，悉遵洪武韻例。弘治間，有真空者，重加讐校，既作爲歌訣，名曰《貫珠集》。又取劉鑑(字士明，關中人，亦云儒也。)所著《切韻指南》併附焉。《篇韻》纂修，始於洪武之前，刊行於憲孝之際，昔洛僧鑑聿爲韻總，歐陽子弼之曰，儒學用功多，故有所不暇，比待用心之專者爲之。我朝世宗大王御製訓民正音，即所謂諺文也。邵氏《經世聲音》，亦與《訓民》相表裡，《切韻》之學，斯爲原本，不可不闡而明之，實與卦劃書契同其功用。

운서는 양나라 심약(沈約)이 지은 《사성보(四聲譜)》에서 시작되었다. 당나라에서는 시부(詩賦)로 관리를 뽑았는데 이때에 예부에서 편찬한 《당운》이 쓰였다. 송나라 경유(景祐) 연간에 학사 정도(丁度)는 시부에서 자주 쓰이는 것을 수합하여 《운약》을 지었다. 원나라 때에는 창려인(昌黎人)인 한효연(韓孝彦, 자允中)과 한도소

(韓道昭, 자 伯暉) 부자가 《오음편운(五音篇韻)》을 지었다. 이에 앞서 부양인인 왕 여필(王與祕)이 《옥편》을 확장하여 《옥해》를 지었고, 금나라 사람으로 효천인인 형박(荆璞, 자 彦寶)이 오음을 분별하여 《집운(集韻)》(《오음집운》)을 편찬하였다. 한씨 부자는 자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실로 하늘이 부여한 지식이 있었으며 전가의 묘결로 드디어 두 책을 휘하여 그 요지를 궁극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것이 각각 책이 되면서도 서로 통일 되지 않고 또한 그 가운데에 소략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았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이에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소략한 부분을 보충하고, 같은 것은 아우르고 다른 것은 나누어서 합하여 한 책으로 만들었다. 뒤에 글자는 있는데 그 음을 잃은 것은 먼저 자획을 헤아려 이 책에서 그것을 찾아 그 음절을 알고, 그 다음에 《집운》을 가지고 그 운모를 찾아 그 혼의를 변별하면 체용을 다 알 수 있고 내외가 서로 통하게 되니, 이 책(《오음편운》)이 소학에 있어서 다 갖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성화(成化) 연간에 승려 진공(真空)이 거듭 교정하여 가결(歌訣)을 짓고는 《관주집(貫珠集)》이라고 이름 붙였다. 또한 유감(劉鑑, 역시 원나라 유학자)이 지은 《절운지남(切韻指南)》을 아울러 부록으로 실었다. 《편운(篇韻)》이 편찬된 것은 홍무 연간 이전이었고 현종과 효종 연간에 간행되었다. 예전에 낙양의 승려 감율(鑑聿)이 《운총》을 지었는데, 구양수(歐陽修)가 서문을 써서 말하기를 “유자의 학문은 힘쓸 곳이 많아 (운학 방면에는) 힘쓸 겨를이 없으니, 반드시 전문가에 힘입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지으신 《훈민정음》은 바로 언문을 말한다. 소옹(邵雍)의 《경세성음》 또한 《훈민정음》과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다. 《절운》의 학문은 바로 이것이 원본이 되니 천명하여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실로 문자학(卦劃과 書契)와 함께 그 공용을 같이 하는 것이다.

4) 병와 이형상의 《삼운통고후(三韻通考後)》

上古, 有音無字, 中古, 有書無韻, 韻學, 非古也. 槩想虞夏之際, 從母辨音, 因數析類, 爲千秋叶音之祖. 呂政變隸, 形聲自差, 江左 後梁 沈約, 始創紐字圖, 平上去入,

實自梵伽 梵天伽盧 而襲焉, 等切, 今之反切 亦神珙 竺僧 所遺. 然吳楚傷於輕清, 燕趙滯於重濁, 秦隴之去聲爲入, 梁益之平聲似去, 所以來後世之譏議也. 至唐專於科制而聲律爲益嚴, 以此推之, 倉頡象物爲文, 故是理愈暫梵字, 演音生韻, 故其學最精 今之三韻通考, 亦番僧所纂而傳自日本者也. 雖其脫漏居多, 用意則勤矣. 世之讀欽乃者, 因山谷而誤焉, 讀虹霓音逆, 沈約曰, 恐作平聲用者, 不知類譜本音, 間或謂違韻而圈之, 固皆有本調而莫之解也. 噫, 匿空爲上聲, 屢空爲去聲, 此類甚多, 而一字音奇則平也, 十字音謚則非仄. 奉朝請之請, 唐何以作平, 司馬之司, 相離之相, 又何以爲厮音乎. 且如中興之中, 錦帆之帆, 反作去聲, 皆不可知也. 又安知煙籠之平, 藥籠之上, 而且識商商 商音翔, 平聲, 商音的, 入聲, 母母女內一畫, 爲禁止之母, 故畫正, 女中兩畫, 象其乳則爲父母之母, 故畫斜, 之本, 不爲一字乎. 況我東方音, 已偏於齒, 反切紐弄, 太半不適, 極欲等切於諺文而未果也, 此又初學所當先知, 適仍韻書改枉, 書以爲識, 《병와집(瓶窩集)》 권13, 〈잡저〉.

《삼운통고(三韻通考)》의 뒤를 쓰다

상고에는 음(音)만 있고 글자는 없었고 중고에는 서(書)만 있고 운(韻)은 없었으니 운학(韻學)은 옛것이 아니다. 대개 우하(虞夏, 요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모(母)를 따라 음(音)을 가렸고 수(數)로 인해 유(類)를 분석해 천추협음(千秋叶音)의 출발이 되었다.

여정(呂政)이 예(隸)를 고치니 형(形)과 성(聲)이 절로 차이가 생겼고 강좌(후 양(後梁))의 심약(沈約)이라는 사람이 비로소紐字圖를 창시하였고 평, 상, 거, 입은 실로 범자(梵天의 가로(伽盧)에서부터 이어받았으며, 반절(反切)도 신공(神珙, 인도의 승)이 남긴 것이다. 그러나 오나라와 초나라는 경청(輕淸)한 데에 흠이 있고 연(燕)나라 조(趙)나라에서는 중탁(重濁)에 집착하였다. 진릉(秦隴)의 거성은 입성이 되고 양익(梁益)의 평성은 거성과 비슷해서 후세의 비난이 있게 된 이유이다. 당나라에 이르러 과제(科制)에 전념하여 성률(聲律)이 더욱 엄격하였다.

이에 미루어보아 창힐(倉頡)은 물(物)을 본떠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치가 더욱 밝고 범자는 음을 연역하여 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학(學)이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다. 오늘의 《삼운통고(三韻通考)》도 변승(番僧, 외국 스님)이 지어 일본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비록 누락된 것이 많으나 용의(用意)에는 노력을 했다. 세상에서 애내(欸乃)는 읽는 것이 산곡(山谷)으로 인해 잘못되었고 홍예(虹霓 무지개)를 읽는 것이 유보(類譜)의 본음을 몰라서 간혹 운을 어겨 전한 것이라 여겨진다. 본래 본조(本調)가 있었으나 이해하지 못한다. 아! 익공(匿空)이라 할 때는 상성이 되고 누공(婁空)이라 할 때는 거성이 된다. 이러한 종류는 매우 많아서 한 글자의 음이 기수(寄數)를 나타낼 때는 평성이 되고 십(十)자의 음이 심(諶)일 때는 측성이 아니다. 봉초청(奉朝請)의 청(請)을 당나라에서 왜 평성으로 하였으며 사마(司馬)의 사(司)와 상리(相離)의 상(相)은 또 왜 시음(廝音)으로 여겼는가? 또 중흥(中興)의 중(中)과 금범(錦帆)의 범(帆) 같은 것은 도리어 거성으로 하였으니 모두 알 수 없다. 또 어찌해서 연룽(煙籠)은 평성인데 약룽(藥籠)은 상성임을 알 것이며 상(商, 평성)과 적(商, 입성), 무(母)와 모(母)가 본래 한 글자가 아님을 어찌 알 수 있을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음이 이미 잇소리에 치우쳐 반절, 뉴농(紐弄)의 태반이 부적합하며 언문의 등절(等節)을 하고자 적극 힘을 썼으나 이루지 못했을까? 이 또한 초학이 먼저 알아야 할 바이기에 마치 운서를 개장(改粧)으로 인해 기록해 둔다. 《병와집》 권13, <잡저>.

5)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서(華東正音通釋韻考序)》의 서와 범례

영조 23(1747)년에 박성원(朴性源)이 저술한 우리나라 운서로 2권 1책이며 표지에 쓰인 대로 《화동정음》이라 약칭하여 정조 11(1787)년에 정조의 <어제정음통석서>를 권두에 얹어 비각(秘閣)에서 간행한 바 있어 <정음통석>이라고도 불린다. 이 두 책은 서로 순서가 약간 다르다. 1747년 본은 책의 첫머리에 ‘세 정묘 남지후 칠일 밀양 박성원 서(歲丁卯南至後七日密陽朴性源序)’라고 마지막에 <화동정음통석운고서(華東正音通釋韻考序)>가 있고, 이어서 12조에 달하는 범례가 실린 다음, 본문 내용에 이어 끝에는 <언문초중종삼성변(諺文初中終三聲辨)>이 수록되어 있다. 권두의 서에서 박성원은 우리나라 한자음이 혼란되어 있음을 부끄러이 여기고 이

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언용(李彦容)과 더불어 《삼운통고》를 택하여 최세진의 《사성통해》의 음에 의거, 글자 밑에 중국음을 달고 또 널리 자서를 수집하여 중국음에 따라 우리나라 한자음의 오음청탁을 바로 잡았으므로 책명을 《화동정음통석운고》라 한다고 하였다.

심음(審音)과 작문(作文)을 위하여 중국음과 한국음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도록 일원화한 특이한 운서이며, 이러한 유의 운서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체재와 표음 방식은 각 한자를 운에 따라 평성, 상성, 거성의 순서로 3단에 안배하고 입성은 권말에 1단으로 모아놓았는데 이것은 《삼운통고》의 배열방식과 같다. 각 한자 밑에 좌우로 우리나라 음과 중국음을 한글로 표음하였는데 이는 《사성통해》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강신항(2000), 《한국의 운서》, 태학사. 참조.)

(1) 《화음정음통석고》 서

凡字者，明事物之名，言一聲音之異同。此周官外史，所以掌達書，名於西方，而漢唐以來字書之所以作也。

무릇 글자는 사물의 이름을 밝히고 한 소리와 같고 다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나라 때 와서 외사(지방지를 쓰던 관리)가 기록을 맡아서 사방의 이름을 지은 까닭이며, 한, 당 시대 이래로 자서가 만들어진 까닭이다.

世或稱，蒙元亂華之後，正音訛舛，而考諸字書，則其所訛舛者，或有中聲之少變，而猶不失正音所屬之宮也。至於我東，則初不明其牙舌齒唇喉闔闢出聲之妙，故五音相混，宮或爲羽，商或爲徵，尙無一定之音韻，此實我東言文爲二，務於義而忽於音之致也。

세상에서 혹 말하기를 몽고 원나라가 중국과의 전쟁 이후 정음이 와전되었다고 하나, 여러 자서를 보면 그 와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혹시 중성이 약간 변한 것이 있고 오히려 정음은 소속지궁(곧 오음계의 배치)이 바뀐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처음부터 아, 설, 순, 치, 후 등 성모의 음계와 합벽 등의 운모의 발음의 묘리에 밝지 못해서 오음의 음계가 뒤섞였다. 그래서 궁음이 혹 우음이 되고 상음이

혹 치음이 되어 아직도 일정한 음운이 없으니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에서 언문이
둘로 갈라지고(일치하지 않음) 또 뜻에만 중점을 두고 음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噫, 有音而後有字焉, 則字者不過載聲之器也. 欲識其器而不辨其聲, 可乎. 若此不已
則言其志, 永其言而聲律, 不叶言其事, 名其物而語音不同, 乃扞然不相通, 出於音,
害於事者, 其孰甚焉.

아, 음이 있는 다음에 이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는 것이니 글자는 다만 소리를 싣
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그릇인 글자를 알고자 하면서 그 소리를 분별하
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만일 소리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말하고 그 말을 길
이 남기려 해도 성음이 맞지 않고, 어떤 사물을 말하고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지으려
해도 말과 음이 같지 않으면 곧 막혀서 서로 통하지 않을 것이니 (잘못된) 음에서
일이 생겨나 사물에 해롭게 하는 일이 매우 심하다고 하겠도다.

昔我世宗大王, 作爲諺書, 以叶音律, 解中華反切之義, 若其中聲之異, 固因方言之
不同, 而初終之聲, 華與我同, 故以反以切無不脗合. 世遠教衰, 不復知初終聲之義,
亦不究字母七音之法, 而各以己見, 反切於字書, 不合於時俗, 從傍之讀, 則乃反諉
之於方言之不同.

옛날 우리 세종대왕이 언서(언문, 곧 한글)를 만드시니 음률과 맞고 중국 반절의
뜻을 알게 되었다. 만일 중성의 차이가 있다면 실로 방언이 같지 않은 까닭이며 초
성과 중성은 한음과 우리 음이 같아서 반절 상자로 표시되는 초성이나 반절 하자
로 표시되는 운(중중성)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없다. 세월이 흘러 운학이 쇠퇴하여
다시 초성과 중성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자모칠음법을 밝히지 못해서 각각 자
기 견해대로 자서에 (언자로) 반절로 표시하니 현실음에 부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읽으면 도리어 같지 않은 방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或曰, 聲音清濁, 只是樂律中事耳, 何必求之於字韻乎. 僞而承僞, 因仍苟且, 顧以素
稱文明之邦, 昧昧乎天地自然之音, 豈非可羞者乎.

혹자가 말하기를 발음의 청탁은 다만 악을 내의 문제일 뿐인데 무엇 때문에 반드시 자운에서 구해야 하느냐고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잘못된 대로 이어지면 이로 인하여 소홀하게 되니 생각하건대 평소에 문명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로서 천지 자연의 소리에 어둡다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余嘗慨然於斯，與舌士李君彥容，取三韻通考，懸華音於字下，一依本國崔世珍所撰四聲通解之音，而廣集字書，以訂參考，依華音初聲，以定我音，我音之五音清濁，庶有歸正，因命名華東正音通釋韻考，以付剗劂，而至若四聲七音分配經緯之次，雖欲依古韻以定，此書之行于東方，已是三百年數則，以余管見，難以遽改，因舊刊出，以俟後之解音君子云爾。

내 일찍 개탄하여 역관인 이언용과 함께 《삼운통고》를 가지고 글자 아래에 화음을 달되 오로지 우리나라 최세진이 편찬한 《사성통해》의 음을 따르고 널리 자서를 모아 바로잡는 데 참고로 하였다. 화음의 초성으로 우리나라 한자음을 정하니 우리나라의 오음 청탁이 거의 바로잡혀 이로 인하여 《화동정음통석운고》라 이름을 붙이여 목판에 새겨서 출판하고 사성, 칠음을 나누어 가로 세로로 배열하는 순서는 비록 옛날 운서에 따르고 싶어도 이 책(삼운통고)이 우리나라에 이미 300여 년 동안 쓰이어 왔으니 내 좁은 소견으로 갑자기 고치기 어려워 옛 모습대로 인출하여 훗날에 음을 이해하는 군자가 나타나기를 기라리노라.

歲丁卯南至後 七日 密陽 朴性源 序

정묘(1747)년 11월 7일 박성원 씀

(2) 《화음정음통석고》 범례

五音 初聲 五音合二變爲七音

| 五音初聲 | 五音合二變爲七音 | | |
|-------|----------|---|---|
| 角(牙音) | ㄱ | ㅋ | ㅇ |
| 徵(舌音) | ㄷ | ㅌ | ㄴ |
| 商(齒音) | ㅈ | ㅊ | ㅅ |

| | | | | |
|-------|---|---|-----|---------------------|
| 羽(脣音) | ㄴ | ㅍ | ㅁ ◇ | |
| 宮(喉音) | ㅇ | ㅎ | | 變宮(半喉音) △ 洪武正韻作半商半徵 |

一. 凡諺字初聲, 各有五音之分, 每字各以初聲, 辨其屬於某音.

무릇 언자 초성은 각각 오음으로 나누어 글자마다 초성을 가지고 그 음이 귀속하는 것을 구별한다.

一. 凡字皆有初中終三聲, 必將三聲併合, 然後乃成一字, 如初聲ㄷ中聲ㅓ終聲ㅇ, 併合而爲동, 卽東字之音也. 如皆倣此.

무릇 언자에는 초, 중, 종 삼성이 있으니 반드시 삼성을 이룬 다음에야 한 글자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초성 ㄷ과 중성 ㅓ와 종성 ㅇ이 어울려서 ‘동’이 되니 곧 ‘東’자의 한자음이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一. ㅇ ㅇ ◇此三者 出聲相近, 不必異制, 角羽宮三音, 並有此初聲, 故隨其音而小變字樣, 以別所屬.

ㅇ ㅇ ◇ 세 글자는 소리가 서로 비슷하여 이를 나타내는 글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나 각, 우, 궁 음에 나란히 이 초성이 있으므로 그 음대로 글자 모양을 조금 바꾸어 소속을 별도로 하였다.

一. 字音淸濁旁加圈點, 以別之. 全淸○次淸ㄷ淸不濁●全濁●而下同者蒙上空.

자음의 청탁은 글자 옆에 권점을 더하여 이를 구별하였다. 전청○차청ㄷ불청불탁●전탁●으로 그 아래의 음은 표시를 하지 않고 빈 채로 두었다.

一. 字下諺註右華音左我音, 下同者蒙上空.

글자 아래 오른 쪽에 화음을 왼쪽에 우리나라 한자음을 언자로 음을 쓰고 그 아래의 음이 같은 글자는 빈 채로 두었다.

一. 華音之수者, 수우之間音淺喉音詳變宮. 부者, 부우之間音輕唇音吹唇而呼. 他中終聲, 有此初聲者, 皆倣此. 우者, 이우之重音, 후者, 하오之重音. 他初聲有此樣終聲者, 皆倣者.

화음의 ‘수’는 ‘수’와 ‘우’ 사이의 음이고 얇은 후음이니 변궁단에 자세하다. ‘부’는 ‘부’와 ‘우’ 사이의 음으로 순경음이니 입술에서 발음한다. 다른 중성과 종성에서도 이 초성이 있으면 모두 이와 같다. ‘우’음은 ‘이’와 ‘우’의 거듭된 음이요, ‘후’ 음은 ‘하’와 ‘오’의 거듭된 음이니 다른 초성 아래에서도 이와 같은 모양의 종성이 있으면 모두 이와 같다.

一. 我音初聲本與華同, 不同者中聲, 而我音又多變訛, 竝與初聲而不同字間亦有之, 今以字書等反切釋之, 則無不脗合, 故一從初聲而同華者, 正音之.

우리 한자음의 초성은 본래 화음의 초성과 같고 같지 않은 것은 중성인데 우리 한자음이 또 많이 변해서 초성과 함께 화음과 달라진 것이 간혹 있으나 이제 자서 등의 반절을 가지고 살펴보면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오로지 초성이 화음과 같은 것대로 음을 정하였다.

一. 我音不知五音清濁之別, 故字書反切之讀混殽. 商宮之스ㄷ, 誤作徵宮之ㄷㅌ, 假如直當切之直직作以딕. 丑他切之丑축作以툑, 直當之切 本臆장而讀以당, 丑他之切, 本ㄷ而讀以타, 五音相失, 故此等之類, 一依五音所屬之宮而釋之, 餘皆倣此.

우리 한자음의 오음과 청탁의 구별을 알지 못해 자서의 반절을 읽을 때 혼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궁인 스, ㄷ 음을 치궁인 ㄷ, ㅌ으로 잘못 읽고 있다. 직당절(直當切)의 직직을 딕으로, 축타절(丑他切)의 丑축을 툑으로 直當切로 표시되는 음은 본래 臆장인데 당으로 읽고 丑他切로 표시되는 음은 본래 ㄷ자인데 타로 읽어서 오음이 틀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들을 한결같이 소속된 오음대로 이를 처리하였다. 나머지 예들도 이와 같다.

一. ㅌㅍㅍ唇音而同屬於羽, 스ㄷㅌ齒音同屬於商, ㄱㅍ牙音而同屬於角, ㄷㅌ舌音

而同屬於徵, ㅎㅇ喉音而同屬於宮, 此等初聲, 雖有華我之不合, 不過同音中少變, 而不失所屬之宮. 故因舊存俗, 觀者詳之.

ㅂ표ㅁ은 순음이며, 모두 우음에 속하고 ㅅ츠ㅅ은 치음이며, 다 상음에 속하고 ㄱㅋ는 아음이며, 다 각음에 속하고 ㄷㅌ는 설음이며, 다 궁음에 속하니 이들 초성이 비록 한음과 우리나라 한자음 사이에 맞지 않은 것이 있으나 같은 음 안에서 조금 변한 것에 지나지 않고 소속되어 있는 궁을 잃지 않았으므로 옛날부터 전해오는 대로 두었으니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이를 자세히 상고하기 바란다.

一. 我音訛誤至於經書諺解, 亦或有謬釋者而世人, 率以諺解歸重, 不可以訛誤而置之. 故竝書俗音於頭註, 以證參考.

우리 한자음의 잘못된 음은 경서언해까지 이르렀고 또한 잘못 해석된 것이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언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 잘못된 음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두주에 속음을 아울러 써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一. 華音有古有俗, 我音從古則違於俗, 從俗則違於古, 故古俗中合於我音初聲者, 書於頭註, 以備參考, 曰 廣韻集韻等者是也.

화음에는 고음과 속음이 있어서 우리나라 한자음은 고음을 따르면 속음(시속 현실 음)과 어긋나고 속음을 따르면 고음에 어긋나므로 고음과 속음 가운데 우리나라 한자음과 부합되는 것을 두주에 표시하여 참고가 되게 하였으니 《광운》이나 《집운》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一. 各韻中惟支韻中聲, 甚叢亂者, 盖洪武正韻中, 支微齊灰四韻, 混合爲一之致也, 觀者詳之.

각 운 가운데 오직 지(支)운의 중성이 매우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것은 대개 《홍무정운》 가운데 지(支), 미(微), 제(齊), 회(灰) 4운이 뒤섞여 하나가 된 데서 나온 것이니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이를 자세히 상고하라.

6) 정조 《어제 정음통석》 서

字音予未暇研究其學也，然有以知其多訛也，何者。漢武時孔壁古文出，一時文士多不能辨，去孔子未久也。字形之變已如此，音奚獨不然乎。

자음을 내가 아직 틈이 없어 그 학문을 연구하지 못했으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많음을 알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한나라 무제 때 공자의 구택(옛집) 벽에서 고문 경전이 나왔는데 그 때 학자들이 판별 못하는 것이 많았다고 하니 공자 시대로부터 오래지 않은 일이니 자형의 변화가 이미 이와 같으니 음인들 어찌 그렇지 않을 것인가

詩三百易小象，皆韻也，而與今韻不合字，十七八，或曰此叶音也。或曰音無叶古韻然也。作韻書者，蓋數十家，其說相抵牾，若聚訟而夫孰能辨之。然則三代正音，旣不可攷也。

시경과 역의 소상이 모두 윤이지만 오늘날 운과 맞지 않은 것이 십중 7, 8이니 혹시 말하기를 이것은 험음이요, 또 말하기를 음은 고운과 통용되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고 운서 편찬자가 대개 수십 명인데 그 설이 서로 달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으니 대저 누가 이를 판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즉 삼대(하은주)의 정음을 또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近世之轉益訛謬者，可正則正之，疑則存焉可也。蓋華音，當以古爲正，我音當以華爲宗。故我世宗大王，勅諺書以解中華之反切，無不合者，大聖人制作，盛矣哉。

근세의 음 가운데 잘못 변해 온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이를 바로 잡고 의심스러운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은 옳으니 대개 화음은 마땅히 고음을 가지고 바로 잡으나 우리 한자음은 마땅히 한음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세종대왕께서 언서를 만드시어 이를 가지고 중국의 반절을 해석하여 맞지 않은 것이 없으니 대성인의 제작의 성대함이어.

近世人士，鹵莽苟且，隨俗誤讀，不復知有初中終三聲字母七音之法，殆甚於華音之

變古，是則所謂轉訛而可正者也.

요사이 학자들이 경솔하고 소홀히 하여 속음(시속 현실음)대로 잘못 읽고 초·중·종 3성과 자모 7음을 몰라서 화음의 고음이 변한 것이 매우 심하니 이것이 이른바 전 와로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朴性源所撰華東正韻，頗能正之，又就三韻通考原本，逐字分注，不取其序次，其亦存疑之意也。予是以有取乎是書，科場挾冊有禁，予申嚴之，雖文臣應試亦不許，惟許韻書，以盡誦韻書，非可人人責也。

박성원이 편찬한 《화동정음》이 자못 잘못된 음을 바로잡았고 또 《삼운통고》 원본을 가지고 수록된 글자에 따라서 주를 달되 감히 《삼운통고》의 수록자 순서를 바꾸지 않았으니 역시 의심스러운 곳을 남겨 놓은 뜻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취하여 과장에 책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하였고 내가 이를 엄하게 말하였으며 비록 문신이 응시하는 경우에도 역시 허락하지 않았는데 오직 운서만 허락한 것은 운서 외우기가 사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遂命內閣印布是書，書此而弁之。嗚呼，音韻聖人所重也，然世愈降而音愈變，欲反三代之古而不可得矣。且非特音韻變也，禮樂射御，何事不變，其不變者，惟此心此理在耳。

드디어 내가에 이 책을 인간하여 공포하도록 명하고 여기에 써서 이를 밝히노라. 아아 음운은 성인들까지 소중히 여기던 바였다. 그러나 시대가 흐를수록 음도 더욱 변하여 은, 상, 주 시대의 음으로 돌이키려 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비단 음운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예, 악, 사, 어는 무슨 일로 변하지 않는가, 그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마음이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無今古無華夷，此心同此理同。故有不學，學則可以至於聖人君子所宜槌槌焉者，其在斯歟，其在斯歟。

한자음에 현대음과 고대음이 없고 화음과 다른 나라 자음과의 차이가 없다면 이로

서 마음이 같고 이치가 같은 것이니 배우지 않았다면 배워서 성인, 군자와 같이 언행이 독실한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은 이에 있을 뿐이다.

子郎祚之十一年, 丁未季春

짐이 즉위한 지 11년 정미(1787)년 늦봄

7) 《삼운성휘》 서

영조 27(1751)년 홍계희(洪啓禧)가 《삼운통고》, 《사성통해》, 《홍무정운》 등의 운서를 참고로 하여 지은 우리나라 운서로 상, 하 2권과 부록으로 옥편 1권으로 되어 있다. 처음 김재로(金在魯)가 계획하고 있었으나 홍계희가 편찬하고 정충언(鄭忠彦)도 그 완성에 참여하였다. 체제는 《삼운통고》와 마찬가지로 평, 상, 거성 소속 한자를 한꺼번에 배열하는 3단 체제를 취하였으나, 자순은 현실 우리나라 현실 한자음에 입각하여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한자의 주해는 대개 《증보삼운통고》와 같으나 간혹 상세하게 주해를 단 것이 있으며, 한자음표기는 한글로 하되, 우리나라 한자음을 먼저 기록하고 중국 본토 자음을 그 밑에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한자음이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는 생각에서 현실음도 일부는 개정한 규범음으로 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중국 본토자음은 대개 《사성통해》음을 따랐다. 보편인 《옥편》은 자획 순으로만 되어 있고, 한글로 표음되지는 않았다. 《삼운성휘》의 범례에는 〈언자초중종성지도(諺字初中終聲之圖)〉가 실려 있어서, 18세기에 쓰이고 있던 한글의 자모 수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자모 하나하나를 《훈민정음》예의편에 있는 한자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초성, 중성을 설명하였으며, 8중성을 최세진의 《훈몽자회》 범례에 실려 있는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에 이용된 한자로써 설명하였다. 이 표에서는 한글 자모의 배열 순서를 현행과 거의 같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로 하였으며, 다른 모음들의 뒤에 결합되어 중모음을 형성하는 ‘ㅣ’ 모음을 중중성(重中聲)이라고 한 것이 특색이다. 또, 한글 자모의 수를 25자로 하고, 주에서 훈민정음의 ‘ㅇ’, ‘ㅎ’는 속(俗)에서 ‘ㅇ’과 합해지고, ‘ㅅ’은 ‘ㅈ, ㅇ’의

간음이라고 하였다.(강신항(2000), 《한국의 운서》, 태학사. 참조.)

一. 天下之音, 有萬不同, 而當以中華爲正, 我國字音, 最近中華, 雖或有不相同者, 以例推之, 皆不出於範圍之內, 而第緣我國人, 於字學甚鹵莽, 或泥於偏傍, 或因於習俗, 而謬讀, 遂與華音判異者多, 可勝歎哉.

一. 천하의 자음이 여러 가지로 다르나 마땅히 한음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니 우리나라 자음은 한음과 가장 가까우며 비록 혹시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다른 예로 미루어보면 모두 한음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자학에 매우 어둡고 거칠어서 혹 편방에 사로잡히고 혹은 이미 익힌 속음으로 인해서 잘못 읽는 까닭으로 이리하여 드디어 화음과 다르게 읽는 한자가 많으니 한탄스럽도다.

一. 不佞嘗提舉譯院, 欲就三韻通考, 逐字而竝註華我音, 俾覽者曉然知同異, 而說文, 韻會, 字彙諸書, 字音與反切, 率多抵牾, 而不合其所謂某音某反之本字, 已被我音之譌謬. 欲正一字之音, 轉攷諸字, 輒費數時, 其難如是. 故職事無暇, 仍成拋置矣.

一. 내가 일찍이 사역원의 제조가 되어, 《삼운통고》를 가지고 글자마다 한음과 우리나라 음을 기록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같고 다름을 확히 알게 하려고 하였으나, 《설문》, 《고금운회거요》, 《자취》 등의 자음과 반절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많아서 어떤 글자가 어떤 반절로 표시된 소운 대표자의 자음과 맞지 않으니, 이미 우리나라 한자음의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나의 음을 바로 잡고자 하면 여러 글자를 두루 살펴야 되므로 몇 시간씩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 어려움이 이와 같다. 그래서 직무가 바빠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一. 今大司馬洪君純甫, 自少精於字學, 兼通華語, 慨然有意於修整, 不佞竊喜而屬託之, 純甫積年用功, 發凡起例, 華音則以洪武正韻字母爲主, 而一從四聲通解諺翻之音, 我音則就行用俗音而律之以字母, 其有違於七音者正之, 雖異母而不悖於七音

者存之, 若字母中, 輕唇正齒半齒音及喉音之全清, 牙音之不清不濁, 我國所難成音者, 各從一音內聲相近而合之, 中聲之舛者, 亦皆準的於華音, 推類以釐之, 而或沿或革, 務歸適宜, 是故華之一音, 而分爲我國二三音者有之, 華之二三音而合於我國一音者有之, 固其勢然也. 每音必先大書我音, 而分書華音, 蓋亦取則於魯史紀年之義歟.

一. 이제 병조판서(大司馬) 홍순보가 젊은 시절부터 자학에 힘을 기울이고 한어에도 능통하여 한자음을 바로잡겠다고 개연히 뜻을 세우니, 내가 기뻐서 이를 부탁하였다. 홍순보가 여러 해에 걸쳐서 공을 들여서 일을 마치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한음은 《홍무정운》 자모를 주로 하되 오로지 《사성통해》에서 언해한 음을 따르고, 우리나라 음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한자음대로 하되, 한글 자모 순으로 하고, 칠음(아·설·순·치·후, 반설·반치)과 어긋나는 것은 이를 바로 잡고, 비록 자모가 다르더라도 칠음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이를 그대로 두었다. 자모 가운데에서 순경음, 정치음, 반치음, 후음의 전청음, 아음의 불청불탁음은 우리나라에서 발음하기가 어려운 자음들이어서, 각각 한 음 안에서 발음이 가까운 것 끼리는 이를 합하고, 중성이 어긋난 것은 역시 모두 이를 한음을 표준으로 해서 서로 미루어 이를 바로잡았으며, 혹은 관습을 따르고 혹은 고쳐서 모두 적절하게 되도록 힘썼다. 이래서 한음의 두서너 음이 우리나라에서 두서너 음으로 나뉜 것이 있고, 한 음의 두서너 음이 우리 음에서 하나의 음으로 합쳐진 것이 있으나, 진실로 형세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하나의 자음은 우리 음을 반드시 먼저 크게 쓰고, 한음을 구분하여 썼으니, 대개 역사를 기술할 때 자기 것을 먼저 쓰고 종주국 것을 나중에 쓰는 기년체법을 따른 것인가!

一. 至於一字音義之互殊, 俗書點畫之差謬, 無不該括而是正焉, 鞅掌繁猥之中始終無怠, 以底(지=定)于成, 良工之用心可謂勤矣. 而聰明強力, 其亦不可當也已. 後生輩不勞而坐享其功, 豈非幸乎.

二. 한 글자의 음과 뜻이 다른 것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점획의 잘못에 이르기까지 바로잡지 않은 것이 없으니,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잘 깨우쳐서 이루어내었으니, 재주가 있는 학자의 마음 쓰임이 가히 부지런하다고 이를만하고, 남달리 총명함도 역시 가히 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겠으니 뒷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그 결과를 알아서 누릴 것이니 어찌 다 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從今以往, 覺前之謬, 去而從新, 則雖未能一反中華之正, 而亦可以變齊至魯矣, 其各勉旃. 純甫自爲之跋, 求餘爲序, 不揆陋拙, 略識如右.

이제부터 앞으로는 지난 날의 잘못을 깨닫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것을 따르면, 비록 한결같이 정통 한음(漢音)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또 차선책을 취한 것이 될 것이니, 각각 이를 힘쓰라. 홍순보가 스스로 발문을 쓰고 나에게서는 서를 쓰라고 해서 어리석음을 헤아리지 않고 위와 같이 기록하였다.

上之二十七年 辛未末孟秋,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義政兼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金在魯 序.

영조 27(1725)년 신미말 늦가을,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령의정검령경연, 홍문관 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김재로 서.

8) 《삼운성취》 범례

一. 三韻通考失之太略後, 有增補尙多未備, 今就印行增韻, 參以韻會, 洪武正韻, 更加補入, 而序韻(東冬之序)仍舊.

一. 《삼운통고》가 너무 간략하게 된 다음에 증보한 것이 있으나 아직도 미비된 점이 많아서 이제 이 책을 인쇄하여 간행할 때에, 증보한 글자의 운은 《고금운회거요》와 《홍무정운》을 참고하여 다시 더 보태되 東, 冬과 같은 운의 순서는 옛 그대로 하였다.

一. 印行韻考中增補字, 係于末界以圈, 而今此書, 以音分類, 故勿論舊增新增, 混入

於各音.

一. 인쇄되어 간행된 《삼운통고》 안에서는 증보한 글자를 운의 계통을 나누어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음으로 분류하여 그 전에 보탠 것이나 새로이 보탠 것이나 각 음에 섞여서 들어가 있다.

一. 終聲則韻已分之, 今就韻內先分中聲(我音爲主), 中聲內又分初聲, 而中聲以ㄷ (見圖) 爲次, 初聲以ㄱ (見圖) 爲次, 一音內有二三正音者, 以字母(見圖) 爲次, 一母有二三中聲者以中聲爲次.

중성은 운에 따라 이미 나뉘어 있으니 이제 운 안에서는 먼저 중성(한국 한자음 기준)으로 나누고, 중성 안에서는 또 초성 기준으로 나누되, 중성은 ㄷ(범례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 〈언자초중중성도(諺字初中終聲之圖)〉를 볼 것) 순으로 차례를 삼고, 초성은 ㄱ(〈언자초중중성도〉를 볼 것) 순으로 차례를 삼으며, 하나의 한자음 가운데 정음이 2·3개인 것은 (《홍무정운》의) 자모(범례 자음의 〈홍무운자모지도(洪武韻字母之圖)〉를 볼 것)를 가지고 차례를 삼는다. 한 운모 안에 중성이 2·3개 있을 때에는 한글의 중성 순서를 가지고 차례를 삼는다.)

一. 我音正音并翻諺字, 而先書我音(大圈㉔㉕之類), 次書正音(㉔下註궁궁之類○ㄱ屬見ㄱ屬溪, 詳字母圖), 乃書本音諸字(㉔下書公以下十五字之類), 字下註義, 仍註字母. 方圈見溪之類○如公下註見則玕以上八字竝屬見母而爲㉔註之宮, 空下註溪則空以上七字竝屬溪母而爲㉔註之궁 餘倣此.

一. 우리나라 한자음과 정음(한어의 자음, 여기서는 《홍무정운역훈》음)을 모두 언자로 옮겨 적되 우리 한자음을 먼저 적고(큰 동그라미 ㉔㉕ 등), 정음을 다음에 적었으며(㉔아래에 주를 단 궁, 궁 등 ○ ㄱ은 견(見), 모(母)에 속하고 ㄱ은 계(溪) 모에 속하니 자모도에 자세하다) 곧 본음에 속하는 여러 글자를 적었고(㉔ 아래에 公 이하 15자를 쓴 것 등) 글자 아래에 뜻을 쓰고 이어서 자모를 쓰다. 네모난 圓 溪 등이다. ○ 예를 들면 公 아래에 圓이라고 쓴 것은 玕 위의 여덟 글자가 모두 견(見), 모(母)에 속하여 ㉔이 뒀을 뜻하며 궁이라고 주를 단 것이다. 空 아래에 溪

라고 쓴 것은 空 위의 일곱 글자가 모두 계모에 속하여 ㉔이 됨을 뜻하며 쿵이라고 주를 단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一. 一字之別見他音者, 註音(紅下註圓圈㉔之類 下註聲註韻同), 別見他聲者, 註聲(空下註㉔㉕之類). 別見他韻者, 註韻(虬下註㉔㉕之類).

한 글자로서 다른 음이 있는 것은 음을 달다(紅 아래에 둥근 동그라미를 한 ㉔ 등, 아래에 성조와 운을 표시한 것도 같다) 다른 성조에도 보이는 것은 그 성조를 적었다(空 아래에 적은 ㉔㉕ 등). 다른 운이 보이는 것은 그 운을 적었다(虬 아래에 적은 ㉔ 등).

一. 凡字單見者依舊, 只註一義.(不別見則雖有別義, 不必書). 其別見於他音他聲他韻而有別義者, 添註(如空下又註司一 夢下又註一一之類). 別見而同義者, 註互.(先見處只註一義, 後見處 註互某音某聲某韻則諸義皆可互用).

무릇 한 번만 나타나는 글자는 그 전대로 다만 하나의 뜻만 적고(달리 나타나지 않으면 비록 다른 뜻이 있더라도 꼭 적지 않음) 다른 음, 다른 성조, 다른 운에도 나타나고 다른 뜻이 있는 글자는 주를 적었다. (예를 들면 空 아래에 또 司空이라고 주를 적고 夢 아래에는 또 夢夢이라고 주를 적은 것 등) 달리 나타나되 뜻이 같은 글자는 주를 어긋매껴 적다[먼저 나타나는 곳에서는 다만 한 뜻만 적고 나중에 나타나는 곳에서는 주를 어긋매껴 적어서 어떤 음, 어떤 성조, 어떤 운이라고 했으면 여러 뜻을 모두 넘나들며 쓸 수 있다]

一. 我音同而母義有異字(如支韻精母茲字 別註 ‘從즈’, 龜一國之類), 字義同而音母有歧者(如支韻影母痿字別註或 ‘日쉬’ 之類) 竝本註下界圈別註.

우리나라 한자음으로는 같은데 자모(초성)나 뜻이 다른 것(예를 들면 支운 精모자인 茲자의 또다른 주에 從모 자 구자국(龜茲國)-서역(西域)의 한 나라-이라고 한 것 등)과 글자 뜻은 같은데 음과 자모가 분리된 것(예를 들면 支운 影모인 痿자 위의 다른 주로 또는 ‘日모인 쉬’라고 한 것 등)은 모두 함께 본주 아래 경계에 동그

라미를 해서 따로 주를 달다.

一. 一韻內舊單見而今重見者(紅字之類), 以音之異也, 舊重見而今單見者(奇字之類), 以音之同也, 覽者詳之.

한 운 안에서 그 전에는 한 번만 나타나다가 지금 거듭 나타나는 것은(紅字 등)음이 다른 까닭이요, 그 전에 거듭 나타났는데 지금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은(奇字 등)음이 같기 때문이니 책을 읽는 사람은 자세히 살피시라.

一. 舊韻誤收者或移(嶺自冬移東, 懂自吻移問, 姁自霰移銑, 筭自迴移梗). 或刪.(琰之腴)

그 전의 운서에서 잘못 수록되어 있는 것은 옮기기도 하고(嶺자는冬운에서東운으로 옮기고 懂자는吻운에서問운으로 姁자는霰운에서銑운으로 筭자는迴운에서梗운으로 옮기다) 또는 생략하다(琰운의 腴자)

一. 我音初聲多有乖於正音, 字母至有五音混淆者(如融瀦之宜從ㅇ而俗從ㄹ春憇之宜從ㅇ而俗從ㅇ)不得不釐正.

一. 우리 한자음 초성에는 정음(한어의 자음, 여기서는 《홍무정운역훈》음)과 어긋나는 것이 많으니 자모로서 5음이 뒤섞인 것은 (예를 들면 融瀦 등의 초성은 마땅히 ㅇ이어야 하는데 속음은 ㄹ이고, 春憇의 초성은 마땅히 ㅇ이어야 하는데, 속음은 ㅇ이다. 하는 수없이 바로잡았다.)

一. 諸母之在一音(如見溪羣疑之同在角音)而我音相近者, 不能一一釐正.(如精母之總宜宗而총 淸母之雌宜ㄷ而즈), 雖在一音而有不可混者則正之.(角之疑不可混於見溪羣是也, 徵之泥, 羽之明微, 商之心邪審禪, 亦同. 惟宮之喻影, 我音無別, 曉匣, 亦隨而混則亦不得一例, 正之.) 雖非一音而我音相似者,(疑喻影三母實異音), 及我國之難於成音者 竝從俗(如日母難作ㄷ音. 故從俗或ㅇ或ㅇ.)

여러 자음이 한 음에 있으나(예를 들면 見溪羣疑 등 자모는 다함께 角음에 있다.)

우리 한자음이 서로 가까운 것은 일일이 바로잡지 못했다.(예를 들면 精모의 總은 마땅히 종이어야 하는데 총으로, 淸모의 雌는 츠이어야 하는데 즈로 한 것 등) 비록 한 음에 있더라도 뒤섞이면 안 될 것은 이를 바로잡았다.(角음의 疑은 見ㄱ 溪ㄱ 羣ㄱ과 섞여서는 안되는 것이 이것이요, 微음의 泥ㄴ, 羽음의 明ㅁ 微ㅁ, 商음의 心ㅅ 邪ㅅ 審ㅅ 禪ㅅ도 역시 같으나 오직 宮음의 喻ㅇ 影ㅇ은 우리 한자음에서 구별이 없고 曉ㅎ, 匣ㅎ도 역시 따라서 뒤섞이니 하나의 음으로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비록 한 음은 아니더라도 우리 한자음에서 비슷한 것(疑ㅇ, 喻ㅇ, 影ㅇ 세 자모는 원래 다른 음임)과 우리나라에서 음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모두 속음(한국 한자음)대로 했다.(예를 들면 日모는 △음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속음대로 ㅅ음으로 하거나 ㅇ음으로 했다.)

一. 中聲之誤(如答之與蚩同音而俗音苔, 瑞之與睡同音而俗音庶,) 雖與子母之譌舛有別而不得不各以類從, 有以久譌而不能卒正者, 既正而不可從譌者, (如終與中, 寄與季, 竝宜歸一而終從ㄱ, 中從ㅈ, 寄從ㄴ, 季從ㄹ), 有以類多而從俗者(如衰榭詭唄之竝宜從ㄱ而或從ㄴ從ㄹ), 蓋不得已也.

一. 중성이 잘못된 것은(예를 들면 笱지의 중성은 蚩지와 같아야 되는데 속음은 苔티이고, 瑞슈의 중성은 睡슈와 같아야 되는데, 속음은 庶셔인 것 등) 비록 자모의 잘못된 것과 다름이 있더라도 하는 수없이 변화된 예를 따랐으니 변화가 오래되어서 갑자기 바로잡을 수 없는 것과 이미 바로잡아서 변화된 것을 따를 수 없는 것과(예를 들면 終과 中, 寄와 季는 다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終은 ㄱ로 中은 ㅈ로, 寄는 ㄴ로 季는 ㄹ로 한 것 등), 변화된 예가 많아서 속음을 따른 것은(예를 들면, 衰, 榭, 詭, 唄는 다 마땅히 ㄱ가 되어야 하는데 ㅅ와 ㄴ로 한 것 등) 대개 부득이한 일이다.)

一. 同字異形者書於本字下(註全 或籀或古 或俗, 俗之非是者, 註俗非), 而同字而有別義者(全字下 註別義), 異字而有通用者(本義下 註又全), 一字而有通用二字者(書於二字之間 註全上全下), 竝著于註.

ㄴ, 같은 글자로서 형체가 다른 글자는 원 글자 아래에 쓰고(주에 동 또는 주자 또는古자 또는俗자라 하고, 속자로서 옳지 않은 글자는 주에 俗非라 함) 같은 글자로서 다른 뜻이 있는 것과(그 글자 아래에 딴 뜻을 적다) 다른 글자로서 통용되는 것과(원 뜻 아래 주에 又순이라함) 한 글자로서 두 글자에 통용되는 것은(두 글자 사이에 주로 순上 순下라 씀) 모두 주에 적다).

一. 世皆貴漢音而賤方音, 然漢音入聲之無終聲, 侵覃諸韻之以ㄴ 爲終聲, 反不如方音之猶有古意, 至若兒音슬, 兄音흥之類, 明是傳襲之譌. 故今以四聲通解古正音, 爲主欲知俗用漢音則當考譯家諸書.

一. 세상에서 모두 한음(중국 자음)을 존중하고 우리 한자음을 천대하나 그러나 한음 입성에 종성이 없는 것과 侵 침 覃 담 여러 운이 ㄴ으로 종성을 삼고 있는 것 등은 도리어 우리 한자음이 아직도 옛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만 같지 못하고, 兒 슬 兄 흥 같은 음에 이르러서는 전습의 잘못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제 《사성통해》안의 고정음(古正音)을 가지고 주로 삼았으니, 현실 한음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여러 역관들의 책을 참고하라.

9) 《어정규장전의 의례(御定奎章全韻義例)》

我東韻書之彙以三韻別置入聲, 有非韻本四聲之義, 今以平上去入比類諧音, 增爲四格, 此奎章全韻之承命詮次者也, 編字次第, 倣古韻書字母爲次之法, 以諺書反切, 按序排定, 而一字之諸韻互見者, 同字而音義各殊者, 華音東音之逐字異讀者, 標以放識之, 匡以圈加之, 諺註以分析之, 皆依華東正音之舊, 而尤致詳焉.

우리나라 운서가 3운(평·상·거)을 한데 모아 입성을 따로 배열한 것은 운이 본래 4성으로 되어 있는 본의에 어긋남이 있는 것이니, 이제 평·상·거 입성이 비슷한 것끼리 음을 어울리게 하여 4격으로 증가시키니, 이것이 《규장전운》이 정조 명을 받들어 차례를 자세히 밝힌 까닭이다. 수록 글자의 순서는 옛날 운서의 자모를 차례로 삼은 법에 따라 언서의 순서대로 배열을 정하고, 하나의 글자로서 여러 운에 보이

는 것과 같은 글자로서 음과 뜻이 각각 다른 것과 한음(화음)과 우리 한자음이 글자 따라 달리 읽히는 것(발음되는 것)은 네모꼴 안에 나타내고 언서로 주석을 단 것은 모두 《화동정음통석》 운대로 하되, 더욱 자세히 하였다.

(협주)

一字互見四聲者, 平聲標○, 上聲標●, 去聲標D, 入聲標D. 一字互見他韻者, 註部首字加匡, 一韻而字同音義異者, 註以諺音加匡, 東音則同而華音母義異者, 標以小圈, 訓別義, 而書華音加匡, 華音則遵正音之字母, 叶通解之諺翻, 東音則辨以七音律, 以字母各字之下, 以諺書分註, 華東亦各加匡.

하나의 글자로서 네 개의 성조에 나타나는 것은, 평성은 ○표, 상성은 ●표, 거성은 D표, 입성은 D표를 했다. 하나의 글자로서 다른 운에도 나타나는 것은 부의 첫 글자에 둥근 괄호로 주를 달고, 하나의 운이면서 글자는 같고 음과 뜻이 다른 것은 둥근 괄호 안에 언서로 주를 달고, 동음(우리 한자음)으로는 같으나 한음으로는 자모(성모)와 뜻이 다른 것은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여 딴 뜻을 새기고, 네모꼴 안에 한음을 기록하고, 한음은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자모를 따르되 《사성통해》의 한글음에 맞추고, 동음은 7음(조음위치)별로 구분하여 자모 별로 각 글자 아래 언서로 나누어 주를 달고 동그라미 또는 네모꼴 안에 한음과 동음을 역시 각각 기록하였다.

韻法自六經始, 兩漢諸儒莫不用韻, 太玄易林是也. 至沈約拘以四聲, 古韻失其傳, 而叶音之稱, 昉於吳械韻補, 朱子取之以釋毛詩離騷, 今畧爲抄附至於通韻之辨, 有若聚訟而證之, 古樂府杜韓詩最有可據, 以次附于各韻之下.

운법은 여섯 경전부터이니 전한·후한의 여러 선비가 운을 쓰지 않은 일이 없었으니(압운하지 않은 일이 없었으니) 한나라 양웅(揚雄)이 지은 《태현경(太玄經)》과 《역림(易林)》이 이것이다. 심약(沈約)에 이르러 4성에 사로잡혀 고운이 그 전통을 잃어버리고 협음(叶音, 운을 통용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오역(吳械)의 《운보》에서 비롯되었으니, 주자가 이를 채택하여 《모시(시경)》와 《이소》(楚나라 굴원 작)를 해

석하니 이제 간략하게 베껴서 통운(通韻, 운의 통용, 東·冬·江운이 서로 통하고 魚와 虞운이 상통하는 것)의 구별에 붙이니, 만일에 서로 시비를 하여 결말이 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를 증명하려면 고악부(악부집, 원 좌극명(左克明) 편 10권, 진(陳)·수(隋) 이전의 악부를 팔류로 나누어 수록)와 두보와 한유의 시가 가장 의지할 만하니, 각 운의 아래에 차례로 붙인다.

(협주)

東冬江相通, 支微齊佳灰相通, 魚虞相通, 真文元寒刪先相通, 蕭肴豪相通, 歌麻相通, 庚青蒸相通, 侵覃鹽咸相通, 上去入倣此.

위에서 상통이라고 한 것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나 운(韻)보다는 큰 분류 단위인 섭(攝)과 같이 비슷한 운들이 하나로 묶이고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自今科試許押入聲增韻, 而又有新定玉篇, 以生生字, 整理字印頒.

이제부터 과거시험에 입성자 증운을 압운으로 허용하고, 또 새로 정한 옥편이 있어서 생생자(生生字)와 정리자(整理字)로 인쇄하여 반포하다.

(협주)

甲寅取字典本, 木刻三十二萬字藏於內閣, 是謂生生字, 丙辰編整理通攷, 以生生字本, 範鑄三十萬字, 是謂整理字.

갑인(1794, 정조 18)년에 《강희자전》본을 취하여 32만자를 나무로 새기어 내각에 보관하니 이것이 생생자(生生字)요 병진(1796, 정조 20)년에 《사성통고》를 엮어서 정리할 때 생생자본(生生字本)으로 30만자를 규범으로 주조하니 이것이 정리자(整理字)다.

(강신항, 《한국의운서》, 태학사, 2000. 참조.)

10) 《규장전운 범례(奎章全韻凡例)》

정조 16(1792)년까지 이덕무가 편찬하고, 윤행임, 서영보, 남공철, 이서구, 이가환, 성대중, 유득공, 박제가 등이 교정한 다음, 동음과 화음을 함께 표시한 우리나라 운서로 정조 20(1796)년에 2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그 뒤 방각본으로도 많이 인행되어 이본이 많다. 내용은 3단식 체재로 평성, 상성, 거성을 한꺼번에 나열하고, 입성을 따로 책 끝에 나열해 오던 종래의 《삼운통고》 계열의 운서인 《화동정음 통석운고》, 《삼운성휘》 등과는 그 체재를 달리 하여 평, 상, 거, 입성을 한꺼번에 표시한 4단식 운서이다.

이 운서편찬에는 당시 국내에 널리 쓰이던 《삼운통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명나라 장보(章黼)의 《운학집성》, 송나라 오역(吳域)의 《운보》, 명나라 양신(楊慎)의 《고음약례》, 청나라 소장형(邵長衡)의 《고금운략》 등을 광범위하게 참조하였다. 한자의 배열 순서는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서 한자음을 분류하여 배열하였다. 다만, 이 책의 편찬자들이 나타내고자 한 우리나라 전승 자음은 어느 정도 규범성을 띤 것이어서, 《화동정음통석운고》에서는 당시 일반 대중이 발음하고 있던 한자음을 속음으로 표시하였으나, 《규장전운》에서는 규범음만을 나타내었다. 이런 면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른바 속음도 아울러 표시하는 《전운옥편》이 편찬되었는데, 이 옥편은 《규장전운》을 저본으로 한 획일자전(劃引字典)였다. 《규장전운》도 우리나라의 다른 운서와 마찬가지로 106운계 운서이며, 1만 3345자가 수록되어 있다. 《규장전운》은 현종 12(1846)년에 《어정시운》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수진본용(袖珍本用)으로 복각되었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서문이나 범례가 없고, 의례만이 붙어 있는데, 《어정시운》에는 윤정현(尹定鉉)이 쓴 간략한 범례가 붙어 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두 책이 거의 같고, 자수에서 몇 자가 틀려 《어정시운》은 1만 3343자가 수록되어 있다.(강신항(2000), 《한국의 운서》, 태학사. 참조.)

壬子三月, 以場屋頒行韻書, 多鹵莽, 命改撰, 務令繁簡適中乃以四聲, 分四層, 古協古通, 多取邵氏韻略.

임자(1794, 정조 16)년 3월에 과거 보이는 자리에서 나누어주어 사용하는 운서가

너무 엉성하여 이를 고쳐 편찬하라고 명하시되, 너무 자세하거나 간략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만드는 데 힘쓰라 하니, 곧 4성을 4단으로 나누고 옛날의 협운(叶韻)이나 통운(通韻)은 소씨가 지은 《운략》에서 많이 취하였다.

三韻通考未知緣起，似是世宗朝命儒臣編定者，至今爲藝苑之懸法，且其三格橫看，倣古表譜之例，至爲簡要，然但四聲昉於沈約，則硬定三韻名實不協，故今定四格，併編入聲。

《삼운통고》는 유래를 잘 알 수 없는데, 아마 세종 때 유신들에게 편찬시킨 것인 듯 하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원에 현창하는 본보기로 삼아 왔으며, 또 3단식으로 옆으로 보게 한 것은 옛날 운보 도표를 본받은 것으로서 매우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4성은 심약에서 유래한 것인데, 3운(평·상·거 3성)으로 정한 것은 이름과 내용이 안 맞는 것이므로, 이제 4단식으로 정하여 입성도 함께 넣었다.

今韻平聲三十部，入聲十七部。章黼韻學集成，始以十七部，分係於三十部，盖入聲雖是潤聲，究其中聲犁然調叶。但支微齊佳灰魚虞蕭肴豪歌麻尤十三韻，無入聲。今定四聲槩從章氏，而閣臣徐命膺，編奎章韻瑞，已有此例。

금운(《규장전운》의 운)은 평성이 30부에 입성이 17부다. 장보의 《운학집성》에서 처음으로 입성은 17부로 나누어 평성 30부와 연계시켰으니, 대개 입성은 비록 운성(미끄러운 소리)이지만, 그 중성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음이 조협(조화)을 이룬다. 그러나 지(支), 미(微), 제(齊), 가(佳), 회(灰), 어(魚), 우(虞), 소(蕭), 효(肴), 호(豪), 가(歌), 마(麻), 우(尤) 13운은 입성이 없다. 이제 장씨를 따라 4성으로 정하며, 각신(판서) 서명웅이 《규장운서》를 편찬할 때 이미 이런 예가 있다.

三韻通考蓋出於禮部韻略，韻府群玉，洪武正韻諸書，而所收至約，註解不過二三字，操觚者奉爲甲令，士不宏博諒非異事，金濟謙與成孝基，同編增補，洵爲近正。無論原韻增韻，間有稀僻，不刪一字者，以其行世已久，人皆貫串也。

《삼운통고》는 대개 《예부운략》, 《운부군옥》, 《홍무정운》 등 여러 운서에서 보이는

데 수록한 내용이 매우 간략하여 주해가 겨우 2, 3자뿐인데도 글 쓰는 이들이 모범으로 받들어서, 선비가 해박하지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제겸과 성효기가 함께 증보하니 참으로 제대로 된 듯하다. 원운과 증운을 비롯하여 간혹 희귀하고 궁벽한 글자가 있어도 한 글자도 삭제하지 않은 것은 그 글자들이 세상에서 쓰인 지가 오래되어 사람들이 모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故今又續補，仍與舊增次于各韻之下，較今中華所用古今韻略，康熙詩韻，不甚零星，反復勝焉。註解則博證羣書，較舊頗詳。如舊註只稱木名草名水名地名之類，已極疎忽，其餘事物名義，蓋多脫漏，逐字添註略悉梗槩，字體則一從正韻字典，點劃偏旁，往往釐正，務盡謹嚴，以爲朝野之橫楷。

고로 이제 계속해서 보충하여 각운과 증운의 분류 차례도 그대로 따랐으며, 지금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고금운략》과 《강희시운》과 비교해 보아도 엉성하지 않고 도리어 나은 면도 있다. 주해는 여러 책에서 두루 취했으므로 옛 책에 비하여 자못 자세하다. 예를 들면 옛 책의 주에서는 나무 이름, 풀 이름, 물 이름, 땅 이름 등의 이름만 적어서 매우 소홀히 했는데, 사물의 이름과 뜻은 많이 빠졌다. 이제 글자 순서에 따라 주를 더 보태고 대강 줄거리의 뜻을 간단히 덧붙였다. 글자체는 오로지 《정운자전》에 따르고 점과 획, 편방은 고치되 삼가 소중함을 다하도록 힘써서 조야의 모범이 되게 하였다.

蒙古亂華音韻舛譌，高皇帝既定天下，命宋濂等，一以中原雅音更定之，今編韻書就洪武正韻字母，而從四聲通解諺翻之音，東音則律之以字母之法，各字註解之下以諺字書，華音圖匡，東音方匡，俱鐫白文，不煩更書見溪等字母，德紅翻切，而一諺字足以該括，亦甚簡便，近世一種韻書，以諺字大書東音，其下小書華音，位次例置，有欠正名，故一切改正而不從。

몽고가 중국에서 난을 일으켜 어지럽힌 뒤 한어의 음운이 어긋나니,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다시 천하를 평정한 뒤에 송림 등에게 오직 중원아음을 가지고 운서를 고치도록 명하여, 이제 운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홍무정운》 자모를 가지고 하되

《사성통해》에서는 언문 번음을 따르고 우리나라 한자음은 자모의 법에 따라 각 글자 주해 아래에 언자로 음을 달았다. 한음(華音, 漢音)은 동그라미 속에, 우리나라 한자음은 네모꼴 속에 모두 새겨서 견·계 등 자모와 덕·홍·절 등 반절로 다시 쓰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언자로 충분히 총괄하게 하니 역시 매우 간편하게 되었다. 근세의 어떤 운서(《삼운성휘》를 말함)가 언자로 우리나라 한자음을 크게 쓰고 그 아래에 한음을 작게 썼는데 그 차례가 뒤바뀌고 명분에 흠이 있어서, 모두 바로잡고 따르지 않았다.

近世朴性源正音通釋, 華音則不刪俚音, 東音則特揭俗音, 寔爲適用之書, 而今編韻書, 務從典雅, 故至若華音之兒音을, 二音을之類, 明是蒙古遺音, 併屬刪汰, 東音之俚俗者, 人皆自知, 何必更說. 然今編韻書, 爲詞林之木鐸, 正音通釋作鞆象之指南, 與之并行, 固不相悖矣.

근세에 박성원이 지은 《화동정음통석운고》에서는 한음의 이언을 없애지 않고, 우리나라 한자음의 속음을 특별히 보였으니 참으로 실용적인 책이지만, 이제 운서를 편찬함에 있어서는 전아한 것을 따르는 데 힘쓰기로 하여, 한음의 兒(을), 二(을) 음 등은, 원나라 시대 때의 음이 분명하므로 둘 다 없애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한자 속음(현실음)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제 운서를 편찬함에 사립(선비)의 지침서로 삼기 위한 것이고, 《정음통석》은 역관들의 지침서로 만든 것이니 둘을 함께 통용시켜도 진실로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洪武正韻排韻俱用字母之次, 互相爲統, 今倣其例, 以諺書俗稱反切之次爲定.

홍무정운에서의 운 배열은, 자모의 차례를 함께 써서 서로 첫머리를 삼았는데 이제 그 보기를 본받아서 한글 곧 일반에서 말하는 반절(한글)의 차례로 (수목자의) 순서를 정하였다.

一字互見於上平去入者, 字傍平則標○, 上則標●, 去則標ㄷ, 入則標ㄴ. 互見他韻

者，註部首字加圈匡，一韻內字同而音義不同者，註諺者加亞匡，同字異形者註同，或籀或古或俗非同字別義者，全字下註別義，異字通用者，本義下註全，一字而通用二字者，書於二字之間註全上全下。

한 글자로서 상·평·거·입성에도 나타나는 글자는 글자 옆에 평성은 ○표, 상성은 ●표, 거성은 ▢표, 입성 ▣표로 하고, 다른 운에도 나타나는 것은 부의 첫머리 글자에 주를 달고 ○를 하였으며, 하나의 운 안에서 글자는 같으나 음과 뜻이 다른 것은 언음으로 주를 달고 ○를 괄호 안에 넣고, 같은 글자로서 자형이 다른 것은 주를 '同'이라고 하였으며, 혹 주자(주문글자, 고대 한자체), 옛 글자 혹은 속자로서 같은 글자도 아니고 딴 뜻을 가진 글자는 '같은글자(全字)' 아래에 다른 뜻을 주로 달고, 다른 글자로서 통용되는 것은, 본래의 뜻 아래에 '全字'라 주를 달았다. 한 글자로서 두 가지 글자에 통용되는 것은, 두 글자 사이에 '全上', '全下'라고 주를 달았다.

諺字一依四聲通解，而俗所謂反切，人皆易曉，其中另有字母所用難曉者，如全清精字用ㄷ，照字用ㄷ，次清清字用ㄷ，穿用ㄷ，全濁從字用ㄷ字，牀字用ㄷ，左右側畫，互用長短，隨字母而不同，雖相見於四聲通解字母圖，人或疑眩，故姑拈數段以示槩略，侵覃鹽咸四韻終聲華俗皆呼爲，而正音通釋從之，惟四聲通攷通解，皆ㄷ今從之，언자로 표시한 글자 음은 오로지 《사성통해》의 음을 따랐는데, 보통 말하는 반절 곧 언자는 사람들이 다 쉽게 알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는 또 다른 자모가 쓰이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으니, 예를 들면 전청의 정(精)모는 ㄷ을 쓰고 조(照)모는 ㄷ을 쓰며, 차청의 청(淸)모는 ㄷ을 쓰고 환(穿)모는 ㄷ을 쓰고, 전탁의 종(從)모는 ㄷ을 쓰고 상(牀)모는 ㄷ을 써서 좌측과 우측의 획이 서로 길고 짧아 자모에 따라 같지가 않다. 비록 《사성통해》 자모도에 서로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혹 의심하고 혼동하므로 잠시 몇 가지를 집어내어 개략을 보였다. 침, 담, 염, 함 4운의 종성을 중국의 현실음에서는 모두 ㄷ으로 발음하고 《정음통석》도 이를 따랐으나, 오직 《사성통고》나 《사성통해》는 모두 ㄷ을 썼으므로 이번에도 이를 따랐다.

古昔有韻，自六經始，而屈原離騷，楊雄，太玄，焦贛易林，莫不有韻，漢儒皆能同曉，沈約拘以四聲古韻失傳，唐人精通古韻者，惟杜甫，韓愈，白居易，柳宗元，至宋吳棫作韻補，始有成書，朱子嘗取之，以釋毛詩，離騷。

옛날에 운이 6경(역경, 서경, 시경, 춘추, 예기, 악기)부터 시작되어, 굴원의 《이소》, 양웅의 《태현경》, 초공의 《역림》이 운을 사용하여 시와 글을 짓지 않음이 없었다. 한나라 때 선비는 모두 운에 밝았었는데, 심약이 4성으로 구속하여 고운이 실전되었다. 그래서 당나라 때 고운에 정통한 사람은 오직 두부, 한유, 백거이, 유종원이었고 송나라 때 오역이 《운보》를 지어서 비로소 운서 관계 서적이 이루어졌으며, 주자가 일찍이 이를 취하여 《모시》와 《이소》를 해석하였다.

邵長蘅韻略，爲近世通行之書，而各韻之下，編吳氏韻補及楊慎轉註古音與，長蘅所自補若干條，今約畧抄附，俾藝苑墨客，略諳全鼎之一爓，至若按而行之，則顧炎武音學五書在耳。

茲故簡而不詳，亦依潘恩詩韻輯略例，姑削註引只著書名，且特揭翻切不標諺字者，若回翻切華音固可釋，而不敢以諺字勤定東音，慎重故也。

소장형의 《운략》(고금운략)이 근세에 널리 쓰이는 책이 되었는데 각운 아래에 오역의 《운보》와 양신의 《전주고음》을 소장형이 스스로 보충한 약간의 내용을 엮은 것으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 붙이어, 글 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략이나마 전체의 일부분(큰 술 안의 고기 한 점) 이나마 알도록 하였고, 만일에 생각해서 쓸 만한 것이 있다면 고염무의 《음학오서》가 있을 뿐인데 이 책은 본래 간략하고 자세하지 않다. 또 변은의 《시운집략》의 예에 의거하여 우선 주인(註引)을 삭제하고 다만 반절(반절)을 보이고 언자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만일에 반절로 표시된 음을 따르면 한음은 제대로 풀 수 있기 때문이며, 감히 언자로 우리나라 한자음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신중을 기한 때문이다.

古韻通轉，諸家聚訟，平聲之庚青蒸侵，皆可通眞，而眞與先不相通，入聲之陌錫皆可通月，職緝皆可通質，而質與月不相通，此則吳棫韻補例也。

고운에서 통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그치지 않으니, 평성의 경, 청, 증, 침운은 모두 진운과 통용되나 진운과 선운은 서로 통하지 않고, 입성의 맥운과 석운은 모두 월운과 통할 수 있고 직운과 집운은 모두 질운과 통할 수 있으나 질운과 월운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것은 오역의 《운보》의 예다.

近世詩人吳偉業，最喜邵長蘅韻略，證諸古樂府及杜韓詩，又質諸李日篤·顧炎武，定以東冬江相通，真文元寒刪先相通，蕭肴豪相通，歌麻相通，陽無通，庚青蒸相通，尤無通，侵覃塩咸相通，上去入視此爲例。蓋亦不易之論，今以次附于各韻之下。

근세의 시인 오위업이 소장형의 《운략》을 가장 좋아하여, 고악부와 두시, 한유의 시를 가지고 증명하고, 또 이일독과 고염무에게 물어서 동운과 동운, 강운이 서로 통하고, 진운, 문운, 원운, 한운, 산운, 선운이 서로 통하고, 소운, 효운, 호운이 서로 통하고, 가운과 마운이 서로 통하고 양운은 통하는 운이 없고, 경운, 청운, 증운이 서로 통하고, 우운은 통하는 운이 없고, 침운, 담운, 염운, 함운이 서로 통하고, 상성, 거성, 입성이 이러한 예를 따르도록 정하였다. 대개 역시 바꿀 수 없는 이론으로 이제 차례대로 각 운의 아래에 붙여 썼다.

五七律絕，謂之近體，近者非古之謂也，不許通轉，格法裁嚴，俗用一入一出，謂之進退格，或絕句單通，謂之平沙落雁，原系陋習，不當效法。五七古詩，始可通轉，而亦不必用古叶。至於賦頌銘誄箴贊之類，可以略用古叶，譬如彝器之陳敦罍，雅樂之懸鐘磬，不廢古色古響，東人全不察此，強稱散韻，惟口是矣，縱有合作，不可入選。

오언과 칠언의 율시와 절구를 근체시라고 하는데 ‘近’이란 ‘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통전》을 허용하지 않고 시를 짓는 격식이 매우 엄하다. 일반적으로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나오는 것’을 ‘진퇴격’이라 하고 혹 절구의 ‘단통’을 ‘평사낙안’(평평한 모래톱에 기러기 떨어지다)이라 하는데, 원래 좋지 않은 습관이어서 본받을 것이 못된다. 오언(五言)과 칠언(七言)의 고시가 비로소 《통전》이 될 수 있으나 역시 옛날의 협운을 쓸 필요가 없고, 부, 송, 명, 뇌, 잠, 찬 등에 이르러서는 간단히 곽(古叶)을 쓸 수 있으니 비유하자면 이기(彝器, 종묘(宗廟)에 갖추어 두고

의식(儀式)에 쓰는 그릇)에 대뢰(敦甌, 黍稷을 담는 제기와 술그릇) 진열하는 것과 아악에 종과 경(磬, 돌이나 옥으로 만든 악기의 한 가지)을 다는 것과 같아서 고색과 고향이 폐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전적으로 이를 살피지 않고 억지로 산운이라 일컫고 오직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니 비록 두 형식을 합한 작품이 있어도 입선할 수가 없다.

至如七言古詩，押韻耀奇駢險，以俳弄爲致，不妨以一韻到底，而歌行興托，亦須迭用四聲，每以平聲，隔別 然後，音節頓挫，古之作家大率如此。

칠언 고시 같은 것은 압운할 때 기이함을 자랑하고 험한 데로 달려서 배오(俳弄, 익살과 기운)로 극치를 삼는 것은 하나의 운으로 끝을 맺어도 좋으나, 가행(歌行, 한시(漢詩)의 한 형식)에 흥을 돌굼에 있어서 역시 모름지기 4성을 번갈아 쓰되 언제나 평성으로 간격을 둔 뒤에야 음절이 꺾이게 되는 것이니 옛날 작가들이 대개 이와 같았다.

我東科詩，頗其音調蓋亦古詩之流，然古詩則通押入聲，科詩則一切不押，豈非陋規，且科賦不拘四聲，隨口通押，命曰嘴韻，無所顧忌。

우리나라 과거 시험의 시는 자못 그 음조가 대개 역시 고시의 흐름이다. 그러나 고시에서는 입성을 통압하였는데 과거 시험에서는 일체 압운하지 않았으니 어찌 고무한 규정이 아니라. 또 과거 시험의 부는 4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발음되는 대로 통압을 하고 취운(嘴韻)이라고 이름을 짓고 꺾리는 바가 없다.

至於增韻，固多好字，如支韻之鱗字獅字之類，及其見於經傳之字，本非迂僻，而不敢通押，亦甚無謂，自今主試者，詩則許押入聲及增韻，賦則依例通轉，俾存界限，期還大雅。

증운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좋은 글자가 많으니, 예를 들면 지(至)운의 ‘鱗’자 ‘獅’자 같은 것이고, 경전에 보이는 글자에 미쳐서는 본래 궁벽한 글자가 아니지만 감히 통압하지 않으니 또한 심히 잘못된 것이다. 이제부터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

시는 입성과 증운의 압운을 허용하고 부는 《통전》의 예를 따라서 한계선을 정하고
대아에 돌아가기를 기해야 될 것이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4.

참고문헌

- 강규선·황경수, 《훈민정음 연구》, 청운, 2006.
- 강신항, 《계림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1.
- 강신항, 《사성통해 연구》, 신아사, 1973
- 강신항, 《운해 훈민정음》, 형설출판사, 1997
- 강신항, 《한국의 운서》, 국어학회, 2000
- 강신항, 《한한 음음사 연구》, 태학사, 2003
-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 강신항, 《훈민정음 창제와 연구사》, 경진, 2009.
- 강주진, 《보한재 신숙주 평전》, 세광출판사, 1988.
- 곽충구, <중앙아시아 고려말 자료사 연구>, 《인문논총》 제58호, 서강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7.
- 구법진, 《이문역주》(상), (중), (하), 세창출판사, 2012.
- 국립부여박물관, 《고대 목관 그리고 산성》, 2009.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금속활자》, 국립박물관 소장 역사자료 총서 IV, 2006
- 권덕규, <정음 이전의 조선글>, 《한글》 동인지 창간호, 조선어문잡지, 1927.
- 권덕규, 《조선어문경위》, 광문사, 1923.
- 권오성·김세종, 《역주 난계선생 유고》, 국립국악원, 31~33쪽, 1993.
- 권인한,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1998.
- 권재선, 《한글연구》(1)(2), 우골탑, 1992.
- 권재선, 《훈민정음 이해》, 우골탑, 1998.
- 권재일, <세종학문의 국어학사적 이해>, 615돌 세종날 기념 전국 학술 발표 대회, 한글학회, 2011.
- 권종성, 《조선어정보론》, 사회과학출판사, 2005.
- 김광해 <훈민정음과 108> 《주시경학보》 제4호, 1989.
- 김광해, <훈민정음의 우연들>, 《대학신문》(서울대학교) 1982. 11. 19.
- 김광해, 《<조선왕조실록> 속의 108과 한글》, 《불교학논총》, 1998.
- 김구진, <여말선초 두만강 유역의 여진분포>, 《백산학보》 제15호, 1973.
- 김구진, <초기 모린 올랑합 연구>, 《백산학보》 제17호, 1974.
- 김근수, 《훈몽자회 연구》, 청록출판사, 1998
- 김동소, <무예제보연구>, 《한글》 251호, 한글학회, 2001.
- 김동소, <용비어천가의 여진어휘 연구>, 《국어교육연구》 9, 1977
- 김동소, 《동문유해 만주 문어 어휘》,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2
- 김동소, 《중세 한국어 개설》, 한국문화사, 2003
- 김무림, 《홍무정은 역훈 연구》, 월인, 1999
- 김무봉, 《<훈민정음> 원본의 출판 문화재적 가치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34호.
- 김무식, 《훈민정음의 음운체계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3.
- 김문웅, 《역주 구급방 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4.
- 김민수, 《주해 훈민정음》, 통문관, 1957.
- 김병제, <조선의 고유 문자 훈민정음>, 《조선어학》 1, 사회과학출판사.
- 김석득, 《우리말연구사》, 태학사, 2009.

- 김세중, 〈한글 자모 순서에 대하여〉,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 자모 순서》, 국립국어원 공동학술토론회 발표집, 2007.
- 김슬음,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목적에 대한 증충 답문〉, 《사회언어학》 제15권 1호, 2007.
- 김슬음,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2012
- 김연중, 《이형상의〈자학(字學)〉역주》, 푸른역사, 2008.
- 김영배, 〈연구자료의 영인, 훈민정음의 경우〉,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1994.
- 김영배, 《국어사 자료 연구》, 월인, 2000.
- 김영환, 《고구려의 언어 유산》,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 김영환, 《조선어 방언학》, 역락, 2013.
- 김완진, 《항가해독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김완진,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1996.
- 김윤경, 《조선어문자급어학사》, 조선기념도서출판사, 1938.
- 김정대, 〈외국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 연구〉, 《국어학》 43집, 2002.
- 김종택, 이문규, 〈15세기 국어 어두 합용병서의 음가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31집》, 1999.
- 김주원, 〈훈민정음 해례본의 결과 속〉, 《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07.
- 김주원, 《조선왕조실록의 여진족 족명과 인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김주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 《고려학회 논문집》 창간호, 1999.
- 김지용, 《경세훈민정음도설》 영인본, 《인문과학총서》 3, 연세대학교, 1968.
- 남중현,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1999.
- 남풍현, 《고대국어연구》, 몰레, 2009.
- 남풍현, 《구결연구》, 태학사, 1999.
- 남풍현, 《이두연구》, 태학사, 2000.
- 노명호 외, 《한국중세고문서연구》(상)(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 도수희, 〈용비어천가의 지명 주석에 대하여〉, 강신항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국어학논문집》, 1990.
- 도수희, 《백제어 어휘 연구》, 제이앤씨, 2009.
- 도수희, 《한국 지명 신연구》, 제이앤씨, 2010.
- 동북아역사재단,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소통》, 2011.
- 로버트 레인 그린·김한영 옮김, 《모든 언어를 꽃피게 하라》, 모멘토, 2013.
- 렴종률 《훈민정음에 개하여》, 한국문화사, 1982.
- 류렬, 《원본 훈민정음 풀이》, 보신각, (영인본), 1947.
- 문선규, 《조선관악어 연구》, 경인문화사, 1973.
- 문화재청, 《훈민정음언해본-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 2007.
- 박병재, 《고대국어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1.
- 박병재, 《홍무정운역훈의 신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 박승빈, 〈훈민정음 원서의 고구〉, 훈민정음 영인부록, 1943.
- 박재민, 《신라 향가 변증》, 태학사, 2013.
- 박종국,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4.
- 박종국, 《훈민정음 종합 연구》, 세종학연구원, 2006.

- 박지홍, <원본 훈민정음의 월점에 대한 연구>, 《부산한글》 제18집, 1999.
- 박형우, <훈민정음 '상형이자방고전'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53, 2008.
- 박태근, 《국어학사 연구》, 세종출판사, 2008.
- 박재원,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천문도와의 상관성>,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방중현, <향약명 연구>, 《일쇄 국어학논집》, 민중서관, 1972.
- 방중현, <훈민정음 해례 소개>, 조선일보, 1934.7.30~8.4
- 방중현의 <계림유사> 연구는 <동방학지>, 제2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55.
- 백두현,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과 <합부 훈민정음> 연구>, 조선학보 제214집, 조선학회, 2010.
- 백두현, <석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2005.
- 서재극, <훈민정음의 한자 사성 권표>, 《우리말의 연구》, 우골탐, 1994.
- 서재극,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형설출판사, 1995
- 서종학,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훈민정음>, 한글문헌자료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 소강철 지음·노영균 옮김, <황극경세서>, 대원출판사, 2002.
- 송철의, <한절표의 변천과 전통시대 한글교육>, 《세계속의 한글》, 박이정, 2008.
- 신정희·조규철·이문기, <울주 천전리 서석 명문의 재검토>, 《UJCT레포트》 8-1, 1983.
- 안명철, <훈민정음 제자 원리의 기호론>, 《국어학》 제45집, 2003.
- 안병호, <계림유사와 고려 시기 조선어>, 홍릉강조선민족출판사, 1985.
- 안병희, <숙종의 <훈민정음후서>>, 《훈민정음연구》, 114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안병희, <중세국어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규장각》 3집, 1979.
- 안병희, <훈민정음 이본>, 《진단학보》 42집, 1976.
- 안병희, <훈민정음 해례본 복원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6.
- 안병희,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 복제에 대하여>, 《진단학보》 84, 1997.
- 안병희,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
- 안병희,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
- 안병희, <최세진 연구>, 태학사, 2008.
- 안병희,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안춘근,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지학적 고찰>, 《한국어 계통론, 훈민정음연구》, 집문당, 1983.
- 양오진, <노걸대박통사연구>, 태학사, 2011.
- 양오진, <한학서 연구>, 박문사, 2010.
- 양희철, <항찰연구 12계>, 보고사, 2008.
- 여찬영, <훈민정음 언해본의 번역학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54집, 2010.
- 염종률·김영향, <훈민정음에 대하여>, 김일성대학출판사, 1982.
- 오쿠라 심페이, <조선어학사>, 도강서원, 1940.
- 왕하·류재원·최재영 역주, <역주 박통사언해>, 학고방, 2012.
- 유창균, <삼국시대 한자음>, 민음사, 1991.
- 유창균, <'상형이자방고전'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1996.
- 유창균, <동국정운>, 형설출판사, 1979.

- 유창균, 《몽고운략과 사성통고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 유창균, 《한국 고대 한자음의 연구1》,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0.
- 유창균, 《한국 고대 한자음의 연구2》,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 유창균,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
- 유창균, 《훈민정음 주석》, 형설, 1993.
- 이가원, 〈훈민정음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7집, 1994.
- 이광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본문(예의)와 해례'의 내용 관계 검토〉,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 논총》, 태학사, 2008.
- 이근수, 《훈민정음 신연구》, 보고서, 1995.
- 이기문,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2집,
- 이기문, 《훈몽자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 이명철, 〈한글날의 양력 환산〉, 《한글》(동인지) 제1권 5호, 1932.
- 이동립, 〈훈민정음의 창제 경위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논문집》, 1974.
- 이문기, 〈울주 천전리 서석 원, 추명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 제4집, 1983.
- 이상규, 〈Hangeul, The Greatest Letters〉, 《Koreana》 Vol. 21 No. 3, 2007.
- 이상규,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외래어 표기법〉 분석〉, 《국어국문학》 161호, 한국어국문학회, 2011.
- 이상규, 〈디지털 시대의 한글의 미래〉, 《우리말연구》 25호, 우리말연구학회, 2009.
- 이상규, 〈인문 지식·정보의 미래〉, 《미래가 보인다》, 국제미래학회, 박영사, 2013.
- 이상규, 〈잔본 상주본 훈민정음〉, 《한글》 제298집, 한글학회, 2012.
- 이상규, 〈“명왕신덕사이함빈”의 대역 여진어 분석〉, 언어과학연구 63집, 2012.
- 이상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인》 VOL. 23, 국가기록원, 2013.
- 이상규, 〈훈민정음〉 영인 이본의 권점 분석, 《어문학》 100호, 한국어국문학회, 2009.
- 이상규, 《Gyeoremalkeunsajeon: An Alternative to Inter-Korean Communication》, 《ASIA》 Vol. 2, No 3, 2007.
- 이상규, 《한글고문서연구》, 경진, 2011.
- 이상백, 《한글의 기원—훈민정음 해설—》, 통문관, 1957.
- 이상혁, 〈복쪽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 분석과 학문적 계보〉, 《우리어문연구》 39집, 2011.
- 이성규, 《몽학삼서의 몽고어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2002.
- 이승녕,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1-2, 1958.
- 이승녕, 《세종의 학문과 사상》, 아세아문화사, 1981.
- 이승녕, 《혁신국어학사》, 박영사, 1997.
- 이승재 외, 《각필구별의 해독과 번역》, 태학사, 2009.
- 이승재, 《고려시대 이두 연구》, 태학사, 1992.
- 이영월, 〈훈민정음 제자원리 재고〉, 《중국어언어연구》 제27집, 2006.
- 이용현, 《한국 목간 기초 연구》, 신서원, 2006.
- 이원식, 〈계림유사 연구〉, 《조선학보》 제67집, 1973.
- 이은규, 〈향약구급방의 국어학적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이정옥, 《백성은 물, 임금은 배》, 글누림, 2013.

- 이철수, <대명률직해의 이두 해석>(1)(2)(3), 인하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제16~18집, 1990~1991.
- 이청, 《합부 훈민정음》, 창란각.(석판본), 1946.
- 이현희, <훈민정음>,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1997.
- 이현의, 《<무예통보지>와 그 언해본》, 《진단학보》 91, 2001.
- 이형상 지음·김언중 역, 《역주 자학》, 푸른역사, 2008.
- 이형상, 《악학편고》, 형설출판사, 1976.
- 이호권, <한글 문헌 간행의 역사>, 《세계 속의 한글》, 박이정, 2008.
- 임용기, <훈민정음의 한자음 표기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인문과학》 제96집, 2012.
- 임홍빈, 2006.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이병근선생퇴임기념논문집》,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 장동익, 《송대여사자료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 전몽수·홍기문, 《훈민정음 역해》, 조선어문연구회, 1949.
- 정경일, 《한국 문서의 이해》, 아카넷, 2002.
- 정광, 《몽고자운 연구》, 박문사, 2009.
- 정광,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2006.
- 정광, 《역학서 연구》, 제이앤씨, 2002.
- 정광,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역락, 2012.
- 정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2005.
- 정광·남권희·양오진, <원대 한어본 <구본노걸대>-신 발글 역학서 자료, <구본노걸대>, 경북대학교출판부, 2000.
- 정광·양오진, 《노박집람 역주》, 태학사, 2011.
- 정광·윤세영, 《<사역원 역학서 책판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8.
- 정광·정승혜·양오진, 《이학지남》, 태학사, 2002.
- 정병석 역주, 《주역》, 을유문화사, 2010.
- 정연찬, <세종대의 한자 사성 표기법>, 《국어국문학》 49, 50호, 국어국문학회, 1970.
- 정연찬, <해제 <월인석보>(제1, 2)>, 《월인석보영인본》,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1972.
- 정연찬, 《홍무정운역훈의 연구》, 일조각, 1977.
- 정우영, 《<훈민정음 언해>의 이본과 원본 재구에 관한 연구》, 《불교어문론집》 제5집, 2000.
- 정우영, 《<훈민정음> 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제129호, 국어국문학회, 2001.
- 정인보·정양완 옮김, 《답원문록》, 상·중·하, 태학사, 2006.
- 정인승, <고본 훈민정음 연구>, 《한글》 82집, 1940.
- 정재호, 장정수, 《송강가사》, 신구문화사, 2005.
- 제프리 샘슨 저·신상순 역, 《세계의 문자 체계》, 하 | 나 문화사, 2000.
- 조규태, 《용비어천가》, 한국문화사, 2007.
- 조규태, 《훈민정음》, 형설출판사, 2008.
- 조선어학회, 《훈민정음》 영인본, 보진제, 1946.
- 채원정 저·이후영 역, 《울려신서》, 문진, 2011.
-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범우, 2012.

- 최기호, 《한국어 변천사》, 로담, 1994.
- 최기호, 〈한글 창제 원리와 자모 순서〉, 토론문, 2007.
- 최범영, 《말의 무늬》, 종려나무, 2010.
- 최병수, 《조선어글자공학》, 사회과학출판사, 2005.
- 최세화, 〈세종어제훈민정음 서문에 대하여〉, 《어문연구》17권 4호, 한국어문연구회, 1989.
- 최세화, 《〈훈민정음〉 낙장의 복원에 대하여》, 《국어학》 29호, 국어학회, 1997.
- 최현배, 《한글갈》, 정음사, 1942.
- 한국어교육학회, 《고려조선연구논문집》, 제립유사 9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06.
- 한글학회, 《훈민정음》 영인본, 한글학회, 1997.
- 허웅, 《옛말본》, 과학사, 1969.
- 홍기문, 《훈민정음발달사》, 서울신문사출판국, 1946.
- 홍윤표, 〈훈민정음의 ‘상형이자방고전’에 대하여〉, 《국어학》 46, 2005.
- 홍윤표,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 태학사, 1993.
- 홍현보, 〈우리 사전의 왜곡된 ‘언문’ 뜻풀이에 관한 연구〉, 《한글》 제298호, 2012.
- 주나쓰투(照那斯圖), 〈훈민정음 기자와 파스파 문자와의 관계〉,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국제학술대회》, 한국중앙연구원, 2008.
- 菅野裕臣, 〈훈민정음과 다른 문자 체계의 비교〉, 안병희선생회갑기념논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 후지에다 아키라 지음·오미영 옮김, 《문자의 문화사》, 박이정, 2006.
- Albertine Gaur(강동일 옮김), 《A history of writing》, 새날, 1995
- Christopher I. Beckwith, 《Koguryo: The Language of Japanes Continental Relatives》, Leiden Boston: Brill, 2004
- Abel-Rémusat, J. P.(1820), Recherche sur les Langues Tartares, Paris.
- Aston, W. G.(1880), Proposed Arrangement of the Korean Alphabet,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VIII
- _____(1895), The Ōnmun—when Invented?,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X XIII
- Bell, E. C.(1867), Visible Speech, Knowledge Resources Inc.
- Berger, P.(1891), Histoire de l'écriture dans l'antiquité, Paris.
- Bolinger, D.(1968/1975), Aspects of Language(2nd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Chao, Y. R.(1968), Language and Symbolic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M.(1989), La grande invention de l'écriture et son évolution, Paris, 3 Vols.
- Coulmas, F.(1989),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Blackwell.
- _____(2003), Writing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urant, M.(1894—1896),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 Dallet, C.(1874),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 Daniels, P. T.(1996), The study of Writing Systems, in Daniels, P. T. and W. Bright(eds.)(1996)

- _____(2001). Writing Systems, in Aronoff, M. and J. R. Hayes (eds.), *The Handbook of Linguistics*, Blackwell.
- and W. Bright(eds.)(1996). *The World's Writing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1–129
- DeFrancis, J.(1989). *Visible Speech: The Diverse Oneness of Writing System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iringer, D.(1948). *The Alphabet: A key to the History of Mankind*,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 _____(1968). *The Alphabet: A key to the History of Mankind*(3rd edition)Vol. I, New York: Funk & Wagnalls.
- P. Andreas Eckardt(1928), *Der Ursprung der Koreanischen Schrift*,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XXII, Teil c.
- Faulmann, C.(1878), *Buch der Schrift*, Wien.
- French, M. A.(1976). *Observations on the Chinese Script and the Classification of Writing-Systems*, Haas(ed.), *Writing without Letter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Fromkin, V. and R. Rodman(1993). *An Introduction to Language*(5th edi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Gabelentz, G. von der(1886). *Koreanische Sprache*, Ersch, S. und J. G. Gruber(eds.), *Allgemeine Encyclopädie der Wissenschaften und Künste*.
- _____(1892). *Zur Beurtheilung des Koreanischen Schrift- und Lautwesens*, Sitzungsberichte der Königlich-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33.
- Gale, J. S.(1894). *Korean Grammatical Forms*(*한국문법*), Seoul: Trilingual Press.
- _____(1903). *Korean Grammatical Forms*(*한국문법*)(2nd edition),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 _____(1912). *The Korean Alphabet*,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V, Part I.
- Gaeng, P. A.(1971).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Gaur, A.(1984/1992). *A History of Writing*(revised edition), New York: Cross River Press
- Gelb, I. J.(1952/1963). *A Study of Writing*(revise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aff, W. L.(1932). *Language and Languages,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Griffis, W. E.(1882).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Gützlaff, K. F. A.(1833),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s*, Chinese Repository Vol. I, pp. 276–279.
- Haguenauer, Ch.(1933). *Système de transcription de l'alphabet Coréen*, dans *Journal Asiatique*, Janvier–Mars, pp. 145–161.
- _____(1948). *L'écriture Coréenne*, dans *Notices sur les caractères étrangers anciens et modernes*, pp. 391–395, Paris: Imprimerie Nationale.

- _____(1952). *Le Coréen*, Meillet, A. et M. Cohen(nouvelle édition), *Les Langues du Mond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pp.433–446.
- Hannas, W. C.(1997). *Asia's Orthographic Dilemm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ooker, J.(1990). Introduction, J. Hooker(introduction), *Reading the Past–Ancient Writing from Cuneiform to the Alphabe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6–13.
- Hughes, J. P.(1962). *The Science of Language*, New York: Random House.
- Hullbert, H. B.(1892). *The Korean Alphabet*, *Korean Repository* Vol. I, 1(January).
- _____(1896). *The Korean Alphabet*, *Korean Repository* Vol. III, 3(March)
- _____(1902). *Rémusat on the Korean Alphabet*, *Korea Review* Vol. 2, No. 5.
- _____(1906).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Languages of India*, 김정우 옮김(1998),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Jensen, H.(1935/1969). *Sign, Symbol, and Script: An Account of Man's Efforts to Write*, trans. by George Unwin, 3rd ed.(revised and enlarge), London: Allen & Unwin.
- Katzner, K.(1975). *The Language of the World*, New York: Funk & Wagnalls.
- King, R.(1996). *Korean Hankul*, in Daniels P. T. and W. Bright(eds.)(1996), pp.218–227.
- Klaproth, H. J.(1832). *Aperçu de l'origine des diverses écritures de l'ancien monde*.
- Lacouperie, T. de(1892). *On the Corean, Aïno and Fusang Writings*, *T'oung Pao* Vol. III.
- Ledyard, G.(1966/1998).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신구문화사에서 다시 발간(1998)
- Lee, Iksop and S. R. Ramsey(2000). *The Korean Languag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1880),*Dictionnaire Coréen–Français*(한불사전), Yokohama: Imprimerie de L. Lévy et S. Salabelle.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1881),*Grammaire Coréene*, Yokohama: Imprimerie de L. Lévy et S. Salabelle.
- McCawley, J. D.(1966). *Review of Yamagiwa*(1964), *Language* 42–1, pp. 170–175.
- Medhurst, W. H.(1835). *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Batavia.
- Moorhouse, A. C.(1953). *The Triumph of the Alphabet: A History of Writing*, New York: Henry Schuman.
- Mountford, J. D.(1990). *Language and Writing–Systems*, Collinse, N. E.(ed.), *An Encyclopaedia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pp. 701–739.
- Muller, S. H.(1964). *The World's Living Languages: Basic Facts of Their Structure, Kinship, Location and Number of Speakers*,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 Nakanish, A.(1980).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Charles E. Tuttle Company.
- Pedersen, H.(1924/1962). *The Discovery of Language: Linguistic Sci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trans. by J. W. Spargo(1962),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Pei, M.(1965). *The –Story of Language*(revised edition), J. B. Lippincott Company.

- Pihl, M. R. Jr.(1983ㄱ). Westerners on Korean,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ed.), The Korean Language, Seoul: The Si-sa-yong-o-sa Publisher, Inc., pp. 55-70.
- _____(1983ㄴ). The Alphabet of East Asia,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ed.), The Korean Language, Seoul: The Si-sa-yong-o-sa Publisher, Inc., pp. 109-120.
- Pulleyblank, E. G.(1995). History of East Asian Phonetics, Koerner, E. F. K. and R. E. Asher(eds.), Concise History of the Language Sciences-From the Sumerians to the Cognitivists-, Pergamon, pp. 51-56.
- Rainer Dormels, <홍무정운역훈의 정음 연구와 훈민정음 창제에 미친 영향>, <국어사와 한자음>, 박이정, 2006.
- Ramstedt, G. J.(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 Reischauer, E. O. and J. K. Fairbank(1958).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Rosny, L. de(1864).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Journal Asiatique(SixiemeSerie, Tome III), pp. 287-325.
- _____(1866).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II), Journal Asiatique(Sixieme Serie, Tome VIII), pp. 441-472.
- Ross, J.(1882). Korean Speech, Shanghai & Hongkong: keiyy & Walsh, Yokohama: kelly & Co.
- Roth, P. L.(1936). Grammatik der Koreanischen Sprache, TokWon, Korea: Abtei St. Benedikt.
- Sampson, G.(1985). Writing Systems: A Linguistics Introd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ott, J.(1887).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언문말책).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 _____(1891). English-Corean Dictionary,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 _____(1893).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ion Grammar(2nd edition), Seoul: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 Senner, W. M.(ed.)(1989). The Origins of Writing,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iebold, P. F. von(1850?), Nippon.
- Sproat, R.(2000). A Computational Theory of Writing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I.(1883). The Alphabet: An Account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Letters Vol. I, Semitic Alphabets, London.
- and D. R. Olson(eds.)(1995). Scripts and Literac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and K. Park(1995). Differential Processing of Content Words and Function Words: Chinese Characters vs. Phonetic Scripts, in Taylor, I,nd D. R. Olson(eds.)(1995), pp. 185-197.
- and M. M. Taylor(1995). Writing and Literacy in Chinese, Korean and Japane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Trager, G. L.(1972). Language and Languages,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mpany.
- _____(1974). Writing and Writing System, in Seobeok, T. A(ed.),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Vol. 12, Linguistics and Adjacent Arts and Sciences, The Hague: Mouton, pp. 373-496.
- Underwood, H. G.(189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한영문법). Yokohama:

kelly & Walsh, Ltd.

Vos, F.(1964). Korean Writing: Idu and Han'gŭl, in Yamagiwa(ed.)(1964).

Wemyss, S.(1950). The Languages of the World: Ancient and Modern, New York:Wehman Bros. Publishers.

Wylie, A.(1860). On an Ancient Inscription in the Neu-chih Languag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VII

Humbert, H.B.(1905)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Dravidian Dialects in India>, Seoul.

Yamagiwa, J. K.(ed.)(1964). Papers of the CIC Far Eastern Language Institute, The University of Michigan.

저자 | 방중현 方鍾鉉 (1905~1952)

평안북도 정주 출생. 호는 일사(一叟). 1926년 오산학교를 거쳐, 1934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어학 및 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입학하여 국어학 및 언어학 연구.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한글학회 이사, 서지학회 회장 등 역임. 방중현 선생의 학문은 국어학사 연구, 방언 조사, 속담집 간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저서에는 《훈몽자회고》, 《계림유사 연구》 외 다수가 있으며, 국어사 연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훈몽자회》에 관하여 최초로 상세한 주해를 하였고, 《계림유사 연구》는 중국자음을 이용, '계림유사어석'의 방법을 제시한 선구적 업적을 쌓았다.

주해 | 이상규 李相揆

경상북도 영천 출생.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재 경북대 인문대학 교수이며, 제7대 국립국어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언조사연구원 및 울산대 조교수, 도쿄대 대학원 객원연구교수, 중국 해양대학 고문교수, 남북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이사 등을 거쳤다. 저서로 《한글고문서연구》, 《경북방언사전》(이상, 학술원 우수도서), 《언어지도의 미래》(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한국어방언학》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훈민정음 영인 이본의 권점 분석》, 《디지털 시대 한글의 미래》 외 다수가 있다. 대통령표창장(2004), 외솔학술상(2011), 봉문학술상(2012)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훈민정음통사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8월 28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편집 | 이상민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34-1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